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10-01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제주시 도련1동

1

구술: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전사·표준어 대역: 김순자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1-1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

-제주시 도련1동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25
3. 밭일 ····· 40
4. 들일 ····· 99
5. 바다일 ····· 156
6. 의생활 ····· 183
7. 식생활 ····· 238
8. 주생활 ····· 380
9. 신앙 ····· 438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른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친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이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이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배당함으로써 표준어 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원만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소속과 전공, 연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과 구술 제보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비고(담당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5. 사업 추진 과정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래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 통일하였다. 매달 모임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를 거치며 통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불능인 경우는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기로 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의 띄어쓰기를 같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하고, ‘허는구나, 헷구나’ 등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술자료의 @는 조사사, #은 구술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며, 첫 줄은 ‘들여쓰기’ 하기로 한다.

-장 구분을 할 때는 enter를 2회 치기로 한다.

한편 월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사된 모든 구술 자료는 표준어 대역을 한다.
- 조사된 내용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를 번갈아 가며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경우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 ’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힌다.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인 경우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김순자 #1: 양상수 #2: 이술생 #3: 이영숙 #4: 김옥순, #5 이성칠)

1. 조사 마을

101001 @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련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라예? 이 마을이 언제 어떻게 형성됫덴 헌 말 알아지는 데로 골아줍서.(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련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이 마을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다고 한 말 알아지는 데로 말해 주십시오.)

101001 #1 예, 그건 한 칠백년 전에 이제 그 설촌이 시작이 되었다고 헙니다.(예, 그건 한 칠백년 전에 이제 그 설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01001 @ 예, 제주도말로예, 삼촌?(예, 제주도말로요, 삼촌?)

101001 #1 예. 칠백년 전에 설촌이 뒈엇는데 이제 그루후에 이제 성씨들이 여러 성씨들이 많이 와가지고 현재는 흔 팔십여 성씨. 경 뒈서마씀.(예. 칠백년 전에 설촌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씨들이 여러 성씨들이 많이 와가지고 현재는 한 팔십여 성씨. 그렇게 되었어요.)

101002 @ 예. 그러면은 칠백년부터 허는데 설촌할 때 어떤 성씨들이 헷덴 말도 이신가마씨?(예. 그러면 칠백년부터 하는데 설촌할 때 어떤 성씨들이 했다는 말도 있는가요?)

101002 #1 잠깐. 이제 유씨.(잠깐. 이제 유씨.)

101002 @ 예.(예.)

101002 #1 김씨.(김씨.)

101002 @ 예.(예.)

101002 #1 또 강씨.(또 강씨.)

101002 @ 예.(예.)

101002 #1 그 다음 양씨. 고씨. 마 대략적으로 요런 순서가 뭼서양.(그 다음 양씨. 고씨. 마 대략적으로 요런 순서가 되고 있어요.)

101002 @ 예. 게믄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느 성씨가 젤 하우꽈? 요즘은, 요즘 도련?(예.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느 성씨가 젤 많습니까? 요즘은, 요즘 도련?)

101002 #1 요즘은 역시 김씨, 고씨 이제 그렇게덜 잇어난디 이제 그 사방으로 이 젊은 사름이 전부 떠나부려 놓니까 모든 성씨가 골고로 그자 많토 아녀고 족도 아녀고 그자 경 뒈어서마씀.(요즘은 역시 김씨, 고씨 이제 그렇게들 있었었는데 이

제 그 사방으로 이 젊은 사람이 전부 떠나버려 놓으니까 모든 성씨가 골고루 그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되었어요.)

101002 @1 이젠 성씨가 아까 뭐 몇 가지지?(이젠 성씨가 아까 뭐 몇 가지지?)

101002 #1 혼 팔십.(한 팔십.)

101002 @ 팔십여 성예? 그.(팔십여 성요? 그.)

101002 #1 그것도 그 성씨가 내가 그전에 반장을 헤봣는데.(그것도 그 성씨가 내가 그전에 반장을 해봤는데.)

101002 @ 예.(예.)

101002 #1 반장을 여기서 여기 도련에 일반인디 여기가.(반장을 여기서 여기 도련에 일반인데 여기가.)

101002 @ 예.(예.)

101002 #1 우리 반 귀역만 조사해 보니까 한 이십여 성씨가 되니까, 아 이젠 그것에 추미가 부떤. 또 뚠 반에는 어떤 성씨가 잇나 헤서 영 그 저 수소문헨 보니까 혼 팔십여 성씨가 뒈연에.(우리 반 구역만 조사해 보니까 한 이십여 성씨가 되니까, 아 이젠 그것에 취미가 붙어서. 또 다른 반에는 어떤 성씨가 있나 해서 이렇게 그저 수소문해서 보니까 한 팔십여 성씨가 되어서.)

101002 @ 그런.(그런.)

101002 #1 상당이 많은 성씰 가졋는데 기씨같은 분들은 에 대개 그 여자 어른덜이 왓다가 이제 가버리니깐 지금 현재 남자로선 없는 거 같고.(상당히 많은 성씰 가졌는데 기씨같은 분들은 에 대개 그 여자 어른들 왔다가 이제 가버리니깐 지금 현재 남자로선 없는 거 같고.)

101002 @ 그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가 도련일동 아니우까예? 여기가 옛날 이름 뭐라마씨?(그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가 도련일동 아닙니까? 여기가 옛날 이름 뭐예요?)

101002 #1 도련드르[1].('도련드르'.)

101002 @ 지금 도련드르는 게면 몇 명 정도 살고 있고 아까 일반이라고 헷는데 몃 개 반으로 형성되었는지.(지금 '도련드르'는 그러면 몇 명 정도 살고 있고 아까 일반이라고 했는데 몇 개 반으로 형성되었는지.)

101002 #1 지금 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멧 명이 산다는 건, 건 확실하지 못허고,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 도련드르에만 사는 그 분들은 한 백삼십여 호.(지금 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몇 명이 산다는 건, 건 확실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 '도련드르'에만 사는 그 분들은 한 백삼십여 호.)

101002 @ 아아.(아아.)

101002 #1 예. 혼 백설 남은 호가 이제 살고 잇고.(예. 한 백서른 남은 호가 이제 살고 있고.)

---

1) '도련드르'는 제주시 도련동의 옛 지명이다.

101002 @ 옛날 어른덜예?(옛날 어른들요?)

101002 #1 옛 어른덜. 인제 그 외에 현재는 이 아파트나 또 이 저 빌라들이나 이렇게덜 많이 와 놓니깐 거기에 그 온 어른덜은 우리가 얼마가 사는지 걸 모르커라마씸.(옛 어른들. 이제 그 외에 현재는 이 아파트나 또 이 저 빌라들이나 이렇게들 많이 와 놓으니깐 거기에 그 온 어른들은 우리가 얼마가 사는지 걸 모르겠어요.)

101002 @ 옛날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분들이 한 백삼십 여호고예. 아까 반은 멧 개로 구성뒌마씨? 옛날 요즘 사름덜 말고.(옛날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분들이 한 백삼십여 호고요. 아까 반은 몇 개로 구성되었어요? 옛날 요즘 사람들 말고.)

101002 #1 옛날은 여덟 개 반양.(옛날은 여덟 개 반요.)

101002 @ 여덟 개예. 으.(여덟 개요. 으.)

101002 #1 여덟 개 반.(여덟 개 반.)

101002 @ 또 자연마을덜도 이신가마씨? 웃동네[2]니 알동네[3]니 허는 식으로?(또 자연마을들도 있는가요? '웃동네'니 '알동네'니 하는 식으로?)

101002 #1 여긴 동카름[4] 중동네 섯동네.(여긴 '동카름' '중동네' '섯동네'.)

101002 @ 예.(예.)

101002 #1 동부락 중부락 서부락.('동부락' '중부락' '서부락'.)

101002 @ 음.(음.)

101002 #1 에.(에.)

101004 @ 그러면 세 개 부락으로 이제 이루어졋다는 거라예. 예, 알아수다.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도련드르 주변에 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내창이라든가 아니면 바위 굴 헤갖고 유명헌 거 요런 것들 좀[쫌] 골아줍서.(그러면 세 개 부락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도련드르' 주변에 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내라든가 아니면 바위 굴 해가지고 유명한 거 요런 것들 좀 말해주십시오.)

101004 #1 이제 그런 것은 이 서쪽에 삼수샛내[5]는 이제 항몽시대에도 거기서 이제 싸움을 헷다는 그런 그 구전이 잇고.(이제 그런 것은 이 서쪽에 '삼수샛내'는 이제 '항몽시대'에도 거기서 이제 싸움을 했다는 그런 그 구전이 있고.)

101004 @ 예.(예.)

101004 #1 입으로 전해.(입으로 전해.)

101004 @ 삼수새?('삼수새'?)

101004 #1 으, 삼수샛내에서. 그 항몽 그 당시 에, 김, 김수 장군. 아, 김.(으, '삼수샛내'에서. 그 항몽 그 당시 에, 김, 김수 장군. 아, 김.)

101004 @ 김수.(김수.)

101004 #1 김수 장군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저 밑엣 동네 밑에서 으 삼양삼동 가

2) '웃동네'는 마을 중심에서 위쪽 마을을 가리킨다.
3) '알동네'는 마을 중심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4) '동카름'은 '동쪽 마을'의 의미다.
5) '삼수샛내'는 도련동 지명 가운데 하나다.

까운 디서 싸움헷다는 그런 그 구전이 잇는가 하면은.(김수 장군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저 밑에 동네 밑에서 으 삼양삼동 가까운 데서 싸움했다는 그런 그 구전이 있는가 하면.)

101004 @ 예.(예.)

101004 #1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찾알 봐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입으로 전허는 말이니까.(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찾아 봐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입으로 전하는 말이니까.)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1 지금 그렇게 되고. 다시 잠깐이.(지금 그렇게 되고. 다시 잠깐.)

101004 #1 지금 벤밧[6]이라고 허면은.(지금 '벤밧'이라고 하면은.)

101004 @ 예.(예.)

101004 #1 동쪽으로 나가민 거기서는 옛날 그 옆에 망내미동산[7]이 잇는데.(동쪽으로 나가면 거기서는 옛날 그 옆에 '망내미동산'이 있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망내미는 그 저 옛날 사형수, 사형허던 사람.('망내미'는 그 저 옛날 사형수, 사형하던 사람.)

101004 @ 예.(예.)

101004 #1 경헌 사람들이 이제 있엇다고 허고, 벤밧은 이제 사람 그 목을 짤라난 곳이 아닌가.(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고, '벤밧'은 이제 사람 그 목을 잘랐던 곳이 아닌가.)

101004 @ 음.(음.)

101004 #1 그리고 그 옆에 마 아까 고 동장님하고 이제 우리가 그 묘 조사도 헤봣는데, 무덤덜 조사를 헤봤는데 그 옆에 무덤덜이 궹장히 많아. 지금은 과수원헤서 전부 그 무덤이 없어져 부럿지마는.(그리고 그 옆에 마 아까 고 동장님하고 이제 우리가 그 묘 조사도 해봤는데, 무덤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옆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은 과수원해서 전부 그 무덤이 없어져 버렸지마는.)

101004 @ 으, 전에예?(아, 전에요?)

101004 #1 예전에 이제 즉 말허면 한 칠십 년대 초.(예전에 이제 즉 말하면 한 칠십 년대 초.)

101004 @ 예.(예.)

101004 #1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조사해 보니까 거기 무덤도 많고 허니까, 그 다시 새나물이라고 해서.(이제 그때는 이제 그 조사해 보니까 거기 무덤도 많고 하니까, 그 다시 '새나물'이라고 해서.)

101004 @ 음.(음.)

101004 #1 그 도련을 이렇게 다스리는 밖에.(그 도련을 이렇게 다스리는 밖에.)

---

6) '벤밧'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7) '망내미동산'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101004 @ 예.(예.)

101004 #1 물인 거 같아. 새나물[8]헌 게. 벤방, 벤방 새 자[짜] 놔가지고. 생수니 뭐니 지금 허는데, 내가 생각헐 때는 변방 새 자로 변두리에 잇는 물이라고 헤서 이제 새나물이 아닌가.(물인 거 같아. '새나물'하는 게. 변방, 변방 새 자 놔가지고. 생수니 뭐니 지금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변방 새 자로 변두리에 있는 물이라고 해서 이제 '새나물'이 아닌가.)

101004 @ 예.(예.)

101004 #1 이제 그렇게 들고. 에 요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똑허게 이 저 마을, 마을로 들어오면은 이제 웃수영[9]이라고 허는 곳이 있는데.(이제 그렇게 들고. 에 요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똑하게 이 저 마을, 마을로 들어오면 이제 '웃수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웃수영은 옛 어른덜이 경기장.('웃수영'은 옛 어른들이 경기장.)

101004 @ 음.(음.)

101004 #1 경기장을 이제 사전엘 춪아보면은 수영이 경기장입디다.(경기장을 이제 사전엘 찾아보면 '수영'이 경기장입디다.)

101004 @ 예.(예.)

101004 #1 경기장을 허면서 그 경기장을 수영을 받침해주는 것이 관동산[10][관똥산].(경기장을 하면서 그 경기장을 수영을 받침해주는 것이 관동산.)

101004 @ 예.(예.)

101004 #1 다시 저 앞동산.(다시 저 앞동산.)

101004 @ 예.(예.)

101004 #1 그 양쪽으로 이제 관람헐 수 잇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잇고, 다시 그 앞에 저대왓[11]이 잇고 베지왓[12]이 잇고.(그 양쪽으로 이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 다시 그 앞에 '저대왓'이 있고 '베지왓'이 있고.)

101004 @ 음.(음.)

101004 #1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저대왓은 그때 그 경기헐 때에 그 경기허는 사름덜을 즐겁게 허기 위해서.(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대왓'은 그때 그 경기할 때에 그 경기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101004 @ 계속 굴읍서.(계속 말하십시오.)

101004 #1 음. 그 게난 저대라는 그 자체가 지금은 그런 그 저대가 뭐인고 요즘 사름덜은 헐 건데, 옛날 기생덜. 그 그날 놀이허는 사름덜을 상당히 즐겁게 허기 위해서 술자리 베풀어주고 이제 그 뭐 허던 것이고, 대지왓[13]이라고 그러면은 그 뭐

8) '새나물'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9) '웃수영'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10) '관동산'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11) '저대왓'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왓'은 표준어 '밭'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2) '베지왓'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13) '대지왓'은 도련동의 지명의 하나다.

인가 그날 그 기록을 작성해서 이제 상부에 이제 보내던 그 밧으로 이제 생각이 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서쪽으로 또 오면은 에 원단이ᄆᆞ루라고 헤가지고 이 새해 정월이 뒈면은 그 마을이 편안험을 빌기 위헤서 제를 모셧, 모셧던 곳이 잇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밑으로 와서 불미왓[14].(음. 그 그러니까 '저대'라는 그 자체가 지금은 그런 그 '저대'가 뭐인가 요즘 사람들은 할 건데, 옛날 기생들. 그 그날 놀이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자리 베풀어주고 이제 그 뭐 하던 것이고, '대지왓'이라고 그러면은 그 뭐인가 그날 그 기록을 작성해서 이제 상부에 이제 보내던 그 밭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서쪽으로 또 오면 에 '원단이마루'라고 해가지고 이 새해 정월이 되면 그 마을이 편안함을 빌기 위해서 제를 모셨, 모셨던 곳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밑으로 와서 '불미왓'.)

101004 @ 예.(예.)

101004 #1 이제 그 불무 모든 그 병기를 만들고, 다시 그 옆 밧이 묵, 묵고왓[15] [묵꼬왇]. 묵고왓은 무슨 밧인고 하면은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 넣었든 그.(이제 그 풀무 모든 그 병기를 만들고, 다시 그 옆 밭이 묵, '묵고왓'. '묵고왓'은 무슨 밭인가 하면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 넣었든 그.)

101004 @ 예.(예.)

101004 #1 무고. 무기고 이제 이런 밧이 잇는가 하면은 그 옆에 활대왓[16]이라고 이제 그 활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던 대밧이 잇는데, 현재는 없지마는 그 대가. 다시 그 옆에 포수터[17]라고 헤가지고.(무고. 무기고 이제 이런 밭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 '활대왓'이라고 이제 그 활을 만들기 위해서 키우던 대밭이 있는데, 현재는 없지만 그 대가. 다시 그 옆에 '포수터'라고 해가지고.)

101004 @ 음.(음.)

101004 #1 건 포수가 옛날에는 우리가 알 때는 포수 허면 꿩바치로 생각을 헷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총을 다루던 분들을 보고 이제 포수라고 옛날은 헷던 거. 거기에 살던 분이 수진무 벼슬까지 헤엿고.(건 포수가 옛날에는 우리가 알 때는 포수 하면 '꿩바치'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총을 다루던 분들을 보고 이제 포수라고 옛날은 했던 거. 거기에 살던 분이 '수진무' 벼슬까지 했었고.)

101004 @ 음.(음.)

101004 #1 수진무[18] 벼슬까지 헤엿고. 이제 다시 또 거기에 다시 안병대[19][안뼝대]. 지금으로 말허면 소연병장, 작은 병뒤 훈련 가르치던 곳. 또 그 밑으로 오면은 베리왓이 잇는데.('수진무' 벼슬까지 했었고. 이제 다시 또 거기에 다시 '안병대'. 지금으로 말하면 소연병장, 작은 '병뒤' 훈련 가르치던 곳. 또 그 밑으로 오면 '베리

14) '불미왓'은 '불미+왓' 구성으로, '불미'는 '풀무', '왓'은 '밭'의 제주어다. '불미왓'은 '풀무가 있던 밭'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15) '묵고왓'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16) '활대왓'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17) '포수터'는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18) '수진무'는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19) '안병대'는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왓’이 있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베리왓[20]은 뭐이고 허면 지금 에, 줄다리기 하던 밧. 뭐 옛 어른덜이 그물코가 만이라도 베릿줄 없으면 못헌다.(‘베리왓’은 뭐인가 하면 지금 에, 줄다리기 하던 밭. 뭐 옛 어른덜이 그물코가 만이라도 벼리 없으면 못한다.)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1 이제 그런 말이 잇는데 베릿줄이라고 허는 건 우리가 즉 말허자면 그 줄달리기허는 그 줄을 말허는 거. 그리고 에, 그 바로 옆 밧이 담든밧. 이 즉 말하면 돌 들르는 거. 그런 그 저 경기덜이 순, 이 도련들 안넨 이 경기장으로 꽉 차 잇어.(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벼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즉 말하자면 그 줄다리기하는 그 줄을 말하는 거. 그리고 에, 그 바로 옆 밭이 ‘담든밧’. 이 즉 말하면 돌 드는 거. 그런 그 저 경기들이 순, 이 도련들 안에는 이 경기장으로 꽉 차 있어.)

101004 @ 음.(음.)

101004 #1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베리왓.(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베리왓’.)

101004 @ 예.(예.)

101004 #1 아 저 거세기, 베리왓이 아니고 수위집터[21].(아 저 거시기, ‘베리왓’이 아니고 ‘수위집터’.)

101004 @ 수위집터.(‘수위집터’.)

101004 #1 으. 게믄 저 뒷동산에 이제 수위집터가 잇는데 수위집턴 그 경비허는 사름덜이 살면서 거기에 사방을 그 살피던.(으. 그러면 저 뒷동산에 이제 ‘수위집터’가 있는데 ‘수위집터’는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에 사방을 그 살피던.)

101004 @ 예.(예.)

101004 #1 ᄉᆞ방데레 베리던 경헌 이제 터. 다시 그 옆에 가면은 굴동산[22]이라고 잇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고.(사방으로 보던 그런 이제 터. 다시 그 옆에 가면은 ‘굴동산’이라고 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고.)

101004 @ 음.(음.)

101004 #1 게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난 것도 같으고. 그것도 없고. 다시 또 이 동쪽으로 돌아오면은 절왓이 잇는가하면은 그 절왓[23]은 에 서 목사.(그러니까 거기서 뭘 만들었던 것도 같고. 그것도 없고. 다시 또 이 동쪽으로 돌아오면 ‘절왓’이 있는가하면 그 ‘절왓’은 에 서 목사.)

101004 @ 예.(예.)

101004 #1 이 김녕 뱀을 죽인.(이 김녕 뱀을 죽인.)

101004 @ 서 목시.(서 목사.)

---

20) ‘베리왓’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21) ‘수위집터’는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22) ‘굴동산’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23) ‘절왓’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절이 있던 밭’이어서 붙은 지명이다.

101004 #1 그때에 그 절을 없애는데 에 거기 절간도 같이 없어졋다고 헙니다.(그때에 그 절을 없애는데 에 거기 절간도 같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101004 @ 음.(음.)

101004 #1 겐디 그때 절이 같이 없어졋는데 다시 그 옆에 서와기동산[24]이라고 이제 그 어린아이덜을 이제 글 가르치던 동산. 반반허고 사방 보기 좋고 뭐 허니깐. 그런 그렇게 뒈고. 다시 수용이왓[25]이라고, 수용밧이라고 헤가지고 거기에는 노인덜을 모여서 이제 잔치허고 뭐 헷던 그런 그 밧. 또 저 우로 이제 남쪽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그 차례로 넘어오지 못허고 넹겨부럿는데 미렝이왓[26]이라고 허는데, 미렝이왓을 우리가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그 난리나 어떠한 그 부락에 그 좀 좋지 아년 그런 일이 잇을 때 노인들을 이제 그쪽으로 전부 모여서 수용헤서 '어르신덜랑 여기 가만이 시민 우리가 싸움을 허쿠다.' 경 허던 곳.(그런데 그때 절이 같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 옆에 '서와기동산'이라고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글 가르치던 동산. 평평하고 사방 보기 좋고 뭐 하니깐. 그런 그렇게 되고. 다시 '수용이왓'이라고, '수용밧'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노인들을 모여서 이제 잔치하고 뭐 했던 그런 그 밭. 또 저 위로 이제 남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그 차례로 넘어오지 못하고 넘겨버렸는데 '미렝이왓'이라고 하는데, '미렝이왓'을 우리가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 난리나 어떠한 그 부락에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노인들을 이제 그쪽으로 전부 모여서 수용해서 '어르신네들일랑 여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던 곳.)

101004 @ 음.(음.)

101004 #1 이제 그런 또 옆에 거욱대밧[27]이 잇는데 그것은 이제 거욱, 거욱이란 것은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허듯이 그런 그 나무를 이렇게 세와가지고 거악대라고 헤서 이 궂인 거 오는 걸 이제 막던 곳.(이제 그런 또 옆에 '거욱대밧'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욱', '거욱'이란 것은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하듯이 그런 그 나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악대'라고 해서 이 궂은 거 오는 걸 이제 막던 곳.)

101004 @ 예.(예.)

101004 #1 이제 지금 더는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이제 지금 더는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101004 @ 예.(예.)

101004 #1 이제 다 말을 못허겟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요 정도.(이제 다 말을 못하겠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요 정도.)

101004 @ 게믄 삼춘, 아까 이제 원단이ᄆᆞ루[28]렌 헤지 아녓수가예? 원단이ᄆᆞ를

---

24) '서와기동산'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25) '수용이왓'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26) '미렝이왓'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27) '거욱대밧'은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거욱대+밧' 구성으로, 거욱대가 있던 밭 이름이다. '거욱대'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세운 탑이다. '방사탑'을 도련동에서 일컫는 말이다.
28) '원단이ᄆᆞ루'는 도련동 지명의 하나다. '원단이+ᄆᆞ루' 구성으로, 'ᄆᆞ루'는 표준어 '마루'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에서 제를 지낸덴 허는데 지금도 거기서 제를 지냅니까?(그러면 삼촌, 아까 이제 '원단이마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단이마루'에서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지금도 거기서 제를 지냅니까?)

101004 #1 아닙니다. 아니우다. 원단이ᄆᆞ루에는 그 묘덜토 써버리고 뭐허니깐 이젠 마을회관에서 이제 젤 지내고.(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단이마루'에는 그 묘들도 써버리고 뭐하니깐 이젠 마을회관에서 이제 젤 지내고.)

101004 @ 예.(예.)

101004 #1 그 옆에 이제 그 사삼 위령. 그 한 벡 메다 이제 동쪽으로 사삼위령비가 세와 잇고 거기에 당.(그 옆에 이제 그 사삼 위령. 그 한 백 미터 이제 동쪽으로 사삼위령비가 세워 있고 거기에 당.)

101004 @ 예.(예.)

101004 #1 이 저 본향당.(이 저 본향당.)

101004 @ 으음.(으음.)

101004 #1 본향당이 거기 잇고. 원래 본향당이 먼저 이젠 마을을 설립헐 때에 본향당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 옛 어른덜이 여기에 마을을 세우니깐 여기에 이제 보살펴 주십사 헤가지고 그 본향당에 이제 그런 그 지엇든데, 거기가 그 땅이 좋아서 이제 그 사삼위령비도 거기 그 옆에 공지가 잇고 허니까 같이.(본향당이 거기 있고. 원래 본향당이 먼저 이젠 마을을 설립할 때에 본향당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 옛 어른들이 여기에 마을을 세우니깐 여기에 이제 보살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본향당에 이제 그런 그 지었던데, 거기가 그 땅이 좋아서 이제 그 사삼위령비도 거기 그 옆에 공지가 있고 하니까 같이.)

101004 @ 그 아까 말헐 때 그 거욱대 잇엇던데예, 거기는 답은 엇어마씨? 옛날에 답들도.(그 아까 말할 때 그 '거욱대' 있었던데요, 거기는 탑은 없어요? 옛날에 탑들도.)

101004 #1 답 이렇게 그 둥글렁허게.(탑 이렇게 그 둥그렇게.)

101004 @ 예. 탑식으로.(예. 탑식으로.)

101004 #1 그 저 아니 답은 엇고. 둥글렁허게 영 그 저 돌 다완에 그 가운데 이제 그 큰 낭을 이제 세왓던 곳이고. 거욱대[29]가 거기하고 저 삼수샛내 거기하고 이제 두 군데 거욱대가 잇엇고.(그 저 아니 탑은 없고. 둥그렇게 이렇게 그 저 돌 쌓아서 그 가운데 이제 그 큰 나무를 이제 세웠던 곳이고. '거욱대'가 거기하고 저 '삼수샛내' 거기하고 이제 두 군데 '거욱대'가 있었고.)

101004 @ 지금도 거욱대가 남아 잇는 건 잇잖우꽈? 탑은예.(지금도 '거욱대'가 남아 있는 건 있잖습니까? 탑은요.)

101004 #1 엇어.(없어.)

101004 @ 돌탑은 엇수가?(돌탑은 없습니까?)

---

29) '거욱대'는 '돌이나 나무 따위를 사람 형상으로 깎아 세운 것'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돌을 쌓아 둥그렇게 만든 탑인 '방사탑'의 다른 이름이다. '거욱대'는 주로 '방사탑' 꼭대기에 설치한다.

101004 #1 엇어. 싹 밀언에 과수원덜 다 뒈부니까.(없어. 싹 밀어서 과수원들 다 되어버리니까.)

101004 @ 지금은. 어렷을 때는 봐난마씨?(지금은. 어렸을 때는 봤었어요?)

101004 #1 어렷을 땐 봐난.(어렸을 땐 봤었어.)

101005 @ 알아수다. 혹시 이 마을에는 그 기관덜예?(알았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는 그 기관들요?)

101005 #1 예.(예.)

101005 @ 기관들은 어떤 게 이신고예? 도련에 기관 잇덴 허면은.(기관들은 어떤 게 있는가요? 도련에 기관 있다고 하면.)

101005 #1 도련에 기관 잇덴 허면은 뭐 우선 지금 마을 마을회장이 잇고, 청년회가 잇고, 부녀회가 잇고. 또 옛날은 농사구락부, 농사구락부랏는데.(도련에 기관 있다고 하면 뭐 우선 지금 마을 마을회장이 있고, 청년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또 옛날은 농사구락부, 농사구락부였는데.)

101005 @ 예.(예.)

101005 #1 지금은 농, 이 저, 농촌지도자협의회.(지금은 농, 이 저, 농촌지도자협의회.)

101005 @ 예.(예.)

101005 #1 에, 그게 존재헷다가 그, 이제 그건 많이 없어졋고.(에, 그게 존재했다가 그, 이제 그건 많이 없어졌고.)

101005 @ 예.(예.)

101005 #1 지도자협의회는 많이 없어지고 이제 그 나무지는 사에치도 지금은 없어져분 거 같으고. 지금 이제 독서실 남아 잇고.(지도자협의회는 많이 없어지고 이제 그 나머지는 사에치(4-H)도 지금은 없어져버린 거 같고. 지금 이제 독서실 남아 있고.)

101005 @ 예.(예.)

101005 #1 이제 경로당이 잇고, 이제 마을회관이 잇고 이제.(이제 경로당이 있고, 이제 마을회관이 있고 이제.)

101005 @ 그 저 다른 기관들은 엇어예?(그 저 다른 기관들은 없다고요?)

101005 #1 다른 기관덜은 엇수다.(다른 기관들은 없습니다.)

101006 @ 혹시 예전에는 이 마을 일들 허젠 허면은 접덜이 하나지 아녀우과예? 제, 제. 이 마을에는 어떤 제들이 잇어나신고예?(혹시 예전에는 이 마을 일들 하려고 하면 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계, 계. 이 마을에는 어떤 계들이 있었었나요?)

101006 #1 이 마을에는 목, 에 주로 목장제[쩨].(이 마을에는 목, 에 주로 목장계.)

101006 @ 음.(음.)

101006 #1 목장제가 이 우마를, 이 소 말을 키우기 위헤서 목장제가 잇엇고, 다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천, 이 장막이라고 허카. 천막을이.(목장계가 이 우마를, 이

소 말을 키우기 위해서 목장제가 있었고, 다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천, 이 장막이라고 할까. 천막을.)

101006 @ 예, 예.(예, 예.)

101006 #1 장막제[쩨] 그런 게 잇고. 또 그, 그 전에는 다시 저 씨집 장게가젠 허면 이 가마.('장막계' 그런 게 있고. 또 그, 그 전에는 다시 저 시집 장가가려고 하면 이 가마.)

101006 @ 예.(예.)

101006 #1 가마제덜이[가마쩨-] 잇엇고, 이제 대개 그 정도밖에 모르겟네.('가마계'들이 있었고, 이제 대개 그 정도밖에 모르겠네.)

101006 @ 음, 목장제[목짱쩨], 삼춘 목장제도 헤봅디가?(음, 목장계, 삼촌 목장계도 해봤습니까?)

101006 #1 예.(예.)

101006 @ 목장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헤서마씨?('목장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었요?)

101006 #1 목장제는 어느 한 부위가 회천 간 목장을 사가지고 이제 흔 만 멧 천 평 그 사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거기 가서 놔가지고 멕이고,(목장계는 어느 한 부위가 회천 가서 목장을 사가지고 이제 한 만 몇 천 평 그 사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거기 가서 놔가지고 먹이고,)

101006 @ 음.(음.)

101006 #1 우말 기르고.(우말 기르고.)

101006 @ 예, 그런 식으로 허는 거라예? 그런 제는 게믄 멧 개 정도 이 마을엔 잇어신고예?(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런 계는 그러면 몇 개 정도 이 마을에는 있었을까요?)

101006 #1 한 두 개 정도. 동 동쪽마을 서쪽마을 헨에.(한 두 개 정도. 동 동쪽마을 서쪽마을 해서.)

101006 @ 음.(음.)

101006 #1 두 개 정도 잇엇고.(두 개 정도 있었고.)

101006 @ 목장제는예? 아까 장막제 같은 경우는?('목장계'는요? 아까 '장막계' 같은 경우는?)

101006 #1 장막제도 흔 두 개.(장막계도 한 두 개.)

101006 @ 예.(예.)

101006 #1 동서로.(동서로.)

101006 @ 그렇게 막 크지는 안 허난예, 가마제 이런 것도 헤봅디가?(그렇게 매우 크지는 않으니까요, '가마계' 이런 것도 해봤습니까?)

101006 #1 아니 그건, 저 우리가 어렷을 때에.(아니 그건, 저 우리가 어렸을 때에.)

101006 @ 예.(예.)

101006 #1 나도 우리 집사름[30]도 가마 탄 왓주마는.(나도 우리 집 사람도 가마 타서 왔지만.)

101006 @ (웃음) 가마, 가마제가 있었고.((웃음) 가마, '가마계'가 있었고.)

101006 #1 아주 도련서 마지막으로 탓어.(아주 도련서 마지막으로 탔어.)

101006 @ 아, 옛날 그 사진 찍은 것도 잇수과?(아, 옛날 그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까?)

101006 #1 그걸 찾지 못헨 그냥 이 방송국이나 어디서 이제 그걸 그냥 상당히 뭐헷는데 여기 집수리하고 조금 이사허연 다니고 다시 뭐허단 보니까 다시 들어완 뭐허고 어디야 가부럿는지 그거 그냥.(그걸 찾지 못해서 그냥 이 방송국이나 어디서 이제 그걸 그냥 상당히 뭐했는데 여기 집수리하고 조금 이사해서 다니고 다시 뭐하다가 보니까 다시 들어와서 뭐하고 어디야 가버렸는지 그거 그냥.)

101006 @ 사진은 쳐신디.(사진은 찍었는데.)

101006 #1 사진, 사진 싹 엇어져부런.(사진, 사진 싹 없어져버렸어.)

101006 @ 아.(아.)

101006 #1 어디서 떨어져부런.(어디서 떨어져버렸어.)

101007 @ 기구나예. 이 마을에 풍습이라고 하면 어떤 풍습들이 독특헌 풍습인고예?(그렇군요. 이 마을에 풍습이라고 하면 어떤 풍습들이 독특한 풍습일까요?)

101007 #1 이 마을에 풍습은 지금 이제 경, 경로를 생각헤야주양.(이 마을에 풍습은 지금 이제 그렇게, 경로를 생각해야지요.)

101007 @ 예.(예.)

101007 #1 경로, 웃어른을 그 역시 도리를 이제 받아서 큰 사름이니까.(경로, 웃어른을 그 역시 도리를 이제 받아서 큰 사람이니까.)

101007 @ 예.(예.)

101007 #1 그 웃어른을 섬기고, 이제 잘 그 거기에 이제 적응하도록이 후배에게도 가르키고, 그러지마는 이 새 사름덜이 자꾸 들어와 놓니까 으, 문 범벅덜 뒈연.(그 웃어른을 섬기고, 이제 잘 그 거기에 이제 적응하도록 후배에게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이 새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놓으니까 으, 몽땅 범벅들 되어서.)

101007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1007 #1 무시거 경.(무엇 그렇게.)

101008 @ 아까 그 저기서도 얘기헷수다마는 풍습 중에 비 메는 거, 멘촌[31]이면은 이제 구덕 줃는 거예, 이런 것도 좀 골아 줍서?(아까 그 저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풍습 중에 비 메는 거, '멘촌'이면 이제 바구니 겯는 거요, 이런 것도 좀 말해 주십시오?)

101008 #1 애기구덕[32]은 에 도련이 엿날 그 목사가 와도 도련 와서 애기구덕은

30) 여기에서 '우리 집 사름'은 제보자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31) '멘촌'은 도련2동의 옛 이름이다.
32) '애기구덕'은 아기를 누일 수 있게 만든 대나무로 결은 바구니다. 표준어 '요람'에 해당하는 말이다.

사 가낫젠 허여.(요람은 에 도련이 옛날 그 목사가 와도 도련 와서 요람은 사 갔었다고 해.)

101008 @ 아아.(아아.)

101008 #1 젤 춤 그 제주도 안네서는 애기구덕 만드는 것은 도련이 췌고로 그 꼽앗고, 곱게 만들엇젠 든든허고 곱게 만들엇젠. 경허고 그 다음에 빗자루는.(젤 참 그 제주도 안에서는 애기구덕 만드는 것은 도련이 최고로 그 꼽았고, 곱게 만들었다고 단단하고 곱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빗자루는.)

101008 @ 예.(예.)

101008 #1 그 아주 옛날부터도 만들어서 썻는데, 이제 우리 그 뭐 그 수입을 의존, 아 저 이 돈을 벌기 위한 그 뭣에 이제 도련 그 고씨 어른이 일본에 가가지고.(그 아주 옛날부터도 만들어서 썼는데, 이제 우리 그 뭐 그 수입을 의존, 아 저 이 돈을 벌기 위한 그 뭣에 이제 도련 그 고씨 어른이 일본에 가가지고.)

101008 @ 예.(예.)

101008 #1 가만이 보니깐 그 빗자루가 들어와서 거기서 잘 팔리고 일본에서 허는, 그걸 보니까 이제 상당이 그 저 동네에 가서 이걸 배포허면 상당히 좋을 거 같으니까 역전을 가서 기다려서, 아, 그게 아니고, 상점에 가서 들어도 일체 말을 안 해줘 일본 사름이.(가만히 보니깐 그 빗자루가 들어와서 거기서 잘 팔리고 일본에서 하는, 그걸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저 동네에 가서 이걸 배포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으니까 역전을 가서 기다려서, 아, 그게 아니고, 상점에 가서 들어도 일절 말을 안 해줘. 일본 사람이.)

101008 @ 으음.(으음.)

101008 #1 어디서 이걸 만드느냐고 헤도 이제 말을 안 헤주니까, 이젠 그 분이 역 그 기차역을 간 직힌 거라. 기차역을 직헤연에 보니까 거기서 이젠 빗자루 가젼 왐시난 어디에서 이게 나오고 어디에서 뭐 허는 걸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길 찾아간 거야. 거길 찾아간에 메칠 살면서 그 빗자루 만드는 걸 베웁고.(어디서 이걸 만드느냐고 해도 이제 말을 안 해주니까, 이젠 그 분이 역 그 기차역을 가서 지킨 거야. 기차역을 지켜서 보니까 거기서 이젠 빗자루 가져서 오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이게 나오고 어디에서 뭐 하는 걸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길 찾아간 거야. 거길 찾아가서 며칠 살면서 그 빗자루 만드는 걸 배우고.)

101008 @ 예.(예.)

101008 #1 게니까 옛날 여기 그 돗다리식으로 만든 건 그것이 더 이쁘긴 헌데 거 곱게 만들민 상당이 예뻐. 옛날식으로. 지금 시장으로 파는 그 비차락을 이제 일본서 전수 받안 완에 이제 그 씨를 다시 제주도 일원에.(그러니까 옛날 여기 그 돼지다리식으로 만든 건 그것이 더 이쁘긴 한데 거 곱게 만들면 상당히 예뻐. 옛날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파는 그 빗자루를 이제 일본서 전수 받아서 와서 이제 그 씨를 다시 제주도 일원에.)

101008 @ 예.(예.)

101008 #1 각 면 읍에 이제 흔 가마니썩 씨를 보낸 거라.(각 면 읍에 이제 한 가마니씩 씨를 보낸 거야.)

101008 @ 음.(음.)

101008 #1 보냇는데 결국 남아난 곳은 도련밖에 안 남아나고, 사삼사건 후에 우리가 주 수입원이 빗자루를 이용헤가지고 이제 많이 살앗주예.(보냈는데 결국 남은 곳은 도련밖에 안 남아나고, 사삼사건 후에 우리가 주 수입원이 빗자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많이 살았지요.)

101008 @ 음. 그 비차락 저기 허는 그 대죽은 무슨 대죽헤마씨? 여기서는.(음. 그 빗자루 저기 하는 그 수수는 무슨 수수해요? 여기서는.)

101008 #1 비차룩대. 수숫대, 수수비.('빗자루대'. 수숫대, 수수비.)

101008 @ 음. 비대죽[33]?(음. '비대죽'?)

101008 #1 응. 비대죽.(응. '비대죽'.)

101008 @ 비대죽예?('비대죽'요?)

101008 #1 수수 비대죽.(수수 '비대죽'.)

101008 @ 나중에 한번 더 해보고예? 그러면 그게 이 마을 특산물.(나중에 한번 더 해보고요? 그러면 그게 이 마을 특산물.)

101008 #1 특산물.(특산물.)

101008 @ 특산물이 그거 뒈는 건가마씨? 이 애기구덕허고.(특산물이 그거 되는 건가요? 이 요람하고.)

101008 #1 예예.(예예.)

101008 @ 아아, 그.(아아, 그.)

101008 #1 아 게난 ᄉᆞᆼ키구덕[34]도 그것에 따랑은에 ᄀᆞ치 멘들앗고 애기구덕허고 그 구덕은 이 ᄉᆞᆼ키구덕은 겸허연에덜 만들언.(아 그러니까 '푸성귀바구니'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만들었고 요람하고 그 바구니는 이 '푸성귀바구니'는 겸해서들 만들었어.)

101008 @ 음, 그러면 애기구덕허고 ᄉᆞᆼ키구덕 그 줄앗던 거는 언제까지 헷수가?(음, 그러면 요람하고 '푸성귀바구니' 그 결었던 거는 언제까지 했습니까?)

101008 #1 근 사삼사건 때까지 헤연. 사삼사건 때까지.(근 사삼사건 때까지 했어. 사삼사건 때까지.)

101008 @3 아니 삼년 전까지 그 할아부지가 헷는데 돌아가셧어.(아니 삼년 전까지 그 할아버지가 했는데 돌아가셨어.)

101008 @ 그거는 저쪽 동네? 그 사삼사건 전에는 이 동네 이제 남자어른들이 헷잖아예, 주로 남자어른덜이 한 거고. 비 메는 거는 언제까지 헤신고예?(그거는 저쪽 동네? 그 사삼사건 전에는 이 동네 이제 남자어른들이 했잖아요, 주로 남자어른들이 한 거고. 비 매는 거는 언제까지 했는가요?)

---

33) '비대죽'은 '비+대죽' 구성으로, '빗자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수수'라는 의미다.

34) 'ᄉᆞᆼ키구덕'은 '푸성귀를 딸 때 사용하는 바구니'라는 의미다. 'ᄉᆞᆼ키+구덕' 구성으로, 'ᄉᆞᆼ키'는 '푸성귀', '구덕'은 '바구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01008 #1 비 메는 것은 지금, 지금도 흔 멧 어른이 메고 잇지마는 에 그 아주 왕성기라고 허까.(비 매는 것은 지금, 지금도 한 몇 어른이 매고 있지만 에 그 아주 왕성기라고 할까.)

101008 @ 예.(예.)

101008 #1 그때는 한 귤나무 심어서 경 허니까 육, 칠십 년대.(그때는 한 귤나무 심어서 그렇게 하니까 육, 칠십 년대.)

101008 @ 예.(예.)

101008 #1 팔십 년대 그 왕성기가.(팔십 년대 그 왕성기가.)

101008 @ 예. 요즘은 뭐 다 청소기도 다 나와 불고 허난예?(예. 요즘은 뭐 다 청소기도 다 나와 버리고 하니까요?)

101008 #1 청소기 나오고 역시 지금도 이 밖에 쓰는 건 빗자루고 좋고.(청소기 나오고 역시 지금도 이 밖에 쓰는 건 빗자루고 좋고.)

101008 @ 예.(예.)

101008 #1 밖에 쓰는 건.(밖에 쓰는 건.)

101008 @ 아, 게난 그 빗자루허고 아까 이제 애기구덕이 우리 여기 특산품이렌.(아, 그러니까 그 빗자루하고 아까 이제 요람이 우리 여기 특산품이라고.)

101008 #1 숭키구덕이.('푸성귀바구니'가.)

101008 @ 숭키구덕하고예. 특산품이고. 요즘 귤 같은 것도 특산품 아닌가마씨?('푸성귀바구니'하고요. 특산품이고. 요즘 귤 같은 것도 특산품 아닌가요?)

101008 #1 귤 특산품입주. 저 우리, 우리를 살리고 잇는 거니까. 귤 아니면 살 수가 없지.(웃음).(귤 특산품이지요. 저 우리,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니까. 귤 아니면 살 수가 없지.(웃음).)

101008 @ 이 마을에 그러면은 여기 대부분에 옛날 어른들은 다 농사짓는다고 보민 뒈지예? 그 분들이 전부 귤 농사를 헴신가마씨?(이 마을에 그러면 여기 대부분의 옛날 어른들은 다 농사짓는다고 보면 되지요? 그 분들이 전부 귤 농사를 하고 있는가요?)

101008 #1 예, 거즘. 이제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그걸 헤줘야 뒐 건데, 젊은 세대들은 다 직장 따라 나가버리니깐 이제 그분들이 연, 낫솔이[나썰]이 ᄒᆞ꼼 들어가사 다시 돌아올 텝주.(예, 거의. 이제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그걸 해줘야 될 것인데, 젊은 세대들은 다 직장 따라 나가버리니깐 이제 그분들이 연, 나이가 조금 들어가야 다시 돌아올 테지요.)

101008 @ 예, 맞아예.(웃음)(예, 맞아요.(웃음))

101008 #1 경 아녕은 돌아오질 아녈 거우다.(그렇게 안해서는 돌아오질 않을 겁니다.)

101009 @ 이 마을 자랑거리엔 허믄 뭔고예? 이 도련드르[35] 자랑거리?(이 마을 자랑거리라고 하면 뭔가요? 이 '도련드르' 자랑거리?)

35) '도련드르'는 도련1동의 옛 이름이다.

101009 #1 도련에 자랑거리엔 허면은 역시 그 경로사상이 좋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도리를 가리키니까 이 선생님덜토 많고.(도련에 자랑거리라고 하면 역시 그 경로사상이 좋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도리를 가리키니까 이 선생님들도 많고.)

101009 @ 으음.(으음.)

101009 #1 다시 그런대로 이 학자님들토 잇고.(다시 그런대로 이 학자님들도 있고.)

101009 @ 예. 여기는 마을끼리 이렇게 어른들끼리 화합이 잘되는 편입니까? 여기 도련은?(예. 여기는 마을끼리 이렇게 어른들끼리 화합이 잘되는 편입니까? 여기 도련은?)

101009 #1 겐디 그 잘뭔다 못뭔다 허는 건 내가 흔 팔십 년 살고 보니까 스물네 시간에 반은 밤이고 반은 낮 아닙니까?(그런데 그 잘된다 못된다 하는 건 내가 한 팔십 년 살고 보니까 스물네 시간에 반은 밤이고 반은 낮 아닙니까?)

101009 @ 예.(예.)

101009 #1 경허난 음양이렌 잇어양.(그러니까 음양이라고 있어요.)

101009 @ 예.(예.)

101009 #1 게난 그것이 잇어야 조화가 되지.(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조화가 되지.)

101009 @ 맞수다. 큰 싸움만 아니믄.(웃음)(맞습니다. 큰 싸움만 아니면.(웃음))

101009 #1 그거 없엉은 조화가 뭴 수 엇어.(그거 없어서는 조화가 될 수 없어.)

101009 @ 알앗수다.(웃음)(알겠습니다.(웃음))

101009 #1 게난 아무리 나가 이제 좋은 사름이 뭴라고 앨 써도 음이라는 게 잇어놓니까 그 자식 그, 꼭 나쁜 데만 찝, 찝엉근엥게 그걸 얘기허는 사람이 잇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 지혜를 갖추면은 아주 그 유도리[36] 잇게.(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앨 써도 음이라는 게 있어놓으니까 그 자식 그, 꼭 나쁜 데만 짚, 짚어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 지혜를 갖추면 아주 그 여유 있게.)

101009 @ 예.(예.)

101009 #1 그걸 잘 넘기면은. 겨고 내가 항시 이 얘기허는 것은 마,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만은 전생과 현생과 후생을 연결하면은 아무리 이제 악헌 사람이 와도 악헐 수가 없어요.(그걸 잘 넘기면. 그러고 내가 항시 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만 전생과 현생과 후생을 연결하면 아무리 이제 악한 사람이 와도 악할 수가 없어요.)

101009 @ 예.(예.)

101009 #1 건 왜, 그걸 깨달으면 나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걸 어느 날인가 걸 생각허니까 전생에 나가 그분을 얼마나 괴롭혀시난 현생에 완 나의 그 앙갚음을 헴신고. 이제 나가 이 죗가를 곱게 받아야 다음 세상에 편한 이제 세상을 살겠다, 요

36) '유도리'는 일본어 'ゆとり'에서 온 말로, 표준어 '여유' 또는 '융통성'의 의미로 쓰였다.

게 삽입이 되는 거라.(건 왜, 그걸 깨달으면 내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걸 어느 날엔가 걸 생각하니까 전생에 내가 그분을 얼마나 괴롭혔으니까 현생에 와서 나의 그 앙갚음을 하고 있는가. 이제 내가 이 죗값을 곱게 받아야 다음 세상에 편한 이제 세상을 살겠다, 요게 삽입이 되는 거야.)

101009 @ 예.(예.)

101009 #1 경허민 사람들이 이 마음이 다, 이 다음에 결혼덜 허영 살아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 싸울 거 엇어.(그러면 사람들이 이 마음이 다, 이 다음에 결혼들 해서 살아도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 싸울 거 없어.)

2. 제보자 일생

101009 @ 알아수다. 이제까지는 이 마을 전체에 대해서 대강 여쭤봐서양? 이제부터는 이제 어르신 개인에 대해서 쫌 물어보쿠다.(알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마을 전체에 대해서 대강 여쭤봤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어르신 개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02001 #1 아이고,(웃음)(아이고,(웃음))

102001 @ 그 낳고 자란 그 과정예, 어렷을 때부터 쭉 대략적으로 이제까지 살안 보난 이렇게 살아져신게 허는 이런 말씀을 헤여줍서.(그 낳고 자란 그 과정요, 어렸을 때부터 쭉 대략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서 보니까 이렇게 살아졌는데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102001 #1 글쎄, 그 말이 그렇게. 책으로 엮어 보젠 헤도 그게 상당히 힘들고.(글쎄, 그 말이 그렇게. 책으로 엮어 보려고 해도 그게 상당히 힘들고.)

102001 @ 예.(예.)

102001 #1 것은 책을 만드, 그렇게 허다 보니깐 책도 만드는 사름이 만드는 거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로구나.(것은 책을 만드, 그렇게 하다 보니깐 책도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로구나.)

102001 @ 예.(웃음)(예.(웃음))

102001 #1 허연, 어렷을 때 태어나가지고 그때에는 이 저 옷도 강알튼옷 ᄉᆞ나이덜은.(해서,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그때에는 이 저 옷도 개구멍바지 사내들은.)

102001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01 #1 에, 저 겨고 뭐 거즘 반은 나체덜 헤영 다녓으니까.(에, 저 그러고 뭐 거의 반은 나체들 해서 다녔으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이제 뭐 선생님덜은 그것덜을 안 봣을 거니까 이제 뭐허지마는, 우리가 나서 클 때는 그렇게 이제 컷는디.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학교, 학교 간다고 해서 학교 가니까 이제 삼양 그땐 삼양국민학교이.(이제 뭐 선생님들은 그것들을 안

봤을 거니까 이제 뭐하지만, 우리가 나서 클 때는 그렇게 이제 컸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학교, 학교 간다고 해서 학교 가니까 이제 삼양 그땐 삼양국민학교.)

102001 @ 예.(예.)

102001 #1 삼양국민학꼴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사삼이란 게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사삼 때문에 이 우리가 공부할 것도 못헷수다.(삼양초등학꼴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사삼이란 게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사삼 때문에 이 우리가 공부할 것도 못했습니다.)

102001 @ 예. 경헙주게.(예. 그렇지요.)

102001 #1 게난 이젠 춤 국민학꼴 ᄆᆞ쳔에 중학교 가는 사름은 가고 못 가는 사름은 못 가고 나도 못 가수다.(그러니까 이젠 참 초등학꼴 마쳐서 중학교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나도 못 갔습니다.)

102001 @ 음.(음.)

102001 #1 못 간에 춤 막 늦언에 이제 다녓는데 늦어도 이 송죽학교[37]엔 혠 잇어낫수다.(못 가서 참 막 늦어서 이제 다녔는데 늦어도 이 송죽학교라고 해서 있었었습니다.)

102001 @ 아아.(아아.)

102001 #1 서부교회에.(서부교회에.)

102001 @ 아, 송죽학교예?(아, 송죽학교요?)

102001 #1 송죽학교가 잇엇는데, 그 학교를 다녓고, 이젠 그 그건 나대로 버을면서.(송죽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다녔고, 이젠 그 그건 나대로 벌면서.)

102001 @ 예.(예.)

102001 #1 이제 다녓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때가 한 스무 살이 거즘 뒈어서 마씀.(이제 다녔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그때가 한 스무 살이 거의 되었어요.)

102001 @ 으음.(으음.)

102001 #1 스무 살이 뒈어서 중학생이 스무 설이 뒈여서.(스무 살이 되어서 중학생이 스무 살이 되어서.)

102001 @ 예.(예.)

102001 #1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일고가 생긴다고 헤가지고 무조건 일고에 가서 저 원서 들이고 이제 일고에 일 년 다니니까.(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일고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고에 가서 저 원서 들이고 이제 일고에 일 년 다니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이젠 그땐 이제 낮에는 버을고 밤에는 학교 다녀야 하니깐 그 야간이 잇엇수다. 일고도.(이젠 그땐 이제 낮에는 벌고 밤에는 학교 다녀야 하니깐 그 야간이 있었습니다. 일고도.)

102001 @ 예.(예.)

37) '송죽학교'는 서부교회에 있었던 야간 학교 이름이다.

102001 #1 일고도 야간 잇엇는데 일 년 다니니까 학교 운영상 상당이 이제 쫌 힘드니까 저 상고로 이제 넘겨버린 거라.(일고도 야간 있었는데 일 년 다니니까 학교 운영상 상당히 이제 좀 힘드니까 저 상고로 이제 넘겨버린 거야.)

102001 @ 음.(음.)

102001 #1 그 야간학생들을 일체, 또 주간에 갈 사름은 주간에 가고. 상고 그 강석범 교장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일 년을 다니니까.(그 야간학생들을 일체, 또 주간에 갈 사람은 주간에 가고. 상고 그 강석범 교장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일 년을 다니니까.)

102001 @ 네에.(네에.)

102001 #1 이제 영장이 나온 거지.(이제 영장이 나온 거지.)

102001 @ 음, 나이 때문에예?(음, 나이 때문에요?)

102001 #1 예, 나이 때문에. 이제 영장이 나오고. 이제 가서 갓, 이제 가서 삼년 살고 또 와서 복학을 허니까 이제 졸업허겐 뒈니까 흔 스물일곱 뒈불엇주.(예, 나이 때문에. 이제 영장이 나오고. 이제 가서 갓, 이제 가서 삼년 살고 또 와서 복학을 하니까 이제 졸업하게 되니까 한 스물일곱 되어버렸지.)

102001 @ 음.(음.)

102001 #1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허게 뒈니까.(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니까.)

102001 @ 예.(예.)

102001 #1 그 새에 쫌 일찍 결혼헤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스무한 살에 결혼을 헷는데, 결혼헤서 학교에 다녀도 일체 아무도 몰랏어.(그 새에 좀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스물한 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학교에 다녀도 일절 아무도 몰랐어.)

102001 @ 음.(음.)

102001 #1 학생덜은. 거 막 친헌 친구도 밖엔 나오면 장난을 허는데 뭐 결혼생활 ᄀᆞ튼 것도 이제 장난허고 뭐헷지마는 학굔 가면 일체 그 보장헤 주니까, 그 친구들이. 게니까 쫌 요샛말로 왕따도 안 당하고 그런대로 곱게 잘.(학생들은. 거 매우 친한 친구도 밖엔 나오면 장난을 하는데 뭐 결혼생활 같은 것도 이제 장난하고 뭐했지만 학굔 가면 일체 그 보장해 주니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요샛말로 왕따도 안 당하고 그런대로 곱게 잘.)

102001 @ (웃음).

102001 #1 우리 집의 사름[38]이 상당이 고셍 많이 헷주.(우리 집의 사람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지.)

102001 @ 예. 고셍헌 얘기는 우리 여자 삼춘한티 들어보믄 잘 알쿠다예?(예. 고생한 얘기는 우리 여자 삼춘한테 들어보면 잘 알겠네요?)

102001 #1 (웃음).

38) 여기에서 '우리 집의 사름'은 제보자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션마씨?(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102002 #1 아버진 사삼에 돌아가셧수다마는.(아버진 사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102002 @ 예.(예.)

102002 #1 저 이제 목수랏고.(저 이제 목수였고.)

102002 @ 예.(예.)

102002 #1 또 일일이 지금같이 그냥 목수허민 목술 그냥 뭐 흔 이백 일이민 이백 일 허는 게 아니고 가다오다 뭐 어디 집 지을 거나 잇으면 짓고 이제 문이나 헤달라면 허고 그 나머진 또 밧농사허고.(또 일일이 지금같이 그냥 목수하면 목술 그냥 뭐 한 이백 일이면 이백 일 하는 게 아니고 가다오다 뭐 어디 집 지을 거나 있으면 짓고 이제 문이나 해달라면 하고 그 나머진 또 밭농사하고.)

102002 @ 예.(예.)

102002 #1 이제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셧고.(이제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102002 @ 사삼 때 돌아가신 거마씨?(사삼 때 돌아가신 거예요?)

102002 #1 아부진 사삼 때 돌아가셧고 어무니는 한 멧 년, 한 십 년 넘엇구나. 이제 흔 십 년 넘고.(아버진 사삼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한 몇 년, 한 십 년 넘었구나. 이제 한 십 년 넘고.)

102002 @ 게민 어머니는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시쿠다예?(그러면 어머니는 농사만 지으면서 살았겠네요?)

102002 #1 예.(예.)

102003 @ 어머니 고향은 어디시우과?(어머니 고향은 어디십니까?)

102003 #1 명도암 광산 짐칩.(명도암 광산 김집.)

102004 @ 아, 아까,(웃음) 명도암이고예. 아버지는 원래부터 여기고예?(아, 아까,(웃음) 명도암이고요. 아버지는 원래부터 여기고요?)

102004 #1 도련이고.(도련이고.)

102004 @ 어릴 때 놀앗던 기억은, 어떤 놀이 허멍 노는 거 기억남수가?(어릴 때 놀았던 기억은, 어떤 놀이 하면서 노는 거 기억납니까?)

102004 #1 어린 때는 이 그게 제기차기.(어린 때는 이 그게 제기차기.)

102004 @ 예.(예.)

102004 #1 활쏘기.(활쏘기.)

102004 @ 음.(음.)

102004 #1 이제 그 일본 사름들이 그 훈련 가리키는 거 봐서 그 전쟁놀이.(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훈련 가리키는 거 봐서 그 전쟁놀이.)

102004 @ 예.(예.)

102004 #1 그거 대개 이런 정도.(그거 대개 이런 정도.)

102004 @ 음.(음.)

102004 #1 그리고 그자.(그리고 그저.)

102004 @ 연날리기 ᄀᆞ튼 건 안허고마씨?(연날리기 같은 건 안하고요?)

102004 #1 으.(으.)

102004 @ 연날리기?(연날리기?)

102004 #1 연날리기야 당연이. 건 뭐 아이서부터 어린아이부터 노인덜까지도 다 연을 날렷으니까.(연날리기야 당연히. 건 뭐 아이서부터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도 다 연을 날렸으니까.)

102004 @ 음.(음.)

102004 #1 게고 연 만드는 분덜은 그 흔 멧 분. 잘 만들어야 뒈니까. 잘 떠야 잘 뜨게 만드는 사름은 그 잘 만드는 사름이니까.(그러고 연 만드는 분들은 그 한 몇 분. 잘 만들어야 되니까. 잘 떠야 잘 뜨게 만드는 사람은 그 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102004 @ 예. 게문 우리 삼춘은 연 잘 만드는 사람 축에.(예. 그러면 우리 삼촌은 연 잘 만드는 사람 축에.)

102004 #1 아니, 난 아무 것도 못허는 사람.(아니, 난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

102005 @ (웃음) 혹시 그 일제시대 때 공출헤난 것도 혹시 기억나는 거 잇수가?((웃음) 혹시 그 일제시대 때 공출했던 것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2005 #1 아이고, 공출 그냥 그건 말도 못헤서마씀.(아이고, 공출 그냥 그건 말도 못했어요.)

102005 @ 어떤 식으로 공출헨마씨?(어떤 식으로 공출했어요?)

102005 #1 이제 자기 그 배당량을 못 바치면 그냥 그 관청에, 우린 어려부니까 와서 그냥 막 그 야단허는 것만 알지. 뭐 별 거세긴 나가 직접 느끼진 못헷으니까.(이제 자기 그 배당량을 못 바치면 그냥 그 관청에, 우린 어려버리니까 와서 그냥 마구 그 야단하는 것만 알지. 뭐 별 거시긴 내가 직접 느끼진 못했으니까.)

102005 @ 예, 뭐 어무니네나 아부지네나 ᄀᆞᆫ는 소린 안 들어봔마씨? 일제 때 어떤 공출허젠 허난 우리 막 저기 고셍헷저.(예, 뭐 어머니네나 아버지네나 말하는 소린 안 들어봤어요? 일제 때 어떤 공출하려고 하니까 우리 매우 저기 고생했다.)

102005 #1 고셍은 그건 경허난 그 감저 썰엉근엥에 감저 주정 원료헐랴고 그것도 바쪄야 뒈고. 이제 곡식은 곡식대로 바쪄야 뒈고. 경헹 거 우린 다시 곡식 없으면 저 정의 쪽듸레 강근엥게 감저덜이 아마 정의 쪽이 잘 뒈여난 모냥이죠. 산남, 지금으로 말허면 산남.(고생은 그건 그러니까 그 고구마 썰어서 고구마 주정 원료하려고 그것도 바쳐야 되고. 이제 곡식은 곡식대로 바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 우린 다시 곡식 없으면 저 정의 쪽으로 가서 고구마들이 아마 정의 쪽이 잘 되었던 모양이죠. 산남, 지금으로 말하면 산남.)

102005 @ 예.(예.)

102005 #1 그쪽에 가서 사다가 먹으면서 연명허고.(그쪽에 가서 사다가 먹으면서 연명하고.)

102005 @ 음, 먹을 ᄊᆞᆯ들을 부족허니까 감저 먹언 산 거라예?(음, 먹을 쌀들을

부족하니까 고구마 먹어서 산 거네요?)

102005 #1 쏠 부족허연.(쌀 부족해서.)

102006 @ 사삼사건은 직접 겪엇잖아예?(사삼사건은 직접 겪었잖아요?)

102006 #1 예.(예.)

102006 @ 어떵 아버지도 돌아가셧덴 허던데 많은 고셍을 헤실 거 닮은데예?(어떻게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많은 고생을 했을 거 같은데요?)

102006 #1 말도 못허여마씀, 그건. 에 사삼 때에 불부찌는 것이 저 명도암 쪽을 젤 믄저 불부쪄수다. 저 멩도암 차츰차츰 메칠 잇당 이 중간 이제 봉개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도련으로 내려왓는데. 그때 그 군인덜.(말도 못해요, 그건. 에 사삼 때에 불붙이는 것이 저 명도암 쪽을 젤 먼저 불붙였습니다. 저 명도암 차츰차츰 며칠 있다가 이 중간 이제 봉개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도련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그 군인들.)

102006 @ 네에.(네에.)

102006 #1 이제 오면서 웨하르버지 그 명도암 불부쪄버리니까 내려완 우리 집에 딸네 집이니까 이제 머무르니까 와서 불 딱 부찌난 이제 그 먹을 걸 좀 내칠라고 허난 그냥 빵허게 하르버지 쏘아부니까.(이제 오면서 외할아버지 그 명도암 불붙여버리니까 내려와서 우리 집에 딸네 집이니까 이제 머무르니까 와서 불 딱 붙이니까 이제 그 먹을 걸 좀 내치려고 하니까 그냥 빵하게 할아버지 쏘아버리니까.)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하르버지 그냥 뭐허고. 다시 나허고 어머니 잇으니까 어머닐 쏘아버리니까 어머닌 바로 이 젖 우이로 맞앙 총이 이 두 사이로 나간 거라. 두 사이로 나간 허난에, 춤 우리가 고셍을 덜 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낫지. 이제 그대로 돌아가실 걸로 알안에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하루 묵언 내려갓는데.(할아버지 그냥 뭐하고. 다시 나하고 어머니 있으니까 어머닐 쏘아버리니까 어머닌 바로 이 젖 위로 맞아서 총이 이 두 사이로 나간 거야. 두 사이로 나가서 하니까, 참 우리가 고생을 덜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았지. 이제 그대로 돌아가실 걸로 알아서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하루 묵어서 내려갔는데.)

102006 @ 으음.(으음.)

102006 #1 하르버진 그날 즉시 돌아가버리고, 엉덩이로 맞아서. 즉시 돌아가셔부리고 어머닌 돌아가질 아녀니까 그대로 춤 이제 곁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만 직힌 거지. 돌아가시지 아녀니까 삼양으로 내려간 이젠 거기서. 이제 춤 그땐 약도 없고 뭐허니까 아버지가 그때 어디 가서 과산화수소.(할아버진 그날 즉시 돌아가셔버리고, 엉덩이로 맞아서. 즉시 돌아가셔버리고 어머닌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대로 참 이제 곁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만 지킨 거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삼양으로 내려가서 이젠 거기서. 이제 참 그땐 약도 없고 뭐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어디 가서 과산화수소.)

102006 @ 예예.(예예.)

102006 #1 에, 그걸 가젼 거 흔 반 병, 지금 오벡 시시 흔 이벡 오십 시시 정도 뭰 걸 가젼완 허니까 그걸로 그냥 앞뒤만 소독허는 거라.(에, 그걸 가져서 거 한 반 병, 지금 오백 시시 한 이백 오십 시시 정도된 걸 가져서 와서 하니까 그걸로 그냥 앞뒤만 소독하는 거야.)

102006 @ 으음.(으음.)

102006 #1 뭐 딴 소독 헤보도 아녀고.(뭐 다른 소독 해보지도 않고.)

102006 #1 예.(예.)

102006 #1 오래 흔 멧 둘 살아가니까 그대로 이제 회복뒈연.(오래 한 몇 달 살아가니까 그대로 이제 회복되어서.)

102006 @ 으음.(으음.)

102006 #1 이제 츰 우리 나 동셍, 여동셍허고 남동셍 잇는데 남동셍은 걷도 못허는 거 이제 그냥 그 기어 다닐 때에 이제 업언에 그냥 츰 동셍 키우고.(이제 참 우리 나 동생, 여동생하고 남동생 있는데 남동생은 걷지도 못하는 거 이제 그냥 그 기어 다닐 때에 이제 업어서 그냥 참 동생 키우고.)

102006 @ 예.(예.)

102006 #1 허허. 할머니 하르버지가 같이 내려가니까 에 할머니 하르버지 의지 허곡 어머닌 또 환자라 놓고 허니까 뭐 못허고 경 헤연.(허허.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내려가니까 에 할머니 할아버지 의지하고 어머닌 또 환자라 놓고 하니까 뭐 못하고 그렇게 했어.)

102006 @ 게믄 할머니 할아부지 의지허멍 사신 거로구나예? 예에. 게난 그런 그 고생 사삼 때 고생을 ᄒᆞ꼼 더 골아줍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당장 눈앞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형국이긴 헷는데.(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의지하면서 사신 거로군요? 예에. 그러니까 그런 그 고생 사삼 때 고생을 조금 더 말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제 당장 눈앞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형국이긴 했는데.)

102006 #1 에, 경허난에 그것이 예를 들엉근엥에 이디서 어디 옛 어른 말이 먹기 싫은 음식은 못 먹지마는 입기 싫은 옷은 입어야 헌다는 말이 거기서 느꼇습니다.(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디 옛 어른 말이 먹기 싫은 음식은 못 먹지만 입기 싫은 옷은 입어야 한다는 말이 거기서 느꼈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어떵 헨 느껴신고 허니까 한겨울이라고 옷이 없으니까 반즈봉 입고 옛날은 살마다라고 헷는데 그거 ᄒᆞ나 입고 이제 성안 시내.(어떻게 해서 느꼈는가 하니까 한겨울이라고 옷이 없으니까 반바지 입고 옛날은 팬티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입고 이제 성안 시내.)

102006 @ 예.(예.)

102006 #1 또 왓다갓다허고, 그렇게 허면서 무신 거 츰 필요헌 거 이시민 그디 강 사오곡 여기서 또 가졍가근엥게 풀 것도 제대로 엇지만은 폼도 허곡.(또 갔다왔다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신 거 참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사오고 여기서 또

가져가서 팔 것도 제대로 없지만 팔기도 하고.)

102006 @ 음.(음.)

102006 #1 경허멍 살아십주. 그때 그 저 말론 어떻게 형용을 제대로 헐 수가 엇어양.(그렇게 하면서 살았습죠. 그때 그 저 말론 어떻게 형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102006 @ 예. 겪은 사름만 압주예?(예. 겪은 사람만 알지요?)

102006 #1 겪은 마음, 그 밖으로 표현헐 수 없는 게 춤 그건디.(겪은 마음, 그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참 그건데.)

102007 @ 예, 맞습니다. 결혼은 연애결혼헷수가? 중매결혼헷수가?(예, 맞습니다. 결혼은 연애결혼했습니까? 중매결혼했습니까?)

102007 #1 중매결혼헷수다.(중매결혼했습니다.)

102007 @ 아 어떵 누게가 중매혜연에 어떵 결혼헌 거우과?(아 어떻게 누가 중매해서 어떻게 결혼한 겁니까?)

102007 #1 지금 처가에 그 저 우리 그 왕고모님 쪽 어른이 이제 그 이댁에[이때게] 씨집을 와서 사니까 그 어른덜허고 서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뒈니까 그때에는 춤 아까 그분덜토 나광 혼 해에 ᄀᆞ튼 동갑덜이. 그때덜은 보통 이십 대 넘으민 보통 결혼헷으니까.(지금 처가에 그 저 우리 그 왕고모님 쪽 어른이 이제 그 이댁에 시집을 와서 사니까 그 어른들하고 서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니까 그때에는 참 아까 그분들도 나와 한 해에 같은 동갑들이. 그때들은 보통 이십 대 넘으면 보통 결혼했으니까.)

102007 @ 예예.(예예.)

102007 #1 여자 어른덜도 열여덟 이상이민 결혼덜 헷고.(여자 어른들도 열여덟 이상이면 결혼들 했고.)

102007 @ 음, 우리 여자 삼춘허고 나이는 멧 살 차이마씨?(음, 우리 여자 삼촌하고 나이는 몇 살 차이예요?)

102007 #1 나이는 나보단 우에.(나이는 나보단 위에.)

102007 @ 연상.(연상.)

102007 #1 으. 연상, 저 두 살 우에.(으. 연상, 저 두 살 위에.)

102007 @ 아아, 기구나예.(아아, 그렇군요.)

102007 #1 겐디 그것이 좋은 것이. 연상이 좋은 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에 남자분이 연령덜 많은 사름덜을 전부 추구해서 건 애기 노릇 헐랴고 허는 건데, 이제 반대로 누나같이 생각허고 그 동생같이 애끼니까.(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연상이 좋은 것이 지금 보편적으로 볼 때에 남자분이 연령들 많은 사람들을 전부 추구해서 건 애기 노릇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반대로 누나같이 생각하고 그 동생같이 아끼니까.)

102007 @ 예.(예.)

102007 #1 좋아. 게고 죽을 때도 남자가 빨리 죽잖아.(좋아. 그러고 죽을 때도

남자가 빨리 죽잖아.)

102007 @ 예.(예.)

102007 #1 게민 웃사람 허민 거의 거즘 비등비등허게 간다 이거지.(그러면 윗사람 하면 거의 거의 비등비등하게 간다 이거지.)

102007 @ 음. 에 그때는 그런 거 저런 걸 몰란 그자 무조건 갓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뭣도 잇드라 이겁주.(음. 에 그때는 그런 거 저런 걸 몰라서 그저 무조건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뭣도 있더라 이거지요.)

102007 @ 게난 싸울 일은 엇어시쿠다예?(그러니까 싸울 일은 없었겠네요?)

102007 #1 쌉지 아녕근엥게 (웃음) 그게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싸우지 않아서 (웃음) 그게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

102007 @ 기구나예?(그렇군요?)

102007 #1 어째든 이 뭐인가 아웅다웅해야 가정이 형성되는 거지.(어쨌든 이 뭐인가 아웅다웅해야 가정이 형성되는 거지.)

102008 @ 예, 맞수다. 사주는 봣수가? 게믄, 중매결혼헐 때에?(예, 맞습니다. 사주는 봤습니까? 그러면, 중매결혼할 때에?)

102008 #1 물론 사주 봐실 테주.(물론 사주 봤을 테지.)

102008 @ 예. 건 어른덜이 허는 거니까.(예. 건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102008 #1 게난 그 사주 본 것도 예를 들엉근엥에 우리 집사름허고 난 큰 수화거든. 그게. 에 수화. 경헨 안 뒌덴.(그러니까 그 사주 본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난 큰 수화거든. 그게. 에 수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102008 @ 그렇주마씨?(그렇지요?)

102008 #1 안 좋다 헐 건디. 그 사람덜이 서로가 얼마큼 참느냐, 얼마큼 배려허느냐 거기에 매달린 거고.(안 좋다 할 건데. 그 사람들이 서로가 얼마큼 참느냐, 얼마큼 배려하느냐 거기에 매달린 거고.)

102008 @ 음.(음.)

102008 #1 사주가 좋다 궂다 헤도, 견디 지금까지 살면서 딱 나가 ᄒᆞ나 그 뭐헌 것이 내궁합 웨궁합허는데 그 사주보는 건 외궁합을 보는 거고,(사주가 좋다 궂다 해도,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딱 내가 하나 그 뭐한 것이 속궁합 겉궁합하는데 그 사주보는 건 겉궁합을 보는 거고,)

102008 @ 음.(음.)

102008 #1 내궁합만큼은 맞아야 후손들이. 내궁합 안 맞으민 후손은 없어.(속궁합만큼은 맞아야 후손들이. 속궁합 안 맞으면 후손은 없어.)

102009 @ 으음. 그게 더 중요헌 겁주. 그 혼수품 할 때 그때는 너무 어려울 때난 하긴 허지만 혼수나 결혼 예물로 헤갖고 뭐 우리 여자 삼춘한테 준 건 엇수가?(으음.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그 혼수품 할 때 그때는 너무 어려울 때니까 하긴 하지만 혼수나 결혼 예물로 해갖고 뭐 우리 여자 삼촌한테 준 건 없습니까?)

102009 #1 해준 거 엇어.(해준 거 없어.)

102009 @ 게도 그 결혼헐 때 뭐 헙디가, 게믄?(게도 그 결혼할 때 뭐 했습니까, 그러면?)

102009 #1 경 옷 정도 그자 그땐 헤주난.(그렇게 옷 정도 그저 그땐 해주니까.)

102009 @ 예, 어떤 옷마씨?(예, 어떤 옷요?)

102009 #1 이 치마저고리덜. 무슨 뚠 뭐 엇엇어.(이 치마저고리들. 무슨 다른 뭐 없었어.)

102009 @ 멩지 치마저고리?(명주 치마저고리?)

102009 #1 멩주가 어디 잇어? 그때.(명주가 어디 있어? 그때.)

102009 @ 명주 엇어.(명주 없어.)

102009 #1 아니 무명도 어려운 땐디.(아니 무명도 어려울 땐데.)

102009 @ 예. 게영 무신 저고리를 헤신고?(예. 그래서 무슨 저고리를 했는가요?)

102009 @2 양단 뭐 이런 거.(양단 뭐 이런 거.)

102009 @ 여자 삼춘이 알아야 뭐 호박단이여 뭐 뉴똥이여 이런 말 헐 건디양?(여자 삼촌이 알아야 뭐 호박단이다 뭐 뉴똥이다 이런 말 할 건데요?)

102009 #1 글쎄, 난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도 몰라.(글쎄, 난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도 몰라.)

102009 @ 아아, 그 혼인은 어디서 헷수가?(아아, 그 혼인은 어디서 했습니까?)

102009 #1 여기서.(여기서.)

102009 @ 집에서? 게민 이 집은 옛날부터 쭉 살아온 집마씨? 아버지 때.(집에서? 그러면 이 집은 옛날부터 쭉 살아온 집예요? 아버지 때.)

102009 #1 사삼사건 후에 지은 집.(사삼사건 후에 지은 집.)

102010 @ 아아, 사삼사건 후에. 결혼은 언제 헌 거라마씨?(아아, 사삼사건 후에. 결혼은 언제 한 거예요?)

102010 #1 결혼은게 사삼사건 바로 끗나면서.(결혼은 사삼사건 바로 끝나면서.)

102010 @ 음, 그때 새 집의서 헌 거구나.(음, 그때 새 집에서 한 거구나.)

102010 #1 겨난 그땐 그, 그 당신 그 저 뭐, 이 지금은 예식장에서 예식을 허지마는.(그러니까 그땐 그, 그 당신 그 저 뭐, 이 지금은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지만.)

102010 @ 예.(예.)

102010 #1 그때 그 구식으로서는 친연이라고 헤여. 그대로 영 허연 서로덜 절허고 이 표주박 끈 무꺼서 이제 그 표주박에 술 서로덜 이렇게 먹고.(그때 그 구식으로서는 친연이라고 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서로들 절하고 이 표주박 끈 묶어서 이제 그 표주박에 술 서로들 이렇게 먹고.)

102010 @ 음.(음.)

102010 #1 이제 그런 거.(이제 그런 거.)

102010 @ 그거를 아까 뭐렌 헤마씨?(그거를 아까 뭐라고 해요?)

102010 #1 친연, 친연.(친연, 친연.)

102010 @ 친연 어, 친연?(친연 어, 친연?)

102010 #1 음.(음.)

102010 @ 그 결혼사진은 찍엇수가?(그 결혼사진은 찍었습니까?)

102010 #1 아이, 결혼사진 찍은디, 게메 이사혜연 뎅기단 보난 어디덜 다 가부런 ᄂᆞ시 춪질 못허연.(아니, 결혼사진 찍었는데, 그러게 이사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어디들 다 가버려서 도무지 찾질 못해서.)

102010 @ 음, 아까 우리 여자 삼춘은 가멜 탕 왓젠 허고 삼촌은?(음, 아까 우리 여자 삼촌은 가말 타서 왔다고 하고 삼촌은?)

102010 #1 백마 타고.(백마 타고.)

102010 @ 백마 타고.(백마 타고.)

102010 #1 으.(으.)

102010 @ 아 게믄 저기 사모관대하고?(아 그러면 저기 사모관대하고?)

102010 #1 으, 사모관대허고.(으, 사모관대하고.)

102010 @ 아, 그땐 사모관대 아년 사람도 하신디예?(아, 그땐 사모관대 않은 사람도 많았는데요?)

102010 #1 청사초롱은 없으난 못허고.(청사초롱은 없으니까 못하고.)

102010 @ 예.(예.)

102010 #1 그 대신 그 저 마을 에, 저 하인덜엔 헷지, 그때는.(그 대신 그 저 마을 에, 저 하인들이라고 했지, 그때는.)

102010 @ 예.(예.)

102010 #1 동넷일 보는 사름 보고. 음, 그 사름덜이 이제 가마덜 메고 이제 ᄆᆞᆯ 끌고.(동네일 보는 사람 보고. 음, 그 사람들이 이제 가마들 메고 이제 말 끌고.)

102010 @ 음.(음.)

102010 #1 이제 막 그 중간에 이제 그렇게 못헤봐서 치년, 치년덜 못헌 사름, 못헤본 사름덜은 그냥 다시 장게가구정 허덴 그냥 뭐. (웃음)(이제 매우 그 중간에 이제 그렇게 못해봐서 친연, 친연들 못한 사람, 못해본 사람들은 그냥 다시 장가가고자 한다고 그냥 뭐. (웃음))

102010 @ 게난 표주박허고 이제 술 먹는 걸 걸 이제 친연이렌 허는 거라마씨?(그러니까 표주박하고 이제 술 먹는 걸 걸 이제 친연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102010 #1 여기 상 이렇게 놓고 상 차려놘에 이제 그 저 지금은 주렌데 그 집례.(여기 상 이렇게 놓고 상 차려놔서 이제 그 저 지금은 주렌데 그 집례.)

102010 @ 예, 집례.(예, 집례.)

102010 #1 집례가 전부 이렇게 헙서, 저렇게 헙서, 그게 그 저 구령. 홀기.(집례가 전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게 그 저 구령. 홀기.)

102010@ 예.(예.)

102010#1 그게 홀기에 따랑 이제 신랑신부도 움직이는 거.(그게 홀기에 따라서 이제 신랑신부도 움직이는 거.)

102010 @ 음, 게난 그 예식 자체를 친연이렌 허는 거구나예?(음, 그러니까 그 예식 자체를 친연이라고 하는 거네요?)

102010 #1 음. 예식 자체를.(음. 예식 자체를.)

102011 @ 예식 자체를예, 신혼살림은 어디서 헌 거라마씨, 게믄?(예식 자체를요, 신혼살림은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102011 #1 아, 여기서.(아, 여기서.)

102011 @ 여기서 그냥예?(여기서 그냥요?)

102011 #1 어디 여행이엔 헌 것도 엇고, 그때는 씨집오면은 신랑 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어디 여행이라고 한 것도 없고, 그때는 시집오면 신랑 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

102011 @ 예.(예.)

102011 #1 그 뒷날은 신부 집에 가는 거라.(그 뒷날은 신부 집에 가는 거야.)

102011 @ 예.(예.)

102011 #1 신붓집에서 가서 인사하고 그날 신붓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 이제 사돈덜이 이제 신붓집에 갈 때에 여기서 웃어른이 대표지. 대표로 이제 가서 거기 인사허고 이제 와버리면 거기서 식사허고 와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하룻저녁 자고 다시 여기도 신랑신부가 다시 올 때엔 거기서 대표로 이제 아버지나 어느 저 오빠나 헹근엥게 여기 완 인사허고.(신부 집에서 가서 인사하고 그날 신부 집에서 하루 저녁 자고. 이제 사돈들이 이제 신부 집에 갈 때에 여기서 웃어른이 대표지. 대표로 이제 가서 거기 인사하고 이제 와버리면 거기서 식사하고 와버리면 이제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다시 여기도 신랑신부가 다시 올 때엔 거기서 대표로 이제 아버지나 어느 저 오빠나 해서 여기 와서 인사하고.)

102011 @ 음.(음.)

102011 #1 게난 우시라고 헤가지고 이 상객.(그러니까 위요라고 해가지고 이 상객.)

102011 @ 예.(예.)

102011 #1 상객덜은 이제 결혼, 잔칫날, 잔칫날 서로 인사덜 허고 뭐 어쩌고 허는데.(상객들은 이제 결혼, 잔칫날, 잔칫날 서로 인사들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102011 @ 예.(예.)

102011 #1 그쪽 부모님이나 이쪽 부모님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그쪽 부모님이나 이쪽 부모님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102011 @ 음.(음.)

102011 #1 이제 그 뒷날 거기 갈 때 같이 가서 인사허고, 또 그 다음날 신랑집에 올 때에 와서 같이 인사허고.(이제 그 뒷날 거기 갈 때 같이 가서 인사하고, 또 그 다음날 신랑 집에 올 때에 와서 같이 인사하고.)

102011 @ 음.(음.)

102011 #1 그 예가 바로 그거.(그 예가 바로 그거.)

102011 @ 예, 우리 여자 삼춘 올 때 뭐헹 와십디가? 혼수렌 헹은에.(예, 우리 여자 삼춘 올 때 뭐해서 왔습디까? 혼수라고 해서.)

102011 #1 혼수게 궤허고 이불허곡게 보선덜 줘근에 줘놓고 헤근에 옛날은 그거민 아주 잘 출련 온 거.(혼수 궤하고 이불하고 버선들 줘서 줘놓고 해서 옛날은 그거면 아주 잘 차려서 온 거.)

102011 @ 궤 가졍 오믄 잘 출령 온 겁주예? 이불은 멧 채나 헨 완마씨?(궤 가져서 오면 잘 차려서 온 거지요? 이불은 몇 채나 해서 왔어요?)

102011 #1 이불 알아지커라? (웃음) 두어 챈, 두 채 뒛을 거라, 아메도. 두 채 더 뒈여신가?(이불 알겠어? (웃음) 두어 챈, 두 채 됐을 거야, 아마도. 두 채 더 되었는가?)

102012 @ 그 아이들은 어떵 뒈마씨?(그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102012 #1 아이들은 오 남맨데 삼남 이녀.(아이들은 오 남맨데 삼남 이녀.)

102012 @ 삼남 이녀예?(삼남 이녀요?)

102012 #1 아들 싯 뚤 둘.(아들 셋 딸 둘.)

102014 @ 음, 여자 삼춘한티 물어봐야 뒐 게 여기 나왓구나? 자식들 결혼은 다 시켠마씨?(음, 여자 삼촌한테 물어봐야 될 게 여기 나왔구나? 자식들 결혼은 다 시켰어요?)

102014 #1 예.(예.)

102014 @ 아, 어떻게 헷수가?(아, 어떻게 했습니까?)

102014 #1 어떵 어떵 허여마씀, 이제 큰뚤은 연예헨 가버리고.(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제 큰딸은 연애해서 가버리고.)

102014 @ 예.(예.)

102014 #1 저 육지.(저 육지.)

102014 @ 음.(음.)

102014 #1 이제 서울 가버리고. 그 다음은 큰아덜 풀아알[39] 건디 큰아덜도 그 연극영화과 다니단에 거기서 안 사람허고 헨에 이제 서로 뭐허게 되고.(이제 서울 가버리고. 그 다음은 큰아들 장가가야 할 것인데 큰아들도 그 연극영화과 다니다가 거기서 안 사람하고 해서 이제 서로 뭐하게 되고.)

102014 @ 예.(예.)

102014 #1 또 둘째아덜도 이제 서울서 이제 만난에 이제 그 양녕대군 후예.(또 둘째아들도 이제 서울서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양녕대군 후예.)

102014 @ 으으.(으으.)

102014 #1 에, 만나서 이제 결혼헤엿고.(에, 만나서 이제 결혼했고.)

102014 @ 예.(예.)

102014 #1 이 족은아덜은 또 여기서 결혼허고. 또 작은딸은 것도 연예헨에.(이 작은아들은 또 여기서 결혼하고. 또 작은딸은 것도 연애해서.)

---

39) '풀아알'은 표준어 '팔아야 할'의 의미다. 여기에서는 '장가보내야'의 뜻으로 쓰였다.

102014 @ 예.(예.)

102014 #1 저 어디 직장에 다니단에 저 뭣고, 그 서울 군인이 하필 제주에 그 짝이 아마 짝을 춧아서 온 게 같애. 그걸 보면.(저 어디 직장에 다니다가 저 뭐지, 그 서울 군인이 하필 제주에 그 짝이 아마 짝을 찾아서 온 거 같아. 그걸 보면.)

102014 @2 인연?(인연?)

102014 #1 인연 춧안. 여기 완에 그 근무허단에 서로 만난 결혼헨 가불고.(인연 찾아서. 여기 와서 그 근무하다가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가버리고.)

102014 @ 일 잘도 빨리 출렷수다예? (웃음)(일 잘도 빨리 차렸습니다? (웃음))

102014 #1 그렇다고 보면, 마 그런대로 놈보단 빨리 처리헨.(그렇다고 보면, 마 그런대로 남보단 빨리 처리해서.)

102014 @ 예, 게난 여기 족은아들이 젤 효잔게예? 옆에서 사는 아들이. (웃음)(예, 그러니까 여기 작은아들이 젤 효잔데요? 옆에서 사는 아들이. (웃음))

102014 #1 어, 옆에 살고, 지금 큰아들도 내려완에.(어, 옆에 살고, 지금 큰아들도 내려와서.)

102014 @ 아.(아.)

102014 #1 이제 셋아들은 뭐 저 지금 안양 살암주마는.(이제 둘째아들은 뭐 저 지금 안양 살고 있지만.)

102014 @ 예.(예.)

102014 #1 안양서 근무허고.(안양서 근무하고.)

102014 @ 여기 제주도에는 이제 큰아들하고 족은아들 사는 거구나예?(여기 제주도에는 이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사는 거군요?)

102014 #1 음.(음.)

102015 @ 그 다음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헹은에 뭐 ᄀᆞᆯ 말 잇으믄 ᄀᆞᆯ아줍서?(그 다음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해서 뭐 말할 말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102015 #1 며느리허고 사위는 글쎄, 뭐.(며느리하고 사위는 글쎄, 뭐.)

102015 @ 잘허지양?(잘하지요?)

102015 #1 궂인 뭐가 없으니까 서로.(궂은 뭐가 없으니까 서로.)

102015 @ 예. 게니까 육지 사위덜 헤부니까?(예. 그러니까 육지 사위들 해버리니까?)

102015 #1 육지 사위덜 헤도 춤 잘 헤여.(육지 사위들 해도 참 잘 해.)

102015 @ 예.(예.)

102015 #1 잘 헤여.(잘 해.)

102015 @ 어떵 잘 헙니까?(어떻게 잘 합니까?)

102015 #1 아, 뭐, 왕 뜯어가지 아녀고, 쫌 저 영 무시거 가끔 보내주곡 허민 그게 제일 좋은 거주.(아, 뭐, 와서 뜯어가지 않고, 좀 저 이렇게 무엇 가끔 보내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지.)

102015 @ 맞수다.(맞습니다.)

102015 #1 자꾸 옷이라도 흔 불썩 일 년에 흔 번씩 보내주면 경 말렌 헤도. (웃음)(자꾸 옷이라도 한 벌씩 일 년에 한 번씩 보내주면 그렇게 말라고 해도. (웃음))

102016 @ 그거 말앙 더 자식 자랑헐 건 엇수가? (웃음).(그거 말고 더 자식 자랑할 것은 없습니까? (웃음).)

102016 #1 글쎄, 자식 자랑은 뭐 큰아, 이제 아이덜이 별로 이제 부모덜 힘 들이지 안 허연 이제 학교덜 마치고, 뭐 장학생으로덜.(글쎄, 자식 자랑은 뭐 큰아, 이제 아이들이 별로 이제 부모들 힘 들이지 안 해서 이제 학교들 마치고, 뭐 장학생으로들.)

102016 @ 음.(음.)

102016 #1 헌 거주. 게난 이제 내중에 결혼까지덜 헨 사니깐, 뭐 큰아덜쯤은 인칙에도 말헷주마는 마 예술 계통에서 뭐 제주도에선 에 마 손꼽으민 손꼽을 만헌.(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들 해서 사니깐, 뭐 큰아들쯤은 일찍도 말했지만 마 예술 계통에서 뭐 제주도에선 에 마 손꼽으면 손꼽을 만한.)

102016 @2 이름 뭐?(이름 뭐?)

102016 #1 양영기.(양영기.)

102016 @ 양영기 씨?(양영기 씨?)

102016 #1 그 뭣엔 연기로 헤서, 연기.(그 뭣엔 연기로 해서, 연기.)

102016 @ 연기로 어?(연기로 아?)

102016 #1 경허난 지금은 춤 그 몸이 안 좋아서 이젠 놀고 잇지마는.(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참 그 몸이 안 좋아서 이젠 놀고 있지만.)

102016 @ 예.(예.)

102016 #1 오십 대 후반이 뒈불고 허니까.(오십 대 후반이 되어버리고 하니까.)

102016 @ 예.(예.)

102016 #1 이제 전국연극제에서 개인 대상은 제주도에서 처음 일차.(이제 전국연극제에서 개인 대상은 제주도에서 처음 일차.)

102016 @ 음.(음.)

102016 #1 또 가이가 가리켜서 다시 또 흔 사름이 개인 대상 받앗어.(또 걔가 가르쳐서 다시 또 한 사람이 개인 대상 받았어.)

102016 @ 음.(음.)

102016 #1 가이가 가리켠에 개인 대상 받으난 이제 제주도 안네 두 사름벳기 없어. 연기 개인 대상.(걔가 가르쳐서 개인 대상 받으니까 이제 제주도 안에 두 사람밖에 없어. 연기 개인 대상.)

102016 @ 개인 대상예?(개인 대상요?)

102016 #1 최불암네 이런 분덜이 전부 완에 육지서 심사헨에.(최불암네 이런 분들이 전부 와서 육지서 심사해서.)

102016 @ 제주도 온 지는 얼마 뭰마씨?(제주도 온 지는 얼마 되었어요?)

102016 #1 흔 십오 년 뭼실 거라. 이제.(한 십오 년 되고 있을 거야. 이제.)

102016 @ 이젠 십오 년 되고예?(이젠 십오 년 되고요?)

102016 #1 경허난 그 최불암 씨 그분덜이 제주도 연극 보고 깜작 놀란 여기까지 갓냐고, 아주 감탄허더라고.(그러니까 그 최불암 씨 그분들이 제주도 연극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까지 갔냐고, 아주 감탄하더라고.)

102016 @ 예.(예.)

102016 #1 성우, 성우도 허엿고, 아나운서도 허엿고, 가이가.(성우, 성우도 했고, 아나운서도 했고, 걔가.)

102016 @ 음.(음.)

102016 #1 연극 헤엿고, 뭐 그런 정도. 지금 여기 테레비에 나와 가민 그 거기서 서울 잇인 때에 저 나신디 선생님 선생님 허던 아이우다. 저.(연극 했고, 뭐 그런 정도. 지금 여기 텔레비전에 나와 가면 그 거기서 서울 있을 때에 저 나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던 아입니다. 저.)

102016 @ 예.(예.)

102016 @ 지금 무슨 일?(지금 무슨 일?)

102016 #1 지금 놀암서.(지금 놀고 있어.)

102016 @ 몸 편찮으다고 저기 하니까.(몸 편찮다고 저기 하니까.)

102016 #1 지금 큰아들은 미대 다념실 거라. 제주대학.(지금 큰아들은 미대 다니고 있을 거야. 제주대학.)

102016 @ 예에.(예에.)

3. 밭일

103001 @ 예. 삼춘 밧일도 하영 헷지양?(예. 삼촌 밭일도 많이 했지요?)

103001 #1 아이고, 밧일도 허고 커올 때 고학허젠 허난에.(아이고, 밭일도 하고 커올 때 고학하려고 하니까.)

103001 @ 예.(예.)

103001 #1 세탁소에 간 양복점에 처음 간 이제 경허난 양복점에 잇어나난에 이젠 옷 꿰어 입는 건 그냥 미싱 ᄒᆞ나 놓민 그냥.(세탁소에 가서 양복점에 처음 가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양복점에 있었었으니까 이제는 옷 꿰어 입는 건 그냥 재봉틀 하나 놓으면 그냥.)

103001 @1, 2 아아.(아아.)

103001 #1 뭐 걸리질 안허여. 그자 ᄒᆞ나 또 멘들앙 입는 것도 뭐 거세기허곡. 세탁소로.(뭐 걸리질 않아. 그저 하나 또 만들어서 입는 것도 뭐 거시기하고. 세탁소로.)

103001 @ 으음.(으음.)

103001 #1 이제 벡훼.(이제 백회.)

103001 @ 예.(예.)
103001 #1 저런.(저런.)
103001 @ 예, 예.(예, 예.)
103001 #1 벡훼 알아져?(백회 알아져?)
103001 @ 예.(예.)
103001 #1 벡훼 알 사름, 이 사름도 몰를 걸.(백회 아는 사람, 이 사람도 모를 걸.)
103001 @ 예. 무사 옛날이야게 다 벡훼로 헤근엥에 벽 바르지 아녀수과?(예. 왜 옛날이야 다 백회로 해서 벽 바르지 않았습니까?)
103001 #1 이 집을 벡훼레 전부 저 안 도빌[토빌] 헷어.(이 집을 백회에 전부 저 안 도배를 했어.)
103001 @ 예.(예.)
103001 #1 저, 이 밖에 또 이런 축 우에덜은 전부 그 하얀 걸로 헷는데 이제 그것도 만들엇고.(저, 이 밖에 또 이런 축 위에는 전부 그 하얀 걸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만들었고.)
103001 @ 음.(음.)
103001 #1 그자 그거 저거 허면서 또 벽돌도 많이.(그저 그거 저거 하면서 또 벽돌도 많이.)
103001 @ 음.(음.)
103001 #1 저 아니 굽는데.(저 아니 굽는데.)
103001 @ 예.(예.)
103001 #1 만들진 아너고.(만들진 않고.)
103001 @ 음.(음.)
103001 #1 만들긴 뚠 사름 거 육지 분들이 완에 만들고, 그 굽는디.(만들긴 다른 사람 거 육지 분들이 와서 만들고, 그 굽는데.)
103001 @ 음.(음.)
103001 #1 많이 거세기헷고.(많이 거시기했고.)
103001 @ 음, 벽돌도 구웠고?(음, 벽돌도 구웠고?)
103001 #1 경허단 그냥 여기 밀감허기 시작허니깐 여기 완에 이제 밀감에.(그렇게 하다가 그냥 여기 밀감하기 시작하니깐 여기 와서 이제 밀감에.)
103001 @ 음.(음.)
103001 #1 정신 서꺼불고.(정신 섞어버리고.)
103001 @ 게도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농사짓젠 허민 도웁긴 헤실 거 아니라양?(그래도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농사지으려고 하면 돕긴 했을 거 아닌가요?)
103001 #1 아, 그 물론.(아, 그 물론.)
103001 @ 예, 게믄 보리농사부터 흔번 저기, 아, 보리농사 전에예 밧일 허면은 어떤 일들이 잇어신고예? 예전에는.(예, 그러면 보리농사부터 한번 저기, 아, 보리농

사 전에요 밭일 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103001 #1 예전에는 밧 허면은 이제 노는 밧은 봄에 갈고.(예전에는 밭 하면 이제 노는 밭은 봄에 갈고.)

103001 @ 예.(예.)

103001 #1 갈앗다가 이제 이 즉 말허면 풀이 성헌 거 그거 그냥 덮으면은 거름이 뒈니까.(갈았다가 이제 이 즉 말하면 풀이 성한 거 그거 그냥 덮으면 거름이 되니까.)

103001 @ 예.(예.)

103001 #1 이제, 이제 갈아, 갈아 놧당 번험이라고 헌 건디.(이제, 이제 갈아, 갈아 놨다가 애벌갈이라고 하는 건데.)

103001 @ 번헌덴?(애벌갈이한다고?)

103001 #1 번헌덴 곧는 건디, 번허엿당 이다음 여름농사를 이제 늦인 봄부터 시작헹근에 허영 허는 거고. 다시 이제 뭐 칠월 일일 중심헹근엥에 여름곡식 이제 조덜 허곡. 그 사이에 이제 감저덜 이제 봄, 봄에 감저 놧당근에 감저 싱그곡.(애벌갈이한다고 말하는 건데, 애벌갈이했다가 이다음 여름농사를 이제 늦은 봄부터 시작해서 해서 하는 거고. 다시 이제 뭐 칠월 일일 중심해서 여름곡식 이제 조들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고구마들 이제 봄, 봄에 고구마 넣었다가 고구마 심고.)

103001 @ 예.(예.)

103001 #1 이제 경허멍 그거 저거 보리허곡 조허곡 콩허곡 이 대개 그.(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거 저거 보리하고 조하고 콩하고 이 대개 그.)

103001 @ 으, 감저 싱그곡.(으, 고구마 심고.)

103001 #1 으 이제 십이월달 나민 다시 보리 갈곡.(아 이제 십이월 되면 다시 보리 갈고.)

보리농사

103002 @ 예. 경 허영 이 저 가는 거라예. 게믄 보리 혼번 갈아보쿠다예?(예. 그렇게 해서 이 저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리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103002 #1 예.(예.)

103002 @ 보리농사 짓젠 허면 뭘 준비헤신고예?(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뭘 준비했는가요?)

103002 #1 보리농사를 허젠 허면 걸름을 준비해살 거.(보리농사를 하려고 하면 거름을 준비해야 할 거.)

103002 @ 음.(음.)

103002 #1 게난 내가 조꼼 그 곡식을 잘 헤먹젠 허면 보릴 걸름을 놔야 뒈곡.(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 곡식을 잘 해먹으려고 하면 보릴 거름을 놔야 되고.)

103002 @ 예.(예.)

103002 #1 거름이옌 허민 퇴비.(거름이라고 하면 퇴비.)

103002 @ 예.(예.)

103002 #1 놔야고. 이제 그걸 거름이 부족허면은 이제 밧이 멧 개 이시민 돌려가멍 놔야 뒈고. 집에는 돼지 키우곡 소 키우곡 헤야 되니까.(놔야 하고. 이제 그걸 거름이 부족하면 이제 밭이 몇 개 있으면 돌려가면서 놔야 되고. 집에는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해야 되니까.)

103002 @ 예.(예.)

103002 #1 게영 처음에는 처음 살림헐 때는 소 돼지도 힘드니까.(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살림할 때는 소 돼지도 힘드니까.)

103002 @ 예.(예.)

103002 #1 그때는. 지금은 요즘 그렇게 산덴 허민 어멍, 어머니 아버지신디 그냥 뭐 사줍서 뭐 사줍서 허주마는 그때는 그게 경 통허들 아녓으니까.(그때는. 지금은 요즘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통하질 않았으니까.)

103003 @ 그렇주마씨. 그 게난 그런 걸름 준비를 헤야될 거 아니라예.(그렇지요. 그 그러니까 그런 거름 준비를 해야될 거 아닌가요.)

103003 #1 예.(예.)

103003 @ 그 걸름은 어떤 식으로 마련헨마씨?(그 거름은 어떤 식으로 마련했어요?)

103003 #1 걸름은 통시에서.(거름은 돼지우리에서.)

103003 @ 예.(예.)

103003 #1 이제 도새기가 만들고,(이제 돼지가 만들고,)

103003 @ 으음.(으음.)

103003 #1 이제 외양간에선 쉐가 만들고.(이제 외양간에선 소가 만들고.)

103003 @ 예.(예.)

103003 #1 그거 봄나민 내영근엥에 이제 마당에 쌓아두면은 거기서 터가지고.(그거 봄되면 내어서 이제 마당에 쌓아두면 거기서 떠가지고.)

103003 @ 예.(예.)

103003 #1 이제 후숙이라고 헐까. 이제 그렇게 뒈면은 이제 소거름허고 돼지거름하고 징징이 이렇게 놔서 이제 이렇게 허면은 내중에 이제 걸 뿌수민 다 저 혼합믹서가 뒐 거니까.(이제 후숙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거름하고 돼지거름하고 층층이 이렇게 놔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걸 부수면 다 저 혼합믹서가 될 거니까.)

103003 @ 예.(예.)

103003 #1 경 헹근엥에 밧듸 뿌리고.(그렇게 해서 밭에 뿌리고.)

103003 @ 바당에 강은에 뭐 듬북 ᄀᆞ튼 거?(바다에 가서 뭐 듬북 같은 거?)

103003 #1 여기선 헤변 사름이나 허주.(여기선 해변 사람이나 하지.)

103003 @ 으.(아.)

103003 #1 듬북 놓구젠 허민 헤변 사름한티 밧을 빌리는 거라.(듬북 놓으려고 하면 해변 사람한테 밭을 빌리는 거야.)

103003 @ 아아.(아아.)

103003 #1 듬북 놔도렌 헤연.(듬북 놔달라고 해서.)

103003 @ 예에.(예에.)

103003 #1 게난 즉 말허민 염분 보충인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허면은. 옛날은 그 염분은 염분인디 뭐인지 그걸 모르니까.(그러니까 즉 말하면 염분 보충인데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옛날은 그 염분은 염분인데 뭐인지 그걸 모르니까.)

103003 @ 예.(예.)

103003 #1 소곰. 소곰만 그때 소곰 살 돈도 없기야 없지마는 소곰만 뿌려도 뒈긴 뒈는 건디.(소금. 소금만 그때 소금 살 돈도 없기야 없지만 소금만 뿌려도 되긴 되는 건데.)

103003 @ 으.(으.)

103003 #1 이제 그걸 이제 학술상으로 어떻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때 그분덜이 걸 일러주지 안허니까.(이제 그걸 이제 학술상으로 어떻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때 그분들이 걸 일러주지 않으니까.)

103003 @ 예, 맞습니다.(예, 맞습니다.)

103003 #1 이건 듬북 놔야 잘 뒈는 거.(이건 듬북 놔야 잘 되는 거.)

103003 @ 그렇게 헨.(그렇게 해서.)

103003 #1 걸름 놔사 잘 뒈는 거.(거름 놔야 잘 되는 거.)

103004 @ 으, 그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떵 가는 거마씨? 보리는 언제 그 가는 과정을 골아줘 봅서.(아, 그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보리는 언제 그 가는 과정을 말씀해 줘보세요.)

103004 #1 가는 과정은 에 십이월달에.(가는 과정은 에 십이월에.)

103004 @ 예.(예.)

103004 #1 이제 파종을 허고.(이제 파종을 하고.)

103005 @ 예. 게난 그 밧 갈앙 뭐 씨 뿌리기부터 헹예 보리부터 혼번 갈아봅서?(예. 그러니까 그 밭 갈아서 뭐 씨 뿌리기부터 해서요 보리부터 한번 갈아보십시오?)

103005 #1 아, 보릴 조크르[40]나 콩그르[41]에.(아, 보리를 '조그루'나 '콩그루'에.)

103005 @ 예.(예.)

103005 #1 이제 밧 갈앙.(이제 밭 갈아서.)

103005 @ 예.(예.)

103005 #1 이제 씨 뿌령.(이제 씨 뿌려서.)

103005 @ 예.(예.)

---

40) '조크르'는 조를 갈았던 곳을 말한다. '그르'는 표준어 '그루'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41) '콩그르'는 콩을 갈았던 곳을 말한다.

103005 #1 이제 끄슬퀴[42]엔 헤영근엥에.(이제 끙게라고 해서.)

103005 @ 으.(으.)

103005 #1 걸 이름이 끄슬퀴허니깐 저 섬피엔도 곧고.(걸 이름이 '끄슬퀴'하니깐 저 '섬피'라고도 말하고.)

103005 @ 예.(예.)

103005 #1 이제 그 푸지게, 푸지게엔도 허곡.(이제 그 '푸지게', '푸지게'라고도 하고.)

103005 @ 예.(예.)

103005 #1 그 흐나 가지고 이름이 뭐 세 가지.(그 하나 가지고 이름이 뭐 세 가지.)

103005 @ 예, 예. 이 동네에서는 주로 뭐렌 골앗수가? 그런?(예, 예. 이 동네에서 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103005 #1 끄슬퀴.('끄슬퀴'.)

103005 @ 끄슬퀴예, 예.(끙게요, 예.)

103005 #1 끄슬퀴.(끙게.)

103005 @ 으.(으.)

103005 #1 게영 끗으면은 씨가 믄 흑허고 버무려지니까.(그래서 끌면 씨가 몽땅 흙하고 버무려지니까.)

103005 @ 예.(예.)

103005 #1 이젠 그 더퍼지고 그 저 짚이 간 후에 씨 뿌리곡 그걸 더프면은 밧고지 잇으니까 밧고지에 흑이 넘어가면서 그냥 그레 가민 그, 그쪽에 더프고 저레 가면 저쪽에 더프곡 하면서 다 덮어졍근에 거 놔두면 이제 뿔 나곡.(이젠 그 덮어지고 그 저 깊게 간 후에 씨 뿌리고 그걸 덮으면 밭이랑 있으니까 밭이랑에 흙이 넘어가면서 그냥 그리로 가면 그, 그쪽에 덮고 저리로 가면 저쪽에 덮고 하면서 다 덮어져서 거 놔두면 이제 싹이 나고.)

103005 @ 예.(예.)

103005 #1 이제 새싹 나고 허면서 이제 커서.(이제 새싹 나고 하면서 이제 커서.)

103005 @ 예. 검질도 메야곡.(예. 김도 매야고.)

103005 #1 검질도 메곡.(김도 매고.)

103005 @ 예.(예.)

103005 #1 으, 이제 익으면은 그거 춤 비여놩.(으, 이제 익으면 그거 참 베어놓아서.)

103005 @ 예.(예.)

103011 #1 이제 태작헤영.(이제 타작해서.)

---

42) '크슬퀴'는 표준어 '끙게'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지역에 따라서 '섬비, 섬피, 푸지게' 등으로 불린다.

103011 @ 음. 그때 태작은 뭘로 헤신고예?(음. 그때 타작은 무엇으로 했는가요?)

103011 #1 옛날 태작은.(옛날 타작은.)

103011 @ 음.(음.)

103011 #1 저 가상 터는 거옌 허는 게 잇엇낫어. 틈틈이.(저 개상 떠는 거라고 하는 게 있었었어. 틈틈이.)

103011 @ 예, 예, 예.(예, 예, 예.)

103011 #1 무꺼가지고 돌에 그냥 매여치는 거.(묶어가지고 돌에 그냥 메어치는 거.)

103011 @ 예.(예.)

103011 #1 가상 턴단헌 게 잇고 도께.(개상 떤다고 한 게 있고 도리께.)

103011 @ 예.(예.)

103011 #1 도께질허는 게 잇고. 다시 홀테.(도리깨질하는 게 있고. 다시 훑이.)

103011 @ 예.(예.)

103011 #1 홀테 헤서 이제 그 보리 홀탕근엥에 메탁기 왕 이제 그거 털고.(훑이 해서 이제 그 보리 훑어서 탈곡기 와서 이제 그거 떨고.)

103011 @ 음, 여기도 가상 턴덴 말을 헷수가?(음, 여기도 개상 떤다는 말을 했습니까?)

103011 #1 헷주.(했지.)

103011 @ 아, 여기서도 가상 턴다는 말도 헷어예? 그 보리씨 뿌릴 땐 어떵 헷수과?(아, 여기서도 개상 떤다는 말도 했다고요? 그 보리씨 뿌릴 땐 어떻게 했습니까?)

103005 #1 보리씨 뿌릴 땐 사람 힘으로 헤영 그냥 쭉쭉 던지민 그냥, 힘 잇게 던지면 이제 골고로 가는 거고.(보리씨 뿌릴 땐 사람 힘으로 해서 그냥 쭉쭉 던지면 그냥, 힘 있게 던지면 이제 골고루 가는 거고.)

103005 @ 아, 게민 삼춘네는 거름에 보리씨를 서껑은 안 헤봔마씨?(아, 그러면 삼촌네는 거름에 보리씨를 섞어서는 안 해봤어요?)

103005 #1 여기선 그건 안 허여.(여기선 그건 안 해.)

103005 @ 아.(아.)

103005 #1 정읜 허는데.(정읜 하는데.)

103005 @ 여긴 밧이 좋구나예?(여긴 밭이 좋군요?)

103005 #1 에 여긴 이 농촌지도소에서 이제 그 수확량을 따줄 때에.(에 여긴 이 농촌지도소에서 이제 그 수확량을 따질 때에.)

103005 @ 예.(예.)

103005 #1 더 수확이 많게 어떻게 허느냐고 이제 나가 그때는 그 지도사 활동도 많이 헷으니까.(더 수확이 많게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내가 그때는 그 지도사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103005 @ 아아.(아아.)

103005 #1 이제 허니까 삼양 관내보단 더 나겔 어떵 헐 말이우꽈? 우린 원 더 나게 헐 재준 엇수다.(이제 하니까 삼양 관내보단 더 나오겔 어떻게 할 말입니까? 우린 도무지 더 나게 할 재준 없습니다.)

103005 @ 아.(아.)

103005 #1 이제 땅덜이 좋아. 겨고 여기도 이 도련도 동쪽 땅허고 서쪽 땅허고 틀려.(이제 땅들이 좋아. 그러고 여기도 이 도련도 동쪽 땅하고 서쪽 땅하고 달라.)

103005 @ 아.(아.)

103005 #1 같은 분량을 놓면은 무게가 틀려.(같은 분량을 놓으면 무게가 달라.)

103005 @ 아아, 똑같은 분량인데도예?(아아, 똑같은 분량인데도예?)

103005 #1 혼 뒈 갖당 탁 놩 저울이면.(한 되 갖다가 탁 넣어 저울이면.)

103005 @ 예.(예.)

103005 #1 이쪽 건 무게가 그것에 요디 거 섯동네 거 떵 그 양을 허민 이쪽이 동쪽에 건 퍼야.(이쪽 건 무게가 그것에 요기 거 섯동네 거 떠서 그 양을 하면 이쪽이 동쪽에 건 퍼내야.)

103005 @ 동쪽 게 더 무게가 나가예? 아아, 그럼 여기는 밧을 혼 평을 저기 멧 말지기?(동쪽 게 더 무게가 나가요? 아아, 그럼 여기는 밭을 한 평을 저기 몇 마지기?)

103005 #1 혼 말지기면 벡오십 평.(한 마지기면 백오십 평.)

103006 @ 땅이 좋앗네예. 벡오십 평이면 정말 땅이 좋은 거네. 그 다음에 보리 종류 어떤 거 이신 거 알아지쿠과?(땅이 좋았네요. 백오십 평이면 정말 땅이 좋은 거네. 그 다음에 보리 종류 어떤 거 있는 거 알겠습니까?)

103006 #1 보리 종류는 것보리.(보리 종류는 겉보리.)

103006 @ 예.(예.)

103006 #1 살보리, 줄보리허면 맥주맥.(쌀보리, '줄보리'하면 맥주보리.)

103006 @ 예.(예.)

103006 #1 에, 대개 그거 세 개고. 중간에 떡보리가 들어와낫어. 검은 흑보리.(에, 대개 그거 세 개고. 중간에 떡보리가 들어왔었어. 검은 흑보리.)

103006 @ 아, 요즘 검은보린가마씨?(아, 요즘 검은 보린가요?)

103006 #1 예 요즘 검은보리지.(예 요즘 검은 보리지.)

103006 @ 아, 거를 떡보리렌 헤예?(아, 거를 '떡보리'라고 한다고요?)

103006 #1 건 저 츠져, 그게.(건 저 차져, 그게.)

103006 @ 아, 게믄 상웨, 그 떡도 그걸로 헷수가?(아, 그러면 상화, 그 떡도 그걸로 했습니까?)

103006 #1 아이고, 맛좋아.(아이고, 맛 좋아.)

103006 @ 아, 거 떡보리렌 허는데 이제 요즘은 안 하고예.(아, 거 '떡보리'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안 하고요.)

103006 #1 안 헤.(안 해.)

103007 @ 그런 것덜은예? 보리밧 여기도 밟기 헙니까?(그런 것들은요? 보리밭 여기도 밟기 합니까?)

103007 #1 보리밧 밟는 디야 그거야 뭐 당연히 그 저, 뭣고? ᄒᆞ는 사람도 잇고.(보리밭 밟는 데야 그거야 뭐 당연히 그 저, 뭣이지? 하는 사람도 있고.)

103007 @ 예.(예.)

103007 #1 멩심허는 사름은 그걸 허고.(명심하는 사람은 그걸 하고.)

103007 @ 예.(예.)

103007 #1 에 멩심 아년 사름은 그대로 내버리고.(에 명심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내버리고.)

103007 @ 음.(음.)

103007 #1 이제 산테[43]엔 헹근에 나무 그 통나무에 적당헌 그 뭘 해서 이 발.(이제 '산태'라고 해서 나무 그 통나무에 적당한 그 뭘 해서 이 발.)

103007 @ 예, 예. 발 헹근에.(예, 예. 발 해서.)

103007 #1 발 헹근에 그걸로 그냥 끗엉 다니민 그게 ***.(발 해서 그걸로 그냥 끌고 다니면 그게 ***.)

103007 @ 아.(아.)

103007 #1 잘 불라져.(잘 밟아져.)

103007 @ 산테로 헹은에 밟아서예? 여기 뭐 돌테[44]나 낭테[45] 이런 거는 안 하고?(아, '산태'로 해서 밟았다고요? 여기 뭐 '돌테'나 '낭테' 이런 거는 안 하고?)

103007 #1 그 낭테가 그거주.(그 '낭테'가 그거지.)

103008 @ 아, 낭테가 그거라예. 그 다음에 보리밧 검질은 멧 번 멥니까?(아, '낭테'가 그거라고요. 그 다음에 보리밭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08 #1 세 번 정도 메사주. 싀 번.(세 번 정도 매야지. 세 번.)

103009 @ 검질덜은 어떤 검질덜 나낫수가?(김들은 어떤 김들 났었습니까?)

103009 #1 여하간 보리를 제외하고는 벨헌 양귀비가 잇어도 건 다 뽑아야 뒈니까.(여하간 보리를 제외하고는 별난 양귀비가 있어도 건 다 뽑아야 되니까.)

103009 @ 검질 일름들 혹시 알아지는 거?(김 이름들 혹시 알아지는 거?)

103009 #1 검질 이름?(김 이름?)

103009 @ 우리 여자 삼춘 알 거 닮아. (웃음).(우리 여자 삼촌 알 거 같아. (웃음).)

103009 #1 뭐 대우리.(뭐 귀리.)

103009 @ 예.(예.)

---

43) '산태'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다. 제보자는 '남테'를 '산태'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44) '돌테'는 씨 뿌린 밭을 다지는 데 쓰는, 돌로 둥그렇게 만든 농기구를 말한다.

45) '낭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다.

103009 #1 콩쿨.(개불알풀.)

103009 @ 예.(예.)

103009 #1 에, 아이고, 무슨 웨대우리.(에, 아이고, 무슨 '외대우리'.)

103009 @ 음.(음.)

103009 #1 에, 또 요즘 그 저 비단풀엔 허는 거 뭣고, 저 금전초[46]. 거 이름, 검질 이름 모르겟는디.(에, 또 요즘 그 저 비단풀이라고 하는 거 뭐지, 저 '금전초'. 거 이름, 김 이름 모르겠는데.)

103009 @ 검질 이름. 보리밧듸 허는 거예?(김 이름. 보리밭에 하는 거지요?)

103009 #1 문 잊어부런.(몽땅 잊어버렸어.)

103009 @ 대우리도 웨대우리도 잇고 그냥 대우리도 잇수가? 건 어떵?(귀리도 '외대우리'도 있고 그냥 귀리 있습니까? 건 어떻게?)

103009 #1 웨대우린 저 우에 올랑 물 양식 허는 거. 틀려. 그 밑에서 조그만이 올라오는 거.('외대우린' 저 위에 올라서 말 양식 하는 거. 달라. 그 밑에서 조그맣게 올라오는 거.)

103009 @ 건 웨대우리고. 그냥 일반 대우리는 위로 올라오는 거예?(건 '외대우리'고. 그냥 일반 대우리는 위로 올라오는 거요?)

103009 #1 보리허고 똑ᄀᆞ치 그냥 올라오는 거.(보리하고 똑같이 그냥 올라오는 거.)

103010 @ 그 보리 수확헐 때 보리 그 익으믄예, 익으믄 수확허는 과정까지 한 번 다시 ᄀᆞᆯ아 줍서? 보리 익엉 그 보리 이제 비곡.(그 보리 수확할 때 보리 그 익으면요, 익으면 수확하는 과정까지 한 번 다시 말해 주십시오? 보리 익어서 그 보리 이제 베고.)

103010 #1 익으믄, 보리 익으면 비영.(익으면, 보리 익으면 베어서.)

103010 @ 예.(예.)

103010 #1 이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르믄.(이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르면.)

103010 @ 예.(예.)

103010 #1 무껑.(묶어서.)

103010 @ 예.(예.)

103010 #1 이제 집엘 오던가 거 밧데서던가 이제 처음에는 홀테로 그걸 홀타 놩 메탁기가 갓는데.(이제 집엘 오든가 거 밭에서든가 이제 처음에는 그네로 그걸 훑어 놓아서 탈곡기가 갔는데.)

103010 @ 예.(예.)

103010 #1 이제 그 내중에는 그냥 뭇차 집어놩근엥에 고고리만 그 고고리만 튿아 아사부런.(이제 그 나중에는 그냥 뭇째 집어넣어서 이삭만 그 이삭만 뜯어 가져버렸어.)

---

46) '금전초'는 '비단풀'의 다른 이름이다. 제주어로는 '빈네쿨'이라고 한다.

103010 @ 음.(음.)
103010 #1 이제 헤나고.(이제 했었고.)
103010 @ 보리 비젠 허면은 준비헤야 뭴 게 잇지 안허우과?(보리 베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안합니까?)
103010 #1 보리 비젠 허면 호미. 주로 호미 엇엉은 안 뒈주. 낫. 표준어로 낫.(보리 베려고 하면 낫. 주로 낫 없어서는 안 되지. 낫. 표준어로 낫.)
103010 @ 예, 게난 그 호미도 그냥 가민 안 뭴 거 아니우과? 밧듸 가젠 허면은 그 준비를 허연.(예, 그러니까 그 낫도 그냥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밭에 가려고 하면 그 준비를 해서.)
103010 #1 골아사주.(말해야지.)
103010 @ 예.(예.)
103010 #1 신돌에 골안.(숫돌에 갈았어.)
103010 @ 예.(예.)
103010 #1 이제 숫돌엔 허주마는 거 신돌.(이제 숫돌이라고 하지만 거 '신돌'.)
103010 @ 여기 도련 말로?(여기 도련 말로?)
103010 #1 신똘.(숫돌.)
103010 @ 예, 씬돌.(예, 숫돌.)
103010 #1 신돌에[씬또레] 호미 골앙.(숫돌에 낫 갈아서.)
103010 @ 예.(예.)
103010 #1 밧듸 아정가민 그걸로 보리 비곡 조 비곡 콩 꺼끄곡.(밭에 가져가면 그걸로 보리 베고 조 베고 콩 꺾고.)
103010 @ 예. 경 헤영 허고 무끄젠 허면은 무신 거로 무껏수과? 여기는.(예. 그렇게 해서 하고 묶으려고 하면 무슨 거로 묶었습니까? 여기는.)
103010 #1 께가 잇어야는데, 건 주로 새.(매끼가 있어야는데, 건 주로 띠.)
103010 @ 예, 아, 새로예?(예, 아, 띠로요?)
103011 #1 새로, 이제 그 저 보리 무끌 샐 놔두엇다가.(띠로, 이제 그 저 보리 묶을 띨 놔두었다가.)
103011 @ 음.(음.)
103011 #1 이 집 일 때에.(이 집 일 때에.)
103011 @ 예.(예.)
103011 #1 건 놔뒷당근에 그걸로 께 데왕.(건 놔뒀다가 그걸로 매끼 꼬아서.)
103011 @ 예.(예.)
103011 #1 간 무꺼.(가서 묶어.)
103011 @ 으음, 그 산디찍으로 께 데우진 안허고마씨?(으음, 그 밭볏짚으로 매끼 꼬지 안하고요?)
103011 #1 산디찝이 여기 경 많질 아녀난.(밭볏짚이 여기 그렇게 많질 않으니까.)

103011 @ 아아, 산디찍은. 산디는 하영 안 간 모양이우다, 여긴예?(아아, 밭볏짚은. 밭볏짚은 많이 안 간 모양입니다, 여긴요?)

103011 #1 예, 예. 그건 그 저 제사헤여 먹을 거나 조끔 저 허주.(예, 예. 그건 그 저 제사해 먹을 거나 조금 저 하지.)

103011 @ 음.(음.)

103011 #1 경 그 많이, 주로 보리덜 많이 헷어.(그렇게 그 많이, 주로 보리들 많이 했어.)

103011 @ 음, 그러면 삼춘, 아까 이제 새로 께 헷지, 데왕 헷지 아녀우과? 보리로도 지냥으로도 무끄진 아넘니까?(음, 그러면 삼촌, 아까 이제 새로 매끼 했지, 꼬아서 했지 않습니까? 보리로도 저대로도 묶진 않습니까?)

103011 #1 아, 보리로도 무꺼.(아, 보리로도 묶어.)

103011 @ 그런 께는 무신 께렌 헙니까?(그런 매끼는 무슨 매끼라고 합니까?)

103011 #1 붙께[47]옌 붙께.('붙께'라고 '붙께'.)

103011 @ 아, 붙께렌 헤 그거는예?(아, '붙께'라고 해 그거는요?)

103011 #1 붙벡이 헌다고 헨에 아메도 붙께렌 허는 모냥이라.(붙박이 한다고 해서 아마도 '붙께'라고 하는 모양이야.)

103011 @ 보리 붙은 그걸로 헤서 여기는 붙께렌 하고예? 알앗수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도 저기 도리께질, 도께로도 헙니까? 보리도.(보리 붙은 그걸로 해서 여기는 '붙께'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리도 저기 도리께질, 도리께로도 합니까? 보리도.)

103011 #1 도께로도 허주.(도리께로도 하지.)

103012 @ 아 도께로도 허고예. 아 보리쌀은 어떵 장만헤신고예? 옛날예.(아 도리께로도 하고요. 아 보리쌀은 어떻게 장만했는가요? 옛날요.)

103012 #1 옛날은 그 저 돌팡에에서 이제 물 적정 그 자꾸 굴령, 영 돌려 가면 그게 이 견, 첸 벗어지면 속에 쏠만 뽑앗는데.(옛날은 그 저 연자매에서 이제 물 적셔서 그 자꾸 굴려서, 이렇게 돌려 가면 그게 이 겨는, 겨는 벗겨지면 속에 쌀만 뽑았는데.)

103012 @ 음.(음.)

103012 #1 우리가 크기, 크기 시작허니까 방앗간.(우리가 크기, 크기 시작하니까 방앗간.)

103012 @ 음.(음.)

103012 #1 방앗간에 아적 가져가민 그냥 기계에서 싹.(방앗간에 아침에 가져가면 그냥 기계에서 싹.)

103012 @ 음. 어렷을 때 게믄 그 돌팡에는 허는 건 봐봇구나예?(음. 어렸을 때 그러면 그 연자매는 하는 건 봐봤군요?)

103012 #1 아이고,(아이고,)

47) '붙께'는 뭇이나 단으로 묶을 물건을 이용하여 그것을 묶는 매끼를 말한다.

103012 @ 물 적시멍.(물 적시면서.)

103012 #1 나도 ᄀᆞ치 강근엥에 그 저 연자방아 돌려사주.(나도 같이 가서 그 저 연자방아 돌려야지.)

103012 @ 으음.(으음.)

103012 #1 연자방아ᄀᆞ라 이제 돌팡에[48].(연자방아보고 이제 '돌팡에'.)

103012 @ 여기는 돌팡에렌 허는 거라예. 그 돌팡에 헐 때 무사 사람으로 돌리는 것도 잇주마는 옛날에.(여기는 '돌팡에'라고 하는 거네요. 그 연자매 할 때 왜 사람으로 돌리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103012 #1 ᄆᆞ쉬.(마소.)

103012 @ 예, ᄆᆞ쉬 헤갖고.(예, 마소 해갖고.)

103012 #1 ᄆᆞ쉬 엇이면 사름이 엇은 때 ᄆᆞ쉬도 허곡. 편허게 허기 위헤서 이제 ᄆᆞᆯ이나 쉐로도 허곡.(마소 없으면 사람이 없을 때 마소도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이나 소로도 하고.)

103012 @ 음. 그 이 동네도 ᄋᆞ라 군데 잇어실 거라예?(음. 그 이 동네도 여러 군데 있었을 거네요?)

103012 #1 아, 여러 군데.(아, 여러 군데.)

103012 @ 그런 거는예?(그런 거는요?)

103012 #1 이, 이, 농, 농사에 주로 전력허던 동네라놔서.(이, 이, 농, 농사에 주로 전력하던 동네여서.)

103012 @ 예.(예.)

103012 #1 그 연자방아덜이 많허여.(그 연자방아들이 많아.)

103012 @ 음, 그거를 그냥 뭐 ᄆᆞᆯᄀᆞ레니?(음, 그거를 그냥 뭐 연자매니?)

103012 #1 ᄆᆞᆯᄀᆞ레.(연자매.)

103012 @ ᄆᆞᆯᄀᆞ레렌도 허고 돌팡에엔도 허고예?('ᄆᆞᆯᄀᆞ레'라고도 하고 '돌팡에'라고도 하고요?)

103012 #1 으.(으.)

103013 @ 아아, 그 다음에 이제 보리허면 보리쏠로 헤갖고 헤먹는 건 뭐 잇어신고예?(아아, 그 다음에 이제 보리하면 보리쌀로 해갖고 해먹는 건 뭐 있었을까요?)

103013 #1 보끔이[49] 헤 먹곡, 개역 헤먹곡. 주로 보끔이 허곡 개역 허고 에 보리떡도 헹 먹곡.('보끔이' 해 먹고, 미숫가루 해 먹고. 주로 '보끔이' 하고 미숫가루 하고 에 보리떡도 해서 먹고.)

103013 @ 보리떡도 헤 먹고 밥 헤 먹고.(보리떡도 해 먹고 밥 해 먹고.)

103013 #1 보리상웨[50]도 헤 먹곡.('보리상웨'도 해 먹고.)

---

48) '돌팡에'는 '돌ㅎ+방에(방아)'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돌로 만들어진 방아로, 연자매를 가리킨다.

49) '보끔이'는 보리를 번철에 그대로 볶아낸 음식을 말한다.

50) '보리상웨'는 보릿가루에 효모를 넣어서 부풀린 후 둥그렇게 만들어서 찐 빵이다. 표준어로 바꾸

103013 @ 보리상웨예? 예전에 여기도 밀ᄏᆞ르덜도 갈아신가마씨?(보리상웨요? 예전에 여기도 밀가루들도 갈았는가요?)

103013 #1 밀도 옛날 갈아낫주.(밀도 옛날 갈았었지.)

103013 @ 예.(예.)

103013 #1 갈아낫주마는 그 저 수확이 많지 아녀 놓니까.(갈았었지만 그 저 수확이 많지 않아 놓으니까.)

103013 @ 음.(음.)

103013 #1 지금ᄀᆞ치 비료가 잇엉근엥에 잘 헤주면 것도 뭐허주마는 비료가 어렵고.(지금같이 비료가 있어서 잘 해주면 것도 뭐하지만 비료가 어렵고.)

103013 @ 음.(음.)

103013 #1 비료 나온 지가 오래질 아녓어. 여기 우리 ᄆᆞ음대로 쓰기 시작헌 디가. 에, 우리 어린 때엔 비료 흔 포만 구헤지민 그게 그냥 어디 강은에 금싸라기 구헤진 거만이.(비료 나온 지가 오래질 않았어. 여기 우리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지가. 에, 우리 어린 때엔 비료 한 포만 구해지면 그게 그냥 어디 가서 금싸라기 구해진 거만큼.)

103014 @ (기침)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이제 방에 헤나면?((기침)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이제 방아 해나면?)

103014 #1 으.(으.)

103014 @ 체가 나올 거 아니우과?(겨가 나올 거 아닙니까?)

103014 #1 음.(음.)

103014 @ 건 어떤 식으로 헤신고예?(건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103014 #1 체는 그거 푸는체질을 허던가 아니면 체질을 허던가 허영 그 체가 나오멘 그건 주로 도새기 양석.(겨는 그거 키질을 하든가 아니면 체질을 하든가 해서 그 겨가 나오면 그건 주로 돼지 양식.)

103014 @ 음.(음.)

103014 #1 으, 도새기 양석.(으, 돼지 양식.)

103014 @ 도새기 양석하고 그도.(돼지 양식하고 그도.)

103014 #1 쉐도 조금 먹곡.(소도 조금 먹고.)

103014 @ 쉐도 먹고예? 그, 그것도 굵은체가 잇일 거고. 예, 그 다음 ᄀᆞ르가 잇일 거 아니우과?(소도 먹고요? 그, 그것도 굵은체가 있을 거고. 예, 그 다음 가루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3014 #1 아, 저 그건 이 저 벌렁.(아, 저 그건 이 저 쪼개서.)

103014 @ 예.(예.)

103014 #1 ᄀᆞ레에, ᄀᆞ레에 그 맷돌에 곤 때에, 이 ᄀᆞ레에 곤 때에 그게 이 저 좀진 거 홁은 게 나오주. 그건 주로 그건 사름덜이 먹고.(맷돌에, 맷돌에 그 맷돌에 갈 때에, 이 맷돌에 갈 때에 그게 이 저 자잘한 거 굵은 게 나오지. 그건 주로 그건

면 '보리상화떡'에 해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103014 @ 예.(예.)

103014 #1 으, 그 연 큰 그.(으, 그 연 큰 그.)

103014 @ 방엣간에 갈 때.(방앗간에 갈 때.)

103014 #1 거기서 헌 건 짐승덜 키우고.(거기서 한 건 짐승들 키우고.)

103014 @ 음, 그렇게 나온 ᄀᆞ를은 뭐렌 ᄀᆞᆯ아마씨?(음, 그렇게 나온 가루는 뭐라고 말해요?)

103014 #1 뭐?(뭐?)

103014 @ 하얀 ᄀᆞ르덜 이름.(하얀 가루들 이름.)

103014 #1 체.(겨.)

103014 @ 체엔 말고도 또 허지 아녕니까? 쉐 멕일 때 촐에도 버무령 주고.(겨라고 말고도 또 하지 않습니까? 소 먹일 때 꼴에도 버무려서 주고.)

103014 #1 게메, 아 그땐 체 버무령 주멘.(글쎄, 아 그땐 겨 버무려서 주면.)

103014 @ 체 버무령. 혹시 등게ᄀᆞ르 이런 말은 안 헙디가?(겨 버무려서. 혹시 등겨가루 이런 말은 안 합디가?)

103014 #1 등게에 뭐여 그건 저 여기서 별로 ᄀᆞᆫ진 아녓어.(등겨에 뭐야 그건 저 여기서 별로 말하진 않았어.)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가끔 ᄀᆞᆫ는 사름도 잇긴 잇엇주마는.(가끔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103014 @ 예.(예.)

103014 #1 그건 그냥 체 버무령 주민 좋아.(그건 그냥 겨 버무려서 주면 좋아.)

103015 @ 체 버무령 주믄 좋아예. 예. 보리 농사허멍 잊어불지 못허는 경험, 기억 같은 거 엇수가? 뭐 고셍을 헷든 아니면 재미잇엇든 보리밧듸 강 연도 날려 봣을 거고.(겨 버무려서 주면 좋다고요. 예. 보리 농사하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경험, 기억 같은 거 없습니까? 뭐 고생을 했든 아니면 재미있었든 보리밭에 가서 연도 날려 봤을 거고.)

103015 #1 아, 거야 물론 뭐.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선생이 드르에 강 놀자 헹근엥에 간 보난 선생네 보리밧 볼리레. 볼리젠. 이제 연 날리곡 헤근에 거기서 그 저 뭐 다슷께엔 허는디 그 저.(아, 거야 물론 뭐. 학교 다닐 때에 이제 선생이 들에 가서 놀자 해서 가서 보니까 선생네 보리밭 밟으러. 밟으려고. 이제 연 날리고 해서 거기서 그 저 뭐 '다슷께'라고 하는데 그 저.)

103015 @ 오니 다스께?('오니 다스께'?)

103015 #1 거 오니 다스께[51]. 거 일본말이라. (거 '오니 다스께'. 거 일본말이야.)

103015 @ 예.(예.)

51) '오니 다슷께'는 놀이의 한 종류다.

103015 #1 그거 밧듸 강 허면 아이덜은 선생 그거 헐 때엔 선생 밧듸 가지민 안 헤불어.(그거 밭에 가서 하면 아이들은 선생 그거 할 때엔 선생 밭에 가면 안 해버려.)

103015 @ 알아불어 갖고.(알아버려 갖고.)

103015 #1 알아불엉.(알아버려서.)

103015 @ (웃음)

103015 #1 게민 여기선 주로 홀 때에 연 종이덜을 사당 줘.(그러면 여기선 주로 할 때에 연 종이들을 사다가 줘.)

103015 @ 예.(예.)

103015 #1 아이덜신디 주멘 그, 그 밧듸 강 연 띄우렌 허영.(아이들한테 주면 그, 그 밭에 가서 연 띄우라고 해서.)

103015 @ 동네에서도예. 아아.(동네에서도요. 아아.)

103015 #1 경 헤야주. 경 안 허민. 그. (웃음).(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그. (웃음).)

103014 @ 그 보리 ᄀᆞ시락도 쓸모가 크지 아녓수가? 보리낭도 쓸모가 하실 거고.(그 보리 까끄라기도 쓸모가 크지 않았습니까? 보릿대도 쓸모가 많았을 거고.)

103014 #1 보리낭은, 보리낭은 퇴비 만들고.(보릿대는, 보릿대는 퇴비 만들고.)

103014 @ 예.(예.)

103014 #1 이제 흑질헐 때에 주로 쓰고.(이제 흙질할 때에 주로 쓰고.)

103014 @ 음.(음.)

103014 #1 ᄀᆞ시락은 아궁이에 놩근엥에 굴묵[52] 짇고.(까끄라기는 아궁이에 놔서 '굴묵' 때고,)

103014 @ 예.(예.)

103014 #1 이제 굴묵 짇으민, 굴묵 짇엉근엥에 도 쉐똥 헤당 탁 막아주민 그냥 흔 이틀 끄떡엇이 뭐허곡. 알아져?(이제 '굴묵' 때면, '굴묵' 때서 입구 소똥 해다가 탁 막아주면 그냥 한 이틀 끄떡없이 뭐하고. 알아져?)

103014 @2 예.(예.)

103014 @ (웃음) 그렇게 허고. 아까 그 집 지을, 흑질헐 때 보리낭 서끄지 아념니까예? 그 서끄는 자체를 뭐렌 헙니까? 보리낭이렌 안 곧고 다른 말로 곧지 아념니까?((웃음)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집 지을, 흙질할 때 보릿대 섞지 않습니까? 그 섞는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보릿대라고 안 말하고 다른 말로 말하지 않습니까?)

103014 #1 수세[53], 수세.('수세', '수세'.)

103014 @ 수세 논덴예?('수세' 논다고요?)

103014 #1 예.(예.)

103014 @ 무사 수세는 놓는 건고예?(왜 '수세'는 놓는 건가요?)

---

52) '굴묵'은 방을 따뜻하게 때기 위해서 별로도 만들어놓은 아궁이다.

53) '수세'는 흙질을 할 흙이 벽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넣는 잘게 썬 보릿짚 따위를 말한다.

103014 #1 무사 놤신고?(왜 넣고 있을까?)

103014 @ 예.(예.)

103014 #1 아, 흑과 흑이 연결이 좋고, 이제 그게 그 어쨋든 그 흑 힘이.(아, 흙과 흙이 연결이 좋고, 이제 그게 그 어쨌든 그 흙 힘이.)

103014 @ 예.(예.)

103014 #1 그걸로 저 쉽게 말허면 세멘트 헐 때 철근 놓는 거나 마찬가지.(그걸로 저 쉽게 말하면 시멘트 할 때 철근 넣는 거나 마찬가지.)

103014 @ 그런 식으로 꼭 수세를 놩은에. 이 그신새도 수세로 놔낫수가?(그런 식으로 꼭 '수세'를 넣어서. 이 '그신새'도 '수세'로 넜었습니까?)

103014 #1 아니. 그신샌[54] 지들케벳기 아녓어.(아니. '그신새'는 땔감밖에 않았어.)

103014 @ 지들케론 지들커허고예? 여기도 이제.(땔감으론, 땔감하고요? 여기도 이제.)

103014 #1 이 두터우면 그건 걷어내여 뒁근엥에 이제.(이 두터우면 그건 걷어내둬서 이제.)

103014 @ 음 지들케로 허고.(음 땔감으로 하고.)

103014 #1 지들커허고 그 우론 새로 더프고.(땔감하고 그 위론 띠로 덮고.)

103014 @ 음, 삼춘 막 버치지예?(음, '삼촌' 매우 부치지요?)

103014 #1 아니, 뭐 난. *** 그자 이게 일이난 이 저.(아니, 뭐 나는. *** 그저 이게 일이니까 이 저.)

103014 @ 흐꼼 더 헤도 뒈쿠가?(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103014 #1 으.(으.)

조 농사

103016 @ 알앗수다. 여기 조 하영 헷덴 허난 조도 불려봅주예.(알았습니다. 여기 조 많이 했다고 하니까 조도 밟아보지요.)

103016 #1 조 불리는 디서 그 물 모는 소리 쉐 모는 소리 그걸 못허여.(조 밟는 데서 그 말 모는 소리 소 모는 소리 그걸 못해.)

103016 @ 무사마씨?(왜요?)

103016 #1 그건 안 헤봣어. 못허여.(그건 안 해봤어. 못해.)

103016 @ 그거는 못허여마씨?(웃음)(그거는 못해요?(웃음))

103016 #1 게난 경허민 하르버님 이실 때예 "소리허멍 몰라." 허여도. 난 그건 아녀봣어.(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아버님 있을 때 "소리하면서 몰라." 해도. 난 그건 안 해봤어.)

103016 @ 노래는 잘 못 불럼구나양? 다른 노래는 잘 불를 거 닮은디. 연예인

54) '그신샌'은 '그신새는'의 준말이다. '그신새'는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기신새'라고도 한다.

아들 연기허는 아들 아까. 연기렌 헨 게마는 이름도. (웃음) 또 조 농사짓젠 허면 뭘 준비헤야 뒈는고예?(노래는 잘 못 부르는군요? 다른 노래는 잘 부를 거 같은데. 연예인 아들 연기하는 아들 아까. 연기라고 하더니만 이름도. (웃음) 또 조 농사지으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요?)

103016 #1 거기도 역시 준비는 춤, 거 저 그 보리에 대개 거름 놧주. 조 이 여름 농사엔 거름덜을 잘 안 놔.(거기도 역시 준비는 참, 거 저 그 보리에 대개 거름놨지. 조 이 여름 농사에는 거름들을 잘 안 놔.)

103016 @ 아.(아.)

103016 #1 거름덜을 잘 안 놓고, 내중에 나온 후에 비료나.(거름들을 잘 안 놓고, 나중에 나온 후에 비료나.)

103016 @ 그냥 씨를 뿌령은에 허는 거라마씨?(그냥 씨를 뿌려서 하는 거예요?)

103016 #1 그냥 씨 뿌령.(그냥 씨 뿌려서.)

103016 @ 게믄?(그러면?)

103016 #1 밧 갈아놩.(밭 갈아놓아서.)

103016 @ 음.(음.)

103016 #1 씨 뿌령 이제 그 끄슬퀴로 끗엉.(씨 뿌려서 이제 그 끙게로 끌어서.)

103016 @ 예.(예.)

103016 #1 그냥 저 볼령 그 다음.(그냥 저 밟아서 그 다음.)

103016 @ 그 다음에 볼리잖아예? 그 볼릴 때는 어떤 식으로 볼립니까?(그 다음에 밟잖아요? 그 밟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밟습니까?)

103016 #1 볼릴 땐게 쉐나 몰이나 허영 어려려허멍. 쉐 몰 몰멍 그냥 볼리는 거주.(밟을 땐 소나 말이나 해서 '어려려'하면서. 소 말 몰면서 그냥 밟는 거지.)

103016 @ 게민 멧 머리나 그 조팟듸?(그러면 몇 마리나 그 조밭에?)

103016 #1 아, 그 테, 테 허는 사름은 텔 빌엉 볼리고.(아, 그 때, 때 하는 사람은 뗄 빌려서 밟고.)

103016 @ 예.(예.)

103016 #1 테엔 허민 몰 수정 많은 이.(때라고 하면 말 숫자 많은 이.)

103016 @ 예, 예.(예, 예.)

103016 #1 잇는 사람. 그 사름을 빌엉근엥에 볼리곡, 경 아녀민 그 그냥 밧갈쉐 집의서 허는 거옌 그자 영.(있는 사람. 그 사람을 빌려서 밟고, 그렇지 않으면 그 그냥 황소 집에서 하는 거라고 그저 이렇게.)

103016 @ 이, 이껑 뎅기멍.(이, 이끌고 다니면서.)

103016 #1 이껑 뎅기멍 그자 허는 거.(이끌고 다니면서 그저 하는 거.)

103016 @ 거기에 이제 끄실퀴 헤갖고 이제 ᄀᆞ치 허는구나예? 게민 아까 조 여기는 조팟이렌 헙니까? 조왓이렌 헙니까? 조밧이렌 헙니까?(거기에 이제 끙게 해갖고 이제 같이 하는군요? 그러면 아까 조 여기는 '조팟'이라고 합니까? '조왓'이라고 합니까? '조밧'이라고 합니까?)

103016 #1 그건 조팟이옌 허곡 왓이옌도 허곡 왓이 밧이난에 건 두 가지.(그건 조밭이라고 하고 '왓'이라고도 하고 '왓'이 밭이니까 건 두 가지.)

103016 @ 조왓이렌 허여마씨? 조왓은 아녀고 잘 조팟.(조밭이라고 해요? '조왓'은 안하고 잘 '조팟'.)

103016 #1 조팟이 구십 프로고.('조팟'이 구십 프로고.)

103017 @ 예, 조팟이 대부분 많은 거라예. 조팟 거름은 이제 안 하고. 거는 보리 거름, 보릿그르에 허는 거우과? 조팟은?(예, '조팟'이 대부분 많은 거네요. 조밭 거름은 이제 안 하고. 거는 보리 거름, 보릿그루에 하는 겁니까? 조밭은?)

103017 #1 으.(으.)

103018 @ 아, 보릿그르예 허는 거예? 게믄 언제 가는 거우과? 조는?(아, 보릿그루에 하는 거요? 그러면 언제 가는 겁니까? 조는?)

103018 #1 조는 봄에. 아, 저 칠월, 칠월 일일을 기혜영근엥에 전 삼 후 삼 허는 거.(조는 봄에. 아, 저 칠월, 칠월 일일을 기해서 전 삼 후 삼 하는 거.)

103018 @ 아, 칠월 일일. 게민 그때 칠월 일일은 음력이우과? 양력이우과?(아, 칠월 일일. 그러면 그때 칠월 일일은 음력입니까? 양력입니까?)

103018 #1 양력이주.(양력이지.)

103018 @ 양력예? 옛날 유월절 그건가?(양력요? 옛날 유월절 그건가?)

103018 #1 견디 난 뭐허니까 이제 그걸 허는데 그 저 유월절 전 삼 후 삼 헹근에 헌덴 헌디 칠월 흔 사오일 뒈는디.(그런데 난 뭐하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저 유월절 전 삼 후 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칠월 한 사오일 되는데.)

103018 @ 예.(예.)

103018 #1 이제 칠월 일일을 기허민 쪼끔 옛날보단 흔 메칠 빨른 거지.(이제 칠월 일일을 기하면 조금 옛날보단 한 며칠 빠른 거지.)

103018 @ 옛날은 유월절 전 삼 후 삼 허잖아예?(옛날은 유월절 전 삼 후 삼 하잖아요?)

103018 #1 또 모밀은 칠월절 전 삼 후 삼 허곡.(또 메밀은 칠월절 전 삼 후 삼 하고.)

103018 @ 전 삼 후 삼. 게난 옛날은 절기에 따라서 농사들을 이제 지은 거라예?(전 삼 후 삼. 그러니까 옛날은 절기에 따라서 농사들을 이제 지은 거네요?)

103018 #1 견디 옛날은 절기에 따랑근에 헷는데, 그것을 양력으로 기준헤서 절기가 나온 걸 몰르니까, 아무도.(그런데 옛날은 절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을 양력으로 기준해서 절기가 나온 걸 모르니까, 아무도.)

103018 @ 음. 그렇지. 절기는 양력 기준으로 헷지예?(음. 그렇지. 절기는 양력 기준으로 했지요?)

103018 #1 양력 기준이니까. 이 핼 기준 헌 거기 때문에. 음력은 달을 기준헌 거니까 들엇다 낫다 허는 거고. 에, 나가 이 낫술 든 후제도 걸 막 홍보헷주.(양력 기준이니까. 이 핼 기준 한 거기 때문에. 음력은 달을 기준한 거니까 들었다 났다

하는 거고. 에, 내가 이 나이 든 후에도 걸 막 홍보했지.)

103018 @ 네에.(네에.)

103018 #1 으, 양, 절기는 양력이 박아논 날이난 그 양력을 생각해야 헙니다 허영.(으, 양, 절기는 양력이 박아놓은 날이니까 그 양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해서.)

103019 @ 예. 겐디 뭐 옛날 어른들이야 음력 기준혜영 허니까예. 그 좁씨는 어떵 준비허고 어떵 뿌렷수가?(예. 그런데 뭐 옛날 어른들이야 음력 기준해서 하니까요. 그 조씨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뿌렸습니까?)

103019 #1 좁씨는 아무 때도, 보리씨도 보리 좋은 보리로 헹 얼마 소요량을 준비헤뒷당 허는 거고, 좁씨도 고고리 좋은 놈으로.(조씨는 아무 때도, 보리씨도 보리 좋은 보리로 해서 얼마 소요량을 준비해뒀다가 하는 거고, 조씨도 이삭 좋은 놈으로.)

103019 @ 음.(음.)

103019 #1 혜영 그 씨받이를 허고.(해서 그 씨받이를 하고.)

103019 @ 예. 경 혜영은에 허고.(예. 그렇게 해서 하고.)

103019 #1 자기가 쓸 만큼 그 양을 준비해 봇당 뿌리는 거.(자기가 쓸 만큼 그 양을 준비해 놨다가 뿌리는 거.)

103019 @ 그 좁씨 뿌릴 땐 어떤 식으로 뿌려마씨?(그 조씨 뿌릴 땐 어떤 식으로 뿌려요?)

103019 #1 좁씨 뿌리는 것도 보리씨 뿌리는 것하고 똑같이.(조씨 뿌리는 것도 보리씨 뿌리는 것하고 똑같이.)

103019 @ 음.(음.)

103019 #1 그자 흔 줌 쥉영 그 힘내영 그냥 훈들르 가면 골로로 가는 거.(그저 한 줌 쥐어서 그 힘내서 그냥 흔들어 가면 골고루 가는 거.)

103019 @ 게도 옛날에 이 씨 잘 뿌리는 사람들이 잇어예?(그래도 옛날에 이 씨 잘 뿌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103019 #1 어, 잘 뿌리는 사름은 잇긴 잇주. 춤. (웃음)(어, 잘 뿌리는 사람은 있긴 있지. 참. (웃음))

103019 @ 삼춘네는 갈 때 누게가 조씨 삐엿수가?(삼촌네는 갈 때 누가 조씨 뿌렸습니까?)

103019 #1 뭐 이녁 거 이녁 냥으로덜 허주, 무신 놉 빌엉덜 경 아녀.(뭐 이녁 거 이녁 대로들 하지, 무슨 놉 빌려서들 그렇게 안 해.)

103019 @ 삼춘이, 여자삼춘이 헙니까, 아니면 삼춘이 삐어수가?(삼촌이, 여자삼촌이 합니까, 아니면 삼촌이 뿌렸습니까?)

103019 #1 아, 닥치는 대로.(아, 닥치는 대로.)

103020 @ 아 닥치는 대로. (웃음) 그 다음에 그 조팟 저기 볼를 때예, 조 볼릴 때 그때 들어 잇는 게 아까 쉐나 물이나. 여기는 밧갈 때는 주로 쉐 헷수가?(아 닥치는 대로. (웃음) 그 다음에 그 조밭 저기 밟을 때요, 조 밟을 때 그때 들어 있는

게 아까 소나 말이나. 여기는 밭갈 때는 주로 소 했습니까?)

103020 #1 으.(으.)

103020 @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우리들 빌렁도 허고.(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동들 빌려서도 하고.)

103020 #1 허고, 남테[55]로 허는 사름도 잇고.(하고, '남테'로 하는 사람도 있고.)

103020 @ 예, 남테로도 허는 사름도 잇고. 혹 여기 돌테도 써봅디가?(예, '남테'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혹 여기 '돌테'도 써봤습니까?)

103020 #1 돌텐[56] 안 써봔.('돌텐' 안 써봤어.)

103020 @ 아, 돌텐 안 허고예? 그, 남테 아까 산테 말고 남텐 모양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젼마씨?(아, '돌텐' 안 하고요? 그, '남테' 아까 '산태' 말고 '남텐' 모양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103020 #1 남텐, 어느 정도이 적당한 규격 헤놩 거기에 뿔덜 막 박아놩.('남텐', 어느 정도이 적당한 규격 해놓아서 거기에 뿔들 막 박아놓아서.)

103020 @ 음, 뿔 박아놩예?(음, 뿔 박아놓아서요?)

103020 #1 양쪽에 쒜고리 헤놩 끗엉.(양쪽에 쇠고리 해 놓아서 끌어서.)

103020 @ 음, 거는 쉐가 끗이는 거마씨?(음, 거는 소가 끄는 거예요?)

103020 #1 쉐나 몰이나.(소나 말이나.)

103020 @ 쉐나 몰이나. 뒤에 이제, 그 아까 끄실키는 사람이 허고.(소나 말이나. 뒤에 이제, 그 아까 끙게는 사람이 하고.)

103020 #1 밧 가는 그 끗게, 끗데 그냥 매달앙근에.(밭 가는 그 끝, 끝에 그냥 매달아서.)

103020 @ 아, 그렇게 헤서 이제 하고예?(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103020 #1 저, 아이고, 그거 쉐, 쉐멍에, 쉐멍에줄, 쉐멍에 멍엔 이거고.(저, 아이고, 그거 소, 소멍에, 소멍엣줄, 소멍에 멍엔 이거고.)

103020 @ 예.(예.)

103020 #1 한줄, 한줄.(봇줄, 봇줄.)

103020 @ 한줄에?(봇줄에?)

103020 #1 한줄 끗겡이에 무껑.(봇줄 끝에 묶어서.)

103020 @ 아, 한줄 끗겡이에 이제 테를 무끄는 거라예?(아, 봇줄 끝에 이제 '테'를 묶는 거네요?)

103020 #1 으.(으.)

103021 @ 아아, 그 다음에 그 조컴질 메는 게 우터잖아예?(아아, 그 다음에 그 조김 매는 게 위태하잖아요?)

103021 #1 조컴질도 그냥 츰 이디 솔 나민 그냥 여기 다.(조김도 그냥 참 여기

55)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짊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다.

56) '돌텐'은 '돌테는'의 준말이다. '돌테'는 씨 뿌린 밭을 다지는 데 쓰는 돌로 둥그렇게 만든 농기구다.

살 나면 그냥 여기 다.)

103021 @ 보리검질도 추웡은에 허주마는 조컴질이 더 우털 거 닮아예?(보리김도 추워서 하지만 조김이 더 위태할 거 같아요?)

103021 #1 더웁곡.(덥고.)

103021 @ 더웁고. 게난 조컴질은 멧 불 멥니까?(덥고. 그러니까 조김은 몇 벌 맵니까?)

103021 #1 조컴질도 흔 서너 번 서너 번 메야사주.(조김도 한 서너 번 서너 번 매야지.)

103021 @ 예, 맨 처음 메는 검질을 여긴 뭐렌 헤마씨?(예, 맨 처음 매는 김을 여긴 뭐라고 해요?

103021 #1 초불검질.(애벌김.)

103021 @ 초불검질.(애벌김.)

103021 #1 초불검질.(애벌김.)

103021 @ 게문 초불검질 뭐 두불검질.(그러면 애벌김 뭐 두벌김.)

103021 #1 두불검질. 싀불검질.(두벌김. 세벌김.)

103021 @ 싀불검질 영허잖아예? 게믄 조는 초불검질은 조 소끄는 거우과?(세벌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는 애벌김은 조 솎는 겁니까?)

103021 #1 소끄는 거.(솎는 거.)

103021 @ 소끄는 거예? 그 소깟던 얘기 골아줍서?(솎는 거요? 그 솎던 얘기 말해주십시오?)

103021 #1 조는 그 소끄는 것사게 그 방벌이는[57] 거난.(조는 그 솎는 거야 그 '방벌이는' 거니까.)

103021 @ 에.(에.)

103021 #1 이제 방을 너무 널르민 수확이 덜 날 거곡.(이제 방을 너무 너르면 수확이 덜 날 거고.)

103021 @ 응.(응.)

103021 #1 너미 좁으민 도장뒈영은에 안 좋을 거고 허난. 적당한 거리를 놩 이제 뽑아, 뽑아버리면은 한걸헹근에게 이거 사람도 영 앚아근엥에 박박허게 앚이면 귀찮차녀.(너무 좁으면 '도장되어서' 안 좋을 거고 하니까. 적당한 거리를 놓아서 이제 뽑아, 뽑아버리면 한가해서 이거 사람도 이렇게 앉아서 박박하게 앉으면 귀찮잖아.)

103021 @ 예.(예.)

103021 #1 곡식도 마찬가지.(곡식도 마찬가지.)

103021 @ 아까 도장뒈여분덴 헙니까?(아까 '도장되어' 버린다고 합니까?)

103021 #1 으, 도장뒈연.(으, '도장되어서'.)

103021 @ 그거는 어떤 말이우과?(그거는 어떤 말입니까?)

57) '방벌이는'은 '조 따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벌여놓는'의 의미다.

103021 #1 에, 우 ᄃᆞ투왕. 우 ᄃᆞ투왕 헌디 나가 먼저 크저 나가 먼저 크저 헹근에 허민 크는 데 힘 다 먹어불엉.(에, 위 다퉈서. 위 다퉈서 하는데 내가 먼저 크자 내가 먼저 크자 해서 하면 크는 데 힘 다 먹어버려서.)

103021 @ 예.(예.)

103021 #1 그 고고리에 힘이 적어불어.(그 고고리에 힘이 적어버려.)

103021 @ 예.(예.)

103021 #1 겨난 그걸 이 한걸허게 소꽈주면은 이제 그런 뭐가 엇는 거.(그러니까 그걸 이 한가하게 솎아주면 이제 그런 뭐가 없는 거.)

103021 @ 그거를 이제 도장?(그거를 이제 '도장'?)

103021 #1 도장인디 우 ᄃᆞ툰데 헤여. 우 ᄃᆞ툰데.('도장'인데 위 다툰다고 해. 위 다툰다고.)

103021 @ 우 ᄃᆞ툰덴. 우 ᄃᆞ툰다. 방 벌리는 거. 방 벌리는. 게난 이렇게 방 벌리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줍서?(위 다툰다고. 위 다툰다. 방 벌이는 거. 방 벌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방 벌이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103021 #1 ᄀᆞ만 잇자. 그걸 어떵, 어떤 식으로 설명허나?(가만 있자. 그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나?)

103021 @ 게난 이제 제대로 클 수 잇게 이런 그 주변을.(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클 수 있게 이런 그 주변을.)

103021 #1 주변에 한걸허게, 한걸허게 뽑아주는 거.(주변에 한가하게, 한가하게 뽑아주는 거.)

103021 @ 그거를 이제 자, 방을 잘 벌려사 뒈는 거예?(그거를 이제 자, 방을 잘 벌여야 되는 거요?)

103021 #1 으, 방을 잘 벌려사. 벌리. 벌려사 헹.(으, 방을 잘 벌여야. 벌이. 벌여야 해서.)

103021 @ 예.(예.)

103021 #1 방 벌여.(방 벌여.)

103021 @ 예, 방 벌여 이렇게 얘기를 허는구나예?(예, 방 벌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103021 @2 소끄는 거랑 같은 걸로 봐도 뒈마씨?(솎는 거랑 같은 걸로 봐도 돼요?)

103021 #1 어 소끄는 게 그게.(아 솎는 게 그게.)

103021 @ 소꽈서 얘가 잘 자라게 해주는 거. 주변 정리를 해주는 거주게이. 그렇게 해서 뒈면은 조도 이제 수확을 헤얄 거 아니우과?(솎아서 얘가 잘 자라게 해주는 거. 주변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되면 조도 이제 수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103021 #1 수확해야주.(수확해야지.)

103023 @ 조 언제 수확헙니까?(조 언제 수확합니까?)

103023 #1 가을이지.(가을이지.)

103023 @ 예.(예.)

103023 #1 가을에 이제 조가 익으면 가을에 비어놓고.(가을에 이제 조가 익으면 가을에 베어놓고.)

103023 @ 예.(예.)

103023 #1 말리고 이제 고고리, 고고릴 톧아.(말리고 이제 이삭, 이삭을 따.)

103023 @ 예.(예.)

103024 #1 걸 전부. 이제 호미 헤서 이제 고고리 톧아놓민 그거 메탁기에서 허던가 도께로 치던가.(걸 전부. 이제 낫 해서 이제 이삭 따놓으면 그거 탈곡기에서 하든가 도리깨로 치든가.)

103024 @ 으음, 도께로 치던가예? 그 고고리, 고고리 톧을 때 웨 우리가 빌 때는 이런 앞으로 비지마는 이건 꺼꾸로 호미로?(으음, 도리깨로 치든가요? 그 이삭, 이삭 딸 때 왜 우리가 벨 때는 이런 앞으로 베지만 이건 거꾸로 낫으로?)

103024 #1 끌아 앚앙은에 영 밀려야.(깔아 앉아서 이렇게 밀려야.)

103024 @ 밀리멍 허는 거예? 그게 뜨나고예. 그 덩드렁마께[58] 헤영은에 이렇게 헤보진 아녑디가?(밀리면서 하는 거요? 그게 다르고요. 그 '덩드렁마께' 해서 이렇게 해보진 않았습니까?)

103024 #1 그건 아주 그 저.(그건 아주 그 저.)

103024 @ 옛날에.(옛날에.)

103024 #1 이제 족앙근엥에 그 간단히 그 족은 걸 헐 때에 그거 허는 거주.(이제 적어서 그 간단히 그 적은 걸 할 때에 그거 하는 거지.)

103024 @ ᄀᆞ렛방석 끌앙근에 영 영 아.(맷방석 깔아서 이렇게 이렇게 아.)

103024 #1 그건 거 저 그저 조코고리 테작헐 때 보통 도께 써야.(그건 거 저 그저 조이삭 타작할 때 보통 도리깨 써야.)

103024 @ 도께 썽예, 예. 그 다음에 삼춘 그 조 여기는 안 나왓수다마는 조 종류도 ᄋᆞ라 개 아니우꽈예? 좁썰 멘드는 종류.(도리께 써서요, 예. 그 다음에 삼촌 그 조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조 종류도 여러 개 아닙니까? 좁쌀 만드는 종류.)

103024 #1 으.(으.)

103024 @1 어떤 조 갈아낫수가?(어떤 조 갈았었습니까?)

103024 #1 주로 모인조, 흐린조 허민 개발시리[59], 개발시리.(주로 메조, 차조 하면 '개발시리' '개발시리'.)

103024 @ 개발시리예? 꼭 개 모양으로 이렇게 셍겻덴 허멍예?('개발시리'요? 꼭 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서요?)

103024 #1 그거 그거 검수룽헌 게 그 저 흐린조주.(그거 그거 거무스레한 게 그 저 차조지.)

---

58)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들기는 방망이다. '덩드렁'이라는 돌 위에 짚 따위를 넣고 두들기는 방망이여서 붙은 이름이다.

59) '개발시리'는 조의 일종이다. 이삭 끝이 개발처럼 벌어져 있다.

103024 @ 예.(예.)

103024 #1 차조지. 즉 말허민 차조.(차조지. 즉 말하면 차조.)

103024 @ 예, 예.(예, 예.)

103024 #1 이제 그거고 모인조.(이제 그거고 메조.)

103024 @ 예.(예.)

103024 #1 노랑 거.(노란 거.)

103024 @ 노랑 거. 음 거 두 가지. 옛날에는 막 저기 조도 종류 하낫덴 헙디다.(노란 거. 음 거 두 가지. 옛날에는 막 저기 조도 종류 많았었다고 합디다.)

103024 #1 견디 건 몰르커라.(그런데 건 모르겠어.)

103024 @ 음, 뭐 강돌와리 이런 말은 안 들어봣수가?(음, 뭐 '강돌와리' 이런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3024 #1 들어나긴 헷어. 겐디 난 보든 못헤연.(들어나긴 했어. 그런데 난 보지 못했어.)

103024 @ 보든 못허고. 게난 삼춘 본 거는 흐린조허고 이제 모인존데 그 흐린조 중에도 이제 개발시리를 이제 하영 헷다라는 거지예?(보진 못하고. 그러니까 삼촌 본 거는 차조하고 이제 메존데 그 차조 중에도 이제 '개발시리'를 이제 많이 했다라는 거지요?)

103024 #1 응.(응.)

103025 @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작 해놓면 좁쌀을 멘들아얄 거 아니우과? 거는 어떤 식으로 멘들아마씨?(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작 해놓으면 좁쌀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103025 #1 쏠은 일단 태작허여 놩 불림질 허면.(쌀은 일단 타작해 놓아서 '불림질' 하면.)

103025 @ 예.(예.)

103025 #1 불림질 허면 이제 그 체허고 이제 쏠허고 이제 알멩이허고 이젠 분리가 뒈니까.('불림질' 하면 이제 그 겨하고 이제 쌀하고 이제 알맹이하고 이젠 분리가 되니까.)

103025 @ 예.(예.)

103025 #1 그 조를 이젠 가정 방엣간에 가야 헐 거.(그 조를 이젠 가져서 방앗간에 가야 할 거.)

103025 @ 예.(예.)

103025 #1 건 주로. 방엣간에 강 그자 져.(건 주로. 방앗간에 가서 그저 찧어.)

103025 @ 방에에 강 지면은 쏠 따로 조체[60] 따로 이렇게 뒈는 거예? 그 '조체'는 어떤 식으로?(방아에 가서 찧으면 쌀 따로 조겨 따로 이렇게 되는 거요? 그 '조겨'는 어떤 식으로?)

103025 #1 건 도새기 먹고.(건 돼지 먹고.)

60) '조체'는 조의 겨를 말한다.

103025 @ 아, 건 또 도새기 먹고. 게난 옛날은 버리는 게 엇어예?(아, 건 또 돼지 먹고. 그러니까 옛날은 버리는 게 없었죠?)

103025 #1 버리는 게 하나토 엇어.(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103026 @ 버리는 게 엇어. 겐 그 좁쌀로는 주로 뭐 헤신고예?(버리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좁쌀로는 주로 뭐 했을까요?)

103026 #1 좁쌀은 양식 살고.(좁쌀은 양식 살고.)

103026 @ 예.(예.)

103026 #1 양식 먹고.(양식 먹고.)

103026 @ 예.(예.)

103026 #1 또 팔곡. 팔아서 뭐 사고 싶은 거 사고.(또 팔고. 팔아서 뭐 사고 싶은 것 사고.)

103026 @ 음.(음.)

103026 #1 으, 또 떡도 허고.(으, 또 떡도 하고.)

103026 @ 음. 좁썰로 헌 떡은 어떤 떡 잇어신고예?(음. 좁쌀로 한 떡은 어떤 떡 있었는가요?)

103026 #1 시리떡도 잇엇고.(시루떡도 있었고.)

103026 @ 음.(음.)

103026 #1 오메기[61]도 잇엇고.('오메기'도 있었고.)

103026 @ 음.(음.)

103026 #1 뭐.(뭐.)

103026 @1 조오메기도 허고.('조오메기'도 하고.)

103026 #1 뭐 거 것이 곧젠 허난 생각 안 남쩌. 흔 멧 가지가 잇일 건디.(뭐 거 것이 말하려고 하니까 생각 안 나네. 한 몇 가지가 있을 것인데.)

103026 @ 예, 것도 나중에 여자삼춘한테 또 물어보쿠다. 그 좁썰 허영 엿도 허고.(예, 것도 나중에 여자삼촌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좁쌀 해서 엿도 하고.)

103026 #1 엿 허주.(엿 하지.)

103026 @ 엿도 허고 그 다음에 술도 헷일 거고예?(엿도 하고 그 다음에 술도 했을 거고요?)

103026 #1 아 물론.(아 물론.)

103026 @ 술 허젠 허면 어떤 식으로?(술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103026 #1 건 흐린조라사.(건 차조라야.)

103026 @ 아, 흐린조 헤갖고.(아, 차조 해갖고.)

103026 #1 흐린조 저 오메기 헤 놩근에 술허고.(차조 저 '오메기' 해 놓아서 술하고.)

103026 @ 음, 집에서도 우리 여자삼춘도 술 헤낫수가?(음, 집에서도 우리 여자

61) '오메기'는 차좁쌀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삼촌도 술 했었습니까?)

103026 #1 헤여나실 거라.(했을 거야.)

103026 @ 아, 기구나. 건 나중에 또 물어봐야켜.(아, 기구나. 건 나중에 또 물어봐야겠네.)

103026 #1 난 집의 안 부떤 나돌기만 헤나난.(난 집에 안 붙어서 나돌기만 했었으니까.)

103026 @ 예전인 식게 허젠 헤도 조 헤갖고 술도 헤실 거 아니라예? 그때는.(예전에는 제사 하려고 해도 조 해가지고 술도 했을 거 아닌가요? 그때는.)

103026 #1 떡도 허고.(떡도 하고.)

103026 @ 무슨 술? 엿도, 엿 허당은에.(무슨 술? 엿도, 엿 하다가.)

103026 #1 저, 감주.(저, 감주.)

103026 @ 감주를 하영 올렷지예? 제주로예. 아아.(감주를 많이 올렸지요? 제주로요. 아아.)

103026 #1 감주가 제대로 이제 제사 때나 명절 때 헷는데 지금은 와서 그 문화가 없어져부럿주.(감주가 제대로 이제 제사 때나 명절 때 했는데 지금은 와서 그 문화가 없어져버렸지.)

103026 @ 요즘은 감주허는 법이 엇어예?(요즘은 감주하는 법이 없지요?)

103026 #1 아주 명심하는 집은 지금도 감주 허여.(아주 명심하는 집은 지금도 감주 해.)

103026 @ 아아, 감주 허는 집도 잇구나.(아아, 감주 하는 집도 있구나.)

103026 #1 지금도 허여. 즉 말허면 그게 그 엿 되기 전의.(지금도 해. 즉 말하면 그게 그 엿 되기 전에.)

103026 @ 예, 예.(예, 예.)

103026 #1 조청허기 바로 직전이니까.(조청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103027 @ 음, 맞습니다. 삼춘, 그 보릿낭은 걸름허곡.(음, 맞습니다. 삼촌, 그 보릿대는 거름하고.)

103027 #1 음.(음.)

103027 @ 이 조는?(이 조는?)

103027 #1 우마가 먹고.(우마가 먹고.)

103027 @ 우마가 먹는 거라예? 그거는 뭐렌 헙니까? 조찍?(우마가 먹는 거라고요?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조짚?)

103027 #1 조칩.(조짚.)

103027 @ 조칩. 조칩이렌 허는구나. 여기서예? 조칩으로 하고. 조 불리멍 잊어불지 못허는 추억ᄀᆞ튼 거 잇수가?(조짚. 조짚이라고 하는구나. 여기서요? 조짚으로 하고. 조 밟으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추억같은 거 있습니까?)

103027 #1 이 그런 건 별로 없는데.(이 그런 건 별로 없는데.)

103027 @ 예, 그건 엇고예? 삼춘, 예전에는 무사 이런 보리낭을 옮겨 오거나 조

낭 옮겨 오거나 허게 뒈면 쉐나 물로 시껑 왓잖아예? 게믄 그 혼 바리 두 바리 영 허지 아넘니까?(예, 그건 없고요? 삼촌, 예전에는 왜 이런 보릿대를 옮겨 오거나 조짚 옮겨 오거나 하게 되면 소나 말로 실어 왔잖아요? 그러면 그 한 바리 두 바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3027 #1 으.(으.)

103027 @ 멧 저 멧 무끔을 혼 바리 허는 건 알아지쿠과?(몇 저 몇 묶음을 한 바리 하는 건 알겠습니까?)

103027 #1 서른 뭇, 서른 뭇.(서른 뭇, 서른 뭇.)

103027 @ 뭐가 서른 뭇이우과?(뭐가 서른 뭇입니까?)

103027 #1 무끔 ᄒᆞ나 둘 헤영 숫자가 서른 개민 혼 바리.(묶음 하나 둘 해서 숫자가 서른 개민 한 바리.)

103027 @ 조도마씨?(조도요?)

103027 #1 으.(으.)

103027 @ 거는 찍을?(거는 짚을?)

103027 #1 으으.(으으.)

103027 @ 고고리 이신 거는?(고고리 있는 거는?)

103027 #1 견디 이 저 고고리 이실 땐 그런 말 안 곧고.(그런데 이 저 이삭 있을 땐 그런 말 안 하고.)

103027 @ 음, 찍으로 헐 때는. 게민 여기는 그 조찍 그 조 무끄는 게 뭇이 별로 안 큰가보다양?(음, 짚으로 할 때는. 그러면 여기는 그 조짚 그 조 묶는 게 뭇이 별로 안 큰가보네요?)

103027 #1 크지 아녀고.(크지 않고.)

103027 @ 크지 안하고. 어떤 디는 조 이만큼씩 무끈덴도 헨게마는.(크지 안하고. 어떤 데는 조 이만큼씩 묶는다고도 하더니만.)

103027 #1 건 저 고고리 튿기 전에.(건 저 이삭 따기 전에.)

103027 @ 예, 고고리 튿기 전에.(예, 이삭 따기 전에.)

103027 #1 거 그냥 집의 왕 고고리 짤르젠 헐 때에, 고고리 튿젠 헐 때에.(거 그냥 집에 와서 이삭 자르려고 할 때에, 이삭 따라고 할 때에.)

103027 @ 음.(음.)

103027 #1 집의 가져 올 땐 이젠 크게 무껑 혼 쪽에 질메 혼 쪽에 싀 개썩 헤영 ᄋᆞ섯 무끔.(집에 가져 올 땐 이젠 크게 묶어서 한쪽에 길마 한쪽에 세 개씩 해서 여섯 묶음.)

103027 @ 음.(음.)

103027 #1 이젠 무껑 오곡.(이젠 묶어 오고.)

103027 @ 게믄 그땐 ᄋᆞ섯 개가 혼 바리가. 조찍은 서른 개가 혼 바리고.(그러면 그땐 여섯 개가 한 바리가. 조짚은 서른 개가 한 바리고.)

103027 #1 조찝.(조짚.)

103027 @ 조찝은예? 촐은마씨?(조짚은요? 꼴은요?)

103027 #1 촐은 마흔 뭇.(꼴은 마흔 뭇.)

103027 @ 촐은 마흔 뭇. 보리도 시껑 뎅겻수가? 그치룩.(꼴은 마흔 뭇. 보리도 실어서 다녔습니까? 그처럼.)

103027 #1 보리도 멧 바리 멧 바리 헹근엥게 거기서 무끄민.(보리도 몇 바리 몇 바리 해서 거기서 묶으면.)

103027 @ 예, 멧 개 거는?(예, 몇 개 거는?)

103027 #1 보리, 보리도 이제 뭐.(보리, 보리도 이제 뭐.)

103027 @ 고고리 이시난.(이삭 있으니까.)

103027 #1 야간 여기선 서른 뭇이야.(하여튼 여기선 서른 뭇이야.)

103027 @ 아, 서른 뭇을 흔 바리로 치는데 촐은 마흔 뭇예?(아, 서른 뭇을 한 바리로 치는데 꼴은 마흔 뭇요?)

103027 #1 마흔 뭇. 여기도 이 저 뭐 낫으로 빈 거?(마흔 뭇. 여기도 이 저 뭐 낫으로 벤 거?)

103027 @ 예.(예.)

103027 #1 장낫[62].('장낫'.)

103027 @ 예, 장낫?(예, '장낫'?)

103027 #1 그건 서른 뭇 쳐.(그건 서른 뭇 쳐.)

103029 @ 아, 촐도?(아, 꼴도?)

103029 #1 응.(응.)

콩 농사

103029 @ 장낫으로 헷느냐 호미로 헷느냐 그게 뚜나구나예? 영 헹 이제 조 농사는 허고. 콩도 하영 갈읍디가?('장낫'으로 했느냐 낫으로 했느냐 그게 다르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 농사는 하고. 콩도 많이 갈았습니까?)

103029 #1 콩 하영 안 갈앙 집의 장에 먹을 거.(콩 많이 안 갈아서 집에 장에 먹을 거.)

103029 @ 아, 여기는 하영 안 가는구나예, 콩은예. 콩 농사 허젠 허믄 어떤 식으로 준비헷어마씨?(아, 여기는 많이 안 가는군요, 콩은요. 콩 농사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준비했어요?)

103030 #1 콩 농사 허젠 허면 그게 그, 저 보릿그르에 가는 수도 잇고.(콩 농사 하려고 하면 그게 그, 저 보릿그루에 가는 수도 있고.)

103030 @ 예.(예.)

103030 #1 이제 겨울 놀렷다가 봄 콩 허는 수도 잇고.(이제 겨울 놀렸다가 봄 콩 하는 수도 있고.)

103030 @ 음.(음.)

62) '장낫'은 손잡이가 긴 낫이다. 주로 서서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낫이다.

103030 #1 이제 그러는디 그 우리가 그 밧 ᄒᆞ나 ᄒᆞ게 뒈민 ᄒᆞᆫ ᄒᆞ나도 허곡 엇인 사름은 반착도 헹근엥에 가는디 그건 이파리가 떨어져서 거름이 뒈니까.(이제 그러는데 그 우리가 그 밭 하나 하게 되면 한 하나도 하고 없는 사람은 반쪽도 해서 가는데 그건 이파리가 떨어져서 거름이 되니까.)

103030 @ 으음.(으음.)

103030 #1 겨고 건다는 것만 그 생각헐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그 박테리아가 이 질소질을 많이 그 형성혜 줘가지고.(그러고 건다는 것만 그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그 박테리아가 이 질소를 많이 그 형성해 줘가지고.)

103030 @ 예.(예.)

103030 #1 이 아주 콩 농사만큼은 자주허면은 이 밧이 걸어.(이 아주 콩 농사만큼은 자주하면 이 밭이 걸어.)

103030 @ 예, 예, 예. 게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장 담을 걸로만 헌 거라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장 담글 걸로만 한 거네요?)

103030 #1 장 담곡게, 것도 쫌 잇어야 강 푬도 허곡 허주게.(장 담고, 것도 좀 있어야 가서 팖도 하고 하지.)

103030 @ 예.(예.)

103030 #1 풀앙근엥에 이 옷도 사 입곡. 무신 거 살림살이도 허곡.(팔아서 이 옷도 사 입고. 무슨 거 살림살이도 하고.)

103030 @ 콩으로?(콩으로?)

103030 #1 어, 사오곡.(어, 사오고.)

103030 @ 그 콩은 아까 이제 두 번 갈아마씨? 콩은 언제 갈아?(그 콩은 아까 이제 두 번 갈아요? 콩은 언제 갈아?)

103030 #1 ᄒᆞᆫ 번 갈주.(한 번 갈지.)

103030 @1 어느 계절에?(어느 계절에?)

103030 #1 늦은 봄 이른 여름.(늦은 봄 이른 여름.)

103030 @ 그때 허면 수확은 가을에 허는 거난예?(그때 하면 수확은 가을에 하는 거니까요?)

103030 #1 가을에 허곡.(가을에 하고.)

103030 @ 콩도 밧 갈앙 씨 뿌렁은에 허는 거우과?(콩도 밭 갈아서 씨 뿌려서 하는 겁니까?)

103030 #1 으음.(으음.)

103031 @ 게믄 역시 콩밧은 거름 아녀켜예?(그러면 역시 콩밭은 거름 안하겠네요?)

103031 #1 거름 아녀.(거름 안 해.)

103032 @ 거름 안 허고예? 이것도 이제 그 보리 갈아난 그 그르에 갈 거니까. 게문 콩씨는 어떵 뿌립니까?(거름 안 하고요? 이것도 이제 그 보리 갈았던 그 그루

에 갈 거니까. 그러면 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1 콩씨도 역시 딴 씨 뿌리듯.(콩씨도 역시 딴 씨 뿌리듯.)

103032 @ 손으로 힘을 줭은에.(손으로 힘을 줘서.)

103032 #1 힘 줭 아상 뿌리면?(힘 줘서 가져서 뿌리면?)

103032 @1 여기는 뿌린덴 아녕 콩씨 삔덴 허지예?(여기는 뿌린다고 안 해서 콩씨 '삔다고' 하지요?)

103032 #1 삔덴.('삔다'고.)

103032 @ 예, 삔덴.(예, '삔다'고.)

103032 #1 콩씨 삐여.(콩씨 뿌려.)

103033 @ 콩밧도 검질멥니까?(콩밭도 김맵니까?)

103033 #1 콩밧 검질메사주.(콩밭 김매야지.)

103033 @ 여름에는 더 하쿠다예? 검질이.(여름에는 더 많겠네요? 김이.)

103033 #1 아니 흔 두어 번 메믄 끗나고. 우에서 덮어지니까.(아니 한 두어 번 매면 끝나고. 위에서 덮어지니까.)

103033 @1 예.(예.)

103033 #1 검질이 덜 나.(김이 덜 나.)

103034 @ 아아, 콩밧은 여름인디도예. 음, 게믄 두불 메믄 뒈는 거고. 어떤 검질, 콩 검질론 어떤 거라는 거 기억 남수가? 여름 검질들은?(아아, 콩밭은 여름인데도요. 음, 그러면 두벌 매면 되는 거고. 어떤 김, 콩 김으론 어떤 거라는 거 기억 납니까? 여름 김들은?)

103034 #1 겨난 지금 그 제완지.(그러니까 지금 그 바랭이.)

103034 @ 예.(예.)

103034 #1 제완지 그것이 젤 많이 나.(바랭이 그것이 젤 많이 나.)

103034 @ 아아, 제완지예? 제완지도 종류가 으라 개렌 헙디다.(아아, 바랭이요? 바랭이도 종류가 여러 개라고 합디다.)

103034 #1 몰르커라.(모르겠어.)

103034 @ 건 몰르쿠과?(건 모르겠습니까?)

103034 #1 표준은 거 바랭인가?(표준은 거 바랭인가?)

103034 @ 바렝이, 예. 쒜비늠 ᄀᆞ튼 거 안 낫수가?(바랭이, 예. 쇠비름 같은 거 안 났습니까?)

103034 #1 무사 쒜비눔도 나주게.(왜 쇠비름도 나지.)

103034 @ 것도 여름 검질예? 츰비눔, 쒜비눔 어, 그런 건 나고. 제완지 검질이 메영 놔둬도 막 부터불고예?(것도 여름 김요? 참비름, 쇠비름 어, 그런 건 나고. 바랭이 김이 매영 놔둬도 막 붙어버리고요?)

103034 #1 그게 부터붐도 잘허곡. 저 이 쒜비름도 그거 상당히 죽이기 힘든 거.(그게 붙어버리기도 잘하고. 저 이 쇠비름도 그거 상당히 죽이기 힘든 거.)

103034 @ 예, 쒜비눔도예?(예, 쇠비룸도요?)

103034 #1 지금은 와서 그걸 그 효소 만들민 상당히.(지금은 와서 그걸 그 효소 만들면 상당히.)

103034 @ 몸에 좋덴들.(몸에 좋다고들.)

103034 #1 몸에 좋덴덜 허는디, (웃음) 우리가 검질메영 던져불곡 뭐 허는 게 전부 하나이 약초로 셍각허민 뒈는 건디.(몸에 좋다고들 하는데, (웃음) 우리가 김매영 던져버리고 뭐 하는 게 전부 하나의 약초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103034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3034 #1 그걸 몰라 하하.(그걸 몰라 하하.)

103034 @ 맞아, 비름, 춤비늠 이런 것도 비름나물허영 육진 먹음니께, 우린 안 먹어도.(맞아, 비름, 참비름 이런 것도 비름나물해서 육진 먹읍니다, 우린 안 먹어도.)

103034 #1 무사 춤비름은 그거 설사도 터지곡 허여.(왜 참비름은 그거 설사도 터지고 해.)

103034 @ 아, 옛날 경 먹어낫수가?(아, 옛날 그렇게 먹었었습니까?)

103034 #1 으, 변비허는 사름 먹으민 좋아, 옛날도 먹어낫어.(으, 변비하는 사람 먹으면 좋아, 옛날도 먹었었어.)

103034 @ 옛날도 먹엇수가?(옛날도 먹었습니까?)

103034 #1 춤비름 먹어. 쒜비름은 안 먹고. 쒜비름도 경 좋은 걸.(참비름 먹어. 쇠비름은 안 먹고. 쇠비름도 그렇게 좋은 걸.)

103034 @ 그 생명력이 얼마나 좋아양? (웃음).(그 생명력이 얼마나 좋아요? (웃음).)

103034 #1 상당히 강헌 거주.(상당히 강한 거지.)

103034 @ 예.(예.)

103034 #1 경허곡 또 그 뭣고? 그 금전초?(그러고 또 그 뭣고? 그 '금전초'?)

103034 @ 음.(음.)

103034 #1 비단풀이엔 헹.(비단풀이라고 해서.)

103034 @ 비단풀예? 이렇게 영 셍경 쪼꼴락 쪼꼴락헌 거?(비단풀예? 이렇게 이렇개 생겨서 조그마 조그마한 거?)

103034 #1 그것도 그 우린 귀차년 건디 얼마나 좋아. 이 담석증 ᄀᆞ튼 거 문 녹여버리니까. 아니라?(그것도 그 우린 귀찮은 것인데 얼마나 좋아. 이 담석증 같은 거 몽땅 녹여버리니까. 아니라?)

103034 @ 예. 근데 비단풀이 옛날에는 마당에 이런 데들도 막 하영 잇어낫어, 저기.(예. 근데 비단풀이 옛날에는 마당에 이런 데들도 매우 많이 있었어, 저기.)

103034 #1 밧듸덜.(밭에들.)

103034 @ 흑 마당덜 이런 디덜. 잘 보지도 못허는 거 닮아.(흙 마당들 이런 데들. 잘 보지도 못하는 거 닮아.)

103034 #1 아니 만헤여.(아니 많아.)

103035 @ 아직도 많아마씨? 콩은 수확헐 때 콩은 뭐렌 헙니까? 꺼끈덴 허는가마씨?(아직도 많아요? 콩은 수확할 때 콩은 뭐라고 합니까? 꺾는다고 하는가요?)

103035 #1 꺼꺼.(꺾어.)

103035 @ 뭘로 꺼꺼?(뭘로 꺾어?)

103035 #1 호미로.(낫으로.)

103035 @ 게난 보리나예 조는 빈덴 곧지 아녕니까예? 건디 무사 유독 콩은 꺼끈덴 허는고예?(그러니까 보리나 조는 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콩은 꺾는다고 하는가요?)

103035 #1 건 비질 못허여. 꺼껀져도.(건 베질 못해. 꺾어져도.)

103035 @ 아.(아.)

103035 #1 비는 거허고 거끄는 건 차이가 잇으난.(베는 거하고 꺾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103035 @ 어떵 ᄐᆞ난 거우과? 어떤 차이?(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떤 차이?)

103035 #1 이젠 걸령 물리면.(이젠 걸려서 물리면.)

103035 @ 예.(예.)

103035 #1 보리나 존 끊어지는디 이건 꺼꺼져.(보리나 존 끊어지는데 이건 꺾어져.)

103035 @ 그래서 꺼끈덴 골앗구나게. 게난 콩은 꺼끄고. 꺼끈 다음에 거는 태작허젠 허면.(그래서 꺾는다고 말했군요. 그러니까 콩은 꺾고. 꺾은 다음에 거는 타작하려고 하면.)

103035 #1 건 도께로나.(건 도리깨로나.)

103035 @ 예.(예.)

103035 #1 메탁기로나.(타작기로나.)

103035 @ 메탁기로나. 옛날에 도께로 콩 하영.(타작기로나. 옛날에 도리깨로 콩 많이.)

103035 @ 으.(으.)

103035 #1 도께로 허는 건 뭐 허염쩬 헙니까?(도리깨로 하는 건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103035 #1 콩 태작.(콩 타작.)

103035 @ 두르린다?(두들긴다?)

103035 #1 콩 태작.(콩 타작.)

103036 @ 콩 태작? 다 태작이라예? 콩으로는 뭐 헙니까?(콩 타작? 다 타작이네요? 콩으로는 뭐 합니까?)

103036 #1 콩으론 메주허곡 국 끌령 먹고.(콩으론 메주하고 국 끓여서 먹고.)

103036 @ 음.(음.)

103036 #1 그 다음 뭐 뭐냐 그 저 강 돈 강 받아오고.(그 다음 뭐 뭐냐 그 저 가서 돈 가서 받아오고.)

103036 @ 음, 둠비도 헤 먹고.(음, 두부도 해 먹고.)

103036 #1 둠비도 헤 먹고 그거주.(두부도 해 먹고 그거지.)

103036 @ 예, 결혼헐 때 둠비 허지 아넘니까?(예, 결혼할 때 두부 하지 않습니까?)

103036 #1 에이고, 물론.(아이고, 물론.)

103036 @ 그 콩도 종류가 으라 가지우과?(그 콩도 종류가 여러 가집니까?)

103036 #1 콩 종류가 상당이 많은데 그건 나도 몰르커라.(콩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103036 @ 음.(음.)

103036 #1 뭐, 뭐 청태[63]니 뭐니 청태 뭐 은대두 뭐. 아이고, 나도 이젠 문딱 잊어부럿네.(뭐, 뭐 '청태'니 뭐니 '청태' 뭐 '은대두' 뭐. 아이고, 나도 이젠 몽땅 잊어버렸네.)

103036 @ 콩으로, 콩나물도 헹 먹엇지예?(콩으로, 콩나물도 해서 먹었지요?)

103036 #1 물론.(물론.)

103036 @ 여기는 콩나물이렌 안 허영 뭐렌 헤낫수가? 옛날에.(여기는 콩나물이라고 안 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옛날에.)

103036 #1 콩주름.(콩기름.)

103036 @ 콩주름. 게 주름 놓는 콩허고 장 멘드는 콩허고 뚜나지 아녑니까?(콩기름. 기름 놓는 콩하고 장 만드는 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103036 #1 지금이야 뚜나지 옛날은 그게 그거.(지금이야 다르지 옛날은 그게 그거.)

103036 @ 아, 그 장 멘드는 거 장콩이렌은 안헙디가?(아, 그 장 만드는 거 장콩이라고는 안합디까?)

103036 #1 아, 그저 지금은 장콩이엔 무사. 장콩이엔 허주마는.(아, 그저 지금은 장콩라고 왜. 장콩이라고 하지만.)

103036 @ 예.(예.)

103036 #1 이 저 그건 일단 수확헤다 놩, 놓은 다음에 장 멘들젠 헐 때 장콩이지 그 전엔 장콩이엔 말을 아녀.(이 저 그건 일단 수확해다 놓아서, 놓은 다음에 장 만들려고 할 때 장콩이지 그 전엔 장콩이라는 말을 안해.)

103037 @ 아, 장 멘들 때. 옛날에사 막 굵은 거 아니우과예? 그, 게 여기는 이제 주름이렌 헷구나예? 콩찝이렌 헙니까? 콩칩이렌 헙니까? 콩 저기 수확헤난 거 저?(아, 장 만들 때. 옛날에야 매우 굵은 거 아닙니까? 그, 게 여기는 이제 기름이라고 했군요? 콩짚이라고 합니까? 콩짚이라고 합니까? 콩 저기 수확했던 거 저?)

103037 #1 아, 콩꼬질.(아, 콩깍지.)

103037 @ 건 콩꼬질렌 허여.(건 콩깍지라고 해.)

103037 #1 콩꼬질.(콩깍지.)

63) '청태'는 콩의 일종이다. 콩 색깔이 푸른 색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103037 @ 왜냐면 이게 빌 거, 꺼끌 거 아니우꽈예? 게믄 그거 테작 끗나면 이렇게 보통 무껑은에.(왜냐면 이게 벨 거, 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타작 끝나면 이렇게 보통 묶어서.)

103037 #1 무껑 놔뒁당.(묶어서 놔뒀다가.)

103037 @ 예.(예.)

103037 #1 건 불 때기도 허곡 소 먹이기도 허곡.(건 불 때기도 하고 소 먹이기도 하고.)

103037 @ 아, 삼춘 계속 소렌 헴신디 쉐렌 안 헙니까? 이 동네.(아, 삼촌 계속 소라고 하고 있는데 '쉐'라고 안합니까? 이 동네.)

103037 #1 견디 그게 버릇뒈연이.(그런데 그게 버릇되어서.)

103037 @ 예.(예.)

103037 #1 어린 땐 쉐엿는데 조금 욱아가난에 소, 소 혜연에.(어린 땐 '쉐'였는데 조금 커가니까 소, 소 해서.)

103037 @ 소, 소 혜부난 지금도 소렌 헴서예?(소, 소 해버리니까 지금도 소라고 하고 있다고요?)

103037 #1 그냥 그게 저 질들어부런.(그냥 그게 저 길들어버렸어.)

103037 @ 질들어부런예. 질들어도 이젠 쉐렌도 ᄒᆞ꼼 골아줍서.(길들어버렸다고요. 길들어도 이젠 '쉐'라고도 조금 말해 주십시오.)

103037 #1 으, 쉐 먹곡.(으, 소 먹고.)

103037 @ 예.(예.)

103037 #1 쉐 먹곡.(소 먹고.)

103037 @ 예.(예.)

103037 #1 불. 불 솜곡.(불. 불 때고.)

103037 @ 아, 불 솜곡. 맞수다. 불 솜아야주. 불 때는 게 아니고예, 그거를 콩꼬질이렌 허여? 콩찝이렌 안하고?(아, 불 때고. 맞습니다. 불 때야지. 불 때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콩깍지라고 해? 콩짚이라고 안하고?)

103037 #1 콩꼬질.(콩깍지.)

103037 @ 콩꼬질예?(콩깍지요?)

103037 #1 폿은 폿꼬질.(팥은 팥꼬투리.)

103037 @ 폿은 폿꼬질허고, 무사 콩꼬질엔 헴신고?(팥은 팥꼬투리하고, 왜 '콩꼬질'이라고 하고 있나요?)

103037 #1 몰라. 꼬질이렌 헌 걸 그 글잘 춪아봐시민 뭐가 나올진 모르는데, 지금 제주 그 방언을 춪아보면은?(몰라. 깍지라고 한 걸 그 글잘 찾아봤으면 뭐가 나올진 모르는데, 지금 제주 그 방언을 찾아보면?)

103037 @ 예.(예.)

103037 #1 에 칠십 프로가 한자음이고.(에 칠십 프로가 한자음이고.)

103037 @ 예.(예.)

103037 #1 이제 삼십 프론 뜻이고.(이제 삼십 프론 뜻이고.)

103037 @ 음.(음.)

103037 #1 헌데 육짓말은 한자 뜻이 70%고.(한데 육지 말은 한자 뜻이 70%고.)

103037 @ 음.(음.)

103037 #1 에 한자음으로 뭰 건 별로 없고.(에 한자음으로 된 건 별로 없고.)

103037 @ 음. 게난 이제 콩꼬질 이렇게 영 꼬투리 있는 것들을 다 꼬질헌 거 닮아예, 풋도 그렇게 허고.(음. 그러니까 이제 콩깍지 이렇게 이렇게 꼬투리 있는 것들을 다 깍지한 거 같네요, 팥도 그렇게 하고.)

103037 #1 경 헌 거 닮아.(그렇게 한 거 같아.)

103038 @ 콩 농사허멍 뭐 얽힌 추억 이런 건 엇고마씨?(콩 농사하면서 뭐 얽힌 추억 이런 건 없고요?)

103038 #1 그런 거 별로 엇어.(그런 거 별로 없어.)

103038 @ 겨고 삼춘 무사 옛날에 보면 그 조팟디나 이런 디 콩 듬성듬성 영 갈기도 허지 아념니까예?(그러고 삼촌 왜 옛날에 보면 그 조밭에나 이런 데 콩 듬성듬성 이렇게 갈기도 하지 않습니까?)

103038 #1 건 머드레.(건 대우.)

103038 @ 머드레예? 머르레콩 영 헙니까? 여기도.(대우요? 대우콩 이렇게 합니까? 여기도.)

103038 #1 머드레옌 곧는디, 그것만 골렌 허면 안 나와.(대우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말하라고 하면 안 나와.)

103038 @ 아, 그렇주마씨, 예.(아, 그렇죠, 예.)

103038 #1 안 나와?(안 나와?)

103038 #1 지금 듬성듬성 놧젠 허니깐 머드레 골아지는디.(지금 듬성듬성 놨다고 하니깐 대우 말해지는데.)

103038 @ 예, 게난 그게 머드레헤고, 대죽도 머드레 허지 아녑니까예?(예, 그러니까 그게 대우하고, 수수도 대우 하지 않습니까?)

103038 #1 대죽도 머드레, 꿰도 머드레.(수수도 대우, 참깨도 대우.)

103038 @ 꿰도 머드레헙니까? 게믄 꿰머드레 콩머드레 이렇게 허는데, 돌들도 이렇게 논 것도 여기 머드레 헙니까? 머들이엔 헙니까?(참깨도 대우합니까? 그러면 '참깨대우' 대우콩 이렇게 하는데, 돌들도 이렇게 놓은 것도 여기 '머드레'합니까? '머들'이라고 합니까?)

103038 #1 머들[64].(돌무더기.)

103038 @ 거는 돌 헌 건 머들이렌 허고.(거는 돌 한 건 '머들'이라고 하고.)

103038 #1 머들.('머들'.)

103038 @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자 심은 거는 듬성듬성 헌 거는?(그 다음에 이

64) '머들'은 돌무더기를 말한다.

제 그 종자 심은 거는 듬성듬성 한 거는?)

103038 #1 머드레.(대우.)

103038 @ 알앗수다. 경 허영은에 이 왜냐면 별도로 밧이 엇이면 다 머드레 놧당도 장콩들 헌 거 아니라예?(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왜냐면 별도로 밭이 없으면 다 대우 놨다가도 장콩들 한 거 아닌가요?)

103038 #1 경.(그렇게.)

103038 @ 콩ᄀᆞ르도 뭐 하영 먹엇지예? 콩ᄀᆞ르.(콩가루도 뭐 많이 먹었죠? 콩가루.)

103038 #1 하영 먹고말고. 옛날 주식이니까덜.(많이 먹고말고. 옛날 주식이니까들.)

103038 @ 뭐. 콩ᄀᆞ르로 뭘 헹 먹엇수가? 여기선.(뭐. 콩가루로 뭘 해서 먹었습니까? 여기선.)

103038 # 콩국 끌령 먹고 둠비헤영 먹고.(콩국 끓여서 먹고 두부해서 먹고.)

103038 @ 콩죽 이런 건 안 헹 먹어?(콩죽 이런 건 안 해서 먹어?)

103038 #1 콩죽 무사 안 헹 먹어. 옛날은 이제 해산헐 때에.(콩죽 왜 안 해서 먹어. 옛날은 이제 해산할 때에.)

103038 @ 예.(예.)

103038 #1 애기 나뒁 콩죽 쒄 먹엇저. 무신 콩죽 쒕 먹을, 저녁 먹은 후제 콩죽 쑬 만은 헷저.(애기 낳아두고 콩죽 쒀서 먹었지. 무슨 콩죽 쒀서 먹을, 저녁 먹은 후에 콩죽 쑬 만은 했지.)

103038 @ 음.(음.)

103038 #1 어린 때 시간이 없으니까. 애기 난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헷주. 그건 이제 대개 콩죽을 주로 영.(어릴 때 시간이 없으니까. 애기 낳은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 그건 이제 대개 콩죽을 주로 이렇게.)

103038 @ 얘기를 비유를.(얘기를 비유를.)

103038 #1 콩 비유를 경헤여.(콩 비유를 그렇게 해.)

103038 @ 먹는 양석에 콩죽을 하영 먹엇다는 거라예? 밥을 못 먹고 허니까.(먹는 양식에 콩죽을 많이 먹었다는 거네요? 밥을 못 먹고 하니까.)

103038 #1 경 헌 거주.(그렇게 한 거지.)

103038 @ 무사 그 콩죽 영 쒕 오면 그 우에 이렇게 영 뜨는 거 잇지 아녀우꽈예? 까풀처럼 이렇게 영 생기는 거 뭐렌 ᄀᆞᆫ는지?(왜 그 콩죽 이렇게 쒀서 오면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 뭐라고 말하는지?)

103038 #1 몰르커라. 우의 트는 거.(모르겠어. 위에 뜨는 거.)

103038 @ 예. 꼭 언딘 거치룩 영 허자녕니까?(예. 꼭 언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3038 #1 지금 말론 순부두여 뭐여 ᄀᆞᆯ안, ᄀᆞᆫ는 거주마는.(지금 말론 순부두다

뭐다 말하는, 말하는 거지만.)

103038 @ 그건 모르고예?(그건 모르고요?)

103038 #1 몰르커라.(모르겠어.)

103038 @ 여기 강 들어도 저기 강 들어도 원 아는 사름이 엇어.(웃음).(여기 가서 들어도 저기 가서 들어도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웃음).)

103038 #1 그거.(그거.)

103038 @1 예.(예.)

103038 #1 순두부를 우리말로 여기 방언으로 이제 골을 사람이 실 건가?(순두부를 우리말로 여기 방언으로 이제 말할 사람이 있을 건가?)

103038 @ 그걸 막 골아.(그걸 막 말해.)

103038 #1 어디 강 자꾸 들으면.(어디 강 자꾸 들으면.)

103038 @ 나올 테주.(나올 테지.)

밭벼 농사

103039 @ 혹시 산듸도 갈아봅디가? 삼춘.(혹시 밭벼도 갈아봤습니까? 삼촌.)

103039 #1 산듸는 거 일 년 농사라이.(밭벼는 거 일 년 농사야.)

103040 @ 아, 산듸는?(아, 밭벼는?)

103040 #1 일 년 농사. 봄에 일찍 가는 게 잇고 좀 늦엉 가는 게 잇고. 역시 또 것도 보릿그르에 가는 거 잇고.(일 년 농사. 봄에 일찍 가는 게 있고 좀 늦어서 가는 게 있고. 역시 또 것도 보릿그루에 가는 거 있고.)

103040 @ 예.(예.)

103040 #1 건 게난 수확은 늦게 갈수록 족아.(건 그러니까 수확은 늦게 갈수록 적어.)

103040 @ 아, 아무래도예?(아, 아무래도요?)

103040 #1 경 헤영 것도 이 거두어들이는 건 역시 뚠 것덜허고 마찬가지.(그렇게 해서 것도 이 거두어들이는 건 역시 다른 것들하고 마찬가지.)

103040 @ 예.(예.)

103040 #1 그 호미로 비영 이제 가상을 터나 아니면 저 홀테에서 홀트나 메탁기, 건 메탁긴 최근에 나온 거고.(그 낫으로 베어서 이제 개상을 떠나 아니면 저 홅이에서 홅으나 탈곡기, 건 탈곡긴 최근에 나온 거고.)

103041 @ 예, 예.(예, 예.)

103041 #1 메탁기에서 흔 번 훌트나.(탈곡기에서 한 번 홅으나.)

103041 @ 수확허는 건 다 ᄀᆞ튼 거고. 그것도 역시 여름농사니까 걸름은 아녈 거고.(수확하는 건 다 같은 거고. 그것도 역시 여름농사니까 거름은 않을 거고.)

103041 #1 걸름은 안허고, 비룐 허곡.(거름은 안하고, 비룐 하고.)

103043 @ 비룐 허고예? 그 산듸도 소끕니까? 그거는 검질?(비룐 하고요? 그 밭벼도 솎읍니까? 그거는 김?)

103043 #1 에, 산듸, 아 요는 뭐이던지 복잡허게 나면은 우 ᄃᆞ탕은에 뒈들 아녀.(에, 밭벼, 아 요는 뭐이든지 복잡하게 나면 위 다퉈서 되지를 않아.)

103046 @ 우 ᄃᆞ타부난에. 맞아 것도 싸움이 안 뒈는 거구나. 검질도 메야 뒈고. 그 산듸쏠은 귀헌 거 아니우꽈예? 여기는 논이 없지양?(위 다퉈버리니까. 맞아 것도 싸움이 안 되는 거구나. 김도 매야 되고. 그 밭벼쌀은 귀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논이 없지요?)

103046 #1 논 없어.(논 없어.)

103046 @ 산듸쏠 썻던 용돌 ᄀᆞᆯ아줍서?(밭벼쌀 썼던 용돌 말해주십시오?)

103046 #1 곤떡 헤영 먹고 곤밥 헤영 먹고 이제 그건 요는 제사 때 곤밥허영, 곤밥허영 올리는 거 젤 문저 ᄀᆞᆯ아살 건디.(흰떡 해서 먹고 흰밥 해서 먹고 이제 그건 요는 제사 때 흰밥해서, 흰밥 해서 올리는 거 젤 먼저 말해야 할 건데.)

103046 @ 예게, 그거부터 ᄀᆞᆸ서?(예, 그거부터 말하십시오?)

103046 #1 곤밥 헤영근엥에 상에 올리고 곤떡허고 시루떡.(흰밥 해서 상에 올리고 흰떡하고 시루떡.)

103046 @ 예.(예.)

103046 #1 이제 저 시루떡, 백설귀.(이제 저 시루떡, 백설기.)

103046 @ 백설귀?(백설기?)

103046 #1 그거 허곡. 경 또 여유 이시민 풀앙근엥에 뭐 신발이라도 사고.(그거 하고. 그렇게 또 여유 있으면 팔아서 뭐 신발이라도 사고.)

103046 @ 예, 게난 이제 예전에 산듸 간 용도는 제사를, 멩질허젠 헌 거라예?(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밭벼 간 용도는 제사를, 명절하려고 한 거네요?)

103046 #1 주로 이제 춤 부자칩이의서나 이제 사람들 먹엇주. 이제 우리 저 가난헌 집의덜은 그거 춤 제사 때나 먹엇주, 어린 때 당추.(주로 이제 참 부잣집에서나 이제 사람들 먹었지. 이제 우리 저 가난한 집에서들은 그거 참 제사 때나 먹었지, 어린 때 당최.)

103046 @ 게난 그 곤밥에 대한 추억들은 하시쿠다예?(그러니까 그 흰밥에 대한 추억들은 많겠네요?)

103046 #1 곤밥에 대헌 추억이야 뭐 어느 집의, 게난 옛날도 이 저 제사칩 아이덜 독헌덴 허는 말이 바로 그거지.(흰밥에 대한 추억이야 뭐 어느 집에, 그러니까 옛날도 이 저 제삿집 아이들 독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지.)

103046 @ 예.(예.)

103046 #1 이 자기네 집읜 어려운 걸 그날 처녁은 준비혜영 나눠주니까 뭐 나 말 잘 들어사 헌덴 혜영근엥에 허곡. 춤, 그 어려운 그 뭘 그디 강근에게 얻어, 춤 젯밥 그 저 음복허곡.(이 자기네 집에는 어려운 걸 그날 저녁은 준비해서 나눠주니까 뭐 나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해서 하고. 참, 그 어려운 그 뭘 거기 가서 얻어, 참 젯밥 그 저 음복하고.)

103046 @ 음.(음.)

103046 #1 이 그 식게, 식게 헤난, 식게칩이. 식게엔 헌 게 이거 중간에 말은 뚠딜로 흘른디 먹을 식자가 식사엔 헌 식 자가 에 제사 지낼 식도 뒈여.(이 그 제사, 제사 했었어, 제삿집이. 제사라고 한 게 이거 중간에 말은 다른 데로 흐르는데 먹을 식자가 식사라고 한 식자가 에 제사 지낼 식도 돼.)

103046 @ 예.(예.)

103046 #1 갠 떡 개 자라.(갠 떡 개 자야.)

103046 @ 음.(음.)

103046 #1 제사 지내고 식게 지네레 감서 허민 제사 지내고 떡 먹으레 감서 헌 말이라.(제사 지내고 '식게' 지내러 가고 있어 하면 제사 지내고 떡 먹으러 가고 있어 한 말이야.)

103046 @ 옛날에 떡허는 게 오직 식게 때 허난예?(옛날에 떡하는 게 오직 제사 때 하니까요?)

103046 #1 으으. 게난 지금 여기 학자덜토 식게 헌 건 방송엘 들으나 뭣에 허민 그 잘 그걸 굽갈랑근에 골아주질 아녀는데 제사 지내고 떡 먹으레 가는 게 식게 먹으레 감서 헌 말은.(으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자들도 제사 하는 건 방송엘 듣나 뭣에 하면 그 잘 그걸 분별해서 말해주질 않는데 제사 지내고 떡 먹으러 가는 게 '식게' 먹으러 가고 있어 하는 말은.)

103046 @ 식게 먹으레 감서.(제사 먹으러 가고 있어.)

103046 #1 떡 개 자[짜].(떡 개 자.)

103046 @ 음, 건 처음 들엄수다.(음, 건 처음 듣고 있습니다.)

103046 #1 경 헴실 거라.(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103046 @ 겐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예, 식가렌 헌 제도도 잇어난마씨. 식게가 아니라 식가렌 헤갖고 그 기제사가 잇으면 휴가를 줭은에 강 제사를 지냉 오렌 헌 게 그게 식가고.(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요, 식가라고 한 제도도 있었어요. '식게'가 아니라 식가라고 해갖고 그 기제사가 있으면 휴가를 줘서 가서 제사를 지내서 오라고 한 게 그게 식가고.)

103046 #1 식가.(식가.)

103046 @ 그래서 식게가 왐덴 헤갖고 학자덜은 경 골암수다. 이제. 게난 그런 것도 잇고 이런 뜻도 잇고.(그래서 제사가 오고 있다고 해갖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103046 #1 게, 식게, 식게 그냥 이 제주도 방언이지만 한자음이라이.(게, 제사, 제사 그냥 이 제주도 방언이지만 한자음이야.)

103046 @ 예, 한자에서.(예, 한자에서.)

103046 #1 한자음. 이건 이 떡 개허고 이 제사 지낼 식허고.(한자음. 이건 이 떡 개하고 이 제사 지낼 식하고.)

103046 @ 음.(음.)

103046 #1 경헤근에 헌디 지금 나가 셍각헐 때에 앞에 식게 허면 한자를 찾을

수 잇는 한 찾아서 한자 놓고.(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 앞에 '식게' 하면 한자를 찾을 수 있는 한 찾아서 한자 놓고.)

103046 @ 음.(음.)

103046 #1 여기.(여기.)

103046 @ 뜻풀이도 해보고.(뜻풀이도 해보고.)

103046 #1 뜻풀이 놓곡. 이 방언책을 요런 식으로 만들엇으면 이제 너나 헐 것이 알아먹기 쉽곡 뭐헐 게 아니냐 뭐이냐 허주마는 그거 지금 한자에 정신 주는 사름도 엇고.(뜻풀이 놓고. 이 방언책을 요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너나 할 것이 알아먹기 쉽고 뭐할 게 아냐 뭐냐 하지만 그거 지금 한자에 정신 주는 사람도 없고.)

103046 @ 맞수다.(맞습니다.)

103046 #1 또 옛날 거 나가 영 헤보니까 저디 웃으멍 노는 게 좋은 거지 그거 놩근엥게 영 그거 저거 촞곡 그렇게 힘드니까이.(또 옛날 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기 웃으면서 노는 게 좋은 거지 그거 놓아서 이렇게 그거 저거 찾고 그렇게 힘드니까.)

103046 @ 예. 맞습니다.(예. 맞습니다.)

103046 #1 게난 모든 게 경 어려운 거로고. 어려와. 지금 춤 이거 지금.(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어려운 거로고. 어려워. 지금 참 이거 지금.)

103046 @ 방언 헹 써져신게예. (웃음).(방언해서 써졌는데요. (웃음).)

103046 #1 경 헤연 저번에 온 때에 지금 저 ᄉᆞ나이 남학생이 이거 얼마간 이 여기 줄 그엇는데.(그렇게 해서 저번에 온 때에 지금 저 사내 남학생이 이거 얼마간 이 여기 줄 그었는데.)

103046 @ 예.(예.)

103046 #1 줄 그은 딜로 전부 우터렌 그냥 저 찍언 갓어.(줄 그은 데로 전부 위로 그냥 저 찍어서 갔어.)

103046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3046 #1 찍언 갓는데 이 저 그루후제 경 많질 못허여.(찍어서 갔는데 이 저 그 이후에 그렇게 많질 못해.)

103047 @ 예. 나중에 저도 베와 줍서. 경허고 그 산듸찍도 옛날엔 엇엉 못 썻잖엣쑤가예?(예. 나중에 저도 보여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밭볏짚도 옛날에는 없어서 못 썼잖습니까?)

103047 #1 아, 물론.(아, 물론.)

103047 @ 산듸찍으론 뭣 썻수과?(밭볏짚으로 뭣 썼습니까?)

103047 #1 산듸찝으로.(밭볏짚으로.)

103047 @ 예.(예.)

103047 #1 노 꼬고 멍석 즌고 신 삼곡.(노 꼬고 멍석 겯고 신 삼고.)

103047 @ 음.(음.)

103047 #1 신깍 내곡.(신울 내고.)

103047 @ 신깍 내곡. 게난 산듸찍이 정말 생활에?(신울 내고. 그러니까 밭볏짚이 정말 생활에?)

103047 #1 아이고, 우리 생활에 상당히 그 도움을 준 거주.(아이고, 우리 생활에 상당히 그 도움을 준 거지.)

103047 @ 멕도 줄아봅디가?(멱도 결어봤습니까?)

103047 #1 아이, 멕은 못 줄아봣어.(아니, 멱은 못 결어봤어.)

103047 @ 아? 멍석 줒는 거는 봐보고?(아? 멍석 곁는 거는 봐보고?)

103047 #1 ᄀᆞ렛방석은 줄아본디이.(맷방석은 결어봤는데.)

103047 @ 아. ᄀᆞ렛방석은 줄아봔마씨?(아. 맷방석은 결어봤어요?)

103047 #1 삥삥 도는 거니까.(삥삥 도는 거니까.)

103047 @ 예, 예. 아, 거난 옛날에는 집집마다 멍석 하나 허젠 헤도.(예, 예.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집마다 멍석 하나 하려고 해도.)

103047 #1 아이고.(아이고.)

103047 @ 산듸찍으로 다 헌 거라예?(밭볏짚으로 다 한 거네요?)

103047 #1 산듸찝 허영. 그거 이제 웃어른이 허면 그걸 영 두드리믄 헤낫주.(밭볏짚 해서. 그거 이제 웃어른이 하면 그걸 이렇게 두들기기는 했었지.)

103047 @ 아, 두두림으로. 거 두드리는 건 뭐렌 헙니까? 냉중에 그 두드리는 거.(아, 두들김으로. 거 두들기는 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 두들기는 거.)

103047 #1 덩드렁[65], 덩드렁마께[66].(‘덩드렁’, ‘덩드렁마께’.)

103047 @ 예. 경헹 이제 부드럽게 저기를 이제.(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드럽게 저기를 이제.)

103047 #1 물 푸멍근에 그거.(물 뿜으면서 그거.)

103047 @ 물 풀 때는 입으로 푸 부릅니까?(물 뿜을 때는 입으로 푸 부릅니까?)

103047 #1 아이, 물론 거. 입으로 푸무멍.(아니, 물론 거. 입으로 뿜으면서.)

103047 @ 입으로 품으멍. 겡은에 산듸찍으로 엇이민?(입으로 뿜으면서. 그렇게 해서 밭볏짚으로 없으면?)

103047 #1 그걸 입으로 뿜으라. 입으로 품으라.(그걸 입으로 뿜어라. 입으로 뿜어라.)

103047 @ 입으로 품으라. 왜냐허면 그게 젖지 않으면은 다 깨져부니까예?(입으로 뿜어라. 왜냐하면 그게 젖지 않으면 다 깨져버리니까요?)

103047 #1 그냥 뿌서져부니까.(그냥 부서져버리니까.)

103047 @ 뿌서져부니까. 산듸찍으로 헤야 메주 같은 것도 저기를 하니까예? 산듸 안 간 사름들은 상 와사쿠다예?(부서져버리니까. 밭볏짚으로 해야 메주 같은 것도 저기를 하니까요? 밭벼 안 간 사람들은 사서 와야겠네요?)

---

65) ‘덩드렁’은 딴딴하고 미끈닥하며 둥글넓적한 돌이다. 짚 따위를 두드리는 돌판이다.

66)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들길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들길 때 사용하는 방망이다.

103047 #1 찍이 아니고 찝이엔.(‘찍’이 아니고 ‘찝’이라고.)

103047 @ 찝이렌 헙니까? 산디찝.(짚이라고 합니까? 밭볏짚.)

103047 #1 이 이웃집의 강 빌어당.(이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가.)

103047 @ 아, 빌어당은에.(아, 빌려다가.)

103047 #1 메주나 뭐 헐 때난 신 삼는 것도 강 빌어당근에 허곡.(메주나 뭐 할 때난 신 삼는 것도 가서 빌려다가 하고.)

103047 @ 음, 삼춘도 신 삼아봔마씨?(음, 삼촌도 신 삼아봤어요?)

103047 #1 아, 신 삼아봇주.(아, 신 삼아봤지.)

103047 @ 아.(아.)

103047 #1 지금은 아메도 거 더듬더듬허영 ᄒᆞ를 걸렴직 허여.(지금은 아마도 거 더듬더듬해서 하루 걸릴 것 같아.)

103047 @ 아, 노도 꼬아야 뒈곡. 경 그 신깍을 잘 내야 뒌덴 헌게마는예?(아, 노도 꼬아야 되고. 그렇게 그 신울을 잘 내야 된다고 하더니만?)

103047 #1 그게 이뻐. 이쁘게 해야 곱닥허게.(그게 이뻐. 이쁘게 해야 곱게.)

103047 @ 음, 경헤도 그 여기는 초신이렌 헙니까? 찝신이렌 헙니까?(음, 그렇게 해도 그 여기는 ‘초신’이라고 합니까? ‘찝신’이라고 합니까?)

103047 #1 초신이옌.(‘초신’이라고.)

103047 @ 초신이옌예? 초신 삼을 때 왜 초신도 종류가 곱게 삼은 거 허고 그냥 놋인 거 하고 그 깍에 따랑 뜨난덴 허멍예?(‘초신’이라고요? 짚신 삼을 때 왜 짚신도 종류가 곱게 삼은 거 하고 그냥 낮은 거 하고 그 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면서요?)

103047 #1 붙깍신이 잇고.(제총박이가 있고.)

103047 @ 예.(예.)

103047 #1 붙깍신은 노동, 노동파고.(제총박이는 노동, 노동파고.)

103047 @ 예, 예, 예.(예, 예, 예.)

103047 #1 이 깍신[67]은 고니까.(이 ‘깍신’은 고우니까.)

103047 @ 음.(음.)

103047 #1 노랑케 이제 깍, 붙, 깍이 노랑헤영근에 고니까 거 깍신은 이 깍신이옌 허곡 붙깍신옌 허곡.(노랗게 이제 총, 붙, 총이 노래서 고우니까 거 ‘깍신’은 이 ‘깍신’이라고 하고 제총박이라고 하고.)

103047 @ 붙깍신엔 허곡. 그.(제총박이라고 하고. 그.)

103047 #1 또 ᄒᆞ나. 뭐가, 막노동헐 때 신게 허는 게 뭐 거 잇는데, 잊어불엇어.(또 하나. 뭐가, 막노동할 때 신게 하는 게 뭐 거 있는데, 잊어버렸어.)

103047 @ 그 옛날에 저기 깍도 막 여러 개 놓는 게 아니고, 세 개 삼갑실 헤갖고 그 상 때. 영장 나면 그 상주들이 신어낫던 신 이런 거는.(그 옛날에 저기 총도

67) ‘깍신’은 ‘깍+신’ 구성으로, ‘깍’은 짚신의 운두를 이루는 낱낱이 울을 말한다. ‘깍신’은 일일이 총을 내어서 만든 신을 가리킨다.

매우 여러 개 놓는 게 아니고, 세 개 세겹실 해갖고 그 상 때. 상 나면 그 상주들이 신었었던 신 이런 거는.)

103047 #1 아 그거 역시 그냥 이 초신으로 그냥 신어낫어.(아 그거 역시 그냥 이 짚신으로 그냥 신었었어.)

103047 @ 그냥 초신으로 헤갖고예?(그냥 짚신으로 해갖고요?)

103047 #1 초신으로 신어.(짚신으로 신어.)

103047 @ 그 깍 낼 때 미[68]로 이런 식으로 내보진 아녀수가?(그 총 낼 때 '미'로 이런 식으로 내보진 않았습니까?)

103047 #1 미로 아니 그건 깍신.('미'로 아니 그건 '깍신'.)

103047 @ 깍신예? 경헤야 곱덴 허멍예?('깍신'요? 그렇게 해야 곱다고 하면서요?)

103047 #1 고와. 노랑헹 곱주, 뭐.(고와. 노래서 곱지, 뭐.)

103047 @ 깍은 미로 헤근에 내기도 하고예? 게난 이 진짜 산듸는 제영 이런 집에 다 소용되는 거예? 이런 물건들 만들 때 이제 쓰는 거고. 산듸허멍은에 얽인 추억같은 거?(총은 '미'로 해서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진짜 밭벼는 제랑 이런 집에 다 소용되는 거요? 이런 물건들 만들 때 이제 쓰는 거고. 밭벼하면서 얽인 추억 같은 거?)

103047 #1 건 별로 없어이.(건 별로 없어.)

103047 @ 그런 건 엇고예? 알앗수다. 이건 농사는 다 짓엉 가사쿠다. 이제 감저 농사허고예, 뭐.(그런 건 없고예? 알았습니다. 이건 농사는 다 지어서 가야겠습니다. 이제 고구마 농사하고요, 뭐.)

103047 #1 잠깐 또 쪼끔.(잠깐 또 조금.)

103047 @ 휴가허쿠다.(휴가 하겠습니다.)

103047 #1 휴식.(휴식.)

103047 @ 너무 오래 앚안.(너무 오래 앉아서.)

고구마농사

103049 @ 이제는 감저, 아까 이제 공출도 허고 헷덴 허멍. 감저 농서허젠 허면은 어떤 식으로 씨 묻는 것부터 시작헹은에 쭉 골아줍서?(이제는 고구마, 아까 이제 공출도 하고 했다고 하면서. 고구마 농사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씨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말해주십시오?)

103049 #1 감저는 구광[69]을 놔야뒈.(고구마는 '구광'을 놔야해.)

103049 @ 예.(예.)

103049 #1 그 씨, 처음 씨 묻는 걸 구광이라고 헤여이.(그 씨, 처음 씨 묻는 걸 '구광'이라고 해.)

---

68) '미'는 억새꽃을 쌌던 속껍질을 말한다.

69) '구광'은 고구마 줄기를 생산할 씨 고구마를 말한다.

103049 @ 구강예?(‘구강’요?)

103049 #1 에, 구광을 넣어서 그 줄을 잘 키우면.(에, ‘구광’을 넣어서 그 줄을 잘 키우면.)

103049 @ 예.(예.)

103049 #1 그거. 적당한, 적당한 길이가 뒈면은 그걸 가지고 밧듸 가서.(그거. 적당한, 적당한 길이가 되면 그걸 가지고 밭에 가서.)

103049 @ 예.(예.)

103049 #1 밧고지를 크게 만들어.(밭이랑을 크게 만들어.)

103049 @ 음, 감저 싱글 땐예?(음, 고구마 심을 때는요?)

103049 #1 밧고지를 크게 헤영 이제 거기에 씰, 줄을 묻어두면 이제 거기에 닿는 저 열매가 부뜨는데 저 우에나 남군[70]이나 거기허고 싱그는 게 이 도련은 틀려.(밭이랑을 크게 해서 이제 거기에 씰, 줄을 묻어두면 이제 거기에 닿는 저 열매가 붙는데 저 위에나 남군이나 거기하고 심는 게 이 도련은 달라.)

103049 @ 아, 어떵 틀려마씨?(아, 어떻게 달라요?)

103049 #1 여기는 잘 다져줘야 되고.(여기는 잘 다져줘야 되고.)

103049 @ 예.(예.)

103049 #1 거기는 꾹꾹 질렁만 내불어도 뒈여.(거기는 꾹꾹 찔러서만 내버려도 돼.)

103049 @ 아, 거는 무산고양?(아, 거는 왜인가요?)

103049 #1 거긴 질렁만 내불어도 뒈는디 여긴 그렇게 허민 그냥 죽어불어.(거긴 찔러서만 내버려도 되는데 여긴 그렇게 하면 그냥 죽어버려.)

103049 @ 아, 땅이 ᄒᆞ꼼 뜬땅[71]이우과? 여기는.(아, 땅이 조금 ‘뜬땅’입니까? 여기는.)

103049 #1 여긴 저 뒌땅[72].(여긴 저 ‘된땅’.)

103049 @ 뒌땅이 경허는 거우과?(‘된땅’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103049 #1 저 뜬땅엔 그냥 질렁만 내불어도 뒈는데 이 뒌땅엔 잘 다져줘야.(저 ‘뜬땅’에는 그냥 찔러서만 내버려도 되는데 이 ‘된땅’엔 잘 다져줘야.)

103049 @ 음, 게믄 이제 줄 싱경 똑똑 눌르멍은에 싱거사키여예?(음, 그러면 이제 줄 심어서 똑똑 누르면서 심어야겠네요?)

103049 #1 막 두드령.(마구 두들겨서.)

103049 @ 막 두드려예. 아, 손으로.(마구 두들긴다고요. 아, 손으로.)

103049 #1 으.(으.)

103049 @ 그런 식으로 이제 헤야 뒈는구나.(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구나.)

103049 #1 지금은 장갑 쪙 허주마는 옛날은 장갑도 엇이 그냥 맨주먹, 맨손바닥으로 그냥 막 다져야.(지금은 장갑 껴서 하지만 옛날은 장갑도 없이 그냥 맨주먹,

70) ‘남군’은 예전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의 하나다.
71) ‘뜬땅’은 차진 기운이 없는 푸석푸석한 땅을 말한다.
72) ‘뒌땅’은 차진 기운이 있는 땅을 말한다.

맨손바닥으로 그냥 마구 다져야.)

103049 @ 예, 게믄 그 감저 농사허젠 허면 준비허는 게. 어떤 식으로. 씨는, 씨는 어떵 놔두고 허는 거부터 골아줍서?(예, 그러면 그 고구마 농사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게. 어떤 식으로. 씨는, 씨는 어떻게 놔두고 하는 거부터 말해주십시오?)

103049 #1 아, 씨는. 아니 이건 내중에 건 씬 젤 내중에 들어가야주이.(아, 씨는. 아니 이건 나중에 건 씬 젤 나중에 들어가야지.)

103049 @ 예, 예.(예, 예.)

103049 #1 내중에 들어가. 이건 이제 구광을 넣어서 줄을 키와서 밧듸 가서 심고 이제 검질메고.(나중에 들어가. 이건 이제 '구광'을 넣어서 줄을 키워서 밭에 가서 심고 이제 김매고.)

103049 @ 음.(음.)

103049 #1 이제 감저가 잘 들면 한자론 감저라고벳긔 쓸 수가 없어.(이제 고구마가 잘 들면 한자론 감저라고밖에 쓸 수가 없어.)

103049 @ 맞수다.(맞습니다.)

103049 #1 고구마라고 쓸 수가 없어.(고구마라고 쓸 수가 없어.)

103049 @ 예, 예, 예.(예, 예, 예.)

103049 #1 감저 이제 감저가 들믄은 이제 그걸 쟁기로 갈아.(고구마 이제 고구마가 들면 이제 그걸 쟁기로 갈아.)

103049 @ 예.(예.)

103049 #1 이젠 가져와. 가져당 보관을 허는데.(이젠 가져와. 가져다가 보관을 하는데.)

103049 @ 네.(네.)

103049 #1 이제 감젓구뎅이[73]에 강 묻는 방법도 잇고.(이제 '고구마구덩이'에 가서 묻는 방법도 있고.)

103049 @ 예.(예.)

103049 #1 씨는 사름 자는 방에 넣어둬야 제일 안전헌 거.(씨는 사람 자는 방에 넣어둬야 제일 안전한 거.)

103049 @ 아, 게믄 거는 뭐에 놩은에 그 방에는?(아, 그러면 거는 뭐에 넣어서 그 방에는?)

103049 #1 방에는 그 그것만 놓게끔 그걸 만들어야.(방에는 그 그것만 놓게끔 그걸 만들어야.)

103049 @ 예.(예.)

103049 #1 만들엉근에.(만들어서.)

103049 @ 멕을 만드는 거우꽈? 아니면은?(멱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103049 #1 아니, 멕에 허영 이런 벡장에 놔도 뒈고. 이곳이 마 골방ᄀᆞ치 우알더레 영 헤놩 이 저 그 뭘로 영 가려지게.(아니, 멱에 해서 이런 벽장에 놔도 되고.

73) '감젓구뎅이'는 씨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해서 파 놓은 구덩이다.

이곳이 마 골방같이 위아래로 이렇게 해 놓아서 이 저 그 뭐로 이렇게 가려지게.)

103049 @ 예.(예.)

103049 #1 가리곡 내중에 카뎅이라도 영 쳐부리민 거기 몰르게.(가리고 나중에 커튼이라도 이렇게 쳐버리면 거기 모르게.)

103049 @ 음.(음.)

103049 #1 게난 그런 걸 그 흑 부뜨고 헐 걸 방안에 놓느냐 헐 사름도 잇지마는 젤 안전허게 보관헐 수 잇는 게 사름 살 수 잇는 그 온도라야 젤 보관이 좋은 거.(그러니까 그런 걸 그 흙 붙고 할 걸 방안에 놓느냐 할 사람도 있지만 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게 사람 살 수 있는 그 온도여야 젤 보관이 좋은 거.)

103049 @ 음.(음.)

103049 #1 게난 농민덜은 그거 저거 헐 거 엇이 수확헤여 오민 저장허는 방법을 잘 알아둬야.(그러니까 농민들은 그거 저거 할 거 없이 수확해서 오면 저장하는 방법을 잘 알아둬야.)

103049 @ 그렇지예, 썩지 아녀게.(그렇지요, 썩지 않게.)

103049 #1 썩지 아녀게.(썩지 않게.)

103049 @ 다음해 또 헤야 뒈고.(다음해 또 해야 되고.)

103049 #1 게난 거기에 놓앗다가 풀기도 허고.(그러니까 거기에 놓았다가 팔기도 하고.)

103049 @ 음.(음.)

103049 #1 많이 넣으민. 또 다시 저 또 구광 놓곡.(많이 넣으면. 또 다시 저 또 '구광' 놓고.)

103049 @ 음.(음.)

103049 #1 그걸로.(그걸로.)

103049 @ 예.(예.)

103049 #1 경허민 한 바꾸 영 도는 거.(그러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103049 @ 예.(예.)

103049 #1 (기침.)

103050 @ 아이고, 미안허우다, 삼춘. 감전 언제 갈아마씨?(아이고, 미안합니다, 삼촌. 고구만 언제 갈아요?)

103050 #1 오월, 오월 초 뒈지. 아, 사월달 뒈지.(오월, 오월 초 되지. 아, 사월달 되지.)

103050 @ 게난 구광 놓는 계절은 언제우과?(그러니까 '구광' 놓는 계절은 언젭니까?)

103050 #1 에, 사월 오일 경이주.(에, 사월 오일 경이지.)

103050 @ 아아, 사월 오일 경 구광 놩. 줄.(아아, 사월 오일 경 '구광' 넣어서. 줄.)

103050 #1 청명이지. 사월 오일.(청명이지. 사월 오일.)

103050 @ 예, 예.(예, 예.)

103050 #1 청명.(청명.)

103052 @ 음, 아이고, 어떵허코? (웃음). 그 사월 오일 헹 구광 놓면 그 싱그는 거는 보릿그르에.(음, 아이고, 어떡할까? (웃음). 그 사월 오일 해서 '구광' 놓으면 그 심는 거는 '보릿그루'에.)

103052 #1 보릿그르에도 허곡.('보릿그루'에도 하고.)

103052 @ 으, 그냥.(으, 그냥.)

103052 #1 이제 또.(이제 또.)

103051 @ 경 헹 이제 허곡, 그 감저 싱글 때도 거름헙니까?(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고구마 심을 때도 거름합니까?)

103051 #1 감저 싱글 때 으, 저 갈 때에.(고구마 심을 때 으, 저 갈 때에.)

103051 @ 예.(예.)

103051 #1 갈 때에 거름 좀 놔줘야 그건 좋주.(갈 때에 거름 좀 놔줘야 그건 좋지.)

103051 @ 으음. 주로 어떤 거름 놔신고예?(으음. 주로 어떤 거름 놨는가요?)

103051 #1 주로 퇴비들 조끔썩. 그 저 영 골 팡 놓는 수도 잇곡, 갈 때에 놓는 수도 잇고.(주로 퇴비들 조끔씩. 그 저 이렇게 골 파서 넣는 수도 있고, 갈 때에 넣는 수도 있고.)

103051 @ 음.(음.)

103051 #1 아니면 음, 집 일 때에.(아니면 음, 집 일 때에.)

103051 @ 예.(예.)

103051 #1 그 줄.(그 줄.)

103051 @ 예.(예.)

103051 #1 집줄 물 적정 쭉허게 놩 거기에 그냥 영 헤두면은 습기가 잇으니까.(집줄 물 적셔서 쭉하게 넣어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해두면 습기가 있으니까.)

103051 @ 예에.(예에.)

103051 #1 이 또.(이 또.)

103051 @ 그거는 고량에 이렇게 놩은에 놔두는 거라마씨?(그거는 고량에 이렇게 넣어서 놔두는 거예요?)

103051 #1 고지에.(이랑에.)

103051 @ 고지에.(이랑에.)

103051 #1 고지에 골 팡.(이랑에 골 파서.)

103051 @ 으음.(으음.)

103051 #1 골 팡 그 우에 감절줄 놔놩 흑 더펑.(골 파서 그 위에 고구마줄기 넣어서 흙 덮어서.)

103051 @ 아아, 그런 방법도예. 줄을 버리지 아넹은에 그런 식으로도 헷구나예?(아아, 그런 방법도요. 줄을 버리지 안해서 그런 식으로도 했군요?)

103051 #1 경 아녀민 그 줄은 불 때는 거고.(그렇게 않으면 그 줄은 불 때는 거고.)

103052 @ 음, 경 안허면 불 때고예? 아, 게믄 그 감젓줄로 이제 그 싱그는 거 이렇게 메 놓덴 헙니까? 여기는.(음, 그렇게 않으면 불 때고요? 아, 그러면 그 '고구마줄기'로 이제 그 심는 거 이렇게 묘 넣는다고 합니까? 여기는.)

103052 #1 어떵?(어떻게?)

103052 @ 감젓메 논덴 헙니까? 감젓메[74]?('감젓메' 넣는다고 합니까? '감젓메'?)

103052 #1 감젓메 놔사주.('감젓메' 놔야지.)

103052 @ 구강 놓는 게 감젓메 놓는 거엔 허지예?('구강' 넣는 게 '감젓메' 놓는 거라고 하지요?)

103052 #1 구강엔 곧는 사름도 잇고 감젓메엔도.('구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감젓메'라고도.)

103052 @ 감젓메혜면 보통은 줄 어느 정도 크기 헐 때 싱거마씨, 이게?('감젓메'하면 보통은 줄 어느 정도 크기 할 때 심어요, 이게?)

103052 #1 요게 멧 센티 뒈코?(요게 몇 센티미터 될까?)

103052 @ 오십 센티.(오십 센티미터.)

103052 #1 사십 센티 정도.(사십 센티미터 정도.)

103054 @ 그 사십 센치 정도허면 그 정도씩 허영 짤랑 싱그는 거라예? 그 감저 밧듸도 검질메는 거예? 여름에.(그 사십 센티미터 정도하면 그 정도씩 해서 잘라서 심는 거라고요? 그 고구마 밭에도 김매는 거지요? 여름에.)

103054 #1 검질메사.(김매야.)

103054 @ 감젓검질도 메고. 옛날 감젓검질도 멧주마는 그 쉐로 헤갖고 구뎅이 굿 올리는 거. 건 뭐렌 헙니까? 골 가는 거?(고구마 김도 매고. 옛날 고구마 김도 맸지만 그 소로 해갖고 구덩이 북 올리는 거. 건 뭐라고 합니까? 골 가는 거?)

103054 #1 골 가는 거.(고랑 가는 거.)

103054 @ 게난 골도, 보리도 골 갈고 경 허지예?(그러니까 고랑도, 보리도 고랑 갈고 그렇게 하지요?)

103054 #1 으.(으.)

103054 @ 경허지예?(그렇게 하지요?)

103054 #1 주로 허는 건 보리에 많이 허고.(주로 하는 건 보리에 많이 하고.)

103054 @ 예.(예.)

103054 #1 일단 감젓고지엔 그 줄덜 더퍼져 놓으니까.(일단 고구마 이랑에는 그 줄들 덮어져 놓으니까.)

103054 @ 예.(예.)

---

74) '감젓메'는 고구마 줄기를 얻기 위해서 땅에 묻는 씨 고구마를 말한다. 씨 고구마에서 생겨난 줄기를 이를 때도 '감젓메'라고 한다.

103054 #1 골 갈기가 힘들어.(고랑 갈기가 힘들어.)

103054 @ 아, 감저는 골 잘 안 가는구나예? 제가 어렷을 때 제가 보면 감저밧듸도 그 구뎅이 올려준다고 골 갑디다.(아, 고구마는 고랑 잘 안 가는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보면 고구마 밭에도 그 구덩이 올려준다고 고랑 갑디다.)

103054 #1 경도 허여.(그렇게도 해.)

103054 @ 예.(예.)

103054 #1 ᄒᆞ는 건디 검질, 검질 안 메곡.(하는 건데 김, 김 안 매고.)

103054 @ 음.(음.)

103054 #1 경허민 경 허영 좋는디 그 줄이 영 벋어놓니까.(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데 그 줄이 이렇게 뻗어놓으니까.)

103054 @ 예.(예.)

103054 #1 줄 벋기 전에 건 올리는 거.(줄 뻗기 전에 건 올리는 거.)

103054 @ 줄 벋기 전에예?(줄 뻗기 전에요?)

103054 #1 줄 벋은 후젠 못허여.(줄 뻗은 후에는 못해.)

103055 @ 그 감저 파젠 허면은 어떤 식으로 팟수가? 옛날에.(그 고구마 파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팠습니까? 옛날에.)

103055 #1 쉐로 헤영 쟁기로 갈앙.(소로 해서 쟁기로 갈아서.)

103055 @ 응. 감저 쟁기로 갈기 전에는 줄 걷어얄 거 아니우과?(응. 고구마 쟁기로 갈기 전에는 줄 걷어야 할 거 아닙니까?)

103055 #1 줄 건 호미로 줄 걷어뒁.(줄 건 낫으로 줄 걷어두고.)

103055 @ 예.(예.)

103055 #1 이제 고지만 내앚졍 이제 갈아야.(이제 이랑만 내앉혀서 이제 갈아야.)

103055 @ 음, 게민 저도 감저 줏이레도 가고 헤낫인디.(음, 그러면 저도 고구마 주으러 가고 했었는데.)

103055 #1 겨민 감젓줄은 이제 담 우에 걸쳥 ᄆᆞᆯ류왕 소 양석.(그러면 고구마 줄기는 이제 담 위에 걸쳐서 말려서 소 양석.)

103055 @ 네, 소 양석. 그게 영양가 한 거라예?(네, 소 양석. 그게 영양가 많은 거지요?)

103055 #1 으.(으.)

103055 @ 경 헤영 이제, 이제 쉐로 갈앙은에 파는 거고예?(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소로 갈아서 파는 거고요?)

103055 #1 음.(음.)

103056 @ 그 다음에 아까 보관허는 거는 감젓눌[75] 헤갖고 허기도 하고.(그 다음에 아까 보관하는 거는 '고구마가리' 해갖고 하기도 하고.)

103056 #1 방 안네, 방 안네 보관도 허곡.(방 안에, 방 안에 보관도 하고.)

---

75) '감젓눌'은 고구마의 가리를 말한다.

103056 @ 방 안네 헐 때는 이런 뭐 상자치록 헹은에 짱은에 허는 것과 아니면 가멩이 ᄀᆞ튼 걸로.(방 안에 할 때는 이런 뭐 상자처럼 해서 짜서 하는 것과 아니면 가마니 같은 걸로.)

103056 #1 가멩이 헤영 그냥 놔둬도 뒈고 그냥 그런 뭐가 엇이면. 우린 요처럼 헨 저 골방ᄀᆞ치 이 저.(가마니 해서 그냥 놔둬도 되고 그냥 그런 뭐가 없으면. 우린 요처럼 해서 저 골방같이 이 저.)

103056 @ 장을 멘들안.(장을 만들어서.)

103056 #1 요쪽에 영 헨에 그 잇어낫어.(요쪽에 이렇게 해서 그 있었었어.)

103056 @ 아, 따로 골방치록 영 세왕 멘든 거라예?(아, 따로 골방처럼 이렇게 세워서 만든 거라고요?)

103056 #1 으. 게영 거긴 앞으로 두주 뭐허듯 영 낭으로 막으멍.(으. 그래서 거긴 앞으로 뒤주 뭐하듯 이렇게 나무로 막으면서.)

103056 @ 응. 낭으로 헷구나예?(응. 나무로 했군요?)

103056 #1 낭으로 막으멍 건 칸 갈라지주게.(나무로 막으면서 건 칸 갈라지지.)

103057 @ 게영 그거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앗수가?(그래서 그거 팔 때는 어떤 식으로 팔았습니까?)

103057 #1 풀 땐 사레 오민 풀기도 허곡.(팔 땐 사러 오면 팔기도 하고.)

103057 @ 예.(예.)

103057 #1 건 여러 가지주 뭐.(건 여러 가지지 뭐.)

103057 @ 옛날에 풀 때도 무사 절간허영 풀기도 허곡 그냥 쌩감(쌩감저?)으로 풀기도 허지도 아녓수가?(옛날에 팔 때도 왜 절간해서 팔기도 하고 그냥 생고구마로 팔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103057 #1 아, 생감저로도 풀고.(아, 생고구마로도 팔고.)

103057 @ 예.(예.)

103057 #1 응, 응. 건 전부허는디. 생감저로도 가고. 절간헤영은에 그건 주정공장으로 풀레 가.(응, 응. 건 전부하는데. 생고구마로도 가고. 절간해서 그건 주정공장으로 팔러 가.)

103059 @ 그 뺏데기헐 때 얽힌 추억이 하실 거 닮아예?(그 고지할 때 얽힌 추억이 많을 거 같아요?)

103059 #1 그때에 그 추억은 널어서 ᄆᆞᆯ리, 그대로 비 안 오민 좋은데.(그때에 그 추억은 널어서 말리, 그대로 비 안 오면 좋은데.)

103059 @ 예.(예.)

103059 #1 비 오민 그때옌.(비 오면 그때는.)

103059 @ 난리가 나?(난리가 나?)

103059 #1 비상이고 잘못허민 집안네 싸움도 나고.(비상이고 잘못하면 집안에 싸움도 나고.)

103059 @ 음.(음.)

103059 #1 어디 갔다왔니 뭐허니 허멍 뭐.(어디 다녀왔니 뭐하니 하면서 뭐.)

103059 @ 맞수다.(맞습니다.)

103059 #1 (웃음).

103059 @ 겡은에 그 비 오젠 허민 다 구름** 밤의 강 줏이레도 가낫지예?(그래서 그 비 오려고 하면 다 구름** 밤에 가서 주우러도 갔었지요?)

103059 #1 그렇주.(그렇지.)

103059 @ 그 말씀 ᄒᆞ꼼 ᄀᆞᆯ아줍서.(그 말씀 조금 말해 주십시오.)

103059 #1 밤인 초롱 쌍 가사. 그때 전기 엇이난.(밤에는 초롱 켜서 가야. 그때 전기 없으니까.)

103059 @ 예.(예.)

103059 #1 전기 엇이난 초롱 쌍 강 놔둠서 그냥 글겡이 강 걷엉.(전기 없으니까 초롱 켜서 가서 놔두고서 그냥 갈퀴 가서 긁어서.)

103059 @ 음.(음.)

103059 #1 이젠 ᄂᆞ람지 아졍 강 그냥 그디 그냥 더프는 거라.(이젠 이엉 가져가서 가서 그냥 거기 그냥 덮는 거야.)

103059 @ 음.(음.)

103059 #1 뭣에 담을 어의 엇이.(뭣에 담을 어간 없이.)

103059 @ 예에, 게민 글겡이로 헷이면 절, 그 저 감저뻿데긴 어디 강 넌 거우과?(예에, 그러면 갈퀴로 했으면 절, 그 저 절간고구마는 어디 가서 넌 겁니까?)

103059 #1 테역밧듸.(잔디밭에.)

103059 @ 테역밧듸. 그냥 밧듸는 안 널어마씨?(잔디밭에. 그냥 밭에는 안 널어요?)

103059 #1 그냥 밧뒨 경 널어보지 아녀서.(그냥 밭에는 그렇게 널어보지 않았어.)

103059 @ 아아, 저희는 그냥 밧듸 그냥.(아아, 저희는 그냥 밭에 그냥.)

103059 #1 경덜 헷일 거라.(그렇게들 했을 거야.)

103059 @ 경허면 밤에도 건 허영허니까 그치룩허영 줏이고 허여낫인디.(그러면 밤에도 건 하야니까 그처럼해서 줍고 했었는데.)

103059 #1 경 아녀민 밧듸 넌 건, 안 줏지 않으면 안 뒈니까 열이면 열 개 손 다 헤여사니까. 테역밧뒨 글겡이로 모이민.(그렇게 않으면 밭에 넌 건, 안 줍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이면 열 개 손 다 해야니까. 잔디밭에는 갈퀴로 모이면.)

103059 @ 게믄 거는 불려야 뒈켜예? 글겡이로 헌 건.(그러면 거는 불려야 되겠네요? 갈퀴로 한 건.)

103059 #1 그렇지. ᄇᆞ름에 불리는 것사게.(그렇지. 바람에 불리는 거야.)

103059 @ 아, 여기는 테엿밧들이 하난 모양이라예? 동네 너른 디 너도 나도 테역밧 가실 거 아니예?(아, 여기는 잔디밭들이 많았던 모양이네요? 동네 너른 데 너도 나도 잔디밭 갔을 거 아네요?)

103059 #1 저레 헤영근에. 즉 말허면 이 우에, 옛 어른덜 그 지도서 사름덜이 마을 안네 새왓 이신 디 도련뿐이렌 허주.(저리 해서. 즉 말하면 이 위에, 옛 어른들 그 지도서 사람들이 마을 안에 띠밭 있는 데 도련뿐이라고 하지.)

103059 @ 아아, 새왓이 하낫구나.(아아, 띠밭이 많았구나.)

103059 #1 새왓도 잇엇낫어. 이 마을 안네. 테엿밧은 촐왓이고.(띠밭도 있었었어. 이 마을 안에. 잔디밭은 꼴밭이고.)

103059 @ 예.(예.)

103059 #1 새왓듸, 새왓듼 감저 못 널어. 뻿데기.(띠밭에, 띠밭에는 고구마 못 널어. 고지.)

103059 @ 그렇주마씨. 둥치가 홁어부니까.(그렇지요. 둥치가 굵어버리니까.)

103059 #1 굵어 놓으니까.(굵어 놓으니까.)

103059 @ 그치룩허영은에 허고.(그렇게 해서 하고.)

103059 #1 농토가 제일 풍족한 곳이 도련이주.(농토가 제일 풍족한 곳이 도련이지.)

103058 @ 그냥 옛날부터 도련드르렌 헤십주양. 진드르허듯이양. 그 게민 감젓줄로는 뭐 헷인고양?(그냥 옛날부터 '도련드르'라고 했습죠. '진드르'하듯이요. 그 그러면 고구마줄기로는 뭐 했을까요?)

103058 #1 감젓줄론 쉐 먹이.(고구마줄기로는 소 먹이.)

103058 @ 음. 쉐 먹이.(음. 소 먹이.)

103058 #1 짐승 먹이.(짐승 먹이.)

103058 @ 예, 게영은에 집에 흔 눌씩 눌고 헤낫수가?(예, 그래서 집에 한 가리씩 가리고 했었습니까?)

103058 #1 응. 게난 조칩이나 조칩 흔 줄.(응. 그러니까 조짚이나 조짚 한 줄.)

103058 @ 예.(예.)

103058 #1 감젓줄 흔 줄 놓멍 눌을 눌어둬.(고구마줄기 한 줄 놓으면서 가리를 가려둬.)

103058 @ 예.(예.)

103058 #1 눌을 눌엇당 거 빠멍 이제.(가리를 가렸다가 거 빼면서 이제.)

103058 @ 게니까 이제 그 수확 시기가 거의 비슷허구나예. 조허고 ᄒᆞ꼼 ᄯᅳ난디.(그러니까 이제 그 수확 시기가 거의 비슷하군요. 조하고 조금 다른데.)

103058 #1 거즘 비등허여.(거의 비슷해.)

103058 @ 거줌 비등허여마씨?(거의 비슷해요?)

103058 #1 고구마가 쪼끔 두에지.(고구마가 조금 뒤지.)

103058 @ 따로 감젓줄엔 헙니까? 감저꿀엔 헙니까?(따로 '감젓줄'이라고 합니까? '감저꿀'이라고 합니까?)

103058 #1 감젓줄.('감젓줄'.)

103058 @ 감젓줄예. 감젓줄 먹진 아녀낫수가? 사름이.('감젓줄'요. 고구마줄긴

먹진 않았습니까? 사람이.)

103058 #1 먹는 건 이파리.(먹는 건 이파리.)

103058 @ 줄기.(줄기.)

103058 #1 이파리 줄기 그거 헹근에게 좀 먹엇주.(이파리 줄기 그거 해서 좀 먹었지.)

103058 @ 음, 헹 대부분은 쉐 먹이고예?(음, 해서 대부분은 소 먹이고요?)

103058 #1 대부분은 쉐 먹이.(대부분은 소 먹이.)

103058 @ 그 감저 이석 줏이레는 안 뎅겨봔마씨?(그 고구마 이삭 주우러는 안 다녀봤어요?)

103058 #1 으, 경 뎅겨보진 아녓어.(으, 그렇게 다녀보진 않았어.)

103058 @ 아아.(아아.)

103058 #1 헌디, 조금 어린 때 클 때 막 간세헤** 그냥 시에 들어가불엉근에게.(그런데, 조금 어린 때 클 때 매우 게을러** 그냥 시에 들어가버렸어.)

103058 @ 아아, 그때는 잘 감저허는 거는 하영 안 헷구나예?(아아, 그때는 잘 고구마하는 거는 많이 안 했군요?)

103058 #1 음, 심부름을 많이 안헷주. 어쩌다가 엥기면 그냥 일덜 허고.(음, 심부름을 많이 안했지. 어쩌다가 안기면 그냥 일들 하고.)

103058 @ 에, 엥겨야 일을 허고.(에, 안겨야 일을 하고.)

103058 #1 음.(음.)

103058 @ 그 감저로는 뭘 헤영 먹엇인고예?(그 고구마로는 뭘 해서 먹었는가요?)

103058 #1 감전 주로 간식이랏주.(고구마는 주로 간식이었지.)

103058 @ 아.(아.)

103058 #1 주로 간식. 그 집에.(주로 간식. 그 집에.)

103058 @ 쏠 엇인 집은 감저도 양석으로 먹고.(쌀 없는 집은 고구마도 양식으로 먹고.)

103058 #1 양석으로 먹고.(양식으로 먹고.)

103058 @ 으, 어떤 식으로 간식은 헨 먹엇수가?(으, 어떤 식으로 간식은 해서 먹었습니까?)

103058 #1 간식은 콩국 끌령놩근에게 콩국 혼 사발 거려놓곡 감저 쳐당 앞의 놓곡 허민 거 먹엉근에게 때도 살고.(간식은 콩국 끓여놔서 콩국 한 사발 떠놓고 고구마 쪄다가 앞에 놓고 하면 거 먹어서 때도 살고.)

103058 @ 어, 그러면은 음 요즘은 영양식인디. 아, 게난 이제 감저를 먹드래도 짐치만 허는 게 아니라 콩국도 ᄀᆞ치 헤갖고 이렇게 먹엇다예?(어, 그러면은 음 요즘은 영양식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를 먹더라도 김치만 하는 게 아니라 콩국도 같이 해갖고 이렇게 먹었네요?)

103058 #1 으음.(으음.)

103058 @ 이 감저도 밥헐 때도 놓지 아넘니까?(이 고구마도 밥할 때도 넣지 안 합니까?)

103058 #1 밥헐 때도 놓주.(밥할 때도 넣지.)

103058 @ 예, 주로 어떤 식으로 헐 때 밥헐 때 놔놘신고예?(예, 주로 어떤 식으로 할 때 밥할 때 넣었을까요?)

103058 #1 어떤 식으로 허영 허민. 겐디 감저 놩 헌 밥이 맛 좋아.(어떤 식으로 해서 하면. 그런데 고구마 넣어서 한 밥이 맛 좋아.)

103058 @ 기지예.(그렇지요.)

103058 #1 달큼달큼혜영.(달콤달콤해서.)

103058 @ 예.(예.)

103058 #1 게영 우리 어릴 땐 그걸 더 먹어낫어.(그래서 우리 어릴 땐 그걸 더 먹었었어.)

103058 @ 감저 놓은 밥을예?(고구마 넣은 밥을요?)

103058 @ 돌아. (웃음).(달아. (웃음).)

103058 @ 그 뭐야 좁썰 놩 허고 허민 정말 별미라예?(그 뭐야 좁쌀 넣어서 하고 하면 정말 별미지요?)

103058 #1 별미주. 지금은 아주 그 돈 많이 줘도 그거 어려울 거라.(별미지. 지금은 아주 그 돈 많이 줘도 그거 어려울 거야.)

103058 @ 좁썰도 잘 못 사. 맛 좋은 좁썰을 못 사니까. 경허고 삼춘, 그 감저뻬데기로도 뭐 헤 먹읍니까?(좁쌀도 잘 못 사. 맛 좋은 좁쌀을 못 사니까. 그러고 삼촌, 그 절간고구마로도 뭐 해 먹습니까?)

103058 #1 떡.(떡.)

103058 @ 아, 여기 뻬데기떡[76]을 해?(아, 여기 '뻬데기떡'을 해?)

103058 #1 골아.(갈아.)

103058 @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3058 #1 저 물방에에서 뽓앙.(저 연자매에서 빻아서.)

103058 @ 예.(예.)

103058 #1 ᄀᆞ를 혜영. 그걸로 떡허여 먹어.(가루 해서. 그걸로 떡해서 먹어.)

103058 @ 어떤 떡을 헤여? 그걸로. 감저뻬데기로는?(어떤 떡을 해? 그걸로. 절간고구마로는?)

103058 #2. 개떡.(개떡.)

103058 #1 으, 개떡인디 쒜기, 아니 쒜기떡은 저 밀로 만든 거고.(으, 개떡인데 '쒜기', 아니 '쒜기떡'은 저 밀로 만든 거고.)

103058 @ 으.(으.)

103058 #1 돌레떡엔 허주. 돌레떡.(도래떡이라고 하지. 도래떡.)

103058 @ 돌레떡. 둥그렁허게 혜연은에예. 아 감젓돌레[77]. 그걸로 저기 침떡ᄀᆞ

76) '뻬데기떡'은 절간고구마를 가루낸 후 그 가루를 재료로 해서 만든 떡이다.

뜬 거는 안 헤여마씨?(도래떡. 둥그렇게 해서요. 아 '감젓돌레'. 그걸로 저기 시루떡 같은 거는 안 해요?)

103058 #1 친떡 안 헤봣어.(시루떡 안 해봤어.)

기타 농사

103060 @ 침떡은 아녀보고 돌레떡 헤영 개떡 식으로 경헹 먹은 거라예? 그다음 삼춘, 그 말고 혹시 수박이라든가?(시루떡은 안 해보고 도래떡 해서 개떡 식으로 그렇게 해서 먹은 거네요? 그다음 삼촌, 그 말고 혹시 수박이라든가?)

103060 #1 아녀봣어.(안 해봤어.)

103061 @ 츰웨는?(참외는?)

103061 #1 츰웨도 안 헤봐서.(참외도 안 해봤어.)

103062 @ 고춘 싱거봣수가? 고치?(고춘 심어봤습니까? 고추?)

103062 #1 고치, 어린 때야 그 뭐 집에 먹을 걸 쪼금 그자.(고추, 어린 때야 그 뭐 집에 먹을 걸 조금 그저.)

103062 @ 예.(예.)

103062 #1 거 뭐 헷는디 요즘 와서 조금.(거 뭐 했는데 요즘 와서 조금.)

103062 @ 헴수과?(하고 있습니까?)

103062 #1 아니, 집의 먹을 건 허여.(아니, 집에 먹을 건 해.)

103063 @ 아, 고치 싱것고예? 저기 ᄂᆞ물은 갈아마씨?(아, 고추 심었고요? 저기 배추는 갈아요?)

103063 #1 아, ᄂᆞ물도게 농촌에 살면서 자기대로 헤 먹는 게 그 저 재미니까.(아, 나물도게 농촌에 살면서 자기대로 해 먹는 게 그 저 재미니까.)

103063 @ 예.(예.)

103063 #1 또 맛도 좋고. 자기 공들어야.(또 맛도 좋고. 자기 공들어야.)

103064 @ 공들어야 맛도 좋고예? 놈삐도 여기 하영 갑니까? 여기는.(공들어야 맛도 좋고요? 무도 여기 많이 갑니까? 여기는.)

103064 #1 놈삐도 그자 집의 먹을만이.(무도 그저 집에 먹을 만큼.)

103065 @ 예, 거는 허고, 감저는? 지실? 지슬?(예, 거는 하고, 감자는? 감자? 감자?)

103065 #1 지실은 우리 집의 쯤은 멧 굿 놩 허니까 별미가 뒈여이.(감자는 우리 집에 쯤은 몇 구덩이를 넣어서 하니까 별미가 돼.)

103065 @ 아아, 지실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아아, 감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3065 #1 지실은 그냥 밧듸 강 저 과수원 트멍에.(감자는 그냥 밭에 가서 저 과수원 틈에.)

103065 @ 예.(예.)

77) '감젓돌레'는 절간고구마 가루로 만든 도래떡이다.

103065 #1 조금 헹 놧다근엥에. 견디 꿩 앞의 일러부카부덴 그냥 그물도 다 치곡.(조금 해서 놨다가. 그러데 꿩 앞에 잃어버릴까봐 그냥 그물도 다 치고.)

103065 @ 아아.(아아.)

103065 #1 벨짓을 다 헤여.(별짓을 다 해.)

103065 @ 아아, 게난 그 과수원에 그냥 지슬은 멧 개 싱검구나예?(아아, 그러니까 과수원에 그냥 감자는 몇 개 심고 있군요?)

103065 #1 멧 굿 놩근에게 그자.(몇 구덩이 넣어서 그저.)

103067 @ 멧 굿 놤구나예? ᄆᆞ멀들은 하영 갈앗어예? 여기예?(몇 구덩이 넣고 있군요? 메밀들은 많이 갈았지요? 여기요?)

103067 #1 ᄂᆞ물?(나물?)

103067 @ ᄆᆞ믈.(메밀.)

103067 #1 ᄆᆞ믈은 여긴 도련은 벨로라.(메밀은 여긴 도련은 별로야.)

103067 @ 아아.(아아.)

103067 #1 도련은. 저 봉개로 가야.(도련은. 저 봉개로 가야.)

103067 @ 아, 여기는 그냥 조허고 보리 이런 거엿구나양?(아, 여기는 그냥 조하고 보리 이런 거였군요?)

103067 #1 응, 그땐.(응, 그땐.)

103067 @ 아아, 삼춘넨 ᄆᆞ멀 갈아보지 않고?(아아, 삼촌넨 메밀 갈아보지 않고?)

103067 #1 어, 안 갈아봣어.(어, 안 갈아봤어.)

103068 @ 안 갈아봔예? 혹시 여기 그 담배 ᄀᆞ튼 것도 싱거낫수과?(안 갈아봤다고요? 혹시 여기 그 담배 같은 것도 심었었습니까?)

103068 #1 담베 싱거낫주.(담배 심었었지.)

103068 @ 아, 혹시 삼춘도 싱거봔마씨?(아, 혹시 삼촌도 심어봤어요?)

103068 #1 난 하르버지 허는 것만 봐낫어.(난 할아버지 하는 것만 봤었어.)

103068 @ 예, 그 봐난 것만이라도 어떤 식으로 허드란 거 ᄀᆞᆯ아줍서?(예, 그 봤던 것만이라도 어떤 식으로 하더란 거 말해주십시오?)

103068 #1 담밴 이제 모종판을 만들엉.(담밴 이제 모종판을 만들어서.)

103068 @ 응.(응.)

103068 #1 파니 만들엉 거기 씨 뿌렷당.(이랑 만들어서 거기 씨 뿌렸다가.)

103068 @ 예.(예.)

103068 #1 이젠 그거 ᄒᆞ나ᄒᆞ나 이젠 심어.(이젠 그거 하나하나 이젠 심어.)

103068 @ 아아.(아아.)

103068 #1 옮경.(옮겨서.)

103068 @ 옮경예?(옮겨서요?)

103068 #1 옮경 싱경 커 가면 이파리 땅. 이젠 이파릴 여깡.(옮겨서 심어서 커 가면 이파리 따서. 이젠 이파릴 엮어서.)

103068 @ 음.(음.)

103068 #1 이젠 물류와. 이제 공판허곡.(이젠 말려. 이제 공판하고.)

103068 @ 음. 공판허곡. 혹시 그 이파리 여껑 허면 이렇게 이제 무끄기도 헐 거 아니우과? 멧 개씩 여끄는 건 알아지쿠과?(음. 공판하고. 혹시 그 이파리 엮어서 하면 이렇게 이제 묶기도 할 거 아닙니까? 몇 개씩 엮는 건 알겠습니까?)

103068 #1 아 영 심엉 그자 적당.(아 이렇게 심어서 그저 적당.)

103068 @ 적당허게. 이렇게 싱근 거는?(적당하게. 이렇게 심는 거는?)

103068 #1 큰 건 작게 심, 잡고.(큰 건 작게 잡, 잡고.)

103068 @ 음.(음.)

103068 #1 작은 거.(작은 거.)

103068 @ 으라 개.(여러 개.)

103068 #1 여러 개 잡고.(여러 개 잡고.)

103068 @ 경 허영 그런 거를 뭐, 뭐 부르는 일름은 엇어마씨?(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뭐, 뭐 부르는 이름은 없어요?)

103068 #1 게메, 그걸 담배 으깡 물리우켜 허영 그자.(글쎄, 그걸 담배 엮어서 말리겠다 해서 그저.)

103068 @ 물리우켜 허고.(말리겠다고 하고.)

103068 #1 으깡.(엮어서.)

103068 @ 으깡예?(엮어서요?)

103068 #1 누람지도 으끄는 거.(이엉도 엮는 거.)

103068 @ 으.(으.)

103068 #1 담베도 으끄는 거.(담배도 엮는 거.)

103068 @ 게영 그거 풀 때는 멧 개씩 헹은에 뭐? (그래서 그거 팔 때는 몇 개씩 해서 뭐?)

103068 #1 건 무게난.(건 무게니까.)

103068 @ 무게로. 무게로. 옛날 같은 경우는?(무게로. 무게로. 옛날 같은 경우는?)

103068 #1 전매청에서 수매허는 거니까.(전매청에서 수매하는 거니까.)

103068 @ 음.(음.)

103068 #1 무게로 허는 거.(무게로 하는 거.)

103068 @1 옛날에 열 개 허면은 흔 접이여 이런 식으로는 안 헤봔마씨? 여기서는.(옛날에 열 개 하면 한 접이야 이런 식으로는 안 해봤어요? 여기서는.)

103068 #1 아, 그건 풀레 가젱 허민 그 요만이 허영은에 요거 담배 잎으로 그냥 감앙.(아, 그건 팔러 가려고 하면 그 요만큼 해서 요거 담배 잎으로 그냥 감아서.)

103068 @ 예.(예.)

103068 #1 영, 경 허민 그것이 흔 쓰무 개썩은 놘 무껌실 거라. 거 이 한 둘레가.(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한 스무 개씩은 넣어서 묶고 있을 거야. 거 이 한

둘레가.)

103068 @ 흔 돌레가. 흔 둘레 영 헙니까? 스무 개. 무끈 거예? 열 개씩도 무끈덴 허곡 영 골안게마는.(한 도래가. 한 도래 이렇게 합니까? 스무 개. 묶은 거요? 열 개씩도 묶는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더니만.)

103068 #1 열 개씩도.(열 개씩도.)

103068 @ 그거는 정확한 기억은 없고예?(그거는 정확한 기억은 없고요?)

103068 #1 으.(으.)

103063 @ 옛날에는 여기 그, 함덕 하면 막 베추 ᄂᆞ물. 배추가 막 유명헤낫지 아녀수가예?(옛날에는 여기 그, 함덕 하면 매우 배추 나물. 배추가 매우 유명했었지 않습니까요?)

103063 #1 함덕이 상당히 유명헷주.(함덕이 상당히 유명했지.)

103063 @ 여긴 도련은 그런 거는?(여긴 도련은 그런 거는?)

103063 #1 여긴 삼양 내려가야.(여긴 삼양 내려가야.)

103063 @ 아아.(아아.)

103063 #1 이 집에 짐치 담앙 먹을 것도 삼양 강. 여기서도 뒈는 걸.(이 집에 김치 담가서 먹을 것도 삼양 가서. 여기서도 되는 걸.)

103063 @ 예. 무사 안 헤신고?(예. 왜 안 했을까?)

103063 #1 여기서도 뒈는 걸. 거기 안 가면 안 뒈는 줄 알앙. 삼양 지금 저 학교 그 곁에덜 강 밧 요만썩 헹 흔 발에 얼마썩 헤영.(여기서도 되는 걸. 거기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서. 삼양 지금 저 학교 그 곁에들 가서 밭 요만씩 해서 한 발에 얼마씩 해서.)

103063 @ 빌엉?(빌려서?)

103063 #1 빌엉.(빌려서.)

103063 @ 삼춘네도 그 속앚인ᄂᆞ물허젠 허면은 강 빌엉 헤낫수가?(삼촌네도 그 결구배추 하려고 하면 가서 빌려서 했었습니까?)

103063 #1 빌엉.(빌려서.)

103063 @ 건 어떤 식으로 빌엉, 어떤 식으로 갈아낫수가? 배추는?(건 어떤 식으로 빌려서, 어떤 식으로 갈았었습니까? 배추는?)

103063 #1 배추는 어떤 식으로 갈아. 그때엔 지금은 그 공장에 있언에 거기서 나오주만, 강 씨 뿌령 놧당 줓인 건 그냥 뽑앙 먹당 그 방 벌영 놔두면 그거 크면 이제 내중에 짐치도 헤영 먹고.(배추는 어떤 식으로 갈아. 그때엔 지금은 그 공장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지만, 가서 씨 뿌려서 놨다가 잦은 건 그냥 뽑아서 먹다가 그 방 벌여서 놔두면 그거 크면 이제 나중에 김치도 해서 먹고.)

103063 @ 짐치 헤영 먹고. 음, 게 그렇게 해서 헌 게 우리 김장 아니라예? 요즘예?(김치 해서 먹고. 음, 게 그렇게 해서 한 게 우리 김장 아닌가요? 요즘요?)

103063 #1 김장.(김장.)

103063 @ 예전엔 배추렌 안 헹은에 다 ᄂᆞ물 갈앗덴 영 헤낫수과?(예전엔 배추

라고 안 해서 다 나물 갈았다고 이렇게 했었습니까?)

103063 #1 배치ᄂᆞ물. 것도 속 안 앚는 거. 들머귀[78]여 뭐여 상당이. 오히려 옛 어른덜 말허는 거 보민 들머귀가 더 맛 좋앗젠 헤여.(배추나물. 것도 속 안 앉는 거. '들머귀'다 뭐다 상당히. 오히려 옛 어른들 말하는 거 보면 '들머귀'가 더 맛 좋았다고 해.)

103063 @ 그 들머귀는 속 안 앚는 거 아니우과?(그 '들머귀'는 속 안 앉는 거 아닙니까?)

103063 #1 아니 앚는 거. 파랗게 녹색으로.(아니 앉는 거. 파랗게 녹색으로.)

103063 @ 들머귀예? 게민 그걸로도 이제 짐치 헹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갓이렌 허주마는 여기는. 갓 알아지쿠과?('들머귀'요? 그러면 그거로도 이제 김치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갓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갓 알겠습니까?)

103063 #1 갯ᄂᆞ물.(갓.)

103063 @ 갯ᄂᆞ물.(갓.)

103063 #1 갯ᄂᆞ물.(갓.)

103063 @ 갯ᄂᆞ물로도 짐치 하영 헤먹엇어예?(갓으로도 김치 많이 해먹었지요?)

103063 #1 갯ᄂᆞ물은 일부러 갈질 아녀고.(갓은 일부러 갈질 않고.)

103063 @ 예.(예.)

103063 #1 그냥 저런 디 자꾸 씨 불려낭은에 갈지 아녀도 그 담 에염에덜 만허여.(그냥 저런 데 자꾸 씨 불려서 갈지 않아도 그 담 가에들 많아.)

103063 @ 아아.(아아.)

103063 #1 경허민 그거 헤당은에 자기 밧듸 거.(그렇게 하면 그거 해다가 자기 밭에 거.)

103063 @ 예, 경 허영은에 먹고. 이것저것 하영 허고. 그 놈삐 ᄀᆞ뜬 것도 허영 썰엉 ᄆᆞᆯ리기도 허고예?(예, 그렇게 해서 먹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 무 같은 것도 해서 썰어서 말리기도 하고요?)

103063 #1 응.(응.)

103063 @ 음, 놈삐도 저기 배추ᄂᆞᆯ 헐 때 ᄀᆞ치 헙니까?(음, 무도 저기 배추나물 할 때 같이 합니까?)

103063 #1 ᄀᆞ치덜.(같이들.)

103063 @ 음, 이런 식으로 하고예?(음, 이런 식으로 하고요?)

103063 @ 예. 알앗수다. 농사를 여기 혹시 용시렌 헙니까?(예. 알았습니다. 농사를 여기 혹시 '용시'라고 합니까?)

103063 #1 용시엔 헤예.('용시'라고 해요.)

78) '들머귀'는 들에 나는 나물의 일종이다.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물어보쿠다예. 옛날 그 쉐 질롸낫지예?(물어보겠습니다. 옛날 그 소 길렀었지요?)

104001 #1 예.(예.)

104001 @ 쉐는 어떵 질롼마씨?(소는 어떻게 길러요?)

104001 #1 쉔 질룰 때 이제 결혼헤서 처음에 소, 소를 없은 때는 놈으 쉐 멤쉐[79] 메연.(소는 기를 때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 소, 소 없을 때는 남의 소 배냇소 맸어.)

104001 @ 예, 멤쉐예?(예, 배냇소요?)

104001 #1 멤쉐 그 뚠 사름 돈 잇는 사름이 소가 두 머리 잇으면 그거 혼 머리 암소 가져다가 그걸 키우면서 새끼 낳민 그거 반착씩 이제 나누어서 이제 임자 반 나 반.(배냇소 그 다른 사름 돈 있는 사람이 소가 두 마리 있으면 그거 한 마리 암소 가져다가 그걸 키우면서 새끼 낳으면 그거 반쪽씩 이제 나누어서 이제 임자 반 나 반.)

104001 @ 예.(예.)

104001 #1 헤서, 거 키, 키우면서 키우면서 이제 소는 이제 불롸가는 거. 이제 숫자를.(해서, 거 키, 키우면서 키우면서 이제 소는 이제 불려가는 거. 이제 숫자를.)

104001 @ 예.(예.)

104001 #1 그렇게 해서 이제 산 겁주.(그렇게 해서 이제 산 거지요.)

104001 @ 그 우리 제주도 말로 하영 헤예?(그 우리 제주도 말로 많이 하세요?)

104001 #1 예.(예.)

104002 @ 쉐 종류는 어떤 종류덜 이신고예?(소 종류는 어떤 종류들 있는가요?)

104002 #1 쉐 종류는 그거예, 지금에 와서는 말할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그여라 가진데.(소 종류는 그거요, 지금에 와서는 말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그여라 가진데.)

104002 @ 예.(예.)

104002 #1 뭐 검은쉐.(뭐 검은소.)

104002 @ 예.(예.)

104002 #1 노랑쉐, 어럭쉐, 식쉐.(노란소, 얼룩소, 칡소.)

104002 @ 음.(음.)

104002 #1 식쉐라는 건 저 요즘 말허는 그 저 육지서 말허는 칡소.(칡소라는 건 저 요즘 말하는 그 저 육지서 말하는 칡소.)

---

79) '멤쉐'는 남의 소를 송아지 때 가져다가 길러서, 다 자라거나 새끼를 낳으면 원래 주인과 그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를 말한다.

104002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2 #1 그거 식쉐엔 여기서.(그거 칡소라고 여기서.)

104002 @ 여긴 식쉐예?(여긴 칡소요?)

104002 #1 식쉐. 뭐 어럭쉐도 검은어럭[80], 노랑어럭[81].(칡소. 뭐 얼룩소도 '검은얼룩' '노랑얼룩'.)

104002 @ 음, 검은어럭은 어떵허고, 노랑어럭은 어떵헙니까?(음, '검은얼룩'은 어떠하고, '노란어럭'은 어떠합니까?)

104002 #1 검은어럭은 검은, 검은 털에 하얀색 들어간 거고.('검은얼룩'은 검은, 검은 털에 하얀색 들어간 거고.)

104002 @ 예.(예.)

104002 #1 노랑어럭은 노란색에 하얀 털이 들어간 거.('노랑얼룩'은 노란색에 하얀 털이 들어간 거.)

104002 @ 게믄 노랑어럭쉐 검은어럭쉐. 그 뿔 모양으로도 ᄐᆞ나지예?(그러면 '노란얼룩소' '검은얼룩소'. 그 뿔 모양으로도 다르지요?)

104002 #1 뿔은 접박부리[82], 건지뿔[83]. 또 아이고, 앞더레 돌아온 거 뭐인지 모르겟다, 그건.(뿔은 '접박뿔이', '건지뿔'. 또 아이고, 앞으로 돌아온 거 뭐인지 모르겠다, 그건.)

104002 @ 접박부리는 어떤 거우꽈?('접박부리'는 어떤 거우꽈?)

104002 #1 접박부린 이 뿔 끗이 두이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옆구릴 이렇게 허민 옆구리 박을 수 잇는 게 이 접, 접을 박아분다.('접박부리'는 이 뿔 끝이 뒤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옆구릴 이렇게 하면 옆구리 박을 수 있는 게 이 주걱뼈, 주걱뼈를 박아버린다.)

104002 @ 아, 게난 접이 어디라마씨?(아, 그러니까 주걱뼈가 어디예요?)

104002 #1 접은 이 모가지 이디. 모가지.(주걱뼈는 이 모가지 여기. 모가지.)

104002 @ 모가지, 쉐 모가지 허면은?(모가지, 소 모가지 하면?)

104002 #1 이렇게 허면은 여길 박을 수 접 박는, 접을 박는다.(이렇게 하면 여길 박을 수 주걱뼈 박는, 주걱뼈를 박는다.)

104002 @ 예, 예, 예. 접박부리 잇고.(예, 예, 예. '접박뿔이' 있고.)

104002 #1 접박부리 잇고.('접박뿔이' 있고.)

104002 @ 그 다음은 아까 또.(그 다음은 아까 또.)

104002 #1 식쉐 잇고.(칡소 있고.)

104002 @ 뿔 모양으론?(뿔 모양으론?)

104002 #1 건지뿔은, 건지뿔은 우로 올라간 거.('건지뿔'은, '건지뿔'은 위로 올라간 거.)

---

80) '검은어럭'은 털빛이 흑백으로 얼럭얼럭한 소다.
81) '노랑어럭'은 털빛이 노랗고 흰색으로 얼럭얼럭한 소다.
82) '접박부리'는 뒤로 젖혀진 소의 뿔을 말한다.
83) '건지뿔'은 앞쪽으로 길게 뻗는 소의 뿔이다.

104002 @ 아아.(아아.)

104002 #1 다시 이 앞으로 올라간 것은 바른 뿔은 잘 모르겠네.(다시 이 앞으로 올라간 것은 바른 뿔은 잘 모르겠네.)

104002 @ 아, 것도 튿냉 놔둡서. 나중에.(아, 것도 생각해서 놔두세요. 나중에.)

104002 #1 앞으로 돌아간 거. 그걸 나도 이따가 쫌 메모해야 다시 들어봐야 뒈겟네.(앞으로 돌아간 거. 그걸 나도 이따가 좀 메모해야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

104002 @ 예, 예. 접박뿌리 잇고, 건지뿔은 위로 간 거고예?(예, 예. '접박뿔이' 있고, '건지뿔'은 위로 간 거고요?)

104002 #1 게고 돌각부리[84]가 잇는데. 돌각뿌리.(그러고 '돌각뿔이'가 있는데. '돌각뿔이'.)

104002 @ 돌각불이는 어떤 거?('돌각뿔이'는 어떤 거?)

104002 #1 암소에 잇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암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

104002 @ 아, 돌각돌각허난?(아, 달각달각하니까?)

104002 #1 뿔이 힘엇이 이렇게 흔드는 돌각부리.(뿔이 힘없이 이렇게 흔드는 '돌각뿔이'.)

104002 @ 게난 뿔 모냥으로도 이제 뜻나는 거잖아예?(그러니까 뿔 모양으로도 이제 다른 거잖아요?)

104002 #1 예.(예.)

104002 @ 그 다음에, 아까는 털 색깔로 헌 거는 아까 얘기를 한 거고예?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린 쉐는 어떤 거 이십니까?(그 다음에, 아까는 털 색깔로 한 거는 아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린 소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4005 #1 어린 쉐에는 뭐 금승[85]하면 금승에도 이제, 그 검게 나민 검은 송아지 낳저.(어린 소는 뭐 한습 하면 한습에도 이제, 그 검게 낳으면 검은 송아지 낳았다.)

104005 @ 으음.(으음.)

104005 #1 이제 노랑 송아지 낳저. 뭐 이제 색깔이 거줌 어련, 어머니 배 베꼇듸서 떨어지면은 색깔덜이 거줌 아는 사람덜은 아니까.(이제 노랑 송아지 낳았다. 뭐 이제 색깔이 거의 어려서, 어머니 배 바깥에서 떨어지면 색깔들이 거의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104005 @ 예.(예.)

104005 #1 그렇게 헤서 무슨 새끼 낫저. 금승, 다간, 이제 사릅, 나릅.(그렇게 해서 무슨 새끼 낳았다. 한습, 두습, 이제 사릅, 나릅.)

104005 @ 음.(음.)

104005 #1 이제 나릅, 금승, 다간, 사릅, 나릅, 다습.(이제 나릅, 한습, 두습, 사

84) '돌각부리'는 뿔이 달각달각 흔들리는 뿔이다.
85) '금승'은 소의 한 살을 가리킨다.

릅, 나릅, 다습.)

104005 @ 다습?(다습?)

104005 #1 다섯 솔.(다섯 살.)

104005 @ 예. 그러면은 그 읏습 이런 말은 안 써마씨?(예. 그러면 그 여습 이런 말은 안 써요?)

104005 #1 읏습끄장은 지금 들어보질 아녀진 것 같은데.(여습까지는 지금 들어보질 않아진 것 같은데.)

104005 @ 아아, 그냥 다습까지예?(아아, 그냥 다습까지요?)

104005 #1 보통 다섯, 다습까지.(보통 다섯, 다습까지.)

104003 @ 다섯까지. 그 손 어떵 이용헤낫수과? 쉐들.(다섯까지. 그 손 어떻게 이용했었습니까? 소들.)

104003 #1 쉐덜은 키웁당근엥에 주로 이제 저 마차, 마차허곡.(소들은 키우다가 주로 이제 저 마차, 마차하고.)

104003 @ 예.(예.)

104003 #1 마찬 그 저 쉐, 일본말론 구루마고.(마찬 그 저 소, 일본말론 '구루마'고.)

104003 @ 예.(예.)

104003 #1 이제 우리말론 이제 차옌 허연 헌디. 이제 그걸로 허곡 밧갈이 허고.(이제 우리말론 이제 차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걸로 하고 밭갈이 하고.)

104003 @ 음.(음.)

104003 #1 또. 뚠 디보단도 여기서는 그 조 갈 때엔 조는 잘 밟아줘야 그게 이제 커도 이 저 자빠지지 아년.(또. 다른 데보다도 여기서는 그 조 갈 때에는 조는 잘 밟아줘야 그게 이제 커도 이 저 쓰러지지 않아서.)

104003 @ 예.(예.)

104003 #1 건실허니깐 잘 밟아주민 존 상당히 좋다고 헹근에 조도 밟고. 여러 머리 이시면 밧테 강 여러 머리 담아놩 그냥 돌리면 빨리 밟아졍 것도 상당히 좋은 거고.(건실하니깐 잘 밟아주면 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조도 밟고. 여러 마리 있으면 밭에 가서 여러 마리 담아놓아서 그냥 돌리면 빨리 밟아져서 것도 상당히 좋은 거고.)

104003 @ 쉐도 그런 식으로 밧 불리는 디도 썻어예?(소도 그런 식으로 밭 밟는 데도 썼네요?)

104003 #1 예, 물도 쓰고 쉐도 쓰고.(예, 말도 쓰고 소도 쓰고.)

104003 @ 아, 구루마 끗는 데도 쓰고예?(아, 달구지 끄는 데도 쓰고요?)

104003 #1 예.(예.)

104004 @ 그 쉐 질들일 때는 어떵헤근에 헙니까?(그 소 길들일 때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104004 #1 질들일 때엔 이제 그 돌코[86]옌 헤영근에 끗엉 당기는 돌이, 돌이 잇

는데, 이런 둥글렁헌 돌 그냥 무거운 돌.(길들일 때엔 이제 그 '돌코'라고 해서 끌어다니는 돌이, 돌이 있는데, 이런 둥그런 돌 그냥 무거운 돌.)

104004 @ 예.(예.)

104004 #1 그거 헤영근에 구멍 뚤벙 거기에 끈을 무꺼놩.(그거 해서 구멍 뚫어서 거기에 끈을 묶어놓아서.)

104004 @ 예.(예.)

104004 #1 이제 소 그 밧 멍엘 그대로 씌왕 겡 끗어아졍 그냥 다니멍 이제 이 목도 든든하게 이제 막 울리곡, 뭐허면은 목도 든든하고. 이제 멍들어근에 여기에.(이제 소 그 밭 멍에를 그대로 씌워서 그래서 끌어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이제 이 목도 든든하게 이제 막 울리고, 뭐하면 목도 든든하고. 이제 멍들어서 여기에.)

104004 @ 게영 그 질들이기 전에 쉐 이름 불르는 것도 잇수과?(그래서 그 길들이기 전에 소 이름 부르는 것도 있습니까?)

104004 #1 질들이기 전에는 뭐 별 그자 송아지 이젠 밧 ᄀᆞ르쳐사 허켜 헤영근에 이 저 크멘.(길들이기 전에는 뭐 별 그저 송아지 이젠 밭 가르쳐야 하겠다 해서 이 저 크면.)

104004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4 #1 밧 ᄀᆞ리쳐사켄 허영 모아들엉덜 장난 부쩡근네 혼번에 쟁기 부쩐근엥에 가는 사름도 잇곡.(밭 가르쳐야겠다고 해서 모여들어서들 장난 붙여서 한번에 쟁기 붙여서 가는 사람도 있고.)

104004 @ 아.(아.)

104004 #1 건 아주 돈돈헌 사람.(건 아주 단단한 사람.)

104004 @ 예.(예.)

104004 #1 그런 사람도 잇고, 아니면 그 아까 그 돌코헤영근에 끗엉 막 가름 돌멍.(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아까 그 '돌코'해서 끌어서 마구 마을 돌면서.)

104004 @ 음.(음.)

104004 #1 헤놩 이젠 그 쟁길 메왕근엥에 놩 밧듸 강. 것도 도덜을 전부 다왕근에게 튀어나지 못허게.(해놓아서 이젠 그 쟁길 메워 놓아서 밭에 가서. 것도 입구들을 전부 쌓아서 튀어나지 못하게.)

104004 @ 아.(아.)

104004 #1 경 헤영 소 가는 대로 그냥 막 가 놩, 이제 쉐가 지치멘.(그렇게 해서 소 가는 대로 그냥 마구 가 놓아서, 이제 소가 부치면.)

104004 @ 예.(예.)

104004 #1 그젠 저 시기는 대로 말이 잘 들어, 그땐.(그젠 저 시키는 대로 말이 잘 들어, 그땐.)

104004 @ 음.(음.)

104004 #1 지치기 전엔 제멋대로 막 허고.(부치기 전엔 제멋대로 마구 하고.)

---

86) '돌코'는 소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구멍이 뚫린 돌이다.

104004 @ 지칠 때까지가 쉐 ᄀᆞ르치는 거구나예?(부칠 때까지가 소 가르치는 거군요?)

104004 #1 지칠 때ᄭᅡ지가.(부칠 때까지가.)

104005 @ 겡은에 아까 쉐 나이 허는 금승부터 세는 거예?(그래서 아까 소 나이 하는 한습부터 세는 거요?)

104005 #1 예. 금승, 다간, 사릅, 나릅, 다습.(예. 한습, 두습, 사릅, 나릅, 다습.)

104005 @ 다습까지예?(다습까지요?)

104005 #1 ᄋᆞ습까지도 들어진 것도 같으다.(여습까지도 들어진 것도 같다.)

104005 @ (웃음) 보통 쉐는 멧 설까지 삽니까?((웃음) 보통 소는 몇 살까지 삽니까?)

104005 #1 게니깐 다섯 살, ᄋᆞ섯 살 뒈민은.(그러니깐 다섯 살, 여섯 살 되면.)

104005 @ 예.(예.)

104005 #1 대개 풀아부니까.(대개 팔아 버리니까.)

104005 @ 아아.(아아.)

104005 #1 게난 얼마야 사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고.(그러니까 얼마야 사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고.)

104005 @ 몰르고예?(모르고요?)

104005 #1 것은 수명이 죽는다는 건 보는 건 건 옛날은 좀 드물었으니까.(것은 수명이 죽는다는 건 보는 건 건 옛날은 좀 드물었으니까.)

104005 @ 예.(예.)

104005 #1 요는 춤, 어디 늙어 가민 이거 일 못허게 뒈여가민 그자 도살헤영 저 먹음도 허엿고.(요는 참, 어디 늙어 가면 이거 일 못하게 되어가면 그저 도살해서 저 먹음도 했고.)

104006 @ 예. 삼춘, 그 쟁기도 직접 혹시 만들어봅디가?(예. 삼촌, 그 쟁기도 직접 혹시 만들어봤습니까?)

104006 #1 만들어보기사 만들어봣주.(만들어보기야 만들어 봤지.)

104006 @ 쟁기 만드는 걸 뭐 쟁기 서끈덴[87] 여긴?(쟁기 만드는 걸 뭐 쟁기 섞는다고 여긴?)

104006 #1 쟁기 서끄는 거.(쟁기 섞는 거.)

104006 @ 쟁기렌 험니까? 여기는 잠대렌 헙니까? 이 동네?(쟁기라고 합니까? 여기는 '잠대'라고 합니까? 이 동네?)

104006 #1 쟁기, 쟁기.(쟁기, 쟁기.)

104006 @ 여기는 쟁기. 잠대란 말은 안 들어보곡.(여기는 쟁기. '잠대'란 말은 안 들어보고.)

104006 #1 잠대엔도 ᄀᆞᆫ곡.('잠대'라고도 말하고.)

104006 @ 게믄 그걸 잠대 서끈다 허지예? 잠대 허게 뒈면은 부분 명칭덜 다 알

87) '쟁기 서끈덴'은 '쟁기를 섞는다고'의 의미다. 여기에서 '서끄다'는 쟁기를 만든다는 의미다.

아지쿠과? 이렇게 허면.(그러면 그걸 쟁기 섞는다고 하지요? 쟁기 하게 되면 부분 명칭들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104006 #1 에, 명칭을.(에, 명칭을.)

104006 @ 이렇게 뒛잖아예?(이렇게 됐잖아요?)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 그 헤면은 어느 부분 어느 부분헹은에.(그 하면은 어느 부분 어느 부분해서.)

104006 #1 젤 밑에 건 몽클.(젤 밑에 건 쟁깃술.)

104006 @ 어느 쪽이 몽클이우꽈?(어느 쪽이 쟁깃술입니까?)

104006 #1 이거, 이거이.(이거, 이거.)

104006 @ 아, 이치록뒌 게 몽클.(아, 이처럼된 게 쟁깃술.)

104006 #1 몽클. 요건 저 설칫대, 요 가운데 거는.(쟁깃술. 요건 저 한마루, 요 가운데 거는.)

104006 @ 가운데 거는 설칫대, 예.(가운데 거는 한마루, 예.)

104006 #1 요건 성에.(요건 성에.)

104006 @ 예, 여기는 성에.(예, 여기는 성에.)

104006 #1 에, 요딘 돌벵이뿔[88].(에, 요딘 '돌벵이뿔'.)

104006 @ 여기 영 허영 연결뒌 디예?(여기 이렇게 해서 연결된 데요?)

104006 #1 연결, 그 저 멍에에 연결뒈는 거이.(연결, 그 저 멍에에 연결되는 거.)

104006 @ 예, 돌벵이뿔.(예, '돌벵이뿔'.)

104006 #1 돌벵이뿔. 이젠 여긴 양줏머리. 이 저 배에 대는 디.('돌벵이뿔'. 이젠 여긴 양지머리. 이 저 배에 대는 데.)

104006 @ 예.(예.)

104006 #1 양주, 양줏머리.(양주, 양지머리.)

104006 @ 양줏머리.(양지머리.)

104006 #1 으.(으.)

104006 @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게 뭐 잇수가?(그 다음에 또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104006 #1 이제 벳, 요 벳공젱이[89].(이제 볏, 요 '벳공젱이'.)

104006 @ 여기에 이렇게 뒌 디?(여기에 이렇게 된 데?)

104006 #1 그 벳받침이 거기 있어. 벳받침.(그 '벳받침'이 거기 있어. '벳받침'.)

104006 @ 예, 그걸 벳공젱이렌 헙니까?(예, 그걸 '벳공젱이'라고 합니까?)

104006 #1 벳공젱이엔도 허곡 벳받침이엔도 허곡.('벳공젱이'엔도 하고 '벳받침'이라고도 하고.)

---

88) '돌벵이뿔'은 봇줄을 매기 위하여 성에 끝에 박은 비녀 모양의 나무다.

89) '벳공젱이'는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마루에 꾀어진 나무깽이. 지역에 따라서 '벳바드렝이', '벳받이', '벳받침'이라고도 한다.

104006 @ 벳받침이엔도 허곡예, 벳받침. 그 다음 여기가 벳이 잇일 거 아니라예?(‘벳받침’이라고도 하고요, ‘벳받침’. 그 다음 여기가 볏이 있을 거 아닌가요?)

104006 #1 요디서 이렇게 뒈.(여기서 이렇게 돼.)

104006 @ 이렇게 잇인 거우과? 이게 벳. 그 다음에 이 끝에는?(이렇게 있는 겁니까? 이게 볏. 그 다음에 이 끝에는?)

104006 #1 끝에는 보섭.(끝에는 보습.)

104006 @ 여기는 보섭예?(여기는 보습요?)

104006 #1 보섭.(보습.)

104006 @ 보섭. 게믄 다 뒌 거마씸?(보습. 그러면 다 된 거예요?)

104006 #1 쟁기는 다 뒌 거.(쟁기는 다 된 거.)

104006 @ 아, 쟁기는 다 뒌 거예?(아, 쟁기는 다 된 거요?)

104006 #1 쟁기는 다 뒌 거.(쟁기는 다 된 거.)

104006 @ 아, 여기는 양줏머리. 이 쟁기도 종류가 ᄐᆞ납니까?(아, 여기는 양지머리. 이 쟁기도 종류가 다릅니까?)

104006 #1 제주도는 이 제주엔 일정.(제주도는 이 제주엔 일정.)

104006 @ 아, 일정예. 게믄 무사 막 골 갈고 영허젠 허면 그 거는 벳만 가졍은에 조정허는 거.(아, 일정요. 그러면 왜 마구 고랑 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거는 볏만 가져서 조정하는 거.)

104006 #1 벳만 뚠 벳 부쩡, 골 타는 벳[90], 골 타는 벳 그 양쪽데레 잦혀지는 게 있어.(볏만 다른 볏 붙여서, ‘골 타는 볏’, ‘골 타는 볏’ 그 양쪽으로 젖혀지는 게 있어.)

104006 @ 예.(예.)

104006 #1 그거 붙이면은 이제 골 갈곡.(그거 붙이면 이제 고랑 갈고.)

104006 @ 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밧 갈 때는 이제 하고예?(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밭 갈 때는 이제 하고요?)

104006 #1 밧 갈 때는 그냥 벳, 한쪽으로 넹기는 벳하고.(밭 갈 때는 그냥 볏, 한쪽으로 넘기는 볏하고.)

104006 @ 예, 한쪽으로 헤서 이제 하고. 그 질메는 어떵 뒙니까? 질메는 허기 뒈믄 이렇게 뒈신가 모양이.(예, 한쪽으로 해서 이제 하고. 그 길마는 어떻게 됩니까? 길마는 하게 되면 이렇게 됐는가 모양이.)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 이렇게 뒈잖아예?(이렇게 되잖아요?)

104006 #1 맞어.(맞아.)

104007 @ 질메도 그 부분 명칭들이 이신가마씨?(길마도 그 부분 명칭들이 있는가요?)

104007 #1 부분 명칭덜이 지금 많은데.(부분 명칭들이 지금 많은데.)

90) ‘골 타는 벳’은 고랑을 갈 때 사용하는 볏을 말한다.

104007 @ 예.(예.)

104007 #1 저 안네 등바대는.(저 안에 '등바대'는.)

104007 @ 예, 건 뚜로 허는 거고요?(예, 건 따로 하는 거고요?)

104007 #1 건 도굼[91]. 양쪽에 이렇게 부떠가지고 이제 살.(건 '도굼'. 양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살.)

104007 @ 못하게예?(못하게요?)

104007 #1 살에 이제 보호뒈게 헌 거.(살에 이제 보호되게 한 거.)

104007 @ 예, 예. 도곰.(예, 예. '도곰'.)

104007 #1 도굼.('도굼'.)

104007 @ 여기에 이렇게 덧대는 거 말허는 거 아니우과예? 북삭북삭.(여기에 이렇게 덧대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요? 푹신푹신.)

104007 #1 북석북석이 기지[92]로 만들엉근엥에 허난 옛날은 산듸찝을로 허던가.(푹신푹신하게 천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옛날은 밭볏짚으로 하든가.)

104007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7 #1 산듸찝이나 이제 기지.(밭볏짚이나 이제 천.)

104007 @ 예, 천 헤영예? 예, 도곰. 그 다음에 등바대는 어느 거우과?(예, 천 해서요? 예, '도곰'. 그 다음에 등바대는 어느 겁니까?)

104007 #1 그게 등바대 뒈는 거지.(그게 등바대 되는 거지.)

104007 @ 아아, 도곰이 이제 등 이렇게 받치니까, 예예예예예.(아아, '도곰'이 이제 등 이렇게 받치니까, 예예예예예.)

104007 #1 이제 요건 질멧가지. 요 큰 건.(이제 요건 길맛가지. 요 큰 건.)

104007 @ 예, 예. 이 밖엣 거는 질멧가지.(예, 예. 이 밖엣 거는 길맛가지.)

104007 #1 예, 질멧가지, 것도 두 개.(예, 길맛가지, 것도 두 개.)

104007 @ 예, 양쪽으로예?(예, 양쪽으로요?)

104007 #1 에.(에.)

104007 @ 예.(예.)

104007 #1 에, 그 가운데, 지금 요디 두 갤 요렇게 꿰야 허는데.(에, 그 가운데, 지금 여기 두 갤 요렇게 꿰어야 하는데.)

104007 @ 예.(예.)

104007 #1 이쪽 거하고 저쪽 거하고 그 이렇게 헤서 꿰야는데 그거 이름을 모르겠네.(이쪽 거하고 저쪽 거하고 그 이렇게 해서 꿰는데 그거 이름을 모르겠네.)

104007 @ 이 두 개예? 이것도.(이 두 개요? 이것도.)

104007 #1 으, 으.(으, 으.)

104007 @ 나중에 저기 알아봥 그림 그렁 놔둡서예?(나중에 저기 알아봐서 그림 그려서 놔두세요?)

---

91) '도굼'은 말이나 소의 등이 상하지 않게 길마나 안장 따위의 안에 덧대는 물건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도곰'이라고도 한다.

92) '기지는 천을 뜻하는 일본어다.

104007 #1 질메이?(길마?.)

104008 @ 질멧가지 잇고. 그 다음에 삼춘 멍에도 잇지 아녀우꽈예?(질맛가지 있고. 그 다음에 삼촌 멍에도 있지 않습니까요?)

104008 #1 멍에 잇고.(멍에 있고.)

104008 @ 멍에도 영 허면 이렇게 뒈는가?(멍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104008 #1 으, 으. 멍에 요쪽으로 걸리고.(으, 으. 멍에 요쪽으로 걸리고.)

104008 @ 예, 예. 이쪽으로.(예, 예. 이쪽으로.)

104008 #1 이쪽으로도 이처럼.(이쪽으로도 이처럼.)

104008 @ 이추룩. 쉐는 얼로 일로 연결허여?(이처럼. 소는 어디로 이리로 연결해?)

104008 #1 일로 어쨋든 머리가 이레 오던 이레 오던 지금 일직선으로 뒈여부리니까 헌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줄이 한줄[93]. 아, 저 한줄.(이리로 어쨌든 머리가 이리 오든지 이리 오든지 지금 일직선으로 되어 버리니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줄이 '한줄'. 아, 저 '한줄'.)

104008 @ 예, 예,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예, 예.)

104008 #1 이렇게 왕 여기 저 허곡 또 요거 요렇게.(이렇게 와서 여기 저 하고 또 요거 요렇게.)

104008 @ 아, 예.(아, 예.)

104008 #1 아이고, 춤, 뭐허긴 허다이. 어.(아이고, 참, 뭐하긴 하네. 어.)

104008 @ 여기 영 저기 뭐 잇자누꽈예? 이렇게 허영 여기에 소, 쉐 연결허는 거예?(여기 이렇게 저기 뭐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 소 연결하는 거요?)

104008 #1 으.(으.)

104008 @ 게믄.(그러면.)

104008 #1 이 쟁기, 쟁기.(이 쟁기, 쟁기.)

104008 @ 이 쟁기, 쟁기. 예.(이 쟁기, 쟁기. 예.)

104008 #1 쉐멍에.(소 멍에.)

104008 @ 이거 멍에예?(이거 멍에요?)

104008 #1 멍에고, 여기가 등테가 잇고. 등테. 이.(멍에고, 여기가 등태가 있고. 등태.)

104008 @ 이렇게.(이렇게.)

104008 #1 이 줄 ᄂᆞ리지 못허게.(이 줄 내리지 못하게.)

104008 @ 예, 예. 등테.(예, 예. 등태.)

104008 #1 등테가 잇고.(등태가 있고.)

104008 @ 등테.(등태.)

104008 #1 등테가 잇고.(등태가 있고.)

93) '한줄'은 표준어 '봇줄'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104008 @ 이 줄은 무신 줄이우과?(이 줄은 무슨 줄입니까?)
104008 #1 한줄.(봇줄.)
104008 @ 긴 줄이니까 한줄이렌 허는구나예?(긴 줄이니까 봇줄이라고 하는군요?)
104008 #1 한줄이고.(봇줄이고.)
104008 @ 이, 여기 그 낭으로 뭰 멍에 뭰 거는 이 낭은 무신 거렌 헙니까?(이, 여기 그 나무로 된 멍에 된 거는 이 나무는 무슨 거라고 합니까?)
104008 #1 그 낭은 아 거 낭 이름?(그 나무는 아 거 나무 이름?)
104008 @ 예.(예.)
104008 #1 아, 이건 멍에랑.(아, 이건 멍에라고.)
104008 @ 그냥 멍에. 보통 무신 걸로 만들어마씨?(그냥 멍에. 보통 무슨 걸로 만들어요?)
104008 #1 보통 에, 건 여라 가지 나무.(보통 에, 건 여러 가지 나무.)
104008 @ 나문 여라 가지예?(나문 여러 가지요?)
104008 #1 나무 여러 가지로 허고.(나무 여러 가지로 하고.)
104008 @ 예.(예.)
104008 #1 요것, 요것은 유름줄로 대개 허는디.(요것, 요것은 으름덩굴로 대개 하는데.)
104008 @ 한줄은 유름줄로요? 예.('한줄'은 으름덩굴로요? 예.)
104008 #1 끅, 너덩[94], 너덩엔 허주.(칡, '너덩', '너덩'이라고 하지.)
104008 @ 너덩.('너덩'.)
104008 #1 으, 너덩.(으, '너덩'.)
104008 @ 으, 너덩허고 유름줄은 ᄀᆞ튼 거우과?(으, '너덩'하고 으름덩굴은 같은 겁니까?)
104008 #1 ᄀᆞ튼 거.(같은 거.)
104008 @ 아, ᄀᆞ튼 거예? 너덩예? 그런 줄기를 너덩이렌 허는 거구나예?(아, 같은 거요? '너덩'요? 그런 줄기를 '너덩'이라고 하는 거군요?)
104008 #1 너덩은 이런 디 왕 쓰면은 너덩이 뒈부는 거고.('너덩'은 이런 데 와서 쓰면 '너덩'이 되어버리는 거고.)
104008 @ 예, 예, 예.(예, 예, 예.)
104008 #1 이제 그냥 유름으로 헐 때엔.(이제 그냥 으름으로 할 때엔.)
104008 #1 유름줄이고.(으름덩굴이고.)
104008 @ 유름줄. (웃음).(으름덩굴. (웃음).)
104008 #1 유름줄은 ᄃᆞ렛줄엔도 허고. 거 여라 가지.('으름덩굴'은 다래나무라고도 하고. 거 여러 가지.)
104008 @ ᄃᆞ렛줄이 너덩 닮다예?(다래나무가 '너덩' 같네요?)

94) '너덩'은 으름덩굴 따위의 덩굴을 이르는 말이다.

104008 #1 게난 요거 두 갠 잊어불엇네이.(그러니까 요거 두 갠 잊어버렸네.)

104008 @ 이거 두 갠 잊어붑디가?(이거 두 갠 잊어버렸습니까?)

104008 #1 요딘 다시 요게 이 밑으로 요렇게 헤가지고 이 접게[95]가 잇어이, 접게.(여긴 다시 요게 이 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 '접게'가 있어, '접게'.)

104008 @ 예, 예, 예, 예, 예, 예. 맞수다, 맞수다.(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04008 #1 접게.('접게'.)

104008 @ 예, 접게 잇고, 음 접게 잇고, 이 쟁기에 하는 이 저기 꼬리 하는 거.(예, '접게' 있고, 음 '접게' 잇고, 이 쟁기에 하는 이 저기 꼬리 하는 거.)

104008 #1 게메 그거 두 갤 지금.(글쎄 그거 두 갤 지금.)

104008 @ 이걸 잊어불엇수가? 이거허고 이 줄허고. 이것도 잘 알아봥 놔둡서. 내중에 한 번 더 물어보쿠다예.(이걸 잊어버렸습니까? 이거하고 이 줄하고. 이것도 잘 알아봐서 놔두세요.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04008 #1 내중에 저 그건 저기 강덜 알아봐야커라.(나중에 저 그건 저기 가서들 알아봐야겠어.)

104009 @ 그림 그리멍들 알아봐 줍서. 여긴 목장도 잇인가마씨?(그림 그리면서들 알아봐 주세요. 여긴 목장도 있는가요?)

104009 #1 에 목장은 주로 이 명도암[96] 우에 가서 이제 이 여름나면.(에 목장은 주로 이 명도암 위에 가서 이제 이 여름나면.)

104009 @ 예.(예.)

104009 #1 거기에 메껑.(거기에 맡겨서.)

104009 @ 음.(음.)

104009 #1 그 저이, 더월 피허고 저 목장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 저 물컷, 그 진두기나 뭐 이제 공동방제허기가 상당히 쉬우니까.(그 저, 더월 피하고 저 목장으로 올라가면 다시 이 저 '물것', 그 진드기나 뭐 이제 공동 방제하기가 상당히 쉬우니까.)

104009 @ 예.(예.)

104009 #1 이제 그렇게 헤서.(이제 그렇게 해서.)

104009 @ (녹음도 안 뒈불엇저). (웃음).((녹음도 안 돼버렸네). (웃음).)

104009 @ 이걸로 쓰니까예, 경 허영은이 이제 하고.(이걸로 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104009 #1 경 허영 허곡, 다시 지금 목장에, 그 저 곶인, 곶인 목장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그 마을 목장.(그렇게 해서 하고, 다시 지금 목장에, 그 저 갖춘, 갖춘 목장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그 마을 목장.)

104009 @ 예.(예.)

---

95) '접게'는 멍에 양편에 꿰어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 지역에 따라서 '적궤, 집궤, 좁게, 좁궤, 좁작게' 등으로 부른다.

96) '명도암'은 제주시 봉개동의 자연 마을의 하나다.

104009 #1 조그만허게 혼 멧 만 평정도 헹근에게 거기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번 멕이고.(조그마하게 한 몇 만 평정도 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번 먹이고.)

104009 @ 음, 경헌 걸 번 멕인덴 헙니까?(음, 그렇게 한 걸 번 먹인다고 합니까?)

104009 #1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이제 그 차례로 돌아가면서 소 보는 걸 번.(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집, 이제 그 차례로 돌아가면서 소 보는 걸 번.)

104009 @ 예에.(예에.)

104009 #1 이젠 늴은 느네가 번이여이 허영, 모린 느네가 번이여 허곡.(이젠 낼은 너희 번이야 해서, 모레는 너희가 번이야 하고.)

104009 @ 으음, 게믄 그런 쉐를 번쉐[97]헙니까?(으음, 그러면 그런 소를 '번쉐'라고 합니까?)

104009 #1 예, 번쉐.(예, '번소'.)

104009 @ 집에서 메는 거는 멤쉐허고예?(집에서 메는 거는 '멤쉐'하고요?)

104009 #1 아니.(아니.)

104009 @ 놈의 거 빌렁.(남의 거 빌려서.)

104009 #1 번쉐허곡 맴쉐 허곤 그 차이가, 맴쉐허면은.('번쉐'하고 배냇소 하곤 그 차이가, 배냇소하면은.)

104009 @ 벵작허는 쉐우과?(병작하는 숩니까?)

104009 #1 벵작허는 쉐고. 번쉐는.(병작하는 소고. '번쉐'는.)

104009 @ 우리 거를.(우리 거를.)

104009 #1 여러 집이 모여서.(여러 집이 모여서.)

104009 @ 예.(예.)

104009 #1 같이 그날 관리해 주는 거. 그날 관리해주는 거.(같이 그날 관리해주는 거. 그날 관리해주는 거.)

104009 @ 게믄 그 관리허는 사름을 뭐렌 헤여마씨? 그 허는 일을 번?(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 하는 일을 번?)

104009 #1 번.(번.)

104009 @ 그걸 번이렌?(그걸 번이라고?)

104009 #1 오널은 느네가 번이여 모린 누게네가 번이여.(오늘은 너희가 번이야 모레는 누구네가 번이야.)

104009 @ 아.(아.)

104009 #1 번 멕이는 그날.(번 먹이는 그날.)

104009 @ 당번?(당번?)

104009 #1 당번.(당번.)

104009 @ 으, 그래서 번인가 보다예. 당번 헤갖고예?(으, 그래서 번인가 보네요.

97) '번쉐'는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 지역에 따라서 '팻쉐'라고도 한다.

당번 해갖고요?)

104009 #1 차례를 차례로 나간덴 말이주.(차례를 차례로 나간다는 말이지.)

104010 @ 예, 예, 예, 예. 그 쉐 키우멍 그 잊어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경험담예, 재미있었던 일 같은 거 잇이믄 골아줍서?(예, 예, 예, 예. 그 소 키우면서 그 잊어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경험담요, 재미있었던 일 같은 거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104010 #1 재미.(재미.)

104010 @ 번 서낫잖아예?(번 섰잖습니까?)

104010 #1 으으.(으으.)

104010 @ 쉐 질들일 때도 좋고.(소 길들일 때도 좋고.)

104010 #1 쉐 질들일 때도 춤 나도 이제 그 밧, 그 쉐가 보, 잘 나가다가 쉐도 꿰가 잇는 놈은 요망을 내거든. 노망허고 요망은 틀린 거주게.(소 길들일 때도 참 나도 이제 그 밭, 그 소가 보, 잘 나가다가 소도 꽤가 있는 놈은 요망을 내거든. 노망하고 요망은 다른 거주게.)

104010 @ 그렇지예? 맞습니다.(그렇지요? 맞습니다.)

104010 #1 이제 뭘 부린다고 허까. 이제 사람이면 그 살짝살짝 빼여지곡 뭐허곡 헹근에 일을 아녈라고 그런 뭐.(이제 뭘 부린다고 할까. 이제 사람이면 그 살짝살짝 빠지고 뭐하고 해서 일을 않으려고 그런 뭐.)

104010 @ 음.(음.)

104010 #1 그런 그 뭐가 잇는데. 에 짐 실런 오단에 그 구루마 찬, 춤 그 마차 찬 차 그냥 드러눠근엥에 일어나지 아녈 때가 잇어게.(그런 그 뭐가 있는데. 에 짐 실어서 오다가 그 달구지 찬, 참 그 마차 찬째 그냥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

104010 @ 아아.(아아.)

104010 #1 것도 뚠 거 보민 그 소가 그 좀 소머리도 그런 거 보민 영리허긴 영리헌 거라. 뚠 거 보면은 그 짓을 허는 쉐가 잇어.(것도 다른 거 보면 그 소가 그 좀 소머리도 그런 거 보면 영리하긴 영리한 거야. 다른 거 보면 그 짓을 하는 소가 있어.)

104010 @ 아아.(아아.)

104010 #1 아무 거 그런 거 저런 거 안 보면은 묵묵히 일을 잘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경허난 그런 소는 이제 힘이 잇는 사람한테는 가면은 꼼짝 못헤부리고.(아무 거 그런 거 저런 거 안 보면 묵묵히 일을 잘하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소는 이제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면 꼼짝 못해버리고.)

104010 @ 으.(으.)

104010 #1 이제 힘이 좀 약헌 사름안티 가면은 그냥 제멋대로 임잘 막 놀려먹주.(이제 힘이 좀 약한 사람한테 가면 그냥 제멋대로 임잘 막 놀려먹지.)

104010 @ 음, 음.(음, 음.)

104010 #1 소도. 게난 웃길 때가 만허여. 짐승도 키워보면은.(소도. 그러니까 웃길 때가 많아. 짐승도 키워보면.)

104010 @ 예.(예.)

104010 #1 다시, 그 안 가난 디 갈 때는 예를 들어 나도 흔번 그 시내에 쉐를 마차 헤연 그냥 가단 보니까.(다시, 그 안 갔던 데 갈 때는 예를 들어 나도 한번 그 시내에 소를 마차 해서 그냥 가다가 보니까.)

104010 @ 예.(예.)

104010 #1 그 안떼나가 그 저 사라봉 곁에 그 노픈 안떼나가 잇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겁난 잡아 튀고.(그 안테나가 그 저 사라봉 곁에 그 높은 안테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겁나서 잡아 뛰고.)

104010 @ 아아.(아아.)

104010 #1 뭐 헐 때 아이고, 그럴 때쯤은.(뭐 할 때 아이고, 그럴 때쯤은.)

104010 @ 겁나예?(겁나죠?)

104010 #1 겁나.(겁나.)

104010 @ 으.(으.)

104010 #1 어떵 뭐, 그 시기를 아주 츰 잘 넘기면 허곡 경 않으면 사고로 그것이 이제 돌발헐 수가 잇는 거. 밧갈 때도 뭐 경 헹근엥에 나 자신이 좀 약해 놓니까 좀 쎈 사름 빌엉 불러다 놩근엥에 그 밧 좋은 밧듸 강.(어떻게 뭐, 그 시기를 아주 참 잘 넘기면 하고 그렇게 않으면 사고로 그것이 이제 돌발할 수가 있는 거. 밭갈 때도 뭐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좀 약해 놓으니까 좀 센 사람 빌려서 불러다 놓아서 그 밭 좋은 밭에 가서.)

104010 @ 예.(예.)

104010 #1 담 좋은 밧듸, 담 좋은 밧듸.(담 좋은 밭에, 담 좋은 밭에.)

104010 @ 담 좋은예?(담 좋은요?)

104010 #1 밧듸 강, 강근에게 때리멍 그냥 몰아놓민 밧 ᄀᆞ리침도 흔 메칠만 잘허민 그디 잘 갈곡. 또 꼭 그렇다고 뭐 헤서 그 익숙어도 사람이 흔 메칠 간을 쉐가 완전히 익숙기 전에는 꼭 이꺼 줘사.(밭에 가서, 가서 때리면서 그냥 몰아놓으면 밭 가르침도 한 며칠만 잘하면 거기 잘 갈고. 또 꼭 그렇다고 뭐 해서 그 익숙해도 사람이 한 며칠 간 소가 완전히 익숙하기 전에는 꼭 이끌어 줘야.)

104010 @ 음.(음.)

104010 #1 이꺼, 이꺼 주면은 소도 제대로 그냥 뭐가 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뒤에 쟁기 잡은 사름. 이렇게 자기가 심을 받아봐.(이끌어, 이끌어 주면 소도 제대로 그냥 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뒤에 쟁기 잡은 사람. 이렇게 자기가 힘을 받아봐.)

104010 @ 음.(음.)

104010 #1 씨원치 않으민 그냥 제멋대로 또 헤불어.(시원치 않으면 그냥 제멋대로 또 해버려.)

104010 @ 아, 이 사람이 나를 저기 헐 건가 안 헐 건가?(웃음).(아, 이 사람이 나를 저기 할 건가 안 할 건가? (웃음).)

104010 #1 그런 거 보면은 소도 영리허다는 걸 알고. 다시 소가 영리헌 걸 어떻게 아는고 허면, 어려서 여기서 난 소가.(그런 거 보면 소도 영리하다는 걸 알고. 다시 소가 영리한 걸 어떻게 아나 하면, 어려서 여기서 난 소가.)

104010 @ 네.(네.)

104010 #1 여기서 난 소가 예를 들어 목장에 가서 내부리면은 가을 들믄 다시 이 집을 찾아와.(여기서 난 소가 예를 들어 목장에 가서 내버리면 가을 들면 다시 이 집을 찾아와.)

104010 @ 예, 예.(예, 예.)

104010 #1 에미가 없어도. 그 어릴 때 금방 털어졌는데 여기서 그냥 그 쪼끔 멧 둘 잇다가 그 목장에 갓는데 그 송아지가 그해에 가을, 겨, 가을 들면은 다시 그 집을 츶아온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아주 츰 대단헌 거. 짐승도 대단헌 거 같아.(어미가 없어도. 그 어릴 때 금방 떨어졌는데 여기서 그냥 그 조금 몇 달 있다가 그 목장에 갔는데 그 송아지가 그해에 가을, 겨, 가을 들면 다시 그 집을 찾아온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아주 참 대단한 거. 짐승도 대단한 거 같아.)

104010 @ 게난 옛날에부터 쉐 대주렌 허지 아녀수과예? 그 아까 저기 쉐 종류 할 때 암쉐 부룽이 이렇게 허지 아넘니까? 그런 거 어떤 식으로.(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소 대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까 저기 소 종류 할 때 암소 부룩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떤 식으로.)

104010 #1 암쉐 부룽이.(암소 부룩소.)

104010 @ 어떤 식으로?(어떤 식으로?)

104010 #1 게난게 암놈은 암쉐.(그러니까 암놈은 암소.)

104010 @ 예.(예.)

104010 #1 숫놈은 부룽이.(수놈은 부룩소.)

104010 @ 음, 부룽이도 이제 어린 거하고 큰 거하고 뭐 뚜나게 부르는. 차이는 엇어마씨?(음, 수소도 이제 어린 거하고 큰 거하고 뭐 다르게 부르는. 차이는 없어요?)

104010 #1 큰 차이 엇인 걸로 나는 지금 이제 베와왓는데.(큰 차이 없는 걸로 나는 지금 이제 베워왔는데.)

104010 @ 혹시 새끼 못 나는 쉐도 잇지예?(혹시 새끼 못 나는 소도 있지요?)

104010 #1 건 지시렝이.(건 둘치.)

104010 @ 지시렝이.(둘치.)

104010 #1 뒈지던 소던 이제 모든 암컷에 대해서 새끼 못 나는 거 지시렝이.(돼지든 소든 이제 모든 암컷에 대해서 새끼 못 낳는 거 둘치.)

104010 @ 지시렝이. 사름도 경 굽니까?(둘치.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까?)

104010 #1 사름은.(사람은.)

104010 @ 그 말은 안 골지만은.(그 말은 안 말하지만.)

104010 #1 사름신디렌 안 허지만은 욕헐 때엔 애기 못 낭근에 헌 사름 영 거세기허영 쫌 못뒌 짓이나 허면 저 지시렝이 닮은 년 헹은에.(사람한테는 안 하지만은 욕할 때엔 애기 못 낳아서 한 사람 이렇게 거시기해서 좀 못된 짓이나 하면 저 둘치 닮은 년 해서.)

104010 @ 욕 헐 때는 하기야 대놓고 못허니까.(욕 할 때는 하기야 대놓고 못하니까.)

104010 #1 대놓곤 못허니까.(대놓곤 못하니까.)

104010 @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헴구나예?(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군요?)

말 기르기 1

104011 @ 이제는 ᄆᆞᆯ 키와보쿠다.(이제는 말 키워보겠습니다.)

104011 #1 무시거?(무엇?)

104011 @ ᄆᆞᆯ도 키와봅디가?(말도 키워봤습니까?)

104011 #1 ᄆᆞᆯ은 제대로 키와보진 못헌디 놈.(말은 제대로 키워보지는 못했는데 남.)

104011 @ 허는 거는예?(하는 거는요?)

104011 #1 헌디 ᄆᆞᆯ 이름은 상당히 만허여이.(그런데 말 이름은 상당히 많아.)

104011 @ 예.(예.)

104011 #1 만흔디 난 그걸 몰르겠어.(많은데 난 그걸 모르겠어.)

104011 @ 알아지는 데로만 허믄 뒈난예. ᄆᆞᆯ은 보통 어떤 식으로 키우는고예? 동네에 영 키우는 거 보면은?(알아지는 데로만 하면 되니까요. 말은 보통 어떤 식으로 키우는가요? 동네에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104011 #1 동네 ᄆᆞᆯ 키우는 건 그자 그 주로 ᄒᆞ나 두 개 키우는 사름도 잇고, 테.(동네 말 키우는 건 그저 그 주로 하나 두 개 키우는 사람도 있고, 떼.)

104011 @ 예.(예.)

104011 #1 테 허는 사름도 잇고 허주마는. 테 허는 사름은 그자 목장에서 주로 낳고 뭐허고 허주마는 이 ᄒᆞ나 둘 키우는 사름은 집의서도 낳고.(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떼 하는 사람은 그저 목장에서 주로 낳고 뭐하고 하지만 이 하나 둘 키우는 사람은 집에서도 낳고.)

104011 @ 음.(음.)

104011 #1 이제 그렇게 허니까. 이제 새끼 낭 그대로 돌앙 뎅기멍 얼마간 키웁당 또 풀곡.(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새끼 낳아서 그대로 데려 다니면서 얼마간 키우다가 또 팔고.)

104011 @ 예.(예.)

104011 #1 그 저 용돈 쓰곡 그자. (웃음) 그자 그 정도벳기 모르겠네.(그 저 용돈 쓰고 그저. (웃음) 그저 그 정도밖에 모르겠네.)

104012 @ 예, 예. 그 믈 종류들 혹시 알아지는 거는?(예, 예. 그 말 종류들 혹시 알아지는 거는?)

104012 #1 믈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그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걸랑 다음으로.(말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그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다음으로.)

104012 @ 예, 알겠수다. 그거 잘 헹 놔둡서예. 믈 종류.(예, 알겠습니다. 그거 잘 해서 놔두세요. 말 종류.)

104012 #1 이땅 메모 헷당은에 나도 흔 장 메모헤 줘야.(이따가 메모 해다가 나도 한 장 메모해 줘야.)

104013 @ 예, 예. 알겟습니다. 그 다음에 믈은 주로 어떵 이용헤신고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주로 어떻게 이용했는가요?)

104013 #1 믈은 밧 불리고.(말은 밭 밟고.)

104013 @ 예.(예.)

104013 #1 에, 요즘은 차가 있으니깐 허는데 그 질들여서[질뜨려서] 타서 이제 그 아이고 또 그 뭐라고 헐까. 이 통행. 통행허는 걸.(에, 요즘은 차가 있으니깐 하는데 그 길들여서 타서 이제 그 아이고 또 그 뭐라고 할까. 이 통행. 통행하는 걸.)

104013 @ 뭐 탕 뎅기는 거?(뭐 타서 다니는 거?)

104013 #1 탕 그자 먼 데, 그자 갈 일 잇으면 먼 데도 가곡 가까운 데도 가곡. 요즘 자가용같이.(타서 그저 먼 데, 그저 갈 일 있으면 먼 데도 가고 가까운 데도 가고. 요즘 자가용같이.)

104013 @ 예, 예.(예, 예.)

104013 #1 에, 그자 썻던 게.(에, 그저 썼던 게.)

104013 @ 음, 뭐 씨집 장게갈 때도 믈 탕 뎅기곡.(음, 뭐 시집 장가갈 때도 말 타서 다니고.)

104013 #1 아이고, 씨집 장게갈 때도. 건 옛날은 두 말 할 거 없이, 것도 저 백말을 주로 이용헤엿고.(아이고, 시집 장가갈 때도. 건 옛날은 두 말 할 거 없이, 것도 저 백말을 주로 이용하였고.)

104013 @ 거 이유가 이신가마씨?(거 이유가 있을까요?)

104013 #1 그건 그 옛말에 들엉 보면 그 씨집 장가가는 날은 그 ᄉᆞ또도 신랑이 지나가가면은 내렷다헤여.(그건 그 옛말에 들어서 보면 그 시집 장가가는 날은 그 사또도 신랑이 지나가면 내렸다 해.)

104013 @ 아.(아.)

104013 #1 게난 그날만큼은 췌고의 우대를 헌다고. 백마는 또 그 임금이나 그 장수, 그 뭐 안네 췌고의 그 어른이 타고 다니는 믈이라고 헤가지고 아마 그런 거 같애.(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최고의 우대를 한다고. 백마는 또 그 임금이나 그 장수, 그 뭐 안에 최고의 그 어른이 타고 다니는 말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거 같아.)

104014 @ 예에, 믈도 나이에 따랑은에 저기 흔 설 두 설 허는 건 알아지쿠과?(예에, 말도 나이에 따라서 저기 한 살 두 살 하는 건 알겠습니까?)

104014 #1 겨난 그건 그저 이영숙 하르버지이.(그러니까 그건 그저 이영숙 할아버지.)

104014 @ 예.(예.)

104014 #1 그 오널 그 젤 많덴.(그 오늘 그 젤 많다고.)

104014 @ 예, 예, 예.(예, 예, 예.)

104014 #1 그 하르버지 요 ᄆᆞᆯ에 대헹이랑 그 할아버지안티 가자.(그 할아버지 요 말에 대해서는 그 할아버지한테 가자.)

104014 @ 아, 예, 예, 예. 나중에 그 어른 어디 사는 거 ᄀᆞᆯ아줍서예?(아, 예, 예, 예. 나중에 그 어른 어디 사는 거 말해 주십시오?)

104014 #1 바로 요디라, 요디.(바로 여기야, 여기.)

104014 @ 아, 기구나예 예? 그 분은 ᄆᆞᆯ 테우리 헤낫우가?(아, 그렇군요, 예? 그 분은 말 목동 했었습니까?)

104014 #1 테우리 헤낫어.(목동 했었어.)

104014 @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예, 예, 흔듸 강은에 저기 물어보민 뒈쿠다예.(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예, 예, 함께 가서 저기 물어보면 되겠네요.)

104014 #1 응, ᄀᆞ치 강 거세기허믄.(응, 같이 가서 거시기하면.)

104014 @ ᄆᆞᆯ 길럿던 것도 그 어른안티 가믄 뒈겟다예?(말 길렀던 것도 그 어른한테 가면 되겠네요?)

104014 #1 ᄆᆞᆯ 길루는 것도 그 어른한티 가믄.(말 기르는 것도 그 어른한테 가면.)

말 기르기 2

104011 @ 예전에 말 하영 질롸낫덴예?(예전에 말 많이 길렀다면서요?)

104011 #3 예.(예.)

104011 @ 말은 어떵 질롸낫수과? 다른 사름허고 ᄐᆞ나게.(말은 어떻게 길렀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104011 #3 게난 우리 ᄆᆞᆯ덜은 원래 산에만 살주게.(그러니까 우리 말들은 원래 산에만 살지.)

104011 @ 예.(예.)

104011 #3 겨울에도 내려오질 아녀.(겨울에도 내려오질 않아.)

104011 @ 음.(음.)

104011 #3 경 허영 봄 나가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사름 기척허영 ᄆᆞᆯ 모는 소리 허민 그냥 알러레 그냥 ᄃᆞᆯᄃᆞᆯ 내려와.(그렇게 해서 봄 나가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사람 기척해서 말 모는 소리 하면 그냥 아래로 그냥 달달 내려와.)

104011 @ 예.(예.)

104011 #3 내려오민 어디 오느냐 허믄 절물벵뒤[98].(내려오면 어디 오느냐 하면

98) '절물벵뒤'는 제주시 지경의 이름이 하나다.

‘절물벵뒤’.)

104011 @ 절물벵뒤.(‘절물벵뒤’.)

104011 #3 으, 절물벵뒤 오랑 딱 중단허주.(으, ‘절물벵뒤’ 와서 딱 중단하지.)

104011 @ 예.(예.)

104011 #3 믈덜이.(말들이.)

104011 @ 예.(예.)

104011 #3 게영 그디서 이젠 튿어먹곡 허영 계속 돌아보다가.(그래서 거기서 이젠 뜯어먹고 해서 계속 돌아보다가.)

104011 @ 예.(예.)

104011 #3 이제 밧 불릴 때 뒈면 이제 조 불릴[99] 때.(이제 밭 밟을 때 되면 이제 조 밟을 때.)

104011 @ 예.(예.)

104011 #3 뒈면은 몰아당 조 불려 놩 절물벵뒤에 강 내불민 ᄌᆞ기대로 이젠 또 산더레 올라갑니다게. 예.(되면 몰아다가 조 밟아 놓아서 ‘절물벵뒤’에 가서 내버리면 자기대로 이젠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104011 @ 예.(예.)

104011 #3 예. 경 허영 산에 올라가민 이젠 그냥 계속 이젠 겨울ᄁᆞ지 살면서 믈덜이.(예.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면 이젠 그냥 계속 이젠 겨울까지 살면서 말들이.)

104011 @ 산에서 사는 그 믈을 무신 믈이옌 헙니까? 건 믈 이름을 ᄯᅳ나게 부르진 아녀마씨?(산에서 사는 그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건 말 이름을 다르게 부르진 않나요?)

104011 #3 부르지 아녀.(부르지 않아.)

104011 #1 텟믈.(뗏말.)

104011 #3 믈, 믈.(말, 말.)

104011 @ 텟믈.(뗏말.)

104011 #3 텟믈.(뗏말.)

104012 @ 텟믈, 아, 텟믈예? 말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어낫인고예?(뗏말, 아, 뗏말요? 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요?)

104012 #3 믈 종류는, 종류는 ᄒᆞᆫ 가진데.(말 종류는, 종류는 한 가진데.)

104012 @ 예.(예.)

104012 #3 색깔이 ᄋᆞ라 가지주게.(색깔이 여러 가지지.)

104012 @ 아, 색깔예, 예.(아, 색깔요, 예.)

104012 #3 색깔이 ᄋᆞ라 가지라.(색깔이 여러 가지야.)

104012 @ 골아봅서.(말해 보십시오.)

104012 #3 일 가라.(일 가라.)

---

99) ‘조 불릴’은 ‘조 밟는’으로 표준어 대역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조를 파종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104012 @ 일 가라.(일 가라.)
104012 #3 이 청총.(이 총마.)
104012 @ 이 청총.(이 총마.)
104012 #3 일 가라, 이 청총, 삼 적다.(일 가라, 이 총마, 삼 절따.)
104012 @ 삼 절따.(삼 절따.)
104012 #3 적다.(절따.)
104012 @ 아, 삼 적다.(아, 삼 절따.)
104012 #1 오 유마.(오 유마.)
104012 #3 오 유마.(오 유마.)
104012 @ 오 유마.(오 유마.)
104012 #3 어, 육 거을[육꺼을].(어, 육 거흘.)
104012 @ 육 거을.(육 거흘.)
104012 #1 걸.(거흘.)
104012 #3 거을. 육 걸.(거흘. 육 거흘.)
104012 @ 거을.(거흘.)
104012 #3 육 거을. 읏섯 가지라낫는디.(육 거흘. 여섯 가지였는데.)
104012 @ 아까 네 개, 네 번챈 안 골앗수다. 새로 골아봅서.(아까 네 개, 네 번째 안 말했습니다. 새로 말해 보십시오.)
104012 #3 일 가라, 이 청총, 삼 적다, 스 월라, 오 류마, 육 거을.(일 가라, 이 총마, 삼 절따, 사 얼룩, 오 유마, 육 거흘.)
104012 @ 예, 아까 월라가 안 나왓인게예. 게믄 맨 처음에 일 가라 헐 때 가라는 무신 색깔이우과?(예, 아까 '월라'가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일 가라 할 때 가라는 무슨 색깔입니까?)
104012 #3 새카망헌 거.(새까만 거.)
104012 @ 새카망헌 거예?(새까만 거요?)
104012 #3 가마귀 빛 나가지고 반짝반짝허주게. 경 헤영 그걸 제일 일등으로 색깔을 보는 거라.(까마귀 빛 나가지고 반짝반짝하지. 그렇게 해서 그걸 제일 일등으로 색깔을 보는 거야.)
104012 @ 예. 일 가라예? 그러면 이는?(예. 일 가라요? 그러면 이는?)
104012 #3 이 청총은.(이 총이는.)
104012 @ 예.(예.)
104012 #3 검은 터럭에 흰 털이 하나썩 이렇게 난 거주.(검은 털에 흰 털이 하나씩 이렇게 난 거지.)
104012 @ 아아.(아아.)
104012 #3 거는 이 청총.(거는 이 총이.)
104012 @ 이 청총.(이 총이.)
104012 #3 음.(음.)

104012 @ 세 번째는?(세 번째는?)
104012 #3 아, 일 가라 이 청총 삼 적다.(아, 일 가라 이 총이 삼 절따.)
104012 @ 예.(예.)
104012 #3 삼 적다엔 헌 건 빨강헌 물이주.(삼 절따라고 한 건 빨간 말이지.)
104012 @ 적다가 그 뻘경헌 물예? 예, 그 뻘건 물 중에서도 더 빨경헌 거 잇자 누우과?(절따가 그 뻘건 말요? 예, 그 뻘건 말 중에서도 더 빨간 거 있잖습니까?)
104012 #3 그게 삼 적다라.(그게 삼 절따야.)
104012 @ 아, 삼 적다. 혹시 고치적다[100]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가?(아, 삼 절따. 혹시 '고치적다' 이런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4012 #3 고치적따 말은 없어.('고치적다' 말은 없어.)
104012 @ 아, 삼 적다, 그 월라말은?(아, 삼 절따, 그 얼룩말은?)
104012 #3 월라말은 적다말이나 가라물에나 흰 줄이 긋어진 거. 흰줄.(얼룩말은 절따말이나 가라말에나 흰 줄이 그어진 거. 흰 줄.)
104012 @ 예.(예.)
104012 #3 앞다리나 뒷다리나 흰 줄이 진 거 잇주게. 그 흰 줄로 긋어진 것덜 잇주.(앞다리나 뒷다리나 흰 줄이 진 거 있지. 그 흰 줄로 그어진 것들 있지.)
104012 @ 예, 예.(예, 예.)
104012 #3 그건 월라물이고.(그건 얼룩말이고.)
104012 @ 월라물. 그 다음에?(얼룩말. 그 다음에?)
104012 #3 오 류마.(오 유마.)
104012 @ 유마는?(유마는?)
104012 #3 오 류마는 그게 막 뭐 ᄌᆞ줏빗엔[ᄌᆞ주삐센] 허는가.(오 유마는 그게 마구 뭐 자줏빛이라고 하는가.)
104012 @ 아 ᄌᆞ줏빗?(아 자줏빛?)
104012 #3 으, 색깔이 막 곤 거라. 것도.(으, 색깔이 막 고운 거야. 것도.)
104012 @ 아아.(아아.)
104012 #3 ᄌᆞ줏빗.(자줏빛.)
104012 @ 육, 육 거을은?(육, 육 거흘은?)
104012 #3 육 거을.(육 거흘.)
104012 @ 예.(예.)
104012 #3 육 거을은 아, 육 거을.(육 거흘은 아, 육 거흘.)
104012 #1 거무스름?(거무스레한?)
104012 #3 거을물은 이 주둥이가 희뜩희뜩허영 영 돌라져야, 입이 셍긴 물이 잇어.(거흘말은 이 주둥이가 희뜩희뜩해서 이렇게 둘러져야, 입이 생긴 말이 있어.)
104012 @ 아아.(아아.)
104012 #3 것ᄀᆞ라 거을엔 허주게.(것보고 거흘이라고 하지.)

100) '고치적다'는 색깔이 아주 붉은 색의 말을 가리킨다.

104012 @ 예. 게믄 이제 그거는 색깔에 따랑은에 영 허는 거 아니라예?(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104012 #3 어 색깔.(어 색깔.)

104012 @ 게믄 이 머리에도 여기 영 점 이신 것도 잇지 아녀우과?(그러면 이 머리에도 여기 이렇게 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4012 #3 어, 그 태성.(어, 그 대성.)

104012 @ 태성마. 그러면.(대성마. 그러면.)

104012 #3 음, 건 태성믈예.(음, 건 대성마요.)

104012 @ 태성믈예? 그 다음에 코로 영 내려왕 줄 영 허여진 거는?(대성마요? 그 다음에 코로 이렇게 내려와서 줄 이렇게 해진 거는?)

104012 #3 간전이[101].(간자말.)

104012 @ 간전이.(간자말.)

104012 #3 간전이.(간자말.)

104012 @ 또 다리에 흰 것도 잇지 아녀우과?(또 다리에 흰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4012 #3 ᄉᆞ족벡이.(사족백.)

104012 @ 아, ᄉᆞ족벡이. 게난 족벡이[102]도 네 개가 다 허영 헌 거 아니라예? 만약에 두 개만 허영허진 아넘니까?(아, 사족백. 그러니까 '족백이'도 네 개가 다 허연 거 아닌가요? 만약에 두 개만 허옇진 않습니까?)

104012 #3 그런 것도 잇긴 잇어. 그것도 벨도로.(그런 것도 있긴 있어. 그것도 별도로.)

104012 @ 안 ᄀᆞᆯ아?(안 말해?)

104012 #3 그 족발이엔만 허주.(그 족발이라고만 하지.)

104012 @ 족발예? 그 말 곧장 못 가고 안짱다리처럼 가는 이런 말 이름도 이십니까?(족발이요? 그 말 곧장 못 가고 안짱다리처럼 가는 이런 말 이름도 있습니까?)

104012 #3 아, 제마[103], 제마라고. 네 발인디 각각 이렇게 노려 걷는 건디 보통은, 겐디 두 발로 걷는 거 식으로 앞뒤 다리가 ᄀᆞ치.(아, '제마', '제마'라고. 네 발인데 각각 이렇게 놀려 걷는 건데 보통은, 그런데 두 발로 걷는 것 식으로 앞뒤 다리가 같이.)

104012 @ 예.(예.)

104012 #3 영 허는 거.(이렇게 하는 거.)

104012 @ 그거 제마옌예? 그게 더 빠릅니까?(그거 '제마'라고요? 그게 더 빠릅니까?)

104012 #3 ᄲᆞᆯ라고.(빠르더라고.)

---

101) '간전이'는 이마에 흰 줄이 있는 말이다. 표준어 '간자말'에 해당한다.
102) '족벡이'는 다리가 흰 말이다.
103) '제마'는 한편짝 다리를 나란하게 옮기며 걷거나 달리는 말이다.

104012 @ 건 제마예? 옛날에 우리 조랑말엔 허는 거는 여기서 뭐렌 허는 거라 마씨?(건 '제마'요? 옛날에 우리 조랑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04012 #3 조랑ᄆᆞᆯ 헹은 우리 토종ᄆᆞᆯ을 조랑ᄆᆞᆯ엔 허주게.(조랑말 해서는 우리 토종말을 조랑말이라고 하지.)

104012 @ 아, 조랑ᄆᆞᆯ?(아, 조랑말?)

104012 #3 그게 그 말이라.(그게 그 말이야.)

104012 @ 그걸로, 텟ᄆᆞᆯ헌 게 다 그런 ᄆᆞᆯ 헌 거 아니라예?(그걸로, 뗏말한 게 다 그런 말 한 거 아닌가요?)

104012 #3 조랑ᄆᆞᆯ로.(조랑말로.)

104012 @ 조랑ᄆᆞᆯ로 으음.(조랑말로 으음.)

104012 #1 화등인[104] 등 오그라진 거.('화등이'는 등 오그라진 거.)

104012 @ 아. 화등이.(아. '화등이'.)

104012 #3 등이 파진 거.(등이 파진 거.)

104012 @ 아, ᄆᆞᆯ도예?(아, 말도요?)

104012 #3 어 영 파진 거.(어 이렇게 파진 거.)

104012 @ 또 어떤 게 잇인고마씨?(또 어떤 게 있을까요?)

104012 #3 꼬부랑ᄆᆞᆯ[105] 잇주. 꼬부랑ᄆᆞᆯ도 영 이 등이 영.('꼬부랑말' 있지. '꼬부랑말'도 이렇게 이 등이 이렇게.)

104012 #1 활등이[106].('활등이'.)

104012 #3 꼬부라진 거.(꼬부라진 거.)

104012 #1 활등이.('활등이'.)

104012 @ 활이 안으로 간 건 활등이, 엉덩이가 이렇게 꼬부라진 건 꼬부랑ᄆᆞᆯ.(활이 안으로 간 건 활등이, 엉덩이가 이렇게 꼬부라진 건 '꼬부랑말'.)

104012 #3 꼬부랑ᄆᆞᆯ.('꼬부랑말'.)

104012 @ 또 어떤 종류 잇인고예?(또 어떤 종류 있을까요?)

104012 #3 그 외는 엇어.(그 외는 없어.)

104012 @ 그 외는 엇어마씨? 모양에 따랑 이 머리에 그 귀 모양이 ᄐᆞ난다든가 이런 건 엇어마씨?(그 외는 없어요? 모양에 따라서 이 머리에 그 귀 모양이 다르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104012 #3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4012 @ ᄆᆞᆯ 새끼는 뭐렌 헙니까?(말 새끼는 뭐라고 합니까?)

104012 #3 망아지.(망아지.)

104012 @ 망아지는 표준어고.(망아지는 표준어고.)

104012 #1 ᄆᆞᆼ셍이.(망아지.)

---

104) '화등이'는 등뼈가 우묵하게 활같이 휘어든 말이다.
105) '꼬부랑ᄆᆞᆯ'은 등이 굽은 말이다.
106) '활등이'는 등뼈가 우묵하게 활같이 휘어든 말이다.

104012 #3 ᄆᆞᆼ셍이, ᄆᆞᆼ셍이.(망아지, 망아지.)

104012 @ ᄆᆞᆼ셍이예? 옛날 대정 ᄆᆞᆼ셍이. 그 다음에 이젠 그 털, 털도 그 꼬리나 이런 그 이름들 잇지 아녀우꽈. 부분 부분 ᄆᆞᆯ도 이름들이.(망아지요? 옛날 대정 망아지. 그 다음에 이젠 그 털, 털도 그 꼬리나 이런 그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부분 부분 말도 이름들이.)

104012 #1 갈기.(갈기.)

104012 @ 어, ᄆᆞᆯ 무사 영 그림 이시면 머리 부분이여 뭐여 이런 그 영 될 거 아니우과예? 다리 영허면 꼬리 영 있으면 뭐라고 불르는 이름 잇어마씨? 이런.(어, 말 왜 이렇게 그림 있으면 머리 부분이다 뭐다 이런 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다리 이렇게 하면 꼬리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 이름 있어요? 이런.)

104012 #1 갈기.(갈기.)

104012 @ 여기 여기 영 허면 여기에?(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104012 #3 머리 뒤에 건 갈기.(머리 뒤에 건 갈기.)

104012 @ 예, 갈기.(예, 갈기.)

104012 #3 갈기. 앞에 건 뭐옌 헌다마는 모르켜. 앞에 영.(갈기. 앞에 건 뭐라고 한다만 모르겠어. 앞에 이렇게.)

104012 @ 앞에 허는 것도 잇지 아녀우꽈예? 영 허영은에? 것도 일름 원래 잇어어예?(앞에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것도 이름 원래 있죠?)

104012 #3 일름 잇주게.(이름 있지.)

104012 @ 것도 ᄒᆞ꼼 튼내보고예. 이 꼴린마씨?(것도 조금 생각해보고요. 이 꼬린요?)

104012 #3 꼴, 그냥 그냥 꼴리엔만 허여, 건.(꼴, 그냥 그냥 꼬리라고만 해, 그것은.)

104012 @ 꼴리 헹은에 무사 그걸로 헹 탕건도?(꼬리 해서 왜 그걸로 해서 탕건도?)

104012 #3 탕건도 허주게.(탕건도 하지.)

104012 #1 총.(총.)

104012 #3 총.(총.)

104012 @ ᄆᆞᆯ총예?(말총요?)

104012 #3 ᄆᆞᆯ총.(말총.)

104013 @ ᄆᆞᆯ총. 그 다음에 물어보쿠다예? 말은 어떵 이용해낫수가? 말은 아까 밧 ᄇᆞᆯ리는 텟ᄆᆞᆯ허고 그 다음에 또?(말총.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말은 어떻게 이용했었습니까? 말은 아까 밭 밟는 뗏말하고 그 다음에 또?)

104013 #3 주로 밧 ᄇᆞᆯ리는 거.(주로 밭 밟는 거.)

104013 @ 아, 주로 밧 ᄇᆞᆯ리는 거. 그 다음은마씨?(아, 주로 밭 밟는 거. 그 다음은요?)

104013 #3 그 다음은 뭐?(그 다음은 뭐?)

104013 #1 탕 뎅기고.(타서 다니고.)
104013 #3 탕 뎅기는 건 건.(타서 다니는 것은 그건.)
104013 #1 자가용.(자가용.)
104013 #3 집에 자가용이 뜨로 잇주게.(집에 자가용이 따로 있지.)
104013 @ 말도예? 그 자가용 허는 말을 뭐 뜨로 불르진 아녀마씨?(말도요? 그 자가용 하는 말을 뭐 따로 부르진 않아요?)
104013 #3 부르진 아녀.(부르진 않아.)
104013 @ 아.(아.)
104013 #3 타는 ᄆᆞᆯ.(타는 말.)
104013 @ 타는 ᄆᆞᆯ.(타는 말.)
104013 #3 언제든지 탕 다니니까.(언제든지 타서 다니니까.)
104013 @ 게믄 건 타는 ᄆᆞᆯ 이렇게만 ᄀᆞᆯ암구나예?(그러면 건 타는 말 이렇게만 말하는군요?)
104013 #3 ᄆᆞᆯ 보레 갈 때도 그거 탕 가곡.(말 보러 갈 때도 그거 타서 가고.)
104013 @ ᄆᆞᆯ 보레 뎅길 때는 어쨌든 ᄆᆞᆯ은 그 아까 절물벵뒤 말고 어느 산에 올려낫수가? 여기서는.(말 보러 다닐 때는 어쨌든 말은 그 아까 '절물벵뒤' 말고 어느 산에 올렸었습니까? 여기서는.)
104013 #3 아, 시안ᄆᆞ를[107]이라고.(아, '시안ᄆᆞ를'이라고.)
104013 @ 시안ᄆᆞ를예?('시안ᄆᆞ를'요?)
104013 #3 시안ᄆᆞ를에 주로 가주, ᄆᆞᆯ이.('시안ᄆᆞ를'에 주로 가지, 말이.)
104013 @ 여기에서 어느 정도 거리우과?(여기에서 어느 정도 거립니까?)
104013 #3 여기서 거리가.(여기서 거리가.)
104013 #1 성판악 좀 못 강.(성판악 좀 못 가서.)
104013 @ 음.(음.)
104013 #3 성판악 ᄒᆞ쏠 못 간 디주.(성판악 조금 못 간 데지.)
104013 @ 예.(예.)
104013 #3 절물. 절물 입구 바로 그.(절물. 절물 입구 바로 그.)
104013 @ 음.(음.)
104013 #1 넘어가민,(넘어가면,)
104013 #3 넘어간 디라.(넘어간 데야.)
104013 @ 예에, 게민 거기에서 그 정물벵듸까지 왕근에, ᄆᆞᆯ 보레 가젠 허민 어떵 허영 갑디가? 여기서 그 점심도 아졍가야 뒐 거 아니우과예?(예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정물벵듸'까지 와서, 말 보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여기서 그 점심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4013 #3 점심 싸아졍.(점심 싸가지고.)
104013 @ 예.(예.)

107) '시안ᄆᆞ를'은 제주시 지경의 하나다.

104013 #3 그땐 차가 없으니까 순 걸엉은에.(그땐 차가 없으니까 순 걸어서.)

104013 @ 예.(예.)

104013 #3 걸어가근에. 게난 물도 목장에 강 다 ᄒᆞᆫ 곤데만 먹진 아녀주게.(걸어가서. 그러니까 말도 목장에 가서 다 한 군데만 먹진 않지.)

104013 @ 예.(예.)

104013 #3 이쪽에 먹는 놈 저쪽에 먹는 놈 다 동떨어졍 먹는다 말이여.(이쪽에 먹는 놈 저쪽에 먹는 놈 다 동떨어져서 먹는다 말이야.)

104013 @ 예.(예.)

104013 #3 게민 ᄒᆞ루 종일 거 돌아봐아졍 오젱허민 어떤 땐 날이 저물어불어.(그러면 하루 종일 거 돌아봐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떨 땐 날이 저물어버려.)

104013 @ 예.(예.)

104013 #3 게민 그땐 젊은 때니까 저물어도 그냥 그땐 차가 엇어놓난 걸어가지고 집의 오는 거라. 오라 가민 ᄒᆞᆫ 저녁 열 시 뭰 때도 잇곡 늦엉 오민.(그러면 그땐 젊은 때니까 저물어도 그냥 그땐 차가 없어놓으니까 걸어가지고 집에 오는 거야. 와 가면 한 저녁 열 시 될 때도 있고 늦어서 오면.)

104013 @ 아침에 멧 시 나강마씨?(아침에 몇 시 나가서요?)

104013 #3 아침에 ᄒᆞᆫ ᄋᆞ덥 시에 나강근에.(아침에 한 여덟 시에 나가서.)

104013 @ ᄒᆞ루 종일예?(하루 종일요?)

104013 #3 물 다 강 춪아보곡 돌아보젠 허민 시간 엇이니까.(말 다 가서 찾아보고 돌아보려고 하면 시간 없으니까.)

104013 @ 멧 머리나 저기를 키와봅디가?(몇 마리나 저기를 키워봤습니까?)

104013 #3 나 ᄒᆞᆫ 삼십 두.(나 한 삼십 두.)

104013 @ 음. 삼십 두예? 아.(음. 삼십 두요? 아.)

104013 #1 동그렁에 밥 거리곡 허영.(도시락에 밥 뜨고 해서.)

104013 #3 밥 거리곡.(밥 뜨고.)

104013 @ 예, 그 말 ᄀᆞᆯ아 봅서. 그 밥 거리곡 허영 허는 말.(예, 그 말 말해 보십시오. 그 밥 뜨고 해서 하는 말.)

104013 #3 동고렁에 밥 거렁 가믄 시방은 물병도 잇엉 물도 마이병[108]에 질어아졍 먹고 허주만은 그땐 병이엔 헌 게 없거든. 그냥 뚠 병은 너무 그거 둔허곡. 경허민 이제 목은 칵칵 몰르고 밥 먹을 땐 뒈엿다 말여. 게민 그 저 봉천수[109].(도시락에 밥 떠서 가면 시방은 물병도 있어서 물도 보온병에 길어가지고 먹고 하지만 그땐 병이라고 한 게 없거든. 그냥 다른 병은 너무 그거 둔하고. 그러면 이제 목은 칵칵 마르고 밥 먹을 땐 되었다 말이야. 그러면 그 저 '봉천수'.)

104013 @ 예.(예.)

104013 #3 그런 물 춪앙은에 밥차롱 그냥 밥 신 차.(그런 물 찾아서 밥채롱 그

108) 구술자는 '마호병'을 '마이병'이라고 발음하였다. '마호병'은 일본어 'まほうびん'에서 온 말로, 표준어 '보온병'에 해당하는 말이다.

109) '봉천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의 의미다.

냥 밥 있는 채.)

104013 @ 물에 ᄃᆞᆼ강?(물에 담가서?)

104013 #3 ᄃᆞᆼ강.(담가서.)

104013 @ 예.(예.)

104013 #3 지싯데가리[110][지싣떼가리]에 거 밥 맛 좋으메.(장아찌에 거 밥 맛 좋아.)

104013 @ (웃음). 게난 그 지싯데가리는 어떤 지싯데가리로?((웃음). 그러니까 그 장아찌 대가리는 어떤 장아찌 대가리로?)

104013 #3 저 콥데산이엔 헌 거주. 옛날 콥데산이.(저 마늘이라고 한 거지. 옛날 마늘.)

104013 @ 콥데산이지시로예, 게믄 동그렁 졍 가젠 허민 뭐에 졍가수가?(마늘장아찌로요, 그러면 도시락 져서 가려고 하면 뭐에 져서 갔습니까?)

104013 #3 아, 거 끈이 잇어.(아, 거 끈이 있어.)

104013 #1 도시락이난.(도시락이니까.)

104013 @ 예, 그걸 그 끈은 뭐렌 헙니까?(예, 그걸 그 끈은 뭐라고 합니까?)

104013 #3 그 차롱끈이엔 허주게.(그 '채롱끈'이라고 하지.)

104013 @ 아, 차롱끈?(아, '채롱끈'?)

104013 #1 동고렁끈.('도시락끈'.)

104013 @ 동그렁끈 헹은에 동그렁에 이제?('도시락끈' 해서 도시락에 이제?)

104013 #3 주로 차롱끈이엔 허엿어.(주로 '채롱끈'이라고 했어.)

104013 @ 차롱끈예? 예에?('채롱끈'요? 예에?)

104013 #3 끈이 잇주.(끈이 있지.)

104013 #1 밥차롱.('밥채롱'.)

104013 @ 둘러메영은에. 으음. 그거 헤면은 밧 ᄇᆞᆯ리젠 허면 그것들을 이제 아래 내려와야 헐 거 아니우과?(둘러매서. 으음. 그거 하면은 밭 밟으려고 하면 그것들을 이제 아래 내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104013 #3 내려와야.(내려와야.)

104013 @ 밧 ᄇᆞᆯ렷던 얘기 ᄒᆞ꼼 헤여줍서.(밭 밟았던 얘기 조금 해주십시오.)

104013 #3 밧 ᄇᆞᆯ리믄 절물벵듸에 아침 인칙거니 강은에 그 ᄆᆞᆯ을 내려온다 말여. 선 ᄆᆞᆯ ᄒᆞ나만 몰거나 이끄거나 허민 다 ᄯᆞ라와.(밭 밟으면 '절물벵듸'에 아침 일찍거니 가서 그 말을 내려온다 말이야. 선두 말 하나만 몰거나 이끌거나 하면 다 따라와.)

104013 @ 음.(음.)

104013 #3 ᄆᆞᆯ덜이. 게민 집꺼지 온단 말여. 오널 누게네 밧 ᄇᆞᆯ린덴 허민 그 밧듸로 강 이젠 그 밧을 ᄇᆞᆯ리주.(말들이. 그러면 집까지 온단 말이야. 오늘 누구네 밭 밟는다고 하면 그 밭에로 가서 이젠 그 밭을 밟지.)

110) '지싯데가리'는 장아찌를 낮추어서 한 말이다.

104013 @ 예, 맨 앞에 서는 물을 선물[111]이렌 허여?(예, 맨 앞에 서는 말을 '선말'이라고 해?)

104013 #3 선물.(선말.)

104013 @ 뒤에 것덜은?(뒤에 것들은?)

104013 #3 뒤에 것덜은 그런 말은 엇어.(뒤에 것들은 그런 말은 없어.)

104013 @ 그 앞에 선말예?(그 앞에 선말요?)

104013 #3 선물.(선말.)

104013 @ 선물은 어떤 물을 선물로 허는 거라마씨?(선말은 어떤 말을 선말로 하는 거예요?)

104013 #3 선물은 질 그 말 잘 듣는 거.(선말은 제일 그 말 잘 듣는 거.)

104013 @ 음.(음.)

104013 #3 어, 녹대[112]허고 이끄지 아녀도이.(어, 굴레하고 이끌지 않아도.)

104013 @ 예.(예.)

104013 #3 몽뎅이만 들엉은엥에 영 끗엉은에 영 헤가민 물이 몽둥이 보멍 뚜라 가는 거라.(몽둥이만 들어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해가면 말이 몽둥이 보면서 따라 가는 거야.)

104013 @ 음.(음.)

104013 #3 영 돌아간 온 디 돌리민 물도 돌아오곡 경허멍 밧을 불리주.(이렇게 돌아가서 온 데 돌리면 말도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밭을 밟지.)

104013 @ 몽둥이로. 그 몽둥이는 뚜나게 이름은 엇어마씨?(몽둥이로. 그 몽둥이는 다르게 이름은 없어요?)

104013 # 뚜난 일름이 엇어. 몽둥이로.(다른 이름이 없어. 몽둥이로.)

104013 @ 촐 먹지 못허게 아까 녹대 헨게 녹대가 뭐우과?(꼴 먹지 못하게 아까 굴레 하던데 굴레가 뭡니까?)

104013 #3 녹댄 물 씌왕 이껑 뎅기는 거주게.(굴레는 말 씌워서 이끌고 다니는 거지.)

104013 @ 녹대 씌왕예? 그 입에 씌우는 거는?(굴레 씌워서요? 그 입에 씌우는 거는?)

104013 #3 망울.(망울.)

104013 @ 건 망울이고, 녹대는 영 허영 줄 헤가지고 이껑 뎅기는 거. 예, 예. 그 밧 불릴 때 소리 하영 헷지예? 옛날.(건 망울이고, 굴레는 이렇게 해서 줄 해가지고 이끌고 다니는 거. 예, 예. 그 밭 밟을 때 소리 많이 했지요? 옛날.)

104013 #3 헤난디 이제는 다 잊어불고.(했었는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104013 @ 혼번 헤봅서.(한번 해보세요.)

104013 #3 목소리도 안 나오고.(목소리도 안 나오고.)

---

111) '선물'은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을 때, 맨 앞에 서는 말'을 일컫는 말이다.

112) '녹대'는 표준어 '굴레'의 의미다. '굴레'는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104013 @ 나오는 만큼만.(나오는 만큼만.)

104013 #3 (웃음).(웃음).

104013 @ 이 밧 혼번 불려보게마씸.(이 밭 한번 밟아보게요.)

104013 #3 다 잊어불언 뭐.(다 잊어버려서 뭐.)

104013 @ 튿내지는 만큼. 자 여기 물덜 핫수다. 이 물도 잇고 이 물도 잇고.(생각나는 만큼. 자 여기 말들 많습니다.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고.)

104013 #3 어려려 에, 어~어~ 아이고, 안 나오키여. 어려 어려 어어어어 아이고, 안 뒈커라.(어려려 에, 어~어~ 아이고, 안 나오겠다. 어려 어려 어어어어 아이고, 안 되겠어.)

104013 @ 안 뒈쿠가?(안 되겠습니까?)

104013 #3 목이 안 나오네.(목이 안 나오네.) `

104013 @ 알앗수다. 어려 어려 허잖아예? 물 몰 때는 뭐렌 허멍 몰아마씨?(알았습니다. 어려 어려 하잖아요? 말 몰 때는 뭐라고 하면서 몰아요?)

104013 #3 게난 소리로 모는 거주.(그러니까 소리로 모는 거지.)

104013 @ 소리로.(소리로.)

104013 #3 두에 물 모는 사름이 세 사름이 잇어. 요 놈 물덜이 꿰가 좋은 놈덜은 밧을 안 불리젠 뚠 디레 도망가는 놈들 잇주. 게난 뒤에 사름은 쫓아가서 문 거 두와들이고 ᄀᆞ치 영 뭉치게 몰곡.(뒤에 말 모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 요 놈 말들이 꾀가 좋은 놈들은 밭을 안 밟으려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놈들 있지. 그러니까 뒤에 사람은 쫓아가서 몽땅 거둬들이고 같이 이렇게 뭉치게 몰고.)

104013 @ 그런 사름은 뭐허는 사름이렌 ᄀᆞᆯ아마씨?(그런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104013 #3 밧 불리는 사름이엔 허주.(밭 밟는 사람이라고 하지.)

104013 @ 밧 불리는 사름이고. 물테우린 뭐렌 헤? 선장 물 이끄는 사름은 삼촌 ᄀᆞ튼 사름?(밭 밟는 사람이고. 목동은 뭐라고 해? 선장 말 이끄는 사람은 삼촌 같은 사람?)

104013 #3 그땐 가믄 물 임제엔 허주게.(그땐 가면 말 임자라고 하지.)

104013 @ 물 임제, 물 임제예? 그 무사 밧 불리젠 허면 그냥 우리 밧 불려 줍서만 허영 말로만 허는 거 아니, 아니우꽈예? 혼 밧 불리믄 그 옛날 쿰이렌 헙니까?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받안마씨?(말 임자, 말 임자요? 그 왜 밭 밟으려고 하면 그냥 우리 밭 밟아 주세요만 해서 말로만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한 밭 밟으면 그 옛날 품삯이라고 합니까?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104013 #1 품.(품삯.)

104013 @ 품.(품삯.)

104013 #3 품은 그, 밧 말지기로 허여. 멧 말지기 허믄 얼마? 말지기로 허영은 에 벡 원엔 허민, 백 원에 열 마지기민 천 원 이런 식으로 받주게.(품삯은 그, 밭 마지기로 해. 몇 마지기 하면 얼마? 마지기로 해서 백 원이라고 하면, 백 원에 열

마지기면 천 원 이런 식으로 받지.)

104013 @ 흔 말지기에 얼마 허는 식으로예. 경허고 그 물 조 불리젠 허면 그 불리기 전에 막 고사도 지넷덴 허멍예?(한 마지기에 얼마 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하고 그 말 조 밟으려고 하면 그 밟기 전에 마구 고사도 지냈다고 하면서요?)

104013 #1 건 밧 임제.(건 밭 임자.)

104013 @ 음.(음.)

104013 #1 밧 임제가 코ᄉᆞ허는 거.(밭 임자가 고사하는 거.)

104013 #3 밥 먹을 때나 코ᄉᆞ허주. 벨도로 코ᄉᆞ허는 거 아녀.(밥 먹을 때나 고수레하지. 별도로 고사하는 거 않아.)

104013 @ 경 헤도 밧 불리젠 허면 물테우리안티 궤기도 궝은에 대접허고 헌덴 헙디다. 밥도. 경은 아녀수과? 여기는. 아이고, 삼춘은 못 얻어먹엇구나게.(그렇게 해도 밭 밟으려고 하면 목동한테 고기도 궈서 대접하고 한다고 합디다. 밥도. 그렇게는 안했습니까? 여기는. 아이고, 삼촌은 못 얻어먹었구나.)

104013 #1 (웃음).

104013 @ 막 우럭, 밧머리에서 그 밧멍에에서 고사도 지낸덴 허멍은에.(마구 우럭, 밭머리에서 그 밭머리에서 고사도 지낸다고 하면서.)

104013 #3 밧 불리젠 허믄 밥 먹거든. 밥 먹엉 불리거든. 밥 거려 돌아앚일 거 아니라게. 돌아앚이민 딱 제각기민, 제각기 이레도 던지곡 이레도 던지곡. 겐디 우린 안 헤봣어.(밭 밟으려고 하면 밥 먹거든. 밥 먹어서 밟거든. 밥 떠서 돌아앉을 거 아닌가. 돌아앉으면 딱 제각기면, 제각기 이리도 던지고 이리도 던지고. 그런데 우린 안 해봤어.)

104013 @ 삼춘 안 헤 봣구나예?(삼촌 안 해 봤군요?)

104013 #1 코사 그 바닷고기 헤당 허는 것도 사람에 메여가지고 허는 사름이 잇고 아녀는 사름이 잇고.(고사 그 바닷고기 해다가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고.)

104013 @ 아아.(아아.)

104013 #3 대개는 허는 걸로 봐야주.(대개는 하는 걸로 봐야지.)

104013 @ 예. 이 동네 도련에서는 이제 밧 이렇게 불려주는 사름이 멧 어른이나 잇어낫우과?(예. 이 동네 도련에서는 이제 밭 이렇게 밟아주는 사람이 몇 어른이나 있었습니까?)

104013 #3 어, 두 집, 세 집.(어, 두 집, 세 집.)

104013 @ 세 집.(세 집.)

104013 #3 세 집.(세 집.)

104013 @ 그런 집의가 부제우과?(그런 집이 부잡니까?)

104013 #3 그땐 물 하민 부제주.(그땐 말 많으면 부자지.)

104013 @ 그렇게 이제 하고, 물총은 풀고 허지예.(그렇게 이제 하고, 말총은 팔고 하지요.)

104013 #3 으. 일 년에 흔 번 비주게. 물총을.(아. 일 년에 한 번 베지. 말총을.)

104013 @ 아, 물총을. 언제 건 언제 비는 거우과?(아, 말총을. 언제 건 언제 베는 겁니까?)

104013 #3 봄에.(봄에.)

104013 @ 봄에.(봄에.)

104013 #3 물총 비고 낵인이라고 낵인이라고 궁둥이에 낵인 주는 게 잇어. 봄 나민 내려왕 밧 불령 올라갈 때 물총 비곡 갈기 비곡 이 머리털은 뭐엔 헌다마는. 멩털[113], 멩털.(말총 베고 낙인이라고 낙인이라고 궁둥이에 낙인 주는 게 있어. 봄 되면 내려와서 밭 밟고 올라갈 때 말총 베고 갈기 베고 이 머리털은 뭐라고 한다만. '멩털', '멩털'.)

104013 @ 멩털?('멩털'?)

104013 #3 멘털. 것도 믄딱 비곡 총도 믄딱 비곡.('멘털'. 것도 몽땅 베고 총도 몽땅 베고.)

104013 #1 얼굴에 털이니까 멘털.(얼굴에 털이니까 '멘털'.)

104013 #3 멘털, 멘털.('멘털', '멘털'.)

104013 @ 멩털.('멩털'.)

104013 #1 늦 멘 자.(낮 면 자.)

104013 @ 얼굴에 허니까 멘털.(얼굴에 하니까 '멘털'.)

104013 #1 이건 갈귀.(이건 갈기.)

104013 #3 갈귀, 갈귀.(갈기, 갈기.)

104013 @ 게민 삼춘, 갈귀 용도는 뭐우과?(그러면 삼촌, 갈기 용도는 뭡니까?)

104013 #3 갈귀 용도는 대개는 보면은 그 당시에 또 무신 거고? 뭐옌 허는고. 에고, 뭐옌 헌다마는, 뭐.(갈기 용도는 대개는 보면 그 당시에 또 무슨 거니?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한다만, 뭐.)

104013 #1 비.(비.)

104013 #3 풀비 ᄀᆞ튼 거.(풀비 같은 거.)

104013 @ 예.(예.)

104013 #3 종이에 영 도배헐 때 쓰는 그런 거 만들고.(종이에 이렇게 도배할 때 쓰는 그런 거 만들고.)

104013 @ 으, 붓예? 그 그걸 풀비엔 허여마씨?(으, 붓요? 그 그걸 풀비라고 해요?)

104013 #1 풀비.(풀비.)

104013 @ 풀비?(풀비?)

104013 #3 풀짓[114]헐 때 칠허는 거.('풀짓' 할 때 칠하는 거.)

104013 @ 아 풀짓, 아 그거 만들고. 꼬리는?(아 '풀짓', 아 그거 만들고. 꼬리

113) '멩털'은 '말의 이마에서 내려온 털'을 의미한다. '멩털'은 달리 '멘털'이라고도 한다.
114) '풀짓'은 '풀+짓' 구성으로, '풀을 칠하는 짓'의 의미로 쓰였다.

는?)

104013 #3 꼬리는 좀 아까도 말헷주마는 탕근.(꼬리는 좀 아까도 말했지만 탕건.)

104013 @ 탕건허는 거예? 이 멘털은마씨?(탕건하는 거요? 이 '멘털'은요?)

104013 #3 멘털은?('멘털'은?)

104013 #1 갈기에 ᄀᆞ치 들어가.(갈기에 같이 들어가.)

104013 #3 갈기에 ᄀᆞ치 들어가.(갈기에 같이 들어가.)

104013 @ 게믄 그런 것도 풀고, (웃음) 이제 뭐 붓 ᄀᆞ튼 거는 안 만듭니까? 물헌 거는?(그러면 그런 것도 팔고, (웃음) 이제 뭐 붓 같은 거는 안 만듭니까? 말 하는 거는?)

104013 #3 물은 붓은 안 만들어.(말은 붓은 안 만들어.)

104014 @ 물은 붓은 안 만들고예? 그렇게 하고, 물은 이제 나이는 어떤 식으로 세여마씨?(말은 붓은 안 만들고요? 그렇게 하고, 말은 이제 나이는 어떤 식으로 세요?)

104014 #3 나이는 곧 나민 금승ᄆᆞᆼ아지[115].(나이는 곧 낳으면 하릅망아지.)

104014 @ 예.(예.)

104014 #3 금승, 금승ᄆᆞᆼ아지, 두술배기는 이수매[116], 삼수매[117], ᄉᆞ수매[118] 영 여녕을.(하릅, 하릅망아지, 두 살배기는 '이수매', '삼수매', '사수매' 이렇게 연령을.)

104014 @ 예, 겡은에 여녕을 멧까지 셉니까?(예, 그래서 연령을 몇까지 셉니까?)

104014 #3 게난 그 마지막 죽을 때ᄁᆞ지 부려보질 아녀난 수명은 모르커라.(그러니까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부려보질 않으니까 수명은 모르겠어.)

104014 @ 수명은 모르고예? 게영 삼춘은 멧 수매까지 세 봅디까?(수명은 모르고요? 그래서 삼촌은 몇 '수매'까지 세어 봤습니까?)

104014 #1 ᄒᆞᆫ ᄋᆞ덥 술ᄁᆞ진.(한 여덟 살까지는.)

104014 #3 멧 수ᄁᆞ지.(몇 수까지.)

104014 @ 예.(예.)

104014 #3 멧 머리?(몇 마리?)

104014 #1 아니, 아니, 낫술, 낫술?(아니, 아니, 나이, 나이?)

104014 @ 낫술을?(나이를?)

104014 #1 그 질 큰 물 ᄋᆞ덥 술ᄁᆞ지나 키와봅디가?(그 제일 큰 말 여덟 살까지나 키워봤습니까?)

104014 #3 아, 나이.(아, 나이.)

---

115) '금승ᄆᆞᆼ아지'는 '금승+ᄆᆞᆼ아지' 구성으로, 한 살 된 망아지를 가리킨다. '금승'은 표준어 '하릅'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16) '이수매'는 '두 살 된 말'의 의미다.

117) '삼수매'는 '세 살 난 말'의 의미다.

118) 'ᄉᆞ무매'는 '네 살 된 말'의 뜻이다.

104014 @ 나이.(나이.)

104014 #3 나이. 우리 벡마는 열 솔도 넘주.(나이. 우리 백마는 열 살도 넘지.)

104014 @ 게믄 그건 열 설 넘은 거는 뭐렌 세여수가? 멧 솔이엔 골아수가?(그러면 그건 열 살 넘은 거는 뭐라고 셌습니까? 몇 살이라고 말했습니까?)

104014 #3 삼수매, 사수매. 그건 모르커라.('삼수매', '사수매'. 그런 모르겠어.)

104014 @ 오수매 육수매 영은 안 골아마씨?('오수매' '육수매' 이렇게는 안 말해요?)

104014 #3 아 세지.(아 세지.)

104014 @ 그거를 세어질 때까지 세어 봅서?(그거를 세어질 때까지 세어 보세요?)

104014 #3 금승 이수 두 설짜린 이수주게. 이수, 삼수, 오수.(하릅 이듭 두 살짜린 '이수'지. 이듭 사릅, 다습.)

104014 #1 ᄉᆞ수.(나릅.)

104014 #3 오수 육수 칠수[119] 팔수[120] 구수[121] 십수[122]엔 헷네.(다습, 여습 '칠수' '팔수' '구수' '십수'라고 했네.)

104014 @ 십수엔은 아녀도 십수예? 아, 백ᄆᆞᆯ.(십수라고는 안 해도 '십수'요? 아, 백마.)

104014 #3 그렇게 뒛주게.(그렇게 됐지.)

104015 @ 그렇게 이제 허고. 그 ᄆᆞᆯ 질루멍예, 잊어불지 못허는 이런 이야기가 잇지예? 산에 갓당 질 잃어먹을 수도 잇고. 새끼는 어떤 식으로 나왓고 이런 것들.(그렇게 이제 하고. 그 말 기르면서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산에 갔다가 길 잃어먹을 수도 있고. 새끼는 어떤 식으로 나왔고 이런 것들.)

104015 #3 새끼는 ᄌᆞ연분만 뒈니까 허는데, 그 새끼 나면은 옛 어른들 말이 ᄀᆞ른세[123]라고.(새끼는 자연분만 되니까 하는데, 그 새끼 낳으면 옛 어른들 말이 'ᄀᆞ른세'라고.)

104015 @ ᄀᆞ른세?('ᄀᆞ른세'?)

104015 #3 ᄀᆞ른세라고 그 세를 물어 가지고 난다 허여.('ᄀᆞ른세'라고 그 혀를 물어 가지고 난다 해여.)

104015 @ 아아.(아아.)

104015 #3 나면은 가마귀가 어떻게 알앗는지 그냥 떨어지자 말자 그냥 가마귀가 차가분다 허여. 게난 우린 보도 못헷어게. 그런 말만 들엇주.(나면 까마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떨어지자 말자 그냥 까마귀가 채가 버린다 해. 그러니까 우린 보도 못했어. 그런 말만 들었지.)

---

119) '칠수' '말의 나이 일곱 살'을 일컫는 말이다.
120) '팔수'는 '말의 나이 여덟 살'을 일컫는 말이다.
121) '구수'는 '말의 나이 아홉 살'을 일컫는 말이다.
122) '십수'는 '말의 나이 열 살'을 가리킨다.
123) 'ᄀᆞ른세'는 '말의 새끼가 태어날 때 입으로 가로로 물고 나오는 물건'을 말한다. 'ᄀᆞ른+세' 구성으로,

104015 #1 약으로 쓰고.(약으로 쓰고.)

104015 #3 약재로 상당히 좋다는 건디.(약재로 상당히 좋다는 건데.)

104015 #1 한방에서 약재로 쓴다고.(한방에서 약재로 쓴다고.)

104015 @ 그 ᄀᆞ른세는 뭐우과?(그 'ᄀᆞ른세'는 뭡니까?)

104015 #3 게메. ᄀᆞ른셀 물엉, 세 닮은 건디 이렇게 가로 물어부난 나니까 ᄀᆞ른세라 허는 거주게.(글쎄. 'ᄀᆞ른세'를 물어서, 혀 같은 건데 이렇게 가로 물어버리니까 낳으니까 'ᄀᆞ른세'라 하는 거지.)

104015 #1 즉 말허면 태아 속에서 양식.(즉 말하면 태아 속에서 양식.)

104015 @ 예.(예.)

104015 #3 뭐 그런 것 같애.(뭐 그런 것 같아.)

104015 #1 양식이라고 허는디 그걸 가지고 이 한방에서는 아주 그 저 요긴허게 쓰는 뭐 한방.(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한방에서는 아주 그 저 요긴하게 쓰는 뭐 한방.)

104015 @ 음.(음.)

104015 #3 약재.(약재.)

104015 #1 약재.(약재.)

104015 @ 약재로예? 아, 게믄 이제 그거를 뭐 토해내거나 이런 건가마씨? 아니면은?(약재로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토해내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104015 #1 건 어떻게 하는지.(건 어떻게 하는지.)

104015 #3 물어서 난덴.(물어서 낳는다고.)

104015 #1 물어서 난다고 허니깐.(물어서 낳은다고 하니깐.)

104015 @ 물어서 난덴예? 사람 용 쓰는 것처럼 이제.(물어서 낳는다고요? 사람 용 쓰는 것처럼 이제.)

104015 #1 게난 벳소곱에서 그거 물어서 크고 먹다 남은 게 이제.(그러니까 뱃속에서 그거 물어서 크고 먹다 남은 게 이제.)

104015 @ 토해내는 거.(토해내는 거.)

104015 #3 그런 건 모냥이라.(그런 것인 모양이야.)

104015 @ 아, 그래서 ᄀᆞ른세렌 ᄀᆞᆯ아예? ᄆᆞᆯ들은 성은에 잔덴 허지 아녕니까예? 그 말이 맞은 말이우과? 누웡은에 자는 것덜도 이선게마는. 요즘 목장에 보니까.(아, 그래서 'ᄀᆞ른세'라고 말해요? 말들은 서서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은 말입니까? 누워서 자는 것들도 있더니만. 요즘 목장에 보니까.)

104015 #3 눵도 자.(누워서도 자.)

104015 @ 예.(예.)

104015 #3 사둠서 허여.(서두고서 해.)

104016 @ 그런 식으로 헌덴예? 어, 그런 식으로 헤서 그 ᄆᆞᆯ하고. 그 ᄆᆞᆯ들은 보통 이제 그 뭘, 하영 주로 뭐 먹어마씨?(그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말하고. 그 말들은 보통 이제 그 뭘, 많이 주로 뭐 먹어요?)

104016 #3 뭐 먹느냐고?(뭐 먹느냐고?)

104016 @ 예.(예.)

104016 #3 먹는, 풀 먹는 거주게.(먹는, 풀 먹는 거주게.)

104016 @ 풀들예? 게난 무사 쉐덜은 ᄆᆞ른 촐도 왕 허는데 ᄆᆞᆯ덜도 경헙니까?(풀들요? 그러니까 왜 소들은 마른 꼴도 와서 하는데 말들도 그렇게 합니까?)

104016 #3 ᄆᆞᆯ덜도 경허여. 겐디 우리 ᄆᆞᆯ덜은 산에만 사니까 촐헤당 멕이진 아녀봣주.(말들도 그렇게 해. 그런데 우리 말들은 산에만 사니까 꼴을 해다가 먹이진 안 해봤지.)

104016 @ 아, 촐헤당 멕이진 아녀고예?(아, 꼴 해다가 먹이진 않고요?)

104016 #3 산에만 사니까.(산에만 사니까.)

104016 @ 게믄 새끼 나면 어떵 헷수가?(그러면 새끼 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104016 #3 새끼 낳믄 봄나면은 벵뒤[124]에 오랑은에 낳니까 다 알주게.(새끼 낳으면 봄되면 '벵뒤'에 와서 낳으니까 다 알지.)

104016 @ 아아, 새끼는 봄 뒈영 나마씨?(아아, 새끼는 봄 되어서 낳아요?)

104016 #3 봄 뒈영 나니까?(봄 되어서 낳으니까?)

104016 @ 아, 겨울엔 안 나고.(아, 겨울엔 안 낳고.)

104016 #3 겨울엔 안 나.(겨울엔 안 낳아.)

104016 @ 건 멧 개월에 나는 거우과?(건 몇 개월에 낳는 겁니까?)

104016 #3 ᄆᆞᆯ이 십이, 십이 개월옌 허메.(말이 십이, 십이 개월이라고 해.)

104016 #1 열두 ᄃᆞᆯ.(열두 달.)

104016 #3 열두 ᄃᆞᆯ.(열두 달.)

104016 @ 아, 경 허난 딱 그 철이 딱 알아지는 거구나. 음.(아, 그렇게 하니까 딱 그 철이 딱 알아지는 거구나. 음.)

104016 #3 열두 ᄃᆞᆯ.(열두 달.)

104016 @ 보통 봄에예? 아, 열두 ᄃᆞᆯ 만이 이제.(보통 봄에요? 아, 열두 달 만에 이제.)

104016 #1 봄에 우레 창. 우레 그 저 교미헌 땐 우레 찬덴 허주, 우레 찬.(봄에 흘레 차서. 흘레 그 저 교미할 땐 흘래 찬다고 하지, 흘레 찼어.)

104016 @ 아.(아.)

104016 #1 봄에 우레 창 다시 봄 나민 새끼 나는 거.(봄에 흘레 차서 다시 봄 되면 새끼 낳는 거.)

104016 @ 그 말 ᄒᆞᆫ번 ᄀᆞᆯ아줘 봅서, 삼춘이. 우레 차는 건 뭐우과? 우레 차는 건.(그 말 한번 말해 주십시오, 삼춘이. 흘레 차는 건 뭡니까? 흘레 차는 건.)

104016 #3 우레 차는 거는 건 교미허는 거주게.(흘레 차는 거는 건 교미하는 거지.)

104016 @ 예.(예.)

---

124) '벵뒤'는 '평평한 들판'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104016 #3 봄에 이젠 교미 받앙은에게 새봄 나면은 나주.(봄에 이젠 교미 받아서 새봄 되면 낳지.)
104016 @ 예.(예.)
104016 #3 딱 열두 둘 뒈면 나.(딱 열두 달 되면 낳아.)

먹이

104016 @ 예, 알앗수다. 그 말이나 저기 쉐나 먹이는 어떤 것들 잇어마씨?(예, 알았습니다. 그 말이나 저기 소나 먹이는 어떤 것들 있어요?)
104016 #1 먹이는 옛날 없는 집의서는 촐.(먹이는 옛날 없는 집에서는 꼴.)
104016 @ 예.(예.)
104016 #1 풀 말려 가지고 이제 ᄀᆞ실, ᄀᆞ실 들민 하늬ᄇᆞ름 올리민 촐 비영 놧당 근엥에 그거 멕이는 게 뭐이고. 따시 곡석, 곡식 헤난 그 저 남뎅이덜.(풀 말려 가지고 이제 가을, 가을 들면 하늬바람 올리면 꼴 베어서 놨다가 그거 먹이는 게 뭣이고. 다시 곡식, 곡식 했던 그 저 대들.)
104016 @ 예, 예.(예, 예.)
104016 #1 이제 그걸 같이 놧당 또 멕이고.(이제 그걸 같이 놨다가 또 먹이고.)
104016 @ 음, 게난 곡석헤난 그 남뎅이 멕이는 건 주로 뭐, 뭐마씨?(음, 그러니까 곡식했던 그 줄기 먹이는 건 주로 뭐, 뭐예요?)
104016 #1 조, 조남뎅이허곡.(조, 조대하고.)
104016 @ 음.(음.)
104016 #1 이제 나록. 산듸.(이제 벼. 산도.)
104016 @ 예.(예.)
104016 #1 나록은 좀 드물엇으니깐.(벼는 좀 드물었으니깐.)
104016 @ 예, 예, 예.(예, 예, 예.)
104016 #1 산듸허곡 또 감젓줄 ᄀᆞ뜬 거.(산도하고 또 고구마 줄기 같은 거.)
104016 @ 아, 감젓줄도 멕이고예?(아, 고구마 줄기도 먹이고요?)
104016 #1 감절줄 ᄀᆞ뜬 거.(고구마 줄기 같은 거.)
104016 @ 감젓줄 ᄀᆞ튼 거예?(고구마 줄기 같은 거요?)
104016 #1 밧듸서 나는 건 먹으나 안 먹으나 걸름도 허곡.(밭에서 나는 건 먹으나 안 먹으나 거름도 하고.)
104016 @ 예.(예.)
104016 #1 그자 앗당 주민.(그자 가져다가 주면.)
104016 @ 으음. 그.(으음. 그.)
104016 #1 그런 건 일거양득이지.(그런 건 일거양득이지.)
104016 @ 예.(예.)
104016 #1 먹여서 배불리고 다시 퇴, 걸름허곡.(먹여서 배불리고 다시 퇴, 거름하고.)

104017 @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아까 촐 어떵 마련헤마씨?(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아까 꼴 어떻게 마련해요?)

104017 #1 촐은 가을 들멘 하늬ᄇᆞ름[125] ᄉᆞ꾸멘[126].(꼴은 가을 들면 하늬바람 'ᄉᆞ꾸면'.)

104017 @ 예.(예.)

104017 #1 하늬ᄇᆞ름이 ᄉᆞ꾸덴 헌 거 하늬ᄇᆞ름 불기시작허면은?(하늬바람이 'ᄉᆞ꾸다'고 한 거 하늬바람 불기시작하면은?)

104017 @ 아, 하늬ᄇᆞ름 ᄉᆞ끈덴 헙니까?(아, 하늬바람 'ᄉᆞ끈다'고 합니까?)

104017 #1 어, 하늬ᄇᆞ름은 ᄉᆞ꾸와.(어, 하늬바람은 'ᄉᆞ꾸와'.)

104017 @ 예, 예.(예, 예.)

104017 #1 분덴 말 그건.(분다는 말 그건.)

104017 @ 예, 예, 예.(예, 예, 예.)

104017 #1 게믄 이제 촐밧듸 강은에 촐덜 그냥 너나 할 것 엇이 목장, 목장 그 촐왓듸덜 강 다 촐 비기 시작헤여.(그러면 이제 꼴밭에 가서 꼴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목장, 목장 그 꼴밭에들 가서 다 꼴 베기 시작해.)

104017 @ 하늬ᄇᆞ름 ᄉᆞ꾸민예?(하늬바람 'ᄉᆞ꾸면요'?)

104017 #1 ᄒᆞᆫ 메칠 ᄆᆞ리우민.(한 며칠 말리면.)

104017 @ 예.(예.)

104017 #1 거 무껑 이젠 저 이제 눌어두는 거주.(거 묶어서 이젠 저 이제 가리어 두는 거지.)

104017 @ 예, 예, 예, 예. 그 하늬ᄇᆞ름은 어느 펜이로 부는 걸 하늬ᄇᆞ름이렌 헙니까? 이 동네서는.(예, 예, 예, 예. 그 하늬바람은 어느 편으로 부는 걸 하늬바람이라고 합니까? 이 동네서는.)

104017 #1 여기서도 서북풍이지. 하늬ᄇᆞ름.(여기서도 서북풍이지. 하늬바람.)

104017 @ 아, 여기서는 서북풍이렌 ᄀᆞᆯ읍니까? 북풍이 아니고.(아, 여기서는 서북풍이라고 말합니까? 북풍이 아니고.)

104017 #1 에, 서북풍.(에, 서북풍.)

104017 @ 서북풍. 게믄 그 바람이름도 다 ᄐᆞ나켜예?(서북풍. 그러면 그 바람이름도 다 다르겠네요?)

104017 #1 게난 ᄇᆞ름 이름이.(그러니까 바람 이름이.)

104017 @ 예.(예.)

104017 #1 에, 나도 지금 이때까지 살아도.(에, 나도 지금 이때까지 살아도.)

104017 @ 예.(예.)

104017 #1 그 어들로 어떻게 오는 걸 지금 잘 모르겠는데 샛ᄇᆞ름, 마ᄇᆞ름 뭐 갈

125) '하늬ᄇᆞ름'은 표준어 '하늬바람'에 대응하는 말이다. 제주시 도련1동에서 '하늬ᄇᆞ름'은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킨다.

126) '하늬ᄇᆞ름 ᄉᆞ꾸멘'은 '하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의 의미다. 제주시 도련1동에서 관용표현처럼 쓰이는 말이다.

ᄇᆞ름, 하늬ᄇᆞ름, 뭐 섯마ᄇᆞ름, 동마ᄇᆞ름, 이제 그 정도벳기 모르겠네.(그 어디로 어떻게 오는 걸 지금 잘 모르겠는데 샛바람, 마파람 뭐 갈바람, 하늬바람, 뭐 '섯마바람', '동마파람', 이제 그 정도밖에 모르겠네.)

104017 @ 예. 근데 어느 방향은 모르쿠과?(예. 근데 어느 방향은 모르겠습니까?)

104017 #1 방향은 대개 마ᄇᆞ름[127]은 여기서는 한라산 쪽, 한라산 서쪽으로 오는 게.(방향은 대개 마파람은 여기서는 한라산 쪽, 한라산 서쪽으로 오는 게.)

104017 @ 예.(예.)

104017 #1 이제 서쪽. 동쪽으로 오는 건 동마ᄇᆞ름[128]이고.(이제 서쪽. 동쪽으로 오는 건 '동마파람'이고.)

104017 @ 예.(예.)

104017 #1 한라산 서쪽으로 오민 섯마ᄇᆞ름[129]이고.(한라산 서쪽으로 오면 '섯마파람'이고.)

104017 @ 거난 한라산 동펜이는 동마.(거난 한라산 동편은 '동마'.)

104017 #1 동마. 서쪽으로 오민 섯마.(동마. 서쪽으로 오민 '섯마'.)

104017 @ 예, 섯마.(예, '섯마'.)

104017 #1 이젠 섯갈이 잇는데.(이젠 '섯갈'이 있는데.)

104017 @ 예.(예.)

104017 #1 서쪽으로 오는 갈ᄇᆞ름이 잇는데, 어르 거 어떻게 부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서쪽으로 오는 갈바람이 있는데, 어느 거 어떻게 부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

104017 @ 여기서 주로 말허는 게 하늬ᄇᆞ름 부르고.(여기서 주로 말하는 게 하늬바람 부르고.)

104017 #1 샛ᄇᆞ름.(샛바람.)

104017 @ 샛ᄇᆞ름은 어디우과?(샛바람은 어디입니까?)

104017 #1 샛ᄇᆞ름은 동으로 오는 거.(샛바람은 동으로 오는 거.)

104017 @ 아, 샛ᄇᆞ름은 동으로 오는 거.(아, 샛바람은 동으로 오는 거.)

104017 #1 저 하늬ᄇᆞ름은 서북풍.(저 하늬바람은 서북풍.)

104017 @ 예, 서북풍. 여기서 서북풍은 어디 쪽 뒈는 거우과?(예, 서북풍. 여기서 서북풍은 어디 쪽 되는 겁니까?)

104017 #1 이제 저 사라봉.(이제 저 사라봉.)

104017 @ 아, 사라봉 쪽이 서북풍 뒈는 거우과? 어, 거기 오면, 사라봉 쪽으로 오면 하늬ᄇᆞ름이렌 허는 거라예.(아, 사라봉 쪽이 서북풍 되는 겁니까? 어, 거기 오면, 사라봉 쪽으로 오면 하늬바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104017 #1 겨울바람.(겨울바람.)

---

127) '마ᄇᆞ름'은 '마파람'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제주시 도련1동에서는 '한라산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바람 이름이다.

128) '동마ᄇᆞ름'은 제주시 도련1동에서는 '한라산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바람 이름이다.

129) '섯마ᄇᆞ름'은 제주시 도련1동에서 '한라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바람 이름이다.

104017 @ 예, 아, 게믄 여기는 겨울바람이 서북풍이구나예?(예, 아, 그러면 여기는 겨울바람이 서북풍이군요?)

104017 #1 예, 서북풍.(예, 서북풍.)

104017 @ 그 다음에 갈ᄇᆞ름은 어디우과?(그 다음에 갈바람은 어딥니까?)

104017 #1 게메, 갈ᄇᆞ름을 지금 누게안티 들어도 뚜렷하게 말해주는 사름이 없어. 갈ᄇᆞ름 어떵 어들로 오는 게 갈ᄇᆞ름이렌 들어도.(글쎄, 갈바람을 지금 누구한테 들어도 뚜렷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갈바람 어떻게 어디로 오는 게 갈바람이라고 물어도.)

104017 @ ᄇᆞ름도 이영숙 하르방안티 들어보면 뒈켜예? 어르신이니까예?(바람도 이영숙 할아버지한테 들어보면 되겠네요? 어르신이니까요?)

104017 #1 예.(예.)

104018 @ 그렇게 하고 으, 촐 벳던 기억 같은 거?(그렇게 하고 으, 꼴 벴던 기억 같은 거?)

104018 #1 아 이 촐은 뭐 아침 독 울민 비지 저 해가 뜨기 전에.(아 이 꼴은 뭐 아침 닭 울면 빛이 저 해가 뜨기 전에.)

104018 @ 예.(예.)

104018 #1 새벽에 이제 촐밧듸 강.(새벽에 이제 꼴밭에 가서.)

104018 @ 음.(음.)

104018 #1 이제 촐 보아질 때 정도 뒈민 그냥 비기 시작헤영.(이제 꼴 봐질 때 정도 되면 그냥 베기 시작해서.)

104018 @ 예.(예.)

104018 #1 이제 ᄒᆞ를 해 넘어가민 또 오곡 그렇게 헤영.(이제 하루 해 넘어가면 또 오고 그렇게 해서.)

104018 @ 여기서는 촐 빌 때 어떤?(여기서는 꼴 벨 때 어떤?)

104018 #1 그냥 좀호미라고 헤여. 낫.(그냥 좀호미라고 해. 낫.)

104018 @ 예.(예.)

104018 #1 낫으로 비고. 그 낫이엔 허민 저 좀호미[130]엔 헹근엥에 영 그 뭐인디, 이 저 어디 세화 저쪽으론 가면은.(낫으로 베고. 그 낫이라고 하면 저 '좀호미'라고 해서 이렇게 그 뭐인데, 이 저 어디 세화 저쪽으론 가면.)

104018 @ 예.(예.)

104018 #1 한동 저쪽으로 구좌, 구좌로 낫이엔 허민 장낫[131].(한동 저쪽으로 구좌, 구좌로 낫이라고 하면 '장낫'.)

104018 @ 긴 거예?(긴 거요?)

104018 #1 장낫을 허고. 여기서는 그냥.('장낫'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

130) '좀호미'는 '좀+호미' 구성으로, 한 줌씩 쥐어서 벨 때 사용하는 낫이다. '좀'은 표준어 '줌'의 옛말이다. 꼴 따위를 벨 때 서서 두 손으로 베는 '장낫'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이다.

131) '장낫'은 '장(長)+낫' 구성으로, '자루가 긴 낫'을 말한다. '장낫'을 이용하여 꼴 따위를 베려고 하면 서서 베야 한다.

104018 @ 음, 좀호미.(음, ‘좀호미’.)
104018 #1 이 저 육짓말로 낫.(이 저 육지말로 낫.)
104018 @ 예, 예, 예.(예, 예, 예.)
104018 #1 좀호미.(‘좀호미’.)
104018 @ 좀호미렌 헙니까?(‘좀호미’라고 합니까?)
104018 #1 좀호미.(‘좀호미’.)
104018 @ 음, 좀호미예, 그걸로 여기는 비는구나예? 저쪽 동펜이 가니까 낫으로 빌 때.(음, ‘좀호미’예, 그걸로 여기는 베는군요? 저쪽 동편에 가니까 낫으로 벨 때.)
104018 #1 낫으로.(낫으로.)
104019 @ 빕디다. 그리고 운반허고 이제 저장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마씨?(벱디다. 그리고 운반하고 이제 저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4019 #1 운반은 이제 마차로 이제 들여오고.(운반은 이제 마차로 이제 들여오고.)
104019 @ 예.(예.)
104019 #1 이제 그 우리 어렷을 때는 소나 물에 질메에 시꺼왓는데.(이제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소나 말에 길마에 실어왔는데.)
104019 @ 예.(예.)
104019 #1 우리가 커 간, 커 가기 시작허니까 이제 마차.(우리가 커 가서, 커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차.)
104019 @ 음. 그 질메에 헐 때는 어느 정도 시꺼마씨?(음. 그 길마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실어요?)
104019 #1 질메 헐 때도 많이 실러.(길마 할 때도 많이 실어.)
104019 @ 음.(음.)
104019 #1 많이 실러. 이제 그 혼 쪽이 세 뭉친데.(많이 실어. 이제 그 한 쪽이 세 뭉친데.)
104019 @ 예.(예.)
104019 #1 질메 혼 쪽이.(길마 한 쪽이.)
104019 @ 예.(예.)
104019 #1 요쪽에 혼 뭉치 젤 처음에 질메와 질메 사이에 혼 뭉치 무껑근엥게 무꺼뒁 저쪽으로 강 것도 무꺼뒁 이쪽, 이쪽 게니까 짐이 넘어나지 아녀게.(요쪽에 한 뭉치 젤 처음에 길마와 길마 사이에 한 뭉치 묶어서 묶어두고 저쪽으로 가서 것도 묶어두고 이쪽, 이쪽 그러니까 짐이 넘어나지 않게.)
104019 @ 예, 예, 예.(예, 예, 예.)
104019 #1 이쪽에 다시 혼 뭉치 무꺼뒁 또 저쪽에 강 혼 뭉치 무껑.(이쪽에 다시 한 뭉치 묶어두고 또 저쪽에 가서 한 뭉치 묶어서.)
104019 @ 세 뭉치를?(세 뭉치를?)
104019 #1 경 허영 또 뒤에 혼 뭉치 무끄곡 허민 세 뭉치 무끄는 거.(그렇게 해

서 또 뒤에 한 뭉치 묶고 하면 세 뭉치 묶는 거.)

104019 @ 세 뭉치예? 게믄 흔 뭉치 허게 뒈면은 멧 뭇?(세 뭉치요? 그러면 한 뭉치 하게 되면 몇 뭇?)

104019 #1 흔 뭉치가 그건 이제 그 사람에 틀려 가지고.(한 뭉치가 그건 이제 그 사람에 달라 가지고.)

104019 @ 예.(예.)

104019 #1 이제 그 또 무끔에 틀리고. 이거 요 정도민 뒈겟다고 행근에게 딱허게 정헤진 게 아니.(이제 그 또 묶음에 다르고. 이거 요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딱하게 정해진 게 아니.)

104019 @ 음.(음.)

104019 #1 정헤진 게 아니.(정해진 게 아니.)

104019 @ 촐 ᄒᆞ꼼씩 무끈 거 뭇이렌 헙니까? 여기도.(꼴 조금씩 묶은 거 뭇이라고 합니까? 여기도.)

104019 @ 그 뭇으로 뭉치로 헤 갖고 실르는구나예?(그 뭇으로 뭉치로 해 가지고 싣는군요?)

104019 #1 뭇을 열 뭇 스무 뭇 헤영근에 허는 거주. 거 흔 뭉치가.(뭇을 열 뭇 스무 뭇 해서 하는 거지. 거 한 뭉치가.)

104019 @ 흔 뭉치가. 보통 삼춘 할 때는 어느 정도로, 흔 뭉치에 멧 개 무꺼수가?(한 뭉치가. 보통 삼촌 할 때는 어느 정도로, 한 뭉치에 몇 개 묶었습니까?)

104019 #1 글쎄, 흔 뭉치에 그때는 흔 열댓, 열댓 이상.(글쎄, 한 뭉치에 그때는 한 열댓, 열댓 이상.)

104019 @ 열댓 이상. 그러니까 육십 뭇을 하나에. 그걸 흔 바리옌 헙니까?(열댓 이상. 그러니까 육십 뭇을 하나에. 그걸 한 바리라고 합니까?)

104019 #1 아니, 흔 바린?(아니, 한 바린?)

104019 @ 예.(예.)

104019 #1 이제 여기서는 이 저 좀호미로 빈 것은 마흔 뭇이 흔 바리고.(이제 여기서는 이 저 '좀호미'로 벤 것은 마흔 뭇이 한 바리고.)

104019 @ 예.(예.)

104019 #1 저 낫으로나 이 곡식대[132]?(저 낫으로나 이 '곡식대'?)

104019 @ 예.(예.)

104019 #1 그건 서른 뭇이 흔 바리고.(그건 서른 뭇이 한 바리고.)

104019 @ 으음.(으음.)

104019 #1 음, 겨난 물건에 따랑근에예?(음,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요?)

104019 @ 보통은 이제 바리로 그 질메 메왕 헌 게 바리잖아예. 아 좀호미허고 뜻나게.(보통은 이제 바리로 그 길마 메워서 한 게 바리잖아요. 아, '좀호미'하고 다르게.)

---

132) '곡식대'는 '곡식+대' 구성으로, '곡식의 대'를 말한다.

104019 #1 좀호미허고 그대로 이 저 낫으로 빈 거허고 좀호미로 빈 거허고 곡식대허고 이제 촐허곤 또 차이가 나고.('좀호미'하고 그대로 이 저 낫으로 벤 거하고 '좀호미'로 벤 거하고 곡식대하고 이제 꼴하고는 또 차이가 나고.)

104019 @ 예. 경 허영은에 집에 오면은 집에선 건 어떵 저장헤수과?(예.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집에선 건 어떻게 저장했습니까?)

104019 #1 눌에 눌어사. 눌엉.(가리에 가려야. 가려서.)

104019 @ 누는 것도 재미잇어예?(가리는 것도 재미있지요?)

104019 #1 아이고, 즤미잇고말고. 이, 게난 건 눌을 촐 흔 뭇이 두 번 눌어지는 거라. 밧듸서 흔 번 데미나 눌어두나 헷당.(아이고, 재미있고말고. 이, 그러니까 건 가리를 꼴 한 뭇이 두 번 가리어지는 거야. 밭에서 한 번 쌓아두나 가려두나 했다가.)

104019 @ 예.(예.)

104019 #1 제기 못 가져갈 것 같으면 이제 눌곡 빨리 가져갈 건 조그마썩 데며 두고.(재우 못 가져갈 것 같으면 이제 가리고 빨리 가져갈 건 조금만큼씩 쌓아두고.)

104019 @ 음.(음.)

104019 #1 경 헤영 실러오면 집의 왕근엥게 마당에 퍼 놓면 밤읜 거 눌곡. 낮읜 강 실러오곡.(그렇게 해서 실어오면 집에 와서 마당에 퍼 놓으면 밤에는 거 가리고. 낮에는 가서 실어오고.)

104019 @ 으음, 밤의 눌어서예?(으음, 밤에 가렸어요?)

104019 #1 밤의 눌어, 밤의.(밤에 가리어, 밤에.)

104019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4019 #1 불 싸멍덜. (웃음).(불 켜면서들. (웃음).)

104020 @ 그리고 이제 그 쉐나 새끼 나거나 밧 갈젠 허면 또 뭐 죽 같은 것도 허지예?(그리고 이제 그 소나 새끼 나거나 밭 갈려고 하면 또 뭐 죽 같은 것도 하지요?)

104020 #1 아이고, 물론.(아이고, 물론.)

104020 @ 것도 그건 어떤 식으로 헨마씨?(것도 그건 어떤 식으로 했어요?)

104020 #1 죽은 솟듸 큰솟듸 쒕.(죽은 솥에 큰솥에 쒀서.)

104020 @ 예.(예.)

104020 #1 이제 으물이엔 허는디 그건.(이제 여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104020 @ 아, 으물예?(아, 여물이요?)

104020 #1 으물 헤여줜. 으물 멕여산다 허영. 으물을 헹근엥게 쑤는 건 이 좀 부드럽게, 그 위가 덜 부닥, 저 창, 창지가 덜 이, 저 부담가게.(여물 해줬어. 여물 먹여얀다 해서. 여물을 해서 쑤는 건 이 좀 부드럽게, 그 위가 덜 부닥, 저 창, 창자가 덜 이, 저 부담가게.)

104020 @ 예.(예.)

104020 #1 경 허영 솖앙 주는 거.(그렇게 해서 삶아서 주는 거.)

104020 @ 으음, 그치록 허영 건 읏물이옌 헤예?(으음, 그처럼 해서 건 여물이라고 해요?)

104020 #1 읏물.(여물.)

104020 @ 그때 읏물 허는 거는 어떤, 재료들은 뭐마씨?(그때 여물 하는 거는 어떤, 재료들은 뭐예요?)

104020 #1 재료는 보리도 솖앙 주고 그자 거기에 체에 서껑. 그 보리체나 이 저 무슨 조풍뎅이 ᄀᆞ튼. 조풍뎅이[133]옌 헤영 조도 초불 깐 거.(재료는 보리도 삶아서 주고 그저 거기에 겨에 섞어서. 그 보릿겨나 이 저 무슨 '조풍뎅이' 같은. '조풍뎅이'라고 해서 조도 초벌 깐 거.)

104020 @ 예, 예, 예.(예, 예, 예.)

104020 #1 풍뎅이.('풍뎅이'.)

104020 @ 조풍뎅이.('조풍뎅이'.)

104020 #1 조풍뎅이도 거기에 서껑 주곡, 엇이민 읏물이 많으민 읏물만 헤연 주곡. 경 아녀민 조풍뎅이 ᄀᆞ튼 것도 걸 좀 보테영근엥에 헤주고.('조풍뎅이'도 거기에 섞어서 주고, 없으면 여물이 많으면 여물만 해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조풍뎅이' 같은 것도 걸 좀 보태어서 해주고.)

104020 @ 그 다음에 이제 촐 빌 때예, 잊어불지 못한 이런 경험 잇수과?(그 다음에 이제 꼴 벨 때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경험 있습니까?)

104021 #1 글쎄, 촐 빌 때에 잊어불지 못헌 것은 별로 없는데 혼자서 이제 촐 시껑 오당.(글쎄, 꼴 벨 때에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혼자서 이제 꼴 실어서 오다가.)

104021 @ 예.(예.)

104021 #1 이제 구루마가 뒤집어졋을 때에, 혼자 일리지도 못허고.(이제 달구지가 뒤집어졌을 때에, 혼자 일으키지도 못하고.)

104021 @ 음.(음.)

104021 #1 요것ᄀᆞ치 굽굽헌 노릇이 없어. 넘어가는 사람 붙잡앙 "요거 밀어 줍서." 허면 "나 바빠 허멍 가 버리고". 춤 그럴 때 인심이 박헤 뷔고.(요것같이 갑갑한 노릇이 없어. 넘어가는 사람 붙잡아서 "요거 밀어 주세요." 하면 "나 바빠 하면서 가 버리고". 참 그럴 때 인심이 박해 뵈고.)

104021 @ 맞수다.(맞습니다.)

104021 #1 상당이 그 헌디. 결국은 짐을 풀엉근엥게 다시 올리는 수가 잇고.(상당히 그 한데. 결국은 짐을 풀어서 다시 올리는 수가 있고.)

104021 @ 예.(예.)

104021 #1 어떵 허단 그냥 일리는 수가 잇고.(어떻게 하다가 그냥 일으키는 수가 있고.)

133) '조풍뎅이'는 '조에서 알곡을 벗기어 낸 겉껍질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104021 @ 으음.(으음.)

104021 #1 그것도 처음에는 몰란 상당이 뭐 허다가 나도 그 여러 번 헤보진 아녓는디 혼 번 그런 일을 당헤낫는데, 이제 쉐마차 헨 오단에.(그것도 처음에는 몰라서 상당히 뭐 하다가 나도 그 여러 번 해보진 안 했는데 한 번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이제 소달구지 해서 오다가.)

104021 @ 음.(음.)

104021 #1 아, 저 명도암[134]서 그냥 뒤집어지니까 어떡허민 좋고 그냥 막 걱정허고 잇으니까 것에 아주 좀, 옛 그 웃어른이 완에 "요건 영 허민 일어난다." 허멍 앞에 채경 꺼꺼질 걸 생각 안허고 그냥 뒤에서 잡아 밀리는 거라.(아, 저 '명도암'에서 그냥 뒤집어지니까 어떡하면 좋을까 그냥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까 것에 아주 좀, 옛 그 웃어른이 와서 "요건 이렇게 하면 일어난다." 하면서 앞에 채 꺾어질 걸 생각 안하고 그냥 뒤에서 잡아 밀리는 거야.)

104021 @ 음.(음.)

104021 #1 게난 그냥 오글레기[135] 일어난.(그러니까 그냥 '오글레기' 일어났어.)

104021 @ 어.(어.)

104021 #1 짐이 그냥 바르 사니까 아이고, 어떵사 기쁜 지 그런 땐 춤 말도 못허여.(짐이 그냥 바로 서니까 아이고, 어떻게야 기쁜 지 그런 땐 참 말도 못해.)

104021 @ 게도 어른들이 경험으로예.(그래도 어른들이 경험으로요.)

104021 #1 경험으로 그 뚠 어른덜이 말헤 주니깐. ᄀᆞ치 완 그 처음에 헌 땐 나 바빤 못 허커라 가분 사름덜은 상당히 궤씸헤 보고 인심도 없어 붸고 헷는데. 내중에 춤 그 사람은 실지 바쁘니깐 경헌 거 같으고,(경험으로 그 다른 어른들이 말해 주니깐. 같이 와서 그 처음에 할 땐 나 바빠서 못 하겠어 가버린 사람들은 상당히 괘씸해 보이고 인심도 없어 뵈고 했는데. 나중에 참 그 사람은 실제로 바쁘니깐 그렇게 한 거 같고,)

104021 @ 예.(예.)

104021 #1 내중에 분은 춤 바쁜 일이 있어도 이제 길을 ᄀᆞ로 막아부니까 뒤에서 오는 사름은 이걸 일려 세웁지 않으면 당신도 가질 못헐 거니까 같이 협심헨에 그거 일려뒨 그 헐 때엔 그런 때엔 기분이 놀 거 같은 그런 기분이지.(나중에 분은 참 바쁜 일이 있어도 이제 길을 가로 막아버리니까 뒤에서 오는 사람은 이걸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당신도 가질 못할 거니까 같이 협심해서 그거 일려두고 그 할 때는 그런 때엔 기분이 날 거 같은 그런 기분이지.)

104021 @ 예.(예.)

104021 @ 옛날엔 등짐으로도 다 헷지예?(옛날엔 등짐으로도 다 했지요?)

104021 #1 허고.(하고.)

104021 @ 삼춘도 등짐으로 날라봅디가?(삼촌도 등짐으로 날라봤습니까?)

---

134) '명도암'은 제주시 봉개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135) '오글레기'는 '상하지 않고 본디 모양 그대로'의 의미다.

104021 #1 예, 등짐 많이 헤낫주.(예, 등짐 많이 했었지.)

땔감

104022 @ 게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는예. 옛날 지들케?(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는요. 옛날 땔감?)

104022 #1 지들커.(땔감.)

104022 @ 지들커. 응 지들커도 하영 헤 와야 될 거 아니라예? 여기.(땔감. 응 땔감도 많이 해 와야 될 거 아닌가요? 여기.)

104022 #1 지들커 많이 헤사주게.(땔감 많이 해야지.)

104022 @ 예. 지들켄 어떤 종류들이 잇인고예?(예. 땔감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요?)

104022 #1 지들컨 경허난 그 곡석 남뎅이도 때고.(땔감은 그러니까 그 곡식 줄기도 때고.)

104022 @ 예.(예.)

104022 #1 보릿대도 때고.(보릿대도 때고.)

104022 @ 응.(응.)

104022 #1 또 겨을 들어가민[뜨러가민] 그 소낭 가지치기 헤영도 것도 때고.(또 겨울 들어가면 그 소나무 가지치기를 해서도 것도 때고.)

104022 @ 예.(예.)

104022 #1 또 길레에, 길가에덜 그 나무들이 저 가시 ᄀᆞ치 난 것덜이 잇어.(또 길에, 길가에들 그 나무들이 저 가시 같이 난 것들이 있어.)

104022 @ 예.(예.)

104022 #1 이제 삼동낭이나 저 아이고, 곧젠 허난, 뭐 하여간 잡낭덜이 그냥 길가에 쫙 난 거 그거, 그 길도 다까지고 그거 허면.(이제 상동나무나 저 아이고, 말하려고 하니까, 뭐 하여간 잡나무들이 그냥 길가에 쫙 난 거 그거, 그 길도 닦아지고 그거 하면.)

104022 @ 예, 예.(예, 예.)

104022 #1 길덜도 깨끗헤여지주. 그냥 쫙허게 헤영 강 그거 그냥 가져당 이젠 뭇아 일일이.(길들도 깨끗해지지. 그냥 '쫙하게' 해서 가서 그거 그냥 가져다가 이젠 마, 일일이.)

104022 @ 음.(음.)

104022 #1 일일이 뭇앙 요만썩 헹근에 허민 물르민 그거 아져당 그냥 떼여.(일일이 마아서 요만씩 해서 하면 마르면 그거 가져다가 그냥 때어.)

104022 @ 예.(예.)

104022 #1 뭐 개꽝낭이 무시거여 상당히 많주. 종류가.(뭐 쥐똥나무가 무엇이다 상당히 많지. 종류가.)

104022 @ 예에.(예에.)

104022 #1 길레 잇는 건 것도 일거양득이지. 길 다끄고, 나 땔감허고.(길에 있는 건 것도 일거양득이지. 길 닦고, 나 땔감하고.)

104022 @ 예.(예.)

104022 #1 허니깐.(하니깐.)

104024 @ 그러면 그 지들커 여자덜은 솔입은 걷으레 안 가마씨?(그러면 그 땔감 여자들은 솔잎은 걷으러 안 가요?)

104024 #1 무사 솔입 걷으레 안 가. 여인덜은 여인대로 이제 솔입덜 걷어당근엥게 솔입 떼고.(왜 솔잎 걷으러 안 가. 여인들은 여인대로 이제 솔잎들 걷어다가 솔잎 때고.)

104024 @ 음, 또 솔입 걷젠 허면은 아졍가는 게 뭐우과?(음, 또 솔잎 걷으려고 하면 가져가는 게 뭡니까?)

104024 #1 아졍가는 건 이제 베허곡.(가져가는 건 이제 참바하고.)

104024 @ 예.(예.)

104024 #1 이제 보달[136] 치젠 허믄 거기 이제 거기서 칙 걷엉도 이제 보달이엔 헌 건 혼 뭉칠 만드는 거.(이제 '보달' 치려고 하면 거기 이제 거기서 칡 걷어서도 이제 '보달'이라고 한 건 한 뭉칠 만드는 거.)

104024 @ 예, 예.(예, 예.)

104024 #1 뭉칠 만드는 건데 이제 그 칙 걷엉도 허곡 여기서 노끈 가졍강도 무끄고. 이제 또 글겡이.(뭉칠 만드는 건데 이제 그 칡 걷어서도 하고 여기서 노끈 가져서 사서도 묶고. 이제 또 갈퀴.)

104024 @ 예.(예.)

104024 #1 글겡이, 표준어론 갈퀴.('글겡이', 표준어론 갈퀴.)

104024 @ 예.(예.)

104024 #1 갈퀴. 글겡이 헤영 강 긁어 놩 모이민 또 부지런헌 남잔 또 부인 가민 것 강근에 같이 도와줭 그냥 허곡.(갈퀴. 갈퀴 해서 가서 긁어 놓아서 모이면 또 부지런한 남잔 또 부인 가면 것 가서 같이 도와줘서 그냥 하고.)

104024 @ 게난 옛날에 집에 보면 우영에들 솔입 걷엉 다 눌고 헤낫어예.(그러니까 옛날에 집에 보면 터앝에들 솔잎 걷어서 다 가리고 했었죠.)

104024 #1 경 헷주게.(그렇게 했지.)

104023 @ 음, 이제 그치록 허고. 혹시 여기 쉐똥이영 물똥도 연로로 써신가마씨?(음, 이제 그렇게 하고. 혹시 여기 소똥이랑 말똥도 연로로 썼을까요?)

104023 #1 쉐똥 물똥은 연로로 주로 안 쓰고. 우리가 막 어린 때에.(소똥 말똥은 연로로 주로 안 쓰고. 우리가 매우 어릴 때에.)

104023 @ 예.(예.)

104023 #1 연료로 쓰는 거 봣는데, 할머니덜이.(연료로 쓰는 거 봤는데, 할머니

136) '보달'은 솔가리 뭉치 따위를 몇 개의 기다린 매끼로 단단하게 동여묶어 등짐으로 하나 되게 꾸린 짐이다.

들이.)

104023 @ 예.(예.)

104023 #1 어린 때에 쓰는 걸 봣는데. 이제 우리가 커가니깐 아메도 쪼금 그 세상이 변헤가는 거 같아.(어릴 때에 쓰는 걸 봤는데. 이제 우리가 커가니깐 아마도 조금 그 세상이 변해가는 거 같아.)

104023 @ 음, 음.(음, 음.)

104023 #1 쉽게 말허민 우리가 봉덕불[137].(쉽게 말하면 우리가 '봉덕불'.)

104023 @ 예.(예.)

104023 #1 봉덕불 알겠어요?('봉덕불' 알겠어요?)

104023 @ 예, 예. 부엌에나.(예, 예. 부엌에나.)

104023 #1 부억에나 이, 저 마룻바닥 가운데 이제 불살랑 거기서 초면서 허는 거. 그거 그걸 그것광 가죽옷.(부엌에나 이, 저 마룻바닥 가운데 이제 불살라서 거기서 쬐면서 하는 거. 그거 그걸 그것과 가죽옷.)

104023 @ 예.(예.)

104023 #1 이제 개가죽으로 만드나 소가죽으로 만드나 물가죽으로 만드나 헤허영, 그 저 지금 ᄀᆞ트민 코드지.(이제 개가죽으로 만드나 소가죽으로 만드나 말가죽으로 만드나 해서, 그 저 지금 같으면 코트지.)

104023 @ 예, 예.(예, 예.)

104023 #1 두루마기 만들엉 입엉근엥에 다니곡. 이제 감태 그 가죽으로 감태 이제 만들엉근엥 감티도 이제 이렇게 둥글게 허영근엥게 이 그대로 영 벌리민 툭허게 써지게.(두루마기 만들어서 입어서 다니고. 이제 감투 그 가죽으로 감투 이제 만들어서 감투도 이제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 그대로 이렇게 벌리면 툭하게 쓰지.)

104023 @ 아, 삼춘네도 게믄 감티 써납디가?(아, 삼촌네도 그러면 감투 썼었습니까?)

104023 #1 아 난 안 써낫는데 우리 하르버지뻘덜.(아 난 안 썼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뻘들.)

104023 @ 아아, 하르버지뻘요, 예?(아아, 할아버지뻘요, 예?)

104023 #1 그 게난 원시시대를 벗어난 그 시대부떠 현 시대까지 보앗으니까.(그그러니까 원시시대를 벗어난 그 시대부터 현 시대까지 보았으니까.)

104023 @ 예, 예.(예, 예.)

104023 #1 문명, 현 문명시대까지 봣으니까 우리가 전쟁도 멧 번 보앗고.(문명, 현 문명시대까지 봤으니까 우리가 전쟁도 몇 번 보았고.)

104023 @ 예.(예.)

104023 #1 이제 웨정 때 이제 보고, 이제 육이오 때 보고 제주사삼사건은 난리거든 난, 난리. 이제 그것도 보고 허니깐 뭐 지금 한 팔십년 사이에.(이제 왜정 때 이제 보고, 이제 육이오 때 보고 제주사삼사건은 난리거든 난, 난리. 이제 그것도

137) '봉덕불'은 마룻바닥에 만든 돌화로에 피운 불이다.

보고 하니깐 뭐 지금 한 팔십년 사이에.)

104023 @ 예.(예.)

104023 #1 볼 건 거줌 본 걸로 셍각이 들고.(볼 건 거의 본 걸로 생각이 들고.)

104023 @ 예, 맞습니다. 아, 옛날부터 지금까지예. (웃음) 예. 그렇게 그 물똥 같은 경우는 굴묵 같은 건 떼는 데는 안 썬마씨?(예, 맞습니다. 아,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웃음) 예. 그렇게 그 말똥 같은 경우는 '굴묵' 같은 건 때는 데는 안 썼어요?)

104023 #1 물리우멘, 물리우멘 이제 굴묵도 때고 다시 우리도 어린 땐 "굴묵 때라. 굴묵 짇으라."(말리우면, 말리우면 이제 '굴묵'도 때고 다시 우리도 어릴 땐 "'굴묵 때라'. '굴묵 짇어라'")

104023 @ 굴묵 짇으렌 헷지예?('굴묵 때라' 했지요?)

104023 #1 "굴묵 짇으라." 헤여둥 가민 ᄀᆞ시락,("'굴묵 때라.'" 해두고 가면 까끄라기,)

104023 @ 예.(예.)

104023 #1 굴묵 ᄀᆞ시락 혜영 아궁이에 담아 놩. 이젠 그 아궁이 막는 돌이 잇어. 넙주룩헌 거.('굴묵' 까끄라기 해서 아궁이에 담아 놓아서. 이젠 그 아궁이 막는 돌이 있어. 넓적한 거.)

104023 @ 예, 예.(예, 예.)

104023 #1 그걸 이젠 쉐똥 헤여당 쫙 그냥 손으로.(그걸 이젠 소똥 해다가 쫙 그냥 손으로.)

104023 @ 아, 볼라.(아, 발라.)

104023 #1 볼르멘 그 열기가 글로 빠지질 안 혜영근엥에 그건 흔 이틀 떼여져.(바르면 그 열기가 그리로 빠지질 안 해서 그건 한 이틀 때어져.)

104023 @ 아, 아. 쉐똥으로 그걸 딱 볼르, 막는 거라예?(아, 아. 소똥으로 그걸 딱 바르, 막는 거지요?)

104023 #1 구멍을 딱 막아불민.(구멍을 딱 막아버리면.)

104023 @ 아아.(아아.)

104023 #1 경 혜영.(그렇게 해서.)

104023 @ 그렇게 막는 거를 뭐 헌덴 헙니까?(그렇게 막는 거를 뭐 한다고 합니까?)

104023 #1 경허난 "쉐똥 줏어당근에 그 저 굴묵도 막으라." 혜영근에.(그러니까 "소똥 주워다가 그 저 '굴묵'도 막아라." 해서.)

104023 @ 으.(으.)

104023 #1 어머니네가 말허민.(어머니네가 말하면.)

104023 @ 예, 예.(예, 예.)

104023 #1 "예, 알앗수다." 혜영 이제 쉐똥 헤당 쫙허게.("예, 알았습니다." 해서 이제 소똥 해다가 쫙하게.)

104023 @ 굴묵, 굴묵도 막으렌 헤예.(‘굴묵’. ‘굴묵’ 입구 막으라고 한다고요.)

104023 #1 으.(으.)

104023 @ 게믄 굴묵도 막는 그 돌은 무신 거렌 헙니까?(그러면 ‘굴묵’ 입구 막는 그 돌은 무슨 거라고 합니까?)

104023 #1 게메 그건 지금 몰르커라.(글쎄 그건 지금 모르겠어.)

104026 @ 아, 어쨌든 경 헤영근에 도 막으렌 헌 거라예. 아아, 경 허고 이제 뭐 나무 아까 이제 허레 간 거고. 숫도, 여기 숫도 궈마씨?(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구 막으라고 한 거네요. 아아,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나무 아까 이제 하러 간 거고. 숯도, 여기 숯도 구워요?)

104026 #1 도련에선 아마 쪼꼼 부촌이엇던ᄀᆞ라.(도련에선 아마 조금 부촌이었는지.)

104026 @ 예.(예.)

104026 #1 그까지는 안 헤보고.(그것까지는 안 해보고.)

104026 @ 으, 숫 풀레 오는 거는 봐납디가?(으, 숯 팔러 오는 거는 봤었습니까?)

104026 #1 아니 저, ** 풀레 오는 거 그거 헹근엥에 사 쓰기도 허곡, 아니민 저 고지 강근엥에 가끔 저 그 동네에도 그 어려운 사름덜은 그 강 그때에도 웨정 때에 그 산림덜이, 그 훼손허지 못허게 허젠 그 산림계.(아니 저, ** 팔러 오는 거 그거 해서 사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저 숲 가서 가끔 저 그 동네에도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 가서 그때에도 왜정 때에 그 산림들이, 그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산림계.)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영림소엔 헷지.(영림소라고 했지.)

104026 @ 예, 영림소예?(예, 영림소요?)

104026 #1 영림소 사름덜이 간 직혜엿는데, 그 사이에 좀 뭐 쉽게 말허민 도둑질이주.(영림소 사람들이 가서 지켰는데 그 사이에 좀 뭐 쉽게 말하면 도둑질이지.)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저런 거 헤여당 가져오민 그거 상 쓰곡.(저런 거 해다가 가져오면 그거 사서 쓰고.)

104026 @ 음, 경 아녀민 거는 집에서 숫 멘드는 거는 장작 영 불 피왕예? 집에서는예?(음, 그렇게 않으면 거는 집에서 숯 만드는 것은 장작 이렇게 불 피워서요? 집에서는요?)

104026 #1 집에선, 집에서도 그 좀 저 소낭 그 저 뭐허면은 저 몰르게 헤당근엥에 어디 그 저 밧어염[138]에서.(집에선, 집에서도 그 좀 저 소나무 그 저 뭐하면 저 모르게 해다가 어디 그 저 밭 가장자리에서.)

104026 @ 예.(예.)

---

138) ‘밧어염’은 ‘밭의 경계를 짓기 위하여 빙 돌아가며 둘러쌓은 밭담의 언저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밧에염’, ‘밧의염’이라고 한다.

104026 #1 숫을 궈.(숯을 구워.)

104026 @ 아아.(아아.)

104026 #1 소낭숫허영.(소나무 숯 해서.)

104026 @ 아아, 소낭숫허영예? 그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아아, 소나무 숯 해서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4026 #1 소낭숫은 구뎅이 팡.(소나무 숯은 구덩이 파서.)

104026 @ 예.(예.)

104026 #1 이젠 그 낭덜 젱여놩.(이젠 그 나무들 쌓아놓아서.)

104026 @ 예.(예.)

104026 #1 이젠 알로 불부치곡 게난 그 저 흑헤영근에 막 더프곡.(이젠 아래로 불붙이고 그러니까 그 저 흙해서 마구 덮고.)

104026 @ 예.(예.)

104026 #1 더프곡 우만 이제 숨통 넹겻당 이젠 불 완전히 오른 것 닮으민 그냥 웃 구멍 탁 막앙.(덮고 위만 이제 숨통 남겼다가 이젠 불 완전히 오른 것 같으면 그냥 위의 구멍 탁 막아서.)

104026 @ 아, 경 헤영은에 그냥 여기.(아,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

104026 #1 숨 쉬지 못허게 허민 저 그게 호흡 곤란으로 불도 꺼불 거 아니라게.(웃음) 경 허민 숫 뒈여.(숨 쉬지 못하게 하면 저 그게 호흡 곤란으로 불도 꺼버릴 거 아닌가. (웃음) 그렇게 하면 숯 되어.)

104026 @ 아, 게영 그 집에서도 그런 식으로 헷구나예? 그걸 소낭숫이렌 헷구나예?(아, 그래서 그 집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군요? 그걸 소나무 숯이라고 했군요.)

1104026 @ 음.(음.)

04026 #1 소낭 헤당 헌 건 소낭숫.(소나무 해다가 한 것은 소나무 숯.)

04026 #1 이제 도토리낭이나 그런 그 뭐 춤낭.(이제 도토리나무나 그런 그 뭐 참나무.)

104026 @ 예, 예.(예, 예.)

104026 #1 고지 강 춤낭 헤당 헌 건 춤낭숫.(숲에 가서 참나무 해다가 한 건 참나무 숯.)

104026 @ 예, 예, 예. 아 게영 보통 집의서 헌 것은 거의.(예, 예, 예. 아 그래서 보통 집에서 한 것은 거의.)

104026 #1 소낭숫.(소나무 숯.)

104026 @ 소낭숫이여예.(소나무 숯이라고요.)

104026 #1 좀 소낭숫은 이 허피여[139]. 불이 빨리 삭아져.(좀 소나무 숯은 이 헤퍼. 불이 빨리 삭아져.)

104026 @ 예, 예, 예. 아무래도 참숫하고 뚜나예. 그 이 지들커 허멍은에 재미있었던 일 하시커라.(예, 예, 예. 아무래도 참숯하고 다르네요. 그 이 땔감 하면서

139) '허피여'는 '쓰는 물건이 쉽게 닳거나 빨리 없어져'라는 의미다.

재미있었던 일 많겠네요.)

104026 #1 글쎄이. 지들커허당은엥에 그 벨로 그런 건 느껴보지 못헷는디.(글쎄. 땔감하다가 그 별로 그런 건 느껴보지 못했는데.)

104026 @ 음. 지들커는예? 하영 허레 안 갓구나예?(음. 땔감은요? 많이 하러 안 갔군요?)

104026 #1 하영 허레 안 간.(많이 하러 안 갔어.)

104026 @ 예 알앗수다. 혹시.(예, 알았습니다. 혹시.)

104026 #1 도련이 경우 여기가 아메도 부촌에 가까웠던 모양이라.(도련의 경우 여기가 아마도 부촌에 가까웠던 모양이야.)

104026 @ 뭐 장작 같은 거 폴레 오는 사름들도 잇엇수가?(뭐 장작 같은 거 팔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104026 #1 그건 엇고.(그건 없고.)

104026 @ 스스로 허긴 허는데 그건 안 헷다예.(스스로 하긴 하는데 그건 안 했네요.)

사냥

104028 @ 숫으로 허는데 사냥도 헤 봅디가?(숯으로 하는데 사냥도 해 봤습니까?)

104028 #1 아이, 사냥이야 자미로.(아니, 사냥이야 재미로.)

104028 @ 으, 자미로 허는 거?(으, 재미로 하는 거?)

104028 #1 재미로 이제 그 아이덜 키와 올 때에.(재미로 이제 그 아이들 키워 올 때에.)

104028 @ 예.(예.)

104029 #1 그 봄에 이 이루후에지. 칠월 아, 칠팔월에 꿩 사냥.(그 봄에 이 이 이후에지. 칠월 아, 칠팔월에 꿩 사냥.)

104029 @ 예, 예.(예, 예.)

104029 #1 꿩빙아리 거 져 깨워서 그 아주 그 뭐 허지 안 헐 때.(꿩병아리 거 져 까서 그 아주 그 뭐 하지 않을 때.)

104029 @ 예.(예.)

104029 #1 굳지 아녈 때 놀 그냥 흔 얼마 정도 흔 이삼벡 메다씩 놀 때에.(굳지 않을 때 날 그냥 한 얼마 정도 한 이삼백 미터씩 날 때에.)

104029 @ 예, 예. 어린 거?(예, 예. 어린 거?)

104029 #1 으, 그거 헤당 어린아이덜 흔 머리 멕여주민 그냥 여름 그대로 넘어가.(으, 그거 해다가 어린아이들 한 마리 먹여주면 그냥 여름 그대로 넘어가.)

104029 @ 아아, 그 보신으로 허는 거라예? 꿩빙아리를.(아아, 그 보신으로 하는 거라고요? 꿩병아리를.)

104029 #1 으, 겨곡 겨을 들엉근엥에 허민 그 꿩덜이 크지. 그땐 그거 헤당 먹

이민 보신으로 허영 겨울 그대로 넘어가.(으, 그러고 겨울 들어서 하면 그 꿩들이 크지. 그땐 그거 해다가 먹이면 보신으로 해서 겨울 그대로 넘어가.)

104029 @ 아아, 경 허니까 아이덜 키울 때 그렇게 헷다는 거지예?(아아,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104029 #1 아이덜 멕이기 위해서.(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104029 @ 음, 그러면 그거 그 꿩 사냥헐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헤마씨?(음, 그러면 그거 그 꿩 사냥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해요?)

104029 #1 꿩 사냥, 꿩 사농 헐 땐 여럿이 나강근에덜.(꿩 사냥, 꿩 사냥 할 땐 여럿이 나가서들.)

104029 @ 예.(예.)

104029 #1 이제 망보고 어디레 강 앚는 거.(이제 망보고 어디로 가서 앉는 거.)

104029 @ 예.(예.)

104029 #1 이제 앚는 거 볼 사름은 망보는 거고.(이제 앉는 거 볼 사람은 망보는 거고.)

104029 @ 예.(예.)

104029 #1 놀르는 사름이 잇곡.(날리는 사람이 있고.)

104029 @ 아, 놀르는 사람.(아, 날리는 사람.)

104029 #1 그냥 개 돌앙 그냥 막 휘장치면[140] 그 주위를 그냥 막 뛰어다니면 이제 겁낭근에 꿩이 놀민 어디 강 앚는 거 보곡, 허민 또 어디 간 앚앗젠 이제 잘 말헤주면은 그디 강 또 개 대영근에 그 냄새 헤영근엥에 강 물곡.(그냥 개 데려서 그냥 막 '휘장치면' 그 주위를 그냥 막 뛰어다니면 이제 겁나서 꿩이 날면 어디 가서 앉는 거 보고, 하면 또 어디 간 앉았다고 이제 잘 말해주면 거기 가서 또 개 대어서 그 냄새 해서 가서 물고.)

104029 @ 아, 게믄 보통 개 돌앙 뎅기는 거구나예?(아, 그러면 보통 개 데려서 다니는 거군요?)

104029 #1 개 돌앙.(개 데려서.)

104029 @ 꿩 사농 가젠 허면 그러면 멧 명쯤 가마씨? 혼 번 갈 때?(꿩 사냥 가려고 하면 몇 명쯤 가요? 한 번 갈 때?)

104029 #1 혼 댓 사름 가야주.(한 댓 사람 가야지.)

104030 @ 음.(음.)

104030 #1 댓 사름 가사.(댓 사람 가야.)

104029 @ 망보는 사람 놀르는 사람. 이제 어디 앚앗져 골아주는 사름?(망보는 사람 날리는 사람. 이제 어디 앉았다 말해주는 사람?)

104029 #1 그건 망보는 사름이 골앙, 곧는 거.(그건 망보는 사람이 말해서, 말하는 거.)

104029 @ 곧는 거는 망보는 사름예? 아.(말하는 거는 망보는 사람이요? 아.)

---

140) '휘장치면'은 '휘저으며 쫓으며'의 의미다.

104029 #1 개 돌앙 물리는 사름 잇고, 건 빨른 사름이라야.(개 데려서 물리는 사람 있고, 건 빠른 사람이어야.)

104030 @ 예, 그렇게 이제 하고. 노루 사농도 헤 봅디가?(예, 그렇게 이제 하고. 노루 사냥도 해 봤습니까?)

104030 #1 노루 사냥은 못 헤봔.(노루 사냥은 못 해봤어.)

104030 @ 아, 건 안 했고요?(아, 건 안 했고요?)

104030 #1 노루 사냥은 안 해 봣는데, 그 옛 어른덜은 제주도에 제주에 사슴ᄁᆞ지 잇언이.(노루 사냥은 안 해 봤는데, 그 옛 어른들은 제주도에 제주에 사슴까지 있어서.)

104030 @ 예.(예.)

104030 #1 노리 사슴 각록 헹근엥에 각록 ᄀᆞᆯ아낫는데, 사슴은 암놈이고 각록은 숫놈이옌 허영 옛 어른덜이 말헤낫어. 거 구분을 헨에.(노루 사슴 '각록' 해서 '각록' 말했었는데, 사슴은 암놈이고 '각록'은 수놈이라고 해서 옛 어른들이 말했었어. 거 구분을 해서.)

104030 @ 예.(예.)

104030 #1 말헤. 말헤낫는데 에 우리 증조부님쯤은.(말해. 말했었는데 에 우리 증조부님쯤은.)

104030 @ 예.(예.)

104030 #1 이 사슴 잡으레 가는데.(이 사슴 잡으러 가는데.)

104030 @ 예.(예.)

104030 #1 이제 그 두 찔레[141] 부뜨는 걸 봣어. 찔레.(이제 그 두 '찔레' 붙는 걸 봤어. '찔레'.)

104030 @ 으.(으.)

104030 #1 싸움허는 거이.(싸움하는 거.)

104030 @ 예, 예.(예, 예.)

104030 #1 찔레 부뜨는 거 봔에 그냥 달펴들언 그냥 두 놈을 붙잡으니까 이제 서로 그냥 이제 뗑기기 시작헌 거라. 게난 그 사촌이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찔레' 붙는 거 봐서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두 놈을 붙잡으니까 이제 서로 그냥 이제 당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촌이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

104030 @ 예.(예.)

104030 #1 "형님, 빨리 옵서, 빨리 옵서." "왜, 왜." 허니깐, 이제 그 말 들엉 보민 춤 웃기는 말.("형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 왜." 하니깐, 이제 그 말 들어서 보면 참 웃기는 말.)

104030 @ 예.(예.)

104030 #1 이 사슴 찔레허는 거게. 각록, 각록 싸움허는 거 심언 헌디 그냥 저 가슴 ᄇᆞ려젼 뭐 허우다. "제기 왕 이거 심읍써, 심읍써." 허난에 "그거 데멩이 심엉

141) '찔레'는 '소나 사슴 따위가 서로 뿔로 받으며 싸우는 일'의 의미다.

조지라, 조지라."(이 사슴 '찔레'하는 거. '각록', '각록' 싸움하는 거 잡아서 했는데 그냥 저 가슴 찢어져서 뭐 합니다. "재우 와서 이거 잡으세요, 잡으세요." 하니까 "그거 대가리 잡아서 조지라, 조지라.")

104030 #1 @ (웃음).

104030 #1 경허난 결국은 이제 그 놓쳐뒌에 흔 머리만 잡아당 잡수왓젠 헤여.(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놓쳐두고 한 마리만 잡아다가 잡쉈다고 해.)

104030 @ 예.(예.)

104030 #1 그 그걸 잡숸 난 자손덜인지 몰라도 장사 말 들엇어. 그 아들뚤들이.(그 그걸 잡숴서 낳은 자손들인지 몰라도 장사 말 들었어. 그 아들딸들이.)

104030 @ 아아.(아아.)

104030 #1 우리 대고모님쯤은 그 큰 도고리에 저 보리 그냥 걸단에 소낙비 와 가난에 ᄀᆞ레 그 안네 앚진 차 오꼿 들런 저 부억에 들어가낫젠 허메. 그건 보통 힘으로 안 뒈는 거주.(우리 대고모님쯤은 그 큰 함지박에 저 보리 그냥 갈다가 소낙비 와 가니까 맷돌 그 안에 앉힌 채 우끈 들어서 저 부엌에 들어갔었다고 해. 그건 보통 힘으로 안 되는 거지.)

104030 @ 예, 으.(예, 으.)

104030 #1 경헤엿젠 허고, 다시 우리 조부님쯤은 그 메칠 굶어도.(그렇게 했었다고 하고, 다시 우리 조부님쯤은 그 며칠 굶어도.)

104030 @ 예.(예.)

104030 #1 그 춤 거 무거운 그 낭헨에 짊언 그냥 와낫젠 헌 그 고지서 헷젠 허민. 다덜 그 말덜 들엉 겁낭덜.(그 참 거 무거운 그 나무해서 짊어서 그냥 왔었다고 한 그 숲에서 했다고 하면. 다들 그 말들 들어서 겁나서들.)

104030 @ 음.(음.)

104030 #1 그런 게 아마 보신용으로 뭐 그 딱 그 맞은 때엔 보신용이 대단이 좋은 모냥이라.(그런 게 아마 보신용으로 뭐 그 딱 그 맞은 때엔 보신용이 대단이 좋은 모양이야.)

104030 @ 그리고 삼춘, 아까, 대고모렌 허면은 누구를?(그리고 삼춘, 아까, 대고모라고 하면 누구를?)

104030 #1 하르버지 누님. 누님이나 누이나.(할아버지 누님. 누님이나 누이나.)

104030 @ 이 하르버지 누님이나 누이를 대고모님이렌 허는 거라예? 아아.(이 할아버지 누님이나 누이를 대고모님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아.)

104030 #1 보통 왕고모님 허는디.(보통 왕고모님 하는데.)

104030 @ 예.(예.)

104030 #1 그 문헌상에 보면은 저 왕고모님은 그 웃할머님[142]이고.(그 문헌상에 보면은 저 왕고모님은 그 '윗할머님'이고.)

104030 @ 예.(예.)

142) 여기에서 '웃할머님'은 '할아버지의 누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 것 같다.

104030 #1 저 대고모님이옌 허주.(저 대고모님이라고 하지.)
104030 @ 으,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냥?(으,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냥?)
104030 #1 왕고모님.(왕고모님.)
104030 @ 우리는 왕고모님이렌 헌 거지예?(우리는 왕고모님이라고 한 거지요?)
104030 #1 제주에선 왕고모님.(제주에선 왕고모님.)
104031 @ 그리고 혹시 지달이 잡으레도 뎅겨봅디가?(그리고 혹시 '지달이' 잡으러도 다녀봤습니까?)
104031 #1 지달이 잡으렌 뎅겻는데 난 흔 머리 잡아보들 못헷어.('지달이' 잡으러는 다녔는데 난 한 마리 잡아보질 못했어.)
104031 @ 아아.(아아.)
104031 #1 그 지달이 잡는 것도.(그 지달이 잡는 것도.)
104031 @ 예.(예.)
104031 #1 저디 그 아까 이영숙 씨 그 하르버님, 그 하르버지안테.(저기 그 아까 이영숙 씨 그 할아버님, 그 할아버지한테.)
104031 @ 그때 우리 같이 강 물어보게예?(그때 우리 같이 가서 물어보게요?)
104031 #1 으으.(으으.)
104031 @ 그 어르신은 다른 일 헤마씨?(그 어르신은 다른 일 해요?)
104031 #1 다른 일은 벌도 키와나고.(다른 일은 벌도 키웠었고.)
104031 @ 아 벌도 하고예? 양봉도예? 예, 예.(아 벌도 하고요? 양봉도요? 예, 예.)
104031 #1 양봉.(양봉.)
104031 @ 밧듸 뎅기거나 이렇진 않지예? 나이 드시니까.(밭에 다니거나 이렇진 않지요? 나이 드시니까.)
104031 #1 이젠 아무 것도 이젠 항시.(이젠 아무 것도 이젠 항시.)
104031 @ 집에 계셔예. 알앗수다. ᄀᆞ치.(집에 계셔요. 알았습니다. 같이.)
104031 #1 언제나.(언제나.)
104032 @ 예. 알겟습니다. 족제비는?(예. 알겠습니다. 족제비는?)
104032 #1 족제비는 족제비덧 놩근엥에 잡주.(족제비는 '족제비덫' 놓아서 잡지.)
104032 @ 잡아봅디강?(잡아봤습니까?)
104032 #1 난 거 저 사냥 그런 것엔 그 낙시질이나.(난 거 저 사냥 그런 것에는 그 낚시질이나.)
104032 @ 예.(예.)
104032 #1 사냥이나 그 뭣은 그 나 뭣에 맞들 아년 모양이라.(사냥이나 그 뭣은 그 나 뭣에 맞질 않은 모양이야.)
104032 @ 아 취미도.(아 취미도.)
104032 #1 게난.(그러니까.)

104032 @ 머정[143]이 엇구나예?('머정'이 없군요?)

104032 #1 으, 맞아. 머정이 엇언. (웃음) 이 낙시허레 가도.(으, 맞아. '머정'이 없어서. (웃음) 이 낚시하러 가도.)

104032 @ 예.(예.)

104032 #1 못허여.(못해.)

104032 @ 으.(으.)

104032 #1 뚠 읖의 사름은 허는데.(다른 옆의 사람은 하는데.)

104032 @ 예.(예.)

104032 #1 겐디 족제비나 이 지달이나 지달이ᄀᆞ라 저 노루예. 아, 아니.(그런데 족제비나 이 '지달이'나 '지달이'보고 저 노루예. 아, 아니.)

104032 @ 오소리?(오소리?)

104032 #1 으, 오소리.(으, 오소리.)

104032 @ 예.(예.)

104032 #1 예. 오소리엔도 허곡 그런 그 뭐옌 곧는디, 것덜도 ᄒᆞ나 못 봐보고. 이 사냥 뎅길 때 그자 ᄀᆞ치 그자 여럿이 가난에 꿩병아리 그자 쪼끔 헤봣주. 뚠 건 아무 것도 못헤봔.(예. 오소리라고도 하고 그런 그 뭐라고 말하는데, 것들도 하나 못 봐보고. 이 사냥 다닐 때 그저 같이 그저 여럿이 가니까 꿩병아리 그저 조금 해봤지. 다른 건 아무 것도 못해봤어.)

104032 @ (웃음). (이하 잡음 생략)((웃음). (이하 잡음 생략))

5. 바다일

105001 @ 오늘은 바다 일에 대헹 물어보쿠다예? 그 바다에서 하는 일은 어떵 것덜 이시코예?(오늘은 바다 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다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 있을까요?)

105001 #2 건 난 모른덴 허난.(건 난 모른다고 하니까.)

105001 @1 바당에서. 그냥 알아지는 것만 ᄀᆞᆯ읍서.(바다에서. 그냥 알아지는 것만 말하세요.)

105001 #2 해녀 ᄀᆞ트민 강 전복이나 따곡 하간 소라도 잡곡.(해녀 같으면 가서 전복이나 따고 이런저런 소라도 잡고.)

105001 #1 점복이영 구젱기영 보말이영 깅이영 잡주마는 여기에서 해녀 이 저 잠수가 아니면.(전복이랑 소라랑 고둥이랑 게랑 잡지만 여기에서 해녀 이 저 잠수가 아니면.)

105001 @ 예.(예.)

105001 #1 여긴 보말 심, 보말 심으레.(여긴 고둥 잡, 고둥 잡으러.)

143) '머정'은 '어떤 일에 있어서의 재수'라는 의미다. 지역에 따라서 '머의', '머젱이'라고 한다.

105001 @ 예, 예.(예, 예.)

105001 #1 보말 심으레 가곡 깅이, 깅인 잡으레 가곡. 도망 뎅기는 거난 잡아사.(고둥 잡으러 가고 게, 게는 잡으러 가고. 도망 다니는 거니까 잡아야.)

105001 @ 예.(예.)

105001 #1 (웃음). 깅이 잡으레 가곡 뭐 경 허는 거주, 무신.((웃음). 게 잡으러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무신.)

105001 @ 남자들은 허는 거 엇이카마씨?(남자들은 하는 거 없을까요?)

105001 #1 남자덜토 별로 허는 거 엇어.(남자들도 별로 하는 거 없어.)

105001 @ 음.(음.)

105001 #2 고기나 강 나끄곡, 낙시나 강 허곡. 남자덜토 가근에 하근 거 잘 심어오고.(고기나 가서 낚고, 낚시나 가서 하고. 남자들도 가서 이런저런 것 잘 잡아오고.)

105001 #1 이 저 남자덜은 즉 말허민 무거운 돌을 굴리지.(이 저 남자들은 즉 말하면 무거운 돌을 굴리지.)

105001 @ 예.(예.)

105001 #1 돌, 돌 둥그리민 이제 그저 그디서게 그 밑에 부텃던 거 줏어놓곡.(돌, 돌 굴리면 이제 그저 거기서 그 밑에 붙었던 거 주워놓고.)

105001 @ 예, 예. 돌 일리멍은에 거기 ᄀᆞ치 강예?(예, 예. 돌 일으키면서 거기 같이 가서요?)

105001 #2 돌 일르멍 허믄 남자덜 강 큰 돌 일리민 그 아래 점복덜도 잇곡 소라덜토 잇곡 해숨도 잇곡 그 어떵헤영 ᄉᆞ망일민 많이 잡아.(돌 일으키면서 하면 남자들 가서 큰 돌 일으키면 그 아래 전복들도 있고 소라들도 있고 해삼도 있고 그 어떡해서 사망일면 많이 잡아.)

105001 #1 구젱기 구젱이 고동 허는디.(소라 소라 고둥 하는데.)

105001 #2 고동과 구젱인 ᄃᆞ난 거주. 고동은 보말.(고둥과 소라는 다른 거지. 고동은 '보말'.)

105001 @ 예.(예.)

105001 #2 보말 그 쭈짝헌[144] 쭈짝이 저 코지가 이러면서도.(보말 그 '쭈짝한' '쭈짝이' 저 코가 이러면서도.)

105001 #1 웬보말ᄀᆞ치.(대롱고둥같이.)

105001 @ 음.(음.)

105001 #1 웬보말ᄀᆞ찌.(대롱고둥같이.)

105001 #2 이 똥 잇는 쪽이 곧짝허거든.(이 똥 있는 쪽이 곧거든.)

105001 @ 예, 예.(예, 예.)

105001 #1 건 저 고동.(건 저 고둥.)

105001 @ 고동.(고둥.)

144) '쭈짝헌'은 '물건의 윗부분이 뾰족이 솟아 있는'이라는 의미의 어휘다.

105001 #2 기냥 민들락허영 까망헌 거는 먹보말.(그냥 미끈해서 까만 거는 밤고둥.)

105001 @ 먹보말. 으.(밤고둥. 으.)

105001 #2 또 쩨깐허영 허영 허민 영 내민 똥이 털어져. 코ᄐᆞ데기엔 허여. 그건.(또 자그마해서 해서 하면 이렇게 내민 똥이 떨어져. '코ᄐᆞ데기'라고 해. 그건.)

105001 @ 건 코ᄐᆞ데기, 예.(건 남방울타리고둥, 예.)

105001 #2 코ᄐᆞ데기.(남방울타리고둥.)

105001 #1 게난 보말 종류도 상당히.(그러니까 고둥 종류도 상당히.)

105001 #2 웬보말도 잇고.(대롱고둥도 있고.)

105001 @ 웬보말은 어떤 거우과?(대롱고둥은 어떤 겁니까?)

105001 #2 웬보말엔 헌 건이.(대롱고둥이라고 한 건.)

105001 #1 가마기보말엔도 허곡, 것ᄀᆞ라 허는 셍이란게.(타래고둥이라고도 하고, 것보고 하는 모양이던데.)

105001 @ 이렇게 길쭉헌 거. 걸 웬보말엔 허는구나예?(이렇게 길쭉한 거. 걸 '웬보말'이라고 하는군요?)

105001 #1 까망허연. 아마 감아진 게 웬쪽으로 감아진 거 같아.(까매서. 아마 감아진 게 왼쪽으로 감아진 거 같아.)

105001 @ 웃드르[145]니까 배 허는 사름덜은 엇어예?(윗마을이니까 배 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105001 #1 엇어.(없어.)

105001 @ 혹시 여기에서 듬북이나 감태 같은 것도 ᄌᆞ물아봅디가?(혹시 여기에서 듬북이나 감태 같은 것도 캐봤습니까?)

105001 #2 그런 건 안 허여.(그런 건 안 해.)

105001 #1 사당 밧뒨 놓곡.(사다가 밭에는 놓고.)

105001 @2 여기는 바당은 없수가? 도련드르.(여기는 바다는 없습니까? '도련드르'.)

105001 #2 바당이 어디?(바다가 어데?)

105001 @ 밧듸 놓는 게 뭐라마씨?(밭에 놓는 게 뭐라고요?)

105001 #2 삼양이나 이동이나 가사 바당이.(삼양이나 이동이나 가야 바다가.)

105002 #1 듬북 헹근에게 그 저 이 작두로 ᄆᆞᆺ으멍.(듬북 해서 그 저 이 작두로 마면서.)

105002 @ 예.(예.)

105002 #1 이 장호미[146]로 ᄆᆞᆺ으멍 저 밧듸 ᄀᆞᆯ앙 그건.(이 '장호미'로 마면서 저 밭에 깔아서 그건.)

105002 #2 보리.(보리.)

---

145)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에 이루어진 마을'이다.

146) '장호미'는 땔감을 할 때 사용하는 낫의 일종이다. 지역에 따라서 '미호미'라고도 한다. 일본어로 '나다, 나대'라고도 한다.

105002 @ 음.(음.)

105002 #1 경허민 아마 염분 보충허곡 다시.(그렇게 하면 아마 염분 보충하고 다시.)

105002 #2 조도 잘 뒈곡. 우리도 우리대론 홀 수 엇이난 삼동 사름 쒄 그거 허여당 흔 천 펭, 천 평 아니 팔백 펭은 뒈겟다 헌 것에 잔뜩 헤연 왕 끌아근 그대로 헤먹으렌.(조도 잘 되고. 우리도 우리대론 할 수 없으니까 삼동 사름 줘서 그거 해다가 한 천 평, 천 평 아니 팔백 평은 되겠다 한 것에 잔뜩 해서 와서 깔아서 그대로 해먹으라고.)

105002 @ 음.(음.)

105002 @2 아, 듬북 끌앙.(아, 듬북 깔아서.)

105002 #1 듬북 끌아주면은 일 년 일 년 헤먹는 거.(듬북 깔아주면 일 년 일 년 해먹는 거.)

105002 #2 밧 비는 것도 어려우니까 경 헹 끌아줭 허민 그 다음부떤 또 임제가 허여.(밭 빌리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깔아줘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임자가 해.)

105002 @ 음 게난 일 년, 음.(음 그러니까 일 년, 음.)

105002 #1 그 저 듬북 끌아준 값에.(그 저 듬북 깔아준 값에.)

105002 @ 예, 예. 값에 그때 흔 동은 헤먹는 거구나예. 예. 그때는 무신 농사 지엇어마씨?(예, 예. 값에 그때 한 동은 해먹는 거군요. 예. 그때는 무슨 농사 지었어요?)

105002 #2 보리.(보리.)

105002 @ 조나 보리 이렇게예. 감태 허는 거는 안 봔마씨?(조나 보리 이렇게요. 감태 하는 거는 안 봤어요?)

105002 #2 감태 안 봔.(감태 안 봔.)

105002 #1 감태는 뭐 그냥 듬북에 들어가불지. 감태덜은 뜨로 허지 아녕.(감태는 뭐 그냥 듬북에 들어가버리지. 감태들은 따로 하지 않아서.)

105002 #2 이젠 동더렌 따로 허여.(이젠 동으로는 따로 해.)

105002 @ 예, 예.(예, 예.)

105002 #2 따로 허영 풀아. 경 허는디 영 뎅기멍 봐도 감태가 많지 아녀. 엿날은 막 많이 헤난디. 난 뎅겨보진 안헷지마는 많질 아녀.(따로 해서 팔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감태가 많지 않아. 옛날은 매우 많이 했었는데. 난 다녀보진 안했지만 많질 않아.)

105002 #1 이 감태가 저거 옥도 원료로 그 웨정 때 썻주게.(이 감태가 저거 옥도 원료로 그 왜정 때 썼지.)

105002 @ 예, 예.(예, 예.)

105002 #1 옥도 공장도 성산더레도 있엇고.(옥도 공장도 성산으로도 있었고.)

105002 #2 그쪽더레 허멍 픗는 셍이라. 사천 원. 나가 좀 누게 구헤드렌 헤연.

(그쪽으로 하면서 파는 모양이야. 사천 원. 내가 좀 누구 구해달라고 해서.)

105002 @ 아, 구혜봣구나예?(아, 구해봤군요?)

105002 #2 한 근에 사천 원이렌.(한 근에 사천 원이라고.)

105002 @ 감태가 어.(감태가 어.)

105002 @2 뭐, 그 사름은 뭐에 쓰켄마씨? 전복 양식으로?(뭐, 그 사람은 뭐에 쓰겠대요? 전복 양식으로?)

105002 #1 아니, 전복 양식이 아니고 저.(아니, 전복 양식이 아니고 저.)

105002 #2 물류왕근에 가를 내영.(말려서 가루를 내서.)

105002 @ 약으로 먹젠?(약으로 먹으려고?)

105002 #1 줌 못 자는 것ᄀᆞ라.(잠 못 자는 것보고.)

105002 @1 수면.(수면.)

105002 @2 불면증.(불면증.)

105002 #1 불면증에 그걸 먹켄.(불면증에 그걸 먹겠다고.)

105002 #2 육지서.(육지서.)

105002 #1 그 뭣에도 올라온 셍이라. 인터넷에도 올라온 셍이란게.(그 뭣에도 올라온 모양이야. 인터넷에도 올라온 모양이던데.)

105003 @ 불면증에 감태 좋덴 헤갖고. 어쨋든 해조류니까예? 예. 아까 이제 ᄀᆞᆯ앗주만은예, 고둥 게니까 보멀은 어떵 잡안마씨?(불면증에 감태 좋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해조류니까요? 예. 아까 이제 말했지만요, 고둥 그러니까 '보멀'은 어떻게 잡았어요?)

105003 #2 돌 일리면서 잡지.(돌 일으키면서 잡지.)

105003 @ 예, 돌, 돌 일령은에 잡는 거 다예.(예, 돌, 돌 일으켜서 잡는 거 다요.)

105003 #1 돌에 부뜬 거 심으는 거.(돌에 붙은 거 잡는 거.)

105003 @ 깅이는마씨?(게는요?)

105003 #2 깅이, 깅이도 기냥 막 돌 일르멍 막 이렇게 헤서 잡지. 기냥 ᄃᆞᆯ아낭 못 잡아.(게, 게도 그냥 마구 돌 일으키면서 마구 이렇게 해서 잡지. 그냥 달아나서 못 잡아.)

105003 @ 아, 게문 이제 삼춘 ᄀᆞᆯ아줫주마는 그 보멀 종류예?(아, 그러면 이제 삼촌 말했지만 그 고둥 종류요?)

105003 #2 으.(으.)

105003 @ 다시 한번만 ᄀᆞᆯ아줘줍서.(다시 한번만 말해 주세요.)

105004 #2 고동.(고둥.)

105004 @ 예.(예.)

105004 #2 육지서는 대개 고동이옌 허여이. 겐디 이디선 그 쭈짝허여근에 꼭지가 나온 거. 딱지 부뜬 디는 영 허영 납삭허고.(육지서는 대개 고둥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선 그 뾰쪽해서 꼭지가 나온 거. 딱지 붙은 데는 이렇게 해서 납작하고.)

105004 @ 예.(예.)

105004 #2 꼭지 부뜬 거이 조짝헤이. 그딘 똥이라. 것이 고동.(꼭지 붙은 거 뾰족해. 거긴 똥이야. 것이 고둥.)

105004 #1 먹보말.(밤고둥.)

105004 #2 먹보말엔 헌 건 까망허곡 검어.(밤고둥이라고 한 건 까맣고 검어.)

105004 @ 검은 거.(검은 거.)

105004 #2 문들락허고. 으물도 큰 건 하.(매끈하고. 여물도 큰 것은 많아)

105004 #1 수두리보말. 수두리보말.(팽이고둥. 팽이고둥.)

105004 @ 어, 수두리보말.(어, 팽이고둥.)

105004 #2 수두리보말엔도 허곡 먹보말엔 허곡.(팽이고둥이라고도 하고 밤고둥이라고도 하고.)

105004 #1 아니.(아니.)

105004 #2 고동ᄀᆞ라 저 수두리보말이렌 헤낫주.(고둥보고 저 팽이고둥이라고 했었지.)

105004 @ 예, 예, 예.(예, 예, 예.)

105004 #1 또 코ᄐᆞ데기.(또 남방울타리고둥.)

105004 @2 아 코ᄐᆞ데기.(아 남방울타리고둥.)

105004 #1 으.(으.)

105004 @ 그 다음 아까 웬보말.(그 다음 아까 대롱고둥.)

105004 #1 대개.(대개.)

105004 @1 그 정도예?(그 정도요?)

105004 @2 껍질 이런 데 보면 저 눈동자처럼 뭰 것도 엇수가? 딱딱허연.(껍질 이런 데 보면 저 눈동자처럼 된 것도 없습니까? 딱딱해서.)

105004 @ 막 쓴 거.(매우 쓴 거.)

105004 #1 쒜닥지[147] 입은 거.('쒜닥지' 입은 거.)

105004 @2 쒜닥지 입은 거.('쒜닥지' 입은 거.)

105004 #1 것ᄀᆞ란 돌포말이렌 허는가.(것보고 '돌포말'이라고 하는가.)

105004 #2 우린 돌포말, 돌포말 헤부난 몰라.(우린 '돌포말', '돌포말' 해버리니깐 몰라.)

105004 @ 예, 여기 돌포말.(예, 여기 소라고둥.)

105004 #2 돌포말 그거 헤당은에 당뇨에덜 허영 먹어.(소라고둥 그거 해다가 당뇨에들 해서 먹어.)

105004 @ 예, 예. 당뇨에 좋덴 헌 거예. 돌포말마씨?(예, 예. 당뇨에 좋다고 한 거요. 소라고둥요?)

105004 @2 먹으민 씨우룽허는 거 잇지 아녀우과?(먹으면 씁쓰레한 거 있지 않

147) '쒜닥지'는 '쒜+닥지' 구성으로, '쒜'는 '쇠', '닥지'는 '딱지'의 방언이다. '쒜딱지'는 '쇠처럼 단단한 딱지'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합성어다.

습니까?)

105004 #2 씨우룽헤도 것이 질로 좋덴.(씁쓰레해도 것이 젤로 좋다고.)

105004 @ 그 다음에 메옹이 이런 건?(그 다음에 두드럭고둥 이런 건?)

105004 #2 메옹이는 맵주롱헌 게.(두드러고둥은 맵싸한 게.)

105004 @ 예.(예.)

105004 #1 메옹이겟다.('메옹이'겠다.)

105004 #2 쏘롬헤가지고 영 허영 우린 메옹이엔 헤부난 몰라. 거 뭐옌 허드라? 육지 사름은.('쏘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린 '메옹이'라고 해버리니까 몰라. 거 뭐라고 하더라? 육지 사람은.)

105004 @ 표준어는 두드럭고둥.(표준어는 두드럭고둥.)

105004 #1 두드럭고둥.(두드럭고둥.)

105005 @ 그 다음엔 삼춘 깅이예?(그 다음엔 삼촌 게요?)

105005 #2 으.(으.)

105005 @ 깅이도 종류가 읏라 질이렌 허멍예?(게도 종류가 여러 질이라고 하면서요?)

105005 #2 으.(으.)

105005 @ 뭐?(뭐?)

105005 #2 춤깅이도 잇고 똥깅이도 잇곡 심방깅이도 잇곡.(참게도 있고 '똥깅이'도 있고 '심방깅이'도 있고.)

105005 #1 아, 저 돌킹이[148]도 잇고.(아, 저 '돌킹이'도 있고.)

105005 #2 돌킹이도 잇고.('돌킹이'도 있고.)

105005 #1 또.(또.)

105005 @2 지름깅이?(지름깅이?)

105005 #2 똥깅이는 물랑물랑허여.('똥깅이'는 물렁물렁해.)

105005 @ 어, 똥깅이는?(어, '똥깅이'는?)

105005 #2 잘 굳지 아녕 이. 껍다리가 굳지 아녕 영 줍으민 믈싹믈싹 허여. 거는 먹지를 안 허여.(잘 굳지 않아서 이. 껍데기가 굳지 않아서 이렇게 집으면 말랑말랑해. 거는 먹지를 안 해.)

105005 @ 똥깅이는 안 먹고 그 다음에 심방깅이는?('똥깅이'는 안 먹고 그 다음에 '심방깅이'는?)

105005 #2 심방깅인 심도 못허여.(두점박이민꽃게는 잡지도 못해.)

105005 @ 어.(어.)

105005 #2 이렇게 허민.(이렇게 하면.)

105005 #1 빨라.(빨라.)

105005 #2 영 헌디 어느 쑹안에사[149] 저디 돌아부는디 못 심어, 못 심어.(이렇

148) '돌킹이'는 '돌ㅎ+깅이' 구성으로, 등껍질이 돌처럼 단단한 게다.
149) '쑹안에사'는 '동안에야'의 의미로 쓰인 것 같다.

게 하는데 어느 동안에야 저기 달려버리는지 못 잡아, 못 잡아.)

105005 @ 건 어떵 생겻수가?(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105005 #2 얼룩얼룩얼룩헌 게이 홁곡 막 재여.(얼룩얼룩얼룩한 게 굵고 막 재여.)

105005 @ 아.(아.)

105005 # 얼룩얼룩허여. 등어리가.(얼룩얼룩해. 등때기가.)

105005 @ 등어리가?(등때기가?)

105005 #2 점 잇지. 빨긋빨긋.(점 있지. 빨긋빨긋.)

105005 #1 희뜩희뜩.(희뜩희뜩.)

105005 #2 헤뜩헤뜩헌 것도 잇고.(해뜩해뜩한 것도 있고.)

105005 @ 불그스름하고 희뜩희뜩허고예? 그 다음에 아까 돌킹이는?(불그스름하고 희뜩희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돌킹이'는?)

105005 #2 돌킹이는 오몽도 못허영이.('돌킹이'는 움직임도 못해.)

105005 @ 음.(음.)

105005 #2 경 허영 끔짝끔짝허고이 이 껍다리가 기냥 더드럭더드럭헌 게 막 쎄여. 깅이 발이 기냥 그 아강발이 기냥 딱딱허여.(그렇게 해서 '끔짝끔짝'하고 이 껍데기가 그냥 터들터들한 게 매우 세. 게 발이 그냥 그 집게발이 그냥 딱딱해.)

105005 @ 아아.(아아.)

105005 #1 워낙 쎄여놓니까 돌킹이.(워낙 세어놓으니까 '돌킹이'.)

105005 #2 경 허영 딱 것이 줍져불민 잘 줍지지도 못허여. 나ᄀᆞ찌 떠 놓니까.(그렇게 해서 딱 그것이 집혀버리면 잘 집히지도 못해. 나같이 떠 놓으니까.)

105005 @ 음, 색깔은 어떵허여마씨?(음, 색깔은 어때요?)

105005 #2 색깔은 검지도 아녀고 ᄒᆞ꼼 희뚜룩헌 게 저 꼭 그 옷 색깔 비뜻.(색깔은 검지도 않고 조금 희뜩한 게 저 꼭 그 옷 색깔 비슷.)

105005 #1 아니, 저저 소곱에 속옷.(아니, 저저 속에 속옷.)

105005 @ 회색?(회색?)

105005 #1 회색이 가까웁고.(회색이 가깝고.)

105005 @ 어, 그게 돌킹이?(어, 그게 '돌킹이'?)

105005 #2 돌킹이.('돌킹이'.)

105005 @ 그 다음 아까 하나 뭘 골앗져마는.(그 다음 아까 하나 뭘 말했다만.)

105005 @2 지름깅이?(두점박이민꽃게?)

105005 #1 으?(으?)

105005 @1 지름깅이?(두점박이민꽃게?)

105005 #1 춤깅이.(참게.)

105005 #2 지름깅이 춤깅이.(두점박이민꽃게 참게.)

105005 @ 춤깅이는 어떻게 생겻수가?(참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105005 #1 볼고롱허영은에.(발개서.)

105005 #2 막 이뻐, 건.(매우 이뻐, 그것은.)

105005 @ 게믄 옛날에 깅이 잡아당은에 반찬허영 보깡 먹엇잖아예? 그거는 어떤 깅이를 주로 잡아당 보깡 먹은 거라마씨?(그러면 옛날에 게 잡아다가 반찬해서 볶아서 먹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게를 주로 잡아다가 볶아서 먹은 거예요?)

105005 #2 그자 아무 거라도 먹어.(그저 아무 거라도 먹어.)

105005 @ 아, 깅이는 다 먹읍니까?(아, 게는 다 먹습니까?)

105005 #2 똥깅이만 안 먹어.('똥깅이'만 안 먹어.)

105005 @ 음.(음.)

105005 #2 똥깅이는 꿀에 허영 거 먹으민 사름이 죽넨 허는디 몰라.('똥깅이'는 꿀에 해서 거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몰라.)

105005 @ 안 먹어보난?(안 먹어보니까?)

105005 #1 산 깅이도 물렁진덴.(산 게도 물렁진다고.)

105005 #2 영 허영 강 보민.(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105005 @ 예.(예.)

105005 #2 어떵헌가 허면, 이 때에 따라근에 물렁깅이가 잇넨.(어떠한가 하면, 이 때에 따라서 물렁게가 있다고.)

105005 @ 아, 계절에 따랑예?(아, 계절에 따라서요?)

105005 #2 계절에 따랑. 일찍 혼 이월 삼월쯤들엔 것이 굳지 못허영 경 헌데. 똥깅이 같은 건. 견디 똥깅인 똑 지픈 디도 엇어. 곳듸만 잇주.(계절에 따라서. 일찍 한 이월 삼월쯤엔 것이 굳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똥깅이' 같은 건. 그런데 '똥깅이'는 꼭 깊은 데도 없어. 가에만 있지.)

105005 @ 곳듸만예. 그 다음에 이제 식킹이도 잇지예?(가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식킹이'도 있지요?)

105005 #2 식킹이[150]?('식킹이'?)

105005 @ 으, 식킹이렌은 안 들어봅디가?(으, '식킹이'라고는 안 들어봤습니까?)

105005 #1 안 들어본디.(안 들어봤는데.)

105005 @ 식케?('식케'?)

105005 #2 식킹이엔 헌 건.('식킹이'라고 한 것은.)

105005 @ 으.(으.)

105005 @2 얼룩얼룩헌 거.(얼룩얼룩한 거.)

105005 #2 얼룩얼룩헌 것이 저 그것이 우리 ᄀᆞ뜨민 뭐 베염깅이라고 헤여낫어서.(얼룩얼룩한 것이 저 그것이 우리 같으면 뭐 '베염깅이'라고 했었어.)

105005 @ 무슨 깅이?(무슨 게?)

105005 #2 베염깅이[151].('베염깅이'.)

105005 @ 베염깅이? 그 물베염 모냥으로 그런 색깔이구나.('베염깅이'? 그 물뱀

150) '식킹이'는 게의 일종이다.
151) '베염깅이'는 게의 일종이다.

모양으로 그런 색깔이구나.)

105005 #2 얼룩얼룩허영 뻘긋뻘긋허고.(얼룩얼룩해서 빨긋빨긋하고.)

105005 @ 아, 뻘긋뻣긋허고 으. 베염깅이렌 헌 거. 거는 어디에 살아마씨?(아, 빨긋빨긋하고 으. '베염깅이'라고 한 거. 거는 어디에 살아요?)

105005 #2 바다에 살지.(바다에 살지.)

105005 @ 것도 바다에 사는데.(것도 바다에 사는데.)

105005 #2 바다에서 주루 이 돌 우의에만 살아. 물속엔 안 살아.(바다에서 주로 이 돌 위에만 살아. 물속엔 안 살아.)

105005 @ 아, 식킹이는? 게믄 돌 우에 막 헹 다니는 게 거의 그거로구나.(아, '식킹이'는? 그러면 돌 위에 마구 해서 다니는 게 거의 그거로구나.)

105005 #2 막 영 뎅기멍 발발 돋는 거 심방깅이라고 허여, 우린.(마구 이렇게 다니면서 발발 닫는 거 두점박이민꽃게라고 해, 우린.)

105005 @ 심방겡이?('심방겡이'?)

105005 #2 아, 심방깅이 잘도 핫저. 심지를 못허여. *** 여기서민 쫙허게 저기 돌아.(아, 두점박이민꽃게 잘도 많지. 잡지를 못해. *** 여기서면 쫙하게 저기 달려.)

105005 @ 게믄 주로 츰깅이 헤당은에 먹는 거우과?(그러면 주로 참게 해다가 먹는 겁니까?)

105005 #2 으, 츰깅인 저 곱닥허곡 츰.(으, 참게는 저 곱고 참.)

105005 @ 음, 건 어떤 색깔?(음, 건 어떤 색깔?)

105005 #2 맛도 좋아.(맛도 좋아.)

105005 #1 불그룽.(불그레.)

105005 #2 불그릇헌 것도 잇곡 헤또록헌 것도 것도 색깔은 으라 가지. 계절에 따랑산디사 경허여.(불그레한 것도 있고 희뜩한 것도 것도 색깔은 여러 가지. 계절에 따라서인지 그렇게 해.)

105005 #1 아니, 원래 자기가 위장헌 대로 그대로 허긴 허는디 이쁘게 허곡 보기에 쫌 탄탄해베곡. 그 저.(아니, 원래 자기가 위장한 대로 그대로 하긴 하는데 이쁘게 하고 보기에 좀 탄탄해 보이고. 그 저.)

105005 #2 저[쩌] 색깔이라이.(저 색깔이야.)

105005 #2 요 색깔예.(요 색깔요.)

105005 #2 예, 츰깅인.(예, 참게는.)

105005 @ 갈색?(갈색?)

105005 #2 갈색 비뜻헌 게 아주 저보다도 더 이뻐. 건 제게 돋지도 못허여. 영기냥 돌 일르면서 이렇게 저 골겡이로 긁어 가민 나와.(갈색 비슷한 게 아주 저보다도 더 이뻐. 건 재우 닫지도 못해. 이렇게 그냥 돌 일으키면서 이렇게 저 호미로 긁어 가면 나와.)

105005 #1 어떵 부찌민 꼿게, 꼿깅이엔도 골을 수 잇주. 꼿깅이엔도.(어떻게 붙

이면 꽃게, 꽃게라고도 말할 수 있지. 꽃게라고도.)

105006 @ 우리 제주도에는 꼿게는 안 나오난예? 큰 거는 안 나오잖아예? 이 바당엔 존 것들만. 알앗수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횃불 가정은에 바당에도 가는 거 봐봅디가?(우리 제주도에는 꽃게는 안 나오니까요? 큰 거는 안 나오잖아요? 이 바다에는 잔 것들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횃불 가져서 바다에도 가는 거 봐봤습니까?)

105006 @2 밤에.(밤에.)

105006 #1 바르?('바르'?)

105006 @ 예.(예.)

105006 #2 횃바르[152].('횃바르'.)

105006 @ 횃바르, 예.('횃바르', 예.)

105006 #2 횃바르.('횃바르'.)

105006 @ 으. 횃바르. 그 횃바르 헹은 뭐 잡는 거마씨?(으. '횃바르'. 그 '횃바르' 해서는 뭐 잡는 거예요?)

105006 #2 하간 저 문어도 올라오고.(이런저런 저 문어도 올라오고.)

105006 @ 음.(음.)

105006 #2 영 강 막 비추면 소라덜토 잇곡이.(이렇게 가서 마구 비추면 소라들도 있고.)

105006 @ 아, 불 보멍.(아, 불 보면서.)

105006 #2 구젱이.(소라.)

105006 #1 불 봉근엥 그.(불 봐서 그.)

105006 #2 불 봉은에.(불 봐서.)

105006 #1 생명체덜은 불을 따랑 오는 모냥이라.(생명체들은 불을 따라서 오는 모양이야.)

105006 #2 낙지덜토 올라오곡.(낙지들도 올라오고.)

105006 @ 음.(음.)

105006 #2 난 간, 저 신춘 간에 횃바르 잡으켄 허연 막 훼도 이만큼 무꺼놘에 ᄀᆞ만 줌자부런에. (웃음).(난 가서, 저 신촌 가서 '횃바르' 잡겠다고 해서 막 홰도 이만큼 묶어놔서 가만 잠자버려서. (웃음).)

105006 @ (웃음.) 가켄 헤신디 줌자부런.((웃음.) 가겠다고 했는데 잠자버렸어.)

105006 #1 물싼 때.(물썰 때.)

105006 #2 물싸민 나가기로 서 으누이가 갈 걸로 혜연. 그디 우리 고모가 사니까. 그디 간.(물써면 나가기로 세 오누이가 갈 걸로 해서. 거기 우리 고모가 사니까. 거기 가서.)

105006 @2 신촌에.(신촌에.)

105006 #2 신촌 바로 그.(신촌 바로 그.)

---

152) '횃바르'는 '밤에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서 낙지, 보말 등의 해산물을 잡는 일'을 말한다.

105006 #1 갯바위에.(갯바위에.)

105006 #2 노인당 저끗듸. 바로 여긴 물이주게. 축항.(노인당 곁에. 바로 여긴 물이지. 축항.)

105006 @ 으, 축항.(으, 축항.)

105006 #2 배 들어오는 디. 그딘디 영 허영 ᄒᆞ끔만 내려가민 걸 잡을 건디 자단 보난 뭐 다섯 시. 아척 다섯 시 뒈어불언.(배 들어오는 데. 거긴데 이렇게 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걸 잡을 것인데 자다가 보니까 뭐 다섯 시. 아침 다섯 시 되어버렸어.)

105006 #1 뭐렌 헌다마는.(뭐라고 한다만.)

105006 @2 개맛.('개맛'.)

105006 #2 물싸민 가야.(물써면 가야.)

105006 #1 개맛듸[153].('개맛듸'.)

105006 @ 경 허영은에 못 잡앙 옵디가? 한 번도 못 가봔?(그렇게 해서 못 잡아서 왔습니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105006 #1 그때 틀리난 못 가분 거.(그때 틀리니까 못 가버린 거.)

105006 #2 기냥 나가 와부난.(그냥 내가 와버리니까.)

105006 @ 어.(어.)

105006 #2 몰라, 동생들은 가와신디사.(몰라, 동생들은 가왔는지.)

105007 @ 여기도 원담 같은 것도 잇어신가마씨? 바당에 원담.(여기도 '원담' 같은 것도 있었는가요? 바다에 '원담'.)

105007 #1 바다에 원담[154]도 잇엇주. 삼양삼동에도 잇엇고. 일동더레도 잇엇고, 삼동에 잇는 건 확실헌디 이 삼, 삼동에도 둬 군데 잇어낫어.(바다에 '원담'도 있었지. 삼양삼동에도 있었고. 일동으로도 있었고, 삼동에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삼, 삼동에도 둬 군데 있었었어.)

105007 #2 이 신촌 간 보난 금년에도 간 보난에 잇언게, 원담.(이 신촌 가서 보니까 금년에도 가서 보니까 있던데, '원담'.)

105007 @ 아, 원담에서는 주로 뭘 잡는 거라마씨?(아, '원담'에서는 주로 뭘 잡는 거예요?)

105007 #2 원담은 헤쓰지 못허게 허여.('원담'은 허물지 못하게 해.)

105007 #1 게난 원담은 물든 땐 고기가 왓당.(그러니까 '원담'은 물밀 땐 고기가 왔다가.)

105007 @ 예.(예.)

105007 #1 이젠 물싸버리면은 거기서 가두어진 거.(이젠 물써버리면 거기서 가두어진 거.)

---

153) '개맛듸'는 표준어 '갯가'의 의미다. 지역에 따라서 '개깃, 개깃듸'라고 한다.

154) '원담'은 '해안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두르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만든 장치'다. 지역에 따라서 '갯담', 줄여서 '원'이라고도 한다.

105007 @ 음.(음.)

105007 #1 게난 고기 잡는 거주. 즉 말허면.(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지. 즉 말하면.)

105007 @ 예. 게난 주로 어떤 고기덜을 잡아신고예? 거기에서는예.(예.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고기들을 잡았는가요? 거기에서는요.)

105007 #2 주로 원담 안네 숭어가 잘 들어와이.(주로 '원담' 안에 숭어가 잘 들어와.)

105007 @ 아, 숭어?(아, 숭어?)

105007 #2 그런 것도 들어오곡 하간 거 다 들어와.(그런 것도 들어오고 이런저런 거 다 들어와.)

105007 #1 골고로, 골고로.(골고루, 골고루.)

105007 @ 멜도 거리고.(멸치도 뜨고.)

105007 #1 으, 멜도.(으, 멸치도.)

105007 @ 음, 옛날부터 숭어원이 제주도에 핫덴 헨게마는.(음, 옛날부터 숭어원이 제주도에 많았다고 하더니만.)

105007 #2 나 저 설개[155] 살 때에 설개엔 허믄 알주.(나 저 '설개' 살 때에 '설개'라고 하면 알지.)

105007 @2 예.(예.)

105007 #2 그 이 장석굴[156]엔 헌 디.(그 이 '장석굴'이라고 하는 데.)

105007 @2 예, 장석굴.(예, '장석굴'.)

105007 #2 나 살아난디 간 흔 이 년 살아난디.(나 살았었는데 가서 한 이 년 살았었는데.)

105007 #1 사삼사건에 ᄂᆞ려간.(사삼사건에 내려가서.)

105007 #2 그 숭어가 그 원담 안네 축항 배 매는 안네 왕 막 헐 말 엇이 뛰어. 경허민 이제 그물을 쳐.(그 숭어가 그 '원담' 안에 축항 배 매는 안에 와서 막 할 말 없이 뛰어. 그러면 이제 그물을 쳐.)

105007 @ 아아.(아아.)

105007 #2 원담 안.('원담' 안.)

105007 @2 안에.(안에.)

105007 #2 영 허영 들어오는, 배 들어오는 디 탁 청 허민 이젠 그것에 왕 이젠 모여왕 허민 이젠 그 그물을 들르민 그것에 막 담아졍 잡는 거 봐낫주.(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배 들어오는 데 탁 쳐서 하면 이젠 그것에 와서 이젠 모여와서 하면 이젠 그 그물을 들면 그것에 마구 담아져서 잡는 거 봤었지.)

105007 @ 음. 다 들어왕예?(음. 다 들어와서요?)

105007 #2 으.(으.)

---

155) '설개'는 삼양1동의 옛 이름이다.

156) '장석굴'은 삼양1동에 있는 자연마을의 하나이다.

105007 @ 예, 알앗수다.(예, 알았습니다.)

105007 #2 낮이라사 건 잡데.(낮이라야 그것은 잡데.)

105007 @ 낮이 아.(낮에 아.)

105007 #2 물싸민.(물써면.)

105007 @ 물싸면 으 그렇구나. 물들어 왕 물싸면 잡는 거예, 예?(물써면 으 그렇구나. 물밀어 와서 물써면 잡는 거요? 예?)

105007 @ 그 다음에 그 혹시 담들 몰지 못허게 허잖아예, 담 닿는 것도 봐봅디가?(그 다음에 그 혹시 담들 허물지 못하게 하잖아요, 담 쌓는 것도 봐봤습니까?)

105007 #1 원담?('원담'?)

105008 @ 원담 보수허는 거.('원담' 보수하는 거.)

105008 #1 원담은 아주 오랜 옛날에부터 헌 거라 놓난 그거 이 쓰러졋이민 그냥 누구를 막론허고 거기에 관련뒌 사람은 그냥 돌 우터레 영 줏엉 놓는 거.('원담'은 아주 오랜 옛날에부터 한 거여 놓으니까 그거 이 쓰러졌으면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그냥 돌 위로 이렇게 주워서 놓는 거.)

105008 @ 예.(예.)

105008 #1 경 허영 그자 다 보수덜. 그건 자기 일로 알앙근엥에 그 바닷가 사름덜은 다.(그렇게 해서 그저 다 보수들. 그건 자기 일로 알아서 그 바닷가 사람들은 다.)

105009 @ 으.(으.)

105009 #1 이제 보수헤연.(이제 보수해서.)

105008 #2 신촌 강 봐. 원담 잇어.(신촌 가서 봐. '원담' 있어.)

105008 @ 한 번 강은에 보쿠다.(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105008 #1 삼양도 지금 버렁[157]. 저 돌드리도 이실 거고.(삼양도 지금 '버렁'. 저 돌다리도 있을 거고.)

105008 @2 버렁은 지금 엇일 거우다.('버렁'은 지금 없을 겁니다.)

105008 #1 읏인가?(없는가?)

105008 @2 예.(예.)

105009 @ 혹시 여기에서 멜 잡는 것도 봐봅디가?(혹시 여기에서 멸치 잡는 것도 봐봤습니까?)

105009 #2 안 봐봔.(안 봐봤어.)

105009 @ 멜 잡는 거는 안 봐봔?(멸치 잡는 거는 안 봤어요?)

105009 #2 음.(음.)

105009 @ 음.(음.)

105009 #2 막 멜 들어왓져 잡암쩌 헤도.(마구 멸치 들어왔다 잡고 있다 해도.)

105009 #1 이, 이딘 웃드르라 부난.(이, 여긴 윗마을이라 버리니까.)

105009 @ 예.(예.)

157) '버렁'은 삼양3동의 자연마을 이름이다.

105009 #1 알드르[158] 사름덜이 그건 허는 거주.('알드르' 사람들이 그건 하는 거지.)

105009 #2 요번에 막 삼양덜 하영 들엇젠 허드라. 금년엔 어떵허연.(요번에 매우 삼양들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 금년엔 어떡해서.)

105009 @ 아, 멜들예?(아, 멸치들요?)

105009 #2 삼동에 막 들언, 많이 들엇젠.(삼동에 마구 들어서, 많이 들었다고.)

105010 @ 음, 그러면은 이제 멜은 안 헷일 거고. 궤기 나끄레는 삼춘 가봅디가?(음, 그러면 이제 멸치는 안 했을 거고. 고기 낚으러는 삼촌 가봤습니까?)

105010 #1 (웃음).

105010 @2 촘대는 하영 잇일 거니까.(낚싯대는 많이 있을 거니까.)

105010 #1 아, 이 (웃음).(아, 이 (웃음).)

105010 @ 영 허는 거 보난 뭔가 이유가 잇어, 이제.(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 이제.)

105010 #1 (웃음) 아니, 사삼사건 때 내려간이.((웃음) 아니, 사삼사건 때 내려가서.)

105010 @ 예.(예.)

105010 #1 배 탕 궤기 나끄레 간 거 아니? 간 어떵 어떵 허단 볼락 ᄒᆞ나를 나까서.(배 타서 고기 낚으러 간 거 아니?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볼락 하나를 낚았어.)

105010 @ 예.(예.)

105010 #1 이제 아침 간 기냥 낮 넘도록 살안에 뚠 사름은 ᄒᆞᆫ 멧 개썩 잡는디 볼락 ᄒᆞ날 잡안에 이젠 허니까 아 이거 촘 궤기 나까졋젠 허영 들어오멍 나 이거 심엇노렌 허난 ᄑᆞ들락허난 물더레.(이제 아침에 가서 그냥 낮 넘도록 살아서 다른 사람은 한 몇 개씩 잡는데 볼락 하날 잡아서 이젠 하니까 아 이거 참 고기 낚아졌다고 해서 들어오면서 나 이거 잡았노라고 하니까 파닥하니까 물로.)

105010 @ (웃음).

105010 #1 완전 공쳣지. 그 경허난 그 고기 잘 잡는 고기나 것도 사냥에 하나.(완전 공쳤지. 그 그렇게 하니까 그 고기 잘 잡는 고기나 것도 사냥에 하나.)

105010 @ 예, 그렇주마씨.(예, 그렇지요.)

105010 #1 사냥에 맨 거라 놓니까, 사냥허는 거나 같은 거라 놓니까, 나가 여기서 사냥허레 가민 절대 못허여게. 나광 ᄀᆞ찌 가민 간 사름은 그날은 공쳐불어.(사냥에 맨 거라 놓으니까, 사냥하는 거나 같은 거라 놓으니까, 내가 여기서 사냥하러 가면 절대 못해. 나랑 같이 가면 간 사람은 그날은 공쳐버려.)

105010 #2 세상을 살생을 말렌 헌 세상인 셍이라.(세상을 살생을 말라고 한 세상인 모양이야.)

105010 @ 예.(예.)

158) '알드르'는 아랫마을에 있는 들판이라는 의미다.

105010 #2 이디서 아무것도 잡을 중도, 둑 하나도 잡을 중 몰른덴 허난.(여기서 아무것도 잡을 줄도, 닭 하나도 잡을 줄 모른다고 하니까.)

105010 @ 음.(음.)

105010 #2 원.(전혀.)

105010 @ 옛날에 둑 게믄 유월 쓰무날 어떵 허영 먹엇수가?(옛날에 닭 그러면 유월 스무날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105010 #2 둑 유월 쓰무날 먹도 아년 유월, 집의 둑을 질롸낫어. 헤도 그 둑 어떵헤근에게 죽음이나 허민 잡젠 허민 스뭇 기냥 뭐 동네 상뒤 다 불러당.(닭 유월 스무날 먹지도 않고 유월, 집에 닭을 길렀었어. 해도 그 닭 어떻게 해서 죽음이나 하면 잡으려고 하면 사뭇 그냥 뭐 동네 향도 다 불러다가.)

105010 @2 (웃음).

105010 #1 하르바님 잇인 때난에 그 하르버님도 기냥.(할아버님 있을 때니까 그 할아버님도 그냥.)

105010 @ 음, 예.(음, 예.)

105010 #2 못 허여, 못 허여.(못 해, 못 해.)

105010 #1 거세기.(거시기.)

105010 #2 그런 거 계통에. 어디 돗 잡는 디나 어디 쉐 잡는 디 가도 양반, 양반이랑 앚아 시렌.(그런 거 계통에. 어디 돼지 잡는 데나 어디 소 잡는 데 가도 양반, 양반이라서 앉아 있으라고.)

105010 @ 아, 예에.(아, 예.)

105010 #2 아예 헐 줄을 몰르니까.(아예 할 줄을 모르니까.)

105010 @ 음.(음.)

105010 #2 것도 잘허는 사름이 잇어. 착, 착, 착, 착, 착, 착.(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착, 착, 착, 착, 착, 착.)

105010 @2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5010 #2 그 베설도 착허게 쳐내고.(그 내장도 착하게 쳐내고.)

105010 #1 그런 추렴허는 딘 가믄 주로 베설을, 똥 터는 거.(그런 추렴하는 데는 가면 주로 내장을, 똥 떠는 거.)

105010 @ 으음.(으음.)

105010 #1 그런 걸 잘헤야 뒈는데 그걸 못허여.(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105010 @ 음.(음.)

105010 #1 못허여. 게난 그 이런 그 살생혜영 거세기 허는 딘 아예 그냥 멀리허렌 헌.(못해. 그러니까 그 이런 그 살생해서 거시기 하는 데는 아예 그냥 멀리하라고 한.)

105010 @ 팔자가?(팔자가?)

105010 #1 팔자가 그런 거 같아. 게난 놈덜 골으민 그냥 웃음만 헐 말이주마

는.(팔자가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남들 말하면 그냥 웃음만 할 말이지만.)

105011 @ 예, 자기가 못허는디 어떵 헐 거라예?(예, 자기가 못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105011 #1 으.(으.)

105011 @ 게난 그 바당에 배 탕은에 낙시허레 갈 때, 뭐 준비헹 갑디가? 어떤 식으로 준비혜영 갑디가?(그러니까 그 바다에 배 타서 낚시하러 갈 때, 뭐 준비해서 갑디까?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갑디까?)

105011 #1 낙신게 춤대 그디 해변덜이란에 춤대덜 헹근에 이걸랑 그땐 여기서 그 거세기 내려, 피란 내려간 때난게.(낚신 낚싯대 거기 해변들이니까 낚싯대들 해서 이거는 그땐 여기서 그 거시기 내려, 피란 내려갈 때니까.)

105011 @ 예.(예.)

105011 #1 이 그디 형제덜토 이시난게, 그 요걸로 형님이랑 헙서, 무시거 헙서 거세기 허연 허난에 뭐 놈으 거 빌언. 쉽게 말허민.(이 거기 형제들도 있으니까, 그 요걸로 형님이랑 하세요, 무슨 것 하세요 거시기 해서 하니까 뭐 남의 거 빌려서. 쉽게 말하면.)

105011 @ 예, 게민 춤대 헹 거기에 이제.(예, 그러면 낚싯대 해서 거기에 이제.)

105011 #1 정술 메영.(낚싯줄 매어서.)

105011 @ 정술 메영.(낚싯줄 매어서.)

105011 #1 그 낙시 돌아메영.(그 낚시 매달아서.)

105011 @ 예.(예.)

105011 #1 허민 뒈주.(하면 되지.)

105011 #2 낙시밥.(낚싯밥.)

105011 @ 음.(음.)

105011 #1 낙시밥 꿰고. 물주리 혜영근엥에.(낚싯밥 꿰고. 갯지렁이 해서.)

105011 @2 물주리?(갯지렁이?)

105011 @ 물주리로예? 그런 식으로 이제 혜연.(갯지렁이로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

105011 #1 물주린 갯지렁인 모양이라.('물주리'는 갯지렁인 모양이야.)

105011 @ 예, 맞수다. 갯지렁이. 그 다음에 거기 뽕돌도 둡니까?(예, 맞습니다. 갯지렁이. 그 다음에 거기 봉돌도 답니까?)

105011 #1 아니, 뽕돌 돌아매사. 건 내려가야 뒈니까?(아니, 봉돌 매달아야. 건 내려가야 되니까?)

105011 @ 예.(예.)

105011 #1 내려가야 뒈난.(내려가야 되니까.)

105011 @ 그거는 정술은 한나로 쭉 메영 이십니까? 정술에 또다시 낙시 매는 줄을 맵니까?(그것은 낚싯줄은 하나로 쭉 매어 있습니까? 낚싯줄에 또다시 낚시 매는 줄을 맵니까?)

105011 #1 이 저, 이 뽕돌 이신디서 이으주. 다시 그 저.(이 저, 이 봉돌 있는데 잇지. 다시 그 저.)

105011 @ 음, 한 번 더 이어예?(음, 한 번 더 이어요?)

105011 #2 한 번 더 이영.(한 번 더 이어서.)

105011 @2 목줄, 목줄.(목줄, 목줄.)

105011 #1 목줄을. 그거 낙시 매곡 요만이 허영은에 다시 그 우에 뽕돌 잇곡 그 다음은 저 낙싯대에.('목줄'을. 그거 낚시 매고 요만큼 해서 다시 그 위에 봉돌 있고 그 다음은 저 낚싯대에.)

105011 @ 음.(음.)

105011 #1 그냥.(그냥.)

105011 @ 낙싯대에 그냥 헤영예.(낚싯대에 그냥 해서요.)

105011 #1 줄은 강 낙싯줄로.(줄은 가서 낚싯줄로.)

105011 @ 그런 거는 다 집에서 헤마씨? 어디서 픈는 거 상은에 헤?(그런 거는 다 집에서 해요? 어디서 파는 거 사서 해?)

105011 #1 아, 옛날은 다 저 정술은 사당 정술허고 뽕돌은 사오곡.(아, 옛날은 다 저 낚싯줄은 사다가 낚싯줄하고 봉돌은 사오고.)

105011 @ 예.(예.)

105011 #1 낙시허곡.(낚시하고.)

105011 @ 예.(예.)

105011 #1 그 댄 여기 왕덜 빌어가는 거난에 그 우트레 왕.(그 댄 여기 와서들 빌려가는 거니까 그 위로 와서.)

105011 @2 도련드르 많아?('도련드르' 많아?)

105011 #1 으, 도련 댄 많으난에.(으, 도련 댄 많으니까.)

105011 @2 왕대.(왕대.)

105011 #2 왕대도 잇고 저.(왕대도 있고 저.)

105011 @2 수리대.(이대.)

105011 #2 수리대 허곡.(이대 하고.)

105011 @ 수리대도로 춤대허곡.(이대도로 낚싯대하고.)

105011 @2 수린댄 아이덜 허는 거고.(이대는 아이들 하는 거고.)

105011 #1 으, 저 수리대 늙은 걸로라사.(으, 저 이대 늙은 것으로라야.)

105012 @ 늙은 걸로. 혹시 이제 삼춘은 물질을 안 헤나니까 소살로 헹은에 고기를 쏘으는 것도 봐난마씨?(늙은 걸로. 혹시 이제 삼촌은 물질을 안 했었으니까 작살로 해서 고기를 쏘는 것도 봤었어요?)

105012 #1 봐사낫주, 봐사낫주마는.(봤었지, 봤었지만.)

105012 #2 나 그런 건. 나 헤엄칠 중도 몰라.(나 그런 건. 나 헤엄칠 줄도 몰라.)

105012 @ 헤엄칠 줄도 몰라.(헤엄칠 줄도 몰라.)

105012 #2 바당에 흔 번 갓단이 막 기냥 잡당 보난 그 여에 돌 잇어이.(바다에 한 번 갔다가 마구 그냥 잡다가 보니까 그 여에 돌 있어.)

105012 @ 예.(예.)

105012 @2 여예.(여에.)

105012 #2 바다 가운디. 여에서 막 잡단 보난이.(바다 가운데. 여에서 마구 잡다가 보니까.)

105012 @2 물 들어불언?(물 밀려버렸어요?)

105012 #2 물은 솜빡 든 거 아니. 아이고, 나 죽어지켄. 힐 충도 나 죽어지켄 허난 남ᄌᆞ분이 게도 오란 영 허연 오란 안앙 ᄀᆞᆺ듸레 놔줜 경 혜연 오란 나 살앗어.(물은 가득 든 거 아니. 아이고, 나 죽어지겠다고. 헬 줄도 나 죽어지겠다고 하니까 남자분이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해서 와서 안아서 가에 놔줘서 그렇게 해서 와서 나 살았어.)

105012 @ (웃음). 저도 헤엄 못 쳐마씨.((웃음). 저도 헤엄 못 쳐요.)

105012 #2 으. (웃음).(으. (웃음).)

105013 @ 여기는 고깃배 종류 같은 거는 어떤 종류 잇어낫인고예? 고깃배?(여기는 고깃배 종류 같은 거는 어떤 종류 있었을까요? 고깃배?)

105013 #1 고깃배는 그 낙베엔 헤영근엥에 뭐 장난말로 솔박베[159]엔도 허곡.(고깃배는 그 낚배라고 해서 뭐 장난말로 '솔박배'라고도 하고.)

105013 @ 예.(예.)

105013 #1 그 허난 그 베로 주로덜 헤시난 옛 어른덜이 대단헌 거주. 그 춤 조그만헌 거 타 아졍근에 경허난 그 어른덜 말은 혼백상지, 혼백상지.(그 하니까 그 배로 주로들 했으니까 옛 어른들이 대단한 거지. 그 참 조그마한 거 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어른들 말은 혼백상자, 혼백상자.)

105013 @ 예.(예.)

105013 #1 메영 뎅기노렌 허주게.(매서 당기노라고 하지.)

105013 @ 예, 예.(예, 예.)

105013 #1 그 메어 아졍근엥에 바당에 뎅기는 사름은.(그 매 가지고 바다에 다니는 사람은.)

105013 #2 자리 거릴 때는 그 테우.(자리돔 뜰 때는 그 떼배.)

105013 @ 음.(음.)

105013 #1 낭덜 이만씩 헌 거 허영 쭉허게 이치룩 영 짜주게. 그디.(나무들 이만큼 한 거 해서 쭉하게 이처럼 이렇게 짜지. 거기.)

105013 @ 예, 예.(예, 예.)

105013 #1 테우엔 테, 테우엔 엿날 우리덜 ᄀᆞᆯ은 말은.(떼배라고 떼, 떼배라고 옛날 우리들 말한 말은.)

159) '솔박베'는 배 모양이 '솔박'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규모가 작은 낚싯배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솔박'은 곡식을 뜨거나 풀 때 사용하는 나무를 기름하게 파서 만든 도구다. 지역에 따라서 '좀팍, 손박' 등으로 부른다.

105013 #2 다 알 거라.(다 알 거야.)

105013 #1 테우엔 헹근에 그것 그걸로 강 그 저 자리.(떼배라고 해서 그것 그걸로 가서 그 저 자리돔.)

105013 @ 예.(예.)

105013 #1 자리 거릴 때.(자리돔 뜰 때.)

105013 @ 음, 자리 거릴 땐 그걸로 하고. 낙베는 돗 엇인 그냥 헌 베가 낙베지 예? 옛날에.(음, 자리돔 뜰 땐 그걸로 하고. 낚배는 돛 없는 그냥 한 배가 낚배죠? 옛날에.)

105013 #1 경허난 아니. 다 돗댄 잇어.(그러니까 아니. 다 돛댄 있어.)

105013 @ 아.(아.)

105013 #1 그건 어떵 허는고 허민 이거 항시 이 노 저을 수 없는 거니까 ᄇᆞ름, ᄇᆞ름으로게 그 사이엔 쉬고 뭐허곡 헤영 돗 둘민 그냥 이 ᄇᆞ름으로 갈 거난.(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항시 이 노 저을 수 없는 거니까 바람, 바람으로 그 사이엔 쉬고 뭐하고 해서 돛 달면 그냥 이 바람으로 갈 거니까.)

105013 @ 만약에 돗 지왕 헌 게 낫베. 돗 헌 베는 무신 베렌 헙니까?(만약에 돛 지워서 한 게 낚배. 돛 한 배는 무슨 배라고 합니까?)

105013 #1 아니 그건 난, 나가 들을, 들을 때엔 돗, 돗 단 건. 돗을 여러 개 단 건 풍선이엔 헤영근엥에 상인 베.(아니 그건 난, 내가 들을, 들을 때엔 돛, 돛 단 건. 돛을 여러 개 단 건 풍선이라고 해서 상인 배.)

105013 @ 음.(음.)

105013 #1 상인 베고. 그냥 낙베에, 엔 헌 건 돗 ᄒᆞ나 둘앙은에.(상인 배고. 그냥 낚배에, 라고 한 건 돛 하나 매달아서.)

105013 @ 조그만이.(조그마하게.)

105013 #1 경 뎅긴 걸로 알암수다.(그렇게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014 @ 알앗수다. 그 다음에 그 여긴 좀녀, 좀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긴 '좀녀', '좀수'?)

105014 #1 좀녜.('좀녜'.)

105014 @ 좀녜, 그 좀녜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채취헤신고예? 해산물들.(잠녀, 그 잠녀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채취했을까요? 해산물들.)

105014 #2 해산물 뭐 바다에 잇는 건 다 심어오고. 전복이고 해삼이고 문어고 원 그자 봐진 건 다 심어와, 먹는 건.(해산물 뭐 바다에 있는 건 다 잡아오고. 전복이고 해삼이고 문어고 원 그저 보인 건 다 잡아와, 먹는 건.)

105014 @ 음, 여기는 문어를 뭐렌 헙니까? 이 동네는?(음, 여기는 문어를 뭐라고 헙니까? 이 동네는?)

105014 #1 뭉게.(문어.)

105014 @ 뭉게.(문어.)

105014 #1 해삼ᄀᆞ란 미.(해삼보고는 '미'.)

105014 @ 예, 미. 그 다음에 점복ᄀᆞ란?(예, '미'. 그 다음에 전복보고는?)

105014 #1 점북ᄀᆞ란 점북.(전복보고는 '점북'.)

105015 @ 예, 점북. 그 다음에 으, 그 좀녜들예, 예전에 좀녜들 물질헐 때 필요헌 도구? 뭘 들렁 갑니까? 무슨 옷 입고 헹은에 옛날엔.(예, '점북'. 그 다음에 으, 그 잠녀들요, 예전에 잠녀들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 뭘 들어서 갑니까? 무슨 옷 입고 해서 옛날엔.)

105015 #2 기냥 옛날에는이 속곳 영 허영 입곡.(그냥 옛날에는 속곳 이렇게 해서 입고.)

105015 @ 예.(예.)

105015 #2 우의 저.(위에 저.)

105015 @2 적삼?(적삼?)

105015 #2 적삼 이만이 헌 거 허영.(적삼 이만큼 한 거 해서.)

105015 #1 아래 그건 무신 소중이[160]엔 ᄀᆞᆯ아라마는.(아래 그건 무슨 '소중이'라고 말하더니만.)

105015 @2 물소중이?('물소중이'?)

105015 #1 으, 물소중이[161].(으, '물소중이'.)

105015 #2 물소중이가 잇어. 영 허영 이ᄁᆞ지 이만이 오는 거. 헤양케 헤영.('물소중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까지 이만큼 오는 거. 하얗게 해서.)

105015 @ 헤양케 헤영. 그거 입곡. 그 다음에 뭐 들렁 가?(하얗게 해서. 그거 입고. 그 다음에 뭐 들어서 가?)

105015 #2 테왁 들르곡.('테왁' 들고.)

105015 #1 테왁 들르곡 그저 무신 거?('테왁' 들고 그저 무슨 거?)

105015 # 창대 들르곡 그자.(창대 들고 그저.)

105015 #1 창댄가?(창댄가?)

105015 @2 비창.('비창'.)

105015 #1 비창, 비창 들르곡.('비창', '비창' 들고.)

105015 @ 예.(예.)

105015 #1 아, 물안경 쓰곡.(아, 물안경 쓰고.)

105015 #2 이 무시 거 저.(이 무슨 거 저.)

105015 @2 중게호미?('중게호미'?)

105015 #2 우리 ᄀᆞ뜨민 ᄀᆞᆯ겡이엔 허는 거. ᄀᆞᆯ겡이 옛날은. 이젠 벨 ᄀᆞᆯ겡이가 다 낫주마는 그때 그자 ᄀᆞᆯ겡이 아졍강 경 헷주.(우리 같으면 호미라고 하는 거. 호미 옛날은. 이젠 별 호미가 다 났지만 그때 그저 호미 가져가서 그렇게 했지.)

105015 @ 음, 그런 거 헹은에 이제 물질허는 거고. 경 허여도 이제 저기 오분작 같은 거 트는 거는 ᄀᆞᆯ겡이로 트는 거?(음, 그런 거 해서 이제 물질하는 거고. 그렇

160) '소중이'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무명천 따위로 만든 속곳이다.
161) '물소중이'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무명천 따위로 만든 속곳이다.

게 해도 이제 저기 오분자기 같은 거 따는 거는 호미로 따는 거?)

105015 #1 비창으로도 허곡.('비창'으로도 하고.)

105015 #2 비창. 비창 바로 저 영 허영 납삭허여.('비창'. '비창' 바로 저 이렇게 해서 납작해.)

105015 @ 예, 예.(예, 예.)

105015 #2 납삭허영 이 지러긴 뒈여.(납작해서 이 길인 되어.)

105015 @ 음.(음.)

105015 #1 아니, 이만이 허여, 이만이.(아니, 이만큼 해, 이만큼.)

105015 @2 아니 건 너무 크우다.(아니 건 너무 큽니다.)

105015 #1 이만이.(이만큼.)

105015 @2 이십오 센티 내외.(이십오 센티미터 내외.)

105015 @ (웃음).

105015 #1 경 뒌가.(그렇게 됐는가.)

105015 @2 삼십 센티 넘어가민 건 못 써 너무 질어.(삼십 센티미터 넘어가면 건 못 써 너무 길어.)

105016 @ (웃음) 즘녀들 옛날 물질허고 요즘 물질허는 거허고 막 ᄐᆞ나예?((웃음) 잠녀들 옛날 물질하고 요즘 물질하는 거하고 매우 다르죠?)

105016 #2 ᄐᆞ나주게.(다르지.)

105016 @ 요즘은 어떤 식으로 헴신고?(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105016 #2 몰르커라, 난.(모르겠어, 난.)

105017 @ 아까 물옷도?(아까 물옷도?)

105017 #2 고무옷 입어불곡.(고무옷 입어버리고.)

105017 #1 고무옷 입곡 물안경ᄁᆞ장 그 뭐 뒈곡 이 발에도 오리발 신곡 헤놓난에.(고무옷 입고 물안경까지 그 뭐 되고 이 발에도 오리발 신고 해놓으니까.)

105017 @ 예.(예.)

105017 #1 옛날이사 무신 오리발 잇어 뭐가 잇어. 자기 그 기구 엇이 자기 힘대로 이제 **.(옛날이야 무슨 오리발 있어 뭐가 있어. 자기 그 기구 없이 자기 힘대로 이제 **.)

105017 #2 물안경도 요멘인 헌 거 허영 영 요디만 헷주마는 이젠 큰 거 허영은에.(물안경도 요만큼 한 거 해서 이렇게 요기만 했지만 이젠 큰 거 해서.)

105017 @2 왕눈.(큰눈.)

105017 #2 탁허게시리 물 들어갈 디가 엇어.(탁하게끔 물 들어갈 데가 없어.)

105017 @ 그러니까예 옛날은.(그러니까요 옛날은.)

105017 @2 고무옷 생기니까예, 어 해녀들이 더 힘들덴마씨.(고무옷 생기니까요, 어 해녀들이 더 힘들대요.)

105017 #1 아아.(아아.)

105017 @2 왜냐하면 물속에 오래 살게 뒈니까.(왜냐하면 물속에 오래 살게 되

니까.)

105017 #1 그거 입으난.(그거 입으니까.)

105017 @2 물소중이 입을 때는 추워도 나오는데, 고무옷 입으니깐예?('물소중이' 입을 때는 추워도 나오는데, 고무옷 입으니깐요?)

105017 #1 추운 걸 몰라.(추운 걸 몰라.)

105017 @2 몰라. 그니까 더 오래 살다보니까 더 힘들덴.(몰라. 그니까 더 오래 살다보니까 더 힘들다고.)

105017 #1 수압 때문에 그냥.(수압 때문에 그냥.)

105017 @2 것도 잇고.(것도 있고.)

105017 #1 수압, 수압.(수압, 수압.)

105017 @2 물속에 오래 사니까예, 예.(물속에 오래 사니까요, 예.)

105018 @ 게난 여기 톨도 허레 뎅기잖아예? 삼춘네도 톨 허레 뎅겨봔?(그러니까 여기 톳도 하러 다니잖아요? 삼촌네도 톳 하러 다녀봤어요?)

105018 #1 갯것이 갈 때사게.(바닷가 갈 때야.)

105018 #2 것사.(것이야.)

105018 #1 그건.(그건.)

105018 @ 거 골아줍서. 톨 어떤 식으로?(거 말해 주십시오. 톳 어떤 식으로?)

105018 #1 톨 걸리민 톨 비여사.(톳 걸리면 톨 베야.)

105018 @ 예, 톨은 비는 거?(예, 톳은 베는 거?)

105018 #2 비영 바구니. 옛날은 바구니, 대로 만든.(베어서 바구니. 옛날은 바구니, 대로 만든.)

105018 #1 숭키구덕[162].('숭키구덕'.)

105018 #2 바구니 아졍가근에 칼 아지곡.(바구니 가져가서 칼 가지고.)

105018 @ 예.(예.)

105018 #2 호미나 칼이나 가졍강 영 허영 톨도 비곡 미역도 봐지민 비곡 정각도 봐지민 허곡 경 허영.(낫이나 칼이나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톳도 베고 청각도 봐지면 하고 그렇게 해서.)

105018 #1 정각, 정각. 청각.(청각, 청각. 청각.)

105018 #2 이젠 못허여. 욕허여.(이젠 못해. 욕해.)

105018 #1 정각, 청각 그것이 화상이 좋다 허여.(청각, 청각 그것이 화상에 좋다 해.)

105018 @ 정각이예?(청각이요?)

105018 #1 불에 술앙.(불에 살라서.)

105018 @ 음.(음.)

105018 #1 술앙 춤지름 허영 춤지름 서텅 그 화상에 불르민 그대로 상당이 빠르덴.(살라서 참기름 해서 참기름 섞어서 그 화상에 바르면 그대로 상당히 빠르다

162) '숭키구덕'은 '푸성귀를 캐러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대로 만든 바구니'를 말한다.

고.)

105019 @ 아아, 정각예? 그 다음에 우미도 허레 뎅겨난마씨?(아아, 청각요? 그 다음에 우뭇가사리도 하러 다녔어요?)

105019 #1 갯것이 갈 때사게. 우미.(바닷가 갈 때야. 우뭇가사리.)

105019 #2 우미 가민 천지가만지난 옛날에.(우뭇가사린 가면 천지만지니까 옛날에.)

105019 @ 어.(어.)

105019 #2 헤도 원 난 허여와 보진 안헷어.(해도 전혀 난 해와 보진 안했어.)

105019 @ 우미 삼춘 안허고?(우미 삼촌은 안하고?)

105019 #2 나가 먹어지지 아녀니까.(내가 먹어지지 않으니까.)

105019 @ 맞아예?(맞아요?)

105019 #2 아니 헤봔.(아니 해봤어.)

105019 @ 우미허곡 발래고 이제.(우뭇가사리하고 바래고 이제.)

105019 #2 이젠이, 우미도 허지 못허곡. 우리 ᄀᆞ뜬 사름은 못허곡 헌디 그땐 내분 때난 그자 아무라도 강 그땐 만허기도 헤낫어. 하근 게.(이젠, 우뭇가사리도 하지 못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하고 하는데 그땐 내버린 때니까 그저 아무라도 가서 그땐 많기도 했었어. 이런저런 게.)

105019 #1 모든 사름이 다 임제난.(모든 사람이 다 임자니까.)

105019 @ 예, 예.(예, 예.)

105019 #2 다 가면 뭐 영허여근에 요런 엉덕 속에 영 보면 조쿠제기[163]가 숨빡 담아졍 잇곡.(다 가면 뭐 이렇게 해서 요런 언덕 속에 이렇게 보면 '조쿠제기'가 가득 담아져서 있고.)

105019 @ 음, 그게 다 어디 가불어신고?(음, 그게 다 어디 가버렸을까요?)

105019 #1 (웃음). 춤 다 어디 가불어신고?((웃음). 참 다 어디 가버렸을까?)

105019 #2 이젠 엇어.(이젠 없어.)

105019 @ 엇어예?(없어요?)

105019 #2 영 돌만 영 허민 오분자기고 전복 새끼고 뭐, 막 기냥 잇는 디 가민 댓 개썩 믄쳐져.(이렇게 돌만 이렇게 하면 오분자기고 전복 새끼고 뭐, 마구 그냥 있는 데 가면 댓 개씩 만져져.)

105019 #1 굼벗 ᄀᆞ튼 건 먹젠, 먹을 셍각도 아녀고.(군부 같은 건 먹으려고, 먹을 생각도 않고.)

105019 #2 경허주만 이젠 암만 강 믄쳐도 엇어. 그렇게 바당이 그렇게 맑앗어, 맑앗어.(그렇게 하지만 이젠 암만 가서 만져도 없어. 그렇게 바다가 그렇게 맑았어, 맑았어.)

105019 @ 예.(예.)

105019 #1 이제 군벗도 엇인 셍이란게.(이제 군부도 없는 모양이던데.)

163) '조쿠제기'는 어린 소라를 말한다.

105019 @ 예, 군벗예?(예, 군부요?)

105019 #2 군벗도 하도 먹을 거로 알앙 해놓난이 동춘더레 강 허영 오는구나마는 저 한동 펜디레 강 엇어.(군부도 하도 먹을 거로 알아서 해놓으니까 동촌으로 가서 해 오는구나마는 저 한동 편으로 가서 없어.)

105019 @ 음, 군벗도 막 종류도 으라 개렌 허멍 옛날에.(음, 군부도 매우 종류도 여러 개라고 하면서 옛날에.)

105019 #2 이제도 종류 하. 하도 몰라. 쒜군벗[164]도 잇곡 하르비군벗도 잇곡 거무신 물쿤벗[165]도 잇고 무시 거 뭐 골아도.(이제도 종류 많아. 많아도 몰라. '쒜군벗'도 있고 '털군부'도 있고 거 무슨 '물쿤벗'도 있고 무슨 거 뭐 말해도.)

105019 @ 물쿤벗은 어떤 것이우과?('물쿤벗'은 어떤 것입니까?)

105019 #2 물쿤벗은 뿔그른헌 게이 잘 안 먹어.('물쿤벗'은 불그레한 게 잘 안 먹어.)

105019 @ 음.(음.)

105019 #2 물쿤벗엔 헌 거 뿔그렁허영 커. 크고 딱딱허고.('물쿤벗'이라고 한 거 불그레해서 커. 크고 딱딱하고.)

105019 @ 딱딱허고.(딱딱하고.)

105019 #2 먹기는 먹어.(먹기는 먹어.)

105019 @ 예.(예.)

105019 #1 잘 안 먹으난 하영 보이는 거로구나게.(잘 안 먹으니까 많이 보이는 거로구나.)

105019 @ 하르비군벗은?(털군부는?)

105019 #2 하르비군벗은 까망허곡 이디 털이 돋아이.(털군부는 까맣고 여기 털이 돋아.)

105019 @ 예.(예.)

105019 #2 털 돋아. 경 허영 그거 밍글락밍글락 맛이 엇엉 늙신네들이나 먹주, 우린 안 먹어봣어.(털 돋아. 그렇게 해서 그거 '밍글락밍글락' 맛이 없어서 늙으신네들이나 먹지, 우린 안 먹어봤어.)

105019 @ 음, 하르비군벗은?(음, 털군부는?)

105019 #2 그건 하. 쒜군벗은 엇어.(그건 많아. '쒜군벗'은 없어.)

105019 @ 음.(음.)

105019 #2 쒜닥지 입은 군벗은. 하도 헤부난. 하르비군벗은 요 신촌 바당에만 가도 많이 잇언게.('쒜닥지' 입은 군부는. 하도 해버리니까. 털군부는 요 신촌 바다에만 가도 많이 있던데.)

105019 @ 음, 건 털이 북삭해? 음 색깔?(음, 건 털이 푹신해? 음 색깔?)

105019 #2 뭉갈뭉갈뭉갈허여.('뭉갈뭉갈뭉갈'허여.)

---

164) '쒜군벗'은 표준어 '군부'를 말한다.

165) '물쿤벗'은 군벗의 일종이다.

105019 @ 음.(음.)

105019 #2 늙신네덜은 겨고 이 육지분들.(늙으신네들은 그러고 이 육지분들.)

105019 @ 예.(예.)

105019 #2 영허여 놓은 거 보난에 육지분덜이 대개 그런 건 많이 캐어놔선게.(이렇게 해 놓은 거 보니까 육지분들이 대개 그런 건 많이 캐어놨던데.)

105019 @ 음.(음.)

105019 @2 모르니까. (전화)(모르니까. (전화))

105019 #2 몰르질 아녀고 맛도 엇질 아년디 털 돋고 뭐 밍글락밍글락허니까.(모르질 않고 맛도 없질 않은데 털 돋고 뭐 '밍글락밍글락'하니까.)

105019 #1 (전화)

105020 @ 그 다음에 전복허고 소라는 어떵 채취하는 거라마씨?(그 다음에 전복하고 소라는 어떻게 채취하는 거예요?)

105020 #2 어떵허여, 그거?(어떻게 해, 그거?)

105020 @ 건 바당 소곱에 강도 허고?(건 바다 속에 가서도 하고?)

105020 #2 으. 돌 일르민 옛날은 많이 잇주게.(으. 돌 일으키면 옛날은 많이 있지.)

105020 @ 음.(음.)

105020 #2 소라 ᄀᆞ뜬 것도 돌 일르민 막 ᄃᆞᆯ아져. 돌에.(소라 같은 것도 돌 일으키면 막 매달아져. 돌에.)

105020 #1 구젱기옌 ᄀᆞᆯ아. 구젱기옌.('구젱기'라고 말해. '구젱기'라고.)

105020 #2 구젱기.(소라.)

105020 @ 구젱기.(소라.)

105021 #2 준 건 조쿠젱기[166].(잔 것은 '조쿠젱기'.)

105021 @ 조쿠젱긴.('조쿠젱기'는.)

105021 @2 쌀 엇인 건?(살 없는 건?)

105021 #2 건.(건.)

105021 #1 큰 구젱기.(큰 소라.)

105021 #2 민둥구젱기[167].('민둥구젱기'.)

105021 @ 민둥구젱긴. 그 다음에 살들 잇인 거는?('민둥구젱기'는. 그 다음에 살들 있는 거는?)

105021 #2 쌀 잇인 건 쌀구젱기.(살 있는 건 '쌀구젱기'.)

105021 @ 쌀구젱기. 게난 조쿠젱기?('쌀구젱기'. 그러니까 '조쿠젱기'?)

105021 #2 조쿠젱긴 준준허여.('조쿠젱기'는 자잘해.)

105021 @ 조쿠젱기 쌀구젱이 민둥구젱이예, 예? 점복도 종류에 따랑은에 이름이십니까?('조쿠젱기' '쌀구젱이' '민둥구젱이'요, 예? 전복도 종류에 따라서 이름 있

166) '조쿠젱기'는 자잘한 소라를 도련1동에서 일컫는 말이다.
167) '민둥구젱기'는 살이 없는 늙은 소라를 말한다.

습니까?)
105021 #2 몰라 건.(몰라 건.)
105021 @ 암커도 잇고 수커도 잇고 이렇게 허면.(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이렇게 하면.)
105021 #1 암커나 수커나 뭐.(암컷이나 수컷이나 뭐.)
105021 #2 점북은 전북옌 허고 오분자긴 오분자기엔 허곡 헤나난 모르커라.(전복은 '전북'이라고 하고 오분자긴 오분자기라고 하고 했었으니까 모르겠어.)
105022 @ 건예? 알앗수다. 아까 삼춘, 테우에 대헹은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테우로 허는 거는 자리 거릴 때만 써마씨?(건요? 알았습니다. 아까 삼촌, 떼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떼배로 하는 거는 자리돔 뜰 때만 써요?)
105022 #1 주로 자리 거릴 때.(주로 자리돔 뜰 때.)
105022 @ 아.(아.)
105022 #2 옛날은 자릴 막 거려나니까이.(옛날은 자리돔을 막 떴었으니까.)
105022 @ 음.(음.)
105022 #1 그냥 테우. 아닌 멜도 저 강 거리주마는. 그 저 테우로 가 주로.(그냥 떼배. 아닌 멸치도 저 가서 뜨지만. 그 저 떼배로 가 주로.)
105022 #2 이건 해변 사름신디 강 들어봐사 알주게.(이건 해변 사람한테 가서 들어봐야 알지.)
105023 @ 게난마씨게. 게난 웃드르에서도 생각허는 게 무엇인가 헤갖고, 어느 정도 아는 거를 보는 거난예? 그 다음에 아까 풍선?(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윗마을에서도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해갖고, 어느 정도 아는 거를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풍선?)
105023 #1 음.(음.)
105023 @ 풍선은 어떤 식으로 셍겻수가?(풍선은 어떤 식으로 생겼습니까?)
105023 #1 풍선은 일반 춤 낙배ᄀᆞ치 뭰 거지마는 커.(풍선은 일반 참 낚배같이 된 거지만 커.)
105023 @ 예.(예.)
105023 #1 게난 그 그것이 ᄒᆞ나엔 허민 낙배가 ᄒᆞ나엔 허민 그건 ᄒᆞᆫ 열 스물만큼 크주.(그러니까 그 그것이 하나라고 하면 낚배가 하나라고 하면 그건 한 열 스물만큼 크지.)
105023 @ 예.(예.)
105023 #1 게민 그건 즉 말허민 화물선이주.(그러면 그건 즉 말하면 화물선이지.)
105023 @ 예전에예.(예전에요.)
105023 #1 옛날 화물선.(옛날 화물선.)
105023 @ 음.(음.)
105023 #1 거기에 이제 막 춤 채수나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물건 실러 아졍 육지

강 풀기도 허고 육지서 상, 상 들어왕 여기서 풀기도 허곡.(거기에 이제 막 참 채소나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물건 실어서 가져서 육지 가서 팔기도 하고 육지서 사서, 사서 들어와서 여기서 팔기도 하고.)

105023 @ 음.(음.)

105023 #1 풍선이엔 헌 건 바람을 이용헹근에 간덴.(풍선이라고 한 건 바람을 이용해서 간다고.)

105023 @ 예, 예.(예, 예.)

105023 #1 간덴 말로.(간다는 말로.)

105023 @2 돗대가 멧 갠고예?(돛대가 몇 갠가요?)

105023 #1 돗대 세 갠가?(돛대 세 갠가?)

105023 @2 게민 삼대선.(그러면 삼대선.)

105023 #1 으, 돗대가 세 개. 앞의 잇고 가운디 잇고 뒤에 잇고.(으, 돛대가 세 개. 앞에 있고 가운데 있고 뒤에 있고.)

105023 @ 뒤에 잇고.(뒤에 있고.)

105023 #1 싀 갤 거라.(세 갤 거야.)

105023 @1 그 풍, 풍선예, 게난 풍선 든 거 아니라예, 그 풍선을 여기에서는 뭐렌 불러난 거 닮수가?(그 풍, 풍선요, 그러니까 풍선 단 거 아닌가요, 그 풍선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불렀던 거 같습니까?)

105023 #1 풍선을 풍선이엔 헷주.(풍선을 풍선이라고 했지.)

105023 @1 돗을 여기선 뭐렌 해마씨? 무신?(돛을 여기선 뭐라고 해요? 무슨?)

105023 #1 초석.('초석'.)

105023 @ 으, 초석예, 초석든베 이런 식으로도 애기허고? 으, 초석.(으, '초석'요, 돛단배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으, '초석'.)

105023 #1 초석 올리라, 뭐 내리우라 이제 그치럼 헌 거 닮아.('초석' 올려라, 뭐 내려라 이제 그처럼 한 거 같아.)

105024 @ 예, 예, 예. 그 혹시 그 배 부분 명칭도 알아지쿠과? 앞에.(예, 예, 예. 그 혹시 그 배 부분 명칭도 알겠습니까? 앞에.)

105024 #1 몰르커라.(모르겠어.)

105024 @ 그런 거는 알 수가 엇어예. 알앗수다. 바당 일름 요 정도 헙주. ᄒᆞ꼼 쉬쿠다.(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바다 이름 요 정도 합죠. 조금 쉬겠습니다.)

6. 의생활

(잡담 생략)

106001 @ 옛날에 옷감, 옷ᄀᆞ음 잇지 아녀우과?(옛날에 옷감, 옷감 있지 않습니

까?)

106001 #4 으.(으.)

106001 @ 옷ᄀᆞ음이렌 허지예? 여기 뭐렌 헙니까? 옷ᄀᆞ심헙니까? 옷ᄀᆞᆷ헙니까?(옷감이라고 하지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옷ᄀᆞ심'합니까? '옷ᄀᆞᆷ'합니까?)

106001 #4 옷ᄀᆞᆷ이옌 헤낫주.('옷ᄀᆞᆷ'이라고 했었지.)

106001 @ 옷ᄀᆞ음예? 옷ᄀᆞᆷ은 어떤 종류가 잇어낫수가? 종류들, 옷ᄀᆞᆷ 종류?('옷ᄀᆞ음'요? 옷감은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종류들, 옷감 종류?)

106001 #4 옷ᄀᆞᆷ 종류가 잇어?(옷감 종류가 있어?)

106001 @ 예.(예.)

106001 #1 종륜게 베 미녕 광목 뭐 저 멩주.(종륜 베 무명 광목 뭐 저 명주.)

106001 #4 다 츰 주로 그거주게.(다 참 주로 그거지.)

106001 @ 예, 그걸 삼춘이 ᄒᆞᆫ번 ᄀᆞᆯ아봅서. 베영.(예, 그걸 삼촌이 한번 말해보세요. 베랑.)

106001 #4 베영게 광목이영 미녕이영 그디 또 ᄒᆞ꼼 거세기허민 멩지도 잇곡.(베랑 광목이랑 미녕이랑 거기 또 조금 거시기하면 명주도 있고.)

106001 #1 모시도 잇고.(모시도 있고.)

106001 #4 모시도 잇곡.(모시도 있고.)

106001 @ 예.(예.)

106001 #4 다 잇지게.(다 있지.)

106001 @ 예, 다 잇어예?(예, 다 있어요?)

106001 #4 그치룩.(그처럼.)

명주

106001 @ 예. 알앗수다. 혹시 멩지씰 멘드는 거 봐봅디가?(예, 알았습니다. 혹시 명주실 만드는 거 봐봤습니까?)

106001 #4 아니.(아니.)

106001 @ 멩지씰은 봐봔마씨?(명주실은 봐봤어요?)

106001 #4 멩지씰도 안 봐봇주게.(명주실도 안 봐봤지.)

106001 @ 에.(에.)

106001 #4 어디 무신 이녁이 나상 어디 뎅겨야 그런 거 저런 거 허는 것도 보고 허지 미싱에 앚이민 ᄒᆞ루 저물앙 일어사도 아녀영.(어디 무슨 이녁이 나서서 어디 다녀야 그런 거 저런 거 하는 것도 보고 하지 재봉틀에 앉으면 하루 저물어서 일어서도 않고.)

106001 @ 음, 계속 미싱에만.(음, 계속 재봉틀에만.)

106001 #4 미싱에만.(재봉틀에만.)

106001 @ 음. 그러면은 멩지도 종류가 하지예?(음. 그러면은 명주도 종류가 많지요?)

106001 #4 하지게.(많지.)

106001 @ 예, 어떤 종류 잇수가?(예, 어떤 종류 있습니까?)

106001 #4 좋은 거 궂인 거 중질도 잇곡.(좋은 거 궂은 거 중질도 있고.)

106001 @ 예.(예.)

106001 #4 하질도 잇곡, 상품도 잇곡 그치룩 허영.(하질도 있고, 상품도 있고 그처럼 해서.)

106001 @ 젤 좋은 거는 어떤 멩지를 좋은 거렌 헙니까?(젤 좋은 거는 어떤 명주를 좋은 거라고 합니까?)

106001 #1 얼 어신 거?(얼 없는 거?)

106001 #4 얼 엇엉.(얼 없어서.)

106001 #1 곤 거.(고운 거.)

106001 #4 영 바닥 페왕보민 멘짝허영 올 고른 거. 영 쉐민 바달바달바달바달 소리 나는 거.(이렇게 바닥 펴서 보면 '멘짝해서' 올 고른 거. 이렇게 쉐면 바달바달 바달바달 소리 나는 거.)

106001 @ 아까 얼 엇인덴 헌 게 얼이 뭐우꽈?(아까 얼이 없다고 한 게 얼이 뭡니까?)

106001 #4 그 짜 가당 얼이 잇지게.(그 짜 가다가 얼이 있지.)

106001 #1 ᄆᆞ작이.(매듭이.)

106001 #4 씰을 잇는 거세기가 잇이나.(실을 잇는 거시기가 있으나.)

106001 @ 예.(예.)

106001 #4 경허민 그 멩지도 좋아도 궁기도 날 수 잇어.(그렇게 하면 그 명주도 좋아도 구멍도 날 수 있어.)

106001 @ 예.(예.)

106001 #4 잇어 가다근에 그치룩 허영 허민 그치룩 헌 거 엇인 건 좋은 거주.(이어 가다가 그처럼 해서 하면 그처럼 한 거 없는 건 좋은 거지.)

106001 @ 예, 경헤영 그리고 그 멩지도 뭐 셍멩지여 뭐 이런 말도?(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명주도 뭐 생명주다 뭐 이런 말도?)

106001 #4 셍멩지도 잇주게. 셍멩지.(생명주도 있지. 생명주.)

106001 @ 예.(예.)

106001 #4 셍멩진 그건 메지 아년 것ᄀᆞ라 셍멩지옌.(생명주는 그건 매지 않은 것보고 생명주라고.)

106001 @ 메지 않은 것은 무신 말이우과?(매지 않은 것은 무슨 말입니까?)

106001 #4 저 셍멩지 그것 뜨신 물에 헤영 숢앙.(저 생명주 그것 뜨신 물에 해서 삶아서.)

106001 @ 예.(예.)

106001 #4 숢아근에 허민 풀이 죽거든. 경허민 그거 풀허영 다듬으민 그건 그냥 멩지로 들어가곡. 셍멩진 다듬질 못허주게.(삶아서 하면 풀이 죽거든. 그러면 그거

풀해서 다듬으면 그건 그냥 명주로 들어가고. 생명주는 다듬질 못하지.)

106001 @ 음.(음.)

106001 #4 쎙 거니까.(생 거니까.)

106001 @ 쎙 거니까.(생 거니까.)

106001 #4 쎙 거니까.(생 거니까.)

106001 @ 아, 다듬이 안 허영 ᄀᆞ대로 셍멩지로 헤갖고.(아, 다듬이 안 해서 그대로 생명주로 해갖고.)

106001 #4 그건.(그건.)

106001 @ 뭐가 더 좋은 거우과?(뭐가 더 좋은 겁니까?)

106001 #4 종내긴 다 ᄀᆞ튼 건디.(종류는 다 같은 건데.)

106001 @ 예.(예.)

106001 #4 셍멩지허곡 익은멩지[168] 뒈는 거주.(생명주 '익은명주' 되는 거지.)

106001 @ 예. 옷 허민 어느 게 더 좋은 거?(예. 옷을 하면 어느 게 더 좋은 거?)

106001 #4 옷 허민게 셍멩진 대소간 겨울엔 못 입지게.(옷을 하면 생명주는 대소간 겨울엔 못 입지.)

106001 @ 예.(예.)

106001 #4 셍멩진.(생명주는.)

106001 @ 음.(음.)

106001 #4 익은멩진 겨울에 입곡.('익은명주'는 겨울에 입고.)

106001 @ 아아, 여름에 헐 때는 셍멩지로 허는 거라예?(아아, 여름에 할 때는 생명주로 하는 거라고요?)

106001 #4 으.(으.)

106001 @ 아, 익은멩지 셍멩지.(아, '익은명주' 생명주.)

106001 #4 셍멩지.(생명주.)

106004 @ 멩지로는 어떤 옷들 만들엇수가? 주로.(명주로는 어떤 옷들 만들었습니까? 주로.)

106004 #4 멩지로 대소간 허는 건 옛날은 남자, 남자 어른덜은 바지저구리, 후루메 그치룩헌 거 허당 남은 건 호상.(명주로 대소간 하는 건 옛날은 남자, 남자 어른들은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그처럼 한 거 하다가 남은 건 수의.)

106004 @ 예.(예.)

106004 #4 호상은 주루 멩지로벳기.(수의는 주로 명주로밖에.)

106004 @ 아.(아.)

106004 #4 우린 멩지로벳긴 아년.(우린 명주로밖에는 안 핸.)

106004 @ 멩지로벳기예. 게난 옛날에는 그 호상헐 때도 무사 그 씨집올 때 입어난 거 장게올 때 입어난 걸로 호상헤낫덴 헷어예? 옛날 옛적엔. 그 말 골아줍서.

168) '익은명주'는 삶아서 손질한 명주실로 짠 옷감이다.

무사 그치룩 허당 이제 또 새로 멩지로 허영 만들어신고예?(명주로밖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수의할 때도 왜 그 시집올 때 입었던 거 장가올 때 입었던 걸로 수의했었다고 했지요? 옛날 옛적엔. 그 말 말해 주세요. 왜 그처럼 하다가 이제 또 새로 명주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106004 #4 그건 모르지게.(그건 모르지.)

106004 @ 으.(으.)

106004 #4 씨집올 때엔 헤난 건 좋은 걸로 허여나난 이걸랑 놧당 이루후제 죽어갈 때랑 입주 허영, 대소간은 경허고. (시집올 때엔 했던 건 좋은 걸로 했었으니까 이걸랑 놔두었다가 이 이후에 죽어갈 때는 입지 해서, 대소간 그렇게 하고.)

106004 @ 또 경 아년 사름은 새로 몽땅 멩지로 다 허곡.(또 그렇게 않은 사람은 새로 몽땅 명주로 다 하고.)

106004 @ 다 허곡예?(다 하고요?)

106004 #4 경 헤연.(그렇게 했어.)

106005 @ 그, 삼춘 그 미녕 허젠 허영은에 멘네도 갈아봅디가?(그, 삼촌 그 무명 하려고 해서 면화도 갈아봤습니까?)

106005 #4 아니.(아니.)

106005 @ 그건 안 하고.(그건 안 하고.)

106005 #4 아니.(아니.)

106005 @ 미녕씰은 어떵 멘드는 거우과?(무명실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06005 #4 미녕씰은 대소간 아멩헤도 멘네로 허영 그거 미녕 올 내영 헤신, 헌 걸로 우린 생각허는디.(무명실은 대소간 아무래도 면화로 해서 그거 무명 올 내어서 했는, 한 걸로 우린 생각하는데.)

106005 @ 음, 삼춘이 직접은 안 헤보고예?(음, 삼촌이 직접은 안 해보고요?)

106005 #4 안 헤보고.(안 해보고.)

106005 @ 삼춘 아까 미녕 올 내영 이렇게 헷어예?(삼촌 아까 무명 올 내어서 이렇게 했죠?)

106005 #4 음.(음.)

106005 @ 미녕 올 내는 거는 뭐우과?(무명 올 내는 거는 뭡니까?)

106005 #4 미녕 올 내는 건게 그 멘네 소게 헤영 씰 뽑아근에 허는 것ᄀᆞ라게.(무명 올 내는 건 그 면화 솜 해서 실 뽑아서 하는 것보고.)

106005 @ 음, 게민 미녕 올 넨덴 허여예? 경허면 이렇게 감앙은에.(음, 그러면 무명 올 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감아서.)

106005 #4 경허는 거.(그렇게 하는 거.)

106005 #1 거 만든 것도 흔 올 두 올.(거 만든 것도 한 올 두 올.)

106005 @ 예, 예. 게니까 그 올을 미녕 올이렌 허는구나예?(예, 예. 그러니까 그 올을 무명 올이라고 하는군요?)

106005 #4 미녕 올.(무명 올.)

106006 @ 여기에 혹시 누에고치 허는 거는 안 봐봔예?(여기에 혹시 누에고치 하는 거는 안 봐봤었다고요?)

106006 #4 안 봐봇어.(안 봐봤어.)

무명

106007 @ 건 안 봐봇어예? 그 미녕도 종류가 하지예? 좋은 질 나쁜 질 헹, 어떤 미녕 잇어낫덴 곱니까? 옛날에.(건 안 봐봤어요? 그 무명도 종류가 많죠? 좋은 질 나쁜 질 해서, 어떤 무명 있었었다고 합니까? 옛날에.)

106007 #4 엿날에 우린 그자 놈 상 오민 옷만 헤줘나부난.(옛날에 우린 그저 남사서 오면 옷만 해줬어버리니까.)

106007 @ 음.(음.)

106007 #4 그런 저런 건 몰라.(그런 저런 건 몰라.)

106007 @ 으, 멧 새 미녕 잇새미녕여 일곱새미녕이여.(으, 몇 새 무명 엿새무명이다 일곱새무명이다.)

106007 #4 그런 건 안 들어낫어.(그런 건 안 들었었어.)

106007 @ 아 그런 건 안 들어낫어예? 미녕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아 그런 건 안 들었어요? 무명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6007 #4 우린 미녕 종네기 경 여라 개 허는 건 안 봐낫어.(우린 무명 종류 그렇게 여라 개 하는 건 안 봤었어.)

106007 @ 뭐 토목이여 이런 말?(뭐 토목이다 이런 말?)

106007 #4 토목은 그것 거세기 아년 걸 토목이엔 헴실 거라.(토목은 그것 거시기 않은 걸 토목이라고 하고 있을 거야.)

106007 @ 음, 토목 뭐 생목.(음, 토목 뭐 생목.)

106007 #4 아이, 생목은 엇어.(아니, 생목은 없어.)

106007 @ 그런 것은 엇어예? 광목은마씨?(그런 것은 없어요? 광목은요?)

106007 #4 광목도 그거주게.(광목도 그거지.)

106007 @ 예, 기계로 짱 헹예?(예, 기계로 짜서 해서요?)

106007 # 기계로 짠 거니까.(기계로 짠 거니까.)

106008 @ 미녕은 주로 어떤 옷덜 멘들엇수가? 미녕으로.(무명은 주로 어떤 옷들 만들었습니까? 무명으로.)

106008 #4 옛날은 대소간 갈옷헷지.(옛날은 대소간 갈옷을 했지.)

106008 @ 갈옷.(갈옷.)

106008 #4 감 멕이는 옷.(감 먹이는 옷.)

106008 @ 예, 주로.(예, 주로.)

106008 #4 주로.(주로.)

106008 #4 그건 미녕이 엇어가난에 광목으로 갈옷을 헤엿주. 엿날은 다 미녕으로만 헤엿주.(그건 무명이 없어가니까 광목으로 갈옷을 했지. 옛날은 다 무명으로만

했지.)

106008 @ 게난 그 미녕으로 허영 갈옷 헌덴 해도 남자옷허고 여자옷도 ᄐᆞ날 거고. 계절에 따랑도 옷 이름도 ᄐᆞ나예?(그러니까 그 무명으로 해서 갈옷 한다고 해도 남자옷하고 여자옷도 다를 거고. 계절에 따라서도 옷 이름도 다르죠?)

106008 #4 계절에, ᄒᆞ꼼 생각헌 사름은 광목으로 허곡, ᄒᆞ꼼 어려운 사름은 미녕도 좋은 걸로 못 허영 나쁜 걸로도 허곡.(계절에, 조금 생각한 사람은 광목으로 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은 무명도 좋은 걸로 못 해서 나쁜 걸로도 하고.)

106008 @ 예, 게믄 그 갈옷은 주로 여자들은 어떤 옷 멘들어 갑디가?(예, 그러면 그 갈옷은 주로 여자들은 어떤 옷 만들어 갑디까?)

106008 #4 우읜 적삼.(위에는 적삼.)

106008 @ 예.(예.)

106008 #4 요만인 오는. 적삼허곡.(요만큼 오는. 적삼하고.)

106008 #1 갈중의.(‘갈중의’.)

106008 #4 갈중의.(‘갈중의’.)

106008 @ 예.(예.)

106008 #4 기자.(그저.)

106008 @ 남잔?(남잔?)

106008 #4 남잔 중의 적삼게.(남잔 중의 적삼.)

106008 @ 예.(예.)

106008 #4 아래 중의허곡 우의 적삼허고.(아래 중의하고 위에 적삼하고.)

106008 @ 예, 경헤도 또 여름에 입는 거는 또 이름 또 ᄐᆞ나지 안 헤마씨?(예, 그렇게 해도 또 여름에 입는 거는 또 이름 또 다르지 안 해요?)

106008 #4 아니.(아니.)

106008 #1 독지, 갈독지[169].(‘독지’, ‘갈독지’.)

106008 @ 갈독지?(‘갈독지’?)

106008 # 갈독지옌 허주게.(‘갈독지’라고 하지.)

106008 @ 예.(예.)

106008 #4 감 멕여근에 여자덜은 갈독지, 갈중의.(감 먹여서 여자들은 ‘갈독지’, ‘갈중의’.)

106008 @ 갈독지가 어떤 옷이라마씨?(‘갈독지’가 어떤 옷이예요?)

106008 #4 적삼, 적삼ᄀᆞ라.(적삼, 적삼보고.)

106008 @ 아.(아.)

106008 #4 갈적삼ᄀᆞ라 갈독지.(갈적삼보고 ‘갈독지’.)

106008 @ 예, 갈독지예? 갈적삼ᄀᆞ라.(예, ‘갈독지’요? 갈적삼보고.)

106008 #4 음, 갈적삼ᄀᆞ라 갈독지.(음, ‘갈적삼’보고 ‘갈독지’.)

106008 @ 음, 좀뱅이 이런 말은 안 헙니까?(음, 잠방이 이런 말은 안 합니까?)

---

169) ‘갈독지’는 감을 으깬 물을 들여 만든 적삼을 말한다. 달리 ‘갈적삼’이라고도 한다.

106008 #4 아니.(아니.)

106008 @ 갈점뱅이?(‘갈잠방이’?)

106008 #4 아니, 이딘 그런 말 안 써낫어.(아니, 여기는 그런 말 안 썼었어.)

106008 @ 아, 그냥 중의렌만예?(아, 그냥 중의라고만요?)

106008 #4 갈중의.(‘갈중의’.)

106008 @ 갈중의. 저기 굴중의 같은 거는 물 안 들영 입어마씨?(‘갈중의’. 저기 ‘굴중의’ 같은 거는 물 안 들여서 입어요?)

106008 #4 굴중인[170] 그건 여자덜 엿날은 속에 굴중의.(‘굴중의’는 그건 여자들 옛날은 속에 ‘굴중의’.)

106008 @ 예.(예.)

106008 #4 그건.(그건.)

106008 @ 아 물 안 허고 그냥 중의.(아 물 안 하고 그냥 중의.)

106008 #4 그건 물 안 들영 흰 차.(그건 물 안 들여서 흰 채.)

106008 @ 흰 차 그냥 입는 거라예. 치메 ᄀᆞ튼 거는 갈 안 해마씨? 감물 안 들여?(흰 채 그냥 입는 거네요. 치마 같은 거는 갈 안 해요? 감물 안 들여?)

106008 #4 안 들여.(안 들여.)

106008 @ 그냥 중의 적삼만?(그냥 중의 적삼만?)

106008 #4 중의 적삼. 밧듸 뎅기는 옷이주게. 그게 갈옷이.(중의 적삼. 밭에 다니는 옷이지. 그게 갈옷이.)

106008 @ 예, 예, 예.(예, 예, 예.)

106008 #4 집의선 잘 안 입주게.(집에선 잘 안 입지.)

106008 @ 요새나예?(요새나요?)

106008 #4 집의선 시방은 무시거 문직젠 허민 갈옷을 대소간 입엄주. 옛날 하도 너미 입어부난.(집에선 시방은 무엇 만지려고 하면 갈옷을 대소간 입고 있지. 옛날 하도 너무 입어버리니까.)

106008 @ 으, 입어부난 별로?(웃음)(으, 입어버리니까 별로?(웃음))

106008 #1 옛날 저 푸는체중의[171]엔 헤영근에 영 허민 엉덩이 그냥 봐지는 옷 잇어난 처레 아니우과?(옛날 저 ‘푸는체중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그냥 봐지는 옷 있었던 차례 아닙니까?)

106008 #4 그건 수양중의라고.(그건 ‘수양중의’라고.)

106008 #1 수양중의.(‘수양중의’.)

106008 #1 예.(예.)

106008 @ 그건 뭐우과? 수양중의렌 헌 건.(그건 뭡니까? ‘수양중의’라고 한 것은.)

106008 #4 것도 중읜 중읜디 요영 읖으로 질게 흔 폭 주질 안 허영 경 허여근

170) ‘굴중읜’의 ‘굴중의’는 허리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들이 입는 중의를 말한다.

171) ‘푸는체중의’는 통이 큰 중의다. 부녀들이 입는 옷이다.

에 그레 단추 돌앙은에 경허민.(것도 중읜 중읜데 요렇게 옆으로 길게 한 폭 깁지 안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로 단추 달아서 그렇게 하면.)

106008 @ 오줌 눌 때 이럴 때 여자들.(오줌 눌 때 이럴 때 여자들.)

106008 #4 그럴 때 그냥 영 헤근에 베르씨민 눕게.(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해서 헤집으면 누게.)

106008 @ 아.(아.)

106008 #4 경 허영 여자덜은 수양, 수양중의.(그렇게 해서 여자들은 '수양', '수양중의'.)

106008 @ 수양중의. 그러면 그건 옷 소곱에 입어마씨? 아니면 바지라도 그런 식으로 헹 멘드는 거?('수양중의'. 그러면 그건 옷 속에 입어요? 아니면 바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

106008 #4 응, 거세기.(응, 거시기.)

106008 #1 치메 속에.(치마 속에.)

106008 #4 치메 속에.(치마 속에.)

106008 @ 치메 속에. 아, 그거는 감물 들이거나 안 허켜예?(치마 속에. 아, 그거는 감물 들이거나 안 하겠네요?)

106008 #4 흰 차. 광목으로 그냥 흰 차.(흰 채. 광목으로 그냥 흰 채.)

106008 @ 요즘 허면 속바지?(요즘 하면 속바지?)

106008 #4 속바지지게.(속바지지.)

106008 @ 아이고, 그 말도 처음 들어봠수다. 갈독지는 들어난 거 같은데.(아이고, 그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 '갈독지'는 들었던 거 같은데.)

106008 #4 (웃음).

106009 @ 토목 미녕으로는 뭘 만들엇수가? 옛날 토목. 진짜 미녕 헌 거는?(토목 무명으로는 뭘 만들었습니까? 옛날 토목. 진짜 무명 한 거는?)

106009 #4 토목, 토목 미녕 잇어낫어.(토목, 토목 무명 있었었어.)

106009 @ 음.(음.)

106009 #4 홁은홁은허여근에.(굵디굵어서.)

106009 @ 예, 이 옛날 무사 이불 ᄀᆞ튼 것도 미녕으로 헤영 멘들어실 거 아니우과?(예, 이 옛날 왜 이불 같은 것도 무명으로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106009 #4 미녕으로 허영.(무명으로 해서.)

106009 @ 예.(예.)

106009 #4 미녕 ᄒᆞ꼼 잘 사는 집읜 다섯 폭 허곡, 네 폭 허곡 허여근에 미녕에 검은 물 들영 이불 껍데기도 허곡.(무명 조금 잘 사는 집에는 다섯 폭 하고, 네 폭 하고 해서 무명에 검은 물 들여서 이불 껍데기도 하고.)

106009 @ 예.(예.)

106009 #4 경 헤영.(그렇게 해서.)

106009 @ 이불 껍데긴 검은 걸로 허고, 그 다음 우에 짓은마씨?(이불 껍데긴

검은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위에 깃은요?)

106009 #4 짓은 무신 붉은 물.(깃은 무슨 붉은 물.)

106009 #1 붉은 물.(붉은 물.)

106009 @ 음.(음.)

106009 #1 (웃음).((웃음.))

106009 #4 음, 미녕에 붉은 물 들영 짓허곡.(음, 무명에 붉은 물 들여서 깃하고.)

106009 @ 짓허고예?(깃하고요?)

106009 #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6010 @ 그런 식으로 만들고. 광목으론 주로 어떤 거 멘들엇수가?(그런 식으로 만들고. 광목으론 주로 어떤 거 만들었습니까?)

106010 #4 광목으론게 대소간은 게도 광목으론 남즈도 중의 적삼도 허곡 후루메도 허곡 여자도 바지도 그걸로 헤영 입곡, 속에 중의도 그걸로 허영 입곡. 치메저구리도 다 그걸로 헤영 입곡 엿날은 경 헤연.(광목으론 대소간 그래도 광목으론 남자도 중의 적삼도 하고 두루마기도 하고 여자도 바지도 그걸로 해서 입고, 속에 중의도 그걸로 해서 입고. 치마저고리도 다 그걸로 해서 입고 옛날은 그렇게 했어.)

106010 @ 거난 광목 나오기 시작허니까 옛날 미녕은.(그러니까 광목 나오기 시작하니까 옛날 무명은.)

#4 미녕이.(무명이)

106010 @엇어진 거예?(없어진 거요?)

106010 #4 미녕이 엇어져 간.(무명이 없어져 갔어.)

106010 @ 미녕이 좋은 거우과? 광목이 좋은 거우과?(무명이 좋은 겁니까? 광목이 좋은 겁니까?)

106010 #4 거 일름이 뚜나난 허주.(거 이름이 다르니까 하지.)

106010 @ 거의 비슷헤예?(거의 비슷해요?)

106010 #4 다 멘이니까게, 으.(다 면이니까, 으.)

106010 @ 으, 맞아예? 멘.(으, 맞아요? 면.)

106010 #4 멘.(면.)

106011 @ 삼춘, 홍세미녕에 대행 혼번 골아 줍서?(삼촌 '홍세미녕'에 대해서 한번 말해 주세요?)

106011 #4 홍세미녕[172]은 그건 미녕 좋은 걸로 허영 아덜이나 풀젠 허민 홍세미녕 두 필썩 허여근에 그 홍세함에다 담젠, 춤 담젠 거세기허주.('홍세미녕'은 그건 무명 좋은 걸로 해서 아들이나 팔려고 하면 '홍세미녕' 두 필씩 해서 그 '홍세함'에다 담으려고, 참 담으려고 거시기하지.)

106011 @ 그 홍세미녕 용돈 뭐우과?(그 '홍세미녕' 용돈 뭡니까?)

106011 #1 홍세미녕 아정가민 헤영 가민 그 홍세미녕으로 무신 걸 헤여납디

172) '홍세미녕'은 혼서함에 넣는 무명이다. 혼례 때 신랑이 신붓집에 보내는 함 속에 넣어서 보낸다.

가?(‘홍세미녕’ 가져가면 해서 가면 그 ‘홍세미녕’으로 무슨 걸 했었습니까?)

106011 #4 무시 걸 메느리 아기 낳민 그걸로 지성귀.(무슨 걸 며느리 아기 낳으면 그걸로 기저귀.)

106011 @ 예.(예.)

106011 #4 그걸 멘, 멘들아주곡. 쳇 번은 아기 옷도 그걸로 멘들앙 입지곡.(그걸 만, 만들어주고. 첫 번은 아기 옷도 그걸로 만들어서 입히고.)

106011 @ 음, 애기 옷도예?(음, 아기 옷도요?)

106011 #4 아기 옷도.(아기 옷도)

106011 #1 보선도 멘들곡.(버선도 만들고.)

106011 #4 경허주.(그렇게 하지.)

106011 @ 겡허영 보선도 멘들엉 선사도 허고.(그렇게 해서 버선도 만들어서 선사도 하고.)

106011 #4 미녕으론 아니 허메. 광목으로 선사도 헷주.(무명으론 아니 해. 광목으로 선사도 했지.)

106011 @ 음, 광목으로예?(음, 광목으로요?)

106011 #4 광목.(광목.)

106011 @ 옛날에?(옛날에?)

106011 #4 옛날은.(옛날은.)

106011 @ 음.(음.)

106011 #1 옥광목허고 광목허고 어떵 틀립니까?(옥양목하고 광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106011 #4 옥, 옥광목은 그거 춤 멩지 매듯 솖아근에 발래영.(옥, 옥광목은 그거 참 명주 매듯 삶아서 바래서.)

106011 #1 아, 발랜, 발래영 허영케.(아, 바래서, 바래서 허옇게.)

106011 #4 허영케 헌 게 옷광목이고, 짓쳇광목은.(허옇게 한 게 옥광목이고, 깃광목은.)

106011 #1 예, 짓찻광목은 그냥?(예, 깃광목은 그냥?)

106011 #4 이제 뺄지 아년 거.(이제 빨지 않은 거.)

106011 #1 기계에서 그냥 나온 거.(기계에서 그냥 나온 거.)

106011 #4 그냥.(그냥.)

106011 @ 음, 게난 짓찻광목 잇곡 옥광목. 그 옥광목이 요즘 옥양목 옥양목 허는 게 그거지예[173]?(음, 그러니까 깃광목 있고 옥광목. 그 옥광목이 요즘 옥양목 옥양목 하는 게 그거죠?)

106011 # 그거지.(그거지.)

106011 @ 근데 여기서는 옥광목이렌 헙니까?(근데 여기서는 옥광목이라고 합니까?)

---

173) 조사자가 옥광목을 옥양목으로 잘못 알고 한 질문이다. 옥광목과 옥양목은 다른 종류다.

106011 #1 옥양목엔도 헤여.(옥양목이라고도 해.)
106011 @ 예, 옥양목엔도 허고 음.(예, 옥양목이라고도 하고 음.)
106011 #4 두 가지로 불르주.(두 가지로 부르지.)
106011 @ 짓차미녕은 그대로 그냥 짠 그대로예?('짓차미녕'은 그대로 그냥 짠 그대로요?)
106011 #4 짜. 게난, 이제 이제 광목도 그거주게. 광목도 짱 그냥 나온 건 그건 무신 영장 때나 시방은 다 그걸로 몸빼도 멘들고.(짜. 그러니까, 이제 이제 광목도 그거지. 광목도 짜서 그냥 나온 건 그건 무슨 장사 때나 시방은 다 그걸로 몸빼도 만들고.)
106011 #1 복치메도 멘들고.(복치마도 만들고.)
106011 #4 복치메도 허곡 경.(복치마도 하고 그렇게.)
106011 @ 으음, 복치메 멘드는 게 그게 짓찻광목이구나.(으음, 복치마 만드는 게 그게 깃광목이군요.)
106011 #4 으, 짓쳇광목.(으, 깃광목.)
106011 @ 아, 그건 발래영 허면?(아, 그건 바래서 하면?)
106011 #4 솖아근에 발랜 광목은.(삶아서 바랜 광목은.)
106011 #1 옥양목.(옥양목.)
106011 #4 츰 옥광목이 뒈는 거지.(참 옥광목이 되는 거지.)
106012 @ 옥광목이 뒈는 거예? 예, 예. 아아. 삼춘, 멘네 용시 헤봔마씨?(옥광목이 되는 거요? 예, 예. 아아. 삼촌, 면화 농사 해봤어요?)
106012 #4 아니.(아니.)
106012 @ 안 헤봔?(안 해봤어?)
106012 #4 아무 것도.(아무 것도.)

모시

106012 @ 아무 것도. 그냥 이내낭 바농질만 허멍 살앗수가? (웃음) 모시옷도 멘들아봣지예?(아무 것도. 그냥 이내 바느질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웃음) 모시옷도 만들아봤죠?)
106012 #4 모시옷도 멘들아봣주게.(모시옷도 만들어봤지.)
106012 @ 모시는 뭘로 헹은에, 모신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우과? 모시옷은?(모시는 무엇으로 해서, 모신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모시옷은?)
106012 #4 것도 중의 적삼.(것도 중의 적삼.)
106012 @ 음.(음.)
106012 #4 남자덜.(남자들.)
106012 @ 예.(예.)
106012 #4 여자덜도 적삼도 헤영 입곡 치메도 헤영 입곡 엿날은 다 모시로 헷주.(여자들도 적삼도 해서 입고 치마도 해서 입고 옛날은 다 모시로 했지.)

106013 @ 예, 모시로 헌 옷은 주로 어느 철에 입는 거?(예, 모시로 한 옷은 주로 어느 철에 입는 거?)

106013 #4 으름에.(여름에.)

106013 @ 그 호상헐 때는 모시 허민 안 뒌덴 허멍예?(그 호상할 때는 모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106013 #4 안 뒈.(안 돼.)

106013 @ 건 무산고예?(건 왤까요?)

106013 #4 모시 들민 즈순 낳민 머리 흰덴.(웃음).(모시 들면 자손 낳으면 머리 흰다고.(웃음).)

106013 @ 음, 안 허곡.(음, 안 하고.)

106013 #4 안 허지.(안 하지.)

106013 @ 예.(예.)

106013 #4 그건 이제도 허여.(그건 이제도 해.)

106013 @ 아, 이제도.(아, 이제도.)

106013 #4 이제도 입관헐 때 모시옷은 아져 다니지 아녀지게.(이제도 입관할 때 모시옷은 가져 다니지 않지.)

106013 @ 음, 입관헐 때 그 관 속에도 안 놓고예?(음, 입관할 때 그 관 속에도 안 넣고요?)

106013 #4 안 놔.(안 놔.)

106013 @ 다 그냥 미녕으로, 아니 멩지로예?(다 그냥 무명으로, 아니 명주로요?)

106013 #1 보공 놓는 건 이 솜이나.(보공 넣는 건 이 솜이나.)

106013 @ 예.(예.)

106013 #1 이.(이.)

106013 @ 옛날 산듸찍도 헷젠 허멍예?(옛날 밭볏짚도 했다고 하면서요?)

106013 #4 산듸찝이 좋지.(밭볏짚이 좋지.)

106013 #1 산듸찝허고 이 미녕으로 뒌 거. 그 저 멘네. 목화. 멘네로 뒌 거허곡, 춤 멩주허곡 헤영 그거 주로 그거 들어갓주, 무슨 뚠 건 허민. 요 중간에 이 저 화장지 같은 거나 뭐 거 놧는데 그건 아주 그냥 천리허민 시커멍허영 안 좋곡.(밭볏짚하고 이 무명으로 된 거. 그 저 면화. 목화. 면화로 된 거하고, 참 명주하고 해서 그거 주로 그거 들어갔지, 무슨 다른 건 하면. 요 중간에 이 저 화장지 같은 거나 뭐 거 넣었는데 그건 아주 그냥 이장하면 시커메서 안 좋고.)

삼

106017 @ 예. 어쨋든 진짜 것만 이제 헤야 뒈는구나. 삼으로도 옷 짭니까? 삼, 베.(예. 어쨌든 진짜 것만 이제 해야 되는구나. 삼으로도 옷 짭니까? 삼, 베.)

106017 #1 삼베.(삼베.)

106017 #4 그건 삼베주.(그건 삼베지.)

106017 @ 삼베?(삼베?)

106017 #4 베로 춤 삼으로 허는 것ᄀᆞ라 삼베, 삼베. 게난.(베로 참 삼으로 하는 것보고 삼베, 삼베. 그러니까.)

106017 @ 삼베론 무신 걸 헙니까?(삼베론 무슨 걸 합니까?)

106017 #4 견디 삼베로 허는 사름이 멧 사름 잇엇어.(그런데 삼베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

106017 @ 음, 건 뭘로 멘드는 거? 삼베 헐 때 뭘로 멘드는, 뭐허는 거?(음, 건 무엇으로 만드는 거? 삼베 할 때 무엇으로 만드는, 뭐하는 거?)

106017 #4 몰르주, 무신 걸로사 멘들암신디 건.(모르지, 무신 걸로야 만들고 있는지 건.)

106017 @ 삼베로 옷은 안 지어봅디가?(삼베로 옷은 안 지어봤습니까?)

106017 #4 베옷은 멘들주게. 멘들아봄은 허여도 짜는 걸 보나 무시걸 허는 그건 안 봐낫어.(베옷은 만들지. 만들어봄은 해도 짜는 걸 보나 무엇 하는 그건 안 봤었어.)

106017 @ 베옷은 뭐 만들아마씨? 베옷으로. 어떤 걸로 만들아? 베로는?(베옷은 뭐 만들어요? 베옷으로. 어떤 걸로 만들어? 베로는?)

106017 #4 베로도 멘들민게 남ᄌᆞ덜 중의적삼도 멘들곡 여자덜토 치메도 헤영 입곡 옛날은.(베로도 만들면 남자들 중의적삼도 만들고 여자들도 치마도 해서 입고 옛날은.)

106017 @ 음.(음.)

106017 #4 적삼도 헤영 입고. 아으덜토 ᄆᆞᆫ 멘들아주곡. 이 속중의[174]라도 ᄆᆞᆫ 멘들앙 입곡게.(적삼도 해서 입고. 아이들도 몽땅 만들어주고. 이 '속중의'라도 몽땅 만들어서 입고.)

106017 @ 음, 베는 주로?(음, 베는 주로?)

106017 #4 ᄋᆞ름에.(여름에.)

106017 @ ᄋᆞ름에예?(여름에요?)

106017 #4 ᄋᆞ름에.(여름에.)

106017 @ 어, ᄋᆞ름에 헤갖고?(어, 여름에 해갖고?)

106017 #4 ᄋᆞ름에벳긔 안 입주게.(여름에밖에 안 입지.)

106017 #1 모시허고 베는 여름.(모시하고 베는 여름.)

106017 #4 ᄋᆞ름에벳긔 안 입어.(여름에밖에 안 입어.)

106017 #1 여름용.(여름용.)

도구

106019 @ 예, 혹시 그 멘네 헹은에 영 씨 불르는 거 봐봅디가?(예, 혹시 그 면

174) '속중의'는 속에 입는 중의다. 속곳의 하나다.

화 해서 이렇게 씨 바르는 거 봐봤습니까?)

106019 #4 안 봐봣어.(안 봐봤었어.)

106019 @ 아, 그 기계 이름은 알아지쿠과? 씨 불르는 거.(아, 그 기계 이름은 알겠습니까? 씨 바르는 거.)

106019 #4 몰라, 몰라.(몰라, 몰라.)

106019 @ 아, 그거는 한 번도 안 봐보고예?(아, 그거는 한 번도 안 봐보고요?)

106019 #4 으.(으.)

106019 #1 물레엔 헌 말은 안 들어납디가?(물레라고 한 말은 안 들었었습니까?)

106019 #4 안 들어낫어.(안 들었었어.)

106019 @ 씨 불르는 물레예.(씨 불르는 물레요.)

106019 #4 에에.(에에.)

106019 @ 아, 그런 건 안 하고예?(아, 그런 건 안 하고요?)

106019 #4 이디서 그런 건 허는 사람이 엇인디. 이 발은?(여기서 그런 건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바닥은?)

106019 @ 이 바닥은?(이 바닥은?)

106019 #4 이.(이.)

106021 @ 그 게믄 저기 미녕 짜는 것도 엇어낫수가?(그 그러면 저기 무명 짜는 것도 없었습니까?)

106021 #4 이딘 그런 것도 엇어낫어.(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었어.)

106021 @ 미녕 차는 것도 엇고예?(무명 짜는 것도 없고요?)

106021 #4 그자 장시 오민 상 홈뿐이주.(그저 장사 오면 사서 함뿐이지.)

바느질 도구

106022 @ 음, 아까 삼춘 그 홍세미녕헐 때 두 필씩 논덴 허지 아녀수가예? 흔 필이믄 여기선 멧 자를 흔 필이렌 헷수과?(음, 아까 삼촌 그 '홍세무명'할 때 두 필씩 넣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필이면 여기선 몇 자를 한 필이라고 했습니까?)

106022 #4 엿날은 무신 마흔 자여 무시거여 허여도 시방은 마흔 자짜리가 엇어.(옛날은 무슨 마흔 자다 무엇이다 해도 시방은 마흔 자짜리가 없어.)

106022 @ 음, 옛날 어른들은 마흔 자 헷어예?(음, 옛날 어른들은 마흔 자 했죠?)

106022 #4 으, 마흔 자.(으, 마흔 자.)

106022 @ 그 자도 보면 옷허는 자는 옛날 그 자가 틋나잖아예? 요즘 자허고예?(그 자도 보면 옷을 하는 자는 옛날 그 자가 다르잖아요? 요즘 자하고요?)

106022 #4 음.(음.)

106022 @ 그건 무슨 자렌 헙니까? 옷 허는 자를? 대나무로 이렇게 허영 만들엉.(그건 무슨 자라고 합니까? 옷 하는 자를?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106022 #4 대나무로.(대나무로.)

106022 #1 침척이렌 허여, 침척.(침척이라고 해, 침척.)
106022 @ 침척?(침척?)
106022 #1 바농질잔 침척.(바느질잔 침척.)
106022 @ 아, 삼춘네는 그걸 뭐렌 헙니까?(아, 삼촌네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6022 #4 우린 그자 자.(우린 그저 자.)
106022 @ 자, 으. 겡 건 멧 센치우과? 요즘 허면은?(자, 으. 그래서 건 몇 센티미터입니까? 요즘 하면은?)
106022 #1 몰라.(몰라.)
106022 #4 멧 센치가 뒈는 건디 우리가 글을 알앙 그걸 족암시믄 알주마는.(몇 센티미터가 되는 건지 우리가 글을 알아서 그걸 적고 있으면 알지만.)
106022 @ 경 헤여도 그걸로 허영 허민 이 폭이 멧 자 멧 푼 이런 식으로 허잖아예? 그 저기 베나 미녕이나 허면?(그렇게 해도 그걸로 해서 하면 이 폭이 몇 자 멧 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저기 베나 무명이나 하면?)
106022 #4 미녕 허민 잘 나가민 일곱 치이.(무명 하면 잘 나가면 일곱 치.)
106022 @ 예.(예.)
106022 #4 일곱 치 나가고. 또 족으면 ᄋᆞ섯 치 닷 분.(일곱 치 나가고. 또 작으면 여섯 치 닷 푼.)
106022 @ 음.(음.)
106022 #4 미녕 너비가.(무명 넓이가.)
106022 @ 예.(예.)
106022 #4 경벳기 안 뒈주게.(그렇게밖에 안 되지.)
106022 @ 요만큼.(요만큼.)
106022 #4 시방 멩지덜은 일곱 치가 더 나가.(시방 명주들은 일곱 치가 더 나가.)
106022 @ 요즘은예?(요즘은요?)
106022 #4 요즘은.(요즘은.)
106022 #1 ᄒᆞᆫ 치가 얼만곤 허민 성냥쌀 ᄒᆞ나가 ᄒᆞᆫ 치라.(한 치가 얼마인가 하면 성냥개비 하나가 한 치야.)
106022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22 #1 그게 딱 그 바농질자 ᄒᆞᆫ 치가 이제 성냥쌀 ᄒᆞ나.(그게 딱 그 바느질자 한 치가 이제 성냥개비 하나.)
106022 #4 게난 그게 열 개민.(그러니까 그게 열 개면.)
106022 #1 열 개민 ᄒᆞᆫ 자.(열 개면 한 자.)
106022 #4 ᄒᆞᆫ 자.(한 자.)
106022 @ 예, 예. 옛날에 사십 센티 정도, 오십 센치. 오 센치 성냥 이렇게 헹 예, 예? 그 조선자.(예, 예. 옛날에 사십 센티미터 정도, 오십 센티미터. 오 센티미터 성냥 이렇게 해서요, 예? 그 조선자.)

106022 #4 요 정도.(요 정도.)
106022 @ 예. 오십 센치.(예. 오십 센티.)
106022 #4 요 정도 뒈지. 시방 성냥쌀은?(요 정도 되지. 시방 성냥개비는?)
106022 @ 족아?(작아?)
106022 #4 족아.(작아.)
106022 @ 예, 옛날에 조사허당 보민예, 오십 센치, 사십 센티. 요즘은 삼십 센치 자 허잖아예?(예, 옛날에 조사하다가 보면요, 오십 센티미터, 사십 센티미터. 요즘은 삼십 센티미터 자 하잖아요?)
106022 #4 응.(응.)
106022 @ 게난 옛날허고 틋난 거 같아예. 으, 이제는 직접 이제 삼춘이 직접 헷던 거. 바농질 도구들은 어떤 거 잇수가? 바농질 헐 때 필요헌 도구들. 손바농질 헐 때.(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 같아요. 으, 이제는 직접 이제 삼촌이 직접 했던 거. 바느질 도구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바느질 할 때 필요한 도구들. 손바느질 할 때.)
106022 #4 무시거 필요헌 게 잇어?(무엇 필요한 게 있어?)
106022 #1 씰, 바농.(실, 바늘.)
106022 #4 씰, 바농.(실, 바늘.)
106022 @ 음.(음.)
106022 #1 씰패.(실패.)
106022 #4 씰팬 씰 감는 거.(실팬 실 감는 거.)
106022 @ 예.(예.)
106022 #1 또 골무.(또 골무.)
106022 #4 우린 그런 거 아년 헤낫어.(우린 그런 거 안 해서 했었어.)
106022 #1 골무 안 헤납디가?(골무 안 했었습니까?)
106022 @ 여기 골무렌 헙니까? 이 동네는 무시거렌 헙니까?(여기 골무라고 합니까? 이 동네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06022 #4 그거 낍는, 이디선 낍는 사름이 유드물어.(그거 끼우는, 여기선 끼우는 사람이 드물어.)
106022 @ 음, 유드물어예?(음, 드물어요?)
106022 #4 우린 그렇게 바농질을 헤도 그거 쪈 헤보진 아녓어.(우린 그렇게 바느질을 해도 그거 껴서 해보진 않았어.)
106022 @ 음, 바농 저기 헐 때 영허는 거를 뭐렌 헙니까? 바농 헐 때는 뭐 저기?(음, 바늘 저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바늘 할 때는 뭐 저기?)
106022 #4 바농귀 꿰는 거.(바늘귀 꿰는 거.)
106022 @ 그냥 바농귀 직접 꿰여마씨?(그냥 바늘귀 직접 꿰어요?)
106022 #4 직접.(직접.)
106022 @ 어.(어.)
106022 #4 우린 이제도 미싱 받아 앚이민 꿰어나난.(우린 이제도 재봉틀 받아

앉으면 뀌어나니까.)

106022 @ 예, 그대로 감각으로?(예, 그대로 감각으로?)

106022 #4 감각으로 가민 대박 들어가.(감각으로 가면 단박 들어가.)

106022 @ 어, 이제도예?(어, 이제도요?)

106022 #4 이제도.(이제도.)

106022 @ 예.(예.)

106022 #1 골무가 양복집의선 유비[175]야.(골무가 양복집에선 '유비'야.)

106022 @ 일본말로.(일본말로.)

106022 #1 유비야, 양복집의선 허곡.('유비'야, 양복집에선 하고.)

106022 @ 예.(예.)

106022 #1 그냥 우리말로 골무.(그냥 우리말로 골무.)

106022 @ 예, 표준어고. 그 다음에 그 바농질 도구 헐 때 그 바농이영 실패영 자영 놓는 거. ᄀᆞ세도 잇지 아녀우과?(예, 표준어고. 그 다음에 그 바느질 도구 할 때 그 바늘이랑 실패랑 자랑 넣는 거. 가위도 있지 않습니까?)

106022 #4 상지. 바농상지.(상자. 반짇고리.)

106022 @ 바농상지. 그 다음 바농 꼿이는 거는?(반짇고리. 그 다음 바늘 꽂는 거는?)

106022 #4 바농 꼿이는 건 건 이녁냥으로 멘들앙 저 머리꺽 끊어분 거 헤여근에 떼깍 담앙 둘아메민 그건.(바늘 꽂는 건 건 이녁대로 만들어서 저 머리털 끊어버린 거 해서 단단히 담아서 매달면 그건.)

106022 #1 무시거옌 ᄀᆞᆯ읍네까? 일름?(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름?)

106022 #4 일름 이십니까? 바농 질르는 거벳긔?(이름 있습니까? 바늘 찌르는 거밖에?)

106022 @ 바농 질르는 거벳긔.(바늘 찌르는 거밖에.)

106022 #1 부게엔 ᄀᆞᆯ아? 무시거엔 ᄀᆞᆯ아?('부게'라고 말해? 무엇이라고 말해?)

106022 #4 난 안 들어난.(난 안 들어었어.)

106022 @ 바농질 허는 거? 게믄 이렇게 바농은 멧 개가?(바느질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바늘은 몇 개가?)

106022 #4 혼이 잇어?(한이 있어?)

106022 @ 멧 개 들어마씨?(몇 개 들어요?)

106022 #1 혼 쏨이.(한 쌈이.)

106022 @ 혼 쏨이.(한 쌈이.)

106022 #4 혼 쏨이 미싱 바농은 ᄋᆞ섯 개.(한 쌈이 재봉틀 바늘은 여섯 개.)

106022 @ 예.(예.)

106022 #4 ᄋᆞ섯 개고, 그냥 바농질 허는 건 스무 갠가?(여섯 개고, 그냥 바느질

175) '유비'는 '골무'를 뜻하는 일본어 'ゆびぬき'에서 따와서 쓴 말이다. '유비(ゆび)'는 일본어로 '손가락'을 뜻하는 어휘다.

하는 건 스무 갠가?)

106022 @ 음, 쓰무 개예? 그걸 흔 쏨?(음, 스무 개요? 그걸 한 쌈?)

106022 #4 흔 쏨.(한 쌈.)

106023 @ 그 다음에 바늘, 바농질허는 방법도 으라 가지 아니라예? 영 박음질이여 무신 뗑침이여 이런 말을 허지 아넘니까?(그 다음에 바늘, 바느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박음질이다 무슨 '뗑침'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6023 #4 이디선 그런 소리도 아녀.(여기선 그런 소리도 않아.)

106023 @ 음.(음.)

106023 #1 뒷바농질.('뒷바늘질'.)

106023 #4 뒷바농질 허는 건 바농질 영 허영 씰 헤연에 두이로 바농을 다시 그 영 뽑은 씰 뒷깐으로 바농질 허민 건 뒷바농질.(뒷바느질 하는 건 바느질 이렇게 해서 실 해서 뒤로 바늘을 다시 그 이렇게 뽑은 실 뒤 칸으로 바느질 하면 건 '뒷바농질'.)

106023 @ 그 뒷바농질은 어떨 때 허는 바농질이우과?(그 '뒷바느질'은 어떨 때 하는 바느질입니까?)

106023 #4 그건 돈돈히 허는.(그건 단단히 하는.)

106023 @ 돈돈히 허는디. 주로 어떤 디마씨? 돈돈히 허는 디가.(단단히 하는데. 주로 어떤 데요? 단단히 하는 데가.)

106023 #4 이 춤 어린아으덜 옷 헐 때민 이건 강알 씰밥 ᄀᆞ뜬 디.(이 참 어린아이들 옷 헐 때면 이건 샅 실밥 같은 데.)

106023 @ 음.(음.)

106023 #4 어디 손 아으덜 보곰지르레 영 질르는 그치룩헌 바우 ᄀᆞ뜬 디. 그런 딘 뒷바농질헤영 돈돈허게.(어디 손 아이들 주머니에 이렇게 찌르는 그처럼한 가장자리 같은 데. 그런 덴 뒷바느질해서 단단하게.)

106023 @ 예. 그 다음 다른 디 이런 디 영 주는 거는?(예. 그 다음 다른 데 이런 데 이렇게 깁는 거는?)

106023 #4 그런 건.(그런 건.)

106023 @ 그런 거는 무신 바농질 허여마씨?(그런 거는 무슨 바느질 해요?)

106023 #4 그냥 바농질이주.(그냥 바느질이지.)

106023 @ 뭐 홈질이여 무신 감침질이여 이런 말 안 써마씨?(뭐 홈질이다 무슨 감침질이다 이런 말 안 써요?)

106023 #4 감치는 건 영 영 허영 허는 게 감침. 그냥은 주어가는 건 그냥 호렌 허주.(감치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감침. 그냥은 기워가는 건 그냥 호라고 하지.)

106023 @ 호렌예? 호렌 허고.(호라고요? 호라고 하고.)

106023 #4 호아.(호아.)

106023 @ 호렌예. 영 영 헹은에.(호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6023 #4 그게 감치는 거지.(그게 감치는 거지.)

106023 @ 그냥 듬성듬성 허는 거는 호는 거?(그냥 듬성듬성 하는 거는 호는 거?)

106023 #4 호는 거.(호는 거.)

106023 @ 호는 거예? 아이고, 비 잘 왐쩌예?(호는 거요? 아이고, 비 잘 오네요?)

옷 종류

106024 @ 그 다음에 남자 옷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그 다음에 남자 옷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6024 #4 남자 옷 종류는게 중의적삼게, 바지저고리, 후루메, 쪼끼. 그것벳긔 더 엇주게.(남자 옷 종류는 중의적삼,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조끼. 그것밖에 더 없지.)

106024 @ 맨 안에 입는 건?(맨 안에 입는 건?)

106024 #4 안에 입는 건 빤스벳긘.(안에 입는 건 팬티밖엔.)

106024 @ 음.(음.)

106024 #1 후루메허고 두루마기가 차이 이십니깡?('후루메'하고 두루마기가 차이 있습니까?)

106024 #4 후루메, 후루메허고.('후루메', '후루메'하고.)

106024 #1 두루메기.(두루마기.)

106024 #4 두루마긴 건 홋 것ᄀᆞ라 두루마기엔 허곡.(두루마긴 건 홑 것보고 두루마기라고 하고.)

106024 #1 아, 홋 것?(아, 홑 것?)

106024 #4 예, 이 저 봄 때에 으름 때에 거세기 허는 건 두루마기고 후루멘 접거.(예, 이 저 봄 때에 여름 때에 거시기 하는 건 두루마기고 '후루메'는 겹 거.)

106024 #1 접 거.(겹 거.)

106024 #4 겨울에 입는 거.(겨울에 입는 거.)

106024 @ 음.(음.)

106024 #4 그것ᄀᆞ란 그건 안팟을 헤여사 겨울에 입는 거난.(그것보고는 그건 안팎을 해야 겨울에 입는 거니까.)

106024 @ 예.(예.)

106024 #4 경허고.(그렇게 하고.)

106025 @ 게믄 여자 옷 맨 안에서부터 입는, 속곳부터 밖에까지 맨 밖에 입는 것까지 ᄀᆞᆯ아 봅서.(그러면 여자 옷 맨 안에서부터 입는, 속곳부터 밖에까지 맨 밖에 입는 것까지 말해 보십시오.)

106025 #4 안네 입는 거 속곳.(안에 입는 거 속곳.)

106025 @ 속곳.(속곳.)
106025 # 으, 중의.(으, 중의.)
106025 @ 예.(예.)
106025 #4 바지.(바지.)
106025 @ 예.(예.)
106025 #4 그 다음은 치마.(그 다음은 치마.)
106025 @ 예.(예.)
106025 #4 저고리.(저고리.)
106025 @ 예.(예.)
106025 #4 그것벳긔 엇지.(그것밖에 없지.)
106025 @ 저고리도 하나만 입읍니까?(저고리도 하나만 입습니까?)
106025 #1 속저고리.(속저고리.)
106025 #4 하나만.(하나만.)
106025 @ 하나만예? 삼춘, 적삼허고?(하나만요? 삼촌, 적삼하고?)
106025 #4 적삼은 이 봄 때에 입는 거. 홋 거.(적삼은 이 봄 때에 입는 거. 홑 거.)
106025 @ 홋 거?(홑 거?)
106025 #4 흔 곱.(한 겹.)
106025 @ 흔 곱 헌 거는 적삼이렌 허고.(한 겹 한 거는 적삼이라고 하고.)
106025 #4 적삼이고.(적삼이고.)
106025 @ 예.(예.)
106025 #4 두 콥 헌 건 저고리.(두 겹 한 건 저고리.)
106025 @ 아, 두 콥 헌 거는 저고리예?(아, 두 겹 한 거는 저고리요?)
106025 #4 저고리.(저고리.)
106025 @ 아, 여자들은 뭔 마고자여 이런 건 안 입읍니까?(아, 여자들은 뭔 마고자다 이런 건 안 입습니까?)
106025 #4 이제난 마구지주, 엿날이사 마구지가 어디 잇어.(이제난 마구자지, 옛날이야 마고자가 어디 있어.)
106025 @ 마구진 엇어낫수가? 옛날에.(마고잔 없었습니까? 옛날에.)
106025 #4 음.(음.)
106025 @ 조끼, 남자덜 조껜 입고?(조끼, 남자들 조끼는 입고?)
106025 #4 남자덜은게 중의적삼 입으민 조끼 입고, 겨울에 바지저고리 입으민 또 거세기 조끼도 두 콥 거.(남자들은 중의적삼 입으면 조끼 입고, 겨울에 바지저고리 입으면 또 거시기 조끼도 두 겹 거.)
106025 @ 음.(음.)
106025 #4 그거 입고.(그거 입고.)
106025 @ 두 콥 헹예?(두 겹 해서요?)

106025 #4 두 콥짜리.(두 겹짜리.)

106025 @ 이 영 끌레 헤갖고 그 누비 헤갖고는 안 헤마씨?(이 이렇게 누비 해 갖고 그 누비 해갖고는 안 해요?)

106025 #4 누비는 거.(누비는 거.)

106025 @ 예.(예.)

106025 #4 누비는 건 그건 ᄒᆞ꼼 생각헌 사름은.(누비는 건 그건 조금 생각한 사람은.)

106025 #1 잇는 사람.(있는 사람.)

106025 @ 예.(예.)

106025 #4 누비여근에 만들곡.(누벼서 만들고.)

106025 @ 음, 누비영 허젠 허민 소곱에 뭐 놔마씨?(음, 누벼서 하려고 하면 속에 뭐 놔요?)

106025 #4 소곱에 놔야지.(속에 놔야지.)

106025 @ 무시거 놔?(무엇 넣어?)

106025 #4 솜.(솜.)

106025 @ 음.(음.)

106025 #4 솜 얍게 놩은에 누비여 놩 이젠 또 ᄒᆞᆫ 씰밥 ᄒᆞᆫ 씰밥 다 또 저구리 만드난, 이 거세기. 이런 바진 대소간 누비지 아녀곡 저구린 누비영.(솜 얇게 넣어서 누벼 놓고 이젠 또 한 실밥 한 실밥 다 또 저고리 만드니까, 이 거시기. 이런 바진 대소간 누비지 않고 저고린 누벼서.)

106025 @ 아, 저고린 누비영예? 아, ᄒᆞᆫ 씰밥 ᄒᆞᆫ 씰밥 다 허는 거라예?(아, 저고린 누벼서요? 아, 한 실밥 한 실밥 다 하는 거네요?)

106025 #4 으.(으.)

106026 @ 다 허는 거라예? 아으덜 옷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다 하는 거라고요? 아이들 옷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6026 #4 아으덜 옷 종류? 옛날은 우린 미녕으로 아으덜 저 국민학생덜 껌정 물 들여근에 오랑 헤ᄃᆞ렌 허민 그거 ᄆᆞᆯ라근에.(아이들 옷 종류? 옛날은 우린 무명으로 아이들 저 초등학생들 검정 물 들여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거 말라서.)

106026 #1 반바지.(반바지.)

106026 #4 예.(예.)

106026 #1 반바지허곡.(반바지하고.)

106026 @ 우의, 우에 거는?(위에, 위에 거는?)

106026 #4 우의 건 그자 시방 양복 우의 거 허듯, 이디 영 헤근에 그치룩 허영 만들곡, 바진 또 시방 저 쓰붕ᄀᆞ찌 만들아근에.(위에 건 그저 시방 양복 위에 거 하듯, 여기 이렇게 해서 그처럼 해서 만들고, 바진 또 시방 저 바지같이 만들어서.)

106026 @ 예, 그건 허고예? 예전에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 또 옷 해줘야지 않읍니까양?(예, 그건 하고요? 예전에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 또 옷 해줘야지 않습니까?)

106026 #4 봇듸저고리.(배냇저고리.)

106026 @ 봇듸저고리. 그거는 뭘로 허영은에 어떵 만들아마씨?(배냇저고리. 그거는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106026 #4 옛날은 아기덜 등 ᄀᆞ릅넨, 등 ᄀᆞ릅넨 낳민 봇듸저구리.(옛날은 아기들 등 가렵다고, 등 가렵다고 낳으면 배냇저고리.)

106026 #1 삼베로.(삼베로.)

106026 #4 베로 멘들앙.(베로 만들어서.)

106026 @ 음.(음.)

106026 #4 베로 멘들앙양. 아기덜 영 영 헤가민 등.(베로 만들어서요. 아기들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등.)

106026 #1 긁어지렌.(긁어지라고.)

106026 #4 긁어지렌.(긁어지라고.)

106026 @ 음.(음.)

106026 #4 경 허영 허여나민 그거 일뤠꺼지 입져나민 아으덜 등 긁어ᄃᆞ렌 아니헌덴.(그렇게 해서 해나면 그거 이레까지 입혀나면 아이들 등 긁어달라고 아니 한다고.)

106026 @ 음, 그러면 언제부터 일뤠까지 입는 거라마씨?(음, 그러면 언제부터 이레까지 입는 거예요?)

106026 #4 곧 나민.(곧 낳으면.)

106026 @ 아, 곧 나민?(아, 곧 낳으면?)

106026 #4 으, 곧.(으, 곧.)

106026 @ 사을 뒈영 입히는 게 아니고?(사흘 되어서 입히는 게 아니고?)

106026 #4 사을 뒈영 입지는 게 아니고, 곧 낳민 아긴 모욕 시키거든.(사흘 되어서 입히는 게 아니고, 곧 낳으면 아긴 목욕 시키거든.)

106026 @ 예.(예.)

106026 #4 경허민 그때 입경.(그렇게 하면 그때 입혀서.)

106026 #4 벳기는 사름은 삼일 뒈민 벳기는 사름도 잇고. 일주일. ᄒᆞ꼼 거세기헌 사름은 등 ᄀᆞ릅지 말렌.(벗기는 사람은 삼일 되면 벗기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조금 거시기 한 사람은 등 가렵지 말라고.)

106026 #1 일주일을 입지고.(일주일을 입히고.)

106026 #4 일주일을 입지곡.(일주일을 입히고.)

106026 @음, 겡.(음, 그래서.)

106026 #4 게난 일뤠 낭 아기 다시 모욕 시기민 그거 벳경. 우리도 이제 손지덜 입져낭 베로 멘들앙 잇어.(그러니까 이레 되어서 아기 다시 목욕 시키면 그거 벗겨서. 우리도 이제 손주들 입혔던 베로 만들어서 있어.)

106026 @ 아, 잇수과? 나중에 그 하나 사진 찍어 놔야켜.(웃음)(아, 있습니까? 나중에 그 하나 사진 찍어 놔야겠다.(웃음))

106026 #1 베넷저고리.(웃음)(배냇저고리.(웃음))

106026 @ 겡은에 그거를 여기서는 봇듸저구리엔 헤예?(그렇게 해서 그거를 여기서는 배냇저고리라고 해요?)

106026 #4 봇듸저고리.(배냇저고리.)

106026 @ 봇듸저고리도 남자 거허고 여자 거허고 ᄐᆞ납니까?(배냇저고리도 남자 거하고 여자 거하고 다릅니까?)

106026 #4 ᄯᅳ나지 아녀.(다르지 않아.)

106026 @ 아, ᄯᅳ나지 안 허여예?(아, 다르지 안 해요?)

106026 #4 그자 ᄉᆞ미만 질게 헤영 손 가냥.(그저 소매만 길게 해서 손 간직.)

106026 @ 음, 게도 봇듸저고리 헐 때는 앞에도.(음, 그래도 배냇저고리 할 때는 앞에도.)

106026 #4 끄나풀. 끈으로.(끄나풀. 끈으로.)

106026 @ 끈으로.(끈으로.)

106026 #4 으, 끈으로 무껑 영 ᄒᆞᆫ 불 감앙.(으,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 벌 감아서.)

106026 @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허고. 봇딧저고리 벳기면 무슨 옷 입혀마씨?(예,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배냇저고리 벗기면 무슨 옷 입혀요?)

106026 #4 아기 저고리.(아기 저고리.)

106026 @ 어.(어.)

106026 #4 아기 저고리 멘들앙. 아기 저고리 멘들앙게 춤.(아기 저고리 만들어서. 아기 저고리 만들어서 참.)

106026 #1 좀 보드라운 기지 헹.(좀 보드라운 천을 해서.)

106026 #4 헤여근에게.(해서.)

106026 @ 애기 옷들 보면 또 우리 후루메처럼 질게 멘들지 않음니까예? 그건 옷 이름이 잇어마씨?(애기 옷들 보면 또 우리 두루마기처럼 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옷 이름이 있어요?)

106026 #4 옷 이름 엇어.(옷 이름 없어.)

106026 @ 엇어. 그 다음에?(없어. 그 다음에?)

106026 #4 그거 입지는 사름도 셍각헌 사름은 그런 거, 어디서 춤 선세나 들어오민 입지주. 경.(그거 입히는 사람도 생각한 사람은 그런 거, 어디서 참 선사나 들어오면 입히지. 그렇게.)

106026 @ 음.(음.)

106026 #1 잇는 집이.(있는 집이.)

106026 @ 잇는 집이.(있는 집이.)

106026 #4 예.(예.)

106026 @ 베만 영 싸는 것도 잇지 아념니까? 베부레기엔 헙니까?(배만 이렇게 싸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베부레기'라고 합니까?)

106026 #4 베부레기[176].(‘베부레기’.)

106026 @ 예.(예.)

106026 #4 그건 베로 허여근에 영 허영 아기덜 으름에 그냥 멘드글레기 벳기지 아녀근에 그것만 베만 가냥허영 아으덜 거세기 험으로 베부레기.(그건 베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기들 여름에 그냥 홀딱 벗기지 않고 그것만 배만 간직해서 아이들 거시기 함으로 ‘베부레기’.)

106026 @ 거 베부레기렌 허는 거. 거 어깨도 이렇게 만들어마씨?(거 ‘베부레기’라고 하는 거. 거 어깨도 이렇게 만들어요?)

106026 #4 으, 어깨.(으, 어깨.)

106026 #1 끈으로.(끈으로.)

106026 @ 끈으로.(끈으로.)

106026 #4 끈으로.(끈으로.)

106026 @ 아, 끈으로 헤갖고 이제 베부레기 만드는 거고예? 그 다음에 또 왜 애기들 오줌 싸렌 헤갖고 지성귀 못 허난 안에도 영 밑에도 터지게 헹은에 멘드는 바지도 잇지 아녀우과? 애기들 거?(아, 끈으로 해갖고 이제 ‘베부레기’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왜 애기들 오줌 누라고 해갖고 기저귀 못 하니까 안에도 이렇게 밑에도 터지게 해서 만드는 바지도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거?)

106026 #1 강알튼바지[177].(‘강알튼바지’.)

106026 @ 아.(아.)

106026 #4 그것ᄀᆞ란 밑바지[178]. 밑바지엔 허주.(그것보고는 ‘밑바지’. ‘밑바지’라고 하지.)

106026 @ 아, 밑바지. 강알터진바지ᄀᆞ라예? 꼭 그렇게 헹은에 입져서예?(아, ‘밑바지’. ‘강알터진바지’ 보고요? 꼭 그렇게 해서 입혔다고요?)

106026 #4 입졋주.(입혔지.)

106026 @ 으.(으.)

106026 #1 춤 옷 안 적지곡게 그자 벌기민 오줌은 싸질 거난.(참 옷 안 적시고 그저 벌리면 오줌은 싸질 거니까.)

106026 #4 경허난.(그렇게 하니까.)

106026 @ 건 밑바지렌.(건 ‘밑바지’라고.)

106026 #4 밑바지.(‘밑바지’.)

106026 #1 베부레기 베부레기 베 보호, 그걸 세밀히 말허민 베 보호지.(‘베부레기’ ‘베부레기’ 배 보호, 그걸 세밀히 말하면 배 보호지.)

106026 #4 이디 보호허는 거주게.(여기 보호하는 거지.)

---

176) ‘배부레기’는 아기들의 배만 가릴 수 있게 만든 간소한 옷이다. 지역에 따라서 달리 ‘베부루기’라고도 한다.

177) ‘강알튼바지’는 ‘밑이 트이게 만든 바지’라는 뜻을 지닌 어휘다.

178) ‘밑바지’는 아기들이 오줌을 쉽게 쌀 수 있도록 밑을 터서 만든 바지다. 달리 ‘강알튼바지’라고 말한다.

106026 @ 예, 예, 예. 여름에 베 아프지 말렌예?(예, 예, 예. 여름에 배 아프지 말라고요?)

106026 #4 베 아프지 말렌.(배 아프지 말라고.)

106026 #1 둣게 허렌.(따뜻하게 하라고.)

106026 @ 예.(예.)

106026 #4 둣게 허렌. 경허민 훨씬.(따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훨씬.)

106026 @ 낫아예?(낫는다고요?)

106026 #4 아으덜게 베 실려왕, 베 실려왕은 아녀주게.(아이들 배 시려서는, 배 시려서는 않지.)

106026 @ 음.(음.)

106026 #1 일본 사름덜 하루메기엔 헤영.(일본 사람들 '하루메기(?)'라고 해서.)

106026 #4 예게.(예.)

106026 #1 그걸 두텁게 게로 짱 입곡.(그걸 두껍게 털로 짜서 입고.)

106027 @ 아, 게난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옷 멘들젠 허민 ᄆᆞᆯ, ᄆᆞᆯ름질을 헤얄 거 아니우과예?(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옷 만들려고 하면 마, 마름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6027 #4 으.(으.)

106027 @ 옷 만드는 그 ᄆᆞᆯ름질은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봅서. 맨 처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ᄒᆞᆫ 필 베가 사오든 뭐 미녕이 잇든 헐 거 아니우과예?(옷 만드는 그 마름질은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맨 처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한 필 베가 사오든 뭐 무명이 있든 할 거 아닙니까?)

106027 #4 미녕 ᄒᆞ나 허민 전시 재여. ᄒᆞᆫ 자 ᄒᆞᆫ 자 다 재영 멧 자 허영 허민 무시거 무시거 헐 거만 ᄀᆞᆯ으민 이녁이 다 ᄆᆞᆯ르주게.(무명 하나 하면 전시(?) 재. 한 자 한 자 다 재어서 몇 자 해서 하면 무엇 무엇 할 거만 말하면 이녁이 다 마르지.)

106027 @ 예. 게난 ᄆᆞᆯ를 때 허기 뒈면 만약에 여자 저고리 치메 헐 때예, 저고리는 미녕이 어느 정도 들고. 치메는 어느 정도, 것도 삼춘 거 헐 때는 어느 정도 들엇수가?(예. 그러니까 마를 때 하게 되면 만약에 여자 저고리 치마 할 때요, 저고리는 무명이 어느 정도 들고. 치마는 어느 정도, 것도 삼촌 거 할 때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106027 #4 미녕은 너비 족곡 거세기 허민 여자, 여자 옷은 ᄒᆞᆫ 일곱 자.(무명은 너비 작고 거시기 하면 여자, 여자 옷은 한 일곱 자.)

106027 @ 예.(예.)

106027 #4 일곱 자민 적삼 멘들고. 치멘 키 큰 사름은 ᄒᆞᆫ 열석 자 경허민 치메 허곡.(일곱 자면 적삼 만들고. 치마는 키 큰 사람은 한 열석 자 그렇게 하면 치마하고.)

106027 @ 음.(음.)

106027 #4 키 족은 사름은 ᄒᆞᆫ 열두 자.(키 작은 사람은 한 열두 자.)

106027 @ 예.(예.)
106027 #4 경.(그렇게.)
106028 @ 그 다음은예, 삼춘. 바지, 저고리, 치메, 보선 부분 명칭이 잇어예? 바지는 이런 식으로 이젠 한복 바지라예?(그 다음은요, 삼촌. 바지, 저고리, 치마, 보선 부분 명칭이 있죠? 바지는 이런 식으로 이젠 한복 바지예요?)
106028 #4 응.(응.)
106028 @ 이렇게 뒙니까? 게민 이 부분은 뭐렌 헙니까?(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106028 #4 허리.(허리.)
106028 @ 영 허영 허리. 여기는마씨?(이렇게 해서 허리. 여기는요?)
106028 #4 것도.(것도.)
106028 #1 가렝인 가렝인디.(가랑인 가랑인데.)
106028 #4 가렝이?(가랑이?)
106028 @ 뭐, 사폭이여 셋복이여 이런 말은 안 헙니까? 폭이렌 허지예? 셋복?(뭐, 사폭이다 사폭이다 이런 말은 안 합니까? 폭이라고 하죠? 사폭?)
106028 #4 셋복.(사폭.)
106028 #1 음.(음.)
106028 @ 셋복도 하고.(사폭도 하고.)
106028 #1 어디 뚜로 어신가?(어디 따로 없는가?)
106028 @ 이렇게 허면 이게 그냥 우리 일반 저기라고 허면예, 이게 바지가 아까 허리잖아예? 예.(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우리 일반 저기라고 하면요, 이게 바지가 아까 허리잖아요? 예.)
106028 #4 이거 허리.(이거 허리.)
106028 @ 예, 여기는 허리.(예, 여기는 허리.)
106028 #4 허리. 요딘 상폭.(허리. 요기는 마루폭.)
106028 @ 아.(아.)
106028 #4 이디 영 질게.(여기 이렇게 질게.)
106028 @ 여기가 상폭.(여기가 마루폭.)
106028 #4 상폭.(마루폭.)
106028 @ 예.(예.)
106028 #4 이디 샛복. 이거 질.(여기 사폭. 이거 질.)
106028 @ 이거는?(이거는?)
106028 #4 이거 영 헌 건 진셋복[179].(이거 이렇게 한 건 '진셋복'.)
106028 @ 얼로부터 어까지마씨?(어디로부터 어디까지요?)
106028 #4 일로 영 뒛주게.(이리로 이렇게 됐지.)

179) '긴셋복'은 남자 한복바지에서 마루폭과 마루폭 사이에 댄 큰 폭을 말한다. 표준어 '큰사폭'에 해당하는 말이다.

106028 @ 예, 예, 일로 이렇게 해서?(예, 예, 이리로 이렇게 해서?)
106028 #4 이제 영 허민 이건 ᄌᆞ른샛복.(이제 이렇게 하면 이건 작은사폭.)
106028 @ 아, 예, 예, 예, 예, 예.(아, 예, 예, 예, 예, 예.)
106028 #4 이건 ᄌᆞ른셋복, 요건 진셋복.(이건 작은사폭, 요건 큰사폭.)
106028 @ 예.(예.)
106028 #4 요건 상폭 경 허영.(요건 마루폭 그렇게 해서.)
106028 @ 예, 잠깐예, 여기는 ᄌᆞ른셋복.(예, 잠깐요, 여기는 작은사폭.)
106028 #4 ᄌᆞ른셋복, 이딘 진셋복.(작은사폭, 여긴 큰사폭.)
106028 @ 여기는 진셋복.(여기는 큰사폭.)
106028 #3 이딘 허리.(여긴 허리.)
106028 @ 예, 여긴 허리?(예, 여긴 허리?)
106028 #4 이딘 강알씰밥[180].(여긴 '강알씰밥'.)
106028 @ 여기는 강알씰밥. 그 다음에 여긴마씨?(여기는 '강알씰밥'. 그 다음에 여긴요?)
106028 #4 이딘.(여긴.)
106028 #1 건 다님.(건 대님.)
106028 #4 이딘 다님, 다님 치주. 요영.(여긴 대님, 내님 치지. 요렇게.)
106028 @ 예, 여기는 다님 치는 거예? 다님예? 예.(예, 여기는 대님 매는 거요? 대님요? 예.)
106028 #1 단이 아닌가?(단이 아닌가?)
106028 @ 다님, 이렇게 무끄는 거예? 예예, 다님?(대님, 이렇게 묶는 거요? 예예, 대님?)
106028 #4 다님.(대님.)
106028 @ 이제 남자 거는 경허민 뒈는 거우과? 허리 잇고.(이제 남자 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허리 있고.)
106028 #4 으, 허리 잇고.(으, 허리 있고.)
106028 @ 이게 이제 이거 저고리잖아예? 이건 굴중의 닮다. 이거는?(이게 이제 이거 저고리잖아요? 이건 '굴중의' 같다. 이거는?)
106028 #4 이건 굴중의.(이건 '굴중의'.)
106028 @ 이건 굴중의 맞지예? 예, 이건 굴중의. 굴중의는 여기는 뭐렌 헙니까? 아까처럼 허리?(이건 '굴중의' 맞지요? 예, 이건 '굴중의'. '굴중의'는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처럼 허리?)
106028 #4 허리.(허리.)
106028 @ 아, 이건 허리. 허리 옆에 이렇게 끈이 둘렁 이신게예?(아, 이건 허리. 허리 옆에 이렇게 끈이 달려서 있네요?)
106028 #1 허리에 끈.(허리에 끈.)

180) '강알씰밥'은 밑의 실밥을 말한다.

106028 #4 이건 허리 거세기난.(이건 허리 거시기니까.)
106028 @ 예, 게민 이걸 뭐렌 골아마씨?(예,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106028 #4 이딘?(여긴?)
106028 @ 허리끈ᄀᆞ라는?(허리끈보고는?)
106028 #4 이게 허리끈이주.(이게 허리끈이지.)
106028 @ 예, 허리끈을 허리끈이렌 헙니까? 허리친 헙니까?(예, 허리끈을 허리끈이라고 합니까? '허리친' 합니까?)
106028 #4 허리끈.(허리끈.)
106028 @ 허리끈. 그 다음에 이 여기는?(허리끈. 그 다음에 이 여기는?)
106028 #1 폭.(폭.)
106028 @ 여기도 셋복?(여기도 사폭?)
106028 #4 아니, 엇어.(아니, 없어.)
106028 @ 이건 셋복이 엇어예? 여자 거는예?(이건 사폭 없어요? 여자 거는요?)
106028 #4 그자 굴중의.(그저 '굴중의'.)
106028 @ 으, 굴중의. 여기 영 주름도 놓지 아념니까예?(으, '굴중의'. 여기 이렇게 주름도 놓지 않습니까?)
106028 #4 주름 놓주게.(주름 놓지.)
106028 @ 예, 이건 그냥 주름?(예, 이건 그냥 주름?)
106028 #4 으.(으.)
106028 @ 이건 주름.(이건 주름.)
106028 @ 이 밑에는 또 여긴, 여기보단 틀리게 헤신게예?(이 밑에는 또 여긴, 여기보단 다르게 했는데요?)
106028 #4 이딘 여자 거니까.(여긴 여자 거니까.)
106028 @ 예, 여기 건 뭐렌 헙니까?(예, 여기 건 뭐라고 합니까?)
106028 #1 그딘 무신거 놔신게.(거긴 무엇 넣었는데.)
106028 @ 처지렌 헙니까?('처지'라고 합니까?)
106028 #4 아니, 아니. 밋바대.(아니, 아니. 밑바대.)
106028 @ 아, 밋바대, 밋바대예? 예, 게믄 이름이 다 뒈신가마씨?(아, 밑바대, 밑바대요? 예, 그러면 이름이 다 됐는가요?)
106028 #4 응, 다 뒛어.(응, 다 됐어.)
106028 @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적삼이구나?(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적삼이구나?)
106028 #1 예, 적삼.(예, 적삼.)
106028 #4 적삼.(적삼.)
106028 @ 이거는 적삼.(이거는 적삼.)
106028 #1 적삼도 뒈곡 저고리도 뒈곡.(적삼도 되고 저고리도 되고.)

106028 #4 춤, 적삼도 뒈곡 저고리도 뒈곡.(참, 적삼도 되고 저고리도 되고.)
106028 @ 예, 적삼허면 이, 여기는 뭐렌 헙니까?(예, 적삼하면 이,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4 이딘 짓.(여긴 깃.)
106028 @ 이거는 짓.(이거는 깃.)
106028 #1 동전은 어디?(동정은 어디?)
106028 @ 여기에 이제 만약에 달믄?(여기에 이제 만약에 달면?)
106028 #1 동전.(동정.)
106028 #4 이딘 섭.(여긴 섶.)
106028 @ 어느 거?(어느 거?)
106028 #4 요영 헌 거.(요렇게 한 거.)
106028 @ 요거는 섭.(요거는 섶.)
106028 #4 진동.(진동.)
106028 @ 여기 이렇게 헤서 진동예?(여기 이렇게 해서 진동요?)
106028 #4 진동.(진동.)
106028 @ 이 두에도 뭐렌 허지 안 헙니까?(이 뒤에도 뭐라고 하지 안 합니까?)
106028 #4 두에?(뒤에?)
106028 @ 예.(예.)
106028 #4 뒤엔 이거 짓 허민 목고대.(뒤엔 이거 깃 하면 '깃고대'.)
106028 @ 목고대예? 목고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짓도, 짓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짓허고 밖으로 나오는 짓허고 뚜납니까?('깃고대'요? '깃고대'. 그 다음에 이제 그 깃도, 깃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깃하고 밖으로 나오는 깃하고 다릅니까?)
106028 #4 안짓.(안깃.)
106028 @ 으, 안짓.(으, 안깃.)
106028 #4 요건 베껫짓.(요건 겉깃.)
106028 @ 이거는 베껫짓.(이거는 겉깃.)
106028 #4 이거 영 허민 이딘 젓겡이알[181].(이거 이렇게 하면 여긴 '젓겡이알'.)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4 젓겡이알.('젓겡이알'.)
106028 @ 예, 젓겡이알.(예, '젓겡이알'.)
106028 #4 요기 이딘 ᄉᆞ미.(요기 여긴 소매.)
106028 @ 여기는, 일로 이렇게 해서 ᄉᆞ미.(여기는, 일로 이렇게 해서 소매.)
106028 #4 으, ᄉᆞ미.(으, 소매.)
106028 @ 예, ᄉᆞ미?(예, 소매?)
106028 #4 ᄉᆞ밋부리.(소맷부리.)
106028 @ 여기는?(여기는?)

181) '젓겡이알'은 겨드랑이 밑을 말한다.

106028 #4 ᄉᆞ밋부리.(소맷부리.)
106028 @ ᄉᆞ밋부리.(소맷부리.)
106028 #4 으, 여ᄌᆞ 것도 그거주게.(으, 여자 것도 그거지.)
106028 @ 예.(예.)
106028 #4 요건 짓.(요건 깃.)
106028 @ 예, 여긴 짓.(예, 여긴 깃.)
106028 #4 목고대.(깃고대.)
106028 @ 여기는 목고대.(여기는 깃고대.)
106028 #4 안짓.(안깃.)
106028 @ 예, 안짓.(예, 안깃.)
106028 #4 바껫짓.(겉깃.)
106028 @ 여긴 바껫짓.(여긴 겉깃.)
106028 #4 요딘 섭.(여긴 섶.)
106028 @ 예, 여기는 섭.(예, 여기는 섶.)
106028 #4 안트레 들어간 건 안썹.(안으로 들어간 건 안섶.)
106028 @ 안썹. 밖에 거는 무슨 썹 헤마씨?(안섶. 밖에 거는 무슨 섶 해요?)
106028 #4 벳게 그냥 베껫 것 그것 섭이엔 허민 알아먹주게.(바깥 그냥 바깥 것 그것 섶이라고 하면 알아먹지.)
106028 @ 예, 예, 안썹만 따로예? 예.(예, 예, 안섶만 따로요? 예.)
106028 #4 안네 것만 안썹.(안에 것만 안섶.)
106028 @ 안썹. 여기는 뭐렌 헙니까?(안섶.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4 이건 젓겡이알.(이건 '젓겡이알'.)
106028 @ 아, 젓겡이알. 여기는 아까 진동.(아, '젓겡이알'. 여기는 아까 진동.)
106028 #4 진동.(진동.)
106028 @ 예.(예.)
106028 #4 이딘 ᄉᆞ밋부리.(여긴 소맷부리.)
106028 @ 예, ᄉᆞ밋부리. 그리고 ᄉᆞ밋부리 헐 때 따로 달고 허면 뭐렌 헙니까? 그 색깔 잇는 거 영허면?(예, 소맷부리. 그리고 소맷부리 할 때 따로 달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색깔 있는 거 이렇게 하면?)
106028 #4 색깔 잇는 거 허민.(색깔 있는 거 하면.)
106028 @ 예.(예.)
106028 #4 질ᄉᆞ미.(끝동)
106028 @ 아, 질ᄉᆞ미. 질ᄉᆞ미는 다른 거 부쳥 허는 거예?(아, 끝동. 끝동은 다른 거 붙여서 하는 거요?)
106028 #4 응.(응.)
106028 @ 으, 질ᄉᆞ미 허는 옷은 어떤 옷에 질ᄉᆞ미헤마씨?(으, 끝동 하는 옷은 어떤 옷에 끝동해요?)

106028 #4 대소간 이디 ᄒᆞ는 건 ᄒᆞ꼼 고렌.(대소간 여기 하는 건 조금 고우라고.)

106028 #1 곤 저고리에.(고운 저고리에.)

106028 #4 곤 저고리에.(고운 저고리에.)

106028 @ 그런 거는 질ᄉᆞ미를 부찌는 거라예?(그런 거는 끝동을 붙이는 거라고요?)

106028 #4 끗동.(끝동.)

106028 @ 으, 끗동이 질ᄉᆞ미우과? 아, 끗동 우리 허는 게 질ᄉᆞ미구나예?(으, '끗동'이 '질ᄉᆞ미'입니까? 아, 끝동 우리 하는 게 '질ᄉᆞ미'군요?)

106028 #4 으.(으.)

106028 @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렌 헙니까? 여기?(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106028 #4 그딘 배알.(거긴 '배알'.)

106028 @ 배알. 이게 배레렌 허는 거예?('배알'. 이게 배래라고 허는 거요?)

106028 #4 배, 배알. 경허난 영 허민 배 닮지이, 이디.(배, '배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배 같지, 여기.)

106028 @ 예, 예.(예, 예.)

106028 #4 이디 영 끗이.(여기 이렇게 끝이.)

106028 @ 모냥이?(모양이?)

106028 #4 경허난 배알.(그렇게 하니까 배래.)

106028 @ 배알. 게민 여기도 따로 뭣에?(배래. 그러면 여기도 따로 뭣에?)

106028 #4 그딘 엇어.(거긴 없어.)

106028 @ 아, 그건 안 하고?(아, 그건 안 하고?)

106028 #4 이딘 배알.(여긴 배래.)

106028 @ 아아, 여기는 배알이렌 허는 거구나예?(아아, 여기는 '배알'이라고 하는 거군요?)

106028 #1 배 창 모양으로 뒈니까.(배 바닥 모양으로 되니까.)

106028 @ 예, 예, 예, 예. 우리 표준어는 배래렌 허거든예? 소맷배래예. 그 다음에 삼춘, 여기는 엇주마는 여기 영 허영 끈 돌당 헌 거? 여기 무사 저고리허면은?(예, 예, 예, 예. 우리 표준어는 배래라고 하거든요? 소맷배래요. 그 다음에 삼촌, 여기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끈 달다가 한 거? 여기 왜 저고리하면?)

106028 #4 저고릿곰[저고린꼼].(저고리 고름.)

106028 #1 단추, 단추.(단추, 단추.)

106028 @ 그거 무신거마씨?(그거 무엇이에요?)

106028 #4 ᄆᆞ작단추.(매듭단추.)

106028 @ 으, ᄆᆞ작단추도 잇고.(으, 매듭단추도 있고.)

106028 #4 으.(으.)

106028 @ 그 다음에 아까 저고릿곰?(그 다음에 아까 저고리 고름?)

106028 #4 저고릿곰.(저고리 고름.)

106028 @ 저고릿곰 말고 남자 거나 두루마기나 헐 때도 다 그냥.(저고리 고름 말고 남자 거나 두루마기나 할 때도 다 그냥.)

106028 #4 곰.(고름.)

106028 @ 그냥 곰하는 거라예? 곰은 이 오른쪽허고 웬쪽 거 허면 저기?(그냥 고름하는 거네요? 고름은 이 오른쪽하고 왼쪽 거 하면 저기?)

106028 #4 즈른곰, 진곰,(짧은 고름, 긴 고름,)

106028 @ 아, 즈른곰, 진곰예. 어느 쪽이 즈른곰이고 어느 쪽이 진곰 헙니까?(아, 짧은 고름, 긴 고름요. 어느 쪽이 짧은 고름이고 어느 쪽이 긴 고름 합니까?)

106028 #4 영 허민이 이착이.(이렇게 하면 이쪽이.)

106028 @ 옷 멘들당 잊어부런?(옷 만들다가 잊어버렸어?)

106028 #4 잊어부런.(잊어버렸어.)

106028 @ (웃음). 그것도 남자 거허고 여자 거허고 방향이 틋납니까? 고름.((웃음). 그것도 남자 거 하고 여자 거 하고 방향이 다릅니까? 고름.)

106028 #4 이 저 저구린 다 ᄀᆞ뜨는디 이 우리 ᄀᆞ뜬 이 남방은 뜻나.(이 저 저고린 다 같은데 이 우리 같은 이 남방은 달라.)

106028 @ 아, 저구리는 똑ᄀᆞ따예?(아, 저고리는 똑같아요?)

106028 #4 으, 저고린 ᄀᆞ뜨는디 이 남방은 이 남자 건 영허지.(으, 저고린 같은데 이 남방은 이 남자 건 이렇게 하지.)

106028 @ 예, 예, 예. 웬쪽 게 올라오고.(예, 예, 예. 왼쪽 게 올라오고.)

106028 #4 으, 이 여즈 건 이쪽이 올라가고.(으, 이 여자 건 이쪽이 올라가고.)

106028 @ 예, 저구리는 어느 쪽이 올라갑니까?(예, 저고리는 어느 쪽이 올라갑니까?)

106028 #4 아이, 저구린 틋나지 아녀.(아니, 저고린 다르지 않아.)

106028 @ 아, 틋나진 안 허는데 어느 쪽이 위로 올라오는 거?(아, 다르진 안 하는데 어느 쪽이 위로 올라오는 거?)

106028 #4 영헐 테지.(이렇게 할 테지.)

106028 @ 아, 웬쪽이 올라와예? 으, 경 허영은에.(아, 왼쪽이 올라와요? 으, 그렇게 해서.)

106028 #1 아니랏주. 남 좌 여 우로 이제 옷을 만들엇는데, 웃도릴.(아니었지. 남 좌 여 우로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윗도릴.)

106028 @ 예.(예.)

106028 #1 요즘 와서 변허여갖고 이제 다 웬쪽이 이렇게 이 우로 나온 거라.(요즘 와서 변해갖고 이제 다 왼쪽이 이렇게 이 위로 나온 거야.)

106028 @ 예.(예.)

106028 #1 거 왜 이 남 좌 여 우가 나왓는가 허면 이건 남과 여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요것은 웬쪽은 프라스고.(거 왜 이 남 좌 여 우가 나왔는가 하면 이건 남과 여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요것은 왼쪽은 플러스고.)

106028 @ 예.(예.)

106028 #1 쉽게 말허민 그 요즘 뭘로 말허민 오른쪽은 마이나스라.(쉽게 말하면 그 요즘 무엇으로 말하면 오른쪽은 마이너스야.)

106028 @ 예.(예.)

106028 #1 마이나스니깐 여잔 마이나스로 표현한 거고 남잔 프라스로 표현해 가지고 옷을 그.(마이너스니깐 여잔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고 남잔 플러스로 표현해 가지고 옷을 그.)

106028 @ 거꾸로, 달르게예?(거꾸로, 다르게요?)

106028 #1 으, 다르게 만들어난 건데 요즘 와서는 그냥 ᄒᆞ나로 뒈분 거지.(으, 다르게 만들었던 건데 요즘 와서는 그냥 하나로 돼버린 거지.)

106028 #4 이 바지저고리 ᄀᆞ뜬 건 틀리지 아녀. 남자 거나 여자 거나 이거지 이.(이 바지저고리 같은 건 다르지 않아. 남자 거나 여자 거나 이거지.)

106028 @ 예, 예.(예, 예.)

106028 #4 영허는디 이치룩 남방 ᄀᆞ뜬 건 멘들 때엔 여ᄌᆞ 건 영 허곡 남자 건 영 허곡. 게난 남ᄌᆞ 건 대소간 이디가 단추고냥허주게.(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남방 같은 건 만들 때엔 여자 건 이렇게 하고 남자 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남자 건 대소간 여기가 단춧구멍하지.)

106028 @ 예, 예. 웬쪽이.(예, 예. 왼쪽이.)

106028 #4 단초고냥허곡 허민.(단춧구멍하고 하면.)

106028 @ 게난 겹치는 게 양복허고 한복이 ᄄᆞ나구나.(그러니까 겹치는 게 양복하고 한복이 다르구나.)

106028 #4 영 헤근에 단추고냥허민 것에.(이렇게 해서 단춧구멍하면 것에.)

106028 #1 난.(난.)

106028 #4 이것도 이디가 이거 짓이거든.(이것도 여기가 이거 깃이거든.)

106028 @ 예.(예.)

106028 #4 이거 짓이난에 이게 큰섭.(이거 깃이니까 이게 겉섶.)

106028 @ 아, 큰섭, 예.(아, 겉섶, 예.)

106028 #4 큰섭 요건 안썹.(겉섶 요건 안섶.)

106028 @ 예, 안썹, 큰섭 아까예? 안썹. 삼춘 이제 치메, 치메라고 생각헤야쿠다.(예, 안섶, 겉섶 아까요? 안섶. 삼촌 이제 치마, 치마라고 생각해야겠네요.)

106028 #4 치메.(치마.)

106028 @ 치메 영허면 이렇게 생겻잖아예?(치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106028 #4 으.(으.)

106028 @ 이렇게 생겻으면 여기는 허리?(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허리?)

106028 #4 허리.(허리.)

106028 @ 예, 여기에도 끈 영 잇지 아녀우꽈? 치메헐 때.(예, 여기에도 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치마할 때.)

106028 #4 허릿곰.(허리끈.)

106028 @ 허릿곰, 예. 그 다음에 이, 이, 이 여기는 뭐렌 헙니까?(허리끈, 예. 그 다음에 이, 이, 이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6028 #4 그딘 그자 치메폭.(거긴 그저 치마폭.)

106028 @ 이건 전체가 치메폭.(이건 전체가 치마폭.)

106028 #4 으.(으.)

106028 @ 예, 그 다음 이 밑엔마씨?(예, 그 다음 이 밑에는요?)

106028 #4 밑엔 단이엔 안 골아. 엇어.(밑엔 단이라고 안 말해. 없어.)

106028 @ 예, 이긴 엇곡. 여기 영허면 이, 이, 이 옆에는 뭐엔 골아?(예, 여기는 없고. 여기 이렇게 하면 이, 이, 이 옆에는 뭐라고 말해?)

106028 #4 거세기 깍[182].(거세기 '깍'.)

106028 @ 깍.(깍.)

106028 #4 깍치마.(풀치마.)

106028 @ 예.(예.)

106028 #4 깍치마난 이 깍 둘르는 거.(풀치마니까 이 '깍' 두르는 거.)

106028 @ 예.(예.)

106028 #1 깍치마 통치마로구나.(풀치마 통치마로구나.)

106028 @ 예.(예.)

106028 #4 이건 통치마지.(이건 통치마지.)

106028 @ 예, 예, 예, 예, 예. 게니까 깍치메 통치메.(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풀치마 통치마.)

106028 #4 으.(으.)

106028 @ 게난 통치마는 다 줭 입어지는 게 통치마. 깍은?(그러니까 통치마는 다 기워서 입어지는 게 통치마. '깍'은?)

106028 #4 깍은 요새 깍치메 영.('깍'은 요새 풀치마 이렇게.)

106028 @ 옛날 한복 그게 깍치메예? 깍치메도 이제 영 겹치는 게 틋나지 안 헙니까예? 웬쪽으로 헙니까? 오른쪽으로 헙니까?(옛날 한복 그게 풀치마요? 풀치마도 이제 이렇게 겹치는 게 다르지 않나요? 왼쪽으로 합니까? 오른쪽으로 합니까?)

106028 #4 아니, 츠례론 이쪽이 영 둘르는 게.(아니, 차례론 이쪽이 이렇게 두르는 게.)

106028 #1 으.(으.)

106028 #4 거세기 허는디.(거시기 하는데.)

106028 @ 예.(예.)

182) 여기에서 '깍'은 치마 끝의 모서리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106028 #4 요새 젊은 사름은.(요새 젊은 사람은.)
106028 #1 이디게 영 와부러.(여기 이렇게 와버려.)
106028 #4 꺼꾸로 허거든.(거꾸로 하거든.)
106028 @ 으, 오른쪽으로 이렇게 허는 게 겹치는 거구나예? 아아.(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겹치는 거군요? 아아.)
106028 #4 이쪽이 옛날식으로 이쪽이 거세기 허는 거.(이쪽이 옛날식으로 이쪽이 거시기 하는 거.)
106028 #1 건, 음양이 뭣에 의해 가지고.(건, 음양의 뭣에 의해 가지고.)
106028 @ 예.(예.)
106028 #1 만들어 논 건데 요즘 와서 그걸 변화시켜부는 거.(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 와서 그걸 변화시켜버리는 거.)
106028 @ 예.(예.)
106028 #4 경헌 거.(그렇게 한 거.)
106028 @ 경헌 거예? 그 다음에 삼춘 보선?(그렇게 한 거요? 그 다음에 삼촌 버선?)
106028 #4 보선.(버선.)
106028 @ 예. 장깐예, 보선은 이렇게 뒛잖아예?(예. 잠깐요, 버선은 이렇게 됐잖아요?)
106028 #4 으.(으.)
106028 @ 영 뒈신가?(이렇게 됐는가?)
106028 #1 경 뒛다고 헤부러게.(그렇게 되었다고 해버려.)
106028 @ (웃음). 자, 보선하면 이 우에는 뭐우과?((웃음). 자, 버선하면 이 위에는 뭡니까?)
106028 #4 보선 허민 그자 다.(버선 하면 그저 다.)
106028 #1 보선목 그디.(버선목 거기.)
106028 @ 이름?(이름?)
106028 #4 이건 보선목.(이건 버선목.)
106028 @ 여기는?(여기는?)
106028 #4 앞코지[183].(버선코.)
106028 @ 앞코지.(버선코.)
106028 #4 으.(으.)
106028 @ 여기 영 허면?(여기 이렇게 하면?)
106028 #4 저긴 뒤코지[184], 뒤.(저긴 뒤축, 뒤.)
106028 @ 뒤코지, 뒤.(뒤축, 뒤.)
106028 #1 그냥 뒤주.(그냥 뒤지.)

183) 여기에서 '앞코지'는 버선코를 가리키는 말이다.
184) 여기에서 '뒤코지'는 버선의 뒤축을 가리키는 '뒤치기'를 제보자가 잘못 말한 것이다.

106028 @ 아, 그냥 뒤. 그 다음에 영 허면 영 신으믄 여기는 뭐렌 헙니까? 여기가.(아, 그냥 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으면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106028 #4 뒤치기.(뒤축.)

106028 @ 으, 보선도 뒤치기렌 헙니까? 게면 여기 뒤가 뒤치기로구나예, 예?(으, 버선도 뒤축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 뒤가 뒤축이군요, 예?)

106028 #4 응, 뒤치기.(응, 뒤축.)

106028 @ 여기는 앞코지?(여기는 버선코?)

106028 #4 그딘 앞코지.(거긴 버선코.)

106028 @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렌 헙니까?(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106028 #4 이딘 보선 수눅.(여긴 버선 수눅.)

106028 #1 으, 맞아.(으, 맞아.)

106028 @ 수눅, 수눅을 영 마주보게 신잖아예? 신을 때 앞 뒤. 보선수눅. 또 다른 이름 이신가마씨? 이런 밑에 이런 거 이신가?(수눅, 수눅을 이렇게 마주보게 신잖아요? 신을 때 앞 뒤. 버선 수눅. 또 다른 이름 있을까요? 이런 밑에 이런 거 있을까?)

106028 #4 밑엔 엇어.(밑에는 없어.)

106028 @ 게민 양말허면 여기는 뭐렌 헙니까? 보선, 보선창?(그러면 양말하면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버선, 버선 바닥?)

106028 #4 보선창?(버선 바닥?)

106028 @ 그런 말은 안 써마씨?(그런 말은 안 써요?)

106028 #1 그냥 줄 때엔 욜로 요 새엔 받는 거.(그냥 기울 때엔 요리로 요 사이에는 받는 거.)

106028 #4 건 볼 받는 거.(건 볼 받는 거.)

106028 #1 건 볼 받는 거.(건 볼 받는 거.)

106028 @ 아, 볼 받는 거? 으.(아, 볼 받는 거? 으.)

106028 #4 볼 받는 거.(볼 받는 거.)

106028 #1 건 요렇게.(건 요렇게.)

106028 @ 여기예?(여기요?)

106028 #1 그걸 이렇게 가는 거주.(그걸 이렇게 가는 거지.)

106028 @ 아, 이 뚠 헝겊으로 헤갖고 저기 허니까?(아, 이 다른 헝겊으로 해갖고 저기 하니까?)

106028 #4 볼 받는 거.(볼 받는 거.)

106028 @ 어, 볼 받는 거예? 예, 예, 예. 이렇게 헹은에 얘기를 하믄 뒈고. 옛날 단추들은 어떤 종류들이 잇어낫수가?(어, 볼 받는 거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 옛날 단추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106028 #4 ᄆᆞ작단추.(매듭단추.)

106028 @ 예, ᄆᆞ작단추. ᄆᆞ, ᄆᆞ작단추 옛날 그 적삼허거나 허면 다 ᄆᆞ작단추로 헌 거고예?(예, 매듭단추. 매, 매듭단추 옛날 그 적삼하거나 하면 다 매듭단추로 한 거고요?)

106028 #4 으.(으.)

106028 @ ᄆᆞ작단추 이제 끗나부난 요즘 같은 이런 단추 나온 거라마씨? 요런 단추는 이름 뭐 헙니까?(매듭단추 이제 끝나버리니까 요즘 같은 이런 단추 나온 거예요? 요런 단추는 이름 뭐 합니까?)

106028 #4 이런 거?(이런 거?)

106028 @ 예.(예.)

106028 #1 이건 스납. 일본 말은 스납쁘.(이건 스냅. 일본 말은 '스납브'.)

106028 #4 이건 스납쁜 일본말이주.(이건 '스납쁜' 일본말이지.)

106028 #1 예.(예.)

106028 @ 예, 예. 맞수다. 우리는 다 옛날에는 ᄆᆞ작단추라고 헌 거라예?(예,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옛날에는 매듭단추라고 한 거네요?)

106028 #1 우리말론 저거 굴을 수가 엇는 거. 이름이.(우리말론 저거 말할 수가 없는 거. 이름이.)

106028 @ 단추.(단추.)

106028 #1 김치가 웨국에 가도 김치옝 허듯이.(김치가 외국에 가도 김치라고 하듯이.)

106028 @ 맞수다.(맞습니다.)

106028 #1 이건 스납쁘. 어디 가도.(이건 스냅. 어디 가도.)

106028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28 #4 이건 스납쁘 허는 거, 건 일본말.(이건 스냅 하는 거, 건 일본말.)

106028 @ 예, 맞수다. 삼춘, ᄆᆞ작단추도 묻아봅디가?(예, 맞습니다. 삼촌, 매듭단추도 맺어봤습니까?)

106028 #4 으.(으.)

106028 @ 으, 거는 어떤 식으로 헨에 묻이는 거우과? ᄆᆞ작단추 허면은.(으,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맺는 겁니까? 매듭단추 하면은.)

106028 #1 나, 잊어부러수다, 그거.(나,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106028 @ 아, 삼춘 헤낫구나?(아, 삼촌 했었군요?)

106028 #4 광목, 광목 허여근에 이치룩 줍앙.(광목, 광목 해서 이처럼 집어서.)

106028 @ 예.(예.)

106028 #4 줍아근에 이녁냥으로.(집어서 이녁대로.)

106028 @ 으.(으.)

106028 #4 나 베와 안네난.(나 배워 드리니까.)

106028 @ 게믄 그거 바농질 다 헤여마씨? 줍은 거.(그러면 그거 바느질 다 해

요? 집는 거.)

106028 #4 즙앙, ᄆᆞ작만추 멘들민.(집어서, 매듭만추 만들면.)

106028 @ 음.(음.)

106028 #4 요만인허게 끊어내영.(요만큼하게 끊어내어서.)

106028 @ 예.(예.)

106028 #4 허주게.(하지.)

106028 @ 예, 게믄 ᄆᆞ작단추는 허면은 이렇게 곰이 잇어야 뒈는 거 아니라예? 것도 일름 잇어마씨?(예, 그러면 매듭단추는 하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것도 이름 있어요?)

106028 #4 ᄆᆞ작단추 허민 그냥.(매듭단추 하면 그냥.)

106028 #1 몾아지쿠광?(맺어지겠습니까?)

106028 @ 아, (웃음).(아, (웃음).)

106028 #4 잊어불지 아녀신가?(잊어버리지 않았는가?)

106028 @ 으.(으.)

106028 #1 아, 잊어부런 그만.(아, 잊어버려서 그만.)

106028 @ 손으로 헹은에.(손으로 해서.)

106028 @ 삼춘 다시 헤봅서? 새로. <ᄆᆞ작단추 시연>(삼촌 다시 해보세요? 새로. <ᄆᆞ작단추 시연>)

106028 #1 새로.(새로.)

106028 #4 (웃음).

106028 @ 저것도 다 손에 익으니까 헤지는 거주, 어.(저것도 다 손에 익으니까 해지는 거지, 어.)

106028 #1 무시거 매뒤[185]가 ᄆᆞ작인디 매뒤 무시거옌 ᄀᆞᆫ나마는 요새.(무엇 '매뒤'가 '매뒤'인데 '매뒤' 무엇이라고 말한다만 요새.)

106028 @ 매듭.(매듭.)

106028 #1 매듭.(매듭.)

106028 @ 매듭. 아, 이거 옛날 손 하나만 있으면 못허는 게 없어예?(매듭. 아, 이거 옛날 손 하나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네요?)

106028 #1 게난, 유건, 유건 같은 것도 아무나 못 만들주게.(그러니까, 유건, 유건 같은 것도 아무나 못 만들지.)

106028 @ 예.(예.)

106028 #1 나 저 조천 함덕서 유건 만드는 사름 없어가지고.(나 저 조천 함덕서 유건 만드는 사람 없어가지고.)

106028 @ 예.(예.)

106028 #1 나 함덕 간 유건 만들언 양촌 만들어서.(나 함덕 가서 유건 만들어서 양촌 만들어서.)

185) '매뒤'는 제보자가 '매듭'을 말하려고 하면서 한 말이다.

106028 @ 제 지내젠 허민 유건을 써야 잖아예?(제 지내려고 하면 유건을 써야 잖아요?)

106028 #1 지금은 픈는 거 잇어놓난.(지금은 파는 거 있어놓으니까.)

106028 @ 음.(음.)

106028 #1 거 다 그것사 사오민 뒈는 거고.(거 다 그것이야 사오면 되는 거고.)

106028 @ 예.(예.)

106028 #1 둥기믄 술술 들어가얄 헐 건디 말을 안 들언.(당기면 살살 들어가야 할 건데 말을 안 들어서.)

106028 @ 이게 저기 통통 헤부니까 닮다예.(이게 저기 통통 해버리니까 같네요.)

106028 #1 처음부터 너무 둥겨부런.(처음부터 너무 당겨버렸어.)

106028 @ 음.(음.)

106028 #1 이 한걸허게[186] 헤놩 제우민 뒈는디.(이 한가하게 해놓아서 조이면 되는데.)

106028 @ 예, 잘도 곱다게, 예.(예, 잘도 곱네요, 예.)

106028 #1 으. 이젠 막 마무리헤가는디.(으. 이젠 막 마무리해가는데.)

106028 @ 어어, 완성.(어어, 완성.)

106028 #4 (웃음).

106028 @ 영 헤여 봅서. 잡아봅서, 삼춘이. 아이고, 음, 음, 예. 뒛습니다.(이렇게 해 보세요. 잡아보세요, 삼촌이. 아이고, 음, 음, 예. 됐습니다.)

106028 #1 뒈연. 뒛젠 헴수다.(되었어. 되었다고 합니다.)

106028 #4 이이이. (웃음).(이이이. (웃음).)

106028 @ 자 이런 식으로 헤갖고 이제 만들고예?(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만들고요?)

106028 #4 으.(으.)

재단과 염색

106030 @ 옛날 그 옷감 상오면 옷감 손질은 어떤 식을 헨마씨?(옛날 그 옷감 사오면 옷감 손질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106030 #4 어떤.(어떤.)

106030 @ 짓쳇미녕 오면 그걸로 옷을 못 만들지 아념니까?('깃무명' 오면 그걸로 옷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106030 #4 무사 만들어.(왜 만들어.)

106030 @ 만들아예?(만들어요?)

106030 #4 ᄒᆞ꼼 크게 만들지이. 조끔.(조금 크게 만들지. 조금.)

106030 @ 아아.(아아.)

186) 여기에서 '한걸허게'는 여유롭게의 의미로 쓰였다.

106030 #4 뻔 거보다는.(빤 거보다는.)

106030 @ 아아, 그 다음 광목보다는 옷을 크게 헤예? 나중에.(아아, 그 다음 광목보다는 옷을 크게 해요? 나중에.)

106030 #4 광목도 시방은 지찻광목은 졸아들어.(광목도 시방은 깃광목은 줄어들어.)

106030 @ 음.(음.)

106030 #4 뺄민.(빨면.)

106030 @ 아아.(아아.)

106030 #4 경 허니까 ᄒᆞ꼼 크게 헤둬야 제대로 뒈지.(그렇게 하니까 조금 크게 해둬야 제대로 되지.)

106030 @ 음, 게민 뺄아가면 뺄아가면 이제 하양헤지켜예?(음, 그러면 빨아가면 빨아가면 이제 하애지겠네요?)

106030 #4 으, 헤양허지.(으, 하얗지.)

106030 @ 으.(으.)

106030 #4 경허난.(그렇게 하니까.)

106030 #1 양복집의선 걸 지누시엔 허는디.(양복집에선 걸 '지누시'라고 하는데.)

106030 @ 예.(예.)

106030 #1 물에 담그는 걸.(물에 담그는 걸.)

106030 @ 예.(예.)

106030 #1 이제 그치록 헤놩 이제 그 데림, 다림질 헤영은에 만들면 줄어들지 안허고.(이제 그처럼 해놓아서 이제 그 다림, 다림질 해서 만들면 줄어들지 안하고.)

106030 @ 예.(예.)

106030 #1 이제 그대로 만든 건.(이제 그대로 만든 건.)

106030 #4 졸아들지.(줄어들지.)

106030 #4 어떤 기지[187]든지.(어떤 천이든지.)

106030 @ 졸아들어부러예?(줄어들어버려요?)

106030 #1 응, 다. 어떤 옷감이든지 다 줄어들어.(응, 다. 어떤 옷감이든지 다 줄어들어.)

106030 @ 예.(예.)

106030 #4 요새 지찻광목은 이 정돈 졸아들어.(요새 깃광목은 이 정돈 줄어들어.)

106030 @1 오 센치 이상을.(오 센티미터 이상을.)

106030 #4 길이가.(길이가.)

106030 @ 예.(예.)

106030 #4 치멧길이 헹 놔두민 싹 졸아들지.(치마 길이 해서 놔두면 싹 줄어들

187) '기지(きじ)'는 '천'을 가리키는 일본어다.

지.)

106030 @ 우리가 가끔 옷 상은은 뿔아불민 확 졸아드는 건 짓차로 그냥 헤부니까구나예? 손질덜 아녕예?(우리가 가끔 옷 사서 빨아버리면 확 줄어드는 건 깃째로 그냥 해버리니까군요? 손질들 않아서요?)

106030 #4 손질 안허영 물 적져근에 ᄀᆞ만이 물만 적져근에 그자 꼭꼭 누르떵 ᄆᆞᆯ류와근에 허는 건 덜 졸아들지.(손질 안해서 물 적셔서 가만히 물만 적셔서 그저 꼭꼭 눌러서 말려서 하는 건 덜 줄어들지.)

106030 @ 거난 이제 만약에 손질허젠 허면 광목이나 미녕이나 물에 담갓당 허는 거구나예?(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손질하려고 하면 광목이나 무명이나 물에 담갔다가 하는 거군요?)

106030 #4 경허난 제대로 멘들젠 허민 이거 뿔아근에 풀을 헤영 아져옵셍을 허나.(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이거 빨아서 풀을 해서 가져오십사고를 하나.)

106030 @ 으음.(으음.)

106030 #4 무시거 허민 안 졸아들고.(무엇 하면 안 줄어들고.)

106030 @ 예에.(예에.)

106030 #4 경 허영 짓차 허민 졸아들어.(그렇게 해서 깃째 하면 줄어들어.)

106030 @ 음, 경허면 이제 나중에 무사 줄어들엇수강? 이렇게 항의허기도 허는구나. 옷예, 미리 다 뿔앙은에 무사 풀을 헤영 오렌 허는 거우과?(음,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는군요. 옷요, 미리 다 빨아서는 왜 풀을 해서 오라고 하는 겁니까?)

106030 #4 풀을 헤사 그 고골고골헌 걸 쪼끔 페와지지.(풀을 해야 그 고불고골불한 걸 조금 펴지지.)

106030 @ 어, 옷 만들 때?(어, 옷 만들 때?)

106030 #4 으, 옷 만들 때.(으, 옷 만들 때.)

106030 @ 으음.(으음.)

106030 #4 경 안허민 조골조골헤불민.(그렇게 안하면 조글조글해버리면.)

106030 #1 경 안허민 그게 전부 츰 그 옛날 이딧 말로 다리웨질을 해야 뒐 건디.(그렇게 안하면 그게 전부 참 그 옛날 여기 말로 다림질을 해야 될 건데.)

106030 @ 예.(예.)

106030 #1 다리웨질을 헤얄 건디 그건 절약허는 거지, 즉 말허민.(다림질을 해야할 건데 그건 절약하는 거지, 즉 말하면.)

106031 @ 예, 예. 맞수다. 예, 예. 옷도 저기 아까 이불 헐 때도 염색헷덴 헷잖아예? 여기는 염색허는 거를 뭐 헌덴 헙니까?(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옷도 저기 아까 이불 할 때도 염색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염색하는 거를 뭐 한다고 합니까?)

106031 #4 물들이는 거.(물들이는 거.)

106031 @ 물들이는 거를 물ᄀᆞ음렌 헙니까? 뭘로 물들여낫수가? 옛날에.(물들이는 거를 '물ᄀᆞ음'이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물들였습니까? 옛날에.)

106031 #4 물을 사당 들여 부난 난 몰르지.(물을 사다가 들여 버리니까 난 모르지.)

106030 @ 음.(음.)

106030 #4 그 색색이 물은 사다근에 검은 물이민 검은 물을 들이민 허곡, 또 붉은 물 들이는 거 붉은 물 들이곡 경허여.(그 색색이 물은 사다가 검정 물이면 검정 물을 들이면 하고, 또 붉은 물 들이는 거 붉은 물 들이고 그렇게 해.)

106031 @ 집에서 저 염색허는 염료들은 엇어난마씨? 집에서 허는 거는?(집에서 저 염색하는 염료들은 없었어요? 집에서 하는 거는?)

106031 #4 집의서 허는 건 엇어낫주게.(집에서 하는 건 없었었지.)

106031 #1 노란 거 치지.(노란 거 치자.)

106031 @ 치지로 헤엥은 헤봣수가? 삼촌도.(치자로 해서는 해봤습니까? 삼촌도.)

106031 #4 아니.(아니.)

106031 @ 치지로 하고. 아까 감물 들이는 거?(치지로 하고. 아까 감물 들이는 거?)

106031 #4 감물 들이는 건 감 타다근에 딱딱 ᄲᆟ앙 건 젭질아근에 그 이 영 페와놔근에 그 물 놩.(감물 들이는 건 감 따다가 딱딱 마서 건 짜서 그 이 이렇게 펴 놓아서 그 물 넣어서.)

106031 @ 음.(음.)

106031 #4 잘 젓어근에.(잘 저어서.)

106031 #1 어제, 어제어제 간 들으난 요새 전시 끗낫젠 허멍 전시에 도련 할머니들 멧 분이 나완 어제 끗낫젠 헤냐.(어제, 어제어제 가서 들으니까 요새 전시 끝났다고 하면서 전시에 도련 할머니들 몇 분이 나와서 어제 끝났다고 하던가.)

106031 @ 어디서 헹은에?(어디서 해서?)

106031 #4 옛날, 옛날.(옛날, 옛날.)

106031 #1 옛날 헌 거 어제 어디서 어디서 헌 셍이라.(옛날 한 거 어제 어디서 어디서 한 모양이야.)

106031 #4 ᄒᆞᆫ 십오, 이십 년 뒈엇일 거라.(한 십오, 이십 년 되었을 거야.)

106031 @ 예.(예.)

106031 #4 그때에게 어디서 남ᄌᆞ 그때에 원 싯산디 오란에 할머니네 감 멕이는 거 알아지쿠광? 허관데 감 멕이는 것사 알주게. 영허난 감 멕이는 거 ᄒᆞᆫ번 헤봅서?(그때에 어디서 남자 그때에 아 셋인지 와서 "할머니네 감 먹이는 거 알겠습니까?" 하니까 "감 먹이는 것이야 알지." 이렇게 하니까 "감 먹이는 거 한번 해보세요?")

106031 @ 음.(음.)

106031 #4 이젠 감 타단 ᄲᆟ안 저 그 기지 놘에 이젠 뭉갠 탁탁 털어둰 이젠 널

언 이젠 그거 ᄆᆞᆯ라가난 또 손 봐야 반듯허지.(이젠 감 따가가 빻아서 저 그 천 놓아서 이젠 뭉개서 탁탁 털어두고 이젠 널어서 이젠 그거 말라가니까 또 손 봐야 반듯하지.)

106031 @ 음.(음.)

106031 #4 그치룩 헤연 허엿는데 누게 경 사진 찍어간 중 알앗어?(그처럼 해서 했는데 누구 그렇게 사진 찍어간 줄 알았어?)

106031 #1 (웃음).

106031 #4 ᄒᆞᆫ번은 저 큰아덜에 손지가 서울서 완, “할머니, 어떠난 할머니가 서울 사진 부쪄져선게?” 허관뒈, “무신 사진?” 영허난 “할머니 요새 갈옷 입엉 사진 찍은 거?” 경허난 그때 상충이 어멍에 종철이 어멍에 양초 어멍에 나에 허난에.(한번은 저 큰아들에 손자가 서울서 와서 “할머니, 어떠니까 할머니가 서울 사진 붙였던데?” 하니까, “무슨 사진?”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요새 갈옷 입어서 사진 찍은 거?” 그렇게 하니까 그때 상충이 어머니에 종철이 어머니에 양초 어머니에 나에 하니까.)

106031 #1 양초 어머니 산 때랏구나게.(양초 어머니 산 때였군요.)

106031 #4 산 때에. 그치룩허영 멧 해 엇엉 할망 죽어수다게. 경 헤연 허난 헤신게, 아, 요 ᄒᆞᆫ번인 뚤이 이 저 휴대폰에 찍어 아산 왓어. 저.(산 때에. 그처럼해서 몇 해 없어서 할머니 죽었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했네, 아, 요 한번은 딸이 이 저 휴대폰에 찍어 가지고 왔어. 저.)

106031 @ 예, 예, 예.(예, 예, 예.)

106031 #4 간 보난에 사진이 잇언, ‘어떠난 우리 어멍 사진이 저디 이신고’ 허연 찍어아젼 오고렌 허관데 “아이고야, 이거 멧 해고?” 우리 저 집 짓기 전에난에 아주 이십년 전에로구나게.(가서 보니깐 사진이 있어서, ‘어떡하니까 우리 어머니 사진이 저기 있는가’ 해서 찍어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몇 해니?” 우리 저 집 짓기 전이니까 아주 이십년 전이로구나.)

106031 #1 멧 천 련 갑니다. 그건.(웃음).(몇 천 년 갑니다. 그건.(웃음).)

106031 #4 ᄋᆞ름이난 모저덜 쓰고. 밀낭모ᄌᆞ. 난 새 갈옷을 입어졋고. 상충이 어멍넨.(여름이니까 모자들 쓰고. 밀짚모자. 난 새 갈옷을 입어졌고. 상충이 어머니네는.)

106031 #1 묵은 거.(묵은 거.)

106031 #4 묵은 거 그냥.(묵은 거 그냥.)

106031 #4 갈옷도 깨끗이 입어사.(갈옷도 깨끗이 입어야.)

(잡담)

106031 #4 종철이 어멍이나 상충이 어멍은 양초 어멍은 보난 우의 흰 건 아래난 우알로 갈옷을 입엇고. 그땐 나가 ᄒᆞᆫ 육십벳긔 안 난 때난 ᄒᆞ꼼 젊엇주게.(웃음).(종철이 어머니나 상충이 어머니는 양초 어머니는 보니까 위에 흰 건 아래니까 위아래로 갈옷을 입었고. 그땐 내가 한 육십밖에 안 될 때니까 조금 젊었지.(웃음).)

106031 @ 옷 허니까 새 걸 혜영 입어실 테주. 삼촌?(옷 하니까 새 걸 해서 입었을 테지. 삼촌?)

106031 #4 새 걸, 새 걸로 우알로 다른 사름은 그냥 묵은 거 이 갈옷도.(새 걸, 새 걸로 위아래로 다른 사람은 그냥 묵은 거 이 갈옷도.)

106031 @ 예.(예.)

106031 #4 고운 물에 뿔민 이 헐어 가는 게 보영허는디.(고운 물에 빨면 이 헐어 가는 게 부연데.)

106031 @ 아아.(아아.)

106031 #4 물 궂이게 뿔앙은 거물거물거물거물 갈옷 고운 물에 뿔아야.(물 궂게 빨아서는 거물거물거물거물 갈옷 고운 물에 빨아야.)

106031 #1 깨끗허게. 좀 더럽게 입지 말아야 허곡.(깨끗하게. 좀 더럽게 입지 말아야 하고.)

106031 @ 예.(예.)

106031 #1 그래야 곱지.(그래야 곱지.)

106031 #4 우린 옛날 갈옷 입어가민 춤 이 색깔 나지게. 보영케 허는디. 그 막 발래여근에 그냥 너무 발랜 거 오래 입어가가민 바로 춤 시커멍허여.(우린 옛날 갈옷 입어가면 참 이 색깔 나지. 보옇게 하는데. 그 막 바래서 그냥 너무 바랜 거 오래 입어가면 바로 참 시커매.)

106031 @ 예, 그 밧듸 강 일허고 영허고.(예, 그 밭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고.)

106031 #4 뜸 부뜨민 즉시 뿔아불어사 허지 그냥.(땀 붙으면 즉시 빨아버려야 하지 그냥.)

106031 #1 그냥 시커매.(그냥 시커매.)

106031 @ 예, 예. 맞수다.(예, 예. 맞습니다.)

106031 #4 이 색깔 뒈여.(이 색깔 되어.)

신발

106032 @ 예, 맞수다. 이젠 신 종류예? 옛날에, 신은 어떤 신들 잇어신고예?(예, 맞습니다. 이젠 신 종류요? 옛날에, 신은 어떤 신들 있었는가요?)

106032 #4 초신.(짚신.)

106032 @ 예.(예.)

106032 #4 창신.(가죽신.)

106032 @ 예.(예.)

106032 #4 고무신.(고무신.)

106032 @ 예.(예.)

106032 #1 남신.(나막신.)

106032 #4 남신 춤. 이디 남신도 기려져선게.(나막신 참. 여기 나막도 그려졌던

데.)
106032 @ 예, 예. 게난 초신은?(예, 예. 그러니까 짚신은?)
106032 #4 이 찝으로 만든 건 초신?(이 짚으로 만든 건 짚신?)
106033 @ 예, 남신은?(예, 나막신은?)
106033 # 남신은 낭으로 멘든 거.(나막신은 나무로 만든 거.)
106033 @ 창신은?(가죽신은?)
106033 #4 창신은 옛날은 그 선비덜.(가죽신은 옛날은 그 선비들.)
106033 #1 가죽으로.(가죽으로.)
106033 #4 가죽으로 멘든 거지이, 창신 경 헤연.(가죽으로 만든 거지, '창신' 그렇게 했어.)
106033 @ 아아.(아아.)
106033 #1 옛날 구두주. 옛날.(옛날 구두지. 옛날.)
106033 @ 예, 창신이?(예, '창신'이?)
106033 @ 예에.(예에.)
106033 #4 으. 옛날 구둡주.(으. 옛날 구두지요.)
106033 @ 가죽으로 만든 거라예? 게믄 이제 그 신도 남자들 신는 신허고 여자들 씨집갈 때도 신지 안 헙니까예?(가죽으로 만든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신도 남자들 신는 신하고 여자들 시집갈 때도 신지 안 합니까요?)
106033 #4 시집갈 때도 신어도.(시집갈 때도 신어도.)
106033 @ 그거는 어떤 거 신엇수가? 시집갈 때는. 거는 창신이렌 안 헙니까? 여자 거는?(그거는 어떤 거 신었습니까? 시집갈 때는. 거는 '창신'이라고 안 합니까? 여자 거는?)
106033 #4 창신 헤영 신지는 사름이 멧이나 허여?(가죽신 해서 신기는 사람이 몇이나 해?)
106033 @ 아, 삼춘도 씨집갈 땐 무슨 거 신언 가수가?(아, 삼촌도 시집갈 땐 무슨 거 신어서 갔습니까?)
106033 #4 우리 씨집갈 땐 고무신벳긔 안 신엇어.(우리 시집갈 땐 고무신밖에 안 신었어.)
106033 @ 고무신?(고무신?)
106033 #4 그땐 고무신도 어려운 때라.(그땐 고무신도 어려운 때야.)
106033 @ 예.(예.)
106033 #4 저 흰 고무신 그때 낫단 기여들어갈 때난 검은 고무신 나서. 겨난 우리 큰아버지가 이치룩 헌 찝신을 잘 멘들아낫수다. 곱게.(저 흰 고무신 그때 나왔다가 기어들어갈 때니까 검은 고무신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이처럼 한 짚신을 잘 만들었습니다. 곱게.)
106033 @ 으.(으.)
106033 #4 그냥 춤 창신이나 바로엇이 곱게 멘들안 허난.(그냥 참 가죽신이나

진배없이 곱게 만들어서 하니까.)

106033 #1 이 노란 걸로 헹근에게.(이 노란 걸로 해서.)

106033 #4 예, 속지로 허영 감곡.(예, 속지로 해서 감고.)

106033 #1 예, 예.(예, 예.)

106033 #4 저 춤 이 깍이 홁은 씰껍보단 ᄒᆞ꼼 훅게 헤영 노랑케 헤연 우린 큰아바지가 그걸 삼아줜에.(저 참 이 총이 굵은 실올보단 조금 굵게 해서 노랗게 해서 우린 큰아버지가 그걸 삼아줘서.)

106033 #1 신엉 뎅겻구나예?(신어서 다녔군요?)

106033 #4 신언 뎅겨낫어.(신어서 다녔었어.)

106033 @ 음, 기구나예?(음, 그렇군요?)

106033 #4 으.(으.)

106035 @ 혹시 초신 멘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쳥은에 멘드는 거 알아져마씨?(혹시 짚신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 알겠어요?)

106035 #4 그걸 어떵 알아.(그걸 어떻게 알아.)

106035 @ 그걸 어떵 알아예? 자 여기 보게예? 이 부분은 뭐렌 헙니까? 이 여기.(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봐요? 이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이 여기.)

106035 #1 창.(바닥.)

106035 @ 이건 창. 이거는?(이건 바닥. 이거는?)

106035 #4 요건 깍.(요건 총.)

106035 @ 어느 게 깍?(어느 게 총?)

106035 #4 이, 이, 이, 줄기.(이, 이, 이, 줄기.)

106035 @ 이거 이렇게 뒌 거?(이거 이렇게 된 거?)

106035 #1 으으.(으으.)

106035 @ 여기가 깍.(여기가 총.)

106035 #4 깍. 이딘 뒤치기.(총. 여긴 뒤축.)

106035 @ 이거는 뒤치기? 예.(이거는 뒤축? 예.)

106035 #4 이것ᄀᆞ라 무시거옌사 ᄀᆞᆯ아나신디.(이것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었는지.)

106035 #1 그거 ᄀᆞᆯ아난 건 몰르키여.(그거 말했던 건 모르겠어.)

106035 #4 잊어부런.(잊어버려서.)

106035 @ 그 요디는마씨? 여기, 여기.(그 여기는요? 여기, 여기.)

106035 #4 이건 신ᄃᆞᆯ매는[188] 거.(이건 들메끈은 거.)

106035 @ 이건 신ᄃᆞᆯ매우과?(이건 들메끈입니까?)

106035 #4 으.(으.)

106035 #1 신ᄃᆞᆯ.(들메.)

106035 #4 신ᄃᆞᆯ매는 거.(들메끈은 거.)

---

188) '신 ᄃᆞᆯ매'는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신을 발에다 동여매는 끈이다. 표준어 '들메끈'에 해당하는 말이다. 북한에서는 제주어 '신ᄃᆞᆯ메'와 비슷한 '신들메'라고 한다.

106035 @ 예예. 신돌매는 거.(예예. 들메끈은 거.)
106035 #1 신돌매는 거 여기 끈 허영은에 무끄는 거.(들메끈은 거 여기 끈 해서 묶는 거.)
106035 #4 무끄는 거.(묶는 거.)
106035 @ 예, 예, 예. 신돌메예.(예, 예, 예. 들메끈요.)
106035 #1 신돌매는 거, 메는 거.(들메끈은 거, 매는 거.)
106035 @ 신돌메는 거?(들메끈은 거?)
106035 #4 이것ᄀᆞ란?(이것보고는?)
106035 #1 멘들아낫주마는.(만들었지만.)
106035 #4 신깍이옌.(신총이라고.)
106035 #1 신깍은 이거마씨.(신총은 이거요.)
106035 @ 이 앞에는?(이 앞에는?)
106035 #1 앞에 벨도로 뭐가 없어.(앞에 별도로 뭐가 없어.)
106035 @ 이 두에는?(이 뒤에는?)
106035 #4 뒤치기.(뒤축.)
106033 @ 그냥 뒤치기만 허고. 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게예. 아까 가죽신도 어디 보여라마는.(그냥 뒤축만 하고. 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게요. 아까 가죽신도 어디 보여라만.)
106033 #1 어디 보연게.(어디 보이던데.)
106033 @ 이건 무신 신이우과? 이게 창신?(이건 무슨 신입니까? 이게 가죽신?)
106033 #4 이게 창신 아니우과?(이게 가죽신 아닙니까?)
106033 @ 가막창신. 검정 거니까. 창신. 이것도 이름 이신가마씨?('가막창신'. 검정 거니까. 가죽신. 이것도 이름 있는가요?)
106033 #1 아니, 창신이옌만 불러놓난 건 무슨.(아니, '창신'이라고만 불러놓으니까 건 무슨.)
106033 @ 예.(예.)
106033 #4 일름 엇일 거라.(이름 없을 거야.)
106033 @ 예, 창신.(예, 가죽신.)
106033 #1 이건 가죽신.(이건 가죽신.)
106033 #4 이건 가죽으로 초신 멘들 듯 멘든 거.(이건 가죽으로 짚신 만들 듯 만든 거.)
106033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33 #1 아랜 이건 자동차 바퀴.(아랜 이건 자동차 바퀴.)
106033 @ 아, 그걸로예?(아, 그것으로요?)
106033 #1 ᄌᆞ동차 바퀴.(자동차 바퀴.)
106033 @ 여기 국쉬신이렌 헤신게.(여기 '국쉬신'이라고 했는데.)
106033 #1 국쉬신?(웃음)('국쉬신'?(웃음).)

106033 @ 옛날 자동차 바퀴. 꼭 무신거치록. 요즘 우리 샌달 모냥으로 헤신게예. 이거는 뭐우과?(옛날 자동차 바퀴. 꼭 무엇처럼. 요즘 우리 샌들 모양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106033 #1 이것도 창신일 거.(이것도 가죽신일 거.)

106033 #4 이거, 창, 창신에 이거.(이거, 가, 가죽신에 이거.)

106033 @ 보선? 훼?('보선'? 당혜?)

106033 #1 훼, 이것도 창신. 진 신 저건.(당혜, 이것도 가죽신. 긴 신 저건.)

106033 @ 음, 이렇게 가죽으로 헤연 멘들어신게예?(음, 이렇게 가죽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106034 #4 남신.(나막신.)

106034 @ 남신.(나막신.)

106034 #4 낭으로 만든 거.(나무로 만든 거.)

106034 @ 낭은 어떤 낭으로 주로 만들어신고예? 남신은?(나무는 어떤 나무로 주로 만들었는가요? 나막신은?)

106034 #4 몰라. 어떤 낭으로사.(몰라. 어떤 나무로야.)

106034 #1 종낭이나 그 무슨 저 폭낭이나.(때죽나무나 그 무슨 저 팽나무나.)

106034 #4 이건 소낭으론 안 멘들아실 거라.(이건 소나무로는 안 만들었을 거야.)

106034 @ 예, 소낭으로 안 하고예? 삼춘. 가벼운 거로?(예, 소나무로 안 하고요? 삼촌. 가벼운 거로?)

106034 #4 이것ᄀᆞ란 남신이옌 허주게.(이것보고 나막신이라고 하지.)

106034 @ 예. 남신은 언제 썻수가?(예. 나막신은 언제 썼습니까?)

106034 #1 비온 날.(비온 날.)

106034 #4 비온 때에 신어낫주.(비온 때에 신었었지.)

106036 @ 예, 비올 때에예. 그 초신도 종류가 뚜난가마씨? 불르는 게?(예, 비올 때에요. 그 짚신도 종류가 다른가요? 부르는 게?)

106036 #1 아니.(아니.)

106036 #4 엇어.(없어.)

106036 @ 뭐 세깍신이여 무슨 이런 말 안 들어봅디가?(뭐 '세깍신'이다 무슨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106036 #1 붙깍신, 붙깍신.(제총박이, 제총박이.)

106036 @ 아, 붙깍신?(아, 제총박이?)

106036 #1 건 붙깍신허고 이제 깍신[189]허고.(건 제총박이하고 이제 '깍신'허고.)

106036 @ 예.(예.)

106036 #1 두 가지로.(두 가지로.)

106036 @ 으으.(으으.)

189) 여기에서 '깍신'은 총을 따로 내서 결은 짚신인 '딴총박이' 의미로 쓰였다.

106036 #1 붙깍은 이거 짜 가멍 그냥 그 깍을 부찌, 멘들아부는 거고.(제총박이는 이거 짜 가면서 그냥 그 총을 붙이, 만들어버리는 거고.)

106036 @ 예.(예.)

106036 #1 저 깍신은 깍을 만들어놩 그걸 ᄒᆞ나ᄒᆞ나 부찌멍 나가는 거고.(저 딴총박이는 총을 만들어놓아서 그걸 하나하나 붙이면서 나가는 거고.)

106036 @ 아까, 깍 이렇게 옆에 영 영 헌 거예?(아까, 총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렇게 한 거요?)

106036 #1 이걸 깍인디.(이걸 총인데.)

106036 @ 깍이라고 허는데.(총이라고 하는데.)

106036 #1 홈치 줄아가멍 신은 삼아가멍 이 깍을 만들엉근에 그레 꾸불려가멍 그냥 ᄌᆞ는, 저 삼는 게 잇고.(한꺼번에 결어가면서 신은 삼아가면서 이 총을 만들어서 그리로 꾸부려가면서 그냥 겯는, 저 삼는 게 있고.)

106036 @ 예.(예.)

106036 #1 요건 저.(요건 저.)

106036 @ ᄐᆞ로 헤갖고.(따로 해갖고.)

106036 #1 ᄯᆞ로 멘들앙근엥에 깍신 저 붙깍신.(따로 만들어서 딴총박이 저 제총박이.)

106036 @ 예, 깍신, 붙깍신 허잖아예? 깍은 주로 뭘로 헤나수가? 옛날에.(예, 딴총박이, 제총박이 하잖아요? 총은 주로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옛날에.)

106036 #4 이건 산듸찝이주. 산듸찝.(이건 밭볏짚이지. 밭볏짚.)

106036 @ 산듸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요번에 뭐 미[190]로 헷덴 헌 거는 뭐?(밭볏짚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요번에 뭐 '미'로 했다고 한 거는 뭐?)

106036 #4 건 신놀. 놀, 놀.(건 신날. 날, 날.)

106036 @ 아아, 놀이 어느 거우과?(아아, 날이 어느 겁니까?)

106036 #4 바닥.(바닥.)

106036 #1 줄거리.(줄거리.)

106036 @ 예.(예.)

106036 #1 줄거리가 여기가 ᄒᆞᆫ 발, ᄒᆞᆫ 발 발앙근엥에 그걸로 만들믄 여기서 헤영근엥게 요ᄁᆡ지 오는 거라.(줄거리가 여기가 한 발, 한 발 밟아서 그걸로 만들면 여기서 해서 요까지 오는 거야.)

106036 @ ᄒᆞᆫ 발 발앙. 게믄 이게 놀엔 허는 거우과?(한 발 밟아서. 그러면 이게 날이라고 하는 겁니까?)

106036 #1 아니, 놀은 소곱에.(아니, 날은 속에.)

106036 @ 아, 바닥이.(아, 바닥이.)

106036 #4 바닥. 바닥.(바닥. 바닥.)

106036 #1 바닥 소곱에.(바닥 속에.)

190)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

106036 @ 이게 신놀이구나예? 예, 예, 예, 예.(이게 신날이군요? 예, 예, 예, 예.)

106036 #1 으.(으.)

106036 @ 소곱에 게.(속에 게.)

106036 #4 골겡이도 잇구나.(호미도 있구나.)

106036 #1 이건 그냥 이건 산듸찍으로 허는 거고이.(이건 그냥 이건 밭볏짚으로 하는 거고.)

106036 @ 예, 게난 미로 헌 게 곱덴 헌 거 아니라예?(예, 그러니까 '미'로 한 게 곱다고 한 거 아닌가요?)

106036 #1 깍도 미로 내영근엥에 허고.(총도 '미'로 내어서 하고.)

106036 #4 옛날은 산듸찝. 이 깍 허젠 허민 제 쏙에 산듸찝 쏙에 영 허민 동그락허지게.(옛날은 밭볏짚. 이 총 하려고 하면 제 속에 밭볏짚 속에 이렇게 하면 동그랗지.)

106036 @ 예.(예.)

106036 #4 경허민 그거 허영 막 보비여근에 데왕.(그렇게 하면 그거 해서 마구 비벼서 꼬아서.)

106036 @ 음.(음.)

106036 #4 깍 멘들민.(총 만들면.)

106036 #1 깍 부병.(총 비벼서.)

106036 @ 예, 예. 부병은에.(예, 예. 비벼서.)

106036 #4 영 꼬아지게 만들젠 허민.(이렇게 꼬아지게 만들려고 하면.)

106036 @ 맨 안에 걸 소독이렌 헙니까?(맨 안에 걸 '소독'이라고 합니까?)

106036 #4 어, 소독[191].(어, '소독'.)

106036 @ 산듸 소독헤갖고예.(밭벼 '소독'해가지고요.)

106036 #4 산듸찝 소독허영 이 깍을 멘들민 노랑케 노랑 물 들여근에 거세기.(밭볏짚 '소독'해서 이 총을 만들면 노랗게 노란 물 들여서 거시기.)

106036 @ 이렇게 꼬와야 부드러워지고예?(이렇게 꼬아야 부드러워지고요?)

106036 #4 잘도.(잘도.)

106036 @ 잘도 고와예?(잘도 고와요?)

106036 #4 츰, 잘도 고와. 이제 그런 신 보젠 헤도 어려와.(참, 잘도 고와. 이제 그런 신 보려고 해도 어려워.)

106036 @ 무사 여기 영장 나면 고운 신 아니고 그 대강 이렇게 짠 거 잇지 아녀우과? 그 일름은 몰르쿠과?(왜 여기 상 나면 고운 신 아니고 그 대강 이렇게 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까?)

106036 #4 건 붙깍신.(건 제총박이.)

106036 @ 그건 붙깍신으로. 붙깍신 헹예?(그건 제총박이로. 제총박이 해요?)

106036 #1 그건 붙깍신으로.(그건 제총박이로.)

---

191) '소독'은 '마늘이나 억새 따위의 꽃줄기'를 말한다.

106036 #4 영장 날 때에 궂도 좋도 아녀게 멘들앙 상제덜 문 신, 신어낫주. 옛날.(상 날 때에 궂지도 좋지도 않게 만들어서 상제들 몽땅 신, 신었었지. 옛날.)

106036 @ 아, 그게?(아, 그게?)

106036 #1 상주들은 곱게 출리는 게 아니니까.(상주들은 곱게 차리는 게 아니니까.)

106036 @ 예.(예.)

106036 #4 놈, 놈 웃이렌.(남, 남 웃으라고.)

106036 #1 쥐인이라고 헤가지고 막 허름허게 출리는 게.(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매우 허름하게 차리는 게.)

모자 등

106037 @ 예. 맞수다. 모자 종류는 어떤 게 이신고예? 곱지요? (웃음). 이, 이건?(예. 맞습니다. 모자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곱지요양? (웃음). 이, 이건?)

106037 #4 이건 장옷.(이건 장옷.)

106037 @ 예, 이건 장옷?(예, 이건 장옷?)

106037 #1 이것도 장옷. 혼례복옌 헤시난에 혼례복.(이것도 장옷. 혼례복이라고 했으니까 혼례복.)

106037 @ 장옷예?(장옷요?)

106037 #1 이건 ᄉᆞ나이 거?(이건 사내 거?)

106037 #4 예, 이건 여자 거.(예, 이건 여자 거.)

106037 @ 삼춘, 모자들은 어떤 모자 잇엇수가? 옛날에 쓰는 모자?(삼촌, 모자들은 어떤 모자 있었습니까? 옛날에 쓰는 모자?)

106037 #1 모ᄌᆞ는 이제 갓.(모자는 이제 갓.)

106037 @ 이거는 뭐우과? 모자.(이거는 뭡니까? 모자.)

106037 #4 이건 옛날 ᄀᆞ뜨민 대페렝이[192].(이건 옛날 같으면 '대패랭이'.)

106037 @ 음. 뭐?(음. 뭐?)

106037 #1 아니, 털벙것.(아니, 털벙거지.)

106037 #4 털벙것.(털벙거지.)

106037 @ 털벙것하고. 털벌립.(털벙거지하고. 털벙거지.)

106037 #4 이건 겨울에.(이건 겨울에.)

106037 @ 예, 겨울에예? 어.(예, 겨울에요? 어.)

106037 #4 대페렝인 ᄋᆞ름에.('대패랭이'는 여름에.)

106037 @ 예, ᄋᆞ름에. 아, 대페렝인 ᄋᆞ름에 쓰고. 그?(예, 여름에. 아, '대패랭이'는 여름에 쓰고. 그?)

106037 #1 그냥 보통 요즘 그 나오는 건 페렝이엔 그냥 허여.(그냥 보통 요즘 그 나오는 건 패랭이라고 그냥 해.)

192) '대페렝이'는 대오리로 엮은 챙이 널따란 모자를 말한다.

106037 #4 그냥 페렝이엔만 허주.(그냥 패랭이라고만 하지.)
106037 @ 예, 페렝이?(예, 패랭이?)
106037 #1 밀짚모자.(밀짚모자.)
106037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6037 #1 거 페렝이.(거 패랭이.)
106037 @ 게난 모자 종류는 이런 털벙것, 털벌립. 털벙것하고 대패렝이.(그러니까 모자 종류는 이런 털벙거지, 털벙거지. 털벙거지하고 대패랭이.)
106037 #4 대페렝이.(대패랭이.)
106037 @ 또 갓들도 잇어나시고예?(또 갓들도 있었고요?)
106037 #1 갓.(갓.)
106037 #4 갓 잇엇고.(갓 있었고.)
106037 @ 갓.(갓.)
106037 #1 감틴 여기 안 보이더라.(감투는 여기 안 보이더라.)
106037 @ 감티도 어디 잇긴 잇일 거우다. 감티. 또 뭐 잇수가?(감투도 어디 있긴 있을 겁니다. 감투. 또 뭐 있습니까?)
106037 #1 휘, 이제 휘양.(휘, 이제 휘양.)
106037 @ 휘양.(휘양.)
106037 #1 으, 아니. 요, 요것도 모자 이거.(으, 아니. 요, 요것도 모자 이거.)
106037 @ 이건 뭐우과?(이건 뭡니까?)
106037 #1 이건 족두리네.(이건 족두리네.)
106038 @ 예, 족두리.(예, 족두리.)
106038 #4 여자.(여자.)
106037 @ 예.(예.)
106038 @ 엇고. 휘양은 엇수다. 이제 이렇게 잇고예, 여름 모자 여름에 쓰는 거는 보통 여기선 뭣 썬마씨?(없고. 휘양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름 모자 여름에 쓰는 거는 보통 여기선 무엇 썼어요?)
106038 #1 여름에 갓, 옛 어른덜은 갓에 탕건에 갓, 갓 썬 다녓고.(여름에 갓, 옛 어른들은 갓에 탕건에 갓, 갓 써서 다녔고.)
106038 @ 예.(예.)
106038 #1 그렇지 않으면 페렝이.(그렇지 않으면 패랭이.)
106038 #4 페렝이.(패랭이.)
106038 @ 일 헐 때 검질메레 갈 때는 무시거 썻수가?(일 할 때 김매러 갈 때는 무엇 썼습니까?)
106038 #1 삿갓.(삿갓.)
106038 @ 삿갓. 여기서도 삿갓덜도 멘들아난마씨?(삿갓. 여기서도 삿갓들도 만들었어요?)
106038 #1 멘촌[193]서 삿갓.('멘촌'서 삿갓.)

106038 #4 멘촌서 삿갓 멘들안.(‘멘촌’서 삿갓 만들었어.)
106039 @ 겨울에 쓰는 모자는 뭐마씨?(겨울에 쓰는 모자는 뭐예요?)
106039 #1 아까 털벌립 그 저 그거나 휘양.(아까 털벙거지 그 저 그거나 휘양.)
106039 @ 예.(예.)
106039 #1 이제 그런 정도주. 감티.(이제 그런 정도지. 감투.)
106040 @ 아, 감티하고예? 예, 예. 삼춘도 양태도 줄아봅디가?(아, 감투하고요? 예, 예. 삼춘도 양태도 결어봤습니까?)
106042 #4 아니.(아니.)
106042 @ 아니.(아니.)
106042 #4 탕간만 혼방울 허단 바농질 베와부난.(탕건만 조금 하다가 바느질 배워버리니까.)
106042 @ 음.(음.)
106042 #4 아니 헨.(아니 했어.)
106042 @ 탕건은 줄아봔마씨?(탕건은 결어봤어요?)
106042 #4 줄아봇주.(결어봤지.)
106042 @ 탕건은 어떤 식으로 ᄌᆞ는 거우과?(탕건은 어떤 식으로 겯는 겁니까?)
106042 #4 총 허여근에.(총 해서.)
106042 @ 음.(음.)
106042 #1 골에 끼왕.(골에 끼워서.)
106042 #4 그런 건, 그런 건 안 나와신게.(그런 건, 그런 건 안 나왔네.)
106042 #1 탕건골[194] 어디 꼭 보이는 거 닮아라, 인칙에.(‘탕건골’ 어디 꼭 보이는 거 같더라, 일찍.)
106042 @ 잇수다.(있습니다.)
106042 #1 요거.(요거.)
106042 @ 예.(예.)
106042 #1 탕간골.(‘탕건골’.)
106042 #4 이게 탕간골이주게.(이게 ‘탕건골’이지.)
106042 @ 예.(예.)
106042 #1 게난, 요 뚜껑은 젤 내중에 허는 거고.(그러니까, 요 뚜껑은 젤 나중에 하는 거고.)
106042 @ 예.(예.)
106042 #1 여기서 요ᄁᆞ장 줄아오민 우 마무리 허젠 허민 요거 집어놩.(여기서 요기까지 결어오면 위 마무리 하려고 하면 요거 집어놓아서.)
106042 @ 예.(예.)
106042 #1 마무리허는 거.(마무리하는 거.)

193) ‘멘촌’은 도련2동의 옛 이름이다.
194) ‘탕건골’은 탕건을 결을 때 사용하는 골이다.

106042 @ 이것도 이름이 뚜나마씨? 탕건골 이름이 잇수과?(이것도 이름이 달라요? '탕건골' 이름이 있습니까?)

106042 #1 골.(골.)

106042 @ 이거는 탕건골? 게연 이제 맨 먼저는 얼로부터 줒는 거우과?(이거는 '탕건골'? 그래서 이제 맨 먼저는 어디로부터 겯는 겁니까?)

106042 #4 이, 바우로.(이, 가장자리로.)

106042 @ 어, 이건 바우렌 헤마씨?(어, 이건 가장자리라고 해요?)

106042 #4 바우.(가장자리.)

106042 @ 바우레 허고 그 다음에?(가장자리에 하고 그 다음에?)

106042 #1 바위.(가장자리.)

106042 @ 음. 바우로부터 탕건 줄을 때는 뭐로 주는 거마씨?(음. 가장자리로부터 탕건 결을 때는 뭐로 겯는 거예요?)

106042 #4 총, 총.(총, 총.)

106042 @ 총으로 헹은에.(총으로 해서.)

106042 #4 물 또꼬냥에 그거. 옛날은 총 풀주게.(말 꽁무니에 그거. 옛날은 총 팔지.)

106042 #1 물꼬리.(말꼬리.)

106042 @ 예, 예, 예.(예, 예, 예.)

106042 #4 경헤근에 그거 다.(그렇게 해서 그거 다.)

106042 @ 바농으로 허는 거우과?(바늘로 하는 겁니까?)

106042 #4 바농으로, 바농에 꿰여근에.(바늘로, 바늘에 꿰어서.)

106042 @ 예. 계속 영 허영 짜는 거치룩 허는 거구나예?(예. 계속 이렇게 해서 짜는 거처럼 하는 거군요?)

106042 #4 영 혼 코 혼 코.(이렇게 한 코 한 코.)

106042 @ 음, 혼 코 혼 코.(음, 한 코 한 코.)

106042 #4 혼 코 걸령 줍아뎅기고.(한 코 걸려서 잡아당기고.)

106042 #1 육지부에 바느질은 여기 탕건 멘드는 거허고 주는 거허고 ᄀᆞ트곡 여기 바느질은 일본 바느질허고 꼭같아.(육지부에 바느질은 여기 탕건 만드는 거하고 겯는 거하고 같고 여기 바느질은 일본 바느질하고 똑같아.)

106042 @ 아, 여기는예?(아, 여기는요?)

106042 #1 여긴 이렇게 헤영 나가는 거고. 저 육지선 이렇게 이, 저 요 손가락으로 눌러서 허지.(여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저 육지선 이렇게 이, 저 요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지.)

106042 @ 으으음.(으으음.)

106042 #1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6044 @ 도롱이 게니까 우장. 삼춘 우장도 헤봅디가?(도롱이 그러니까 도롱이. 삼촌 도롱이도 해봤습니까?)

106044 #1 안 헤봣어, 우장은.(안 해봤어, 도롱이는.)
106044 @ (웃음).
106044 #1 거 써, 써보긴 헷주마는,(거 써, 써보긴 했지만,)
106044 @ 예.(예.)
106044 #4 써보긴 헷주마는.(써보긴 했지만.)
106044 @ 우장은 어제 이영숙 어르신 그때 항상 입어난 거예. 테우리니까.(도롱이는 어제 이영숙 어르신 그때 항상 입었던 거요. 목동이니까.)
106044 #1 입어낫주게.(입었었지.)
106044 @ 예, 예, 예. 맞수다.(예, 예, 예. 맞습니다.)
106044 #1 그 하르방도 당신냥으로 줄진 못헤낫어.(그 할아버지도 당신대로 겯지 못했었어.)
106044 @ 음. 줄지는 안 하고예?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음. 겯지는 안 하고요?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106044 #4 우장은 ᄋᆞ끈덴 허주.(도롱이는 엮는다고 하지.)
106044 @ 우장은 ᄋᆞ끄는 거예? 으음. 잠깐만예?(우장은 엮는 거요? 으음. 잠깐만요.)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삼춘, 여기서 헤먹어난 밥 종류 뭐, 뭐 잇수과?(삼촌, 여기서 해먹었던밥 종류 뭐, 뭐 있습니까?)
107001 #2 보리밥.(보리밥.)
107001 @ 예.(예.)
107001 #2 조팝.(조밥.)
107001 @ 예.(예.)
107001 #2 그자 주로 그거주. 옛날에. 보리밥 조팝 기령 살아져. 사는 집이라사 보리밥 조팝도 먹곡. 경 아년 집은 보리밥 조팝도 엇어.(그저 주로 그거지. 옛날에. 보리밥 조밥 그려서 살겠어. 사는 집이라야 보리밥 조밥도 먹고. 그렇게 않은 집은 보리밥 조밥도 없어.)
107001 #1 힘들어.(힘들어.)
107001 #2 힘들어.(힘들어.)
107001 @ 예.(예.)
107001 #2 농사가 지엉 허민이 이제 잘 뒈면 식구가 먹어날 수가 잇고. 옛날은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민 그 보리가 나면 요멘치 나근엥에 웨쌀오리[195]

195) '웨쌀오리'는 '여물이 많이 달리지 않은 쌀보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라고 헤여. 영 허영 멧 알 헌 것ᄀᆞ라는. 웨쌀오리보리 무시거 날 거 잇어. 조도 갈면 이제 다 지미 져버리고.(농사가 지어서 하면 이제 잘 되면 식구가 먹을 수가 있고. 옛날은 비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면 그 보리가 나면 요만큼 나서 '웨쌀오리'라고 해. 이렇게 해서 몇 알 한 것보고는. '웨쌀오리보리' 무엇 날 거 있어. 조도 갈면 이제 다 기미 껴버리고.)

107001 @ 음.(음.)

107001 #2 무시거 헤영은에 잘 못헤먹으니까. 옛날은 잘도 살아나기가 어려워.(무엇 해서 잘 못해먹으니까. 옛날은 잘도 살아나오기가 어려워.)

107001 #1 병해충 방젠 못해버리니까 옛날은.(병해충 방젠 못해버리니까 옛날은.)

107001 @ 예.(예.)

107001 #2 도저히 가근에 허는 거는 이제 보리라도 막 노랑허게 갈면은 노랑허게 죽어가. 이만씩 헐 때부터 죽어 가면은 강 주는 거엔 헌 건 불치.(도저히 가서 하는 거는 이제 보리라도 막 노랗게 갈면 노랗게 죽어가. 이만씩 할 때부터 죽어 가면 가서 주는 거라고 한 건 재.)

107001 @ 예.(예.)

107001 #1 오줌.(오줌.)

107001 #2 불치. 소변 받아다가 허벅에 질엉 가서 졸락졸락 주고. 그것이 거름.(재. 소변 받아다가 물동이에 길어서 가서 졸딱졸딱 주고. 그것이 거름.)

107001 @ 예.(예.)

107001 #2 경헹 살앗어.(그렇게 해서 살았어.)

107001 @ 경헹예?(그렇게 해서요?)

107001 #1 비료가 없어 놓니까 옛날에.(비료가 없어 놓으니까 옛날에.)

107001 #2 경허고, 뒈지 질루면 그 뒈지 똥이여 하간 거 그디.(그렇게 하고, 돼지 기르면 그 돼지 똥이여 이런 저런 거 거기.)

107001 #1 거름 퇴비.(거름 퇴비.)

107001 #2 거름도 허젠 퇴빌 멘들젠 헤도 보리가, 보리 조가 없으니까 퇴비 만들 수가 없어.(거름도 하려고 퇴빌 만들려고 해도 보리가, 보리 조가 없으니까 퇴비 만들 수가 없어.)

107001 @맞아예?(맞아요?)

107001 # 경허민 흔 방울 해당 거 지치는 체 허민 뒈여게.(그렇게 하면 조금 해다가 거 끼얹는 체 하면 되어.)

107002 @ (웃음). 맞습니다. 그 밥, 쌀 종류는 어떤 거 잇어마씨?((웃음). 맞습니다. 그 밥, 쌀 종류는 어떤 거 있어요?)

107002 #2 쌀 종류는 옛날은 보리쏠, 좁쏠 그자 그거 허곡. 곤쏠엔 헌 것도 잘 어렵주게. 옛날 이제 갈산듸[196]엔 허여.(쌀 종류는 옛날은 보리쌀, 좁쌀 그저 그거

196) '갈산듸'는 밭벼의 한 종류. 찰기가 없는 멥쌀 종류다.

하고. 흰쌀이라고 한 것도 잘 어렵지. 옛날 이제 '갈산듸'라고 해.)

107002 @ 갈산듸?('갈산듸'?)

107002 #1 산듸쏠.(밭벼쌀.)

107002 #2 산듸쏠.(밭벼쌀.)

107002 #2 게민 밥허민 그냥 쫙허민 뿌리면 뿌릴 정도. 풀이 안 부떠. 겨곡 이제ᄀᆞ찌 다끄고 다끄고를 못허지. 방에, 맷돌에 강 ᄒᆞ꼼 허영 오면은 고대로 갖다 놔근에 허민 밥이 뒈여.(그러면 밥하면 그냥 쫙하면 뿌리면 뿌릴 정도. 풀이 안 붙어. 그러고 이제같이 찧고 찧고를 못하지. 방아, 맷돌에 가서 조금 해서 오면 고대로 갖다 놓아서 하면 밥이 되어.)

107002 #1 지금 저 무신 쏠. 거 덜 까끈 것ᄀᆞ라.(지금 저 무슨 쌀. 거 덜 찧은 것보고.)

107002 @ 현미.(현미.)

107002 #1 으, 현미.(으, 현미.)

107002 #2 그렇게 헤서.(그렇게 해서.)

107002 #1 현미로 그냥 먹었으니까.(현미로 그냥 먹었으니까.)

107002 @ 음. 옛날도예?(음. 옛날도요?)

107002 #2 경 헤영 또 그런 것도 먹지도 못허고. 먹지도 못허엿는데 제ᄉᆞ 때나 쫌 갈앗다가 제사 때나 먹주. ᄎᆞ나록이나 갈민 것에 서끄면 조꼼 이제 풀이 나서 먹을 수가 잇엇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산, 아주 살아온 후제 이 제국시대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안량미 쏠이라고 거 들어완.(그렇게 해서 또 그런 것도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제사 때나 좀 갈았다가 제사 때나 먹지. 찰벼나 갈면 것에 섞으면 조금 이제 풀이 나와서 먹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산, 아주 살아온 후에 이 제국시대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안남미라고 거 들어왔어.)

107002 @ 예.(예.)

107002 #2 그거 쪼꼼 서껀.(그거 조금 섞어서.)

107002 @ 예.(예.)

107002 #2 것도 사는 집의가 서꺼 먹엇지. 경 아녀민 보리쏠에 좁썰. 주로 그거.(것도 사는 집에가 섞어 먹었지. 그렇게 않으면 보리쌀에 좁쌀. 주로 그거.)

107002 #1 그것에 감저.(그것에 고구마.)

107002 @ 감저 서껑예?(고구마 섞어서요?)

107002 #2 콩이나 갈면 이제 그걸로 허영 맷돌에서 ᄀᆞᆯ아가지고 ᄀᆞᆯ 디도 없어. 맷돌에 ᄀᆞᆯ앙. 콩국이라고 헤여. 게민 감저 쪄 놓곡 그거 ᄒᆞᆫ 직 거려먹고.(콩이나 갈면 이제 그걸로 해서 맷돌에서 갈아가지고 갈 데도 없어. 맷돌에 갈아서. 콩국이라고 해. 그러면 고구마 쪄 넣고 그거 한 술 떠먹고.)

107002 @ 음.(음.)

107002 #1 순두붓국이주, 콩국은.('순두붓국'이지, 콩국은.)

107002 @ (웃음) 게메, 우리 제주 콩국 맛 좋아마씨.((웃음) 그러게, 우리 제주 콩국 맛 좋아요.)

107002 #2 경헌디 맷돌에서 막 홁게 발발발발발발 이제거찌 순두부 허게시리 허여서게? 기냥 영 영 골민 ᄀᆞ를이 무살무살무살무살 허민 입에 놔도 무살무살무살 잘 안 뒈여.(그런데 맷돌에서 막 굵게 발발발발발발 이제같이 순두부 하게끔 했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갈면 가루가 무살무살무살무살 하면 입에 넣어도 무살무살무살 잘 안 되어.)

107003 @ (웃음). 맞수다. 삼춘 그 보리밥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웃음). 맞습니다. 삼촌 그 보리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03 #2 보리쏠을 엿날에는 이제 돌팡에가 잇어낫지. 돌팡에 잇으니까.(보리쌀을 옛날에는 이제 연자매가 있었었지. 연자매 있으니까.)

107003 #1 연자방아이.(연자방아.)

107003 @ 예. 연자방아.(예. 연자방아.)

107003 #2 연자방아 헤영은에 사름 멧 개 허영은에 강 거 막 돌려. 맷돌을 영 허영 사름 멧 개 헤여가지고. 요초록 허여가민 요초록 ᄌᆞ록이 돋으민 이제 그거를 ᄆᆞᆯ 메왕도 그거를 지고.(연자방아 해서 사람 몇 개 해서 가서 거 막 돌려. 맷돌을 이렇게 해서 사람 몇 개 해가지고. 요처럼 해가면 요처럼 자루가 돋으면 이제 그거를 말 메워서도 그거를 찧고.)

107003 @ 예.(예.)

107003 #1 쉐 메왕도 허곡.(소 메워서도 하고.)

107003 #2 쉐 메왕도 지곡. 그 맷돌을 다, 맷돌을 돌리는 거주게.(소 메워서도 찧고. 그 맷돌을 다, 맷돌을 돌리는 거지.)

107003 @ 예.(예.)

107003 #2 이녁 힘으론 못허니까 돌려다가 이젠 널엇다가 이제 그거 ᄆᆞᆯ르면 맷돌에다가 ᄀᆞᆯ아.(이녁 힘으론 못하니까 돌려다가 이젠 널었다가 이제 그거 마르면 맷돌에다가 갈아.)

107003 @ 으음.(으음.)

107003 #2 ᄀᆞᆯ아근에 허민 이제 ᄉᆞᆯ우리, ᄉᆞᆯ보리 쏠은 ᄀᆞᆯ, ᄀᆞᆯ아도 먹을 수가 잇는디 것보리옌 헌 것이 또 잇어.(갈아서 하면 이제 쌀보리, 쌀보리 쌀은 갈, 갈아도 먹을 수가 있는데 겉보리라고 한 것이 또 있어.)

107003 @ 예.(예.)

107003 #2 것보리는 이제 겁데기 막 바짝 부뜬 거. 바짝 부뜬 거 지어도, ᄀᆞᆯ아도 그 줄거리가 이렇게 부떠 잇어.(겉보리는 이제 껍데기 매우 바짝 붙은 거. 바짝 붙은 거 찧어도, 갈아도 그 줄거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

107003 @ 예.(예.)

107003 #2 그거 허영 밥허면은 쭐강 쭐강 쭐강 쭐강 쭐강.(그거 해서 밥하면 질경 질경 질경 질경 질경.)

107003 @ (웃음).

107003 #2 술보리가 중간에 나왓어.(쌀보리가 중간에 나왔어.)

107003 @ 음, 처음에는 것보리엿구나예?(음, 처음에는 겉보리였군요?)

107003 #1 것보리.(겉보리.)

107003 #2 것보리. 것보리엔 허곡 줄보리엔도 허곡 두 가지주게.(겉보리. 겉보리라고 하고 '줄보리'라고도 하고 두 가지지.)

107003 #1 줄보린 그 맥주맥을 말허는 건디.('줄보리'는 그 맥주보리를 말하는 건데.)

107003 @ 예.(예.)

107003 #2 술 만드는 거.(술 만드는 거.)

107003 #1 맥주맥을 말허는 건디 내중에 거 일본 놈들이 개량종으로 나온 거고.(맥주보리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거 일본 놈들이 개량종으로 나온 거고.)

107003 @ 음.(음.)

107003 #1 개량종으로.(개량종으로.)

107003 @ 옛날은 줄보리 것보리.(옛날은 '줄보리' 겉보리.)

107003 #2 것보리가 질.(겉보리가 제일.)

107003 #1 것보리, 것보리.(겉보리, 겉보리.)

107003 #2 그거 헤다가 또 이제 좁쏠이나 있으믄 히린좁쏠이렌 헌 게 잇어. 개발시리[197]라고.(그거 해다가 또 이제 좁쌀이나 있으면 차좁쌀이라고 한 게 있어. '개발시리'라고.)

107003 @ 예.(예.)

107003 #2 게영 영 허영 조코고리가 피면 영 끗겡이 까릿까릿 요렇게 해서.(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 이삭이 피면 이렇게 끄트머리 '까릿까릿' 요렇게 해서.)

107003 #1 개 발ᄀᆞ치 이렇게 허주게.(개 발같이 이렇게 하지.)

107003 @ 예.(예.)

107003 #2 개발시리라고 영 요러콤 뒈여. 이젠 그거를 헤다가 이젠 도께로 그걸 고고릴 뜯어다가 이젠 비여 놓고 고고리 강 영 튿는 거라.('개발시리'라고 이렇게 요렇게 되어. 이젠 그거를 해다가 이젠 도리께로 그걸 이삭을 뜯어다가 이젠 베어 놓고 이삭 가서 이렇게 따는 거야.)

107003 @ 음.(음.)

107003 #2 튿아다가 이젠 옛날은 멕에, 멕엔 헌 거 잇어. 하르버지덜 줄안. 멕에 이제 져다가 마당에 널어가지고 막 뚜드려.(따다가 이젠 옛날은 멱에, 멱이라고 한 거 있어. 할아버지들 결었어. 멱에 이제 져다가 마당에 널어가지고 막 두들겨.)

107003 @ (웃음.)

107003 #1 도께질.(도리깨질.)

197) '개발시리'는 차좁쌀의 일종이다. 조 이삭 끝이 개의 발처럼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07003 @ 도께질.(도리깨질.)

107003 #2 도께로 허연. 이젠 도리깨엔 허주.(도리께로 해서. 이젠 도리깨라고 하지.)

107003 @ 예, 예.(예, 예.)

107003 #2 이제 도리깨로 두드령 그걸 허영 이젠 똑 물류는 거라. 그걸. 쌀 나온 거를. 쌀 나오면 또 돌팡에 강 지는 거라.(이제 도리깨로 두들겨서 그걸 해서 이젠 똑 말리는 거야. 그걸. 쌀 나온 거를. 쌀 나오면 또 연자매에 가서 찧는 거야.)

107003 @ 음.(음.)

107003 #2 그 껍질을 벳길라고. 경 허영 그 개발시리엔 헌 건 또 헨 또 보리쏠에 서끄민 막 맛이 좋는데, 또 그디 모인좁쏠이 또 있어.(그 껍질을 벗기려고. 그렇게 해서 그 '개발시리'라고 한 건 또 해서 또 보리쌀에 섞으면 매우 맛이 좋은데, 또 거기 메좁쌀이 또 있어.)

107003 @ 예.(예.)

107003 #2 그 죽 쒀 먹고 이젠 그거 잘도 비싸.(그 죽 쒀 먹고 이젠 그거 잘도 비싸.)

107003 @ 예, 맞수다. 이젠예?(예, 맞습니다. 이젠요?)

107003 #2 그거 옛날엔 그거 허영근엥에 옛날에 서껑 게삭지긴[198] 헤도 그런 것도 엇어서 못 먹엇어.(그거 옛날엔 그거 해서 옛날에 섞어서 '게삭지긴' 해도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

107003 @ 예. 맞습니다.(예. 맞습니다.)

107003 #2 경헨 살앗어.(그렇게 해서 살았어.)

107004 @ (웃음) 음. 반지기밥은 뭘 반지기밥 허는 거우과?((웃음) 음. 반지기밥은 뭘 반지기밥 하는 겁니까?)

107004 #2 아, 반지기는 쌀도 놔근에 쌀에 보리쏠에 놓민 반지기.(아, 반지기는 쌀도 넣어서 쌀에 보리쌀에 넣으면 반지기.)

107004 @ 음.(음.)

107004 #2 또 쌀에 또 좁썰을 놔도 반지기.(또 쌀에 또 좁쌀을 놔도 반지기.)

107004 @ 음.(음.)

107004 #2 거 영 서끄면 반지기.(거 이렇게 섞으면 반지기.)

107005 @ 음, 서끄믄 반지기. 흰밥은 우리가 곤밥이렌 허는 거?(음, 섞으면 반지기. 흰밥은 우리가 '곤밥'이라고 하는 거?)

107005 #2 곤밥.(흰밥.)

107005 @ 곤밥은 언제 먹는 거?(흰밥은 언제 먹는 거?)

107005 #1 제사 때.(제사 때.)

107005 #2 제ᄉᆞ 때나 먹주.(제사 때나 먹지.)

107005 #1 멩질 때.(명절 때.)

198) '게삭지긴'은 '좁쌀에 풀기가 없어 메진'의 의미다.

107005 #2 멩질 때.(명절 때.)

107005 #1 씨집갈 때 장게갈 때.(시집갈 때 장가갈 때.)

107005 @ 아아.(아아.)

107005 #2 옛날은 계란도 엇언 못 먹엇어.(옛날은 계란도 없어서 못 먹었어.)

107005 @ 예. 맞습니다.(예. 맞습니다.)

107005 #2 경허연. 이제난 계란도 널어지고, 하간 거. 춤 밀가루. 중간에 내가 어린 적에[쩌게] 어디 간 보난 묵을 이젠 지젼 준 것이 어떠난 헤양헌 게 기냥 막 맛잇어. 아이고, 무신 묵인고. 이렇게 보리쏠 그 골아근에 허민 게삭게삭 묵 지지민 맛이 엇어낫는디 아, 요거는 헤영 헌 걸 허영 주니까 요치록 헨 두 점을 주는 거라. 먹어보니 뭐가 이렇게 맛신고. 그, 여기서, 밀쏠.(그렇게 했어. 이제니까 계란도 널어지고, 이런저런 거. 참 밀가루. 중간에 내가 어린 적에 어디 가서 보니까 묵을 이젠 지져서 준 것이 어때서 하얀 게 그냥 매우 맛있어. 아이고, 무슨 묵인가. 이렇게 보리쌀 그 갈아서 하면 까끌까끌 묵 지지면 맛이 없었었는데 아, 요거는 하얀 걸 해서 주니까 요처럼 해서 두 점을 주는 거야. 먹어보니 뭐가 이렇게 맛있는가. 그, 여기서, 밀쌀.)

107005 @ 예.(예.)

107005 #2 밀쏠 헨 밀ᄀᆞ를 골안 쫌 나놔줫어. 그거 허연 허니까 이젠 그렇게 맛좋안. 그 다음에는 밀ᄀᆞ루가 많이 들어와서 먹고 살앗지.(밀쌀 해서 밀가루를 갈아서 좀 나눠줬어. 그거 해서 하니까 이젠 그렇게 맛 좋아서. 그 다음에는 밀가루가 많이 들어와서 먹고 살았지.)

107006 @ 으음. 조팝은 어떵 허여마씨? 조팝헐 때는?(으음. 조밥은 어떻게 해요? 조밥할 때는?)

107006 #2 조팝만은 옛날은 그자 주로 조팝만 거 돌팡에 강 져당은에 이젠 막 푸는체로 퍼.(조밥만은 옛날은 그저 주로 조밥만 거 연자방아에 가서 찧어다가 이젠 마구 키로 까불어.)

107006 @ 음.(음.)

107006 #2 그거를 막 퍼가지고 이젠 쌀 내와근엥에 그거 막 자꾸 봐야 허여. 맷돌에서 돌리민 후허게 불엉 보민 다 까지면은.(그거를 마구 까불어가지고 이젠 쌀 내서 그거 마구 자꾸 봐야 해. 맷돌에서 돌리면 후하게 불어서 보면 다 깨지면.)

107006 @ (웃음).

107006 #2 체를 이제 풀어놓고 이젠 막 거기서 푸는 거라. 그 방엣간에 헌 거 잇어낫어. 이보단 꼭. 경 방엣간에서 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젠 그 체 잇어이. 체엔 헌 건 이젠 담아다가 뒈지 주는 거.(겨를 이제 풀어놓고 이젠 마구 거기서 까부는 거야. 그 방앗간에 한 거 있었었어. 이보단 꼭. 그렇게 방앗간에서 까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젠 그 겨 있어. 겨라고 한 건 이젠 담아다가 돼지 주는 거.)

107006 @ 음.(음.)

107006 #2 또 좁쏠은 헤다가 사람이 먹고. 경허민 밥 허민 조팝만 허민 조팝,

(또 좁쌀은 해다가 사람이 먹고. 그렇게 하면 밥 하면 조밥만 하면 조밥,)

107006 @ 예.(예.)

107006 #2 모인좁썰밥만 허민 모인좁썰밥.(메좁쌀밥만 하면 메좁쌀밥.)

107006 @ 음.(음.)

107006 #2 이제 보리밥만 허민 보리밥.(이제 보리밥만 하면 보리밥.)

107006 @ 조팝 저기 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헤야 뒈마씨?(조밥 저기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107006 #2 아 기냥 물 팔팔 끌어 가믄 이제난 싯엇주. 그젠 물도 엇언 못 싯엇어. 고대로 그자 놔근에게 (웃음) 기냥 허고 먹엇어.(아 그냥 물 펄펄 끓어 가면 이제니까 씻었지. 그젠 물도 없어서 못 씻었어. 고대로 그저 놔서 (웃음) 그냥 하고 먹었어.)

107006 #1 쌀밥 허듯게 물 맞촹 그냥.(쌀밥 하듯 물 맞춰서 그냥.)

107006 #2 쌀밥 허듯.(쌀밥 하듯.)

107006 @ 아, 씻지도 안 허영예?(아, 씻지도 안 해서요?)

107006 #2 아니, 그자 불살라 놓고 그 가마솟데, 가마솟 쪼그만헌 거 잇엇어.(아니, 그저 불살라 놓고 그 가마솥에, 가마솥 조그마한 거 있었어.)

107006 @ 예예.(예예.)

107006 #2 그런 것에 밥허영 이젠 뒈여 가민 그 남술엔 헌 거 잇어이.(그런 것에 밥해서 이젠 되어 가면 그 죽젓개라고 한 거 있어.)

107006 @ 예.(예.)

107006 #2 낭으로 만든 거.(나무로 만든 거.)

107006 #1 주걱.(주걱.)

107006 #2 젓어보면서 주걱 젓어보면서 이젠 뒈엿으면 이젠 뜸들이민 그것이 그렇게 맛 좋은 거 그때는.(저어보면서 주걱 저어보면서 이젠 되었으면 이젠 뜸들이면 그것이 그렇게 맛 좋은 거 그때는.)

107006 @ 예, 이제도 맛 좋을 거 닮아마씨.(예, 이제도 맛 좋을 거 같아요.)

107006 #2 맛 좋아.(맛 좋아.)

107006 #1 배불리만 먹어지민 그땐 다 맛 좋은 거.(배불리만 먹어지면 그땐 다 맛 좋은 거.)

107007 @ 예. 그렇게 하고. 혹시 풋밥도 헙니까?(예. 그렇게 하고. 혹시 팥밥도 합니까?)

107007 #2 풋도.(팥도.)

107007 #1 수메[199].('수메'.)

107007 #2 그 순메라고. 좁쏠에.(그 '순메'라고. 좁쌀에.)

107007 @ 예.(예.)

---

199) '수메'는 밥에 조금씩 섞는 팥 따위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순메', '수세'라고도 하였다. 팥을 넣으면 '풋순메', 콩을 넣으면 '콩순메'라고 한다.

107007 #2 개발시리 그 팟을 삶, 삶다가 이젠 좁썰을 놔서 밥을 지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좋을 수가 없어, 그때는.('개발시리' 그 팥을 삶, 삶다가 이젠 좁쌀을 넣어서 밥을 지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없어, 그때는.)

107007 @ 으.(으.)

107007 #2 잘도 맛 좋아.(잘도 맛 좋아.)

107007 @ 조에 풋에 놩예?(조에 팥에 넣어서요?)

107007 #1 수세.('수세'.)

107007 #2 팟죽이라고 있어. 모힌좁쏠을 놔서 죽 쒀근엥에 거 삶아가지고 이제 거찌 주물러가지고 죽 쑤민 그렇게 맛셔.(팥죽이라고 있어. 메좁쌀을 넣어서 죽 쒀서 거 삶아가지고 이제같이 주물러가지고 죽 쑤면 그렇게 맛있어.)

107007 @ 아, 그 풋죽에, 풋죽허는 거 한번만 더 골아줍서.(아, 그 팥죽에, 팥죽하는 거 한번만 더 말해주세요.)

107007 #2 팟죽. 어떵허민 팟 삶다가 모인좁썰 그 노랑좁썰 그거를 부어놓곡 이젠 막 끓이는 거라.(팥죽. 어떻게 하면 팥 삶다가 메좁쌀 그 '노랑좁쌀' 그거를 부어넣고 이젠 막 끓이는 거야.)

107007 @ 예.(예.)

107007 #2 그디서 푸달푸달허여 가면 거려서, 떠서 먹어.(거기서 푸달푸달해 가면 떠서, 떠서 먹어.)

107007 @ 그게 풋죽예 옛날에.(그게 팥죽요 옛날에.)

107007 #2 풋죽.(팥죽.)

107007 @ 쏠이 엇이난.(쌀이 없으니까.)

107007 #2 쏠이 엇이난게.(쌀이 없으니까.)

107007 @ 옛날에 좁쌀로 헌 거라예?(옛날에 좁쌀로 한 거네요?)

107007 #2 팥죽이라 헌 건 곤쏠로 이제 쑤는 거는 어디 사둔칩의나 상이 나거든. 상이 나면이 허벅에 막 쒀가. 그런 때나 이제 좀 먹엇지. 엇엇어.(팥죽이라 한 건 흰쌀로 이제 쑤는 거는 어디 사돈집에나 상이 나거든. 상이 나면 물동이에 마구 쒀가. 그런 때나 이제 좀 먹었지. 없었어.)

107007 #1 흰쌀엔 헌 건.(흰쌀이라고 한 건.)

107007 #2 흰쌀엔 헌 건 도저히 엇어.(흰쌀이라고 한 건 도저히 없어.)

107007 @ 집에서 풋죽 허는 거는 좁썰에 헌 거다예?(집에서 팥죽 하는 거는 좁쌀에 한 거네요?)

107007 #2 옛날에는 우리 커올 적에는 경 헨 자랏어.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사태에 열다섯에 내려갓지. 저 삼양을.(옛날에는 우리 커올 적에는 그렇게 해서 자랐어.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사태에 열다섯에 내려갔지. 저 삼양을.)

107007 @ 예.(예.)

107007 #2 내려가서 이제 멘촌서 열다섯에 내려간 살앗는데 주로 그자 팟허고.(내려가서 이제 도련2동에서 열다섯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주로 그저 팥하고.)

107007 @ 음.(음.)

107007 #2 주로 좁쌀. 경 아녀민 보리 그거 콩. 그거 갈안 그거 세 가지, 네 가지로 먹고 살앗어.(주로 좁쌀. 그렇게 않으면 보리 그거 콩. 그거 갈아서 그거 세 가지, 네 가지로 먹고 살았어.)

107007 @ 음.(음.)

107007 #2 게난 건 또 아무 집이나 엇어.(그러니까 건 또 아무 집에나 없어.)

107007 @ 아까 삼춘이 순메허던데. 순메?(아까 삼촌이 '순메'하던데. '순메'?)

107007 #2 으.(으.)

107007 @ 순메?('순메'?)

107007 #1 수메.('수메'.)

107007 #2 순메는 어떵허연 밥 그 허다가 이제 팟이 딱딱허면은 이젠 그 순메를 삶아가지고 걸 그레 집어놔.('순메'는 어떻게 해서 밥 그 하다가 이제 팥이 딱딱하면 이젠 그 '순메'를 삶아가지고 걸 그리로 집어넣어.)

107007 @ 음.(음.)

107007 #2 경 허영 영 서끄민 순메밥.(그렇게 해서 이렇게 섞으면 '순메밥'.)

107007 @ 아아.(아아.)

107007 #2 풋순매밥.('팥순메밥'.)

107007 @ 풋순메밥허는 거예?('팥순메밥'하는 거네요?)

107007 #2 응, 콩순메밥. 콩순메엔 헌 건 또 콩도 빨간 머드레라고 헷어.(응, '콩순메밥'. '콩순메'라고 한 건 또 콩도 빨간 대우라고 했어.)

107007 @ 머드레예?(대우요?)

107007 #2 응, 머드레 허여근엥에 조팟듸 영 놓면 이제 그거 막 맛잇어. 게민 그거 허영 까놩은에 콩밥. 콩순메밥. 콩순메 놩 헷어 먹어.(응, 대우 해서 조밭에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거 매우 맛있어. 그러면 그거 해서 까놓아서 콩밥. '콩순메밥'. '콩순메' 넣어서 했어 먹어.)

107007 @ 아아.(아아.)

107007 #2 팟순메 놘 헷어 왕 밥 먹어. 경허여.('팥순메' 넣어서 했어 와서 밥 먹어. 그렇게 해.)

107007 @ 밥도 순메렌 허는구나예? 떡 저기 송편에 속에 담는 것도 순메렌 허지 아넘니까?(밥도 '순메'라고 하는군요? 떡 저기 송편에 속에 담는 것도 '순메'라고 하지 않습니까?)

107007 #2 음음.(음음.)

107007 @ 으, 그거를.(으, 그거를.)

107007 #1 서트는 건이. 밥에 지금 예를 들엉 우리가 밥 허면서 이 콩 ᄀᆞ튼 거나 뭐 잇잖아. 걸 놓는 거, 수메 놓는 거.(섞는 건. 밥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하면서 이 콩 같은 거나 뭐 잇잖아. 걸 넣는 거, '수메' 넣는 거.)

107008 @ 아아, 여기는 걸 순메 놓는 거렌 허여예? 그 다음에 혹시 여기 피밥

도 여기도 피도 먹어신가마씨? 이 동네.(아아, 여기는 걸 '순메' 넣는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피밥도 여기도 피도 먹었는가요? 이 동네.)

107008 #2 저 남군더레.(저 남군으로.)

107008 @ 예, 송당 이런 교래리는 피밥 허영은에 먹엇덴 피 방에 허영.(예, 송당 이런 교래리는 피밥 해서 먹었다고 피 방아 해서.)

107008 #2 먹어나긴 해도. 이제 나도 멧 번 먹어나긴 헷는디 여기는 안 지어.(먹었었긴 해도. 이제 나도 몇 번 먹었었긴 했는데 여기는 안 지어.)

107008 @ 아, 예. 피밥 먹어나긴 헷구나예?(아, 예. 피밥 먹었었긴 했군요?)

107008 #2 으.(으.)

107009 @ 감저밥은 어떵 허는 거우꽈?(고구마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7009 #2 아, 감저밥은.(아, 고구마밥은.)

107007 #1 감저 수메 놓으면 감저밥.(고구마 '수메' 넣으면 고구마밥.)

107009 #2 어떵 헤신고 허민 감저 쌂다가 이젠 좁썰을 넣으는 거라, 그레. 좁썰이나 보리쏠이나 놩 이제 젓이민 감저, 줄게 썰어 놓면 이제.(어떻게 했는가 하면 고구마 삶다가 이젠 좁쌀을 넣는 거야, 그리로. 좁쌀이나 보리쌀이나 넣어서 이제 저으면 고구마, 잘게 썰어 넣으면 이제.)

107009 #1 수메.('수메'.)

107009 #2 순메.('순메'.)

107009 @ 예.(예.)

107009 #2 또 혹게 막 이만썩 썰어 놔근에 쏠 엇인 때난 감저가 그땐 주로 잇엇주게. 경허민 감저 놩 쌀 조금 놔근에 뜨멍 먹어.(또 굵게 막 이만큼씩 썰어 넣어서 쌀 없을 때니까 고구마가 그땐 주로 있었지. 그렇게 하면 고구마 넣어서 쌀 조금 넣어서 뜨면서 먹어.)

107009 @ 아까 삼춘, 그러면 감저밥 헐 때 감저를 먼저 치당 좁썰을 놓는 거우과? 좁썰 허영은에?(아까 삼춘, 그러면 고구마밥 할 때 고구마를 먼저 찌다가 좁쌀을 넣는 겁니까? 좁쌀 해서?)

107009 #2 같이 같이 놔도 뒈고.(같이 같이 넣어도 되고.)

107009 @ 예.(예.)

107009 #2 이제 주로 감저 혹게 썰면 이제 감저를 문저 놓고 잘게 썰민 같이 놓곡.(이제 주로 고구마 굵게 썰면 이제 고구마를 먼저 넣고 잘게 썰면 같이 넣고.)

107009 @ 음.(음.)

107009 #2 그렇게 헤여.(그렇게 해.)

107009 @ 좁쏠을 문저 놩 감저 놓는 건 아니구나예?(좁쌀을 먼저 넣어서 고구마 넣는 건 아니군요?)

107009 #2 으.(으.)

107009 @ 아아.(아아.)

107009 #1 게난 익는 걸 바란스 맞추기 위해서.(그러니까 익는 걸 밸런스 맞추

기 위해서.)

107009 @ 예, 예.(예, 예.)

107009 #1 익는 걸 바란스 맞췅.(익는 걸 밸런스 맞춰서.)

107009 @ 겡은에 감저 논 거를 감저순메밥이렌 허곡 감저밥이렌도 허곡.(그래서 고구마 넣은 거를 '감저순메밥'이라고 하고 '고구마밥'이라고도 하고.)

107009 #2 감저밥.('고구마밥'.)

107009 @ 예.(예.)

107009 #1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쌀밥들 다 허고 잇주마는 거기에 콩을 놀라면 지금 마른 콩 넣으민 콩이 잘 안 익거든.(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쌀밥들 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 콩을 넣으려면 지금 마른 콩 넣으면 콩이 잘 안 익거든.)

107009 @ 예.(예.)

107009 #1 게난 미리서 그걸 물을 우찌던가 삶던가 헤 놧다가 이제 같이 쌀허고 놓으면은 이제 똑같은 밥이 뒈는데, 게 익이기 위해서 어느 거 문저 넣느냐. 차례, 이제 순서는.(그러니까 미리 그걸 물에 불리든가 삶든가 해 놓았다가 이제 같이 쌀하고 넣으면 이제 똑같은 밥이 되는데, 게 익히기 위해서 어느 거 먼저 넣느냐. 차례, 이제 순서는.)

107009 @ 예, 아까 순메 허는 거는 미리 삶앙 놔둔 거를 영 서끄는 거우과?(예, 아까 '순메' 하는 거는 미리 삶아 놔둔 거를 이렇게 섞는 겁니까?)

107009 #1 것도 익이기 위해서.(것도 익히기 위해서.)

107009 #2 익이기 위해서. 어느 거 문저. 이제 콩이나 팟이나 헤도 딱딱허민은 같이 놩 안 익어.(익히기 위해서. 어느 거 먼저. 이제 콩이나 팥이나 해도 딱딱하면 같이 넣어서 안 익어.)

107009 @ 경허니까예. 게난 미리 이제 익영 놔뒁은에.(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익혀서 놔둬서.)

107009 #2 삶다가 이제 좁썰 넣어놔도 뒈고 보리쏠 넣어놔도 뒈고.(삶다가 이제 좁쌀 넣어놔도 되고 보리쌀 넣어놔도 되고.)

107009 @ 음.(음.)

107009 #1 잘 안 익으니까. 보리쏠 얼마간 반 이상 익여 놩 놓면은.(잘 안 익으니까. 보리쌀 얼마간 반 이상 익혀 놓아서 넣으면.)

107009 #2 그것이 팟 물 우뜬 거는 같이 놔도 뒈고.(그것이 팥 물 불린 거는 같이 넣어도 되고.)

107010 @ 예, 예. 물 우떵 헌 거는예? 삼춘 여기 늠삐 밥에 늠삐도 놩 헤봅디가? 늠삐밥?(예, 예. 물 불려서 한 거는요? 삼촌 여기 무 밥에 무도 넣어서 해봤습니까? 무밥?)

107010 #2 늠삐밥게.(무밥.)

107010 @ 아, 늠삐밥도 허연예? 건 어떵 허는 거?(아, 무밥도 했다고요? 건 어떻게 하는 거?)

107010 #2 건 뭐 이제라도 허젠 허민 허주 뭐. 기냥 쌀에라도 같이 놓곡, 놓곡, 같이 놔.(건 뭐 이제라도 하려고 하면 하지 뭐. 그냥 쌀에라도 같이 넣고, 넣고. 같이 넣어.)

107010 @ 으.(으.)

107010 #1 채 썰어놩.(채 썰어놓아서.)

107010 #2 같이 놔서 헌 범벅엔 헌 것도 잇어이.(같이 넣어서 한 범벅이라고 한 것도 있어.)

107010 @ 예.(예.)

107010 #2 범벅은 메밀ᄀᆞ를이라고 메밀ᄀᆞ를레 이제 무 썰어 놓민 이제 범벅.(범벅은 메밀가루라고 메밀가루에 이제 무 썰어 넣으면 이제 범벅.)

107010 @ 음.(음.)

107010 #2 범벅허영 영 젓엉.(범벅해서 이렇게 저어서.)

107010 @ 음.(음.)

107010 #1 무사 감저나.(왜 고구마나.)

107010 #2 아무 거라도.(아무 거라도.)

107011 @ 예, 예. 여기 톳밥도?(예, 예. 여기 톳밥도?)

107011 #2 톳밥은 여기는 우리는.(톳밥은 여기는 우리는.)

107011 @ 안 먹어봔?(안 먹어봤어요?)

107011 #2 해변서는 잘, 우리 먹어나긴 헷는데.(해변서는 잘, 우리 먹었었긴 했는데.)

107011 #1 워낙 어려와 놓니까. 웨정 때.(워낙 어려워 놓으니까. 왜정 때.)

107011 # 헤변서는 먹고. 이제 헤변 ᄂᆞ려간 때 우리도 멧 번 헨 먹기도 헤엿는데. 여기 완은 우린 그다지 또.(해변에서는 먹고. 이제 해변 내려간 때 우리도 몇 번 해서 먹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는 우린 그다지 또.)

107011 @ 가난허진 안 하니까.(가난하진 안 하니까.)

107011 #2 가난허진 아녀게 엿날 나 어린 때부텀도 가난허겐 안 살앗으니까. 놈 먹는 거 뭐 벨로 먹어보진 아녓고.(가난하지는 않게 엣날 나 어릴 때부터도 가난하게는 안 살았으니까. 남 먹는 거 뭐 별로 먹어보진 않았고.)

107011 @ 톳밥은 어떤 식으로 헙디가?(톳밥은 어떤 식으로 합디까?)

107011 #2 아 톨밥도 같이 놩 젓으민 뒈여.(아 톳밥도 같이 넣어서 저으면 돼.)

107011 @ 톨밥도?(톳밥도?)

107011 #2 으, 톨을 어떵헌가 허민 톨을 이제 ᄆᆞ른 거는 물 우떳다가 막 빨아서 놓고, 젖은 거는 삶아근엥에 시쳐둬서 놓고 그래.(으, 톳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톳을 이제 마른 거는 물 불렸다가 마구 빨아서 넣고, 젖은 거는 삶아서 씻어두고 넣고 그래.)

107011 @ 음. 경 혜영 ᄀᆞ치 놩은에 밥 허는 거라예?(음. 그렇게 해서 같이 넣어서 밥 하는 거네요?)

107011 #1 음. 잘 썰어얄 거. 잘 썰엉 놓지 않으면 안 뭴 거라. 기니까.(음. 잘 썰어야 할 거. 잘 썰어서 넣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기니까.)

107011 #2 어떵 헤신고 허민 북작 썰엉은에 놔서 발발발발헤영 익어가면은 뒤집히는 거라. 젓엉. 그거 남죽이라고 헌 거 밥주걱, 밥주걱으로 영 젓으면 골로로 이젠 서꺼지니까, 여기 서꺼놓고, 이제 쌀이고 그거 다 익으면은 두께를 딱 더프는 거라. 더펏다가 뜸 들면 거려놩 먹으민 그렇게 맛잇어. (웃음). 혼번, 맛잇어.(어떻게 했는가 하면 '박작' 썰어서 넣어서 발발발발해서 익어가면 뒤집는 거야. 저어서. 그거 죽젓개라고 한 거 밥주걱, 밥주걱으로 이렇게 저으면 골고루 이젠 섞어지니까, 여기 섞어놓고, 이제 쌀이고 그거 다 익으면 뚜껑을 딱 덮는 거야. 덮었다가 뜸 들면 떠놓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웃음). 한번, 맛있어.)

107011 @ 삼춘은 맛잇덴 허는데 사람들은 맛엇덴 헙디다. (웃음).(삼촌은 맛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맛없다고 합디다. (웃음).)

107011 #1 (웃음).

107011 #2 것도 잘헤야 맛잇어.(것도 잘해야 맛있어.)

107011 @ 예, 예, 예. 요즘은 영양식으로도 톳밥 헌덴마씸.(예, 예, 예. 요즘은 영양식으로도 톳밥 한대요.)

107011 #2 맛잇어.(맛있어.)

107011 @ 예.(예.)

107011 #1 똑같은 재료 가지고 이 집의서 하고 이 집의서 하고 허면은 맛이 ᄀᆞ뜨는 사름도 잇고 틀리는 사름도 잇고.(똑같은 재료 가지고 이 집에서 하고 이 집에서 하고 하면 맛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107011 @ 예, 맞아. 어떻게 허느냐에 따라서예.(예, 맞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107011 #1 손맛이옌 허주. 그걸.(손맛이라고 하지. 그걸.)

107011 @ 예.(예.)

107011 #1 쉽게 말허민.(쉽게 말하면.)

107012 @ 맞습니다. 페밥도 옛날 헷덴 헙니까?(맞습니다. '패밥'도 옛날 했다고 합니까?)

107012 #1 페, 넘페?(패, 넓패?)

107012 #2 페, 페밥이 그거 너미 까라와가지고이, 까다로와. 까락까락허주게. 것이.(패, '패밥'이 그거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까다로워. 까끌까끌하지. 것이.)

107012 @ 으, 옛날 막 숭년들 때덜예?(으, 옛날 매우 흉년들 때들요?)

107012 #2 숭년들 때 헨 먹엇덴은 허는디, 나도 놈 헌 거 혼번 간 얻어먹어봣어. 헤변 ᄂᆞ려 간 때. 주로 우리 내려가서 집 빌어서 사는 집의가 좀 어려운 집이야. 경 허니까 거기 거 좀 얻어먹고. 옛날에는 밀주시도 먹고 살앗는데, 여기 씨집을 오란에 허난 여기도 좀. 여기도 먹언 사는 집이야. 사는 집이난 워낙 놈덜이 이젠 먹어가니까.(흉년들 때 해서 먹었다고는 하는데, 나도 남 한 거 한번 가서 얻어

먹어봤어. 해변 내려간 때. 주로 우리 내려가서 집 빌려서 사는 집에가 좀 어려운 집이야. 그렇게 하니까 거기 거 좀 얻어먹고. 옛날에는 밀기울도 먹고 살았는데, 여기 시집을 와서는 하니까 여기도 좀. 여기도 먹어서 사는 집이야. 사는 집이니까 워낙 남들이 이젠 먹어가니까.)

107012 #1 먹어가니까.(먹어가니까.)

107012 #2 저 집은 밀주시를 안 먹으민. 이제 쏠이 핫다고.(저 집은 밀기울을 안 먹으면. 이제 쌀이 많다고.)

107012 @ 허카부덴.(할까보다고.)

107012 #1 바란스 맞추기 위해서.(밸러스 맞추기 위해서.)

107012 #2 밥을 허난 ᄂᆞ시 먹을 수 없으니까.(밥을 하니까 도무지 먹을 수 없으니까.)

107012 #1 떡.(떡.)

107012 #2 떡 만들안 먹어나고.(떡 만들어서 먹었었고.)

107012 #1 쭤기떡이엔 허는디. 무신 저 육지서 ᄀᆞ뜨민 개떡이엔 헐 건가.(쭤기떡이라고 하는데. 무슨 저 육지서 같으면 개떡이라고 할 건가.)

107012 @ 예, 예. 손으로 꼭꼭 줍앙예? 게영 쭤기떡.(예, 예. 손으로 꼭꼭 집어서요? 그래서 쭤기떡.)

107012 #2 옛날 살아나난 셍각허민.(옛날 살았었던 생각하면.)

107013 @ 삼춘 국은 어떤 국덜 헨 먹엇수가?(삼춘 국은 어떤 국들 해서 먹었습니까?)

107014 #2 주루 옛날은 ᄂᆞ물을 갈아이.(주로 옛날은 나물을 갈아.)

107014 @ 예.(예.)

107014 #2 이 우영팟 이시면 ᄂᆞ물 갈민 그거 허여근에 주루. 그자 뒌장 ᄃᆞᆷ앗다가 콩은 가니까.(이 텃밭 있으면 나물 갈면 그거 해서 주로. 그저 된장 담갔다가 콩은 가니까.)

107014 @ 예.(예.)

107014 #2 소곰도 엇엉 담을 수가 엇어. 경헤도 어떵 헤근에 못 사는 집의 것도 없어. 우리 간장 뒌장 잃어버려낫어.(소금도 없어서 담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서 못 사는 집에는 것도 없어. 우리 간장 된장 잃어버렸었어.)

107014 @ 으음, 옛날은 막 경헷덴예?(으음, 옛날은 마구 그렇게 했다고요?)

107014 #2 경 허영, 경 허영 그거 헤 놓앙 무신 그때는 영허는 거 보민 영 어떤 집의 강 보면 뒌장 벙뎅이 헤다가 이제 항에 익을 동안도 못 츰거든.(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해 놓아서 무슨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어떤 집에 가서 보면 된장 덩어리 해다가 이제 항에 익을 동안도 못 참거든.)

107014 @ 예, 예.(예, 예.)

107014 #2 떠다가 숟가락으로 떠다가 그대로 그자 영 먹고.(떠다가 숟가락으로 떠다가 그대로 그저 이렇게 먹고.)

107014 @ 으음. 반찬으로예? 예.(으음. 반찬으로요? 예.)

107014 #2 그 전엔 짐치도, 고치도 잘 없으니까 짐치도 또 헤영 헌 벡짐치라고 헷어. 안 놓니까 벡짐치야.(그 전엔 김치도, 고추도 잘 없으니까 김치도 또 하얀 백김치라고 했어. 안 넣으니까 백김치야.)

107014 @ 예, 예.(예, 예.)

107014 #2 이젠 뭐 그거 논다 저거 논다 허영 먹주마는. ᄂᆞᆯ도 이제 ᄂᆞᆯ이 없어. 옛날 들머귀[200]라고.(이젠 뭐 그거 넣는다 저거 넣는다 해서 먹지만. 나물도 이제 나물이 없어. 옛날 '들머귀'라고.)

107014 @ 들머귀?('들머귀'?)

107014 #2 들머귀ᄂᆞᆯ이라고 헤서. 이만씩 질어. 시커멍허곡 거. 게도 맛은 잇어.('들머귀나물'이라고 해서. 이만큼씩 길어. 시커멓고 거. 그래도 맛은 있어.)

107014 @ 예.(예.)

107014 #2 그런 거 갈앙 국도 끌여 먹고 주로.(그런 거 갈아서 국도 끓여 먹고 주로.)

107014 @ 그게 영양가가 더 실 거우다.(그게 영양가가 더 있을 겁니다.)

107014 #1 아, 지금은 방송에도 허는디 검푸른 거.(아, 지금은 방송에도 하는데 검푸른 거.)

107014 @ 예, 예.(예, 예.)

107014 #2 그거.(그거.)

107014 #1 지금 요 중간에 이 담베ᄂᆞ물엔 헌 거.(지금 요 중간에 이 '담배나물'이라고 한 거.)

107014 @ 예.(예.)

107014 #2 국 끌이믄 맛은 잇어.(국 끓이면 맛은 있어.)

107014 @ 예. 담베ᄂᆞᆯ하고 그거하고. 콩나물도 국 헤마씨? 여기서도?(예. '담배나물'하고 그거하고. 콩나물도 국 해요? 여기서도?)

107014 #2 으음.(으음.)

107015 @ 콩나물은 이 동네서는 뭐렌 헙니까?(콩나물은 이 동네서는 뭐라고 합니까?)

107015 #1 콩ᄂᆞ물.(콩나물.)

107015 @ 콩ᄂᆞᆯ. 콩주름이렌 말은 안 헤?(콩나물. 콩기름이라는 말은 안 해?)

107015 #2 "콩주름 놘?" "놘". "게민 ᄒᆞ끔 줘." 경허민 "왕 뽑아당 먹어". 항아리에 영 놓민 왕 뽑아다 먹어.("콩기름 놨어?" "놨어." "그러면 조금 줘." 그렇게 하면 "와서 뽑아다가 먹어". 항아리에 이렇게 놓으면 와서 뽑아다 먹어.)

107015 #1 콩주름은이, 뭐이고 콩ᄂᆞ물은 표준어고.(콩기름, 뭐야 콩나물은 표준어고.)

107015 @ 예, 콩주름예? 그걸로 이제 국도 헹 먹곡.(예, 콩기름요? 그걸로 이제

200) '들머귀'는 들에 나는, 배추 비슷한 나물이다.

국도 해서 먹고.)

107015 #2 옛날은 주로 콩ᄂᆞ물.(옛날은 주로 콩나물.)

107015 @ 콩ᄂᆞ물로예. 콩주름 놩은에 콩ᄂᆞ물 헹 먹는 거라예? 것도 식게 때나?(콩나물로요. 콩기름 놓아서 콩나물 해서 먹는 거네요? 것도 제사 때나.)

107015 #2 식게 또 기냥 때에 먹젠 허믄 것도 콩도 갈아야.(제사 또 그냥 때에 먹으려고 하면 것도 콩도 갈아야.)

107015 @ 예.(예.)

107015 #2 경 아무 집의나 콩도 없어.(그렇게 아무 집에나 콩도 없어.)

107016 @ 맞수다게. 예. 놈삐국도 하영 헷어예?(맞습니다. 예. 뭇국도 많이 했죠?)

107016 #2 아, 그것이.(아, 그것이.)

107016 @ 놈삣국을 하영 먹어수가? ᄂᆞᄆᆞᆯ국을 하영 먹엇수가?(뭇국을 많이 먹었습니까? 배춧국을 많이 먹었습니까?)

107016 #2 어떵헤신고 허민이, 그땐이 놈삐 이제난 놈삐도 하주. 놈삐도 없었어.(어떡했는가 하면, 그땐 무 이제니까 무도 많지. 무도 없었어.)

107016 @ 아, 주로 들머귀에 ᄂᆞᄆᆞᆯ쿡이구나.(아, 주로 '들머귀'에 나물국이구나.)

107016 #2 으, 주로 이제난 유채ᄂᆞᄆᆞᆯ이여, 놈삐여 부루여 상추여 베라벨 거 잇주만 부루엔 헌 거 꼬작꼬작헌 거 잇어나긴 잇어낫어.(으, 주로 이제니까 유채나물이다, 무다, 상추다 별의별 거 있지만 상추라고 한 거 꼬들꼬들한 거 있었었긴 있었었어.)

107016 #1 이 저 우리 커 올 때만 헤도 요즘 배추가 아니고.(이 저 우리 커 올 때만 해도 요즘 배추가 아니고.)

107016 @ 예.(예.)

107016 #1 뭐 일본서 그 개량 배추가 들어와서 하쿠사[201]옌 뭐니 헤서 헷지. 이 들머귀 그냥.(뭐 일본서 그 개량 배추가 들어와서 '하쿠사'라고 뭐니 해서 했지. 이 '들머귀' 그냥.)

107016 @ 예.(예.)

107016 #1 그건 아무 디나 헤도 크니까.(그건 아무 데나 해도 크니까.)

107016 @ 예.(예.)

107016 #1 이 저 계량 배춘 지금 그 속 앚고 뭐허는 건 여기서도 저 삼양이나 뒈주. 여기는 안 뒈는 걸로 알아.(이 저 계량 배춘 지금 그 속 앉고 뭐하는 건 여기서도 저 삼양이나 되지. 여기는 안 되는 걸로 알아.)

107016 @ 아.(아.)

107016 #2 삼양, 안 뒈는 걸로 알앙 갈민 뒐 것인디.(삼양, 안 되는 걸로 알아서 갈면 될 것인데.)

107016 @ 안 헨예?(안 했다고요?)

---

201) '하쿠사'는 배추의 품종의 하나다. 정확힌 어떤 품종을 일컫는지는 알 수 없다.

107016 #1 몰라서.(몰라서.)

107016 #2 어둑으니까 여기서는 들머귀ᄂᆞ물만 갈민 뒈난. 삼양 가근에 이제 멧.(어두우니까 여기서는 '들머귀나물'만 갈면 되니까. 삼양 가서 이제 몇.)

107016 #1 멧 발.(몇 발.)

107016 #2 밧덜 막 모든 사름이 가서, 이제 밧을 하나 이젠 그 ᄂᆞ물팟을 사는 거라. 게민 멧 발. 나 다섯 발 삿어, 늬 발 삿어, 경헹 이젠 것에 무신 엿날은 하고싼[202]이여 무신 거여 헤낫주마는 그 배추ᄂᆞ물을.(밭들 마구 모든 사람이 가서, 이제 밭을 하나 이젠 그 나물밭을 사는 거야. 그러면 몇 발. 나 다섯 발 샀어, 네 발 샀어, 그렇게 해서 이젠 것에 무슨 옛날은 '하고싼'이다 무슨 거다 했었지만 그 배추를.)

107016 @ 예.(예.)

107016 #2 갈아근에 배추도 ᄂᆞ물이랏자 이제ᄀᆞ찌 속도 안 앚아.(갈아서 배추도 나물이었자 이제같이 속도 안 앉아.)

107016 @ 음.(음.)

107016 #2 속 앚게 킵질 못허거든.(속 앉게 키우질 못하거든.)

107016 @ 으음.(으음.)

107016 #2 막 줏게 허민 이제난 거름이여 팍팍 놓주마는. 이 이디서 삼양 오줌 허영 영 허영 졍 강 ᄒᆞ꼼썩 주민 뒈여게.(막 잣게 하면 이제니까 거름이여 팍팍 놓지만. 이 여기서 삼양 오줌해서 이렇게 해서 져서 가서 조금씩 주면 되어.)

107016 @ (웃음) 으음. 경 허영 퍼데기로예?((웃음) 으음. 그렇게 해서 '퍼데기'로요?)

107016 #2 응, 퍼데기[203]로 헤도 짐치 경헤도 맛잇어.(응, '퍼데기'로 해도 김치 그렇게 해도 맛있어.)

107016 @ 예.(예.)

107016 #2 퍼데기도 집의 왕 싯으면 이제 물도 많이 들곡 이제 소금도 많이 들고 허니까.('퍼데기'도 집에 와서 씻으면 이제 물도 많이 들고 이제 소금도 많이 들고 하니까.)

107016 #1 바다에.(바다에.)

107016 #2 주로 바다에 강 싯어. 바다에 강 담가둠서 싯으면은 반은 절여져. 게민 졍 와가민 옷은 문딱 젖어.(주로 바다에 가서 씻어. 바다에 가서 담가두고서 씻으면 반은 절여져. 그러면 져서 오가면 옷은 몽땅 젖어.)

107016 @ 맞수다.(맞습니다.)

107016 #2 비니루도 하간 거 잇주만 졍 무신 구덕에나 헹 져와가민 물이 잘잘잘잘. 경 허영 이젠 소금, 소금에 당갓다가 이젠 허민 소금 족영 들구.(비닐도 온갖 거 있지만 져서 무슨 바구니에나 해서 져오면 물이 잘잘잘잘. 그렇게 해서 이젠 소

202) '하고싼'은 배추의 품종의 하나다. 제보자는 '하쿠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고싼'이라고 하였다. 정확힌 어떤 품종을 일컫는지는 알 수 없다.

203) '퍼데기'는 속이 앉지 않은 배추를 말한다.

금, 소금에 담갔다가 이젠 하면 소금 적게 들고.)

107016 @ 예.(예.)

107016 #2 이제도 경 헴시믄 또 짐치도 맛 이실 거라. 짠물에다가 허영 허민.(이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김치도 맛 있을 거야. 짠물에다가 해서 하면.)

107017 @ 이제 겅하고. 콩국 끓이는 거 골아줍서. 아까 콩국 하영 혜영 먹엇덴 헨게마는.(이제 그렇게 하고. 콩국 끓이는 거 말해주십시오. 아까 콩국 많이 해서 먹었다고 하더니만.)

107017 #2 콩국은 어떵 허여. 콩 이제난 기계에 강 골아당 허민 게민 맛잇엄주마는 맷돌에다가 돌려가지고 이젠 그거를 물에 타는 거라이.(콩국은 어떻게 해. 콩 이제니까 기계에 가서 갈아다가 하면 그러면 맛있지만 맷돌에다가 돌려가지고 이젠 그거를 물에 타는 거야.)

107017 @ 음.(음.)

107017 #2 얼마 이제 흔 멧 사발이민 콩ᄀᆞ를이 멧 숟가락 놔가지고 영 타.(얼마 이제 한 몇 사발이면 콩가루를 몇 숟가락 놔가지고 이렇게 타.)

107017 @ 음.(음.)

107017 #2 탕 이제 물이 삭삭 꿰여 가면. 물 싹싹이 뭐인지 알아?(타서 이제 물이 팔팔 끓어 가면. 물 '싹싹'이 뭐인지 알아?)

107017 @ 예, 팔팔.(예, 팔팔.)

107017 #1 팔팔.(팔팔.)

107017 #2 팔팔 끓어 가면, 옛날말로만 골아.(팔팔 끓어 가면, 옛날말로만 말해.)

107017 @ 옛날말만 골아줘야 뒈여예.(옛날말만 말해줘야 돼요.)

107017 #1 ᄀᆞ레도 돌ᄏᆞ레. ᄀᆞ레엔 골아살 컬.(맷돌도 '돌맷돌'. 'ᄀᆞ레'엔 말해야 할 걸.)

107017 @ 맷돌에 골안예?(맷돌에 갈아서요?)

107017 #2 돌ᄏᆞ레에 골안은엥에.('돌맷돌'에 갈아서.)

107017 #2 돌ᄏᆞ레에 ᄒᆞ끔 물 ᄃᆞᆼ강 놔두민 것이 물 울어.('돌맷돌'에 조금 물 담가서 놔두면 것이 물 불어.)

107017 @ 예.(예.)

107017 #2 물 울어가민 물 꿰울 동안 헷당 그거를 영 비와놔. 비와놓민 이젠 거 놓곡 소곰 ᄒᆞ꼼 놓민 두부거치 올라와. 경허민 그땐 이젠 ᄂᆞ물이나 뭐 놔서 이제 소금 놓곡 이렇게 놓고.(물 불어가면 물 끓일 동안 했다가 그거를 이렇게 부어 넣어. 부어 넣으면 이젠 거 넣고 소금 조금 넣으면 두부같이 올라와. 그렇게 하면 그땐 이젠 배추나 뭐 놔서 이제 소금 넣고 이렇게 넣고.)

107017 @ 으음. 그 콩국 맛 좋은디.(으음. 그 콩국 맛 좋은데.)

107017 #2 끌렁 먹어. 그러면.(끓여서 먹어. 그러면.)

107018 @ (웃음). 예. 호박입국도 혜영 먹엇지예? 호박입국은 어떵 식으로 허는

거우과?((웃음). 예. 호박잎국도 해서 먹었지요? 호박잎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18 #2 호박입국도 이제 어떵 헤신가 허민 호박입 뜯어다가 그 우의 씰이 잇어.(호박잎국도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호박잎 뜯어다가 그 위에 실이 있어.)

107018 @ 예, 예.(예, 예.)

107018 #2 그거를 영 벳겨두고 이젠 물에다가 영 팍팍 이젠 주물러. 주물렁 이젠 팍팍허게시리 문질러놓곡 이젠 물을 팔팔 끓이는 거라. 끓여가지고 이제 저 그거를 집어놓고, 집ᄀᆞ를[204]이라고 헤여.(그거를 이렇게 벗겨두고 이젠 물에다가 이렇게 팍팍 이젠 주물러. 주물러서 이젠 팍팍하게끔 문질러놓고 이젠 물을 팔팔 끓이는 거야. 끓여가지고 이제 저 그거를 집어넣고, '깃가루'라고 해.)

107018 @ 예, 집ᄀᆞ를.(예, '깃가루'.)

107018 #2 보릿ᄀᆞ를이라도 잇어근에 물을 타서 영 서꺼. 그 저 물 꿰는 디레 영 주룩허게 비와놔근에 영 허영 젓이면 그렇게 맛 좋아.(보릿가루라도 있어서 물을 타서 이렇게 섞어. 그 저 물 끓는 데로 이렇게 주룩하게 부어놓아서 이렇게 해서 젓으면 그렇게 맛 좋아.)

107018 @ 으음.(으음.)

107018 #2 폴폴, 폴폴.(폴폴, 폴폴.)

107018 @ 예, 폴폴허영예. 그 호박입국은 무신 걸로 간혜여마씨?(예, 폴폴해서요. 그 호박잎국은 무슨 걸로 간해요?)

107018 #2 아, 소곰.(아, 소금.)

107018 @ 소곰으로 다.(소금으로 다.)

107018 #2 간장 이시면은 간장허지마는 그땐 간장이 없으니까. 소곰으로 주로 허연.(간장 있으면 간장하지만 그땐 간장이 없으니까. 소금으로 주로 했어.)

107018 @ 요즘은 호박입 할 때 뭐로 간헴수가?(요즘은 호박잎 할 때 뭐로 간하고 있습니까?)

107018 #2 간?(간?)

107018 @ 예.(예.)

107018 #2 소곰도 허고 또 간장, 간장.(소금도 하고 또 간장, 간장.)

107018 @ 음, 뭐가 맛 좋아?(음, 뭐가 맛 좋아?)

107018 #2 간장이 맛잇어.(간장이 맛있어.)

107018 @ 간장이 맛잇어마씨?(간장이 맛있어요?)

107018 #2 콩국에는 소금이 맛 좋는디 이 간장이.(콩국에는 소금이 맛 좋은데 간장이.)

107019 @ 아, 호박입국은 간장이 맛 좋구나예? 알앗수다. 여기 몸쿡도 하영 헤먹지예?(아, 호박잎국은 간장이 맛 좋군요? 알았습니다. 여기 모자반국도 많이 해먹었지요?)

---

204) '집ᄀᆞ를'은 보릿가루나 밀가루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107019 #2 몸쿡은 우린 춤 웃드르라부난 아녕 먹어봣주마는. 먹기는 먹엇는데 이젠 그것도 꼭같이 끓여. 물 팔팔 끓여 가면 아니, 요즘에는 그 뻬다귀덜이, 딸려서 끓여 먹는디 옛날에는.(모자반국은 우린 참 '웃드르'여버리니까 안해서 먹어봤지만. 먹기는 먹었는데 이젠 그것도 똑같이 끓여. 물 팔팔 끓어 가면 아니, 요즘에는 그 뼈다귀들이, 달여서 끓여 먹는데 옛날에는.)

107019 #1 뻬다귀가 어딧어.(웃음).(뼈다귀가 어디 있어.(웃음).)

107019 #2 놓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물 팔팔 끌여 가민 그 춤 사다가 뜯어다가 이젠 물류와. 헷빗에 물리왓다가 이젠 막 걸 주물러 빨아. 빠는 건 영 주물러근에 뺘는 거. 영 건정 짜. 짱 이젠 도마에서 막 썰어. 썰어가지고 물 팔팔 끓어 가민 이제 저 거를 솟듸에다가 집어놔.(넣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물 팔팔 끓어 가면 그 참 사다가 뜯어다가 이젠 말려. 햇볕에 말렸다가 이젠 막 걸 주물러 빨아. 빠는 건 이렇게 주물러서 빠는 거. 이렇게 건져서 짜. 짜서 이젠 도마에서 마구 썰어. 썰어가지고 물 팔팔 끓어 가면 이제 저 거를 솥에다가 집어넣어.)

107019 @ 음.(음.)

107019 #2 집어놓고 또 보릿ᄀᆞ를이라도 영 서끄면 ᄒᆞ꼼 것도 폴폴 경 허영 맛잇어.(집어넣고 또 보릿가루라도 이렇게 섞으면 조금 것도 폴폴 그렇게 해서 맛있어.)

107019 @ 음, 도마렌 헙니까? 무시건렌 헙니까?(음, 도마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107019 #1 돔베.(도마.)

107019 #2 돔베.(도마.)

107019 @ 돔베에 놩 썰어예?(도마에 넣어서 썰어요?)

107019 #2 돔베칼.(도마칼.)

107020 @ 돔베칼허고예? 셍선국. 여기는 저기 옥돔을 셍선이렌 헙니까? 여기는 오토미헙니까?(도마칼하고요? 옥돔국. 여기는 저기 옥돔을 '셍선'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오토미'합니까?)

107020 #2 그자 셍성이엔도 곧고 오토미엔도 곧곡. 오토미는 옛날에는 영 허영 넙삭헌 게 오토미고.(그저 '셍성'이라고도 말하고 '오토미'라고도 말하고. '오토미'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납작한 게 '오토미'이고.)

107020 @ 예.(예.)

107020 #2 영 이디 뭐 질쭉헌 게 셍선이옌 헷주게. 견디 이젠 아무 거라도 셍선이엔 허곡 오토미렌 허대.(이렇게 여기 뭐 길쭉한 게 생선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젠 아무 거라도 생선이라고 하고 '오토미'라고 하대.)

107020 @ 음, 게난 옛날 옥돔게, 옥돔은 여기서는 뭐렌 헤마씨?(음, 그러니까 옛날 옥돔, 옥돔은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107020 #2 요즘에?(요즘에?)

107020 @ 옛날에.(옛날에.)

107020 #2 옛날에.(옛날에.)

107020 @ 으.(으.)

107020 #2 게메, 옛날에는 옥도미엔도.(글쎄, 옛날에는 '옥도미'라고도.)

107020 #1 오토미가 셍선.('오토미'가 '셍선'.)

107020 @ 오토미옌. 이 동네는 오토미?('오토미'라고. 이 동네는 '오토미'?)

107020 # 오톰셍선국 끓엿어, 오랑 먹어.('오톰셍선국' 끓였어, 와서 먹어.)

107020 @ 오톰셍선국?('오톰셍선국'?)

107020 #2 미역 뿔아 놩 오톰셍성국 끓렷어, 왕 먹어봐.(미역 빨아 넣어서 옥돔국 끓였어, 와서 먹어봐.)

107020 @ 으음. 그거는 어느 철에 어느 때 먹는 거우과?(으음. 그거는 어느 철에 어느 때 먹는 겁니까?)

107020 #2 것도 경 아무나 먹어져? 식게 때나, 제사 때나 멩질 때나.(것도 그렇게 아무나 먹어져? 제사 때나, 제사 때나 명절 때나.)

107020 #1 (웃음).

107020 #2 (웃음).

107020 @ 오톰셍성은 메역 놩은에 헤야예?(옥돔미역국은 미역 넣어서 해야 해요?)

107020 #2 메역 놩.(미역 넣어서.)

107022 @ 아, 메역 놔야 맛 좋은 거구나, 그거는. 그리고 냉국덜도 하영 먹어실 거 아니라예? 뭘로 해서 냉국 헙니까?(아, 미역 놔야 맛 좋은 거구나, 그거는. 그리고 냉국들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닌가요? 무엇으로 해서 냉국 합니까?)

107022 #2 그젠 그 톨 잇지이?(그젠 그 톳 있지?)

107022 @ 예, 예.(예, 예.)

107022 #2 톨.(톳.)

107022 @ 톨.(톳.)

107022 #2 그거다가 이제 우리는 바닷가에, 멘촌[205]이난 바닷가에 사니까 막나 어린 때에.(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바닷가에, '멘촌'이니까 바닷가에 사니까 매우 내가 어린 때에.)

107022 @ 예.(예.)

107022 #2 이제 그거 뜯어다가 물려가지고, 거 뿔아가지고 이제 썰어가지고 된장 풀어 놩 이제 냉국 헤 먹으민 그렇게 맛잇어.(이제 그거 뜯어다가 말려가지고, 거 빨아가지고 이제 썰어가지고 된장 풀어 넣어서 이제 냉국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107022 @ 음.(음.)

107022 #2 이제도 헤봐, 먹어봐 맛잇어.(이제도 해봐, 먹어봐 맛있어.)

107022 @ 예. 초나 좀 놓고예?(예. 초나 좀 넣고요?)

---

205) '멘촌'은 제주시 도련2동의 옛 이름이다.

107022 #2 옛날은 식초도 없으니까 이제 밥 허여가지고 누룩 놓고 이젠 단지에다가 이렇게 담앙 놔두면 부각부각 막 궤여와. 이젠 먹지도 안헤. 경허민 그디 벌레가 궤여이.(옛날은 식초도 없으니까 이제 밥 해가지고 누룩 넣고 이젠 단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놔두면 보각보각 마구 괴어. 이젠 먹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 거기 벌레가 끓어.)

107022 @ 예.(예.)

107022 #2 벌레가 궤면은 이젠 그거를 영 헤쳐 두고 그렇게 맛잇어, 식초가.(벌레가 끓으면 이젠 그거를 이렇게 헤쳐 두고 그렇게 맛있어, 식초가.)

107022 @ 예, 누룩으로예?(예, 누룩으로요?)

107022 #2 경 허영 만들앙 그거 먹곡.(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거 먹고.)

107022 @ 음.(음.)

107022 #1 또 물웨, 츰웨, 츰웨도 좋고.(또 물외, 참외, 참외도 좋고.)

107022 #2 츰웨냉국?(참외냉국?)

107022 #1 츰웨냉국 안헷어, 무사?(참외냉국 않았어, 왜?)

107022 @ 츰웨냉국예?(참외냉국요?)

107022 #1 이제도 맛잇어.(이제도 맛있어.)

107022 @ 츰웨로도 냉국해예? 츰웬 어떤 식으로마씨?(참외로도 냉국해여? 참외는 어떤 식으로요?)

107022 #1 돌아.(달아.)

107022 @ 익은 걸로?(익은 걸로?)

107022 #2 익은 것도 맛잇고 선 것도 맛잇고.(익은 것도 맛있고 선 것도 맛있고.)

107022 @ 예.(예.)

107022 #1 싹허게 거세기 가까가지고 씨 딱 빠지고 딱딱 썰어가지고 냉국 해봐, 이제도 맛잇어.(싹하게 거시기 깎아가지고 씨 딱 빠지고 딱딱 썰어가지고 냉국 해봐, 이제도 맛있어.)

107022 @ 아아.(아아.)

107022 #1 물웨허고.(물외하고.)

107022 @ 츰웨냉국 허는구나예?(참외냉국 하는군요?)

107022 #2 츰웨냉국도 헤영 먹고 물웨냉국도 허영 먹고. 냉국 못허는 게 없어, 그건.(참외냉국도 해서 먹고 물외냉국도 해서 먹고. 냉국 못하는 게 없어, 그건.)

107022 @ ᄂᆞᄆᆞᆯ로도 허고, 메역도 허고.(배추로도 하고, 미역도 하고.)

107022 #2 냉국 못허는 게 엇어. 아무 걸로라도 허민 냉국이 뒈여.(냉국 못하는 게 없어. 아무 걸로라도 하면 냉국이 되어.)

107022 @ 삼춘네는 주로 허는 게 아까 이제 톨허고?(삼촌네는 주로 하는 게 아까 이제 톳하고?)

107022 #2 톨허고.(톳하고.)

107022 @ 물웨허곡?(물외하고?)

107022 #2 옛날은 물웨가 없었지. 어디 흔 밧 갈면 그디 강 사오면 그거 먹엇주. 돈이 잇엉 사먹언져?(옛날은 물외가 없었지. 어디 한 밭 갈면 거기 가서 사오면 그거 먹었지. 돈이 있어서 사먹기는 해?)

107022 @ 예.(예.)

107022 @ 거난 주로 이제 여름에는 ᄆᆞᆯ령 놔뒷당.(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름에는 말려서 놔뒀다가)

107022 #2 ᄆᆞᆯ령 놔뒷당은에게 톨냉국도 헤영 먹고.(말려서 놔뒀다가 톳냉국도 해서 먹고.)

107022 #1 저장 방법이난에.(저장 방법이니까.)

107022 #2 ᄂᆞ물쿡도 헤근엥에 ᄂᆞ물 솖아근엔게 냉국도 헤영 먹고.(배춧국도 해서 배추 삶아서 냉국도 해서 먹고.)

107023 @ 예, 그 다음에 여기 바당에서 난 성게국도. 여기 성게를 뭐렌 헙니까? 이 동네.(예,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서 난 성겟국도. 여기 성게를 뭐라고 합니까? 이 동네.)

107023 #1 퀴.(성게.)

107023 @ 퀴?('퀴'?)

107023 #2 이제야 성게국이야 하간 거 헷주. 그땐 성게국도 없었어.(이제야 성겟국이다 온갖 거 했지. 그땐 성겟국도 없었어.)

107023 @ 옛날은 퀴?(옛날은 '퀴'?)

107023 #2 퀴 잡앙 그냥 그자 까먹음이나 헷주.(성게 잡아서 그냥 그저 까먹음이나 했지.)

107023 #1 까시 없이 노스르름 파르스름 헌 건 솖이엔 ᄀᆞᆯ아나고.(가시 없이 노스르름 파르스름 한 건 말똥성게라고 말했었고.)

107023 @ 예, 솖이고 이거는 퀴고.(예, 말똥성게고 이거는 성게고.)

107023 #1 으. 까시가 이렇게 잇는 것은 퀴고.(으. 가시가 이렇게 있는 것은 성게고.)

107023 @ 예.(예.)

107023 #2 이젠 ᄆᆞᆯ똥버섯이렌[206] 허대.(이젠 말똥버섯이라고 하대.)

107023 @ ᄆᆞᆯ똥성게.(ᄆᆞᆯ똥성게.)

107023 #1 말똥성게?(말똥성게?)

107023 @ 그게 표준어. 음, 그 보말국도 헤먹읍니까? 여기.(그게 표준어. 음, 그 보말국도 헤먹읍니까? 여기.)

107023 #2 으.(으.)

107023 @ 그건 어떤 식으로 헤영 먹어?(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먹어?)

---

206) 'ᄆᆞᆯ똥버섯이레'은 '말똥버섯이라고'의 의미다. 여기에서는 구술자가 'ᄆᆞᆯ똥성게'를 'ᄆᆞᆯ똥버섯'이라고 잘못 발음한 것이다.

107023 #2 것도 그렇게. 메역 뿔아 놓고 이젠 보말 까서 이젠 그냥 놩도 먹고. 이제 모살에서 잡은 거난 모살 잇지.(것도 그렇게. 미역 빨아 넣고 이젠 고둥 까서 이젠 그냥 넣어서도 먹고. 이제 모래에서 잡은 거니까 모래 있지.)

107023 @ 예, 예. 여기 삼양 요디 바다가예.(예, 예. 여기 삼양 여기 바다가요.)

107023 # 주물러. 주물러가지고 이젠 막 걸 주물러가지고 그 똥이엔 헌 거 잇지. 게민 그 똥엔 모살이 경 마녀. 영 주물러가지고 따라놔. 따라 놓면 아래 모살이 많이 잇어. 경 헤영 메역 뿔아 놩 국 끓이민 맛잇어.(주물러. 주물러가지고 이젠 마구 걸 주물러가지고 그 똥이라고 한 거 있지. 그러면 그 똥엔 모래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따라놔. 따라 놓으면 아래 모래가 많이 있어. 그렇게 해서 미역 빨아 넣어서 국 끓이면 맛있어.)

107023 @ 메역예? 넙패로도 국 헙니까?(미역요? 넓패로도 국 합니까?)

107023 #2 으.(으.)

107023 @ 넙패는 어떤 식으로?(넓패는 어떤 식으로?)

107023 #2 넙패도. 메역국이나 똑같아. 가시리국도 똑 가뜨고.(넓패도. 미역국이나 똑같아. 풀가사리국도 똑같고.)

107023 @ 가시리국도 허고, ᄑᆞ레국도 하고?(풀가사리국도 하고, 파래국도 하고?)

107023 #2 ᄑᆞ레국도 허곡. 못허는 게 없어.(파래국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

107023 @ 물훼도 헤마씨? 무신거 물훼헷수가?(물회도 해요? 무엇 물회했습니까?)

107023 #2 물훼야 자리물훼도 오징어물훼도 잇고, 하간 거 뭐. 물훼 못 헤먹는 것도 엇어.(물회야 자리물회도 오징어물회도 있고, 온갖 거 뭐. 물회 못 해먹는 것도 없어.)

107023 @ 음.(음.)

107023 #2 요즘엔 뭐 갈치로도 헤 먹대.(요즘엔 뭐 갈치로도 해 먹대.)

107023 @ 갈치로예?(갈치로요?)

107023 #2 우리는 주로 옛날에 자돔.(우리는 주로 옛날에 자리돔.)

107023 @ 자돔?(자리돔?)

107023 #2 자리ᄀᆞ라 자돔?(자리보고 '자돔'?)

107023 @ 여기에서는 자돔이렌 헤예? 아아.(여기에서는 '자돔'이라고 해요? 아아.)

107023 #2 자돔. 가시 빼내영 가시 영 짤라내고 ᄃᆞ가리 짤르고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자리물훼 허민 그렇게 맛잇을 수가 없어.(자리돔. 가시 빼내서 가시 이렇게 잘라내고 대가리 자르고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자리물회 하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107023 @ 음.(음.)

107023 #2 그것에다가 이제 생강 마늘이나 쫌 놓고 이제 세우리라도 좀. 새우린

정구지[207]이.(그것에다가 이제 생강 마늘이나 좀 넣고 이제 부추라도 좀. 부춘 '정구지'.)

107023 @ 네.(네.)

107023 #2 정구지 영 썰어 놔가지고 맛잇어.(부추 이렇게 썰어 넣어가지고 맛있어.)

107023 @ 음.(음.)

107023 #2 깻잎도 썰어 놓고.(깻잎도 썰어 넣고.)

107023 @ 깻잎도 놓고, 그 다음에 그 저 뭣도 놓읍니까? 쥐피 이런 거.(깻잎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저 뭣도 넣습니까? 초피 이런 거.)

107023 #2 이제난 자리물훼에는 쥐피가 놔야 허는디 그전읜 제피 먹을 줄도 몰랏어.(이제니까 자리물회에는 초피를 넣어야 하는데 그전에는 초피 먹을 줄도 몰랐어.)

107023 @ 예전에는?(예전에는?)

107023 #2 뜯어다가.(뜯어다가.)

107023 @ 예.(예.)

107023 #2 지이만 담아 먹엇지. 물웨 담아 먹엇어.(장아찌만 담가 먹었지. 물외 담가 먹었어.)

107023 @ 아, 옛날 제피 지 담아수과? 제피지는 게민 제피지 헤? 뭐렌 해?(아, 옛날 초피 장아찌 담갔습니까? 초피장아찌는 그러면 '제피지' 해? 뭐라고 해?)

107023 #2 제피지시.('제피지시'.)

107023 @ 제피지시?('제피지시'?)

107023 #2 으.(으.)

107023 @ 옛날도 제피지시 헷구나?(옛날도 초피장아찌 했구나?)

107023 #2 으음.(으음.)

107023 @ 절에서나 이렇게 헨게마는.(절에서나 이렇게 하더니만.)

107023 #2 아니.(아니.)

107023 @ 아아.(아아.)

107023 #2 우리도 뜯어다가 헤영 먹어낫어.(우리도 뜯어다가 해서 먹었었어.)

107023 @ 어떤 식으로 허는지 골아줍서.(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107023 #2 그거는 지시 담듯. 다른 지이 담듯.(그거는 장아찌 담그듯. 다른 장아찌 담그듯.)

107023 @ 음.(음.)

107023 #2 장에. 간장에다가 기냥 당그민 뒈는 거.(장에. 간장에다가 그냥 담그면 되는 거.)

107023 @ 음.(음.)

107023 #2 이제는 짜게 안 먹어. 옛날은 쪼끔씩 먹을라고 허지마는 이제는 다른

207) '정구지'는 '부추'를 경상도 등지에서 부르는 말이다. 제주에서는 '새우리'라고 한다.

거 뭐 미향이나 무신거 서꺼가지고 뭐 간장에다가 서꺼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부어 놓민 뒈주마는.(이제는 짜게 안 먹어. 옛날은 조끔씩 먹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거 뭐 미향이나 무엇 섞어가지고 뭐 간장에다가 섞어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부어 넣으면 되지만.)

107023 @ 으음, 옛날 허던 방식은?(으음, 옛날 하던 방식은?)

107023 #2 옛날은 기냥 간장만 비와놓곡 그냥 먹엇주.(옛날은 그냥 간장만 부어 넣고 그냥 먹었지.)

107023 @ 음, 지시혜갖고.(음, 장아찌 해가지고.)

107023 @ 마농시지허듯이예. 아아, 제피도 헷수가?(마늘장아찌 하듯이요. 아아, 초피도 했습니까?)

107023 #2 지시도 못 담는 게 엇어.(장아찌도 못 담그는 게 없어.)

107023 @ 음.(음.)

107023 #2 다 둠으민 지시가 뒈는 거.(다 담그면 장아찌가 되는 거.)

107023 @ 옛날은 지시 뭐 뭐 담아수과?(옛날은 장아찌 뭐 뭐 담갔습니까?)

107023 #2 마늘지허고 쥐피지시허고 무수지시도 허고.(마늘장아찌하고 초피장아찌하고 무장아찌도 하고.)

107023 @ 아, 옛날도 무수지시 헷어예? 아아.(아, 옛날도 무장아찌 했어요? 아아.)

107023 #2 무수만 이시민.(무만 있으면.)

107023 @ 음.(음.)

107023 #2 몰라. 우리 전에는 어떵 헤여신디 우리 커오면서 이제 보아오건딘 그렇게만 헷으니까.(몰라. 우리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커오면서 이제 보아오건덴 그렇게만 했으니까.)

107023 @ 예, 예. 몸치시도 헤봅디가?(예, 예. 모자반장아찌도 해봤습니까?)

107023 #2 아니, 그런 건 아녀 봔.(아니, 그런 건 아니 해 봤어.)

107023 @ 아, 몸은 안 허고 뒌장에 담아 보거나 안 허고.(아, 모자반은 안 하고 된장에 담가 보거나 안 하고.)

107023 #2 몸은 그냥 헤당 국 끓여먹는 거. 뒌장국 끌렁 먹는 거. 그거 혼 가지.(모자반은 그냥 해다가 국 끓여먹는 거. 된장국 끓여서 먹는 거. 그거 한 가지.)

107023 @ 저쪽 서쪽에 가면 몸치시를 하영 먹언게.(저쪽 서쪽에 가면 모자반장아찌를 많이 먹던데.)

107023 #2 거기는 못허는 게 없어. 바당에 거 헤당 다 지시도 담아먹고. 못허는 게 없대. 요새 영 테레비에 보면.(거기는 못하는 게 없어. 바다에 거 해다가 다 장아찌도 담가먹고. 못하는 게 없대. 요새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

107023 @ 여기는 몸치시는 안 헤 봣구나예. 그렇구나. 아이고, 오늘 하영 헤부난 ᄒᆞ꼼 그만 허쿠다. 다음에 오쿠다.(여기는 모자반장아찌는 안 해 봤군요. 그렇구나. 아이고, 오늘 많이 해버리니까 조금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107023 #2 경허여.(그렇게 해.)

107023 @ 예에, 삼춘도 버치고.(예에, 삼촌도 부치고.)

죽류

107024 @ 옛날 죽 헷던 종류들은 어떤 종류들이 잇어신고예?(옛날 죽 했던 종류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었을까요?)

107024 #2 죽 못 쓰는 거 엇주.(죽 못 쓰는 거 없지.)

107024 @ 못 쓰는 거 엇어예? 골아 봅서.(못 쓰는 거 없어요? 말해 보십시오.)

107024 #2 콩죽이민 콩죽.(콩죽이면 콩죽.)

107024 @ 예.(예.)

107024 #2 풋죽이민 풋죽.(팥죽이면 팥죽.)

107024 @ 예.(예.)

107024 #2 또 쌀죽이믄 쌀죽.(또 쌀죽이면 쌀죽.)

107024 @ 예.(예.)

107024 #2 흰쌀죽이민 흰쌀쭉. 녹듸죽이민 녹두죽. 또 거세기 뭐.(흰죽이면 흰죽. 녹두죽이면 녹두죽. 또 거시기 뭐.)

107024 #1 보리, 조.(보리, 조.)

107024 #2 못 쑤는 게 없어. 아무 거라도 쑤민 뒈여.(못 쑤는 게 없어. 아무 거라도 쑤면 되어.)

107024 @ 예.(예.)

107024 #1 콩, 풋 하여간 곡식 명칭 가진 건 전부 죽을 만들 수 잇이니까.(콩, 팥 하여간 곡식 명칭 가진 건 전부 죽을 만들 수 있으니까.)

107025 @ 게민 하나씩 게믄 이젠 새로 물어보쿠다. 그 쏠죽예? 흰죽, 산듸죽 곤죽 여기선 뭐렌 골읍니까?(그러면 하나씩 그러면 이젠 새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쌀죽요? 흰죽, 밭벼쌀죽 흰죽 여기선 뭐라고 말합니까?)

107025 #2 저 기냥 쌀로만 쑨 건 옛날엔 “아이고, 곤죽 쒕 주라.” 경 허영.(저 그냥 쌀로만 쑨 건 옛날엔 “아이고, ‘곤죽’ 쒀서 주라.” 그렇게 해서.)

107025 @ 예, 게민 곤죽은?(예, 그러면 흰죽은?)

107025 #2 아파가민.(아파가면.)

107025 @ 아파가민, 곤죽은 어떤 식으로 쑤는 건지, 뭘로 쑤는 건지 골아줍서.(아파가면, 흰죽은 어떤 식으로 쑤는 건지, 무엇으로 쑤는 건지 말해 주십시오.)

107025 #2 쌀 싹싹 씻어놓고, 옛날은 이 육지서 안 왕 여기서 갈산듸를 허기 따문에 죽 쒀도 ᄒᆞ꼼 물이 칼칼칼칼허여이. 그래도 것이 곤죽이라고.(쌀 싹싹 씻어놓고, 옛날은 이 육지서 안 와서 여기서 ‘갈산듸’를 하기 때문에 죽 쒀도 조금 물이 칼칼칼칼해. 그래도 것이 곤죽이라고.)

107025 @ 음.(음.)

107025 #2 허여서 허영 허곡.(해서 해서 하고.)

107025 @ 음.(음.)

107025 #2 그 다음에는 나록쏠 들어오니까 쑬, 죽을 쑤민 맛있어.(그 다음에는 볍쌀 들어오니까 쑬, 죽을 쑤면 맛있어.)

107025 @ 음.(음.)

107025 #2 경 허영 아무 것도 안 놩은에, 아팡 어디 머리나 아팡 머리나 아팡 누민 저 흰죽 쒀근에 먹엉 뜸 제와사켜. 경허여근에.(그렇게 아무 것도 안 넣어서, 아파서 어디 머리나 아파서 머리나 아파서 누우면 저 흰죽 쒀서 먹어서 땀 재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107029 #1 패마농 썰어 놓곡. 무물축은 감기에 좋고. 패마농 썰어 놩 허민.(파 썰어 넣고. 메밀쌀죽은 감기에 좋고. 파 썰어 넣어서 하면.)

107029 #2 메밀축은 패마농 썰어 놓고 먹어서 푹 뜸내민 감기가 좋아.(메밀쌀죽은 파 썰어 넣고 먹어서 푹 땀내면 감기가 좋아.)

107029 @ 음, 게난 옛날들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집의서 다예, 치료?(음, 그러니까 옛날들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다 집에서 다요, 치료?)

107029 #2 병원이 어디 잇어?(병원이 어디 있어?)

107029 #1 자가 치료.(자가 치료.)

107029 @ 예.(예.)

107029 #2 우리 클 때에 애기덜 주사 놓젠 허민 주사도 엇언 나냥으로 주사 사당 꾹꾹 찔르멍 놧어.(우리 클 때에 아기들 주사 놓으려고 하면 주사도 없어서 나대로 주사 사다가 꾹꾹 찌르면서 놨어.)

107029 @ 아이고, 뭐.(아이고, 뭐.)

107029 #2 아방[208]은 또 저 군인 가불고 헤 놓니까.(남편은 또 저 군대 가버리고 해 놓으니까.)

107026 @ 음,(음,)

107026 #2 게니까.(그러니까.)

107026 #@ 예. 그 다음에 이 좁썰죽도 쒓지예?(예. 그 다음에 이 좁쌀죽도 쒔지요?)

107026 #2 음.(음.)

107026 @ 그 좁쏠죽은 어떵 쑤는 거우과?(그 좁쌀죽은 어떻게 쑤는 겁니까?)

107026 #2 좁쏠 모인좁쏠이나 흐린좁쏠이나 놩 그자 고대로 쑤는 거라. 그냥 장도 안 놓고 허여서 옛날 지 잇잖아. 이 장아찌라고.(좁쌀 메좁쌀이나 차좁쌀이나 넣어서 그저 그대로 쑤는 거야. 그냥 장도 안 넣고 해서 옛날 장아찌 있잖아. 이 장아찌라고.)

107026 @ 예, 예.(예, 예.)

107026 #2 이제 장아찌옌 허지마는.(이제 장아찌라고 하지만.)

107026 #1 지시.('지시'.)

208) 여기에서 '아방'은 구술자 이술생 씨가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07026 #2 마늘. 콥데사니 마늘 혜영 장아찌 듬앗다가.(마늘. '콥데사니' 마늘 해서 장아찌 담갔다가.)

107026 @ 예.(예.)

107026 #2 그거 흔 쪼가리 갖다 놓곡 이제 그 죽 쒀서 그거 조청 먹는 거.(그거 한 쪼가리 갖다 넣고 이제 그 죽 쒀서 그거 찍어서 먹는 거.)

107026 @ 으, 조청 먹는 거예? 그 게난 좁썰죽을 하영 헹 먹을 거 아니라예? 좁쏠죽을 무신 죽 헷수가?(으, 찍어서 먹는 거요? 그 그러니까 좁쌀죽을 많이 해서 먹을 거 아닌가요? 좁쌀죽을 무슨 죽 했습니까?)

107026 #2 뭐 히린 걸로도 쒀 먹고, 모힌 걸로도 쒕 먹고 노랑좁쏠[209], 모인좁쏠로도 혜영 먹고 히린개발시리쏠[210]로도 혜영 먹곡.(뭐 차진 걸로도 쒀 먹고, 메진 걸로도 쒀서 먹고 '노랑좁쌀', 메진좁쌀로도 해서 먹고 '차진개발시리쌀'로도 해서 먹고.)

107026 @ 음, 경 쑨 죽은 무슨 죽?(음, 그렇게 쑨 죽은 무슨 죽?)

107026 #2 거 좁쏠죽.(거 좁쌀죽.)

107026 @ 좁쏠죽예?(좁쌀죽요?)

107026 #2 개발시리쏠 놔근엥에 죽 쑤라 허민 검은개발시리죽[211].("'개발시리쌀' 넣어서 죽 쑤라." 하면 '검은개발시리죽'.)

107026 @ 음.(음.)

107026 #2 또 모힌좁쏠 놩 죽 쑤라 허민 그 죽이 그 모힌좁쏠 놓민 저 거세기 맛이 잇어이.(또 "메좁쌀 넣어서 죽 쑤라." 하면 그 죽이 그 메좁쌀 넣으면 저 거시기 맛이 있어.)

107026 @ 아.(아.)

107026 #2 노랑헌 거.(노란 거.)

107026 @ 예.(예.)

107026 #2 그거 허영 죽 쒕은에 이젠 잘도 비싸. 그런 쏠은. 거 허영도 죽 쒕 먹고. 못 쒀 먹는 게 엇어. 아무 거라도 죽은 쒀.(그거 해서 죽 쒀서 이젠 잘도 비싸. 그런 쌀은. 거 해서도 죽 쒀서 먹고. 못 쒀 먹는 게 없어. 아무 거라도 죽은 쒀.)

107026 #1 췌고의 죽은 꿰죽.(최고의 죽은 참깨죽.)

107033 @ 아, 꿰죽. 아, 그러면은 꿰죽은 어떤 식으로 쑤는 거마씨?(아, 참깨죽. 아, 그러면 참깨죽은 어떤 식으로 쑤는 거예요?)

107033 #2 꿰죽에는 이제, 이제난 거세기허주. 꿰허곡 이제 저 쌀허고 놔서 거 방엣혹.(참깨죽에는 이제, 이제니까 거시기하지. 참깨하고 이제 저 쌀하고 넣어서

209) '노랑좁쏠'은 색깔이 노란 좁쌀로써, 메진 좁쌀을 가리킨다.

210) '히린개발시리쏠'은 '히린개발시리쌀'이라는 의미다. '히린개발시리'는 차진 좁쌀의 품종의 하나다. '히린-'은 지역에 따라서 '흐린-'이라고도 하는데, 좁쌀 따위의 앞에 붙어서 '차진-'의 의미다. '개발시리'은 조 품종의 한 가지로, 조 이삭 끄트머리가 개 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211) '검은개발시리죽'은 '검은개발시리'로 쑨 죽을 말한다. 여기에서 '검은-'은 '개발시리'의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보통 차진 좁쌀의 한 종류다.

거 방아확.)

107033 @ 예.(예.)

107033 #2 도고방에. 것에 막 ᄒᆞ꼼 찧어.(도고방아. 것에 마구 조금 찧어.)

107033 @ 쏠허고 꿰허곡 ᄀᆞ치 놔.(쌀하고 참깨하고 같이 넣어.)

107033 #2 경 허영 ᄲᅳᆺ아근에 쒀먹고.(그렇게 해서 빻아서 쒀먹고.)

107033 @ 옛날은.(옛날은.)

107033 #2 이제는 막 쉬와. 또 어떵헌가 허민 그거를 꿰를 보까. 보까서 기냥 믹서기에 싹 ᄀᆞᆯ아근에 기냥 쑤면은 그렇게 맛 좋고.(이제는 매우 쉬워.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거를 참깨를 볶아. 볶아서 그냥 믹서기에 싹 갈아서 그냥 쑤면 그렇게 맛 좋고.)

107033 @ 음, 삼춘, 꿰죽을 잘 쑤는구나, 예?(웃음).(음, 삼춘, 참깨죽을 잘 쑤는구나, 예?(웃음).)

107033 #2 뭐 경 허영 껌은꿰로도 쑤고 노랑꿰[212]로도 쑤고. 이제난 흰 꿰가 나왓지 그때 당시엔 흰꿰[213]는 없었어.(뭐 그렇게 해서 검은깨로도 쑤고 '노란깨'로도 쑤고. 이제니까 '흰깨'가 나왔지 그때 당시엔 '흰깨'는 없었어.)

107033 @ 아아.(아아.)

107033 #1 노랑꿰.('노란깨'.)

107033 #2 노랑꿰 아니민 빨강꿰[214] 잇고 껌은꿰 잇고.('노란깨' 아니면 '빨간깨' 있고 검은깨 있고.)

107033 @ 아, 색깔이예?(아, 색깔이요?)

107033 #2 경헷주.(그렇게 했지.)

107033 @ 무신걸로 쑨 죽이 맛 좋아마씨?(무엇으로 쑨 죽이 맛 좋아요?)

107033 #2 다.(다.)

107033 @ 다, 꿰죽은 뭐 고소허난예?(다, 참깨죽은 뭐 고소하니까요?)

107033 #2 꿰죽은 다 맛 좋아.(참깨죽은 다 맛 좋아.)

107027 @ 폿죽은 어떤 식으로 썻수과?(팥죽은 어떤 식으로 쒔습니까?)

107027 #2 ᄆᆞᆫ저 번에 ᄀᆞᆯ앗는데.(먼저 번에 말했는데.)

107027 @ 예, 그래도 또 ᄀᆞᆯ아야 뒈쿠다.(예, 그래도 또 말해야 되겠습니다.)

107027 #2 팟죽은 이제 엿날은 쌀이, 곤쏠이 엇이니까 모힌좁쏠 놔서.(팥죽은 이제 옛날은 쌀이, 흰쌀이 없으니까 메좁쌀 넣어서.)

107027 @ 음.(음.)

107027 #2 폿 솖아가지고.(팥 삶아가지고.)

107027 @ 예.(예.)

107027 #2 막 영 쭈물러. 쭈물러 가지고, 이젠 그레 쌀 놓고 허영 쒀.(마구 이렇

212) '노랑꿰'는 '검은깨'에 빗대서 색깔이 노르스름해서 붙은 참깨 이름이다. '꿰'는 표준어 '참깨'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213) '흰꿰'은 색깔이 희어서 붙은 참깨 이름이다.

214) '빨강꿰'은 참깨 색깔이 붉으스름해서 붙은 이름이다.

게 주물러. 주물러 가지고, 이젠 그리로 쌀 넣고 해서 쒀.)

107027 @ 음.(음.)

107027 #2 좁쏠이라도 모힌좁쏠엔 헌 건 그 노랑헌 좁쏠 잇잖아.(좁쌀이어도 메좁쌀이라고 한 건 그 노란 좁쌀 있잖아.)

107027 @ 예예.(예예.)

107027 #2 히리지 아년 좁쏠. 히린좁쏠도 잇어낫주. 그건 잘도 맛잇어난디 히린 좁쏠은 이제 그 죽을 못 쑤고.(차지지 않은 좁쌀. 차좁쌀도 있었었지. 그건 잘도 맛있었는데 차좁쌀은 이제 그 죽을 못 쑤고.)

107027 @ 음.(음.)

107027 #2 이 히린 거엔 헌 거는 이 소금이나 뭐 놔불면 기냥 사르륵허게시리 물이 흘러불어.(이 차진 거라고 한 거는 이 소금이나 뭐 놔버리면 그냥 사르륵하게끔 물이 흘러버려.)

107027 @ 아, 흐린 건예?(아, 흐린 건요?)

107027 #2 노린 거는 그냥 풀풀 헤영 놩 잇는디, 경허기 따문에 히린 걸로는 소금 놩 쑤는 건 안 뒈여.(노린 거는 그냥 풀풀 해서 넣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진 걸로는 소금 넣어서 쑤는 건 안 돼.)

107027 @ 아, 아, 그것도, 그러면은 우리 그 찹쏠 이런 것도 잘 안 허겟다예? 소금 놩 허는 건?(아, 아, 그것도, 그러면 우리 그 참쌀 이런 것도 잘 안 하겠네요? 소금 넣어서 하는 건?)

107027 #2 찹쏠죽도 고대로 먹고, 그대로 쒀서 먹고.(찹쌀죽도 그대로 먹고, 그대로 쒀서 먹고.)

107028 @ 콩죽은 하영 헤 먹엇덴 허멍예? 콩죽은 어떤 식으로 헷수가?(콩죽은 많이 해 먹었다고 하면서요? 콩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7028 #2 콩죽은 그 맷돌 방에 저것에 이렇게 골아가지고.(콩죽은 그 맷돌 방아 저것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107028 @ 으.(으.)

107028 #2 이젠 그 ᄀᆞ를을 이젠 콩까르를 모힌좁쏠 그 노랑좁쏠.(이젠 그 가루를 이젠 콩가루를 메좁쌀 그 노란좁쌀.)

107028 @ 예.(예.)

107028 #2 이렇게 서껑. 물 팔팔 끌어가믄 영 놩 영 젓어.(이렇게 섞어서. 물 팔팔 끓어가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저어.)

107028 @ 음.(음.)

107028 #2 젓엉 젓이면 옛날은 남주걱.(저어서 저으면 옛날은 나무주걱.)

107028 @ 예.(예.)

107028 #2 그거를 이렇게 계속 젓으멍 쒀가민 것이 죽이 뒈여.(그거를 이렇게 계속 저으면서 쒀가면 것이 죽이 되어.)

107028 @ 음.(음.)

107028 #2 그러믄 이젠 불롸 먹기 위해서 그 죽에다가 막 무신 ᄂᆞᄆᆞᆯ입이나 뭣을 헤당 막 놓는 거라.(그러면 이젠 불려서 먹기 위해서 그 죽에다가 마구 무슨 배춧잎이나 뭣을 해다가 마구 넣는 거야.)

107028 @ 음.(음.)

107028 #2 놔서 허민 좀 많지게.(넣어서 하면 좀 많지.)

107028 @ 음.(음.)

107028 #2 쏠 혼 좀 놔서 쒀 먹젠 허민 다 식구가 못 먹을 거니까 하간 푸성거리 헤사 허여. 엿날은 달래 이제는 꿩마농엔 허지. 그때는 꿩마농엔 헌 거 거 캐여 놓고, 저 냉이.(쌀 한 줌 놔서 쒀 먹으려고 하면 다 식구가 못 먹을 거니까 온갖 푸성귀 해야 해. 옛날은 달래 이제는 '꿩마농'이라고 하지. 그때는 달래라고 한 거 거 캐어 놓고, 저 냉이.)

107028 @ 예.(예.)

107028 #2 이제 난시.(이제 '난시'.)

107028 @ 난시.(냉이.)

107028 #2 그거를 밧듸 가민 막 하지. 그거 헤다가가 죽 쑤민 그렇게 맛 좋을 수 없어.(그거를 밭에 가면 매우 많지. 그거 해다가 죽 쑤면 그렇게 맛 좋을 수 없어.)

107028 @ 맛 좋을 수밖에 없지예? 그 향이랑예?(맛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 향이랑요?)

107028 #2 경 허영 먹고 살앗어.(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

107028 @ 게믄 보통 이제 꿩마농허고 난시?(그러면 보통 이제 달래하고 냉이?)

107028 #2 이젠 꿩마농도 엇어.(이젠 달래도 없어.)

107028 @ 경허니까 비료 하도 줘불고 약 쳐불고.(그렇게 하니까 비료 하도 줘버리고 약 쳐버리고.)

107028 #1 제초제 때문에.(제초제 때문에.)

107028 @ 예, 아, 콩에 꿩마농허고 이제 난시허고 놩은에?(예, 아, 콩에 달래하고 이제 냉이하고 넣어서?)

107028 #2 그렇게 맛잇어. 콩국에도 그렇게 허민 맛 좋고.(그렇게 맛있어. 콩국에도 그렇게 하면 맛 좋고.)

107028 @ 예.(예.)

107028 #2 또 죽에도 그렇게 그거 두 가지를 놓면은 그렇게 맛 좋을 수 엇어.(또 죽에도 그렇게 그거 두 가지를 넣으면 그렇게 맛 좋을 수 없어.)

107028 @ 음.(음.)

107028 #2 게민 막 그젠 어디 조크르[215]에 ᄀᆞ튼 디 기냥 밧데기로 이젠 막 그냥 ᄒᆞ꼼허민 개간허여근에 뭐 딴 거 허고 딴 거 허주마는, 그 농ᄉᆞ짓도록은 그 밧

215) '조그르'는 조를 수확한 후 베어난 자리라는 의미다. '그르'는 표준어 '그루'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을 놔두거든.(그러면 막 그젠 어디 '조그루' 같은 데 그냥 밭떼기로 이젠 막 그냥 조금하면 개간해서 뭐 딴 거 하고 딴 거 하지만, 그 농사짓도록 그 밭을 놔두거든.)

107028 @ 예, 예.(예, 예.)

107028 #2 게믄 그디 강 막 헤여 오는 거라. 달래고 춤 무시거 난시고.(그러면 거기 가서 마구 해오는 거야. 달래고 참 무엇 냉이고.)

107028 @ 예.(예.)

107028 #2 경 캐여다근엥에 막 죽 흔 이만치 헤당은에 막 퍼놔. 게민 죽이 뒈거든.(그렇게 캐다가 마구 죽 한 이만큼 해다가 마구 퍼놔. 그러면 죽이 되거든.)

107028 @ 으음.(으음.)

107028 #2 멧 사발 늘어나거든. 경허연 먹언.(몇 사발 늘어나거든. 그렇게 해서 먹었어.)

107028 @ 맞아예. 근데 이제 생각허민 그게 얼마나 영양식이라예?(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영양식이어요?)

107028 #1 연양식.(영양식.)

107028 #2 그때는 그렇게 먹으니까 아픈 디도 엇고.(그때는 그렇게 먹으니까 아픈 데도 없고.)

107028 @ 맞아예?(맞아요?)

107028 #2 그렇게 살안. 이젠 ᄒᆞ꼼 허민 다리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그렇게 살았어. 이젠 조금 하면 다리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107028 @ 맞아.(맞아.)

107028 #2 어디 뇌졸중이니 그렇게 말허는디, 그젠 그런 사름 그런 병도 몰랏고.(어디 뇌졸중이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젠 그런 사람 그런 병도 몰랐고.)

107028 @ 예.(예.)

107028 #2 그런 사름도 없었어.(그런 사람도 없었어.)

107029 @ 아까 이제 모멀축 아까 했잖아예? 그 ᄆᆞ멀축 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허영 헌 거라마씨?(아까 이제 메밀죽 아까 했잖아요? 그 메밀죽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107029 #2 그거는 기냥 물 끓어 가믄 쌀 놓고 물에 쌀에 양이 맞게 물을 놔.(그거는 그냥 물 끓어 가면 쌀 넣고 물에 쌀에 양이 맞게 물을 넣어.)

107029 @ 음.(음.)

107029 #2 그렇게 막 젓이면은 메밀은 쪼끔 쒀도 풀풀허여.(그렇게 막 저으면 메밀은 조금 쒀도 풀풀해.)

107029 @ 음.(음.)

107029 #2 게믄 고대로.(그러면 그대로.)

107029 @ 음.(음.)

107029 #2 저 감기 걸린 때는.(저 감기 걸릴 때는.)

107029 #1 패마농.(파.)

107029 #2 패마농 놓고 쒀 먹고.(패 넣고 쒀 먹고.)

107029 #1 지금 말허민 쪽파.(지금 말하면 쪽파.)

107029 @ 예, 예, 예.(예, 예, 예.)

107029 #2 그거 놩 쒀 먹고. 경허는 거.(그거 넣어서 쒀 먹고. 그렇게 하는 거.)

107030 @ 예, 예, 예. 경허여근에 이제 하고. 녹두죽은 쒀 먹잖아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녹두죽은 쒀 먹잖아요?)

107030 #2 응.(응.)

107030 @ 녹두죽은 어떵 허여?(녹두죽은 어떻게 해?)

107030 #2 녹두죽도 그자 콩죽이나 꼭같아.(녹두죽도 그저 콩죽이나 똑같아.)

107030 @ 으.(으.)

107030 #2 뭐이든지 콩죽이나 똑ᄀᆞ트게 쒀.(뭐든지 콩죽이나 똑같게 쒀.)

107031 @ 방법은 이제 하고, 듹죽은 언제 쒀 먹엇수가?(방법은 이제 하고, 닭죽은 언제 쒀 먹었습니까?)

107031 #2 아, 듹죽 경 아무나 그땐 쒀 먹도 못 헷주. 나가 그때 시절에 이제 스물싓에 여기 씨집왓거든.(아, 닭죽 그렇게 아무나 그땐 쒀 먹도 못 했지. 내가 그때 시절에 이제 스물셋에 여기 시집왔거든.)

107031 @ 예.(예.)

107031 #2 여기 완 보니까 씨하르버지가 듹을 멧 개 여기 질루는 거라. 질루다가 거 잡아서 이젠 식구덜이 여냥 보식, 보식으로.(여기 와서 보니까 시할아버지가 닭을 몇 개 여기 기르는 거야. 기르다가 거 잡아서 이젠 식구들이 영양 보식, 보식으로.)

107031 @ 음.(음.)

107031 #2 이젠 그거 허민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는 삶아.(이젠 그거 하면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는 삶아.)

107031 @ 예.(예.)

107031 #2 삶으면서 이젠 쏠도 ᄀᆞ찌 놓고.(삶으면서 이젠 쌀도 같이 넣고.)

107031 @ 음.(음.)

107031 #2 허영 삶아근에 허민 문딱[216] 숢아지면 그 찢어 놔근에 다 식구가 나눠 먹엇주. 그렇게 해서.(해서 삶아서 하면 '문딱' 삶아지면 그 찢어 넣어서 다 식구가 나눠 먹었지. 그렇게 해서.)

107031 #1 쌀 놓고.(쌀 넣고.)

107031 @ 쌀 놩예? 아, 그때 쌀은 어떤 쏠 놘마씨?(쌀 넣어서요? 아, 그때 쌀은 어떤 쌀 넣었어요?)

107031 #2 아, 그 듹죽에는 또 곤쏠이 잇어야.(아, 그 닭죽에는 또 흰쌀이 있어야.)

107031 @ 아아.(아아.)

---

216) 여기에서 '문딱'은 '잘'의 의미로 쓰였다.

107031 #2 맛이나.(맛이나.)

107031 @ 아, 거난 잘 사는 집의 오난 것도 먹어진 거 아니라예?(아,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 오니까 것도 먹어진 거 아닌가요?)

107031 #1 견디 그 옛날은 좀 우스운 게?(그런데 그 옛날은 좀 우스운 게?)

107031 @ 예.(예.)

107031 #2 촐을 끝나나 뭘 끝나나 그 끝나야 그, 그 전의 먹어서 일을 허여야 에너지가 그 뭐 거기에 일허는 디 갈 건디. 그 일 끝난 다음에야 그, 그걸 헤영 먹어. 옛날은.(꼴을 끝나나 뭘 끝나나 그 끝나야 그, 그 전에 먹어서 일을 해야 에너지가 그 뭐 거기에 일하는 데 갈 건데. 그 일 끝난 다음에야 그, 그걸 해서 먹어. 옛날은.)

107031 @ 얼먹엇덴 영양 보충 헤주는 거주마씨예? 예.(언걸먹었다고 영양 보충 해주는 거지요? 예.)

107031 #2 “에그 자이, 기냥 허젠 허난 모든 거 허젠 허난 얼먹엇저게. 저거, 아이고, 저거 연양 보충 시켜사켜게, 저거. 무시거 허영 멕이코게.” 경허민 그때는 돼지도 영 이젠 하간 디 뒈지고기도 널어졋주마는 저 삼양 잇잖아. 그디 무판 하나가 잇어낫어.(“에고 재, 그냥 하려고 하니까 모든 거 하려고 하니까 언걸먹었지. 저거, 아이고, 저거 영양 보충 시켜야겠네, 저거. 무엇 해서 먹일까.” 그렇게 하면 그때는 돼지도 이렇게 이젠 온갖 데 돼지고기도 널어졌지만 저 삼양 있잖아. 거기 무판 하나가 있었었어.)

107031 @ 음.(음.)

107031 #2 그디 가근엥에 그 무판에 가근에 식게 멩질이나 허젠 허민 흔 둬 근 갈라당.(거기 가서 그 무판에 가서 제사 명절이나 하려고 하면 한 둬 근 갈라다가.)

107031 @ 음, 음, 음.(음, 음, 음.)

107031 #2 이젠 걱갈엔 헴주마는. 이멘씩 헤영은에 흔 점썩 나눠주는 거라.(이젠 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만큼씩 해서 한 점씩 나눠주는 거야.)

107031 @ 예, 예.(예, 예.)

107031 #2 경 허영 먹고. 이제 둑죽은 아무 디나 못 먹어.(그렇게 해서 먹고. 이제 닭죽은 아무 데나 못 먹어.)

107031 @ 예.(예.)

107031 #1 게고 동네에서도 관에서 제일 저 귀한 손님 온 때에.(그러고 동네에서도 관에서 제일 저 귀한 손님 올 때에.)

107031 @ 예, 예.(예, 예.)

107031 #1 경헌 때에 이제.(그렇게 한 때에 이제.)

107031 @ 둑 잡앙 주고.(닭 잡아서 주고.)

107031 #1 둑 잡앙 드리곡.(닭 잡아서 드리고.)

107032 @ 예, 이제 그치록허곡. 그 옛날에 그니까 아까 콩죽헐 때도 풀들예, 푸성귀 놧주마는 그 ᄂᆞᆯ죽이렌 헹은에 또 끌렁 먹엇수가?(예, 이제 그처럼하고. 그

옛날에 그러니까 아까 콩죽할 때도 풀들요, 푸성귀 놨지만 그 나물죽이라고 해서 또 끓여서 먹었습니까?)

107032 #2 ᄂᆞ물죽게, 기냥 좁쏠 놓곡 그냥 쑤민 뒈주게. ᄂᆞᄆᆞᆯ축게.(나물죽, 그냥 좁쌀 넣고 그냥 쑤면 되지. 나물죽.)

107032 #1 뚠 죽.(다른 죽.)

107032 #2 콩 안 놩.(콩 안 넣어서.)

107032 #1 뚠 죽 헐 때에 ᄂᆞ물은 그냥 ᄂᆞ물이 들어가민 ᄂᆞ물축이 뒈부는 거. ᄂᆞ물이 많이 들어간 거주, 그건.(다른 죽 할 때에 나물은 그냥 나물이 들어가면 나물죽이 되어버리는 거. 나물이 많이 들어간 거지, 그건.)

107032 @ 예, 옛날에예. 불뢍 먹젠 허민 없는 집의덜은.(예, 옛날에요. 불려서 먹으려고 하면 없는 집에들은.)

107032 #2 콩도 매 집의 없으니까 기냥 그자 쌀 좁쏩 놔근엥에 죽 쒕. 그치룩 허영 소금이나 영 허텅. 그냥 흰죽은 소금 안 놓고.(콩도 매 집에 없으니까 그냥 그저 쌀 좁쌀 넣어서 죽 쒀서. 그처럼 해서 소금이나 이렇게 흩어서. 그냥 흰죽은 소금 안 넣고.)

107032 @ 음.(음.)

107032 #1 게난 그 재료가 어느 게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랑 그 이름이 변헐 수가 잇는.(그러니까 그 재료가 어느 게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변할 수가 있는.)

107032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32 #2 엿날은 쌀이 좁쏠도 없는 집인 없으니까.(옛날은 쌀이 좁쌀도 없는 집은 없으니까.)

107032 @ 음.(음.)

107032 #2 보리쏠도 영 골아서, 그 요렇게 잘게 부솨가지고 걸로도 죽 쒀.(보리쌀도 이렇게 갈아서, 그 요렇게 잘게 부숴가지고 걸로도 죽 쒀.)

107032 @ 음.(음.)

107032 #2 국죽이라고 허여.(갱죽이라고 해.)

107032 @ 아, 국죽이라고. 게믄 그 국죽은 어떤 식으로 헌 거라마씨?(아, 갱죽이라고. 그러면 그 갱죽은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107032 #2 보리쏠을 영 갈아가지고 이젠 물 팔팔 끓어 가민 간 걸 놓고.(보리쌀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젠 물 팔팔 끓어 가면 가서 걸 놓고.)

107032 @ 예.(예.)

107032 #2 푸성거리 ᄂᆞ물이고 뭐이고 헤다 놩은에 하영 쑤민.(푸성귀 나물이고 뭐고 해다 놓아서 많이 쑤면.)

107032 @ 으음.(으음.)

107032 #2 이젠 ᄂᆞ물은 하고 쌀은 얼마 못 봐. 그것도 경헹 먹고.(이젠 나물은 많고 쌀은 얼마 못 봐. 그것도 그렇게 해서 먹고.)

107032 @ 게영 그 이름을 국죽이라고 헌 거라예? 예.(그래서 그 이름을 갱죽이라고 한 거네요? 예.)

107032 #2 국죽.(갱죽.)

107033 @ 삼춘 지난번에 보난 꿩사농도 헷덴 헨게마는.(삼춘 지난번에 보니까 꿩사냥도 했다고 하더니만.)

107033 #2 어느제 강. 가민 생전 안 헹 와. 못 헹 와.(언제 가서. 가면 생전 안 해서 와. 못 해서 와.)

107033 @ 머정 엇덴게. 꿩죽도 헤영 먹잖아예?(재수 없다고. 꿩죽도 해서 먹잖아요?)

107033 #1 꿩.(꿩.)

107033 #2 꿩죽도 독죽이나 똑같애.(꿩죽도 닭죽이나 똑같아.)

107033 @ 음.(음.)

107033 #2 그렇게 해서. 꿩 헤다가 그거 거 털 벳겨두고 다 허여근에 물 헤영 싹싹 끓여서 이제 닭은 불에 헹 그걸 케우주마는 꿩은 안 케와.(그렇게 해서. 꿩 해다가 그거 거 털 벗겨두고 다 해서 물 해서 싹싹 끓여서 이제 닭은 불에 해서 그걸 태우지만 꿩은 안 태워.)

107033 @ 아, 건 무산고예?(아, 건 왤까요?)

107033 #1 몰라, 털을.(몰라, 털을.)

107033 #2 몰라. 옛날식으로산디. 그 독도 빵 보민 막 여디 털 빠민 뭐 잇잖아.(몰라. 옛날식으로인지. 그 닭도 뽑아서 보면 마구 여기 털 뽑으면 뭐 있잖아.)

107033 @ 예.(예.)

107033 #2 경헌디 안 기시려.(그런데 안 그을려.)

107033 @ 아아.(아아.)

107033 #2 닭은 기시려고.(닭은 그을리고.)

107033 @ 예, 예, 예.(예, 예, 예.)

107033 #2 영 헌디 닭은 기시린디. 꿩은 안 기시려.(이렇게 하는데 닭은 그을리는데. 꿩은 안 그을려.)

107033 #@ 음.(음.)

107033 #2 경 허영 그자 독죽이나 것도 꼭ᄀᆞ치 쒕 먹곡.(그렇게 해서 그저 닭죽이나 것도 똑같이 쒀서 먹고.)

107031 #1 겐디 아까 독죽 넘어갈 때에 그 아니 굴은 말이 잇는데.(그런데 아까 닭죽 넘어갈 때에 그 아니 말한 말이 있는데.)

107031 @ 예.(예.)

107031 #1 사금퍼리.(사금파리.)

107031 @ 예.(예.)

107031 #2 흰 사금퍼리. 그거 놓고 마늘을 꼭 옛날엔 그걸 똑 놔낫어.(흰 사금파리. 그거 넣고 마늘을 꼭 옛날엔 그걸 꼭 놨었어.)

107031 @ 둑죽헐 때예?(닭죽할 때요?)

107031 #2 그거는 뭐인가 허민 그 독을 제허기 위해야. 이 닭에도 그 독이 이시니까.(그거는 뭐인가 하면 그 독을 제하기 위해서야. 이 닭에도 그 독이 있으니까.)

107031 @ 예.(예.)

107031 #2 독을 제허기 위하여서 그거 놓는 거.(독을 제하기 위하여서 그거 넣는 거.)

107031 @ 음, 흰 사금파리 그 사기그릇 그거허고.(음, 흰 사금파리 그 사기그릇 그거하고.)

107031 #1 사기그릇허고.(사기그릇하고.)

107031 #2 요멘썩 헌 거 미깡 갑만큼 아마도 흔 거 서너 덩어리 놔야.(요만큼씩 한 거 귤 갑만큼 아마도 한 거 서너 덩어리 놔야.)

107031 @ 음.(음.)

107031 #2 경 허영 먹엇주마는. 거 안 놔도 엇엉 못 먹엇어.(그렇게 해서 먹었지만. 거 안 놔도 없어서 못 먹었어.)

107031 @ 맞수다. 맞수다. 마늘도 하영 놩은에 이제 하고예,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마늘도 많이 넣어서 이제 하고요, 맞습니다.)

107031 #2 옛날은 마늘도 없엇어. 어디 놈 싱근 지 담앙 먹젠 허민 강 사와야.(옛날은 마늘도 없었어. 어디 남 심은 장아찌 담가서 먹으려고 하면 가서 사와야.)

107031 @ 음.(음.)

107031 #2 이제는 마늘도 안 놩 짐치 헤영 먹고. 경 허영 먹엇어.(이제는 마늘도 안 넣어서 김치 해서 먹고. 그렇게 해서 먹었어.)

107031 #1 옛날은 그 선조들이 재배 방법을 몰라불언.(옛날은 그 선조들이 재배 방법을 몰라버렸어.)

107031 @ 예, 비료도 없고.(예, 비료도 없고.)

107031 #1 여기도 ᄒᆞ민 다 뒈는 건디, 여기서 ᄒᆞ민 안 뒈영근에 어디 삼양이나 어디 가사 뒈는 걸로만 알안.(여기도 하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하면 안 되어서 어디 삼양이나 어디 가야 되는 걸로만 알았어.)

107033 @ 예, 맞수다. 경허고 그거 말고 다른 죽들은 어떤 거 잇어나신고마씨? 그거 말고 죽 헤먹은 거 이신가마씨?(예, 맞습니다. 그러고 그거 말고 다른 죽들은 어떤 거 있었을까요? 그거 말고 죽 해먹은 거 있을까요?)

107033 #2 건 잘 모르것는디. 뭐 죽 못허는 것이 엇어. 밀축도 쒕 먹곡.(건 잘 모르겠는데. 뭐 죽 못하는 것이 없어. 밀쌀죽도 쒀서 먹고.)

107033 @ 으응, 밀축.(으응, 밀쌀죽.)

107033 #2 밀도 그것도 어떵 허냐 허면 맷돌에 ᄀᆞᆯ아.(밀도 그것도 어떻게 하냐 하면 맷돌에 갈아.)

107033 @ 예.(예.)

107033 #2 ᄀᆞᆯ아서 그렇게 보리죽ᄀᆞ찌 쒀 먹고.(갈아서 그렇게 보리죽같이 쒀 먹

고.)

107033 @ 음.(음.)

107033 #2 다 경허여.(다 그렇게 해.)

107033 #1 뒈지고기도 죽에 들어가.(돼지고기도 죽에 들어가.)

107033 @ 아, 뒈지고기도예?(아, 돼지고기도요?)

107033 #2 아이고, 뒈지고기 어디 시난 뒈지고기 봔 먹엇어.(아이고, 돼지고기 어디 있으니까 돼지고기 넣어서 먹었어.)

107033 @ (웃음). 게난 ᄒᆞ꼼 잘 살아가난게 뒈지고기도 헹 먹고.((웃음). 그러니까 조금 잘 살아가니까 돼지고기도 해서 먹고.)

107033 #2 이제 나난 뒈지고기.(이제 되니까 돼지고기.)

107033 @ 바당 걸로 허영 죽 쑤는 건 엇어마씨?(바다 걸로 해서 죽 쑤는 건 없어요?)

107033 #2 무사 엇어.(왜 없어.)

107033 @ 어떤 걸로?(어떤 걸로?)

107033 #2 그때는 고등어로도. 고등어 잇잖아. 고등어로도 그땐 이 앞바다에서 거리는 사름덜이 잇어. 어부들이.(그때는 고등어로도. 고등어 있잖아. 고등어로도 그땐 이 앞바다에서 뜨는 사람들이 있어. 어부들이.)

107033 #1 잡는 사람?(잡는 사람?)

107033 #2 있으니까, 이젠 그 지게에 놓고.(있으니까, 이젠 그 지게에 놓고.)

107033 @ 예.(예.)

107033 #2 그 어부 처들이 지고 와서 “삽서. 삽서.” 허민 거 사서 이젠 고등어를 이젠 손질헤가지고 이젠 물에 봉 끓여.(그 어부 처들이 지고 와서 “사세요. 사세요.” 하면 거 사서 이젠 고등어를 이젠 손질해가지고 이젠 물에 넣어서 끓여.)

107033 @ 음.(음.)

107033 #2 끓영 가시 탁탁 털어뒁근에 것도 아무 쏠이라도 놔도 뒈여.(끓여서 가시 탁탁 떨어둬서 것도 아무 쌀이라도 놔도 돼.)

107033 @ 음, 고둥어죽이 경 맛 좋덴예?(음, 고둥어죽이 그렇게 맛 좋다고요?)

107033 #2 쏠이 없으니까.(쌀이 없으니까.)

107033 @ 음.(음.)

107033 #2 메쏠 헤여 가는 거엔 허여근에 허젱 허민 ᄒᆞᆫ 뒈 강 받아오젠 허민 돈 많이 줘야 강 받아오니까 어떻게 죽을 쒕 먹어.(멥쌀 해 가는 거라고 해서 하려고 하면 한 되 가서 받아오려고 하면 돈 많이 줘야 가서 받아오니까 어떻게 죽을 쒀서 먹어.)

107033 @ 맞아마씨. 어.(맞아요. 어.)

107033 #2 중간에야 많이 나난 헤엿지, 우리 커올 때는 거 쒀 먹을 것도 없었어. 게난 아무 걸로라도 봉 쒀 먹어.(중간에야 많이 나니까 했지, 우리 커올 때는 거 쒀 먹을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 거로라도 넣어서 쒀 먹어.)

107033 @ 고등어죽예?(고등어죽요?)
107033 #2 고등어죽.(고등어죽.)
107033 #1 우리 어린.(우리 어린.)
107033 #2 또 그 옥돔.(또 그 옥돔.)
107033 @ 예.(예.)
107033 #2 엿날은 옥돔이 잇엇, 잇주마는 이젠 옥돔도 하나 나민 뭐 멧 만 원 가노니까.(옛날은 옥돔이 있었, 있지만 이젠 옥돔도 하나 나면 뭐 몇 만 원 가노니까.)
107033 @ 맞수다.(맞습니다.)
107033 #2 옥돔죽도 못 쒄 먹언.(옥돔죽도 못 쒀서 먹었어.)
107033 #2 그때는 이 서쪽으로 옥돔이 많이 나와. 게민 그런 죽털도 쒀 먹고.(그때는 이 서쪽으로 옥돔이 많이 나와. 그러면 그런 죽들도 쒀 먹고.)
107033 @ 옥돔을 이 동네에서는 뭐렌 불러낫수가?(옥돔을 이 동네에서는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07033 #2 옥돔.(옥돔.)
107033 @ 옥돔.(옥돔.)
107033 #2 이제는 셍선이엔 허지마는 셍선이엔 허지마는 옥돔.(이제는 '생선'이라고 하지만 '셍선'이라고 하지만 옥돔.)
107033 @ 옥돔 헤갖고.(옥돔 해갖고.)
107033 #2 고기도 그렇게 말허고.(고기도 그렇게 말하고.)
107033 @ 옥돔죽 맛 좋아예?(옥돔죽 맛 좋지요?)
107033 #2 맞 좋주게.(맞 좋지.)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예, 알앗수다. 지난번에 우리 삼춘 범벅 잇덴 허는데, 범벅은 어떤 범벅 어떤 범벅 헤먹엇수가?(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삼촌 범벅 있다고 하는데, 범벅은 어떤 범벅 어떤 범벅 해먹었습니까?)
107034 #2 못 해 먹는 범벅 잇어?(못 해 먹는 범벅 있어?)
107034 @ 경헤도 골아 봅서?(그렇게 해도 말해 보십시오?)
107034 #2 뭐 메밀로도 허여먹곡 보리로도 허여먹고 밀로도 허여먹고.(뭐 메밀로도 해먹고 보리로도 해먹고 밀로도 해먹고.)
107034 #1 좁쏠로도 허여먹고.(좁쌀로도 해먹고.)
107034 #2 좁쏠로도 허여먹고. 못허는 게 없어, 범벅 헤먹는 게.(좁쌀로도 해먹고. 못하는 게 없어, 범벅 해먹는 게.)
107034 @ 범벅허젠 허민 ᄀᆞ를 골아와야지예?(범벅하려고 하면 가루 갈아와야지요?)
107034 #2 ᄀᆞ르, ᄀᆞ르 골아 와야.(가루, 가루 갈아 와야.)

107034 @ 범벅 종류 중에 삼춘네 하영 헤먹어난 범벅은 무신 범벅?(범벅 종류 중에 삼촌네 많이 해먹었던 범벅은 무슨 범벅?)

107034 #2 에, 그자 주로 좁쏠범벅 많이 헤먹엇지.(에, 그저 주로 좁쌀범벅 많이 해먹었지.)

107034 #1 좁쏠범벅 보리범벅.(좁쌀범벅 보리범벅.)

107034 #2 그자.(그저.)

107034 #1 많이 나는 게 주식이 보리 조니까.(많이 나는 게 주식이 보리 조니까.)

107034 #2 이 정의렌 메밀이 만허니까 그딘 메밀펌벅을 많이 헷건만, 여기는 메밀이 없어. 그때 당시에.(이 정의로는 메밀이 많으니까 거긴 메밀범벅을 많이 했건만, 여기는 메밀이 없어. 그때 당시에.)

107034 @ 아.(아.)

107034 #2 흔 집이 이제 뭐 ᄒᆞ꼼 허민 멧 말 허민 거 얼마 뒈여?(하는 집에 이제 뭐 조금 하면 몇 말 하면 거 얼마 돼?)

107034 @ 그러니까.(그러니까.)

107034 #2 없어.(없어.)

107034 @ 음, 그러면은 이제 보리허고, 어 조허고예? 조펌벅 허는 거 흔번 ᄀᆞᆯ아 봅서?(음, 그러면 이제 보리하고, 아 조허고요? '조범벅' 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107034 #2 아, 조펌벅[217]은 좁쏠 ᄀᆞᆯ아서도 허여먹곡, 옛날엔 그 좁쏠이 체에 강 맷돌에 강 돌려야. 가근에 이제 ᄆᆞᆯ방에엔 허매이.(아, '조범벅'은 좁쌀 갈아서도 해먹고, 옛날엔 그 좁쌀이 겨에 가서 맷돌에 가서 돌려야. 가서 이제 연자마라고 해.)

107034 @ 예.(예.)

107034 #2 ᄆᆞᆯ방에. ᄆᆞᆯ은 어떠난 ᄆᆞᆯ방에엔 헴신고 허니 그 이제 막 짓어놔근에에 맷돌 막 걸어놩 사름 힘으로 못 돌리니까.(연자매. 말은 어째서 연자마라고 하고 있는가 하니 그 이제 막사리 지어놓아서 에 맷돌 마구 걸어놓아서 사람 힘으로 못 돌리니까.)

107034 @ 예.(예.)

107034 #2 말을 메와 놓고 이젠 ᄆᆞᆯ 몰면서 허민 빙빙 돌아가니까 것이.(말을 메워 놓고 이젠 말 몰면서 하면 빙빙 돌아가니까 것이.)

107034 #1 연자방아.(연자방아.)

107034 @ 예.(예.)

107034 #2 그것이 ᄆᆞᆯ방에.(그것이 'ᄆᆞᆯ방에'.)

107034 @ 예.(예.)

107034 #2 ᄆᆞᆯ방에 보고 연자방아.('ᄆᆞᆯ방에' 보고 연자방아.)

107034 #2 ᄆᆞᆯ방에에 가근에 져다둬 헤근에 ᄀᆞᆯ아서 죽 쒀 먹고. 다 경허연. 죽 쒀 먹고 범벅도 헤여먹고. 조펌벅 맛 좋아. ᄒᆞ꼼 허민 "에이그. 히린좁쏠 놩근에 조

217) '조펌벅'은 좁쌀가루로 만든 범벅을 말한다.

펌벅 헹 먹어사켜.” 히린좁쏠에 감저 썰어 놔근에 감저 뜨벅뜨벅[218] 썰어놔근에 헤영 딱딱 허여근에 먹으민 잘도 맛잇어.(연자매에 가서 져다두고 해서 갈아서 죽 쒀 먹고. 다 그렇게 해서. 죽 쒀 먹고 범벅도 해먹고. ‘조범벅’ 맛 좋아. 조금 하면 “에이그. 차좁쌀 넣어서 ‘조범벅’ 해서 먹어야겠다.” 차좁쌀에 고구마 썰어 넣어서 고구마 ‘뜨벅뜨벅’ 썰어넣어서 해서 딱딱 해서 먹으면 잘도 맛있어.)

107035 @ 으, 감저 둘고예, 좁쏠도 둘고. (웃음). 자, 그 다음에 옛날 여기 ᄌᆞ베기 이런 것도 하영 먹엇지예? ᄌᆞ베기는 어떤 것덜 헤먹엇수가?(으, 고구마 달고요, 좁쌀도 달고. (웃음). 자, 그 다음에 옛날 여기 수제비 이런 것도 많이 먹었지요? 수제비는 어떤 것들 해먹었습니까?)

107035 #2 보리ᄌᆞ베기.(보리수제비.)

107035 @ 보리ᄌᆞ베기.(보리수제비.)

107035 #2 밀ᄌᆞ베기 그거.(밀수제비 그거.)

107035 @ 보리ᄌᆞ베기허고 밀ᄌᆞ베기 두 가지. 보리ᄌᆞ베기허고 밀ᄌᆞ베긴 어떵 멘들아?(보리수제비하고 밀수제비 두 가지. 보리수제비하고 밀수제비는 어떻게 만들어?)

107035 #2 아 그것도 ᄀᆞ르로. 그 맷돌에서 ᄀᆞᆯ아서.(아 그것도 가루로. 그 맷돌에서 갈아서.)

107035 @ 음.(음.)

107035 #2 가를 어떵허민 저 대 총체로.(가루 어떡하면 저 대 총체로.)

107035 @ 예.(예.)

107035 #2 쳐가지고, 이젠 ᄀᆞᆯ면 아메도 홁은 것이 많이 나와이.(쳐가지고, 이젠 갈면 아마도 굵은 것이 많이 나와.)

107035 @ 음.(음.)

107035 #2 경허민 이젠 그거 ᄀᆞᆯ아가지고 이젠 그걸 거려놓면서 쳐.(그렇게 하면 이젠 그거 갈아가지고 이젠 그걸 떠놓으면서 쳐.)

107035 @ 예.(예.)

107035 #2 총체로. 이제 대거름체[219]도 잇고 대체도 잇고 다 잇지마는 그 총체.(총체로. 이제 ‘대거름체’도 있고 대체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총체.)

107035 @ 예.(예.)

107035 #2 거름체[220] 말고 총체로 쳐가지고.(‘거름체’ 말고 총체로 쳐가지고.)

107035 #1 제일, 제일 ᄌᆞᆷ진 거.(제일, 제일 자잘한 거.)

107035 @ 예.(예.)

107035 #2 저 허영 쳐근엥에 이제 그거를 놔서 범벅도 헤먹고 ᄌᆞ베기도 헤여먹고.(저 해서 쳐서 이제 그거를 놔서 범벅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107035 @ 음.(음.)

---

218) ‘뜨벅뜨벅’은 고구마 따위를 큼직큼직하게 써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219) ‘대거름체’는 ‘쳇불’이 대체보다는 작고 ‘거름체’보다는 작은 체를 말한다.
220) ‘거름체’는 ‘대거름체’와 ‘총체’ 사이에 있는 체를 말한다.

107035 #2 다 그런 거.(다 그런 거.)

107035 @ 음, 건데 보리ᄎᆞ베기 잇고. 밀ᄎᆞ베기 잇는 거고. 그 ᄌᆞ베기 만들 때 뭐 ᄂᆞ물 같은 건 안 놔마씨?(음, 그런데 보리수제비 있고. 밀수제비 있는 거고. 그 수제비 만들 때 뭐 나물 같은 건 안 넣어요?)

107035 #2 ᄌᆞ베기 물 때 그 국물에다 ᄂᆞ물 놩 먹주게.(수제비 반죽할 때 그 국물에다 나물 넣어서 먹지.)

107035 @ 아, ᄂᆞ물도 놓고 이제 헤영은에.(아, 나물도 넣고 이제 해서.)

107035 #2 으.(으.)

107035 @ ᄌᆞ베기로 식량을 헤보진 안 헷수가?(수제비로 식량을 해보진 안 했습니까?)

107035 #2 무사 안 허여, 다 허주, ᄌᆞ베기.(왜 안 해, 다 하지, 수제비.)

107035 @ ᄌᆞ베기도예?(수제비도요?)

107035 #2 ᄌᆞ베기도 그 경 허영 먹젠 허민 잇는 집이라야 헤먹주. 죽 허여근에 영 허영 영 허영 좁쌀 멧 방울 놓고 막 푸성거리 많이 놓고 허여서 영 허민 물이 쭈루루헤여이.(수제비도 그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하면 있는 집이어야 해먹지. 죽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좁쌀 몇 알 넣고 막 푸성귀 많이 넣고 해서 이렇게 하면 물이 잘잘해.)

107035 @ 예.(예.)

107035 #2 게민 거 먹고 살앗지.(그러면 거 먹고 살았지.)

107035 @ 음, 게난 이제 우리가 ᄌᆞ베기 헐 때도 보면 요게 무사 반죽을 쫌 헐렁헐렁허게 허는 방법도 잇고, 이걸 ᄆᆞ르게 헤영은에 손으로 영 튿엉도 허잖아예. 그 일름도 ᄐᆞ난가마씨?(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제비 할 때도 보면 요게 왜 반죽을 좀 헐렁헐렁하게 허는 방법도 있고, 이걸 마르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도 하잖아요. 그 이름도 다른가요?)

107035 #2 아니, ᄐᆞ난 건 아니. 물렁 ᄌᆞ, 영 허영 수제비라고 떡떡 떠 놓는 거는 다른 걸로는 안 뒈여. 밀가르벳기.(아니, 다른 건 아니. 물렁 수, 이렇게 해서 수제비라고 떡떡 떠 놓는 거는 다른 걸로는 안 돼. 밀가루밖에.)

107035 @ 으음.(으음.)

107035 #2 밀가르벳긔.(밀가루밖에.)

107035 @ 밀ᄀᆞ르벳긔.(밀가루밖에.)

107035 #2 다른 걸로 영 뜯어놓민 그냥 헤싸져부런 안 뒈여. 경허난 ᄌᆞ베긴 그자 보리ᄎᆞ베긴 이렇게 영 쒜여.(다른 걸로 이렇게 뜯어넣으면 그냥 헤져버려서 안 돼. 그러니까 수제빈 그저 보리수제빈 이렇게 이렇게 쥐어.)

107035 @ 예.(예.)

107035 #2 똑똑 끊으멍 영 영영 쒜어 놔야 뒈여.(똑똑 끊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쥐어서 넣어야 돼.)

107036 @ 게난 그 저기 영 숟가락으로 떠놓는 거는 밀밖에 안 뒈는 거예? 아

아, 그 다음엔 옛날 칼국쉬 같은 것도 하영 헤먹엇잖아예? 여기서는 그 이름을 뭐렌 헙니까?(그러니까 그 저기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놓는 거는 밀밖에 안 되는 거요? 아아, 그 다음엔 옛날 칼국수 같은 것도 많이 해먹었잖아요? 여기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107036 #2 칼국수.(칼국수.)

107036 @ 칼국수. 어. 칼국수 헤갖고.(칼국수. 어. 칼국수 해갖고.)

107036 #2 칼국수. 그 보리나 메밀이나 헤 가서 밀어가지 이제나 똑ᄀᆞ타.(칼국수. 그 보리나 메밀이나 해 가서 밀어가지 이제나 똑같아.)

107036 @ 아.(아.)

107036 #2 딱딱딱딱 썰어가졍 물 팔팔 끓영. 사는 집의는 그 국물에다가 다시[221] 낼라고 이제 춤 막 사는 집의는 이제 소님이나 가면 밀, 저 모멀이나 뭐 헐 때는 소고기.(딱딱딱딱 썰어가져서 물 팔팔 끓여서. 사는 집에는 그 국물에다가 맛국물 내려고 이제 참 매우 사는 집에는 이제 손님이나 가면 밀, 저 메밀이나 뭐 할 때는 소고기.)

107036 @ 음.(음.)

107036 #2 이제 막 딸려 놔서.(이제 마구 달여 놓아서.)

107036 @ 예.(예.)

107036 #2 헤줫지마는 그런 집이 엇어. 양반의 집의나 가근에 막 사는 집의나 그런 거 헤영 먹엇지. 경헷지.(해줬지만 그런 집이 없어. 양반의 집에나 가서 매우 사는 집에나 그런 거 해서 먹었지. 그렇게 했지.)

107036 @ 모멀ᄌᆞ베기 헐 때는 또 놈삐 같은 것도 썰어놓켜예?(메밀수제비 할 때는 또 무 같은 것도 썰어놓겠네요?)

107036 #2 음. 놈삐에 메밀은 테운 거니까.(음. 무에 메밀은 타고난 거니까.)

107036 @ 그러니까.(그러니까.)

107036 #2 음, 경 허영.(음, 그렇게 해서.)

107036 @ 경허여근에 이젠 하고예. 그거 말고 예전에 무사 그 멩질 같은 경우 허면 멩질허기 전에 뭐 모멀국쉬 이런 거는 안 헙니까? 이 동넨? 국쉬제 이런 거.(그렇게 해서 이젠 하고요. 그거 말고 예전에 왜 그 명절 같은 경우 하면 명절하기 전에 뭐 메밀국수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이 동넨? '국수제' 이런 거.)

107036 #2 아니.(아니.)

107036 @ 미리. 선흘 같은 덴 헨게마는.(미리. 선흘 같은 데는 하더니만.)

107036 #1 음.(음.)

107036 #2 이디는 엿날에는 이딘 메밀이 귀하니까.(여기는 옛날에는 여기는 메밀이 귀하니까.)

107036 @ 음.(음.)

---

221) '다시'는 일본어 'だし'에서 온 말로, '멸치, 다시마, 조개 따위를 우려내어 맛을 낸 국물'을 말한다. '맛국물'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본어 '다시'는 다시마나 멸치 따위의 국물을 내는 재료를 말한다.

107036 #2 쏠 받아다가 이젠 그거를 묵이나 쒀서.(쌀 받아다가 이젠 그거를 묵이나 쒀서.)

107036 @ 예.(예.)

107036 #2 멩질 뭐 이거 영. 똑똑. 이제 묵덜 나잖아.(명절 뭐 이거 이렇게. 똑똑. 이제 묵들 나잖아.)

107036 @ 예, 예. 모멀묵.(예, 예. 메밀묵.)

107036 #2 그렇게 쒀 가지고 막 가를 내여. 쏠 받아다가 맷돌에 골아가지고 총체로 쳐가지고 이젠 쑤는 거야.(그렇게 쒀 가지고 마구 가루 내. 쌀 받아다가 맷돌에 갈아가지고 총체로 쳐가지고 이젠 쑤는 거야.)

107036 @ 예.(예.)

107036 #2 게난 메밀은 요것이 원처 연허고 부드러우니까 조금 굵어도 뒈.(그러니까 메밀은 요것이 원체 연하고 부드러우니까 조금 굵어도 돼.)

107036 @ 음.(음.)

107036 #2 굵어도 그자 헹 쒀 가지고 허영 딱 그릇에 헹 영 놔두민 이젠 것이 영 굳으민 묵 파는 거거치 뜨민.(굵어도 그저 해서 쒀 가지고 해서 딱 그릇에 해서 이렇게 놔두면 이젠 것이 이렇게 굳으면 묵 파는 거같이 뜨면.)

107036 @ 예.(예.)

107036 #2 갈르민 메밀묵이 뒈여. 그거를 옛날은 또 똑똑허게시리 그 묵점[222] 이라고.(가르면 메밀묵이 되어. 그거를 옛날은 또 똑똑하게끔 그 '묵점'이라고.)

107036 @ 예.(예.)

107036 #2 요렇게 썰엉 니게반듯허게 썰어가지고 이젠 고지에 꿰여.(요렇게 썰어서 네모반듯하게 썰어가지고 이젠 꼬치에 꿰어.)

107036 @ 예예.(예예.)

107036 #2 고지에 꿰여가지고 또 이젠 참지름 발르면서 궈. 이 저.(꼬치에 꿰어가지고 또 이젠 참기름 바르면서 구워. 이 저.)

107036 @ 아.(아.)

107036 #2 화롯불에 불 살라가지고 적쉐라 허는 거 잇어.(화롯불에 불 살라가지고 석쇠라 하는 거 있어.)

107036 @ 음. 음.(음. 음.)

107036 #2 이젠 그거 놓면서 참지름 불르면서 구웡 경 혜영 상에 올리고.(이젠 그거 놓으면서 참기름 바르면서 구워서 그렇게 해서 상에 올리고.)

107036 @ 아아, 그냥 쒕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다시 궈예?(아아, 그냥 쒀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다시 군다고요?)

107036 #2 이제는 안 굽지마는.(이제는 안 굽지만.)

107036 @ 음.(음.)

107036 #2 이제는 안 구워. 그 전엔 다.(이제는 안 구워. 그 전엔 다.)

---

222) '묵점'은 묵을 먹을 만하게 자른 하나하나의 점을 말한다.

107036 #1 경허곡 이 모멀묵엔 청묵[223]허고 그냥 묵이 잇주.(그렇게 하고 이 메밀묵엔 '청묵'하고 그냥 묵이 있지.)

107036 @ 예, 예, 예.(예, 예, 예.)

107036 #1 게난 청묵은 하얗게 그 저 전분 앚져서 헌 게 청묵이고.(그리니까 '청묵'은 하얗게 그 저 전분 앉혀서 한 게 '청묵'이고.)

107036 @ 예.(예.)

107036 #1 이 그냥 묵은 그대로 그 저 전분 아니 앚졍 골아당 그냥 쑨 거.(이 그냥 묵은 그대로 그 저 전분 아니 앉혀서 갈아다가 그냥 쑨 거.)

107036 #2 청묵은 그렇게 허주게. 메밀쌀을 이젠 딱 허게시리 사[224]에 담아.('청묵'은 그렇게 하지. 메밀쌀을 이젠 딱 하게끔 '사'에 담아.)

107036 @ 음.(음.)

107036 #2 사에 담아가지고 놀려. 막 이렇게 놀려가민 그 푸들푸들헌 물이 나오거든. 게난 어느 정도 헤야지 경 안 허민 이것이 얄롸부거나 너미 뒈여불거나 헤도 안 뒈여. 그것도 정도 맞촤가면서 허여 놔서 이젠 솟듸 옛날 가마솟 썻거든. 가마솟듸 이젠 아래 밋창에다가 참지름 싹 불롸가지고 이제 달과서 츰지름을 싹 불라가지고 이젠 그걸 확 빕는 거라. 달롸 논 물을.('사'에 담아가지고 놀려. 막 이렇게 놀려가면 그 푸들푸들한 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게 않으면 이것이 묽어버리거나 너무 되어버리거나 해도 안 돼. 그것도 정도 맞춰가면서 해 놓아서 이젠 솥에 옛날 가마솥 썼거든. 가마솥에 이젠 아래 밑창에다가 참기름 싹 발라가지고 이제 달궈서 참기름을 싹 발라가지고 이젠 그걸 확 붓는 거야. 달궈 놓은 물을.)

107036 @ 예.(예.)

107036 #2 경 허영 막 쒀, 막 쒀야 헤여.(그렇게 해서 마구 쒀, 막 쒀야 해.)

107036 #1 젓어.(저어.)

107036 #2 이제 저으지 아녀면은 요것이 두루 쒕은 안 뒈여.(이제 젓지 않으면 요것이 덜 쒀서는 안 돼.)

107036 @ 음.(음.)

107036 #2 얄롸도 안 뒈고 뒈여도 안 뒈고. 뒈여도 뒈긴 뒈는디 딱딱 갈라져부렁 맛이 없어.(묽어도 안 되고 되도 안 되고. 되도 되긴 되는디 딱딱 갈라져버려서 맛이 없어.)

107036 @ 음.(음.)

107036 #2 어느 정도 맞아야. 경 헤영 그거를 허여가지고 썰어 점ᄀᆞ치 썰어가지고 대 꼬지, 꼬지에.(어느 정도 맞아야.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썰어 점같이 썰어가지고 대 꼬치, 꼬치에.)

107036 #1 적꼬지.(적꼬치.)

---

223) '청묵'은 '메밀쌀을 불린 후 놀려서 생긴 앙금으로 쑨 묵'이다.
224) '사'는 얇은 천의 한 종류다.

107036 #2 적꼬지라고 만들아서.(적꼬치라고 만들어서.)

107036 @ 예.(예.)

107036 #2 만들어서 이제 꿰영 영 화롯불에 놔. 적쉐 꼽아놓고 영 영 구면서 참지름 쑥쑥 불르면서 경 허영 상에 올리는 거.(만들어서 이제 꿰어서 이렇게 화롯불에 놔. 석쇠 꽂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구우면서 참기름 쑥쑥 바르면서 그렇게 해서 상에 올리는 거.)

107036 @ 예. 그거는 이제 식게 때나 멩질 때나? 어, 적을예?(예. 그거는 이제 제사 때나 명절 때나? 어, 적을요?)

107036 #2 경 안허믄 또 청묵이나 뭐 경 가정에서 경 허여먹을 수도 없어.(그렇게 안하면 또 '청묵'이나 뭐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해먹을 수도 없어.)

107036 @ 그렇지.(그렇지.)

107036 #2 거 때 굶는 때에 뭣을 헤여먹어. 막 중간에야 하간 거 허여먹엇주마는, 엿날에 나도 어린 적에 봐난 걸로 그자 어머니 아버지 허는 걸 봐남뿐이지.(거 때 굶는 때에 뭣을 해먹어. 매우 중간에야 온갖 거 해먹었지만, 옛날에 나도 어린 적에 봤던 걸로 그저 어머니 아버지 하는 걸 봤던 것뿐이지.)

107036 @ 삼춘넨 양반집이 그런 것도 이제 하영 헌 거고. (웃음).(삼촌넨 양반집이어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한 거고. (웃음).)

107036 #2 주로 그 멩질 때에 제ᄉᆞ 때에는 그런 묵을 주로 쑤고.(주로 그 명절 때에 제사 때에는 그런 묵을 주로 쑤고.)

107036 @ 예.(예.)

107036 #2 또 골, 골 해가지고 감줄 꼭 감주 헤서 올려.(또 엿기름, 엿기름 해가지고 감줄 꼭 감주 해서 올려.)

107036 @ 음.(음.)

107036 #2 우리는.(우리는.)

107036 @ 감주 헷어예, 예?(감주 했다고요, 예?)

107036 #2 감주 헤영 감주펭[225]에 딱 허게시리 이제 그 지금 이제금 도자기라고 잇잖아.(감주 해서 '감줏병'에 딱 하게끔 이제 그 지금 이제금 도자기라고 있잖아.)

107036 @ 예, 예.(예, 예.)

107036 #2 그런 병에 질어가지고 싹 상 앞의 놔서 헹 절허고, 거 올리고.(그런 병에 길어가지고 싹 상 앞에 놔서 해서 절하고, 거 올리고.)

107036 @ 예.(예.)

107036 #1 지금 사름덜은 골엔 허민 못 알아들 사름이 앞으로 만헐 거라.(지금 사람들은 엿기름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 사람이 앞으로 많을 거야.)

107036 @ 엿기름예?(엿기름요?)

107036 #1 엿기름엔 허영 지금은 ᄀᆞᆫ는디 그자 옛사름덜은 골.(엿기름이라고 해

225) '감주펭'은 감주를 담는 병이다. '펭'은 표준어 '병'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서 지금은 말하는데 그저 옛사람들은 '골'.)

107036 @ 예.(예.)

107036 #1 보리골[226].('보리골'.)

107036 @ 음. 보리골예?(음. '보리골'요?)

김치

107037 @ 그 다음은 이제는예, 짐치로 넘어가쿠다. 짐치 헌 종류는 어떤 거 잇어신고예?(그 다음은 이제는요, 김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치 하는 종류는 어떤 거 있었을까요?)

107037 #2 문저 번에 골앗는데.(먼저 번에 말했는데.)

107037 @ 골아도 또 이제 ᄐᆞ나마씨.(말해도 또 이제 달라요.)

107037 #1 또 나왓구나.(또 나왔구나.)

107037 @ 예.(예.)

107037 #2 문저 번에 골아본 거벳긔 엇어.(먼저 번에 말해본 거밖에 없어.)

107037 @ 음.(음.)

107037 #1 놈삐짐치, 배추짐치.(무김치, 배추김치.)

107037 @ 다시 골아 봅서.(다시 말해 보세요.)

107037 #2 거주게.(거지.)

107037 @ 거주게 허지 말고. 또시 삼춘 입으로.(거지 하지 말고. 다시 삼촌 입으로.)

107038 #2 옛날은 이제는 중간에야 하꼬산[227]이여 뭐 당베추[228]여 뭐 나왓지마는 옛날은 들머귀[229]벳기 없엇어.(옛날은 이제는 중간에야 '하꼬산'이다 뭐 '당배추'다 뭐 나왔지만 옛날은 '들머귀'밖에 없었어.)

107037 @ 음.(음.)

107038 #2 키가 이만이 헤. 겐디 속도 하나도 안 앚고이, 이렇게 허면서 막 기냥 정겡이가 이만이 헤여. 게민 그거를 딱딱 캐여다가 이젠 춤 소금국[230]에 당갓다가 헤먹고. 또 중간에 우리 이제 나 씨집 여기 온 후제는 또 그 하꼬산이옌 헌 거.(키가 이만큼 해. 그런데 속도 하나도 안 앉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정강이가 이만큼 해. 그러면 그거를 딱딱 캐어다가 이젠 참 소금국에 담갔다가 해먹고. 또 중간에 우리 이제 나 시집 여기 온 후에는 또 그 '하꼬산'이라고 한 거.)

107038 @ 음.(음.)

107038 #2 나와 가지고 이제 그거 허민 속 앚아, 그거는.(나와 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 속 앉아, 그거는.)

---

226) '보리골'은 보리로 만든 엿기름을 말한다.
227) '하꼬산'은 배추 품종의 하나다.
228) '당베추'는 배추 품종의 하나다.
229) '들머귀'는 들나물의 한 종류다.
230) 여기에서 '소금국'은 소금물의 의미로 말한 것이다.

107038 @ 예.(예.)

107038 #2 요만치 허여서 속 앚이민 이젠 캐여다가 여긴 소금도 그땐 엇이니까 나도 구루마에 시꺼근에 저 삼양에 그디 가서 바닷물에 커놓곡 허영 구루마에 시꺼 단 짐치도 담아나고.(요만큼 해서 속 앉으면 이젠 캐어다가 여긴 소금도 그땐 없으니까 나도 달구지에 실어서 저 삼양에 거기 가서 바닷물에 담가놓고 해서 달구지에 실어다가 김치도 담갔었고.)

107038 #2 이제난 ᄒᆞ꼼씩 허민 그 전에는 주루 마늘지허고 짐치벳긔 없으니까.(이제니까 조금씩 하면 그 전에는 주로 마늘장아찌하고 김치밖에 없으니까.)

107038 #1 반찬이.(반찬이.)

107038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38 #2 먹는 게 반찬이옌 헌 것이.(먹는 게 반찬이라고 한 것이.)

107038 @ 예, 예, 예. 맞수다.(예, 예, 예. 맞습니다.)

107038 #2 구루마로 ᄒᆞᆫ 구루마 헤영 와야 담앙은에 식구가 다 먹고.(달구지로 한 달구지 해서 와야 담가서 식구가 다 먹고.)

107038 @ 어째든 겨울 반찬.(어쨌든 겨울 반찬.)

107038 #2 지시도 이때 나근에 큰 항아리에다가 우리는 식구가 만헤 놓니까 큰 항아리에다 담곡.(장아찌도 이때 나서 큰 항아리에다가 우리는 식구가 많아 놓으니까 큰 항아리에다 담그고.)

107038 @ 음.(음.)

107038 #2 마늘 그 쫑 이제 나오기 전에, 쫑 나오기 전에 헤가지고 벳겨 두고 시쳐가지고 이젠 그걸 썰엉 헹은에 ᄌᆞ박ᄌᆞ박 쌔여가지고 우이 간장 비와.(마늘 그 종 이제 나오기 전에, 종 나오기 전에 해가지고 벗겨 두고 씻어가지고 이젠 그걸 썰어서 해서 자박자박 쌓아가지고 위에 간장 부어.)

107038 @ 예.(예.)

107038 #2 간장 비와 놓고 헷다가 익기도 전에 다 먹어.(간장 부어 놓고 했다가 익기도 전에 다 먹어.)

107038 @ 반찬이 엇이난예? 맞수다.(반찬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107038 #2 그 아이덜 보민이 그 마늘 뗑구리 그 저 뿌리.(그 아이들 보면 그 마늘 댕가리 그 저 뿌리.)

107038 @ 뿌리.(뿌리.)

107038 #2 그거 영헤영 보니 저디 올렛 아이덜 강 보민 그것덜 하나썩 들르고 와서 그것이 간식이라이.(그거 이렇게 해서 보니 저기 오래 아이들 가서 보면 그것들 하나씩 들고 와서 그것이 간식이야.)

107038 @ 음.(음.)

107038 #2 집의 항아리에 강 막 더듬어.(집에 항아리에 가서 막 더듬어.)

107038 @ 예.(예.)

107038 #2 그건 멧 개 안 뒈지게.(그건 몇 개 안 되지.)

107038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38 #2 어멍 아방안티 욕 들으면서.(어머니 아버지한테 욕 들으면서.)

107039 @ 맞아. 경 혜영 살아서예?(맞아. 그렇게 해서 살았지요?)

107039 #2 것이 간식이야.(것이 간식이야.)

107039 @ 그 게난 게니까 이제 베추짐치 아까 들머귀짐치[231] 이제 한 거고예? 그 열무짐치도 헤신가마씨?(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추김치 아까 '들머귀짐치' 이제 한 거고요? 그 열무김치도 했는가요?)

107039 #2 안 헤봣어.(안 해봤어.)

107039 @ 안 헤봔?(안 해봤어?)

107039 #1 열무가 잇어.(열무가 있어.)

107039 @ 놈삐 갈면 뿌리 하기 전에 우에 건 뭐렌 헙니까?(무 갈면 뿌리 하기 전에 위에 건 뭐라고 합니까?)

107039 #2 요즘.(요즘.)

107039 @ 예.(예.)

107039 #2 요즘은 뭐 뭐엔 골아. 춤ᄂᆞ물썹엔도 허고 동 사가민 춤ᄂᆞ물 동지엔도 허곡 그자 그런.(요즘은 뭐 뭐라고 말해. 무 잎이라고도 하고 동 서가면 무 동지라고도 하고 그저 그런.)

107039 @ 그런 것도 짐치 혜영 먹지예? 경 안 해?(그런 것도 김치 해서 먹지요? 그렇게 안 해?)

107039 #2 허영 먹주게.(해서 먹지.)

107039 @ 예, 그거는 언제적부터 춤ᄂᆞ물썹으로 김치 헤신고예?(예, 그거는 언제부터 무 잎으로 김치 했을까요?)

107039 #2 이때에.(이때에.)

107039 @ 으, 이때에. 으, 거는 어떤 식으로 허여? 춤ᄂᆞ물썹은?(으, 이때에. 으, 거는 어떤 식으로 해? 무 잎은?)

107039 #2 것도 들머귀짐치나 똑ᄀᆞ트게.(것도 '들머귀짐치'나 똑같게.)

107039 @ 양념덜은 어떤 거 놉니까?(양념들은 어떤 거 놉니까?)

107039 #2 양념이 어디 잇어.(양념이 어디 있어.)

107039 @ (웃음).

107039 #2 주로 마늘이나 ᄒᆞ꼼 영 놓고, 소금 영 허트고 고추엔 헌 건 이제 갈아근 혜영 헌 그 고추가 어떵인지 이제 고추 짓뻘겅허고 혹지마는 담지 아녕 젠젠 헤둠서 혜영 혜당 ᄆᆞᆯ랴 가믄 혜영혜부러.(주로 마늘이나 조금 이렇게 넣고, 소금 이렇게 흩고 고추라고 한 건 이제 갈아서 하얀 그 고추가 어떠한지 이제 고추 새빨갛고 굵지만 담그지 않아서 자잘해 두고 해서 해다가 말려 가면 하얘버려.)

107039 @ 음.(음.)

107039 #2 벳, 벳듸 발앙은에, 게민 그거를 ᄲᆞᆺ는 디가 없었어.(볕, 볕에 바래서,

231) '들머귀짐치'는 들배추의 한 가지인 '들머귀'로 담근 김치를 말한다.

그러면 그거를 빻는 데가 없었어.)

107039 @ 예예.(예예.)

107039 #2 그거를 솟듸 놩 보끄는 거라. 보까부러 가민 거멍허진 않아. 거기서 파삭파삭허면. 방에.(그거를 솥에 넣어서 볶는 거야. 볶아버려 가면 거멓진 않아. 거기서 파삭파삭하면. 방아.)

107039 @ 예.(예.)

107039 #2 그. 도고방에 삣이는 거라. 삣아근에 헤도 경 허영 놓민 김치가 헤영 해도 "아이고, 맛 좋다."(그. 도고방아 빻는 거야. 빻아서 해도 그렇게 해서 놓으면 김치가 하얘도 "아이고, 맛 좋다.")

107039 @ 아, 혹시 젓갈 같은 건 안 놉니까? 짐치 헐 때.(아, 혹시 젓갈 같은 건 안 놉니까? 김치 할 때.)

107039 #2 젓갈이 어디 잇어.(젓갈이 어디 있어.)

107039 @ 아, 젓갈도 엇구나. (웃음).(아, 젓갈도 없구나. (웃음).)

107039 #1 백김치.(백김치.)

107039 #2 중간에야 것도 나왓지.(중간에야 것도 나왔지.)

107039 @ 중간에야예?(중간에요?)

107039 #2 결혼헨 온 후제야.(결혼해서 온 후에야.)

107039 @ 음.(음.)

107039 #2 온 후제야 젓갈도 나왓어.(온 후에야 젓갈도 나왔어.)

107039 @ 옛날엔 그런 것도 여기는 바당허고도 멀고 허난에예, 그런.(옛날엔 그런 것도 여기는 바다하고도 멀고 하니까요, 그런.)

107039 #2 머나 ᄇᆞ드나 여기선 가깝긴 허지마는 헤도, 춤 옛날엔 멜이나 들면 그거 멜장시가 와.(머나 가까우나 여기선 가깝긴 하지만 해도, 참 옛날엔 멸치나 들면 그거 멸치장수가 와.)

107039 @ 예.(예.)

107039 #2 오면은 멧 사발 헹은에 그거를 흔 사발, 흔 사발 사는. 돈이 없으니까 흔 사발 사는 사름 두 사발 사는 사름 허민, 그거를 와근에 뭐 허기 전에 국 끓여 먹어부러.(오면 몇 사발 해서 그거를 한 사발, 한 사발 사는. 돈이 없으니까 한 사발 사는 사람 두 사발 사는 사람 하면, 그거를 와서 뭐 하기 전에 국 끓여 먹어버려.)

107039 @ 멜쿡[232]?(멸칫국?)

107039 #2 멜쿡 끓여 먹어불민.(멸칫국 끓여 먹어버리면.)

107039 #1 젓 닮기 전에. (웃음).(젓 닮기 전에. (웃음).)

107039 #2 그 ᄂᆞ물 놓고 국 끌리민 그렇게 맛이 잇어.(그 나물 넣고 국 끓이면 그렇게 맛이 있어.)

107039 @ 싱싱헌 거고예?(싱싱한 거고요?)

232) '멜쿡'은 '멸치를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107039 #2 국 끓여 먹어불민.(국 끓여 먹어버리면.)

107040 @ 삼춘, 물짐치 같은 것도 헤신가마씨? 나박짐치?(삼촌, 물김치 같은 것도 했는가요? 나박김치?)

107040 #2 나박짐치도 내가 여기 온 후제야 헷지. 그 전에는 없었어. 나박김끼 헐 게 없으니까.(나박김치도 내가 여기 온 후에야 했지. 그 전에는 없었어. 나박짐치 할 게 없으니까.)

107040 @ 음.(음.)

107040 #2 뭣으로 헤여.(뭣으로 해.)

107040 @ 놈삐 안 허난예?(무 안 하니까요?)

107040 #2 놈삐도 나 씨집 온 후제야 그 놈삐씨가 어떵 헤연 전해 온 거라. 게서 다 사방에 허연에 놈삐 갈안 먹고. 씨집오기 전의부터 나오긴 헷지.(무도 나 시집 온 후에야 그 무씨가 어떻게 해서 전해 온 거야. 그래서 다 사방에 해서 무 갈아서 먹고. 시집오기 전에부터 나오긴 했지.)

107040 @ 음.(음.)

107040 #2 경 허영 놈삐가 그제 놈삐는 이제거찌 홁지도 안허여. 꼭 지레기가 요만씩 허여.(그렇게 해서 무가 그때 무는 이제같이 굵지도 않아. 꼭 길이가 요만씩 해.)

107040 @ 음.(음.)

107040 #2 경헌 거 뽑아다가 걸로 국도 끓여 먹고.(그런 거 뽑아다가 걸로 국도 끓여 먹고.)

107040 @ 음.(음.)

107040 #2 또 짐치도 헤여 먹고 그렇게 허멍.(또 김치도 해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107040 @ 물짐치?(물김치?)

107040 #2 그거 몰랴가지고 생기리 허여가지고 마늘이 없으니까 또 이멘헌 것도 안 내빌어. 꽁치도 안 내빌어. 내불지 아녀. 그런 거를 다 허영 썰어가지고 몰려가지고. 이제 걸로 지 담아 먹고.(그거 말려가지고 무말랭이 해가지고 마늘이 없으니까 또 이만한 것도 안 내버려. 꽁지도 안 내버려. 내버리지 않아. 그런 거를 다 해서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걸로 장아찌 담가 먹고.)

107040 #1 지시 담을 때 마늘지시 헐 때 그 ᄀᆞ찌.(장아찌 담글 때 마늘장아찌 할 때 그 같이.)

107040 @ 으음.(으음.)

107040 #2 경헨 담아 먹고. 마늘지시도 이제 사는 집의야 마늘지시도 먹엇지. 엿날에는 이제 놉. 엿날 저 멩도암 그 양 풍언. 김 풍언.(그렇게 해서 담가 먹고. 마늘장아찌도 이제 사는 집에야 마늘장아찌도 먹었지. 옛날에는 이제 놉. 옛날 저 명도암 그 양 풍헌. 김 풍헌.)

107040 #1 김 좌수네 집의.(김 좌수네 집에.)

107040 #2 김 좌수네 집의 막 그 이제 말로 ᄀᆞ뜨민 그 종.(김 좌수네 집에 매우 그 이제 말로 같으면 그 종.)

107040 @ 예, 예, 예.(예, 예, 예.)

107040 #2 잇잖아. 그런 사람 많이 돌안 허는디 마늘지시 어떻게 종 앞의 마늘지시를.(있잖아. 그런 사람 많이 데려서 하는데 마늘장아찌 어떻게 종 앞에 마늘장아찌를.)

107040 #1 줄 수가 잇냐?(줄 수가 있냐?)

107040 #2 줄 수가 잇느냐? 그 이파리로나 헌 거나 주지. 경 허영 막 허여낫덴 허여. 마늘지시도 없엇어. 그 전인 너무나 이디 것이 뭐헤가지고이.(줄 수가 있느냐? 그 이파리로나 한 거나 주지. 그렇게 해서 막 했었다고 해. 마늘장아찌도 없었어. 그 전엔 너무나 여기 것이 뭐해가지고.)

107040 @ (웃음).

107040 #1 먹을 게 없어 놓니깐게.(먹을 게 없어 놓으니깐.)

107040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7040 #2 나 춤, 커올 적에 나가 열다섯에 이제 저기 요 밑에 동네 다 불 부쪄부니까 저.(나 참, 커올 적에 내가 열다섯에 이제 저기 요 밑에 동네 다 불 붙여버리니까 저.)

107040 @ 음, 음.(음, 음.)

107040 #2 삼양일동으로 갓지. 간 헌 적에부떠는 마늘도 많이 나오고.(삼양일동으로 갔지. 가서 한 적에부터는 마늘도 많이 나오고.)

107040 @ 음.(음.)

107040 #2 또 허연, 나도 이젠 올라완에 처년 때에도 마늘 싱거가지고 가근에 드른드르[233] 삼양장엔 헌 디 잇어나서 그디 졍 간 풀고.(또 했어, 나도 이젠 올라와서 처년 때에도 마늘 심어가지고 가서 '드른드르' 삼양장이라고 한 데 있어서 거기 져서 가서 팔고.)

107040 @ 마농 헹은에예? 어어.(마늘 해서요? 어어.)

107040 #1 웨정 때엔 우선 먹을 게 전연 없어가지고 이 공무원도 흔 둘 봉급 받아도 거기 돈을 부쳐야 쏠 흔 가마닐 삿어.(왜정 때엔 우선 먹을 게 전연 없어가지고 이 공무원도 한 달 봉급 받아도 거기 돈을 붙여야 쌀 한 가마닐 샀어.)

107040 @ 경 허니까예?(그렇게 하니까요?)

107040 #1 쏠 흔 가마니 쏠 흔 삼분의 이 깝 정도의 그 흔 둘 공무원 흔 둘.(쌀 한 가마니 쌀 한 삼분의 이 값 정도의 그 한 달 공무원 한 달.)

107040 #2 흔 둘 내내 이 아빠가 가근엥에 그르후제주만 아주 그르후제. 한 오십 년 전, 오십 년도 안 뒈엇지. 더 뒈엿지.(한 달 내내 이 아빠가 가서 그 이후지만 아주 그 이후에. 한 오십 년 전, 오십 년도 안 되었지. 더 되었지.)

107040 #1 더 뒈엿주게.(더 되었지.)

---

233) '드른드르'는 제주시 삼양동 지명의 하나다.

107040 #2 강 한 달 내낭 저디 강 일 헹 오면 돈 사만 원. 사만 원 받아오면 받아오도 아녀. 그자 주로 책 같은 거 이녁 이제 주사 맞는 거 그거 허영 오지. 것도 봉급도 안 아져와낫어.(가서 한 달 내내 저기 가서 일 해서 오면 돈 사만 원. 사만 원 받아오면 받아오지도 않아. 그저 주로 책 같은 거 이녁 이제 주사 맞는 거 그거 해서 오지. 것도 봉급도 안 가져왔었어.)

107041 @ (웃음). 게믄 사나 죽으나 이젠 삼춘이 이제 헷구나? 경허고 동지짐치는 어떵 헙니까?((웃음). 그러면 사나 죽으나 이젠 삼촌이 이제 했구나? 그렇게 하고 동지김치는 어떻게 합니까?)

107041 #2 동지짐끼 저 그 ᄂᆞᆯ 동이 이렇게 사가면.(동지김치 저 그 배추 동이 이렇게 서가면.)

107041 @ 으.(으.)

107041 #2 똑똑똑똑 꺼꺼다가. 이제도 그렇게 헹 먹지.(똑똑똑똑 꺾어다가. 이제도 그렇게 해서 먹지.)

107041 #1 꽃 피기 전에.(꽃 피기 전에.)

107041 #2 꼿 필락말락헐 때에 그걸 똑똑똑 꺼꺼가지고 소금국에 허영 딱 담갓다가, 딱딱 누르떵 놧다가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헹 놧다가 고대로 꺼꺼다가 그 먹엇어.(꽃 필듯말듯할 때에 그걸 똑똑똑 꺾어가지고 소금물에 해서 딱 담갔다가, 딱딱 눌러서 놨다가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해서 놨다가 그대로 꺾어다가 그 먹었어.)

107041 @ 음.(음.)

107041 #2 마늘도 엇고 고추도 엇이니까 그대로 꺼꺼 와도 그렇게 맛잇어이. 누르르허영.(마늘도 없고 고추도 없으니까 그대로 꺾어 와도 그렇게 맛있어. 누르스름해서.)

107041 @ 소금국 헤영 그냥 동지만 담앙예?(소금물 해서 그냥 동지만 담가서요?)

107041 #2 돌 지둘랑 놔뒁다가 그대로 꺼네당 먹고. 또 고칫ᄀᆞ르라도 이시민 영 허영 허터서 먹고.(돌 지질러서 놔뒀다가 그대로 꺼내다가 먹고. 또 고춧가루라도 있으면 이렇게 해서 흩어서 먹고.)

107041 @ 음. 누렁허게 익으믄 먹어예. 그걸.(음. 누렇게 익으면 먹는다고요. 그걸.)

107041 #2 시금트룽헌 게 맛이 잇어낫는디 이젠 먹으렌 헤도 못 먹을 거 같아 봬.(시큼한 게 맛이 있었었는데 이젠 먹으라고 해도 못 먹을 거 같아 보여.)

107041 #1 못 먹어. 못 먹어.(못 먹어. 못 먹어.)

107041 @ 걸 동지김끼?(걸 동지김치?)

107041 #2 동지짐치.(동지김치.)

107041 @ 음.(음.)

107041 #2 이제는 얼마든지 이제는 맛잇게 헐 수가 잇주마는 그전에는 맛잇게 헐라도 미원이 시카?(이제는 얼마든지 이제는 맛있게 할 수가 있지만 그전에는 맛

있게 하려해도 미원이 있을까?)

107041 @ 예.(예.)

107041 #2 뭐 이제쯤이 다시다도 잇네 좀 젓갈도 잇네. 아무 거라도 사멍다가 놓주마는 아무 것도 없어.(뭐 이제쯤 다시다도 있네 좀 젓갈도 있네. 아무 거라도 사면서 놓지만 아무 것도 없어.)

107041 #1 양념이 없으니까.(양념이 없으니까.)

107041 #2 깨라 헌 것도 조 갈면 조팟듸 머드레라고 놔이.(참깨라 한 것도 조 갈면 조밭에 대우라고 놔.)

107041 @ 예, 예.(예, 예.)

107041 #2 그거를 이젠 놓민 하나씩 허영 따다가 멧 다불 허민 이젠 그거 허영 양념 먹을 수도 없어. 그자 경 허영 쪼끔씩 제ᄉᆞ 때나 쓸라고.(그거를 이젠 놓으면 하나씩 해서 따다가 몇 다발 하면 이젠 그거 해서 양념 먹을 수도 없어. 그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제사 때나 쓰려고.)

107042 @ 음, 게문 삼춘 이제, 옛날에야 놈삐짐치 안헷주마는 요즘은 놈삐짐친 허잖아예?(음, 그러면 삼촌 이제, 옛날에야 무김치 안했지만 요즘은 무김친 하잖아요?)

107042 #2 요즘에야 허지.(요즘에야 하지.)

107042 @1 어떤 식으로 헙니까? 요즘은.(어떤 식으로 합니까? 요즘은.)

107042 #2 요즘에는 난 아무것도 헐 충 몰르니까 놈삐짐끼 헐라믄게 그런 짐치도 잇고 저런 집도 잇고 영 허영은에 허민 똑똑 썰어가지고.(요즘에는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무김치 하려면 그런 김치도 있고 저런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똑똑 썰어가지고.)

107042 @ 음.(음.)

107042 #2 무우를 아이고, 뭐엔 곧젠 헤도 잊어불어졋저.(무를 아이고, 뭐라고 말하려고 해도 잊어버려졌어.)

107042 #1 놈삐 썰엉.(무 썰어서.)

107042 @ 음.(음.)

107042 #2 놈삐 썰엉 소곰 허터가지고 썰엉 허민 양념 잘 허민 그렇게 맛잇지. 식당에도 나오잖아.(무 썰어서 소금 흩어가지고 썰어서 하면 양념 잘 하면 그렇게 맛있지. 식당에도 나오잖아.)

107042 @ 예.(예.)

107042 #1 소곰.(소금.)

107043 @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아까 패마농으로도 짐치헙니까?(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까 파로도 김치합니까?)

107043 #2 엿날에는 아녓어. 이제나 허지.(옛날에는 안했어. 이제나 하지.)

107043 @ 이제는 어떤 식으로 헙니까? 패마농짐친?(이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파김친?)

107043 #2 패마늘 해다가 이제는 다 까는 거라. 탁허게 시쳐가지고 건져가지고 막바르 담가야 맛잇지 소금국에 담갓당은 맛없어, 찔겨가지고.(파 해다가 이제는 다 까는 거야. 탁하게 씻어가지고 건져가지고 바로 담가야 맛있지 소금물에 담갔다가 맛없어, 질겨가지고.)

107043 @ 아아, 다른 것들은 소금국에 허잖아예?(아아, 다른 것들은 소금물에 하잖아요?)

107043 #2 으, 기냥 막바르 이제는 뭐 젓갈 다 놓고 모든 걸 다 놩 허민 그렇게 맛잇주게.(으, 그냥 바로 이제는 뭐 젓갈 다 넣고 모든 걸 다 넣어서 하면 그렇게 맛있지.)

107043 @ 보통은 어떤 젓갈 놉니까? 거기에는.(보통은 어떤 젓갈 놉니까? 거기에는.)

107043 #2 어, 기냥 멜젓도 놓고 경허주게. 액젓도 놓고, 놓고 싶은 냥 그자 놓고 이젠 뭐 다시다도 잇겟다 뭐 간장도 잇겟다 뭐 없는 게 없으니까.(어, 그냥 멸치젓도 넣고 그렇게 하지. 액젓도 넣고, 넣고 싶은 대로 그저 넣고 이젠 뭐 다시다도 있겠다 뭐 간장도 있겠다 뭐 없는 게 없으니까.)

107043 @ 예. 이제 헹만 먹으믄.(예. 이제 해서만 먹으면.)

107043 #2 다 놓면은 맛잇지.(다 놓으면 맛있지.)

107043 #1 양념간장도 잇고.(양념간장도 있고.)

107043 @ 양념간장도 잇고, 맞수다.(양념간장도 있고, 맞습니다.)

107044 @ 장깐만예? 누게안티 줄 거 아니난예? 아까 우리 파짐치 하고예, 그 다음 또 꿩마농도 짐치헤마씨? 옛날은 하영헤실 거 같에.(잠깐만요? 누구한테 줄 거 아니니까요? 아까 우리 파김치 하고요, 그 다음 또 달래도 김치해요? 옛날은 많이 했을 거 같아.)

107044 #2 옛날은이 콥데산이가 없으니까 꿩마농을 뿌리로 파오는 거라이. 입사귀는 또 거세기 국도 끓여먹고 죽도 끓여먹고 또 짐치도 담아먹고 헷는디 그거를 이젠 다 뿌리를 이젠 영허연 뿌리 시쳐가지고 헤양케 헤영.(옛날은 마늘이 없으니까 달래를 뿌리로 파오는 거야. 잎사귀는 또 거시기 국도 끓여먹고 죽도 끓여먹고 또 김치도 담가먹고 했는데 그거를 이젠 다 뿌리를 이젠 이렇게 해서 뿌리 씻어가지고 하얗게 해서.)

107044 @ 음.(음.)

107044 #2 쫌 물량. 물랴가지고 간장에 커. 그것을 바로 마늘지 헤서 먹어.(좀 말려서. 말려가지고 간장에 담가. 그것을 바로 마늘장아찌 해서 먹어.)

107044 @ 으음.(으음.)

107044 #2 맛잇어. 그래도.(맛있어. 그래도.)

107044 @ 으음. 그게 더 맛 좋을 거 닮아예?(으음. 그게 더 맛 좋을 거 같아요?)

107044 #2 생차 때는 멥고 맛이 없지만 경 헤영 먹엇어.(생째 때는 맵고 맛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먹었어.)

107044 @ 옛날은 꿩마농들이 하서예?(옛날은 달래들이 많았지요?)

107044 #2 핫어.(많았어.)

107044 @ 으음.(으음.)

107044 #2 우리도 어릴 때 강 "꿩마농 캐어 오라" 경허민 그거 재미가 잇어.(우리도 어릴 때 가서 "달래 캐어 와라" 그렇게 하면 그거 재미가 있어.)

107044 @ 예, 예 허는?(예, 예 하는?)

107044 #2 강 보면 밧듸덜 기냥 막 오질오질 오질오질 영 언 밧듸.(가서 보면 밭에들 그냥 막 오질오질 오질오질 이렇게 언 밭에.)

107044 @ 예.(예.)

107044 #2 요만썩 오질오질[234]허민 걸 막 기냥.(요만씩 '오질오질'하면 걸 막 그냥.)

107044 @ 재미로?(재미로?)

107044 #2 재미로, 뿔리 파오렌 허민, 뿔리 강 막 골겡이 아졍강 허곡. 기냥 강 캐어오렌 허민, 기냥 칼 아졍강 캐오고.(재미로, 뿌리 파오라고 하면, 뿌리 가서 막 호미 가져가서 하고. 그냥 가서 캐어오라고 하면, 그냥 칼 가져가서 캐오고.)

107044 @ 아.(아.)

107044 #2 경 바구니 숭키바구리. 요 밑에는 구덕을 많이 줏거든.(그렇게 바구니 푸성귀바구니. 요 밑에는 바구니를 많이 겯거든.)

107044 @ 예, 예, 예.(예, 예, 예.)

107044 #2 게난 숭키바구리 아지고 헤서 막 재미 부쪙 넣어 아졍 왕 집의 왕 다듬앙은에 걸로 짐치도 담앙 먹고.(그러니까 푸성귀바구니 가지고 해서 매우 재미 붙여서 넣어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다듬어서 걸로 김치도 담가서 먹고.)

107044 @ 으음.(으음.)

107044 #1 그자 국도. 견디 무쳐 먹어보진 아녓어.(그저 국도. 그런데 무쳐 먹어보진 않았어.)

107044 @ 아아.(아아.)

107044 #2 그걸로.(그걸로.)

107044 @ 그걸로 무쳐 먹진 안허고예?(그걸로 무쳐 먹진 안하고요?)

107044 #2 재료가 없으니까 못 무치는 거지.(재료가 없으니까 못 무치는 거지.)

107044 @ 음, 음, 음.(음, 음, 음.)

107044 #2 뭐 이제거치 설탕이 잇나 뭐 잇나게.(뭐 이제같이 설탕이 있나 뭐 있나.)

107045 @ 음, 음.(음, 음.)

107045 #2 설탕도 어떵 헤신고 허민 중간에다가 그 이 제국시대가 잇잖아.(설탕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중간에다가 그 이 제국시대가 있잖아.)

---

234) '오질오질'은 구술자가 달래가 어느 정도 큰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107044 @ 예, 예.(예, 예.)

107044 #2 그때에 완에 그 노랑설탕을 좀 나놔줫어.(그때에 와서 그 노랑설탕을 좀 나눠줬어.)

107044 @ 음.(음.)

107044 #2 그렇게 헨 그거를 콩 보까가지고 이젠 콩 막 그냥 뜨뜻허게 허영 헌 때에 설탕을 허끄는 거라. 허터가지고 솟 소곱에 딱 놔두는 거라. 뜻뜻헌 솟 소곱에서 그것이 딱 영 허영 꽈자가 뒈는 거라. 게민 그거를 한 개썩 먹어보면 그렇게 맛잇을 수가 없어.(그렇게 해서 그거를 콩 볶아가지고 이젠 콩 매우 그냥 뜨뜻하게 해서 한 때에 설탕을 흩는 거야. 흩어가지고 솥 안에 딱 놔두는 거야. 뜻뜻한 솥 안에서 그것이 딱 이렇게 해서 과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한 개씩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107045 @ 음, 그게 요즘 강정 아니라예? 콩강정. 맞수다.(음, 그게 요즘 강정 아닌가요? 콩강정. 맞습니다.)

107045 #2 경 허영 먹엇어.(그렇게 해서 먹었어.)

107045 #2 그 다음에 여기는 갓을 뭐렌 헙니까? 이 동네서는.(그 다음에 여기는 갓을 뭐라고 합니까? 이 동네서는.)

107045 #2 갓?(갓?)

107045 @ 예.(예.)

107045 #1 갯ᄂᆞ물?('갯ᄂᆞ물'?)

107045 @ 예, 갯ᄂᆞ물.(예, '갯ᄂᆞ물'.)

107045 #2 옛날은 갯ᄂᆞ물.(옛날은 '갯ᄂᆞ물'.)

107045 @ 갯ᄂᆞ물예?('갯ᄂᆞ물'요?)

107045 #2 이제는 갓이여 무신 갯ᄂᆞ물엔만 주로 헷주, 우리 갯ᄂᆞ물.(이제는 갓이다 무슨 '갯ᄂᆞ물'이라고만 주로 했지, 우리 '갯ᄂᆞ물'.)

107045 @ 갯ᄂᆞ물로는 주로 뭐 헹 먹어마씨?(갓으로는 주로 뭐 해서 먹어요?)

107045 #2 물짐치.(물김치.)

107045 @ 아, 그걸로는 물짐치를 허여? 게믄 물짐치는 어떤 식으로 헷수가?(아, 그것으로는 물김치를 해? 그러면 물김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7045 #2 딱딱허게 헤여다가 시쳐가지고 이젠 항아리에나 쪼끄만헌 항아리나 두껑 맞는 거.(딱딱하게 해다가 씻어가지고 이젠 항아리에나 조그마한 항아리나 뚜껑 맞는 거.)

107045 #1 단지, 단지.(단지, 단지.)

107045 #2 단지.(단지.)

107045 @ 음.(음.)

107045 #2 쪼그만헌 단지레 이제 거를 ᄌᆞ북ᄌᆞ북[235] 이제 쎄여. 쎄여가지고 소금을 놔.(조그만한 단지에 이제 거를 '자북자북' 이제 쌓아. 쌓아가지고 소금을 놔.)

235) 'ᄌᆞ북ᄌᆞ북'은 구술자가 김치를 차근차근 넣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45 @ 음.(음.)

107045 #2 소금을 놔가지고 물 팔팔 끓여가지고 그렇지 아녀민 막 독해서 못 먹어.(소금을 놔가지고 물 팔팔 끓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막 독해서 못 먹어.)

107045 @ 음.(음.)

107045 #2 게민 팔팔 끓여가지고 이젠 놔서 이젠 항아리 두껑을 딱 더꺼.(그러면 팔팔 끓여가지고 이젠 놔서 이젠 항아리 뚜껑을 딱 덮어.)

107045 @ 음.(음.)

107045 #2 더껑 놧다가 흔 이틀 삼일만 이시민 맛잇어.(덮어서 놨다가 한 이틀 삼일만 있으면 맛있어.)

107045 @ 음.(음.)

107045 #2 이제난 뭐 다음에 무신 뉴스ᄁᆞ르니 뭐 무신거엔 나왓주마는 그젠 설탕도 엇으니까 고대로들 먹고 살앗지.(이제니까 뭐 다음에 무슨 뉴스가루니 뭐 무엇이라고 나왔지만 그젠 설탕도 없으니까 그대로들 먹고 살았지.)

107045 @ 음.(음.)

107045 #2 다음엔 그 설탕이 나오난 것도 놩 먹고.(다음엔 그 설탕이 나오니까 것도 놔서 먹고.)

107045 @ 게믄 옛날에는 물짐치 헌 거는 갯ᄂᆞ물로만 물짐치 헌 거우과?(그러면 옛날에는 물김치 한 거는 갓으로만 물김치 한 겁니까?)

107045 #2 으.(으.)

107045 @ 아, 다른 거는 물짐치 안 허고?(아, 다른 거는 물김치 안 하고?)

107045 #1 놈삐.(무.)

107045 #2 놈삐도 중간에도 나왓주. 막 옛날에는 갯ᄂᆞ물.(무도 중간에도 나왔지. 아주 옛날에는 갓.)

107045 @ 중간에 놈삐 물짐치는 어떤 식으로 헌 거라?(중간에 무 물김치는 어떤 식으로 한 거야?)

107045 #2 것도 그렇게. 그냥 똑똑 썰어 놓고. 소금 놓고 이젠 다른 양념이옌 헌 건 마늘도 시민 놓고 없으민 말앙 그자 소금 놓고 물 부어놩 영 허영 맛 봉. 게영 식초가 없으니까 어떵헤신곤 허민 이제 영허여근에 항아리에다가 그 밥을이.(것도 그렇게. 그냥 똑똑 썰어 넣고. 소금 넣고 이젠 다른 양념이라고 한 건 마늘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아서 그저 소금 넣고 물 부어놓아서 이렇게 해서 맛 봐서. 그렇게 해서 식초가 없으니까 어떡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다가 그 밥을.)

107045 #1 쉰다리[236].('쉰다리'.)

107045 #2 쉰다리거치 놔두면 막 오래 이제 ᄀᆞ트민 먹지도 아녀지게. 막 벌레가 생겨.('쉰다리'같이 놔두면 매우 오래 이제 같으면 먹지도 않지. 마구 벌레가 생겨.)

236)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표 시킨 음료'다. 여름철에 많이 해서 먹는다. 지역에 따라서 '순다리'라고도 한다.

107045 @ 음.(음.)

107045 #2 생겨 막. 식초가 뒈여. 게민 그거를 떠놓면서 냉국도 헤 먹고. 하간 그런 것에도 놔 먹고 다 헷지.(생겨 마구. 식초가 되어. 그러면 그거를 떠놓으면서 냉국도 해서 먹고. 온갖 그런 것에도 놔서 먹고 다 했지.)

107045 @ 으음. 옛날 어른들은 지혜가 잇엇던 거주예? 그런 것도 다 만들엇으니까.(으음. 옛날 어른들은 지혜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 것도 다 만들었으니까.)

107045 #2 것도 식초를 만, 경허젠 허민. 누룩을 옛날은 누룩을 만들었어. 누룩을 놔야.(것도 식초를 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룩을 옛날은 누룩을 만들었어. 누룩을 놔야.)

107045 @ 예, 누룩 놔야 이제 발효가 뒝예? 나중에 누룩 만드는 것도 다 조사 뒐 거우다. 이제.(예, 누룩 놔야 이제 발효가 되어서요? 나중에 누룩 만드는 것도 다 조사 될 겁니다. 이제.)

107045 #2 나 누룩 만들 충도 몰른다.(나 누룩 만들 줄도 모른다.)

107046 @ 아까 만들엇덴 허멍. 그 다음에 여기, 새우리도 짐치 헷수가?(아까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부추도 김치 했습니까?)

107046 #2 에이고, 그때는 새우린 난 몰라봣저.(아이고, 그때는 부춘 난 몰라봤어.)

107046 @ 아, 게믄 새우린 언제 봣수가?(아, 그러면 부춘 언제 봤습니까?)

107046 #2 축담 밑에이.(축담 밑에.)

107046 @ 예.(예.)

107046 #2 좀 갈민 그자 뒌장에나 썰어놩 먹는 걸로 알앗주. 축담 밑에.(좀 갈면 그저 된장에나 썰어놓아서 먹는 걸로 알았지. 축담 밑에.)

107046 @ 음.(음.)

107046 #2 아무 디도 아니 축담 밑에 갈아.(아무 데도 아니 축담 밑에 갈아.)

107046 @ 예, 새우리는?(예, 부추는?)

107046 #2 물 똑똑 털어지민 그거 비영 그자 뒌장에 썰어 놩 먹고. 주로 뒌장에 썰어 놩 먹어.(물 똑똑 떨어지면 그거 베어서 그저 된장에 썰어 넣어서 먹고. 주로 된장에 썰어 넣어서 먹어.)

107046 @ 새우리는?(부추는?)

107046 #2 경 허영 딱 허게 썰어 놓곡 이제 그거를 떠 놓고 냉국허민 맛잇어.(그렇게 해서 딱 하게 썰어 넣고 이제 그거를 떠 놓고 냉국하면 맛있어.)

107046 @ 음, 새우리는 짐치는 안 헤보고.(음, 부추는 김치는 안 해보고.)

107046 #2 중간에야 새우리짐치가 나왔지.(중간에야 부추김치가 나왔지.)

107046 @ 예.(예.)

107046 #1 집 둘레에 심는 게.(집 둘레에 심는 게.)

107046 @ 예.(예.)

107045 #1 이제 아까ᄀᆞ치 그 저, 새우리허고, 양웨.(이제 아까같이 그 저, 부추

하고, 양하.)

107046 @ 예.(예.)

107046 #1 양웨 헤영근엥에 이제 헷당 먹곡 다시 그 저 양엣간[237]엔 헤영근엥에 그 저 꼿 올라오는 거.(양하 해서 이제 했다가 먹고 다시 그 저 '양엣간'이라고 해서 그 저 꽃 올라오는 거.)

107046 @ 예, 예.(예, 예.)

107046 #1 양웻불엔도 곧고.('양웻불'이라고 말하고.)

107046 @ 예, 예.(예, 예.)

107046 #1 그거 헤영 뚜시 지시 둠앙 먹고. 또 반찬, 반찬으로도 헹 먹고. 경덜 헷주, 뭐.(그거 해서 다시 장아찌 담가서 먹고. 또 반찬, 반찬으로도 해서 먹고. 그렇게들 했지, 뭐.)

107046 @ 게난 양웨를 하영 먹엇겠네, 예전에는예? 아아.(그러니까 양하를 많이 먹었겠네, 예전에는요? 아아.)

107046 #1 게난 집 둘레에 거 웨.(그러니까 집 둘레에 거 왜.)

107046 #2 것도 매 집이 없어.(것도 매 집에 없어.)

107046 #1 집가지 아래 그게 헷느냐고 하면 물이 떨어지니까 흑을 파불거든. 그걸 심으민 흑이 도망가들 안 허여. 옛 어른덜이 지혜라, 것도.(처마 아래 그게 했느냐고 하면 물이 떨어지니까 흙을 파버리거든. 그걸 심으면 흙이 도망가지를 않아. 옛 어른들의 지혜야, 것도.)

107046 @ 뿌리 딱 저기 하믄예? 예, 맞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뿌리 딱 저기 하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젓갈

107048 @ 그 다음에 젓갈은 옛날은 안 헷주만 게도 담앗잖아예? 젓갈은 어떤 거 담앙 먹엇수가? 집에서.(그 다음에 젓갈은 옛날은 안 했지만 그래도 담갔잖아요? 젓갈은 어떤 거 담가서 먹었습니까? 집에서.)

107048 #2 아, 젓갈.(아, 젓갈.)

107048 @ 예.(예.)

107048 #2 젓갈은 주로 그자 멜첫벳긔, 멜첫 자돔.(젓갈은 주로 그저 멸치젓밖에, 멸치젓 자리돔.)

107048 #1 자리젓.(자리젓.)

107048 #2 자리젓.(자리젓.)

107048 @ 예.(예.)

107048 #2 그거.(그거.)

107048 @ 여기는 삼춘 자돔젓 헷수가? 자리젓이렌 골앗수가?(여기는 삼촌 자리젓 했습니까? 자리젓이라고 말했습니까?)

---

237) '양엣간'은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나는 꽃 이삭을 말한다. 달리 '양웻불'이라고도 한다.

107048 #2 자돔.(자리돔.)

107048 @ 자돔젓.(자리젓.)

107048 #1 자돔엔도 허고 자리엔도 허곡 두 가지 다.('자돔'이라고도 하고 '자리'라고도 하고 두 가지 다.)

107048 #2 자돔 삽서 그자 그거주.(자리돔 사세요, 그거 그거지.)

107048 @ 음.(음.)

107048 #2 우지. 이제도 자리엔도 곧는 사름 잇고 자리엔도 곧지마는 옛날엔 주로 "자돔 삽서, 갈치 삽서, 고등에 삽서, 각제기 삽서." (웃음).(위지. 이제도 '자리'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고 '자리'라고도 말하지만 옛날엔 주로 "'자돔' 사세요, 갈치 사세요, 고등에 사세요, 전갱이 사세요." (웃음).)

107048 @ (웃음). 옛날은 다 풀레 다녀시난예? 맞수다.((웃음). 옛날은 다 팔러 다녔으니까요? 맞습니다.)

107048 #1 자돔이나 자리 다 두 가지 다 병용해.('자돔'이나 '자리' 다 두 가지 다 병용해.)

107049 @ 그러면 삼춘, 그 자돔도 젓갈 담아봣지예? 그건 어떤 식으로 담읍니까?(그러면 삼촌, 그 자리돔도 젓갈 담가봤지요? 그건 어떤 식으로 담급니까?)

107049 #2 아, 기냥 소곰허고.(아, 그냥 소금하고.)

107049 @ 비율은?(비율은?)

107049 #2 비율 건 난 몰라. 우리 부모네가 듬아나니까 그거를 이제 영 듬는 거 보니깐 자리를 영 그릇에 놔가지고 이렇게 소금 놓고 영 배합을 시켜.(비율 건 난 몰라. 우리 부모네가 담갔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담그는 거 보니깐 자리돔을 이렇게 그릇에 놔가지고 이렇게 소금 넣고 이렇게 배합을 시켜.)

107049 @ 예.(예.)

107049 #2 배합을 시켜가지고.(배합을 시켜가지고.)

107049 #1 버무려.(버무려.)

107049 #2 항아리레 영 이렇게 똑똑 허여서 이젠 또 이젠 영 똑똑 놔가지고 이젠 그레 푹허게시리 저 뭐인가, 저 누리떠. 누리뜨는 거엔 헌 건 대바드렝이[238].(항아리에 이렇게 이렇게 똑똑 해서 이젠 또 이젠 이렇게 똑똑 놔가지고 이젠 그리로 푹하게끔 저 뭐인가, 저 눌러. 누르는 거라고 한 건 '대바드렝이'.)

107049 @ 예.(예.)

107049 #2 대바드렝이 영 헤연 만들어가지고 딱 눌렁 우의 돌 지둘롸. 경 허영 허곡. 경 허영 이젠 벌레 궤지 말게, 이제 벌레, 옛날 파리도 만헤낫서이.('대바드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딱 눌러서 위에 돌 지질러.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젠 벌레 괴지 말게, 이제 벌레, 옛날 파리도 많았었어.)

107049 @ 예, 맞아예.(예, 맞아요.)

107049 #2 파리 만헤나니까 쉬프리가 왕 어떻꾸름허든 들어가니까 그거를 방지

238) '대바드렝이'는 대오리로 가로 세로 엮어서 만든 물건을 말한다. 자리젓을 누르는 용도로 쓴다.

위허게 허젠 허면 호박입도 헤영 더꺼나고.(파리 많았었으니까 쉬파리가 와서 어떻게든 들어가니까 그거를 방지 위하게 하려고 하면 호박잎도 해서 덮었었고.)

107049 @ 예.(예.)

107049 #2 또 그렇지 않으면 쌈수세기엔 헌 거 잇어.(또 그렇지 않으면 한삼덩굴이라고 한 거 있어.)

107049 @ 쌈수세기?(한삼덩굴?)

107049 #2 쌈수세기 뭐엔 곧는고? 옛날은 쌈수세기.(한삼덩굴 뭐라고 말하는가? 옛날은 '쌈수세기'.)

107049 @ 예.(예.)

107049 #2 영 줄 벋으민 올라가는 거. 가시 돋은 거.(이렇게 줄 뻗으면 올라가는 거. 가시 돋은 거.)

107049 @ 알아집네다.(알아집니다.)

107049 #3 그거 헤다가 영헤영 소곱에도 놓고 영 둘레로도 둘르민 파리가 안 와.(그거 해다가 이렇게 해서 속에도 넣고 이렇게 둘레로도 두르면 파리가 안 와.)

107049 @ 음.(음.)

107049 #2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7049 @ 음, 아, 게믄 이제 젓갈 담은 우의로 헤갖고예? 그거를 더프는 거라예? 그걸로예?(음, 아, 그러면 이제 젓갈 담근 위로 해갖고요? 그거를 덮는 거네요? 그것으로요?)

107049 #2 막 더프면 안 뒈고 영 허영.(마구 덮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107049 @ 가로.(가로.)

107049 #2 둘렝이면 이렇게 영 허영 ᄒᆞ꼼 공간 잇게 헹 놔두민 안 들어.(둘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공간 있게 해서 놔두면 안 들어.)

107049 #1 아, 그저 단지, 단지 베껏딜로?(아, 그저 단지, 단지 바깥으로?)

107049 #2 벳겻딜로.(바깥으로.)

107049 #1 아, 벳겻딜로.(아, 바깥으로.)

107050 @ 경헤영 아마 그거가 파리 퇴치허는 무슨 게 잇나봐예?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헤서 담그고, 멜첫은?(그렇게 해서 아마 그거가 파리 퇴치하는 무슨 게 있나봐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담그고, 멸치젓은?)

107050 #2 멜첫도 똑ᄀᆞ타. 그렇게 소금 버무리고. 그자 그렇게 헹, 헹 놔둬야 허주. 경 안 허면 벌레가 많이 궤여.(멸치젓도 똑같아. 그렇게 소금 버무리고. 그저 그렇게 해서, 해서 놔둬야 하지. 그렇게 안 하면 벌레가 많이 괴어.)

107050 @ 음.(음.)

107050 #2 먹을 수가 없어. 벌레가 뭐 옛날은 이만씩 허여. 이만씩 허여.(먹을 수가 없어. 벌레가 뭐 옛날은 이만씩 해. 이만씩 해.)

107050 @ 그 벌레를 무신 벌레, 뭐렌 헙니까?(그 벌레를 무슨 벌레, 뭐라고 합니까?)

107050 #2 베렝이 궤엿저게. 막게게. 그것이 파리 뒈영 나가.(벌레 괴었어. 막. 그것이 파리 되어서 나가.)

107050 @ 예에.(예에.)

107050 #2 게민 구데기 지레긴 이만씩 헤여이. 큰 건.(그러면 구더기 길인 이만씩 해. 큰 건.)

107050 @ 게난 베렝이가 큰 다음에는 구데기가 뒈는 거구나예?(그러니까 벌레가 큰 다음에는 구더기가 되는 거군요?)

107050 #1 어, 베렝이가, 버렝이가 어느 정도 뒈민 구더기 뒈고.(어, 벌레가, 벌레가 어느 정도 되면 구더기 되고.)

107050 @ 예.(예.)

107050 #1 구더기에서 탈바꿈 허민 프리가 뒈고.(구더기에서 탈바꿈 하면 파리가 되고.)

107050 @ 쉬프리 뒈는 거? 음, 그 구데기가 하는 거구나. 구데기는 영 꼬리 돌린 거예? 그런 식으로도 하고.(쉬파리 되는 거? 음, 그 구더기가 하는 거구나. 구더기는 이렇게 꼬리 달린 거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107050 #1 으으.(으으.)

107051 @ 혹시 아가미젓도 헤봣수가?(혹시 아감젓도 해봤습니까?)

107051 #1 알게미젓.(아감젓.)

107051 #2 알게미젓. 그거는 우리는 우드르라부난 헌디 거.(아감젓. 그거는 우리는 윗마을이어서 하는데 거.)

107051 #1 헤변 사름덜.(해변 사람들.)

107051 #2 헤변 사름이 허영 폴레 와.(해변 사람이 해서 팔러 와.)

107051 @ 아, 알게미젓 허영 폴레 와예? 그거는 무신 걸로 허는 건고예?(아, 아감젓 해서 팔러 와요? 그거는 무엇으로 하는 건가요?)

107051 #2 갈치.(갈치.)

107051 @ 아아.(아아.)

107051 #2 갈치 니껍 허여단 거. 니껍 허여 나민 요만큼 허영 갈치 헌 거 허곡.(갈치 미끼 하단 거. 미끼 해 나면 요만큼 해서 갈치 한 거 하고.)

107051 #1 창자.(창자.)

107051 #2 창자 헤놓고 허여근에 영 알게미젓 삽센 허영.(창자 해놓고 해서 이렇게 아감젓 사십사고 해서.)

107051 @ 니껍은 니껍으로 쓰고. 나머지로 저기를 허는 거라예? 술로는?(미끼는 미끼로 쓰고. 나머지로 저기를 하는 거네요? 살로는?)

107051 #1 니껍허고.(미끼하고.)

107051 @ 예.(예.)

107051 #1 겨난 고길 나끄젠 허면은 다시 갈치에 나끈 걸 거 어느 정도 그 이껍으로 이제 다시 내리면 그거 물엉근엥에 올라오면.(그러니까 고길 낚으려고 하면

다시 갈치에 낚은 걸 거 어느 정도 그 미끼로 이제 다시 내리면 그거 물어서 올라오면.)

107051 #2 젓갈 못 담는 거 엇어. 바닷고기 아무 걸로도 듬으면 뒈주.(젓갈 못 담그는 거 없어. 바닷고기 아무 걸로도 담그면 되지.)

107051 @ 알앗수다. 경헙니까?(알았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107051 #1 깅이젓도 잇고, 깅이젓도 잇고.(게젓도 있고, 게젓도 있고.)

107051 @ 어어.(어어.)

107051 #2 고등어젓도 잇고.(고등어젓도 있고.)

107051 @ 고등어도 젓 헤예? 아아.(고등어도 젓 한다고요? 아아.)

107051 #2 각제기젓도 잇고. 젓 못허는 거 없어.(전갱이젓도 있고. 젓 못하는 거 없어.)

107052 @ 깅이젓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마씨? 게믄.(게젓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7052 #2 아, 깅이젓도게 난 그런 건 잘 안 담아보난 몰른디, 깅이젓은 허젠 허믄 이제 금방 먹지 아녀근엥에 막 그냥 오래 놔둘 거는 막 간장 짜게 허영.(아, 게젓도 난 그런 건 잘 안 담가보니까 모른데, 게젓은 하려고 하면 이제 금방 먹지 않아서 매우 그냥 오래 놔둘 거는 매우 간장 짜게 해서.)

107052 @ 으음.(으음.)

107052 #2 짜게 헤영 딱 누르떠야 속에ᄁᆞ지 들지. 깅이젓이라 헌 거는 ᄒᆞ꼼만 간장이 떳다 허면 못 먹어.(짜게 해서 딱 눌러야 속에까지 들지. 게젓이라 한 거는 조금만 간장이 떴다 하면 못 먹어.)

107052 #1 떳다 허면 싱겁다 허면.(떴다 하면 싱겁다 하면.)

107052 @ 으음.(으음.)

107052 #1 싱거워.(싱거워.)

107052 #2 그것이 무신 내가 나가지고.(그것이 무슨 내가 나가지고.)

107052 @ 아, 아.(아, 아.)

107052 #1 변헤분다 이거지.(변해버린다 이거지.)

107052 @ 경허난 소금을 완전 하영 놩 허는구나예? 경허영은에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무사 반찬을 출레렌 헤신고예?(그렇게 하니까 소금을 완전 많이 놓아서 하는군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왜 반찬을 '출레'라고 했을까요?)

107054 #2 반찬 출려야 밥 먹을 거난게.(반찬 차려야 밥 먹을 거니까.)

107054 @ 어, 무사 출레렌 ᄀᆞᆯ아신고예?(어, 왜 '출레'라고 말했는가요?)

107054 #2 출레[239], 그건 모르커라.('출레', 그건 모르겠어.)

107054 @ 음. 게도 옛날에 출레렌 이런 말은 하영 들어잖우과? 뭘 출레렌 헙디가?(음. 그래도 옛날에 '출레'라는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습니까? 뭘 '출레'라고 합

239) '출레'는 제주에서 '자리젓', 멸치젓 등 젓갈 따위의 짠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표준어 '반찬'에 대응하는 말이다.

디까?)

107054 #2 무신 거 출레 ᄌᆞ쳐사 밥을 먹주게. 경허여낫주게. 출레 엇이 밥을 먹어져게. 경, 경헌 말만 들언 건 모르커라.(무슨 거 '출레' 찍어야 밥을 먹지. 그렇게 했었지. '출레' 없이 밥을 먹어져. 그렇게, 그렇게 한 말만 들어서 건 모르겠어.)

107054 @ 출레 ᄌᆞ쳐사예? 예.('출레' 찍어야요? 예.)

107054 #2 에이고, 아무 것에라도 먹어져. 게난 아무 걸로라도 출레엔 허주.(아이고, 아무 것에라도 먹어져. 그러니까 아무 걸로라도 '출레'라고 하지.)

107054 @ 예.(예.)

107054 #2 출레. 게난 뒌장도 출레. 이제 지시ᄀᆞ라도 출레.('출레'. 그러니까 된장도 '출레'. 이제 장아찌보고도 '출레'.)

107054 @ 음.(음.)

107054 #2 젓갈도 출레.(젓갈도 '출레'.)

107054 @ 예.(예.)

107054 #1 것이 한자음일 거라. 출레가.(것이 한자음일 거야. '출레'가.)

107054 @ 한자음이 아니고예? 짠 것. 거난 옛날은 다 짜지 안 합니까?(한자음이 아니고요? 짠 것. 그러니까 옛날은 다 짜지 안 합니까?)

107054 #1 차다.(짜다.)

장아찌와 회

107055 @ ᄎᆞ다에서 온 거. 게난 츤 음식. 게니까 요즘은 반찬이렌 허지만 반찬이 주로 짐치허고 뭐 뒌장이나 이제 자리젓갈 이런 거니까예 짜다라는예 의미로, 한자는 아니고예. 그 다음에 지시도 얘기헷지만 삼춘, 여기서 지시 담아본 거는 뭐, 뭐 지시 담아봣수가?(짜다에서 온 거. 그러니까 짠 음식. 그러니까 요즘은 반찬이라고 하지만 반찬이 주로 김치하고 뭐 된장이나 이제 자리젓 이런 거니까요 짜다라는요 의미로, 한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장아찌도 얘기했지만 삼촌, 여기서 장아찌 담가본 거는 뭐, 뭐 장아찌 담가봤습니까?)

107055 #2 지시야 뭐 여기서 못 담는 거 없지.(장아찌야 뭐 여기서 못 담그는 거 없지.)

107055 @ 음, 어떵. 예를 들면?(음, 어떻게. 예를 들면?)

107055 #2 마늘로 담고.(마늘로 담그고.)

107055 @ 마늘로 담은 건 무신 지시?(마늘로 담근 건 무슨 장아찌?)

107055 #1 마농지시.(마늘장아찌.)

107055 #2 파 뿔리로도 헤영 지 담고.(파 뿌리로도 해서 장아찌 담그고.)

107055 @ 음.(음.)

107055 #2 또.(또.)

107055 #1 양웻간[240]도 잇고.('양웻간'도 있고.)

240) '양웻간'은 양하의 꽃이삭을 말하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라서 '양엣간'이라고도 한다.

107055 #2 양웻간으로도 허영 담고, 무우말렝이도 담고. 못 담는 거 엇어.('양웻간'으로도 해서 담그고, 무말랭이도 담그고. 못 담그는 거 없어.)

107055 @ 옛날에 쥐피도 헌덴 허고?(옛날에 초피도 한다고 하고?)

107055 #1 아이고, 그건?(아이고, 그건?)

107055 #2 건 따와야.(건 따와야.)

107055 #1 쥐피 따왓는데, 그 쥐피짐친, 아 쥐피지신 그 저게 그 저 방부제이면서 한방에 구충제.(초피 따왔는데, 그 초피김치는, 아 초피장아찌는 그 저게 그 저 방부제이면서 한방에 구충제.)

107055 @ 예.(예.)

107055 #1 방향, 방향제도 뒈고 구충제도 뒈고 헷어.(방향, 방향제도 되고 구충제도 되고 했어.)

107055 @ 음. 경허영 옛날덜 하영 담은 거구나예? 아아.(음. 그렇게 해서 옛날들 많이 담근 거군요? 아아.)

107055 #1 고지 강 일부러 뜯어당근에 담는 사름덜.(숲에 가서 일부러 뜯어다가 담그는 사람들.)

107055 #2 이젠 제피도 없어. 문딱 개간헤불고 허니까.(이젠 초피도 없어. 몽땅 개간해버리고 하니까.)

107055 @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치지시도 헤봇수가?(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초장아찌도 해봤습니까?)

107055 #2 으, 반추.(으, 파초.)

107055 @ 아, 반추 헤봔? 그.(아, 파초 해봤어? 그.)

107055 #2 나 헨 먹진 아녓주마는 이제 우리 친정에 살 때 우리 할머니가 이제 반추낭을 큰 거를 하나 헤가지고.(나 해서 먹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 친정에 살 때 우리 할머니가 이제 파초나무를 큰 거를 하나 해가지고.)

107055 @ 음.(음.)

107055 #2 이젠 그거를 이젠 지 담는 거를 나가 할머니 허는 걸 봐낫어.(이젠 그거를 이젠 장아찌 담그는 거를 내가 할머니 하는 걸 봤었어.)

107055 @ 아,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아,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55 #2 그걸 막 짤라.(그걸 막 잘라.)

107055 @ 예.(예.)

107055 #2 이만큼 굵으니까. 짤라가지고 영 갑을 지어, 영 내와.(이만큼 굵으니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갑을 지어, 이렇게 내어.)

107055 @ 예.(예.)

107055 #2 요만큼 헤가지고 갑을 내와가지고 것도 간장 끓여.(요만큼 해가지고 갑을 내어가지고 것도 간장 끓여.)

107055 @ 예.(예.)

107055 #2 끓여서 부어.(끓여서 부어.)

107055 @ 예.(예.)

107055 #2 경 허영 놧다강 먹으민 맛잇어. 것도 경 허영 먹어.(그렇게 해서 놨다가 먹으면 맛있어. 것도 그렇게 해서 먹어.)

107055 @ 음, 요즘 반추 모르는 사름도 하서예? 게니까.(음, 요즘 파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107055 #2 몰르주게. 엇어져부럿주. 요즘은.(모르지. 없어져버렸지. 요즘은.)

107055 @ 거는 줄기로 갖고 허는 거예? 반추는예?(거는 줄기로 갖고 하는 거요? 파초는요?)

107055 #2 대.(대.)

107055 @ 대로예? 어.(대로요? 어.)

107055 #2 막 크민 천장밧[241]듸 허주게. 거 짤라불면 또 나와.(막 크면 '천장밧'에 하지. 거 잘라버리면 또 나와.)

107055 @ 또 나오면 또 허고 또 허고.(또 나오면 또 하고 또 하고.)

107055 #1 반추가 뭐인고 허면 남양에선 바나나.(파초가 뭐인가 하면 남양에선 바나나.)

107055 @ 으, 그 닮은 파초.(으, 그 닮은 파초.)

107055 #1 파촌디.(파초인데.)

107055 @ 예.(예.)

107055 #1 반출 지금 연 거로 거기서도 헷는데 그걸 하우스 안에 담으니깐 바나나가 달려.(파초를 지금 연 거로 거기서도 했는데 그걸 하우스 안에 담으니깐 바나나가 달려.)

107055 @ 음. 그런 종류네예.(음. 그런 종류네요.)

107055 #1 게난 이 크든 아녀고 이 손가락 지럭시.(그러니까 이 크진 않고 이 손가락 길이.)

107055 @ 예, 예. 바나나 종류네예? 아.(예, 예. 바나나 종류네요? 아.)

107055 #1 바나나 종류, 저것이.(바나나 종류, 저것이.)

107055 @ 예, 그 다음에 그 잎도 바나나허고 똑ᄀᆞ트난예?(예, 그 다음에 그 잎도 바나나하고 똑같으니까요?)

107055 #1 으으.(으으.)

107055 @ 그 유로는 지시 안 헤봣수가?(그 들깨로는 장아찌 안 해봤습니까?)

107055 #2 아니, 중간에야 헷지. 그때는 유도 없엇어.(아니, 중간에야 했지. 그때는 들깨도 없었어.)

107055 #1 무사 전읜 헤낫일 거라.(왜 전에는 했었을 거야.)

107055 @ 어.(어.)

107055 #2 옛날엔 엇어이.(옛날엔 없어.)

107055 @ 옛날엔 엇고예? 아.(옛날엔 없고요? 아.)

---

241) '천장밧'은 천장만큼 아주 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107055 #2 이 중간에야 계속 담으멍덜 먹엄주마는.(이 중간에야 계속 담그면서들 먹고 있지만.)

107056 @ 음, 옛날에 반찬이렌 허민 아까 마농지시렌 헤신디 마농지시 담는 법 골아줍서. 건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음, 옛날에 반찬이라고 하면 아까 마늘장아찌라고 했는데 마늘장아찌 담그는 법 말해주십시오. 건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107056 #2 아, 마농지시 둠는 거는 마늘 메여다가 그걸 뿌리를 이 뿌리를 이 짤라. 짤라내 두고 이렇게 벳겨. 벳겨가지고 입사귀를 뜯어.(아, 마늘장아찌 담그는 거는 마늘 메어다가 그걸 뿌리를 이 뿌리를 이 잘라. 잘라내어 두고 이렇게 벗겨. 벗겨가지고 잎사귀를 뜯어.)

107056 @ 음.(음.)

107056 #2 그 입사귀도 없으니까 다 먹엇어. 누리룽헤도.(그 잎사귀도 없으니까 다 먹었어. 누르스름해도.)

107056 @ 예.(예.)

107056 #2 다 먹고 헷는디 걸 짤라가지고 이젠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이젠 소금 혼 징 이젠 그 마늘 혼 징 놓고서. 간장이 귀허니까.(다 먹고 했는데 걸 잘라가지고 이젠 항아리에 담아 가지고 이젠 소금 한 층 이젠 그 마늘 한 층 놓고서. 간장이 귀하니까.)

107056 @ 예, 예.(예, 예.)

107056 #2 옛날에는 혼 그것만 주로 뭰장허고 간장만 먹어 놓고 살아놓니까 멧 말 에치 허여도 없는 집은 없었어. 경허여근에 허민 주로 그자 그 소곰에, 소금 의지헤영. 소곰국 확확확확 꿰와가지고 간장 같이 꿰와가지고 놔서 먹엇어. 경 허영.(옛날에는 한 그것만 주로 된장하고 간장만 먹어 놓고 살아놓으니까 몇 말 어치 해도 없는 집은 없었어. 그렇게 해서 하면 주로 그저 그 소금에, 소금 의지해서. 소금물 확확확확 끓여가지고 간장 같이 끓여가지고 놔서 먹었어. 그렇게 해서.)

107056 @ 마농시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고예?(마늘장아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고요?)

107056 #2 중간에는 간장만 놘 먹엇지.(중간에는 간장만 놘 먹었지.)

107056 @ 음, 중간에. 옛날에는 간장이 귀하니까.(음, 중간에. 옛날에는 간장이 귀하니까.)

107056 #2 옛날에 우리 어린 때는 그렇게 우리 열 설 혼 열두 술 쯤은 경 허영.(옛날에 우리 어린 때는 그렇게 우리 열 살 한 열두 살 쯤은 그렇게 해서.)

107056 @ 게난 마농 혼 징 놓고 소금도 혼 징 놓고 이렇게 헷어예? 어어. 그 다음.(그러니까 마늘 한 층 넣고 소금도 한 층 넣고 이렇게 했지요? 어어. 그 다음.)

107056 #2 이젠 그런 거 몰를 거야.(이젠 그런 거 모를 거야.)

107057 @ 그러니까. 간장으로만 허는 줄 알주. 경 소금으로예? 그리고 삼춘, 이훼들도 하영 헤먹엇잖아예? 어떤 훼를 여기서는 헤먹어신고예? 도련에서는.(그러니

까. 간장으로만 하는 줄 알지. 그렇게 소금으로요? 그리고 삼촌, 이 회들도 많이 해 먹었잖아요? 어떤 회를 여기서는 해먹었는가요? 도련에서는.)

107057 #2 아무 걸로라도 훼 먹긴 허는디 주루 훼 먹는 거는 자리훼.(아무 걸로라도 회 먹긴 하는데 주로 회 먹는 거는 자리회.)

107057 @ 자리훼, 어.(자리회, 어.)

107057 #2 자돔훼.(자리회.)

107057 @ 자돔훼예, 그 자돔훼는 어떤 식으로 헨 먹엇수가?(자리회요, 그 자리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먹었습니까?)

107057 #2 아, 그거는 그냥 막 썰어.(아, 그거는 그냥 막 썰어.)

107057 @ 예.(예.)

107057 #2 썰어가지고 이 꽁지 기차불고 데가리 기차두고 헤가지고 막 썰어가지고 이젠 그것에다가 식초.(썰어가지고 이 꽁지 끊어버리고 대가리 끊어두고 해가지고 막 썰어가지고 이젠 그것에다가 식초.)

107057 @ 음.(음.)

107057 #2 식초 잇잖아.(식초 있잖아.)

107057 @ 음.(음.)

107057 #2 식초를 팍 비와놓고 이젠 너미 허여도 자리가 굳어.(식초를 팍 부어놓고 이젠 너무 해도 자리가 굳어.)

107057 @ 음.(음.)

107057 #2 식초를 많이 놓면 굳으니까 저 적당히 놔가지고 그레 헹 물 놓고.(식초를 많이 놓으면 굳으니까 저 적당히 놔가지고 그리로 해서 물 넣고.)

107057 @ 음.(음.)

107057 #2 그자 하간 거. 뭰장을 좀 놔야.(그저 온갖 거. 된장을 좀 넣어야.)

107057 @ 음.(음.)

107057 #2 자리에는 뭰장을 놔야. 간장 놓민 맛이 없어.(자리돔에는 된장을 넣어야. 간장 넣으면 맛이 없어.)

107057 @ 예.(예.)

107057 #2 뭰장 놓고.(된장 넣고.)

107057 #1 양념장 놓면 맛 좋을 거라, 지금.(양념장 넣으면 맛 좋을 거야, 지금.)

107057 @ 예.(예.)

107057 #2 양념장, 뭰장.(양념장, 된장.)

107057 @ 예.(예.)

107057 #2 뭰장, 고추장. 경 허영 서껑 배합헹 허민 맛 좋게. 경 허영 미원도 많이 들어감실 거야, 아메도.(된장, 고추장. 그렇게 해서 섞어서 배합해서 하면 맛 좋게. 그렇게 해서 미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거야, 아마도.)

107057 #1 요즘이야 경헴주. 저.(요즘에야 그렇게 하고 있지. 저.)

107057 @ 요즘예?(요즘요?)

107057 #2 옛날엔 미원 없으니까 안 먹으니까 요즘에는 미원 많이 들어감실 거야. 난 그런 것도 잘 먹어지지 아녀니까.(옛날엔 미원 없으니까 안 먹으니까 요즘에는 미원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거야. 난 그런 것도 잘 먹어지지 않으니까.)

107057 @ 음, 그?(음, 그?)

107057 #1 돗추렴 허민 도새기새끼도 허고.(돼지 추렴 하면 돼지새끼도 하고.)

107057 @ 예, 그 새끼훼[242] 허는 거를 한번 골아 줘봅서. 요즘 뭐 새끼훼허는디도 잘 엇이난예?(예, 그 '새끼회' 하는 거를 한번 말해 줘보세요. 요즘 뭐 '새끼회' 하는 데도 잘 없으니까요?)

107057 #2 몰라. 어떵 허여. 알아져?(몰라. 어떻게 해. 알아져?)

107057 #1 아니, 건 잘 믓아 놩 양념 골로로 놩근엥에 물.(아니, 건 잘 마아 놓아서 양념 골고루 넣어서 물.)

107057 #2 난 그런 것도 안 먹고 돗간도 안 먹으난 도무지 생각을 아녀.(난 그런 것도 안 먹고 돼지간도 안 먹으니까 도무지 생각을 않아.)

107057 #1 물 놓고 초 놓곡 양념장 잘 놓곡 헹 그냥 혼 그릇썩 먹는 거주.(물 넣고 초 넣고 양념장 잘 넣고 해서 그냥 한 그릇씩 먹는 거지.)

107057 #2 게난 그 새끼훼나.(그러니까 그 '새끼회'나.)

107057 @ 예.(예.)

107057 #2 그 존베설 잇잖어?(그 작은창자 있잖아?)

107057 @ 음, 음, 음.(음, 음, 음.)

107057 #2 그거를 막 믓이는 거라.(그거를 막 마는 거야.)

107057 @ 음.(음.)

107057 #2 원 건데기 ᄒᆞ꼼도 엇이 막 믓아. 난도질 헤놓고 이젠 식초, 사이다 놩 막 영 허영 젓이는 거라.(전혀 건더기 조금도 없이 마구 마아. 난도질 해놓고 이젠 식초, 사이다 넣어서 마구 이렇게 해서 젓는 거야.)

107057 @ 음.(음.)

107057 #2 젓어서 물 쪼금 놔서 먹는 사람도 잇고. 또 고대로 춤지름 쫌 놓고.(저어서 물 조금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그대로 참기름 좀 넣고.)

107057 @ 음, 춤지름 놓고예?(음, 참기름 넣고요?)

107057 #2 꿰 놓고.(참깨 넣고.)

107057 @ 음.(음.)

107057 #2 고칫ᄀᆞ르도 쫌 놓고 경 허영.(고춧가루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107057 @ 음, 삼춘은 그런 건 잘 안 먹엄구나. 겨난 잘 안 살찌는 거주게.(음, 삼촌은 그런 건 잘 안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잘 안 살찌는 거지.)

107057 #2 ᄇᆞ리도 안 헌다. 그런 건.(보지도 안 한다. 그런 건.)

107057 @ 아, 비유가 약헤 갖고.(아, 비유가 약해 갖고.)

---

242) '새끼훼'는 돼지 뱃속의 새끼를 이용하여 마늘, 파, 식초 등을 넣어서 만든 음식이다.

107057 #2 돗간 먹는 사름도 보민 일로 피 나와 가민 저거 무신 귀신이라고.(웃음).(돼지간 먹는 사람도 보면 일로 피 나와 가면 저거 무슨 귀신이라고. (웃음).)

107057 @ 삼춘은 먹엄실 거 아니?(삼촌은 먹고 있을 거 아니?)

107057 #2 먹어.(먹어.)

107057 #1 (웃음).

107057 #2 나가서 먹주. 집의선 도저히 헤 오질 않으니까. 나가 사오지 아녀니까.(나가서 먹지. 집에서는 도저히 해 오질 않으니까. 내가 사오지 않으니까.)

107057 @ 게도 뒈지고기는 헤 줌지예? 게난 돗간만, 놀 거만 아녀는 거 아니예?(그래도 돼지고기는 많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돼지간만, 날 거만 않는 거 아니요?)

107057 #1 음. (웃음).(음. (웃음).)

107057 @ 아, 기구나. 경 허영은에 하고. 이 바당에서 훼 헐 수 잇는 것덜은 엇인가마씨?(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하고. 이 바다에서 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요?)

107057 #2 주로 뭐 요새사 회 헐 것 천지가 만지. 문딱 갈치로도 허고 고등어로도 허고 다 헤연게. 못허는 게 없어.(주로 뭐 요새야 회 할 것 천지가 만지. 몽땅 갈치로도 하고 고등어로도 하고 다 하던데. 못하는 게 없어.)

107057 @ 옛날에는?(옛날에는?)

107057 #2 옛날은 주로 자돔훼.(옛날은 주로 자리회.)

107057 @ 예.(예.)

107057 #2 그자 상어.(그저 상어.)

107057 @ 아, 상어도 훼 허여마씨?(아, 상어도 회 해요?)

107057 #2 으. 상어.(으. 상어.)

107057 @ 무슨 상어가 여기서 낫수가?(무슨 상어가 여기서 났습니까?)

107057 #2 이 가시상어.(이 가시상어.)

107057 @ 음, 음.(음, 음.)

107057 #2 이 은상어도 잇어낫주. 옛날은 막 헤근에 그거는 막 뭉뜰락허게 술져. 그거는 반찬헤여 먹고.(이 은상어도 있었었지. 옛날은 마구 해서 그거는 막 뭉툭하게 살쪄. 그거는 반찬해서 먹고.)

107057 @ 아아.(아아.)

107057 #2 가시상어.(가시상어.)

107057 @ 가시상어렌 헌 게 잇어예?(가시상어라고 한 게 있지요?)

107057 #1 게난 고기도 우리 어린 때에 나난 게 지금 다 없어.(그러니까 고기도 우리 어릴 때에 났던 게 지금 다 없어.)

107057 @ 그러게예?(그러게요?)

107057 #2 은상어엔 은상어가 우리 고모부님이 바다에 어부라낫어. 어부덜 헨 멧 에비아덜이 헤오민 이제 주로 우리 집일 가져오주게.(은상어라고 은상어가 우리

고모부님이 바다에 어부였었어. 어부들 해서 몇 아비아들이 해오면 이제 주로 우리 집엘 가져오지.)

107057 #1 처가칩이난.(처가집이니까.)

107057 @ 음.(음.)

107057 #2 가져오민 이젠 와근에 다 허여 줘뒁 가곡.(가져오면 이젠 와서 다 해 줘두고 가고.)

107057 @ 음.(음.)

107057 #2 이제 무시거 고등어라도 헹 오민 딱허게 젓갈 담아뒁 가곡 경허연 나난 알주. 몰라.(이제 무엇 고등어라도 해서 오면 딱하게 젓갈 담가두고 가고 그렇게 했었어서 알지. 몰라.)

107057 @ 음.(음.)

107057 #2 게난 고등어도 큰 항아리에다 이만치헌 항아리에다. 혼 큰 엿날은 어부덜 졍 뎅기는이.(그러니까 고등어도 큰 항아리에다 이만한 항아리에다. 한 큰 옛날은 어부들 그렇게 져서 다니는.)

107057 @ 예.(예.)

107057 #2 구덕이 잇어.(바구니가 있어.)

107057 @ 아아.(아아.)

107057 #2 그걸로 기냥 지게에 졍와.(그걸로 그냥 지게에 져서와.)

107057 @ 음.(음.)

107057 #2 신촌서.(신촌서.)

107057 @ 아아.(아아.)

107057 #2 신촌서 멘촌[243]을.(신촌서 '멘촌'을.)

107057 @ 음.(음.)

107057 #2 졍 와근에 당신 손으로 우리 고모님이 헤 뒁. 어머니가 사니까. 살아이시니까 어머니 먹을 거. 경허민 동네서 이제 난 할머니영 살지이. 할머니영 살민 그 곁에는 문딱 어려운 사름덜이니까.(져서 와서 당신 손으로 우리 고모님이 해 두고. 어머니가 사니까. 살아있으니까 어머니 먹을 거. 그렇게 하면 동네서 이제 난 할머니랑 살지. 할머니랑 살면 그 곁에는 몽땅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107057 @ 음.(음.)

107057 #2 고등어 허영 딱허게시리 이젠 그거를 허여근엥에 담아뒁 가민 또 재근을 해야 헤여.(고등어 해서 딱하게끔 이젠 그거를 해서 담가두고 가면 또 재간(再-)을 해야 해.)

107057 @ 그건 무신 말이우과?(그건 무슨 말입니까?)

107057 #2 젓갈 안 뒈게 허젠 허민. 거 건져가지고.(젓갈 안 되게 하려고 하면. 거 건져가지고.)

107057 @ 예.(예.)

243) '멘촌'은 제주시 도련2동의 옛 이름이다.

107057 #2 또 소금을 담아야 헤여.(또 소금을 담가야 해.)

107057 @ 아, 그거를 재군이렌 헙니까?(아, 그거를 재간이라고 합니까?)

107057 #2 또 항아리에 걸 담아 데껴두고, 초불 물은 데껴두고 재군 안 담으민 기냥 젓갈 뒈불엉 먹을 수가 없어.(또 항아리에 걸 담아 던져두고, 초벌 물은 던져두고 재간 안 담그면 그냥 젓갈 되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어.)

107057 @ 으음.(으음.)

107057 #1 냉장고에 놓는 거같이.(냉장고에 놓는 거같이.)

107057 @ 예, 소금을.(예, 소금을.)

107057 #2 이제는 냉장고가 잇주마는 그때는 냉장고가. 재군을 헷다가 이젠 그거 궝 먹고.(이제는 냉장고가 있지만 그때는 냉장고가. 재간을 했다가 이젠 그거 구워 먹고.)

107057 @ 게믄 그자락 소금을 하영 허면 그거 구면은 완전 소금 덩어릴 건디.(그러면 그렇게 소금을 많이 하면 그거 구우면 완전 소금 덩어릴 건데.)

107057 #2 게도 맛잇어.(그래도 맛있어.)

107057 @ 으, 그거 굴 때에 뭐 물에 담그거나 이러진 안 헤마씨?(으, 그거 구울 때에 뭐 물에 담그거나 이러진 안 해요?)

107057 #2 당그젠 허민 당강 먹지. 국은 끓령 먹젠 허민 고대로 멧 점 놩 끌리민 뒈는디 그대로 먹젠 허민 ᄒᆞ끔 우려뒁도 먹을 수도 잇고. 물에 담갓다가.(담그려고 하면 담가서 먹지. 국은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 그대로 몇 점 놓아서 끓이면 되는데 그대로 먹으려고 하면 조금 우려둬서도 먹을 수도 있고. 물에 담갔다가.)

107057 #1 이.(이.)

107057 @ 저장을, 젓갈 안 뒈게 헤서 자꾸 자꾸 허는구나예?(저장을, 젓갈 안 되게 해서 자꾸 자꾸 하는군요?)

107057 #1 경허난 소고기나 뒈지고기라도 오래 놔둬서 먹을라면 소금에.(그렇게 하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라도 오래 놔둬서 먹으려면 소금에.)

107057 @ 예.(예.)

107057 #2 소금에 막 당가.(소금에 막 담가.)

107057 @ 으음.(으음.)

107057 #1 소금 버무려서 그냥 꽉 지둘러두민.(소금 버무려서 그냥 꽉 지질러두면.)

107057 #2 게난 것도 또 재군을 헤야.(그러니까 것도 또 재간을 해야.)

107057 @ 예, 예.(예, 예.)

107057 #2 그렇지 않으민 기냥 소고기도 허민 쏙에다이 뭐 ᄒᆞ끔 상한 거시기가 잇고.(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고기도 하면 속에다 뭐 조금 상한 거시기가 있고.)

107057 @ 음.(음.)

107057 #2 안 좋아. 다 재군을 헤야 뒈.(안 좋아. 다 재간을 해야 돼.)

107057 @ 예.(예.)

107057 #2 이제난 뭐 냉장고 허연 헷주마는 그때 적에도 갈치도 그렇게 놧다가 재군헤 놔야 허고.(이제니까 뭐 냉장고 해서 했지만 그때 적에도 갈치도 그렇게 놨다가 재간해 놔야 하고.)

107057 @ 음.(음.)

107057 #2 경 아녀민.(그렇게 않으면.)

107057 @ 게도 삼춘네는 확실히 잘 사는 집이니까 흔 항씩 그런 거를 저장을 한 거네.(그래도 삼촌네는 확실히 잘 사는 집이니까 한 항아리씩 그런 거를 저장을 한 거네.)

107057 #2 저장을 허지. 그 동네도 아무도 허는 사름 엇어. 우리 동네도.(저장을 하지. 그 동네도 아무도 하는 사람 없어. 우리 동네도.)

107057 @ 그렇겟지.(그렇겠지.)

107057 #2 밑에 동네도. 그 동네 경. 그 고등어를 헹은에 구덕 졸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구덕을 졸으니까 그 댓속이엔 허민 홅어낸 거 잇어.(밑에 동네도. 그 동네 그렇게. 그 고등어를 해서 바구니 결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바구니를 결으니까 그 댓속이라고 하면 홅어낸 거 있어.)

107057 @ 예, 예.(예, 예.)

107057 #2 댓속. 홅어 낸 거를 헤영 허민 그것이 숫 안 놔두민 망울이 뒈여.(댓속. 홅어 낸 거를 해서 하면 그것이 숯 안 놔두면 잉걸이 되어.)

107057 @ 아아.(아아.)

107057 #2 경허면은 그거를 이젠 그 가마솟듸 불 솜다가 이젠 걸 꺼내가지고 이젠 적쉐에다가 톡 놩 궈.(그렇게 하면 그거를 이젠 그 가마솥에 불 때다가 이젠 걸 꺼내가지고 이젠 석쇠에다가 톡 놓아서 구워.)

107057 @ 으.(으.)

107057 #2 궈 가민.(구워 가면.)

107057 #1 불뀌미.(불똥.)

107057 #2 그 할머니덜이 왕이.(그 할머니들이 와서.)

107057 @ 냄새에.(냄새에.)

107057 #2 냄새. 어쩌피 먹읍센 허영 먹곡.(냄새. 어차피 드시라고 해서 먹고.)

107057 @ 음, 게믄 그거를 불망울이엔 헙니까?(음, 그러면 그거를 불잉걸이라고 합니까?)

107057 #2 불망울.('불망울'.)

107057 @ 불망울.(불잉걸.)

107057 #1 불망굴이엔도 허고.('불망굴'이라고도 하고.)

107057 @ 아, 불망굴이엔도 허곡 불망울. 게믄 숫 허영 불 헌 거를.(아, '불망굴'이라고도 하고 '불망울'. 그러면 숯 해서 불 한 거를.)

107057 #2 숫 허영 영헤근에.(숯 해서 이렇게 해서.)

107057 @ 벌겅헌 거예?(벌건 거요?)

107057 #2 놔근에 영헤영 불살르젠 허민 숫도 궈 오민 돈 주민 살 수가 잇엇어. 그땐 숫 묻는 사름이 이시니까.(놔서 이렇게 해서 불사르려고 하면 숯도 궈서 오면 돈 주면 살 수가 있었어. 그땐 숯 굽는 사람이 있으니까.)

107057 @ 예에.(예에.)

107057 #2 사올 수는 잇는데, 우리는 그 댓속을 많이 허니까.(사올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 댓속을 많이 하니까.)

107057 @ 음.(음.)

107057 #2 그거를 이제 이용헤가지고 허고. 또 낭 때는, 낭도 없엇어. 낭이 엇어 놓니까. 낭이나 어떵 허영 살랑 허민 둥겨가지고.(그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하고. 또 나무 때는, 나무도 없었어. 나무가 없어놓으니까. 나무나 어떻게 해서 살라서 하면 당겨가지고.)

107057 #2 게스미[244].('게스미'.)

107057 @ 예.(예.)

107057 #2 물 줭 껏다가라고 허여. 게스미라고 허여. 그거 불망울 끼운 걸.(물 줘서 껐다가라고 해. 뜬숯이라고 해. 그거 불잉걸 끈 걸.)

107057 #1 건 일본말일 거야.(건 일본말일 거야.)

107057 #2 게수미라고 헤여가지고.('게스미'라고 해가지고.)

107057 @ 일본말.(일본말.)

107057 #2 숫 만들어가지고 주로 불살랑 영 초고, 화로에.(숯 만들어가지고 주로 불살라서 이렇게 쬐고, 화로에.)

107057 @ 예, 예. 으음.(예, 예. 으음.)

107057 #1 그리고 옛 어른들이 그 지혜가 얼마나 좋앗는지 박 이름 든 거 허고.(그리고 옛 어른들이 그 지혜가 얼마나 좋았는지 박 이름 든 거 하고.)

107057 @ 예.(예.)

107057 #1 네 발 달린 짐승은 같이 안 먹엇어.(네 발 달린 짐승은 같이 안 먹었어.)

107057 @ 으음.(으음.)

107057 #1 예를 들어 소고기나 뒈지고기나 이런 그 뭐 그것이.(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그 뭐 그것이.)

107057 @ 예.(예.)

107057 #1 호박 수박 그 박이 들어가는데.(호박 수박 그 박이 들어가는데.)

107057 @ 예.(예.)

107057 #1 그, 그것이 어르 것에 맞는고 허면은 갈치에는 호박이 들어가야 뒈여.(그, 그것이 어느 것에 맞는가 하면 갈치에는 호박이 들어가야 되어.)

107057 @ 그렇지 호박 갈치, 음, 갈치호박국예?(그렇지 호박 갈치, 음, 갈치호박국요?)

---

244) '게수미'는 일본어 'げすみ'에서 온 말로, 표준어 '뜬숯'에 해당하는 말이다.

107057 #2 호박입도 놓고.(호박잎도 넣고.)

107057 #1 옛날은 겡, 고기 먹젠 허민 제사칩의서 어떤 디서 먹엇는데, 겡국에 저 이 고기, 뒈지고기나 소고기 들어가는디 호박 같이 썰엉 놓지 안 하거든게.(옛날은 그래서, 고기 먹으려고 하면 제삿집에서 어떤 데서 먹었는데, 갱에 저 이 고기, 돼지고기나 소고기 들어가는데 호박 같이 썰어서 넣지 안 하거든.)

107057 @ 예, 예. 겡국에는예, 맞수다.(예, 예. 갱에는요, 맞습니다.)

107057 #1 그대로는 뭐 헤서 호박국은 갈치에는 호박이 들어가야 서로 이 저 뭐가 독이 풀려.(그대로는 뭐 해서 호박국은 갈치에는 호박이 들어가야 서로 이 저 뭐가 독이 풀려.)

107057 @ 예. 궁합이 맞는 거.(예. 궁합이 맞는 거.)

107057 #1 궁합이 맞아가지고 독이 풀리는 거고. 다시 갈치에 그 호박에 박이 안 들어강근엥에.(궁합이 맞아가지고 독이 풀리는 거고. 다시 갈치에 그 호박에 박이 안 들어가서.)

107057 #2 먹으면서 헤여.(먹으면서 해.)

107057 @ 예.(예.)

107057 #1 딴 것들 극이 뒈버리고.(딴 것들 극이 되어버리고.)

107057 @ 으음.(으음.)

107057 #1 비늘인 거 같아. 갈치에 비늘이. 그 비늘 다 벳겨두고 휄 헤먹는 거 보면은 그 비늘에 독이 잇는 거 같으고.(비늘인 거 같아. 갈치에 비늘이. 그 비늘 다 벗겨두고 회를 해먹는 거 보면 그 비늘에 독이 있는 거 같고.)

107057 @ 예, 맞아마씨. 잘 상하고.(예, 맞아요. 잘 상하고.)

107057 #1 게난 뒈지고기 실컷 먹곡 수박 실컷 먹으민.(그러니까 돼지고기 실컷 먹고 수박 실컷 먹으면.)

107057 @ 탈나예?(탈나지요?)

107057 #1 탈나불어.(탈나버려.)

107058 @ 맞수다. 삼춘, 이제는 그 반찬들예, 계절에 따른, 뭐 여기 무신 조림. 이런 것도 헤먹잖아예? 옛날 우럭 조림이여 뭐여 허는, 그런 반찬들은 어떤 거를 헹 먹어신고예? 조림 같은 건?(맞습니다. 삼촌, 이제는 그 반찬들요, 계절에 따른, 뭐 여기 무슨 조림. 이런 것도 해먹잖아요? 옛날 우럭 조림이다 뭐다 하는, 그런 반찬들은 어떤 거를 해서 먹었는가요? 조림 같은 건?)

107058 #2 옛날에?(옛날에?)

107058 @ 옛날에나 요즘에나.(옛날에나 요즘에나.)

107058 #2 요즘에야 뭐 일천 반찬은 뭐이든지 놔서 허여 먹엇지마는 옛날에는 주로 놓는 게엔 헌 건 간장.(요즘에야 뭐 일체 반찬은 뭐이든지 놔서 해 먹었지만 옛날에는 주로 넣는 거라고 한 건 간장.)

107058 @ 음.(음.)

107058 #2 간장도 없으면 소금쿡 헤놩.(간장도 없으면 소금국 해놓아서.)

107058 #1 콩, 콩.(콩, 콩.)

107058 @ 콩지시도?(콩장아찌도?)

107058 #1 콩 조금 놓곡.(콩 조금 넣고.)

107057 @ 음.(음.)

107058 #2 그것도 중간에.(그것도 중간에.)

107058 @ 음, 것도 중간에예? 그냥. 우럭만 허믄.(음, 것도 중간에요? 그냥. 우럭만 하면.)

107058 #2 볼락이나 우럭이나 허민 그자 요즘에는 요즘 중간에 들으믄 그자 콩 놔서 간장 놓고 콩 놩 막 쪼리민 맛 좋아, 것도.(볼락이나 우럭이나 하면 그저 요즘에는 요즘 중간에 들으면 그저 콩 놔서 간장 넣고 콩 넣어서 막 졸이면 맛 좋아, 것도.)

107058 @ 옛날 우럭조림 같은 것들 맛 좋아예?(옛날 우럭조림 같은 것들 맛 좋지요?)

107058 #2 이제도 헤염주게. 이제도.(이제도 하고 있지. 이제도.)

107058 @ 그런 것도 깅이도 그런 식으로 보깡 먹어신가마씨?(그런 것도 게도 그런 식으로 볶아서 먹었는가요?)

107058 #2 음, 깅이는 먹을라면 이제 어떻게 먹느냐 허면 콩 놩 먹을라면 콩을 보끄는 거라.(음, 게는 먹으려면 이제 어떻게 먹느냐 하면 콩 넣어서 먹으려면 콩을 볶는 거야.)

107058 @ 예.(예.)

107058 #2 콩을 보까가지고 이젠 간장을 이젠 콩 보깡 위에 놓고 츰 깅이 놓고 콩 보끈 거 놓고 간장을 팍팍 끓여.(콩을 볶아가지고 이젠 간장을 이젠 콩 볶아서 위에 넣고 참 게 넣고 콩 볶은 거 넣고 간장을 팍팍 끓여.)

107058 @ 음.(음.)

107058 #2 끓여가지고 이젠 그 간장을 탁 비워, 그레. 놓면 깅이가 빨강헤. 빨강헤.(끓여가지고 이젠 그 간장을 탁 부어, 그리로. 넣으면 게가 빨개. 빨개.)

107058 @ 으음, 깅이조림은 빨강허니까 그렇게 뒌 거구나? 예에.(으음, '게조림'은 빨가니까 그렇게 된 거구나? 예에.)

107058 #2 그래.(그래.)

107058 @ 그걸 무신 반찬 헤여마씨?(그걸 무슨 반찬 해요?)

107058 #2 깅이 반찬.(게 반찬.)

107058 @ 깅이 반찬, 깅이조림 이런 말은 안허고?(게 반찬, '게조림' 이런 말은 안하고?)

107058 #2 이제나 조림이지. 깅이 졸랑 먹게 경허엿주.(이제나 조림이지. 깅이 졸여서 먹게 그렇게 하지.)

107058 @ 깅이 졸랑 먹게. 깅이 헐 때 짓ᄀᆞ를도 서틉니까?(게 졸여서 먹자. 게 할 때 깃도 섞습니까?)

107058 #2 으, 옛날에 어떵헤신고 허민 이제 그 깅이를 놔가지고 간장에 놩 막 후라이판이나. 옛날은 후라이판도 엇이니까 냄비에 놩 보끄다가 이제 가르.(으,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그 게를 놔가지고 간장에 놓아서 막 프라이팬이나. 옛날은 프라이팬도 없으니까 냄비에 넣어서 볶다가 이제 가루.)

107058 @ 음.(음.)

107058 #2 가르 영 허끄면 깅이범벅이 뒈여.(가루 이렇게 흩으면 '게범벅'이 되어.)

107058 @ 음.(음.)

107058 #2 게민 영 허영 그자 수저로도 떠먹을 수 있고 경.(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저 수저로도 떠먹을 수 있고 그렇게.)

107058 @ 그 음식을 뭐렌 골아?(그 음식을 뭐라고 말해?)

107058 #2 깅이 반찬.(게 반찬.)

107058 @ 깅이 반찬, 깅이범벅엔도 헙니까?(게 반찬, '게범벅'이라고 합니까?)

107058 #2 깅이범벅 뒈는 거지.('게범벅' 되는 거지.)

107058 @ 범벅이지만 반찬예? 그 다음에 여기는 고사리 꺾끄레 하영 가지예? 옛날에. 고사리로는 어떤 식으로 반찬, 뭘 헤영 먹엇수가?(범벅이지만 반찬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사리 꺾으러 많이 가지요? 옛날에. 고사리로는 어떤 식으로 반찬, 뭘 해서 먹었습니까?)

107058 #2 고사리로는 그자 아무 거라도 허영 먹어져.(고사리로는 그저 아무 거라도 해서 먹어져.)

107058 @ 음, 하영, 여긴 웃드리난예, 고사리들 하영 꺾꺼실 거고.(음, 많이, 여긴 윗동네니까요, 고사리들 많이 꺾었을 거고.)

107058 #2 웃드르보단도 이젠 나도 그런 건 잘. 이제난 막덜 잘허여이. 맛잇게덜 허는디 주로 그때는 춤지름 좀 서끄고, 꿩마농이라도 헤오민 그거 놓고 이제 춤 간장은 엇이믄 쪼끔 간장 놓고 소금 놓고 헤서, 허여서 쪼려먹고 그자 하간 거. 것도 반찬을 만들라믄 물른 거는 물에 담갓다가 삶아야 헤여. 삶앙 또 물에 담가야 헤여. 경 아녀민 써.(윗마을보다도 이젠 나도 그런 건 잘. 이제니까 매우들 잘해. 맛있게들 하는데 주로 그때는 참기름 좀 섞고, 달래라도 해오면 그거 넣고 이제 참 간장은 없으면 조금 간장 넣고 소금 넣고 해서, 해서 졸여먹고 그저 온갖 거. 것도 반찬을 만들려면 마른 거는 물에 담갔다가 삶아야 해. 삶아서 또 물에 담가야 해. 그렇게 않으면 써.)

107058 @ 으음.(으음.)

107058 #2 쓰니까 경 헤서 이제 보끌 때에는 참지름 좀 놓고.(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볶을 때에는 참기름 좀 넣고.)

107058 @ 음.(음.)

107058 #2 간장 쫌 놓고. 하간 거 춤 놓을 거 이시민 양념 이시민 놩 허영 먹주.(간장 좀 넣고. 온갖 거 참 넣을 거 있으면 양념 있으면 넣어서 해서 먹지.)

107058 @ 경허영 보깡 먹곡.(그렇게 해서 볶아서 먹고.)

107058 #2 주로 옛날엔 꿩마농. 꿩마농 헤당 썰어놩 같이.(주로 옛날엔 달래. 달래 해다가 썰어놓아서 같이.)

107058 @ 거난 이 봄철에 ᄀᆞ치 나오는 거니까 음.(그러니까 이 봄철에 같이 나오는 거니까 음.)

107058 #2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7058 @ 꿩마농 같이 놩은에 헴구나게. 호박들은 어떤 식으로 헤먹어신고예? 옛날은. 요즘에야 애호박 잇주마는 옛날에야 다 익은 거예?(달래 같이 넣어서 하고 있구나. 호박들은 어떤 식으로 해먹었는가요? 옛날은. 요즘에야 애호박 있지만 옛날에야 다 익은 거요?)

107058 #1 호박보단도 아까.(호박보다도 아까.)

107058 #2 늙은호박, 늙은호박.(청둥호박, 청둥호박.)

107058 #1 고사리 나오난.(고사리 나오니까.)

107058 @ 예.(예.)

107058 #2 고사리엔 젯국 허는 것도 잇어.(고사리엔 잿물 하는 것도 있어.)

107058 @ 젯국마씨?(잿물요?)

107058 #1 젯국 고사리가 잇어.(잿물 고사리가 있어.)

107058 #2 숢는 고사리가 아니고.(삶는 고사리가 아니고.)

107058 #1 그대로 삶는 게 아니고 젯국 고사리. 그건 지금 그 어디 일본이나 어디서도 시험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이렇게 좋앗느냐 상당히 뭐하는 건데, 이제 주로 고사리에가 뭐가 독소가 뭐가 잇는고 허민 피임제.(그대로 삶는 게 아니고 잿물 고사리. 그건 지금 그 어디 일본이나 어디서도 시험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이렇게 좋았느냐 상당히 뭐하는 건데, 이제 주로 고사리에가 뭐가 독소가 뭐가 있는가 하면 피임제.)

107058 @ 으음.(으음.)

107058 #1 피임제가 잇는데 이.(피임제가 있는데 이.)

107058 #2 건 날 고사리로 먹을 때.(건 날 고사리로 먹을 때.)

107058 @ 음.(음.)

107058 #1 그것을 젯국허면은 독소가 싹 없어져불어.(그것을 잿물하면 독소가 싹 없어져버려.)

107058 @ 음.(음.)

107058 #1 요새에 이제 그 소다 놩 허는 사름 뭐 놩 허는 사름 거 삶는 사름덜이 딴 거 놩 삶는 사름덜이 잇는데, 일본선 그걸 시험헤 봐도 독소가 제거 안 뒈는데, 젯국엔 제거가 뒛다는 거라.(요새에 이제 그 소다 넣어서 하는 사람 뭐 넣어서 하는 사람 거 삶는 사람들이 다른 거 넣어서 삶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선 그걸 시험해 봐도 독소가 제거 안 되는데, 잿물엔 제거가 됐다는 거야.)

107058 @ 아아.(아아.)

107058 #2 독, 젯국 헌 거는 요즘엔 또 씰 때에 쓰도 안 허여. 거 젯국이라부니까.(독, 잿물 한 거는 요즘엔 또 쓸 때에 쓰도 안 해. 거 잿물이라 버리니까.)

107058 @ 게난 그 젯국은 뭘 젯국이렌 허는 거우과?(그러니까 그 잿물은 뭘 잿물이라고 하는 겁니까?)

107058 #2 재 잇잖아?(재 있잖아?)

107058 @ 예, 불치?(예, 재?)

107058 #2 불치가 아니고 바로 잠진 밑에.(재가 아니고 바로 자잘한 밑에.)

107058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58 #2 가라앉는 재가 잇어. 그거를 이젠 그거 무시거 이시카부덴 체로 쳐불어야 헤여. 그거를 이렇게 고사리 영 이렇게 놓면 이레 닥닥닥닥 쳐 놓는 거라. 그걸.(가라앉는 재가 있어. 그거를 이젠 그거 무엇 있을까봐 체로 쳐버려야 해. 그거를 이렇게 고사리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레 닥닥닥닥 쳐 놓는 거야. 그걸.)

107058 @ 아아.(아아.)

107058 #2 쳐놔서 뜨신물.(쳐놔서 더운물.)

107058 @ 예.(예.)

107058 #2 팔팔 끓여가지고 탁허게시리 이디 물이 즈박즈박 요 정도 올라오게 허영 크는 거라.(팔팔 끓여가지고 탁하게끔 여기 물이 자박자박 요 정도 올라오게 해서 잠그는 거야.)

107058 @ 아아.(아아.)

107058 #2 컹 뚜께 탁 더프는 거라. 경헷당 오늘 아척 허믄 저냑때에 쯤이나 그 건져내여. 그 물이 식어야. 식어야 그 독이 다 나오니까. 게서 시쳐서 기냥 그자 간장 ᄆᆞ른 거 보까 먹듯이 간장 놓고 허영 ᄆᆞ큰.(잠가서 뚜껑 탁 덮는 거야. 그렇게 했다가 오늘 아침 하면 저녁때에 쯤이나 그 건져내어. 그 물이 식어야. 식어야 그 독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씻어서 그냥 그저 간장 마른 거 볶아 먹듯이 간장 넣고 해서 푹.)

107058 @ 아아.(아아.)

107058 #2 ᄆᆞ큰.(푹.)

107058 @ ᄆᆞ큰.(푹.)

107058 #2 ᄆᆞ큰 숢아야.(푹 삶아야.)

107058 @ 예.(예.)

107058 #2 경 허영 허민 맛잇어.(그렇게 해서 하면 맛있어.)

107058 @ 게믄 냄새도 안 나고.(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107058 #2 으, 쓰지 않아.(으, 쓰지 않아.)

107058 @ 쓰잖아예? 아, 쓴 물 빼는 거를 젯국으로 이제 하는 거구나예? 아아.(쓰잖아요? 아, 쓴 물 빼는 거를 잿물로 이제 하는 거군요? 아아.)

107058 #2 요새는?(요새는?)

107058 @ 이 젯국 헌덴 헌 말은 오늘 처음 들엄수다.(이 잿물 한다고 한 말은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

107058 #1 처음.(처음.)

107058 @ 예.(예.)

107058 #2 요새 소다 놩덜 허난 파랑허긴 허더라.(요새 소다 넣어서들 하니까 파랗긴 하더라.)

107058 #1 소다에 그게 안 빠진다는 거라. 독소가.(소다에 그게 안 빠진다는 거야. 독소가.)

107058 @ 음.(음.)

107058 #2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 아녀봣는디 일본 사름덜이 그걸 헤보니까.(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 안 해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해보니까.)

107058 @ 음.(음.)

107058 #2 젯국을 놓면 고사리가 검어져.(잿물을 넣으면 고사리가 검어져.)

107058 @ 아아.(아아.)

107058 #2 경헤부니까 요샌 파랑허게 임시 기자 곤 것만 먹을 때라 놓니까.(그렇게 해버리니까 요샌 파랗게 임시 그저 곤 것만 먹을 때라 놓으니까.)

107058 @ 예, 예.(예, 예.)

107058 #2 눈으로만 먹을 때니까. 입으로 안 먹고 눈으로 먹을 때라놓니까.(눈으로만 먹을 때니까. 입으로 안 먹고 눈으로 먹을 때이니까.)

107058 @ 맞수다.(맞습니다.)

107058 #2 그 소다 놓고 허민 파랗대. 경 보까도 파랗더고. 경 허영 먹는 거지. 젯국이 제일. 옛날 어른덜이 잘.(그 소다 넣고 하면 파랗대. 그렇게 볶아도 파랗대. 그렇게 해서 먹는 거지. 잿물이 제일. 옛날 어른들이 잘.)

107058 @ 소다 허민 영양소도 파괴뒈불고예?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마씨?(소다 하면 영양소도 파괴되어버리고요?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어요?)

107058 #2 게메. 경사 허는디.(글쎄. 그렇게야 하는데.)

107058 @ 아, 젯국으로 헤서. 웨냐허면 우려내젠 허민 멧 불을 우려내지 아념니까예? 옛날 어른들은 젯국으로 헷구나? 아아.(아, 잿물로 해서. 왜냐하면 우려내려고 하면 몇 번을 우려내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잿물로 했군요? 아아.)

107058 @ 그 다음에 호박, 늙은호박 무침 허는 거는 어떵 헙니까? 탕쉬[245]도 옛날 허잖아예?(그 다음에 호박, 청둥호박 무침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탕쉬'도 옛날 하잖아요?)

107058 #1 제사 때.(제사 때.)

107058 #2 난 모르키여. 그건 옛날. 그자 호박으로만, 호박으로만 헷주게. 주로 호박적도 허고.(난 모르겠어. 그건 옛날. 그저 호박으로만, 호박으로만 했지. 주로 호박적도 하고.)

107058 @ 호박적도 허여마씨?(호박적도 해요?)

245) '탕쉬'는 제사 때 하는 채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107058 #2 어, 영 나풀나풀 요렇게 헹 묵적거찌 꼬지에 뀌어, 것도. 뀌서 궈.(어, 이렇게 나풀나풀 요렇게 해서 묵적같이 꼬치에 뀌어, 것도. 뀌서 구워.)

107058 #1 올릴 게 엇이난게.(올릴 게 없으니까.)

107058 #2 올릴 게 엇이니까. 걸로 뗌뿌라도 허고.(올릴 게 없으니까. 걸로 튀김도 하고.)

107058 @ 예, 뭐 뗌뿌라야 요즘은 뗌뿌라허지마는.(예, 뭐 튀김이야 요즘은 튀김하지만.)

107058 @2 그제도 헷어.(그제도 했어.)

107058 @ 아, 옛날 헷수가?(아, 옛날 했습니까?)

107058 #2 감저뗌뿌라도 주로.(고구마튀김도 주로.)

107058 @ 으음.(으음.)

107058 #2 없으면.(없으면.)

107058 @ 호박을 적 헤서 식게 때 이런 때 올려서마씨? 아아.(호박을 적 해서 제사 때 이런 때 올렸다고요? 아아.)

107058 #2 음, 넉 점썩 허영 뀌민 묵적이나 똑ᄀᆞ타.(음, 넉 점씩 해서 뀌면 묵적이나 똑같아.)

107058 @ 묵적도 넉 점썩 뀁니까?(묵적도 넉 점씩 뀁니까?)

107058 #2 으, 넉 점.(으, 넉 점.)

107058 @ 호박적 허는 것도 처음 들엄수다. 이것도 게난 동네마다 ᄯᅳ나고 올릴 게 엇이난.(호박적 하는 것도 처음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르고 올릴 게 없으니까.)

107058 #1 아니, 경헌디 도련도 엇엇어.(아니, 그런데 도련도 없었어.)

107058 @ 으음.(으음.)

107058 #2 호박채[246]가 또 주로야.('호박채'가 또 주로야.)

107058 #1 채 허영 먹는 거.(채 해서 먹는 거.)

107058 #2 채 허영. 그자 제ᄉᆞ 때 가민 호박 두 점. 콩ᄂᆞ물 딱허게시리 혜영 고사리 ᄒᆞ꼼 놓고 콩ᄂᆞ물 ᄒᆞ꼼 놓고 호박 두 점 놓곡 혜영근엥에 그자 매 사름이 한 접시야.(채 해서. 그저 제사 때 가면 호박 두 점. 콩나물 딱하게끔 해서 고사리 조금 넣고 콩나물 조금 넣고 호박 두 점 넣고 해서 그저 매 사람이 한 접시야.)

107058 @ 예.(예.)

107058 #2 경 허영 줘.(그렇게 해서 줘.)

107058 @ 식게 먹으레 가민은 그것부터 줘낫어예? 옛날에예? 저도 어렷을 때 그런 거 먹어낫수다. 옛날에 그렇게 만든 음식은 뭐렌 합니까?(제사 먹으러 가면 그것부터 줬었지요? 옛날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먹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만든 음식은 뭐라고 합니까?)

107058 #2 채소헨 허주.(채소했어 하지.)

246) '호박채'는 호박으로 만든 채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107058 @ 호박채.(‘호박채’.)
107058 #2 채 허영 멘들앙덜 먹어사주.(채 해서 만들어서들 먹어야지.)

장 담그기

107059 @ 호박채렌 허는구나예? 아아, 삼춘, 이젠 삼춘 전공 나왐수가?(호박채라고 하는군요? 아아, 삼촌, 이젠 삼촌 전공 나오고 있습니까?)
107059 #2 전공이 뭐여?(전공이 뭐야?)
107059 @ 장 하영 담앗덴 허난.(장 많이 담갔다고 하니까.)
107059 #1 (웃음).
107059 #2 거 몰라.(거 몰라.)
107059 @ 장은 언제 담읍니까?(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2 거야 뭐 이제 엿날에는 주로 혼 동짓둘쯤에 거 쌂앙.(거야 뭐 이제 옛날에는 주로 한 동짓달쯤에 거 삶아서.)
107059 @ 예.(예.)
107059 #2 쌂앙 이제 막 밟아서 이젠 그제는 영 산듸찝으로 헤영 메달아.(삶아서 이제 막 밟아서 이젠 그제는 이렇게 밭볏짚으로 해서 매달아.)
107059 @ 음.(음.)
107059 #2 메달앙. 이젠 산듸찍도 없언 메달 수도 없어. 겨엥 메달아가지고 거 물르면 꺼내영 섣둘 초싱.(매달아서. 이젠 밭볏짚도 없어서 매달 수도 없어. 그렇게 해서 매달아가지고 거 마르면 꺼내어서 섣달 초승.)
107059 @ 예.(예.)
107059 #2 음력 섣둘 초싱 나민 동짓둘 구물엉 강이나 장을 담는 거라. 담앗다가 이젠 섣둘 구뭄 다 뒈영 정월 초싱 나기 전에 그거를 뜨는 거라.(음력 섣달 초승되면 동짓달 구물어서 가서나 장을 담그는 거야. 담갔다가 이젠 섣달 그믐 다 되어서 정월 초승 되기 전에 그거를 뜨는 거야.)
107059 @ 음.(음.)
107059 #2 떠근에 놔둠서 뭰장은 뭰장대로 간장은 간장대로 헤영 딱허게 담앙.(떠서 놔둬두고서 된장은 된장대로 간장은 간장대로 해서 딱하게 담아서.)
107059 @ 음.(음.)
107059 #2 놔뒷당도. 놔뒷당 먹을 저를도 없엇어. 그냥 항에 돌아졍 이런 게미[247]에서 뜯어다가 먹엇지.(놔뒀다가도. 놔뒀다가 먹을 겨를도 없었어. 그냥 항아리에 매달려서 이런 ‘게미’에서 뜯어다가 먹었지)
107059 @ 아까, 무신거 게미?(아까, 무엇 ‘게미’?)
107059 #1 장께미[248].(‘장께미’.)
107059 #2 메주께미. 영 영 똑똑 떠다 먹엇지. 떠놩은에 묵엿당 먹을 수도 없어.

247) 여기에서 ‘게미’는 ‘된장’을 만들기 전에 담근 ‘메주 덩어리’를 일컫는 말인 것 같다.
248) ‘장께미’는 장을 담근 ‘메주 덩어리’를 말한다.

없어가지고.(메주 덩어리. 이렇게 이렇게 똑똑 떠다 먹었지. 떠놓아서 묵혔다가 먹을 수도 없어. 없어가지고.)

107059 #1 없어가지고.(없어가지고.)

107059 @ 삼춘 메주께미 장께미 이 저기 갈르지 안 헌 때 그거를 곧는 거구나예? 뒌장 찌꺼기를 갈르지 안헐 때 그것 채 아직 익지도 아녈 때부터 먹어분 거구나게. 게믄 삼춘, 장 담젠 허민 무사 그 메주 솖는 날도 따로 날 받앙 허지 안헙니까예? 어떤 날 주로 헷수가?(삼촌 '메주덩어리' '장께미' 이 저기 가르지 안한 때 그거를 말하는 거군요? 된장 찌꺼기를 가르지 안할 때 그것 채 아직 익지도 않을 때부터 먹어버린 거구나. 그러면 삼촌, 장 담그려고 하면 왜 그 메주 삶는 날도 따로 날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 주로 했습니까?)

107059 #2 아, 그거는 이녁 본명, 본명일 없는 날.(아, 그거는 이녁 본명, 본명일 없는 날.)

107059 #1 식구 본명 엇인 날.(식구 본명 없는 날.)

107059 @ 식구 본명 엇인 날.(식구 본명 없는 날.)

107059 #2 그런 날 주로.(그런 날 주로.)

107059 @ 그리고 무슨 본명 엇어도 어떤 날은 장 안 담는다 허는 날도 잇지 아녀우과?(그리고 무슨 본명 없어도 어떤 날은 장 안 담근다 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107059 #2 이 하르방은 잘 알아, 난 몰라.(이 할아버지는 잘 알아, 난 몰라.)

107059 #1 신일이.(신일(申日)이.)

107059 @ 예.(예.)

107059 #2 건 지간으로 안 봥 천간으로.(건 지간으로 안 봐서 천간으로.)

107059 @ 으.(으.)

107059 #2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경신 임계허는디 경신허는디 경신.(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경신 임계하는데 경신하는데 경신.)

107059 @ 예.(예.)

107059 #1 그 저 메울 신자 그게, 실 신엔도 허고 장맛이 엇어진덴 헤불어.(그 저 메울 신자 그게, 실 신이라고도 하고 장맛이 없어진다고 해버려.)

107059 @ 그날은 안 헤예? 아아, 납날?(그날은 안 해요? 아아, 납일?)

107059 #1 아, 납날은.(아, 납일은.)

107059 @ 으.(으.)

107059 #2 벌레가 궨덴 허여.(벌레가 괸다고 해.)

107059 @ 벌레 궨덴. 납신 헤갖고.(벌레 괸다고. 납신 해갖고.)

107059 #1 경허고.(그렇게 하고.)

107060 @ 장은 어떤 종류들 담아봣수가?(장은 어떤 종류들 담가봤습니까?)

107060 #2 아이고, 없는 집읜이, 저 콩도 없으니까 못 둠으니까이 폿도 허영 골아서이 기냥 헤영 담곡.(아이고, 없는 집에는, 저 콩도 없으니까 못 담그니까 팥도

해서 갈아서 그냥 해서 담그고.)

107060 @ 음.(음.)

107060 #2 아무 걸로라도 허영.(아무 걸로라도 해서.)

107060 @ 아, 풋으로도 장을 담아예?(아, 팥으로도 장을 담근다고요?)

107060 #1 보리뒌장도 허곡.(보리된장도 하고.)

107061 @ 보리뒌장도 허곡. 게믄 보리뒌장은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보리된장도 하고. 그러면 보리된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107061 #2 것도 다 삶앙게.(것도 다 삶아서.)

107061 @ 음.(음.)

107061 #2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7061 @ 경허영은에 게믄 보리뒌장은 보리허고 콩을 서끄는 거우과? 아니면 보리로만 허는 거우과?(그렇게 해서 그러면 보리된장은 보리하고 콩을 섞는 겁니까? 아니면 보리로만 하는 겁니까?)

107061 #2 이제도 저 그 보리쏠 잇잖아?(이제도 저 그 보리쌀 있잖아?)

107061 @ 예.(예.)

107061 #2 보리쏠에 그 저 뒌장 삶아가지고 밟을 때는 그 보리쏠 집어놔.(보리쌀에 그 저 된장 삶아가지고 밟을 때는 그 보리쌀 집어넣어.)

107061 @ 으음.(으음.)

107061 #2 그레 집어놓민 영 영 산디찍 헤서 딱 둘아멩 놔두민 것이 같이 터. 보리쏠이 크면 장 담을 때에는 그 메줏가루를 시쳐두고 물기 싹 빠지와가지고 이젠 내일 당그젠 허민 오늘쯤 시쳥 놔둬야주게. 경헤야 물기가 빠지니까. 간, 간물에다가 뒷날은 영 집어놓는 거지.(그리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밭볏짚 해서 딱 매달아서 놔두면 것이 같이 떠. 보리쌀이 크면 장 담글 때에는 그 메줏가루를 씻어두고 물기 싹 빼가지고 이젠 내일 담그려고 하면 오늘쯤 씻어서 놔둬야지. 그렇게 해야 물기가 빠지니까. 간, 간물에다가 뒷날은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107061 @ 음.(음.)

107061 #2 경.(그렇게.)

107061 #1 틔운다는 건 지금 말론 허민 발효.(띄운다는 건 지금 말론 하면 발효.)

107061 @ 예예.(예예.)

107061 #1 발효시기는 걸. 매달아 두면은 발효가 잘 뒈민 잘 텃젠도 허고, 곱게 텃젠도 허곡. 궂게 텃젠. 궂게 트민 몸 궂인 사름 뎅겻젠도 허곡.(발효시키는 걸. 매달아 두면 발효가 잘 되면 잘 떴다고도 하고, 곱게 떴다고도 하고. 궂게 떴다고. 궂게 뜨면 몸 궂은 사람 다녔다고도 하고.)

107061 @ 으음.(으음.)

107061 #2 궂게 트민 요렇게 또 힘든 게 없어.(궂게 뜨면 요렇게 또 힘든 게 없어.)

107061 @ 음.(음.)

107061 #2 머리 닮은 게 이만씩 돋아오곡이, 막 뜨숭헴젠 헤도이 그것이 아니라.(머리 닮은 게 이만씩 돋아오고, 막 따뜻하다고 해도 그것이 아니야.)

107061 @ 아, 머리 닮은 것도 돋아와마씨?(아, 머리 닮은 것도 돋아나요?)

107061 #1 곰팡이, 곰팡이.(곰팡이, 곰팡이.)

107061 @ 곰팡이가?(곰팡이가?)

107061 #2 곰팡이, 머리 곰팡이가 이렇게 돋아와.(곰팡이, 머리 곰팡이가 이렇게 돋아와.)

107061 @ 아, 그 곰팡이 이름을 무신 곰팡이렌 헙니까?(아, 그 곰팡이 이름을 무슨 곰팡이라고 합니까?)

107061 #2 우린 기자 검은곰팡이여 흰곰팡이여 허난 몰르지.(우린 그저 검정곰팡이다 흰곰팡이다 하니까 모르지.)

107061 @ 음.(음.)

107061 #1 검게 텃저.(검게 떴다.)

107061 @ 검게 트면은예?(검게 뜨면은요?)

107061 #1 검게 텃저.(검게 떴다.)

107061 #2 경 허믄.(그렇게 하면.)

107061 #1 곱게 텃저.(곱게 떴다.)

107061 #2 그 장 허민 아니, 아니 메주 이렇게 갈라지는 수가 있어.(그 장 하면 아니, 아니 메주 이렇게 갈라지는 수가 있어.)

107061 @ 예예예, 예.(예예예, 예.)

107061 #2 그디다가 들어놓민 거 시쳐내젠 허민 잘도 힘들어.(거기다가 들어놓으면 거 씻어내려고 하면 잘도 힘들어.)

107061 @ 맞아예? 그게 잘 안 틀 때 꺼멓게 변헤부는 거구나예?(맞아요? 그게 잘 안 뜰 때 꺼멓게 변해버리는 거군요?)

107061 #2 거 너무 뜻어도 그럴 수도 잇고. 몸 궂은 사름 봐도 그럴 수가 잇는 거고.(거 너무 따뜻해도 그럴 수도 있고. 몸 궂은 사람 봐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107061 #1 옛날은 몸 궂다 뭐허다 헌디 지금 우리가 셍각허민 관리를.(옛날은 몸 궂다 뭐하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관리를.)

107061 @ 잘 못 헌 거주게, 예.(잘 못 한 거지, 예.)

107061 #1 온도에, 적정한 온도에 맞추지 못헌 거.(온도에, 적정한 온도에 맞추지 못한 거.)

107061 #2 어쩌다가 경 뒈불어.(어쩌다가 그렇게 되어버려.)

107062 @ 맞수다. 그 메주는 게니까 언제 아까 메주 쑤는 게 아까 그 동지 이때? 메주 쑤는 거?(맞습니다. 그 메주는 그러니까 언제 아까 메주 쑤는 게 아까 그 동지 이때? 메주 쑤는 거?)

107062 #2 으, 동지 때 쑤든가 이제는.(으, 동지 때 쑤든가 이제는.)

107062 #1 동짓둘엘 허던가.(동짓달엘 하든가.)

107062 #2 옛날엔 그렇게 헷지만 이제는 한 시월만 구물어가민 기냥 쒀. 쒔다가 섣둘만 나민 기냥 담가.(옛날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한 시월만 그물어가면 그냥 쒀. 쒔다가 섣달만 되면 그냥 담가.)

107062 @ 아, 장 담그는 거는 무조건 섣둘에 담그는구나예? 섣둘에 이제 담그고예?(아, 장 담그는 거는 무조건 섣달에 담그는군요? 섣달에 이제 담그고요?)

107062 #2 견디 여기 사름이나 경허지 육지 분들은 삼월달 나야, 둥가. 장을.(그런데 여기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육지 분들은 삼월달 되어야, 담가. 장을.)

107063 @ 기후가 뜻나니까 헌 건가?(기후가 다르니까 한 건가?)

107063 #2 몰라.(몰라.)

107063 @ 삼춘, 장 담 귀허게 여겻잖아예? 겡은에 뭐 헐 때 장 담글 때는 무신 거 허지 말라 이런 금기 사항도 하서예? 몸 궂이면 뎅기지 말라 허듯이. 무신 말을 골아나신고예?(삼촌, 장 담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 장 담글 때는 무엇 하지 마라 이런 금기 사항도 많지요? 몸 궂으면 다니지 말라 하듯이. 무슨 말을 말했었나요?)

107063 #2 그것이 메주 트는 과정에서.(그것이 메주 뜨는 과정에서.)

107063 @ 예.(예.)

107063 #2 궂게 곱게 트는 수도 잇고 곱게 트는 수도 잇고 허니까 몸 궂인 사름일랑 보지 말라.(궂게 곱게 뜨는 수도 있고 곱게 뜨는 수도 있고 하니까 몸 궂은 사람일랑 보지 말라.)

107063 #1 여자 ᄀᆞ트면 생리. 그런 것도 피허렌 허곡.(여자 같으면 생리. 그런 것도 피하라고 하고.)

107063 @ 그런 거 헐 때는 메주도 쑤지 말렌 허곡.(그런 거 할 때는 메주도 쑤지 말라고 하고.)

107063 #2 건 확실히 알아져. 생리 헐 때는.(건 확실히 알아져. 생리 할 때는.)

107063 @ 아, 알아집니까? 그러면 몸 궂인 때는 허지 말렌 허고. 또 허지 말렌 허는 건 잇어마씨?(아, 알아집니까? 그러면 몸 궂은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있어요?)

107063 #2 아 건, 좋은 날에 봐근에. 좋은 날에 봐근엥에 이녁 이제 식구가 이제 그 헤치가 이제 없는 날.(아 건, 좋은 날에 봐서. 좋은 날에 봐서 이녁 이제 식구가 이제 그 띠가 이제 없는 날.)

107063 @ 예.(예.)

107063 #1 열두 날 *** 안 든 사름 잇는 날. (웃음).(열두 날 *** 안 든 사람 있는 날. (웃음).)

107063 @ 본명일은 허지 말렌 허영.(본명일은 하지 말라고 해서.)

107063 #2 본명일은 허여도이 엿날 사름은 경 골아라. 본명일에 허민 그 사람이 뚬이 잘 난덴 허여.(본명일은 해도 옛날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 본명일에 하면 그

사람이 땀이 잘 난다고 해.)

107063 @ 아아. 본명일에 메주 쑤면은 뜸 잘 난다고. 담는 날도 틀리, 메주 쑤는 날도 허고 장 담는 날도 그거 골리잖아예?(아아. 본명일에 메주 쑤면 땀 잘 난다고. 담그는 날도 다르, 메주 쑤는 날도 하고 장 담그는 날도 그거 가리잖아요?)

107063 #2 으. 겐디 이젠 경 안허대.(으. 그런데 이젠 그렇게 안하대.)

107063 @ 그래도 아까 본명이 다 허젠 허민 메주 쑬 날이 하지 안 헙니까? 식구도 하니까.(그래도 아까 본명이 다 하려고 하면 메주 쑬 날이 많지 안 합니까? 식구도 하니까.)

107063 #2 없어.(없어.)

107063 @ 어느 날 쑤면은 젤 좋다 허는 날 잇어예?(어느 날 쑤면 젤 좋다 하는 날 있어요?)

107063 #1 톳날 많이 찾앗주. 토끼날덜.(토끼날 많이 찾았지. 토끼날들.)

107063 @ 음, 톳날.(음, 토끼날.)

107063 #1 도새기날 허고.(돼지날 하고.)

107063 @ 아아.(아아.)

107063 #2 이 쉐날에는 담으면 장 간에 틀 적에 니치럭 닮은 게 잇넨 허여.(이 소날에는 담그면 장 간에 뜰 적에 침 같은 게 있다고 해.)

107063 @ 니치럭이.(침이.)

107063 #1 쉰 거, 쉰 것ᄀᆞ라.(쉰 거, 쉰 것보고.)

107063 @ 아아, 쉐날은. 쉐날도 안 헐 거고 ᄆᆞ날은?(아아, 소날은. 소날도 안 할 거고 말날은?)

107063 #1 ᄆᆞ날은 세는 거주.(말날은 꼽는 거지.)

107063 @ 아, ᄆᆞ날은 세는 거고. 게믄 톳날 ᄆᆞ날 아까?(아, 말날은 꼽는 거고. 그러면 토끼날 말날 아까?)

107063 #1 도새기날.(돼지날.)

107063 @ 도새기날. 그 세 날이 제일 좋은 날?(돼지날. 그 세 날이 제일 좋은 날?)

107063 #1 아니, 뭐 미, 미일도 다 세여. 빼는 게 축일 신일 보편적으로 그걸 빼주.(아니, 뭐 미, 미일도 다 꼽아. 빼는 게 축일 신일 보편적으로 그걸 빼지.)

107063 @ 음.(음.)

107063 #1 그걸 빼고. 신일 천간 신일 빼곡. 경 허영 그 세 날을 제외하곤 거줌.(그걸 빼고. 신일 천간 신일 빼고. 그렇게 해서 그 세 날을 제외하곤 거의.)

107063 #2 그 날만 허민 장이 둠으면 장이 이 하르방이 “오늘랑 허지 마라. 오늘 써.”(그 날만 하면 장이 담그면 장이 이 할아버지가 “오늘은 하지 마라. 오늘 써.”)

107063 @ 아, (웃음). 어느 날 허민 써? 그런.(아, (웃음). 어느 날 하면 써? 그런.)

107063 #1 신일.(신일.)
107063 @ 신일 허면은.(신일 하면.)
107063 #2 써.(써.)
107063 #1 아 저, 옛날 문세에 경 뭰 거난.(아 저, 옛날 문서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107063 @ 예, 예.(예, 예.)
107063 #2 경 골아.(그렇게 말해.)
107063 @ 그날 안허고. 쥐날은 어떵헙니까?(그날 안하고. 쥐날은 어떡합니까?)
107063 #2 쥐날은 좋주, 뭐.(쥐날은 좋지, 뭐.)
107063 @ 쥐날은 좋은 날로 허는 거구나예? 옷 같은 거는 쥐날 안 헌덴 이렇게 헨게마는. 호상 헐 때.(쥐날은 좋은 날로 하는 거군요? 옷 같은 거는 쥐날 안 한다고 이렇게 하더니만. 호상 할 때.)
107063 #2 그런, 그런 날은, 호상은 세는 거주.(그런, 그런 날은, 수의는 세는 거지.)
107063 @ 예.(예.)
107063 #1 옛날 아, 지금 그 육지들은 장을 담그는 날은 많이 보는 모양이고.(옛날 아, 지금 그 육지들은 장을 담그는 날은 많이 보는 모양이고.)
107063 @ 예.(예.)
107063 #2 이 삶는 날은 제주도에선 봐도 육지선 안 보는 모양이대.(이 삶는 날은 제주도에선 봐도 육지선 안 보는 모양이대.)
107063 @ 음, 우리 제주도는 둘 다 보잖아예?(음, 우리 제주도는 둘 다 보잖아요?)
107063 #1 둘 다 봐.(둘 다 봐.)
107063 @ 장 담으는 날이나 저기 허는 날이나.(장 담그는 날이나 저기 하는 날이나.)
107063 #1 둘 다 봐.(둘 다 봐.)
107063 #2 요새 사름덜은 안 봐. 고대로 그자 아무 때라도 허지.(요새 사람들은 안 봐. 그대로 그저 아무 때라도 하지.)
107063 @ 예.(예.)
107063 #2 경헤도 어떵 안허여.(그렇게 해도 어떻게 않아.)

떡류

107064 @ 자, 우리 식게 때 허는 떡 종류, 옛날 떡 종류 어떤 거 잇어낫수과?(자, 우리 제사 때 하는 떡 종류, 옛날 떡 종류 어떤 거 있었습니까?)
107064 #2 아이고.(아이고.)
107064 #1 겐디 궤명 이름이 전부 이젠 잊어불언이.(그런데 제수 이름이 전부 이젠 잊어버려서.)

107064 @ 예.(예.)

107064 #1 궤명덜이 그게 이 저 시루떡ᄀᆞ라 무시거. 시리떡, 시리떡을?(제수들이 그게 이 저 시루떡보고 무엇. 시루떡, 시루떡을?)

107064 #2 침떡엔 허주.(‘침떡’이라고 하지.)

107064 #1 침떡.(시루떡.)

107064 @ 예.(예.)

107064 #1 침떡은 옛 어른덜이 그 얘기가 땅을 표시헌 거옌 허고.(시루떡은 옛 어른들이 그 얘기가 땅을 표시한 거라고 하고.)

107064 @ 예.(예.)

107064 #1 효를 생각해서 헌 건디 침떡 그 원릴, 원리부터 지금 ᄀᆞᆫ는 건디.(효를 생각해서 한 건데 시루떡 그 원릴, 원리부터 지금 말하는 건데.)

107064 @ 예, 예.(예, 예.)

107064 #1 에, 상웨떡은 상, 그건 상 베꼇듸 올리는 거니까 상웨떡이고.(에, 상화떡은 상, 그건 상 바깥에 올리는 거니까 상화떡이고.)[249]

107064 @ 예.(예.)

107064 #1 다시 송편 이제 지름떡. 뭐 세미떡[250] 이젠 그처럼 헷는데 그 모양덜이 에 그 침떡은 땅을 표시헨에 그 뭐 좀 그 땅은 이렇게 그냥 멘짝허지 아녀다는 그런, 그 수매 놓민 트덜트덜헐 게 아니라게.(다시 송편 이제 기름떡. 뭐 ‘세미떡’ 이젠 그처럼 했는데 그 모양들이 에 그 시루떡은 땅을 표시해서 그 뭐 좀 그 땅은 이렇게 그냥 평평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소 넣으면 투둘투둘할 게 아닌가.)

107064 @ 예.(예.)

107064 #1 그치룩헌 거고. 이 지름떡은 그 톱니가.(그처럼한 거고. 이 기름떡은 그 톱니가.)

107064 @ 으.(으.)

107064 #1 이 흔 둘을 표시헌 건디. 서른 개가 들어가야 헌다는 거라.(이 한 달을 표시한 건데. 서른 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107064 @ 아.(아.)

107064 #1 톱니가.(톱니가.)

107064 @ 톱니가?(톱니가?)

107064 #1 으. 서른 개가 한 달을 이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올립니다, 조상에게 올립니다 헤서 헌 거고. 송편은 그것이 이제 깨끗한 거.(으. 서른 개가 한 달을 이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올립니다, 조상에게 올립니다 해서 한 거고. 송편은 그것이 이제 깨끗한 거.)

107064 @ 예.(예.)

107064 #1 이 사람이 아주 이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그 거세기헌 걸 의미헷젠

249) 구술자는 ‘상웨떡’을 상 밖에 올리는 것이니까 ‘상웨떡’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250)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허고.(이 사람이 아주 이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그 거시기한 걸 의미했다고 하고.)

107064 @ 음.(음.)

107064 #1 저 요는 뭐 이 둘이 절반ᄀᆞ라 절벤이옌 허는가?(저 요는 뭐 이 달이 절반보고 절편이라고 하는가?)

107064 @ 솔벤.('솔편'.)

107064 #1 솔벤[251].('솔편'.)

107064 #2 절벤 솔벤 절벤 잘 아녑니다.(절편 솔편 절편 잘 않습니다.)

107064 #1 그런 거나 이 손가락떡[252]이나 뭐 전부 잇는데, 이젠 이름덜 전부 잊어부런 몰르커라.(그런 거나 이 '손가락떡'이나 뭐 전부 있는데, 이젠 이름들 전부 잊어버려서 모르겠어.)

107064 @ 맞아예? 옛날 허듯이.(맞아요? 옛날 하듯이.)

107064 #1 옛날덜은 다 ᄀᆞᆯ아나신디.(옛날들은 다 말했었는데.)

107064 #2 친떡도 좁썰로 만든 건 친떡.(시루떡도 좁쌀로 만든 건 시루떡.)

107064 @ 예.(예.)

107064 #2 곤쏠로 만든 건 설귀.(흰쌀로 만든 건 백설기.)

107065 @ 아, 곤썰허고 설귀도 ᄐᆞ나게 허고예?(아, 흰쌀하고 백설기도 다르게 하고요?)

107065 #2 좁썰로 만든 건 친떡.(좁쌀로 만든 건 시루떡.)

107065 @ 음.(음.)

107065 #2 좁썰친떡. 곤쏠로 만든 건 설귀떡 경.(좁쌀시루떡. 흰쌀로 만든 건 백설기 그렇게.)

107065 @ 예, 게믄 침떡도 그렇게 두 종류?(예, 그러면 시루떡도 그렇게 두 종류?)

107065 #2 으.(으.)

107065 @ 그 다음에 또, 또 무슨 떡 잇수가?(그 다음에 또, 또 무신 떡 있습니까?)

107065 #2 그 다음에 무시거 뭐 셍펜.(그 다음에 무엇 뭐 송편.)

107065 @ 셍펜?(송편?)

107065 #2 ᄀᆞᆺ사 하르방 ᄀᆞᆯ아.(아까 할아버지 말해.)

107066 @ 게난 우리 남자 삼춘 말고. 셍펜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그러니까 우리 남자 삼촌 말고. 송편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107066 #2 아 그자 고대로 그자 이렇게 헤서 그자 영.(아 그저 그대로 그저 이렇게 해서 그저 이렇게.)

107066 #1 ᄀᆞ를 ᄀᆞᆯ아당 물.(가루 갈아다가 물.)

107066 #2 반달ᄀᆞ치.(반달같이.)

---

251) '솔벤'은 쌀가루를 반죽하여 반월형으로 만들어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252) '손가락떡'은 떡의 일종이다.

107066 #1 물 버무령.(물 버무려서.)

107066 #2 어떵허영 쳇 번부터 만드는 거?(어떻게 해서 첫 번부터 만드는 거?)

107066 @ 예, 예, 예.(예, 예, 예.)

107066 #2 이젠 중간엔 엇어가지고 저 방엣간에 간 돌팡에 간 영 둥그려당 헷지만 이제는 저 중간에 우리가 여기 씨집온 후제는 온 후제ᄁᆞ지도 돌팡에서 ᄀᆞᆯ아다가 셍펜을 만들엇어. 경헌데 그 다음부터는 으 이제 기곗방에 강 쌀 가져강 빠다.(이젠 중간엔 없어가지고 저 방앗간에 가서 연자매에 가서 이렇게 굴려다가 했지만 이제는 저 중간에 우리가 여기 시집온 후에는 온 후에까지도 연자매에서 갈아다가 송편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으 이제 방앗간에 가서 쌀 가져가서 빻아다가.)

107066 @ 예.(예.)

107066 #2 빠다근엥에 그 속에다가 팟도 담고.(빻아서 그 속에다가 팥도 담고.)

107066 @ 음.(음.)

107066 #2 담을라면 아무 거라도 담을 수 잇어. 속 담는 건.(담으려면 아무 거라도 담을 수 있어. 속 담는 건.)

107066 @ 예, 예.(예, 예.)

107066 #1 물 버무려사주. 물 버무려사.(물 버무려야지. 물 버무려야.)

107066 #2 송편 ᄀᆞ를 헤다가 고대로 헹은 안 뒈여.(송편 가루 해다가 그대로 해서는 안 되어.)

107066 @ 음.(음.)

107066 #2 어떵허민 물 팔팔 끓여. 팔팔 끓여근에 이젠 이렇게 이젠 다라에다가 놔서.(어떻게 하면 물 팔팔 끓여. 팔팔 끓여서 이젠 이렇게 이젠 대야에다가 넣어서.)

107066 @ 음.(음.)

107066 #2 이런 통을 파는 거야.(이런 통을 파는 거야.)

107066 @ 음.(음.)

107066 #2 통을 파서 물을, 뀌는 물을 이디 비워.(통을 파서 물을, 끓는 물을 여기 부어.)

107066 @ 예.(예.)

107066 #2 비와가지고 이제 탁 더퍼. 더퍼가지고 이렇게 헤영이 영 게미[253]를 멘들아내는 거라.(부어가지고 이제 탁 덮어.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덩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107066 @ 음, 음.(음, 음.)

107066 #2 막 둥그려가지고. 경 허믄 허곡. ᄋᆞ차 허면은 그 물이 설언, 잘 안 끓여졋다 허면 물 선 거라고, "물 설엇저, 이거 안 뒈키여." 허영, 물 설엉 ᄂᆞ시 만들 수가 없어.(막 굴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고. 아차 하면 그 물이 설었어, 잘 안 끓

253) 여기에서 '게미'는 '덩이'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여졌다 하면 물 선 거라고, “물 설었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물 설어서 도무지 만들 수가 없어.)

107066 @ 아.(아.)

107066 #2 만들 수가 엇이니까 그거를 이젠 또 물에 이젠 영 크게 헤다가 개떡 거치 멘들아가지고 이젠 영 물에 팔팔 끓이는 솟듸 영 놔가지고.(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젠 또 물에 이젠 이렇게 크게 해다가 개떡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젠 이렇게 물에 팔팔 끓이는 솥에 이렇게 놔가지고.)

107066 @ 음.(음.)

107066 #2 이젠 그거를 익을 만허민 이젠 건져내가지고 이거 물 선 것디레 앚당 막 뀌여. 그렇게 허민 송편이 멘들아질 수가 잇어.(이젠 그거를 익을 만하면 이제 건져내가지고 이건 물 선 것으로 가져다가 막 이겨. 그렇게 하면 송편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107066 @ 음.(음.)

107066 #2 경허민 이젠 영 허영 흔 게미가 영 멘들아놓면 이거 똑똑 꺼내면서 영 영영 영 만드는 거.(그렇게 하면 이젠 이렇게 해서 한 덩이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거 똑똑 꺼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

107066 @ 게난 그 셍펜 모양은 어떤 모양 됍니까?(그러니까 그 송편 모양은 어떤 모양 됩니까?)

107066 #2 아, 요렇게 요렇게 잇어가지고 꼭 눌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거.(아, 요렇게 요렇게 있어가지고 꼭 눌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거.)

107066 @ 어, 좀 둥그스름헤갖고예? 아.(어, 좀 둥그스름해가지고요? 아.)

107066 #2 다 전을 돋지는 거 아니여이.(다 전을 돋치는 거 아닌가.)

107066 @ 음.(음.)

107066 #2 요렇게 반쪽만.(요렇게 반쪽만.)

107066 @ 아, 반쪽만. 그거를 무신거 돋진덴 ᄀᆞᆯ아마씨?(아, 반쪽만. 그거를 무엇 돋친다고 말해요?)

107066 #2 (웃음) 저 무신거옌.((웃음) 저 무엇이라고.)

107066 #1 뭐엔 ᄀᆞᆯ아낫는디 잊어부런.(뭐라고 말했었는지 잊어버렸어.)

107066 @ 아까 전 돋진덴?(아까 전 돋친다고?)

107066 #2 춤 전 돋지는 거.(참 전 돋치는 거.)

107066 @ 우리 솟전 허듯이예? 어.(우리 솥전 하듯요? 아.)

107066 #2 영 허민 거 전도 잘 안 뒈엿저게. 영 허민 영 영 줍아부는 사름 잇주게.(이렇게 하면 거 전도 잘 안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집어버리는 사람 있지.)

107066 @ 예, 예, 예.(예, 예, 예.)

107066 #2 요렇게 요렇게 줍아야 곱게 나오는디 몰를 땐 요렇게 요렇게 줍아불

민 뚱그렁허여근에 보기가 싫어.(요렇게 요렇게 집어야 곱게 나오는데 모를 땐 요렇게 요렇게 집어버리면 뚱그래서 보기가 싫어.)

107066 @ 아아.(아아.)

107066 #2 경허곡 지름떡은 이젠 그걸로 허영 옛날은 찹쌀도 엇으니까이. 이젠 그걸로 헤가지고.(그렇게 하고 기름떡은 이젠 그걸로 해서 옛날은 찹쌀도 없으니까. 이젠 그걸로 해가지고.)

107066 #1 밀어.(밀어.)

107066 #2 밀어가지고 손으로도 지름떡 가다[254], 가다 헤가지고 그걸로 지름떡 가다 해가지고 영 허영 수제비 멩글 때에 영 그 칼국수 멘들 때 영 밀잖아.(밀어가지고 손으로도 기름떡 틀, 틀 해가지고 그걸로 기름떡 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제비 만들 때에 이렇게 그 칼국수 만들 때 이렇게 밀잖아.)

107066 @ 예.(예.)

107066 #2 경 허영.(그렇게 해서.)

107066 #1 밀대로.(밀대로.)

107066 #2 밀대로 밀어가지고 똑똑 떠내여근에 옛날에는 지름도 엇엉 지지질 못허니까 그자 지지지도 아녕 쪄내여. 솔입에다가 쪄.(밀대로 밀어가지고 똑똑 떠내어서 옛날에는 기름도 없어서 지지질 못하니까 그저 지지지도 않고 쪄내어. 솔잎에다가 쪄.)

107066 @ 아아.(아아.)

107066 #2 경 허영 허민 것이 지름떡.(그렇게 해서 하면 것이 기름떡.)

107066 @ 지름떡 대용으로 음.(기름떡 대용으로 음.)

107066 #2 그 막 허영 무시거 이제 영장인 때나 뭐헌 때 쓸라면 지름떡 만들고 세미떡이라고 헌 게 잇어.(그 마구 해서 무엇 이제 장사인 때나 뭐할 때 쓰려면 기름떡 만들고 '세미떡'이라고 한 게 있어.)

107066 @ 예, 예.(예, 예.)

107066 #2 그 저 영 쪼꼬만허게 헤가지고 영 요렇게 전 돋져가지고.(그 저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전 돋쳐가지고.)

107066 #1 요 정도.(요 정도.)

107066 @ 세미떡을 그렇게 작게 헤예? 아아.('세미떡'을 그렇게 작게 해요? 아아.)

107066 #2 쩨깐하게 보기 좋아.(자그맣게 보기 좋아.)

107066 @ 어.(어.)

107066 #2 ᄆᆞ물로 헌 것도 이만이 크고.(메밀로 한 것도 이만큼 크고.)

107066 @ 예. 저는 큰 걸로만.(예. 저는 큰 걸로만.)

107066 #2 물떡[255].('물떡'.)

---

254) '가다'는 일본어 'かた'에서 온 말이다. 표준어로는 '틀'의 의미다.

255)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빚어 그 안에 팥소나 무채를 넣어 삶아낸 떡을 말한다.

107066 #1 이만이 큰 건 물떡.(이만큼 큰 건 '물떡'.)

107066 @ 큰 거는 물떡. 모양은 똑ᄀᆞ튼데?(큰 거는 '물떡'. 모양은 똑같은데?)

107066 #1 으, 모양은 똑같은데.(으, 모양은 똑같은데.)

107066 @ 아아.(아아.)

107066 #2 그거 만들고, 또 저 어디 강 쓰젱 허면 이젠 또 거세기. 수꾸락, 수꾸락떡[256]옌 헌 거 잇어.(그거 만들고, 또 저 어디 가서 쓰려고 하면 이젠 또 거시기. 숟가락, '수꾸락떡'이라고 한 거 있어.)

107066 #1 손가락떡[257]. 손가락.('손가락떡'. 손가락.)

107066 #2 요렇게 헤가지고 수까락으로 영 똑똑 찍어.(요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똑똑 찍어.)

107066 @ 예.(예.)

107066 #2 경 혜영 멧 개 만들앙 쓸 만이 만들앙 것도 솔입에 송펜 찔 때에 ᄀᆞ치 찌면 뒈는 것이고, 또 지름떡도 그렇게 찌민 뒈는 것이고.(그렇게 해서 몇 개 만들어서 쓸 만큼 만들어서 것도 솔잎에 송편 찔 때에 같이 찌면 되는 것이고, 또 기름떡도 그렇게 찌면 되는 것이고.)

107072 @ 음, 옛날에 인절미 이런 거는 안 헤봅디가?(음, 옛날에 인절미 이런 거는 안 해봅디까?)

107072 #2 은절미는 거 아주 쉬운 거.(인절미는 거 아주 쉬운 거.)

107072 @ 으,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으,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

107072 #2 아니, 이거, 이거를 영 영 헤가지고 수까락으로 영 뺑허게 돌라근에 영 영 꼭 둘러두고 두 개 헤가지고 헐 만썩 허영 영 영 눌려도 뒈는 것이고.(아니, 이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뱅하게 돌라서 이렇게 이렇게 꼭 둘러두고 두 개 해가지고 할 만큼씩 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도 되는 것이고.)

107073 @ 으, 건 은절미 헙니까? 절편 헙니까?(으, 건 인절미 합니까? 절편 합니까?)

107073 #2 절편은 여긴 안 헤봣어.(절편은 여긴 안 해봤어.)

107073 @ 아아.(아아.)

107073 #2 저쪽디레 가난 나가 허연 줜 먹어봇지.(저쪽으로 가니까 내가 해서 줘서 먹어봤지.)

107073 @ 음, 네모나게 이렇게 헤갖고.(음, 네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107073 #2 경허연 반달떡[258]도 잇어.(그렇게 해서 '반달떡'도 있어.)

107073 @ 예, 반달떡도.(예, '반달떡'도.)

107073 #2 반달떡은 거긴. 건 납삭허게 헤가지고 허는 거 보니까, 그디 간에 나가 어떵허연 (웃음) 포목 장시를 간(웃음).('반달떡'은 거긴. 건 납작하게 해가지고

256) '수꾸락떡'은 쌀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가운데 수저로 눌러서 무늬를 낸 떡을 말한다.
257) '손가락떡'은 쌀가루 따위로 만든 떡의 일종이다.
258) 여기에서 '반달떡'은 '솔벤'을 가리키는 말 같다.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가서 내가 어떡해서 (웃음) 포목 장사를 가서(웃음).)

107073 @ 어어.(어어.)

107073 #2 포목 장시를 가니까 이제 그 정의 갓지.(포목 장사를 가니까 이제 그 정의 갔지.)

107073 @ 예.(예.)

107073 #2 이렇게 허여가지고 여기 딱 허게 두 개 벌르대.(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하게 두 개 나누던데.)

107073 @ 예.(예.)

107073 #2 벌런 찌난에 반돌떡.(쪼개서 찌니까 '반달떡'.)

107073 @ 예.(예.)

107073 @2 그거 봐난.(그거 봤었어.)

107073 @ 동글락허영 반착 딱 잘라가지고예?(동그래서 반쪽 딱 잘라가지고요?)

107073 #1 영 동글락헌 거는 뭔 떡이라?(이렇게 동그란 거는 뭔 떡이야?)

107073 #2 그건 큰 은절미 건.(그건 큰 인절미 건.)

107073 #1 건 은절미.(건 인절미.)

107073 @ 음.(음.)

107073 #2 또 송에기떡[259]엔 헌 건 잇어이.(또 '송에기떡'이라고 한 건 있어.)

107073 @ 예.(예.)

107073 #2 건 이디도 써. 송에기떡이렌 이렇게 영 허영 영 이렇게 부찌민 뒈.(건 여기도 써. '송에기떡'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돼.)

107073 @ 음.(음.)

107073 #1 똥글락헌 거 두 개 헤영 부찌민.(동그란 거 두 개 해서 붙이면.)

107073 @ 우리는 송에기떡 안 헙니까? 거는 무사 송에기떡이렌 헴신고예?(우리는 '송에기떡' 안 합니까? 거는 왜 '송에기떡'이라고 하고 있는가요?)

107073 #1 몰라.(몰라.)

107073 #2 영헤영 쪼끌락헌 거 영 부뜨니까 아메도.(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거거 이렇게 붙으니까 아마도.)

107073 #1 송에기 똥ᄀᆞ치 송에기 똥ᄀᆞ치 뒌 것산디.(송아지 똥같이 송아지 똥같이 된 것인지.)

107069 @ 게믄예? 다시 정리해 보께예? 삼춘예, 우리 식게 때 올리는 떡예, 식게 때 상에 올리젠 허민 무신 떡 멘들어서마씨?(그러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삼촌, 우리 제사 때 올리는 떡, 제사 때 상에 올리려고 하면 무슨 떡 만들었어요?)

107069 #2 그거는 우직에 설귀떡. 건 아무나 허도 못헷어.(그거는 웃기떡에 백설기. 건 아무나 하지도 못했어.)

107069 @ 음.(음.)

107069 #2 침떡이.(시루떡이.)

259) '송애기떡'도 쌀떡의 한 종류다.

107069 @ 침떡으로라도예?(시루떡으로라도요?)

107069 #2 좁썰 허영 침떡 허영 허곡, 또 침떡이 쏠이 원체 귀헤놓니까 좁썰떡 우에.(좁쌀 해서 시루떡 해서 하고, 또 시루떡이 쌀이 워낙 귀해놓으니까 좁쌀떡 위에.)

107069 @ 예.(예.)

107069 #2 좀 영 얹어.(좀 이렇게 얹어.)

107069 @ 음.(음.)

107069 #2 얹어가지고.(얹어가지고.)

107069 @ 산듸쏠 얹엉?(밭벼쌀을 얹어서?)

107069 #2 경 헤영 쌀가루를 얹어 놓민 한쪽은 침, 저 좁쏠떡이고 한쪽은 또 좁쏠떡이고.(그렇게 해서 쌀가루를 얹어 놓으면 한쪽은 시, 저 좁쌀떡이고 한쪽은 또 좁쌀떡이고.)

107069 #1 지금으로 셍각허민 모양 내는 거라, 건. (웃음).(지금으로 생각하면 모양 내는 거야, 건. (웃음).)

107069 #2 영 보면 이쪽은 희고 이쪽은 저 좁썰떡이니까 검고.(이렇게 보면 이쪽은 희고 이쪽은 저 좁쌀떡이니까 검고.)

107069 @ 음, 그 떡은 무신 떡이렌 헙니까? 그렇게 헌 것이.(음, 그 떡은 무슨 떡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 것이.)

107069 #2 것이 침떡.(것이 시루떡.)

107069 @ 그냥 침떡이렌 헤여? 뭐 다른 '고달돋찐떡'이여 이런 말은 안허고.(그냥 시루떡이라고 해? 뭐 다른 '고달부찐떡'이다 이런 말은 안하고.)

107069 #2 난 그런 말은 안, 들어보지 안허고. 쌀로만 헌 거는 이제 설귀떡.(난 그런 말은 안, 들어보지 안하고. 쌀로만 한 거는 이제 백설기.)

107069 @ 설귀떡.(백설기.)

107069 #1 으.(으.)

107069 @ 좁쏠이 들어가면 침떡. 게민 그거를 이제.(좁쌀이 들어가면 시루떡. 그러면 그거를 이제.)

107069 #2 고구마로도 침떡 쓰고.(고구마로도 시루떡 쓰고.)

107069 #1 수메[260], 수메.(고물, 고물.)

107069 #2 침떡 쳐서 먹을 수도 잇고 올릴 수도 잇고.(시루떡 쪄서 먹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107069 @ 고구마로도. 고구마 어떻게?(고구마로도. 고구마 어떻게?)

107069 #2 고구마까를.(고구마가루.)

107069 @ 고구마ᄀᆞ를로 아아.(고구마가루로 아아.)

107069 #2 침떡 멘들아내여.(시루떡 만들어내어.)

260) '수메'는 떡 속에 넣는 '소'나 시루떡 따위의 고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보자에 따라서 '수메'를 '순메'라고도 하였다.

107069 @ 그거는 무신걸로 헤여갖고 ᄀᆞ를 멘드는 거우과?(그거는 무엇으로 해 갖고 가루 만드는 겁니까?)

107069 #2 절, 옛날은 뭐인가 허민 그 웨정시대에 그 감저 헤서 거 뻿데기엔 허주게.(절, 옛날은 뭐인가 하면 그 왜정시대에 그 고구마 해서 거 절간이라고 하지.)

107069 @ 예,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예.)

107069 #2 헹 막 바찌렌 헤낫주게. 허단 중간에는 이젠 그거를 안 받아가불엇어. 어떵허연. 안 받으난 거를 주로 그걸로덜, 그걸로덜 살앗거든.(해서 마구 바치라고 했었지. 하다가 중간에는 이젠 그거를 안 받아가버렸어. 어떡해서. 안 받으니까 거를 주로 그것으로들, 그것으로들 살았거든.)

(잡담)

107069 @ 예, 경허영은에.(예, 그렇게 해서.)

107069 #2 다음에랑 허라게.(다음에 해라.)

107069 @ 그치룩 웨정 때 헹은에.(그처럼 왜정 때 해서.)

107069 #2 웨정 때에 경허영 그자 설귀떡으로만도 올릴 수가 엇이난.(왜정 때에 그렇게 해서 그저 백설기로만도 올릴 수가 없으니까.)

107069 @ 예.(예.)

107069 #2 그거 반쪽서 헤연에 올렷주게. 상에.(그거 반쪽서 해서 올렸지. 상에.)

107069 @ 예.(예.)

107069 #2 그거를 헤다가 것만도 올리젠 허민 올릴 수가 없어이.(그거를 해다가 것만도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가 없어.)

107069 @ 예.(예.)

107069 #2 게난 고구마를 썰어놓는 거라.(그러니까 고구마를 썰어넣는 거야.)

107069 @ 음.(음.)

107069 #2 고구마 썰어놓곡 영헤영 징징이 놓젠 허민 영 영 다 놓면 떡이 기냥 부떠불잖아. 여기 팟 삶아가지고 이젠 ᄲᅳᆺ아.(고구마 썰어넣고 이렇게 해서 켜켜이 놓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다 넣으면 떡이 그냥 붙어버리잖아. 여기 팥 삶아가지고 이젠 빻아.)

107069 @ 음.(음.)

107069 #2 ᄲᅳᆺ아가지고 이디 영 또 허꺼근에 우의다가 또 흔 징을 놓면, 허민 큰 시루 허젠 허민 열두.(빻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섞어서 위에다가 또 한 켜를 놓으면, 하면 큰 시루 하려고 하면 열두.)

107069 #1 칭ᄁᆞ장.(켜까지.)

107069 #2 칭ᄁᆞ지 뒐 거라.(켜까지 될 거야.)

107069 @ 아아, 큰 시루예?(아아, 큰 시루요?)

107069 #2 큰 시루에. 막 크지. 게민 그거를 열두 징을 ᄁᆞ는 거. 경 허영 영 허영 떠 내민 딱딱 떠내민 흔 징 흔 징썩 허영 올리는 거.(큰 시루에. 매우 크지. 그

러면 그거를 열두 켜를 까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떠 내면 딱딱 떠내면 한 켜 한 켜씩 해서 올리는 거.)

107069 @ 음, 경허영은에 그 감저ᄀᆞ를 헤갖고 그거는 감저.(음, 그렇게 해서 그 고구마가루 해갖고 그거는 고구마.)

107069 #2 감저떡은 경 허영 그자 먹젠.(고구마떡은 그렇게 해서 그저 먹으려고.)

107069 @ 아, 먹젠 하고.(아, 먹으려고 하고.)

107069 #2 쌀도 좁썰도 귀허니까.(쌀도 좁쌀도 귀하니까.)

107069 @ 예.(예.)

107069 #2 그땐 그 절간이, 뻣데기가 만허니까 그거 허영.(그땐 그 절간이, 절간이가 많으니까 그거 해서.)

107069 @ 으.(으.)

107069 #2 식구덜이라도 오면 주고 먹고.(식구들이라도 오면 주고 먹고.)

107069 @ 먹을 걸로?(먹을 걸로?)

107069 #2 제사 지나나민 그 제삿상에 올렷단 거 내려왕 먹곡 그렇게.(제사 지나나면 그 제상에 올렸던 거 내려와서 먹고 그렇게.)

107069 @ 게믄 맨 앞에 설귀떡을 만약에 허고예? 그 설귀떡 우에는 무슨 떡 올려?(그러면 맨 앞에 백설기를 만약에 하고요? 그 백설기 위에는 무슨 떡 올려?)

107069 #2 송편.(송편.)

107069 @ 아, 송편 올리고. 송편 우에는?(아, 송편 올리고. 송편 위에는?)

107069 #2 송편 우엔 지름떡덜.(송편 위에는 기름떡들.)

107069 @ 송편 우에는 지름떡 올리고.(송편 위에는 기름떡 올리고.)

107069 #1 고명[261]덜.('고명'들.)

107069 @ 예.(예.)

107069 #2 고명은 저 무신 산에 강 쓸 때에 고명 올리지. 기냥 제사 때는 안 써.('고명'은 저 무슨 산에 가서 쓸 때에 '고명' 올리지. 그냥 제사 때는 안 써.)

107069 #1 여기선 아녀는가? 대소상 때는 헤난디.(여기선 안하는가? 대소상 때는 했었는데.)

107069 #2 대소상 때야 하지.(대소상 때야 하지.)

107069 @ 그 고명은 무신 어떤 걸로 올리는 거우과?(그 '고명'은 무슨 어떤 걸로 올리는 겁니까?)

107069 #2 기냥 그 쌀로. 그 쌀가루로.(그냥 그 쌀로. 그 쌀가루로.)

107069 @ 쌀가루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우과?(쌀가루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107069 #2 아, 고명이라 헌 건 곳사 지름떡. 이디 이제 거세기 영헤영.(아, '고명'이라 한 건 아까 기름떡. 여기 이제 거시기 이렇게 해서.)

---

261) 여기에서 '고명'은 시루떡을 제외한 기름떡, 절편, 솔편 따위의 잔 떡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107069 @ 손가락떡.(‘손가락떡’.)

107069 #2 손가락떡. 절변, 솔변 그거주게.(‘손가락떡’. 절편, 솔편 그거지.)

107069 @ 아, 여기도.(아, 여기도.)

107069 #1 세미떡.(‘세미떡’.)

107069 @ 세미떡. 이런 것도 전부 하는 거라예? 여기도 절변을 헤마씨?(‘세미떡’. 이런 것도 전부 하는 거라고요? 여기도 절편을 해요?)

107069 #2 으.(으.)

107069 @ 절변은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절편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

107069 #2 요렇게.(요렇게.)

107069 @ 동글락허게 헤서.(동그랗게 해서.)

107069 #2 동그랗게 헤가지고 것도 막 부쪄불지 아녀는 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헤가지고.(동그랗게 해가지고 것도 막 붙여버리지 않는 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107069 @ 두 개 똑 눌렁.(두 개 똑 눌러서.)

107069 #2 요런 식으로.(요런 식으로.)

107069 @ 게민 모냥이 이런 모냥 나와? 아까 송애기떡?(그러면 모양이 이런 모양 나와? 아까 ‘송에기떡’?)

107069 #2 것 말고. 송에기떡은 이렇게 나오고 족아야 허고 송에기떡은.(것 말고. ‘송에기떡’은 이렇게 나오고 작아야 하고 ‘송에기떡’은.)

107069 @ 아, 송에기떡은 족게 허고.(아, ‘송에기떡’은 작게 하고.)

107069 #2 절벤은 커야.(절편은 커야.)

107069 @ 아아,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절변을예, 동글락허게 헤갖고 이렇게 눌떵 절벤본[262]으로 똑 눌떵 만들거든마씨. 여기는 동글동글허게 그자.(아아,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절편을요,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눌러서 ‘절편본’으로 똑 눌러서 만들 거든요. 여기는 동글동글하게 그저.)

107069 #2 동글락허게 놔근에.(동그랗게 놔서.)

107074 @ 이 제주도 ᄀᆞ튼 제주도도 ᄐᆞ나예? 그걸 절벤이렌 허고. 솔벤은 뭐옌 허여? 어떤 거를 솔벤이렌 허여?(이 제주도 같은 제주도도 다르죠? 그걸 절편이라고 하고. ‘솔편’은 뭐라고 해? 어떤 거를 ‘솔편’이라고 해?)

107074 #2 솔벤은 안 허여.(‘솔편’은 안 해.)

107074 @ 솔벤은 안허고. 게믄 절변이 이런, 삼촌, 떡 멘들아야쿠다.(‘솔편’은 안하고. 그러면 절편이 이런, 삼촌, 떡 만들어야겠습니다.)

107074 #2 허는 사름이 잇긴 잇어.(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107074 @ 이렇게 절변 허잖아예? 게믄 아까 이제 이렇게 옆으로 허는 거는, 족게 허는 거?(이렇게 절편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는, 작게 하는 거?)

---

262) ‘절벤본’을 ‘절편’을 만들 때 쓰는 떡살을 말한다.

107074 #2 그건 송에기떡.(그건 '송에기떡'.)

107078 @ 이건 송에기떡.(이건 '송에기떡'.)

107078 #2 손가락떡.('손가락떡'.)

107078 @ 송에기, 이건 절벤. 그 다음에 손가락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 두 개.('송에기', 이건 절편. 그 다음에 '손가락떡'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 두 개.)

107078 #2 으.(으.)

107078 @ 이거는 이제 손가락떡. 그냥 손가락떡이렌 헙니까? 여기는 뭐 벙거떡 이런 거는 안 해?(이거는 이제 '손가락떡'. 그냥 '손가락떡'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뭐 '벙거떡' 이런 거는 안 해?)

107078 #2 안 해.(안 해.)

107078 @ 그 다음에 송편은 영 허영 여기 전 돋져근에.(그 다음에 송편은 이렇게 해서 여기 전 돋쳐서.)

107078 #2 여기서 보니까 허는 사름덜이 잇더라. 저기서 온 사름덜이 잇으니까.(여기서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기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107078 @ 예.(예.)

107078 #2 막 허터져 놓니까 어떤 집의 간 보난 ** 우리는 그렇게 안 허여.(막 흩어져 놓으니까 어떤 집에 가서 보니까 ** 우리는 그렇게 안 해.)

107078 @ 안 하고예? 셍펜 이렇게 만들고. 세미떡은 이런 식으로 허는데 족은 거.(안 하고요? 송편 이렇게 만들고. '세미떡'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작은 거.)

107078 #1 으, 작은 거.(으, 작은 거.)

107078 #2 으.(으.)

107078 @ 족은 거 허영 속에 팟 헹 수메 놩예. 그 다음에 어 세미떡은? 저 물떡은 큰 거?(작은 거 해서 속에 팥 해서 소 넣어서요. 그 다음에 어 '세미떡'은? 저 '물떡'은 큰 거?)

107078 #1 물떡은 큰 건디 상엔 안 올라가고. 건 나눠 먹을 걸로.('물떡'은 큰 건데 상엔 안 올라가고. 건 나눠 먹을 걸로.)

107078 @ 예, 그 다음에 물떡 요거는 세미떡.(예, 그 다음에 '물떡' 요거는 '세미떡'.)

107078 #1 겐디 이거 큰 것도 잇고.(그런데 이거 큰 것도 있고.)

107078 @ 이거 큰 거는 뭐렌 헤마씨? 물떡 말고.(이거 큰 거는 뭐라고 해요? '물떡' 말고.)

107078 #1 중간만이 헌 것도 세미떡인디 그자 우리 세미떡엔 말만 들어나부니까.(중간만큼 한 것도 '세미떡'인데 그저 우리 '세미떡'이라는 말만 들어버리니까.)

107078 @ ᄆᆞ멀로는 크게 허고. 쏠로는 족게 허고.(메밀로는 크게 하고. 쌀로는 작게 하고.)

107078 #1 ᄆᆞ멀로는 크게 허고, 쏠론 족게 허고.(메밀로는 크게 하고, 쌀로는 적게 하고.)

107078 #2 경허난 옛날에는 물떡엔 헌 거는 어떵 헌가 허면 저 거세기 어디 영 장이 나잖아.(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물떡'이라고 한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저 거시기 어디 장사가 나잖아.)

107078 @ 음.(음.)

107078 #2 멧 놈역[263].(몇 '놈역'.)

107078 @ 예, 멧 놈역.(예, 몇 '놈역'.)

107078 #2 멧 사름치ᄀᆞ라 ᄒᆞᆫ 사람치ᄀᆞ라 ᄒᆞᆫ 놈역 두 ᄂᆞᆷ역 헤가거든. 경허민 이제 그거를 영헤여근에 강 두 개든 하난 안 허지.(몇 사람어치보고 한 사람어치보고 'ᄒᆞᆫ 놈역' '두 ᄂᆞᆷ역' 해가거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서 가서 두 개든 하난 안 하지.)

107078 @ 음.(음.)

107078 #2 두 개든 세 개든 ᄒᆞᆫ 놈역썩 테와주곡. 경 허영 강 물떡은.(두 개든 세 개든 한 '놈역'씩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가서 '물떡'은.)

107078 @ 물떡은예?('물떡'은요?)

107078 #2 게난 옛날에는 팟도 귀허니까 콩은 쫌 잇이니까 또 콩 허영근엥에 막 물떡 소곱에 막 담아.(그러니까 옛날에는 팥도 귀하니까 콩은 좀 있으니까 또 콩 해서 막 '물떡' 속에 막 담아.)

107078 @ 음.(음.)

107078 #2 경허민 콩을 안 먹어근에 영 보민 게도 ᄒᆞ꼼 중간*은 때라이.(그렇게 하면 콩을 안 먹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조금 중간*은 때야.)

107078 @ 음.(음.)

107078 #3 기냥 막 비와놩 내불어.(그냥 마구 부어놓아서 내버려.)

107078 @ 아.(아.)

107078 #2 겁덕만 먹엉.(껍데기만 먹어서.)

107078 #1 콩입 놓는 사름도 잇곡.(콩잎 넣는 사람도 있고.)

107078 @ 거기에예?(거기에요?)

107078 #1 앙꼬[264]를.(소를.)

107078 @ 앙꼬를? 게민 것도 콩입 순메 헙니까? 그것도.(소를? 그러면 것도 '콩입 순메' 합니까? 그것도.)

107078 #1 콩잎 순메주.('콩잎 순메'지.)

107078 @ 으, 겡은에 물떡은 그런 식으로 하고. 게믄 보통은 다 이제 풋으로 헹은에 놔예? 순메를예? 아 쏠로는 족은 거고 큰 거 하는구나. 그 다음에 삼춘, 은절미는 여기 헤, 은절미?(으, 그래서 '물떡'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보통은 다 이제 팥으로 해서 놔요? 소를요? 아 쌀로는 작은 거고 큰 거 하는군요. 그 다음에 삼촌, 인절미는 여기 해, 인절미?)

---

263) 여기에서 '놈역'은 '한 사람의 분량'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지역에 따라 '놈에치'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에치'는 '어치'라는 의미다.

264) '앙꼬'는 '소'를 가리키는 일본어다.

107078 #2 아니.(아니.)

107078 @ 이 동네는 안 하는 거예?(이 동네는 안 하는 거요?)

107078 #1 들어낫는디 은절미.(들었었는데 인절미.)

107078 #2 은절미야게 기냥 밥 쪄놩은에 거세기헌 거고. 쪄근엥에 영 만든 것이 은절미주마는 옛날 쪄근에 밥 쪄근에 영.(인절미야 그냥 밥 쪄놓아서 거시기한 거고. 쪄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인절미지만 옛날 쪄서 밥 쪄서 이렇게.)

107078 @ 으, 츠나록 허영 허난. 게난 우리 저쪽에는 은절미가예 이렇게 이만큼 헹 네모나게 은절미가 넙작허게 헌 거.(아, 찰벼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는 인절미가요 이렇게 이만큼해서 네모나게 인절미가 넓적하게 한 거.)

107078 #1 네모난 게 은절미로구나.(네모난 게 인절미로구나.)

107078 @ 예. 우리는 거긴 그렇게 하고 둘반착헌 거 하고 그 다음에 절벤하고 뜨나.(예. 우리는 거긴 그렇게 하고 솔편이라고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절편하고 달라.)

107078 #2 서쪽에는 쌀이 이쪽보단 먼저 나왓거든. 나록을 지니까. 우리 대정 나록쏠 이제 이디 씨집오란 멧 년 뒌 후제야 대정 나록쏠을 받앙 먹엇어. 이딘 강나록쏠[265]벳긔 없어.(서쪽에는 쌀이 이쪽보단 먼저 나왔거든. 벼를 지으니까. 우리 대정 볍쌀 이제 여기 시집와서 몇 년 된 후에야 대정 볍쌀을 받아서 먹었어. 여긴 '강나록쏠'밖에 없어.)

107078 @ 예, 예, 예, 예. 논이 엇이난예?(예, 예, 예, 예. 논이 없으니까요?)

107078 #2 논이 엇으니까.(논이 없으니까.)

107078 @ 거 게난 이 송에기떡이여 손까락떡여 헌 것도 이쪽에서만 이제 허는 거네?(거 그러니까 이 '송에기떡'이다 '손까락떡'이다 한 것도 이쪽에서만 이제 하는 거네?)

107078 #1 ᄆᆞ믈로도 게민 요것이 은절미민 ᄆᆞ물로도 영 멘든 거 잇엇낫어.(메밀로도 그러면 요것이 인절미면 메밀로도 이렇게 만든 거 있었었어.)

107078 @ 예. 그것도 은절미. 쏠 엇인 집은 ᄆᆞ멀로 헹 식게허고.(예. 그것도 인절미. 쌀 없는 집은 메밀로 해서 제사하고.)

107071 @ 떡은 그 종류고. 삼춘, 그 설귀떡 잇잖아. 설기떡 칠 때는 어떤 식으로 쳐마씨? 모물떡 허고 침ᄆᆞ물떡 하고 똑ᄀᆞ틉니까?(떡은 그 종류고. 삼촌, 그 백설기 있잖아. 백설기 찔 때는 어떤 식으로 쪄요? 메밀떡하고 찐메밀떡하고 똑같습니까?)

107071 #2 것도 물에 놩 반죽을 이제 영 집어 보멍 얼마 뒌 거 헤근에 이젠 만들아서 이젠 무슨 바가치로, 바가치로 시루레 아래에다가 이제 팟이나 뭣이건 ᄂᆞ물 입사귀 딱 혜영.(것도 물에 넣어서 반죽을 이제 이렇게 집어 보면서 얼마 된 거 해서 이젠 만들어서 이젠 무슨 바가지로, 바가지로 시루에 아래에다가 이제 팥이나 뭣이든 나물 이파리 딱 해서.)

265) '강나록쏠'은 밭벼쌀을 가리키는 말 같다.

107071 @ 예.(예.)

107071 #2 고망나니까.(구멍나니까.)

107071 @ 예, 예.(예, 예.)

107071 #2 더프는 거라. 더퍼가지고 그레 팟을 놔. 팟을 놓고 가를를 그레 거려 놔. 알징에는 족영 드니가 이제 뚜껍도 족영 놓고 ᄒᆞ쏠 올라가고 ᄎᆞᄎᆞ 더 올라올수록 크게.(덮는 거야. 덮어가지고 그리로 팥을 넣어. 팥을 넣고 가루를 그리로 떠놔. 아래 켜에는 적게 드니까 이제 두께도 적게 넣고 조금 올라가고 차차 더 올라올수록 크게.)

107071 @ 아아, 층 뭐 저기?(아아, 켜 뭐 저기?)

107071 #2 우로레 가면 영 퍼지니까.(위로 가면 이렇게 퍼지니까.)

107071 @ 예, 예, 예, 예. 그렇게 크니까. 그렇지 크니까예? 어.(예, 예, 예, 예. 그렇게 크니까. 그렇지 크니까요? 어.)

107071 #2 경 허영 쪄내민 설귀떡.(그렇게 해서 쪄내면 백설기.)

107071 @ 음.(음.)

107071 #2 설귀떡 칠 때도 이제 뭐인가 옛날엔 무 놓는 사름도 잇고.(백설기 찔 때도 이제 뭐인가 옛날엔 무 넣는 사람도 있고.)

107071 @ 예, 예.(예, 예.)

107071 #2 무도 중간에 놔부니까 주로 감저.(무도 중간에 놔버리니까 주로 고구마.)

107071 @ 아아, 감저.(아아, 고구마.)

107071 #2 감저 썰어근엥에 팍팍 씻어놩 썰엉 막 채거찌 막 썰엉.(고구마 썰어서 팍팍 씻어놓아서 썰어서 막 채같이 막 썰어서.)

107071 @ 예.(예.)

107071 #2 그레 물에 막 시치는 거라. 그 무신 그렇지 아녀민 그 쌀까를이 노랑헤불어, 그 진이.(그리로 물에 막 씻는 거야. 그 무슨 그렇지 않으면 그 쌀가루가 노래버려, 그 진이.)

107071 @ 예, 예.(예, 예.)

107071 #2 시청은에 그 쌀까루레 막 서터.(씻어서 그 쌀가루에 마구 섞어.)

107071 @ 설귀 헐 때도 그치룩예?(백설기 할 때도 그처럼요?)

107071 #2 그렇게 헤서 맛 좋아.(그렇게 해서 맛 좋아.)

107071 @ 예.(예.)

107071 #1 감저가 들어온 지가 한 백이십년이.(고구마가 들어온 지가 한 백이십년이.)

107071 @ 예, 천팔백년. 천구백년 이때민 허거든예. 우리나라 온 때.(예, 천팔백년. 천구백년 이때면 하거든요. 우리나라 올 때.)

107071 #2 우리 하르바님이 젊엇을 때 처음 들어완 지금 흔 백 난 어른덜 어린 때.(우리 할아버님이 젊었을 때 처음 들어와서 지금 한 백 된 어른들 어릴 때.)

107071 @ 예.(예.)

107071 #1 들어와가지고 별미로 헨 그 헷젠 허난, 어쨋든 그런 걸 사용헌 건, 떡에 들어가기 시작헌 건 불과 혼 칠팔십년.(들어와가지고 별미로 해서 그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걸 사용한 것은, 떡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불과 한 칠팔십년.)

107071 @ 그렇주마씨. 예.(그렇지요. 예.)

107071 #2 노랑, 노랑, 그 노란히린좁썰[266]이 잇엇어.(노랑, 노랑, 그 '노란차좁쌀'이 있었어.)

107071 @ 예.(예.)

107071 #2 노랑헌 히린좁썰이 잇는데, 그것에다가 감저를 그렇게 헹 놔근에 버무령 놩 떡을 치면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없었어. 이제, 이제도 맛 좋을 거라.(노란차좁쌀이 있는데, 그것에다가 고구마를 그렇게 해서 놔서 버무려서 놔서 떡을 찌면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없었어. 이제, 이제도 맛 좋을 거야.)

107071 @ 그렇주마씨게.(그렇지요.)

107071 #1 배고플 때니까.(배고플 때니까.)

107071 #2 할아버지 돌아가션,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젠 그런 떡은 이젠 좁쏠 혼 멧 말 찧아다가 이젠 그 떡을, 떡 허레 막 와낫어. 소상 때 마을 사람들이 오니까.(할아버지 돌아가셔서,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젠 그런 떡은 이젠 좁쌀 한 몇 말 빻아다가 이젠 그 떡을, 떡 하러 마구 왔었어. 소상 때 마을 사람들이 오니까.)

107071 @ 예.(예.)

107071 #2 이젠 그 설귀로는 허영 멕일 수 없거든. 그걸로 멧 시리 쳔 헤가난 동네 사름덜이 "에에, 좁쏠떡이사." 경허는 사름 잇엇어.(이젠 그 백설기로는 해서 먹일 수 없거든. 그걸로 몇 시루 쪄서 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에에, 좁쌀떡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었어.)

107071 @ 음, 음.(음, 음.)

107071 #2 쪙 내놓니까 그렇게 맛 좋을 수가. 노랑허고이 감저 놓고 해 놓고 허니까 노랑허고 허니까 "아이고, 이런 떡이 어디 시닌?" 헨에 먹는 거.(쪄서 내놓으니까 그렇게 맛 좋을 수가. 노랗고 고구마 넣고 해 놓고 하니까 노랗고 하니까 "아이고, 이런 떡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먹는 거.)

107071 @ 음.(음.)

107071 #2 동네 사름덜 대접헤낫저.(동네 사람들 대접했었지.)

107071 @ 예, 그치룩하고, 이제 시루떡 이제예. 시리떡이엔도 허지예?(예, 그처럼하고, 이제 시루떡 이제. '시리떡'이라고도 하지요?)

107071 #2 시리떡게.('시리떡'.)

107071 @ 웨 시리도 으라 종류 이실 거 아니라예? 그거는 어떵 말치시리[267] 이런 식으로 굽니까?(왜 시루도 여러 종류 있을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떻게 '말치

266) '노랑히린좁썰'은 쌀 색깔이 노르스름한 차진 좁쌀을 가리키는 말이다.
267) '말치시리'는 떡을 할 때 한 말들이의 쌀이 들어가는 크기의 시루를 말한다.

시리’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107071 #2 혼말들이[268], 두말들이[269], 가웃들이[270], 닷뒈떼기[271]도 잇고. 혼뒈들이도 잇고. 다 잇어.(‘한말들이’, ‘두말들이’, ‘가웃들이’, ‘닷뒈떼기’도 있고. ‘한되들이’도 있고. 다 있어.)

107071 @ 젤 족은 게?(젤 작은 게?)

107071 #2 혼 뒈.(한 되.)

107071 @ 예.(예.)

107071 #2 반 뒈짜리도 잇어. 그건 쩨끄만헌 거. 굿헐 때나 영허여근에 사름덜.(반 되짜리도 있어. 그건 자그마한 거. 굿할 때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

107071 @ 예, 예.(예, 예.)

107071 #2 사름덜 영 허영 놀앙 춤추는 거.(사람들 이렇게 해서 놀아서 춤추는 거.)

107071 @ 음.(음.)

107071 #2 그것도 잇고. 혼뒈들이는 쫌 커.(그것도 있고. ‘한되들이’는 좀 커.)

107071 @ 예.(예.)

107071 #2 것에 헨 백시리 천에 산에.(것에 해서 백설기 쪄서 산에.)

107071 @ 제 헐 때. 게믄.(제 할 때. 그러면.)

107071 #1 혼 뒈, 닷 뒈, 혼 말.(한 되, 두 되, 한 말.)

107071 #2 게민 조그만헌 식게 때는 닷뒈들이에 쳥 허영 먹을 수도 잇고.(그러면 조그마한 제사 때는 ‘두되들이’에 쪄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107071 @ 닷뒈들이는 두 뒈 들어가는 거마씨?(‘닷되들이’는 두 되 들어가는 거예요?)

107071 #1 음.(음.)

107071 #2 음, 두 뒈ᄀᆞ라 닷 뒈.(음, 두 되보고 닷 되.)

107071 @ 예.(예.)

107071 #1 사 리터. 이 리떠가 혼 뒈난.(사 리터. 이 리터가 한 되니까.)

107071 @ 그 시리들은 색깔이 어떤 시리들이 잇엇수가?(그 시루들은 색깔이 어떤 시루들이 있었습니까?)

107071 #2 아주 옛날들은.(아주 옛날들은.)

107071 #1 지새[272].(‘지새’.)

107071 #2 지새.(‘지새’.)

107071 @ 검은 시리?(검은 시루?)

107071 #1 검은 거 보고 지새엔 허주.(검은 거 보고 ‘지새’라고 하지.)

---

268) ‘혼말들이’는 떡을 할 때 한 말들이의 쌀이 들어가는 크기의 시루를 말한다.
269) ‘가웃들이’는 떡을 할 때 두 되들이의 쌀이 들어가는 크기의 시루를 말한다.
270) ‘닷뒈테기’는 떡을 할 때 두 말들이의 쌀이 들어가는 크기의 시루를 말한다.
271) ‘닷뒈떼기’는 떡을 할 때 두 되들이의 쌀이 들어가는 크기의 시루를 말한다.
272) 여기에서 ‘지새’는 시루의 색깔이 ‘검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즉 ‘검은굴’이라는 가마에서 구워 낸 시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107071 @ 예, 이 동네는 거의 다 지새시리 쓴 거라예? 숨 쉬는. 떡 만들젠 허면 영 저기 판도 이실 거 아니우과예? 그건 뭐렌 헤? 이런.(예, 이 동네는 거의 다 '지새시루' 쓴 거네요? 숨 쉬는. 떡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저기 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라고 해? 이런.)

107071 #2 무신 판?(무슨 판?)

107071 @ 떡 달루젠 허민?(떡 다루려고 하면?)

107071 #1 떡 밀젠 안반에서 헷주. 주루 떡 달루젠 허민.(떡 밀려고 안반에서 했지. 주로 떡 다루려고 하면.)

107071 @ 안반에서.(안반에서.)

107071 #2 도고리 잇잖아. 낭도고리 그것에서 주로 헷주게.(함지박 잇잖아. 나무 함지박 그것에서 주로 했지.)

107071 @ 으, 낭도고리로?(으, 나무함지박으로?)

107071 #2 중간에야 하간 거.(중간에야 온갖 거.)

107071 #1 다라가 나오고.(대야가 나오고.)

107071 #2 다라가 나오고 뭐헷주만은 옛날은 도고리. 것에서 상웨떡 물앙 허민 이만치 또 올라와.(대야가 나오고 뭐했지만 옛날은 함지박. 것에서 상화떡 반죽해서 하면 이만큼 또 올라와.)

107068 @ 음.(음.)

107068 #2 걸로 상웨떡 만들고.(걸로 상화떡 만들고.)

107068 @ 그 상웨떡은 어떤 식으로 헤마씨?(그 상화떡은 어떤 식으로 해요?)

107068 #2 상웨떡은 또 거세기 어떵 헌가 허면 가루 이제 그 밀.(상화떡은 또 거시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루 이제 그 밀.)

107068 @ 예.(예.)

107068 #2 밀 헤다가 갈아.(밀 해다가 갈아.)

107068 @ 예.(예.)

107068 #2 갈아가지고. 이젠 기주엔 헌 거 잇어이.(갈아가지고. 이젠 기주라고 한 거 있어.)

107068 @ 음, 음, 음.(음, 음, 음.)

107068 #2 게 놓아근에 이제 ᄀᆞ뜨민 소다 닮은 거. 막걸리거찌 멘들아.(그렇게 넣어서 이제 같으면 소다 같은 거. 막걸리같이 만들어.)

107068 @ 음.(음.)

107068 #2 밥허영 딱허게 이런 디 묻엉 놧다가 것을 막 궤어올라. 궤어올르민 이젠 가를에다가 영 부어놩은에 영 막 달롸. 달롸 가지고 어떵 허민 이런 디 딱허게시리 헤영 놩. 뭐 포 더꺼근에.(밥해서 딱하게 이런 데 묻어서 놨다가 것을 막 괴어 올라. 괴어오르면 이제는 가루에다가 이렇게 부어놓아서 이렇게 마구 다뤄. 다뤄 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데 딱하게끔 해서 이렇게 놓아서. 뭐 보자기 덮어서.)

107068 #1 구들 짇은 디 허민 더 좋고.(아궁이 땐 데 하면 더 좋고.)

107068 #2 이만이 부꺼 올르지. 부꺼 올르민 이젠 그걸로 뜨멍 떡 만들젠 이렇게 만들멍 또 이젠 이디 뜻뜻헌 디 놓는 거라.(이만큼 부풀어 오르지. 부풀어 오르면 이젠 그걸로 뜨면서 떡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면서 또 이젠 여기 따뜻한 데 놓는 거야.)

107068 @ 음.(음.)

107068 #2 놓면서 이렇게 이렇게 영 허영 놓면서 이디 또 경 아녀민 뭐 더끄지 아녀민 이제 갈라져부는 수가 잇어. 게니까 똑 더꺼줘야 빨리 궤여. 영 올앙 보민 이만치 헷단게 이만치 뒈지.(놓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으면서 여기 또 그렇게 않으면 뭐 덮지 않으면 이제 갈라져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덮어줘야 빨리 괴어.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만큼 했다가는 이만큼 되지.)

107068 @ 커져예?(커져요?)

107068 #2 경 허영 크면 그때부턴 솟듸 아정강 찌는 거야.(그렇게 해서 크면 그때부터는 솥에 가져가서 찌는 거야.)

107068 @ 음, 솟듸 치젠 허면 그 상웨떡 헐 때는 상웨떡 소곱에는 뭐 안 놔마씨?(음, 솥에 찌려고 하면 그 상화떡 할 때는 상화떡 속에는 뭐 안 넣어요?)

107068 #2 아니, 놔야지.(아니, 놔야지.)

107068 #1 풋.(팥.)

107068 @ 무시거?(무엇?)

107068 #2 풋도 놓고 고구마도 같이 썰어 놓고.(팥도 넣고 고구마도 같이 썰어 넣고.)

107068 @ 경 헤영은에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밀로 허여마씨? 보리로 헤마씨?(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밀로 해요? 보리로 해요?)

107068 #1 보리도 밀.(보리도 밀.)

107068 #2 보리상웨도 잇주게. 경헌디 밀상웨가 그렇게 맛잇어놓니까 부주라도 혼 동이구덕[273] 헤가젠 허민 막 ᄀᆞ레에다가 ᄀᆞᆯ아가지고.(보리상화떡도 있지. 그런데 밀상화떡이 그렇게 맛있어놓으니까 부조라도 한 '동이구덕' 해가려고 하면 막 맷돌에다가 갈아가지고.)

107068 #1 밀.(밀.)

107068 #2 갈아근에 체로 총체로 쳐가지고 이젠 그 가를을 헤가지고 막걸리를 가져당 부어놩 경 헤영 만드는 거.(갈아서 체로 총체로 쳐가지고 이젠 그 가루를 해가지고 막걸리를 가져다가 부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107068 @ 으, 밀상웨가 이젠 더 고급으로예?(으, 밀상화떡이 이젠 더 고급으로요?)

107068 #2 밀상웨.(밀상화떡.)

107068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

273) '동이구덕'은 동이 대신으로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107068 #2 ᄒᆞ꼼 허민 사름이라도 곶이민 보리상웨ᄀᆞ찌. 에이고, 보리상웨ᄀᆞ치. 밀떡엔 헌 건 그 개떡 말.(조금 하면 사람이라도 곶으면 보리상화떡같이. 에이고, 보리상화떡같이. 밀떡이라고 한 건 그 개떡 말.)

107068 @ 아아, 보리밀떡 개떡. 쒜기떡 이런 식으로 헤갖고예? 아아.(아아, 보리밀떡 개떡. 쒜기떡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아아.)

107068 #2 그때는 쒜기떡이지. 그거를 그 어떵 헌가 허민 그 발효 시켜난 그 국물을 놓고 기냥 같이 허는 거야. 쒜기떡 만들아.(그때는 쒜기떡이지. 그거를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발효 시켰던 그 국물을 넣고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쒜기떡 만들어.)

107068 @ 쒜기떡은?(쒜기떡은?)

107068 #2 경 헤서 이렇게 놧당 그냥 찌는 거야. 건, **도 못허여.(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다가 그냥 찌는 거야. 건, **도 못해.)

107068 #1 껍데기로 껍데기가 많이 든 거니까 힘이 없어.(껍데기로 껍데기가 많이 든 거니까 힘이 없어.)

107068 #2 대소상 가민 칩의나 이제 가민 떡허레덜 많이 가지. 가민 그거 하나 아니 준 것이 큰 숭이야.(대소상 가면 집에나 이제 가민 떡하러들 많이 가지. 가면 그거 하나 아니 준 것이 큰 흉이야.)

107068 @ 음.(음.)

107068 #1 쒜기떡 안 주민.(쒜기떡 안 주면.)

107068 #2 쒜기떡 하날 줫어. 무시거 헷어.(쒜기떡 하날 줬어. 무엇 했어.)

107068 @ 어어.(어어.)

107068 #2 그 집의 가난 쒜기떡 하나 안 줘라.(그 집에 가니까 쒜기떡 하나 안 줘라.)

107068 @ 일허레 가신디 수고헌 거에 대한 대가를 안 헷구나예? 게민 삼춘 상웨떡 치젠 허면 솟듸 치는 거 아니우과예? 치젠 허면 영 밑에 까는 거 잇자녀과?(일하러 갔는데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안 했군요? 그러면 삼촌 상화떡 찌려고 하면 솥에 찌는 거 아닙니까? 찌려고 하면 이렇게 밑에 까는 거 있잖습니까?)

107068 #2 이렇게 이것이 솟이면은 이디다가 징을 놔.(이렇게 이것이 솥이면 여기에다가 겅그레를 놔.)

107068 #1 시릿징.(겅그레.)

107068 #2 시릿징. 쒜도 잇고 이제난 하간 거 잇지마는 대로 만들아, 만들아가지고 이제난 이디다가 포를 끌아.(겅그레. 쇠도 있고 이제니까 온갖 거 있지만 대로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이제니까 여기에다가 포를 깔아.)

107068 @ 음.(음.)

107068 #2 아래 물 놓고 이디다가 이젠 징을 놔가지고 이젠 이딘 폴 끌아가지고 이젠 상웨떡을. 떡을 이렇게 놔.(아래 물 넣고 여기에다가 이젠 겅그레를 놔가지고 이젠 여기는 보자기를 깔아가지고 이젠 상화떡을. 떡을 이렇게 놔.)

107068 @ 음.(음.)

107068 #2 영 바짝 부쩡은 안 뒈고. 이렇게 띄와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쪄내민 찌면서도 막 커져.(이렇게 바짝 붙여서는 안 되고. 이렇게 띄워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쪄내면 찌면서도 매우 커져.)

107068 @ 으음, 부풀엉예?(으음, 부풀어서요?)

107068 #2 경 헤영 내여근에 그 솟 올아보민 내 놓고. 이젠 구덕에. 구덕에 내 놓고.(그렇게 해서 내어서 그 솥 열어보면 내어 놓고. 이젠 바구니에. 바구니에 내어 놓고.)

107068 @ 음.(음.)

107068 #2 이제난 뭐 나이롱 바구니여 하건 거 잇주마는 우리는 멘촌[274]서 그 대.(이제니까 뭐 나일론 바구니다 온갖 거 있지만 우리는 '멘촌'서 그 대.)

107068 @ 예, 예.(예, 예.)

107068 #2 대바구니에 그 대차롱에. 차롱에다가 바구니에다가 허영.(대바구니에 그 대채롱에. 채롱에다가 바구니에다가 해서.)

107068 #1 요즘은 떡집이서 이 시릿징을 저 이 층 삼 층 이렇게 허는디 옛날은 이거 단층이주.(요즘은 떡집에서 이 경그레를 저 이 층 삼 층 이렇게 하는데 옛날은 이거 단층이주.)

107068 @ 아아,(아아,)

107068 #1 단칭, 이 칭, 삼 칭은 엇어.(단층, 이 층, 삼 층은 없어.)

107068 #2 우리도 이 층 헷수게.(우리도 이 층 했습니다.)

107068 @ 이 층은 헤난 거 닮아마씨?(이 층은 했던 거 같아요?)

107068 #1 그전이사 헷어?(그전에야 했어?)

107068 #2 그전인 없었어.(그전엔 없었어.)

107068 @ 예. 그렇게 하영도 못허고. 옛날에는.(예. 그렇게 많이도 못하고. 옛날에는.)

107068 #2 경.(그렇게.)

107068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107068 #1 이 시릿징 이 층 나온 지도 췌근에.(이 경그레 이 층 나온 지도 최근에.)

107068 #2 난 겐디 다 잊어불언 아무 것도 모르켜.(난 그런데 다 잊어버려서 아무 것도 모르겠다.)

107068 #1 음.(음.)

107067 @ 하나도 안 잊어불언 너무 잘 골암수다. 빙 부껀게마는. 지난번도 빙 부껀게마는.(하나도 안 잊어버려서 너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빙떡 부치더니만. 지난번에도 빙떡 부치더니만.)

107067 #2 빙.(빙떡.)

---

274) '멘촌'은 도련2동의 옛 이름이다.

107067 #1 빙떡.(빙떡.)
107067 @ 빙떡도.(빙떡도.)
107067 #2 어느제 봣어.(언제 봤어.)
107067 @ 지난번도 하나 얻어먹어수게.(지난번도 하나 얻어먹었습니다.)
107067 #2 빙떡.(빙떡.)
107067 @ 예, 빙떡도 제사 때 헷수가?(예, 빙떡도 제사 때 했습니까?)
107067 #2 빙떡 주로 허주.(빙떡 주로 하지.)
107067 @ 빙떡 혼 번 지져봅서.(빙떡 한 번 지져보십시오.)
107067 #2 것사 지지는 거야 ᄆᆞᆯᄏᆞ르 헤여다가 뭐 요새 후라이팬도 좋고 헤놓으니까 옛날에 솟두껑 가르쳐놩 인제.(것이야 지지는 거야 메밀가루 해다가 뭐 요새 프라이팬도 좋고 해놓으니까 옛날에 솥뚜껑 뒤집어놓아서 이제.)
107067 @ 예.(예.)
107067 #2 가져 두고 족은 솟을 하나 가지고 솟뚜껑 놓고 이제 그 뒈지지름 잇잖아.(가져 두고 작은 솥을 하나 가지고 솥뚜껑 놓고 이제 그 돼지기름 있잖아.)
107067 @ 예, 예.(예, 예.)
107067 #2 이제 뒈지지름 헹 거를 쫄라. 쪼렁 놧다가 이젠 거 거려놓면서 이제 빙떡. 경 아녀민 후라이판에 그 저 솟두껭이 부뜨니까.(이제 돼지기름 해서 거를 졸여. 졸여서 놨다가 이젠 거 떠놓으면서 이제 빙떡. 그렇게 않으면 프라이팬에 그 저 솥뚜껑이 붙으니까.)
107067 @ 예.(예.)
107067 #2 이젠 헤영 영 영 허영 국자로 헤다가 영 놔 젓엉 영 영 허영 판을 만드는 거라.(이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자로 하다가 이렇게 넣어서 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판을 만드는 거야.)
107067 @ 예.(예.)
107067 #2 만들아가지고 익으면 이젠 무신 도마.(만들어가지고 익으면 이젠 무슨 도마.)
107067 @ 예.(예.)
107067 #2 이 돔베.(이 도마.)
107067 @ 예, 돔베.(예, 도마.)
107067 #2 이제난 그전에 도마 돔베엔 헷지.(이제니까 그전에 도마 '돔베'라고 했지.)
107067 @ 예, 예.(예, 예.)
107067 #2 돔베로 허여근엥에 영 허영 그레 탁 놓민 이젠 순메.(도마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로 탁 놓으면 이젠 소.)
107067 @ 예.(예.)
107067 #2 순메 풋순메도 허고 ᄂᆞᆯ순매도 허고.(소 팥소도 하고 나물소도 하고.)

107067 #1 놈삐순메도 허곡.(무소도 하고.)

107067 @ 놈삐순메.(무소.)

107067 #2 그거 혜영 말앙. 건 쉬운 거.(그거 해서 말아서. 건 쉬운 거.)

107067 @ 건 쉬운 거라마씨? 요즘 잘 안 뒈대.(건 쉬운 거예요? 요즘 잘 안 되대.)

107067 #1 물 안 맞앙.(물 안 맞아서.)

107067 #2 나가 그날 간에 이젠 어떵 헤신고 허민 이제 뒷, 뒷날.(내가 그날 가서 이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뒷, 뒷날.)

107067 @ 예.(예.)

107067 #2 가난 '먹다 남은 거 이시매 지집서.' ᄒᆞ관테 나는 못 지진다. 이 지질 사름이 엇는 거라. 가빠치기만 헐라고. 나허고 말제 간 사름허고 '우리가 지졍 저거 줘불게, ᄒᆞᆫ 메칠 놔두민 먹지 못헌다.' 그디 요리사가 잇는데, 그자 물을 팡 놔부는 거라.(가니까 '먹다 남은 거 있으니까 지지세요.' 하던데 나는 못 지진다. 이 지질 사람이 없는 거야. 민화투만 하려고. 나하고 말째 간 사람하고 '우리가 지져서 저거 줘버리자, 한 며칠 놔두면 먹지 못한다.' 거기 요리사가 있는데, 그저 물을 파서 놔버리는 거야.)

107067 @ 아아.(아아.)

107067 #2 가를도 없고 밀ᄀᆞ를 좀 잇으민 서끄민 더 잘 뒈는데, 이젠 가루도 없고 아무 것도. 기냥 지지난 셍전 지질 수가 잇어.(가루도 없고 밀가루 좀 있으면 섞으면 더 잘 되는데, 이젠 가루도 없고 아무 것도. 그냥 지지니까 생전 지질 수가 있어.)

107067 #2 아멩이라도 엄불려단 주난덜 잘 먹데.(아무렇게 어울리니까 주니까들 잘 먹데.)

107067 @ (웃음). 맞아예?((웃음). 맞아요?)

107067 #1 놈삐로 거 저.(무로 거 저.)

107067 @ 예.(예.)

107067 #1 지름 이렇게 ᄇᆞ르는 것도 놈삐 딱 잘라근에 그걸로 해서 그냥.(기름 이렇게 바르는 것도 무 딱 잘라서 그걸로 해서 그냥.)

107067 #2 그 돗지름. 돗지름 헤근에 이제 그 보시에다가 헤가지고.(그 돼지기름. 돼지기름 해서 이제 그 보시기에다가 해가지고.)

107067 @ 예.(예.)

107067 #2 놈삐를 헤여가지고 이젠 그디.(무를 해가지고 이젠 거기.)

107067 @ 적시멍은에.(적시면서.)

107067 #2 똑허게 이 놈삐가 뜨거우니까.(똑하게 이 무가 뜨거우니까.)

107067 @ 예, 예.(예, 예.)

107067 #2 그디 가믄 잘잘 녹아.(거기 가면 잘잘 녹아.)

107067 @ 게난 어른덜이 보통이 아닌 거라.(그러니까 어른들이 보통이 아닌 거

야.)

107067 #2 솟뚜껭이에는 계속 불르지 아녀민 안 뒈여.(솥뚜껑에는 계속 바르지 않으면 안 돼.)

107067 @ 음.(음.)

107067 #2 요샌 멧 장썩 지질 수가 잇는데 그 전에. 게난 맛 좋아. 요번에도 거 지지난 옛날 사름덜은 돗지름 헤여당 허주게. 돗지름 헤여당.(요샌 몇 장씩 지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맛 좋아. 요번에도 거 지지니까 옛날 사람들은 돼지기름 해다가 하지. 돼지기름 해다가.)

107067 @ 돗지름 헤야 맛 좋아예?(돼지기름 해야 맛 좋다고요?)

107067 #2 게난 뒈지고기이 살 진 거 헤도 뒈여. 거도 뒈여. 뒈지고기 살진 거 가죽 부뜬 딜로 그렇게 해도 뒈여.(그러니까 돼지고기 살 진 거 해도 되어. 거도 되어. 돼지고기 살진 거 가죽 붙은 데로 그렇게 해도 되어.)

107067 @ 예, 예. 옛날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예, 예. 옛날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107067 #2 게난 옛날은 뭐인가 이런 전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디 솟 하나 들러두고 이제 나무도 없으니까.(그러니까 옛날은 뭐인가 이런 전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거기 솥 하나 들어두고 이제 나무도 없으니까.)

107067 @ 예.(예.)

107067 #1 정지에서.(부엌에서.)

107067 #2 이제 부엌에서 어디 강 삭다리.(이제 부엌에서 어디 가서 삭정이.)

107067 @ 예.(예.)

107067 #2 꺼꺼다가 "이거 빙떡 지지젠 삭다리 꺼끄레. 삭다리예, 아이고, 이거 빙떡 지지젠 강 왐쭈게. 그거 ᄇᆞ랑ᄇᆞ랑 솜으멍 빙떡.(꺾어다가 "이거 빙떡 지지려고 삭정이 꺾으러. 삭정이요, 아이고, 이거 빙떡 지지려고 가오고 있지. 그거 'ᄇᆞ랑ᄇᆞ랑' 때면서 빙떡.)

107067 #2 이제는 가스불 못 젼뎡 못허여.(이제는 가스불 못 견뎌서 못해.)

107069 @ 어떵 허코마씨?(어떻게 할까요?)

107067 #2 에이고.(에이고.)

107067 @ 맞수다. 제사떡 종류하고 큰일 상 날 때 떡허고 ᄐᆞ나지예?(맞습니다. 제사떡 종류하고 큰일 상 날 때 떡하고 다르지요?)

107069 #2 ᄃᆞ날 거 없어. 고대로 잘 사는 집인 제ᄉᆞ 때에 뭐헌 때 똑ᄀᆞ찌 허고. 상 난 때도 잘 사는 집인 많이 허는 것만 젤.(다를 거 없어. 그대로 잘 사는 집에는 제사 때에 뭐할 때 똑같이 하고. 상 난 때도 잘 사는 집에는 많이 하는 것만 젤.)

107069 @ 그 아까 떡 궤는 순서예, 그 식게 때 떡 궤는 순서는 어떤 식으로 뒈? 맨 밑에는 삼춘네 집인 설귀떡은 멧 개 놉니까?(그 아까 떡 괴는 순서요, 그 제사 때 떡 괴는 순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맨 밑에는 삼촌네 집에는 백설기는 몇 개 놉니까?)

107069 #2 두 빗[275].(두 '빗'.)

107069 #2 많으민 늬 빗도 올릴 수 잇고.(많으면 네 '빗'도 올릴 수 있고.)

107069 @ 송편은 몃 개 정도 놔?(송편은 몇 개 정도 놔?)

107069 #2 그거는 빙떡을 올릴라면 영헤근에 ** 송편은 흔 그 다음에 빈떡 올리고.(그거는 빙떡을 올리려면 이렇게 해서 ** 송편은 한 그 다음에 빙떡 올리고.)

107069 @ 아, 아. 그냥 바로 송편만 다 이렇게 설귀떡 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설귀떡 한쪽에는.(아, 아. 그냥 바로 송편만 다 이렇게 백설기 위에 올리는 게 아니고 백설기 한쪽에는.)

107069 #2 건 허고 싶은 냥.(건 하고 싶은 대로.)

107069 @ 허고 싶은 냥?(하고 싶은 대로?)

107069 #2 빙떡허고 설귀떡만 올릴 수 잇는 거, 송편 우에 저 빈떡 올릴 수 있는 거 그건.(빙떡하고 백설기만 올릴 수 있는 거, 송편 위에 저 빙떡 올릴 수 있는 거 그건.)

107069 #1 상이 크면.(상이 크면.)

107067 @ 예.(예.)

107067 #1 하나씩 따로따로 쭉 올릴 수도 잇는 건데, 상이 족을 경우에는.(하나씩 따로따로 쭉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상이 작을 경우에는.)

107067 @ 예.(예.)

107067 #1 겸헤야 뒈니까.(겸해야 되니까.)

107069 @ 음, 음.(음, 음.)

107069 #1 쓰러지면은 안 뒈니까 쓰러진 건 무주건 저 그 머리털이 부뜨던가 뭐가 떨어지민 부터.(쓰러지면 안 되니까 쓰러진 건 무조건 저 그 머리털이 붙던가 뭐가 떨어지면 붙어.)

107069 @ 예에.(예에.)

107069 #1 쓰러지지 아녀게 올리는 게 정성 우로 차린 거 떡덜은 올릴 수가 잇는 거고.(쓰러지지 않게 올리는 게 정성 위로 차린 거 떡들은 올릴 수가 있는 거고.)

107069 @ 삼춘네는 거기는? 송편 같은 경우는 멧 개가 들어가?(삼촌네는 거기는? 송편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들어가?)

107069 #1 네 개 다섯 개.(네 개 다섯 개.)

107069 #2 네 개.(네 개.)

107069 #1 앞줄게. 늬 개 다섯 개 영 옆으로도 허민 사오 이십 스무 개 들어갈 거 아냐?(앞줄.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옆으로도 하면 사오 이십 스무 개 들어갈 거 아냐?)

107069 @ 스무 개자락 들어가? 하영 올렴쩌. 게민.(스무 개씩 들어가? 많이 올리고 있네. 그러면.)

---

275) '빗'은 칼로 베어 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를 세는 말이다.

107069 #2 다른 거 빙떡에나 엇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지.(다른 거 빙떡에나 없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지.)

107069 @ 음.(음.)

107069 #1 사사 십육 들어갈 수도 잇고.(사사 십육 들어갈 수도 있고.)

107069 @ 송편을 하영 올리는 거. 송에기떡이나 절벤은 멧 개 정도 들어가?(송편을 많이 올리는 거. '송에기떡'이나 절편은 몇 개 정도 들어가?)

107069 #2 아, 그거는 제사 때는 안 허고.(아, 그거는 제사 때는 안 하고.)

107069 @ 제사 때는 안 허고.(제사 때는 안 하고.)

107069 #2 지름떡만.(기름떡만.)

107069 @ 그 위에 지름떡 놓는 거라마씨? 지름떡을 우찍.(그 위에 기름떡 놓는 거예요? 기름떡을 '우찍'.)

107069 #2 우찍은 몰라.(웃기떡은 몰라.)

107069 #1 건 안 들어봣어.(건 안 들어봤어.)

107069 @ 그냥 여기는 지름떡엔만 골아예?(그냥 여기는 기름떡이라고만 말한다고요?)

107069 #2 송편 우에 그 저 무시거 다른 떡 헤지면은 이 뭐인가 제ᄉᆞ 때는 우린 주로 이 송편허고 저 지름떡허고 빙떡 뿐이니까.(송편 위에 그 저 무엇 다른 떡 해지면 이 뭐인가 제사 때는 우린 주로 이 송편하고 저 기름떡하고 빙떡뿐이니까.)

107069 @ 빙떡하고.(빙떡하고.)

107069 #2 것만 하니까. 상웨는 상웨떡은 만약에 허면은 뚠 젭시에 올리고.(것만 하니까. 상화는 상화떡은 만약에 하면 다른 접시에 올리고.)

107069 @ 상웨떡만 뚜로 올리는 거라예? 영 궤는 거는 설귀떡은 송편하고 맨 우에는 지름떡?(상화떡만 따로 올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괴는 거는 백설기는 송편하고 맨 위에는 기름떡?)

107069 #2 으, 카스테라 빵덜 많이 나오잖아, 따로.(으, 카스텔라 빵들 많이 나오잖아, 따로.)

107069 @ 그러면은 삼춘 지름떡은 멧 개 올려?(그러면 삼촌 기름떡은 몇 개 올려?)

107069 #2 아, 그거는 보기 좋게.(아, 그거는 보기 좋게.)

107069 @ 아, 보기 좋게 여러 개 우로 헤가지고.(아, 보기 좋게 여러 개 위로 해가지고.)

107069 #2 혼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가지.(한 다섯 개 여섯 개 들어가지.)

107069 @ 그런 식으로 헤갖고예?(그런 식으로 해갖고요?)

107069 #2 요렇게 요렇게 나오면 영 허영 또 이렇게 놓면 한 ᄋᆞ섯 개 들 거 같아. 여섯 개.(요렇게 요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놓으면 한 여섯 개 들 거 같아. 여섯 개.)

107069 @ 여섯 개 정도예?(여섯 개 정도요?)

107069 #1 게난 올리는 게 이 으, 땅에서 나오는 건 음이고.(그러니까 올리는 게 이 으, 땅에서 나오는 건 음이고.)

107069 @ 예.(예.)

107069 #1 열매도 음이고. 움직이는 것은 양이라.(열매도 음이고. 움직이는 것은 양이야.)

107069 @ 예.(예.)

107069 #1 이제 고기.(이제 고기.)

107069 @ 예.(예.)

107069 #1 종류. 양은 음은 짝수고.(종류. 양은 음은 짝수고.)

107069 @ 아아.(아아.)

107069 #1 이제 그렇게 뒈니까 거기에 그거 맞게.(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그거 맞게.)

107069 @ 으, 게믄 떡도 게믄 짝수로 올려마씨?(으, 그러면 떡도 그러면 짝수로 올려요?)

107069 #1 짝수, 짝수로, 짝수로 올려.(짝수, 짝수로, 짝수로 올려.)

107069 @ 짝수로예? 두 빗 놓고 네 빗.(짝수로요? 두 '빗' 놓고 네 '빗'.)

107069 #2 경 허니까 이 집안은 특히 뚜나.(그렇게 하니까 이 집안은 특히 달라.)

107069 @ 아, 그렇구나.(아, 그렇구나.)

107069 #1 원칙, 원칙을 춪는 거니까.(원칙, 원칙을 찾는 거니까.)

107069 #2 이제 사름덜 경 아녀.(이제 사람들 그렇게 않아.)

107069 @ 예.(예.)

107069 #1 지금 저기 우리 광김[276]도 지금 연령 많은 분허고 작은 분덜 트럽이 셍겨. 옛 케케묵은 옛날식만 그냥 셍각헴젠 허멍. 명도 하르버지가 가르켜 준 게 없어져 간다.(지금 저기 우리 '광김' 지금 연령 많은 분하고 작은 분들 트러블이 생겨. 옛 케케묵은 옛날식만 그냥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명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없어져 간다.)

107069 @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7069 #1 이락당 가르친 건 후손들이 고수를 허여, 현재까지. 명도암은.(이락당 가르친 건 후손들이 고수를 해, 현재까지. 명도암은.)

107069 #2 우리 집안은 아주 옛날식으로.(우리 집안은 아주 옛날식으로.)

107069 @ 옛날식으로.(옛날식으로.)

107069 #1 명도 하르버지 후손덜은 신식 춪는 편이라, 지금.(명도 할아버지 후손들은 신식 찾는 편이야, 지금.)

107069 #2 그 후손보다 우리 후손덜이 젊은 사름덜도 그런 걸 잘 지켜.(그 후손보다 우리 후손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걸 잘 지켜.)

276) 여기에서 '광김'은 광산김씨를 일컫는 말이다.

107069 #1 말을 잘 들어줘.(말을 잘 들어줘.)

107069 @ 예.(예.)

107069 #2 경 허니까 허지.(그렇게 하니까 하지.)

107069 @ 삼춘, 아까 그 송에기떡이나 손가락떡 절벤 이런 거는?(삼촌, 아까 그 '송에기떡'이나 '손가락떡' 절편 이런 거는?)

107069 #2 같이 올려.(같이 올려.)

107069 @ 식게 때는 안 하드래도.(제사 때는 안 하더라도.)

107069 #2 으, 제 헐 때. 같이 올려.(으, 제 할 때. 같이 올려.)

107069 @ 거는 영장이나 이럴 때 허는 거잖아예?(거는 장이나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107069 #2 송편 우에.(송편 위에.)

107069 @ 송편 우에 뭐가 들어가는 거우과? 송편까지 하면? 절변은 어디 놓는 거?(송편 위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송편까지 하면? 절편은 어디 놓는 거?)

107069 #2 절변 아래다가 놓곡.(절편 아래에다 놓고.)

107069 @ 예.(예.)

107069 #2 그 다음에 세미떡 놓곡 그 다음에 저 거세기 손가락떡 놓고.(그 다음에 '세미떡' 놓고 그 다음에 저 거시기 '손가락떡' 놓고.)

107069 @ 예.(예.)

107069 #2 그 다음에 지름떡이나 무시거 이시민 그 놓고.(그 다음에 기름떡이나 무엇 있으면 그 놓고.)

107069 @ 음, 송에기떡은 어디 놔?(음, '송에기떡'은 어디 놔?)

107069 #2 송에기떡 이시민 송에기떡 같이 올려.('송에기떡' 있으면 '송에기떡' 같이 올려.)

107069 @ 같이 올리고.(같이 올리고.)

107069 #1 만약 쓰러질 것 같으민 이제 뚠 그릇에.(만약 쓰러질 것 같으면 이제 다른 그릇에.)

107070 @ 뚠 그릇에도 어쨌든 이 상례 헐 때가 떡은 젤 하영 올라가는 거네예? 음, 그 다음에 인절미 여기도 안 하고. 아, 절변도 여긴 동글랑허게 솔벤은 안 만들고 우 고명으로 허는 떡들이 송에기떡.(다른 그릇에도 어쨌든 이 상례 할 때가 떡은 젤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음, 그 다음에 인절미 여기도 안 하고. 아, 절편도 여긴 동그랗게 솔편은 안 만들고 위 고명으로 하는 떡들이 '송에기떡'.)

107070 #2 세미.('세미'.)

107070 @ 세미. 고명으로 올라가는 여기서는?('세미'. 고명으로 올라가는 여기서는?)

107070 #2 궤명.('고명'.)

107070 #1 궤명.('고명'.)

107070 @ 여기에서는 궤명예? 궤명으로 허는 게.(여기에서는 '고명'요? '고명'으

로 하는 게.)

107070 @ 절벤 손까락떡 그다음에 세미떡예? 아고, 이, 삼춘네 친정에 식게 언제우과? 이거 이제도 허는 거 아니?(절편 '손까락떡' 그다음에 '세미떡'요? 아고, 이, 삼촌네 친정에 제사 언제입니까? 이거 이제도 하는 거 아니?)

107070 #1 아니라.(아니야.)

107070 #2 새 사름덜 일본 가불고 허난.(새 사람들 일본 가버리고 하니까.)

107070 @ 이런 떡을 봐야 뒈는데.(이런 떡을 봐야 되는데.)

107070 #2 안 허여.(안 해.)

107070 @ 절벤이랑 세미 송에기떡 손가락떡.(절편이랑 '세미' '송에기떡' '손가락떡'.)

107070 #2 없어져.(없어져.)

107070 #1 지금 말로만 남는 거지.(지금 말로만 남는 거지.)

107070 #2 대개는 큰 대소상 때에 ᄀᆞ뜬 때 어디 영장이나 헐 때는 이건 어디던지 주로 만들암실 거야.(대개는 큰 대소상 때에 같을 때 어디 상이나 할 때는 이건 어디든지 주로 만들고 있을 거야.)

107076 @ 지금도예. 그때가 가장 큰 저기니까. 그 다음 여기 삼춘, 당에도 다녀봣지예? 당에 뎅길 때는 뭐 가졍가? 떡을.(지금도요. 그때가 가장 큰 저기니까. 그 다음 여기 삼촌, 당에도 다녀봤지요? 당에 다닐 때는 뭐 가져가? 떡을.)

107076 #2 떡 건 우린 안 헹 뎅겨.(떡 건 우린 안 해서 다녀.)

107076 @ 떡 아녀?(떡 않아?)

107076 #2 우리 저 친정에는 당에도 안 뎅겨.(우리 저 친정에는 당에도 안 다녀.)

107076 @ 아아.(아아.)

107076 #2 이디 완 보난 당에 다니데. 바로 우엔데 영허는 거 보니까 사과 ᄒᆞᆫ 방울 배라도 이시민 ᄒᆞᆫ 방울.(여기 와서 보니까 당에 다니던데. 바로 윈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과 한 알 배라도 있으면 한 알.)

107076 @ 으.(으.)

107076 #2 미깡이라도 이시민 ᄒᆞᆫ 방울. 할머니 하르버지 여기 잇더라. 경허면 여섯 방울이라이. 여섯 방울이고, 또 무시거 메허고, 무신 저쪽에는 솔래기엔 허주마는 여기선 완 보난에 여기 완 보난 어시난덜 어떤 집읜 간 보난 갈치. 불치 두에다가 달아매영.(밀감이라도 있으면 한 알.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있더라. 그렇게 하면 여섯 알이야. 여섯 알이고, 또 무엇 메하고, 무슨 저쪽에는 '솔래기'라고 하지만 여기선 와서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없으니까들 어떤 집에는 가서 보니까 갈치. 재 뒤에다가 달아매서.)

107076 #1 솟 우에.(솥 위에.)

107076 #2 솟 우에 ᄃᆞᆯ아메민 쉬ᄑᆞ리가 안, 데가리 거 허영 뎅기는 집도 봐지고.(솥 위에 달아매면 쉬파리가 안, 대가리 거 해서 다니는 집도 봐지고.)

107076 @ 아아.(아아.)

107076 #2 이제 주루 셍선이나.(이제 주로 옥돔이나.)

107076 @ 으.(으.)

107076 #2 그렇지 않으면 우럭이나 베따 ᄆᆞᆯ렷다가 구워서 가고. 채소엔 헌 건 무시거 허영 가곡. 또 먹는 거옌 헌 거 주로 밥 두 사발허곡. 경 허영 가는 거.(그렇지 않으면 우럭이나 배따서 말렸다가 구워서 가고. 채소라고 한 건 무엇 해서 가고. 또 먹는 거라고 한 거 주로 밥 두 사발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

107076 @ 떡은 안 헤영 가예?(떡은 안 해서 간다고요?)

107076 #2 떡은 허젱 허민 개떡거찌이.(떡은 하려고 하면 '개떡'같이.)

107076 @ 예.(예.)

107076 #2 멘들앙 ᄆᆞᆯ코르라도 시민 ᄆᆞ멀ᄏᆞ르 그거 헹은에 두어 개 딱 네 개 허영 가는 사름 잇대. 난 아녀고.(만들어서 메밀가루라도 있으면 메밀가루 그거 해서 두어 개 딱 네 개 해서 가는 사람 있대. 난 않고.)

107076 @ 아녀고. 그 떡을 무신 떡이렌 헙디가?(않고. 그 떡을 무슨 떡이라고 합디까?)

107076 #2 그 떡은 그냥 ᄆᆞ믈떡이민 ᄆᆞ믈떡. 밀떡이민.(그 떡은 그냥 메밀떡이면 메밀떡. 밀떡이면.)

107076 @ 돌레떡 이런 말은 안 허여?(도래떡 이런 말은 안 해?)

107076 #2 경 ᄀᆞᆯ아.(그렇게 말해.)

107076 @ 경 ᄀᆞᆯ기도 하고예? 거고 삼춘 이제 시리떡 헤갖고 ᄒᆞᆫ 뒈보다 더 족은 거 그건 무신 시리엔 헤?(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삼촌 이제 시루떡 해가지고 한 되보다 더 작은 거 그건 무슨 시리라고 해?)

107076 #2 족은 시리.(작은 시루.)

107077 @ 굿헐 때 놀기 위해서 허는 거예? 무슨 나까시린가 무슨 거 하는. 올리는 것도 안 허고. 그 다음에 이제 굿헐 때 삼춘네도 굿허여 봅디가?(굿할 때 놀기 위해서 하는 거요? 무슨 '나까시리'인가 무슨 거 하는. 올리는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굿할 때 삼촌네도 굿해 봅디까?)

107077 #2 아녀 봣어.(안해 봤어.)

107077 @ 굿헐 때도 떡 종류도 하영 헨게마는. 그런 떡.(굿할 때도 떡 종류도 많이 하더니만. 그런 떡.)

107077 #2 기냥게, 펜떡[277]게. 영 허영 돌레떡.(그냥, '펜떡'게. 이렇게 해서 도래떡.)

107077 @ 아까 펜떡은 무신 떡.(아까 '펜떡'은 무슨 떡.)

107077 #2 돌레떡.(도래떡.)

107077 #2 돌레떡ᄀᆞ라.(도래떡보고.)

277) 구술자가 가리키는 '펜떡'은 도련1동에서 '돌레떡'을 가리키는 말이다. '펜떡'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다.

107077 @ 걸 펜떡이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벡시리 그런 거 하고예? 그 다음에 이건 말고 떡 종류가 잇인가. 이디 오니까.(걸 '펜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백설기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말고 떡 종류가 있을까. 여기 오니까.)

107077 #2 굿허는 디 쓰는 거 거 두 가지뿐. 굿허는 디 강 돌레떡이나 하나 얻어 먹언 왓어? 경.(굿하는 데 쓰는 거 거 두 가지뿐. 굿하는 데 가서 도래떡이나 하나 얻어 먹어서 왔어? 그렇게.)

107077 @ 돌레떡.(도래떡.)

107077 #2 게난 바르 여기서도 조천면디레 뜨나고 우쪽더레 뜨나고 여기 뜨나고 허난 건 몰라.(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도 조천면으로 다르고 위쪽으로 다르고 여기 다르고 하니까 건 몰라.)

107077 @ 경허난예? 게난 바로 옆에가 조천이라도 신촌하고 여기도예?(그러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옆이 조천이어도 신촌하고 여기도요?)

107077 #2 뭐든지 달라.(뭐든지 달라.)

107077 #2 뭐이든지 뜨나. 영 그릇도 다 뜨나.(뭐든지 달라. 이렇게 그릇도 다 달라.)

107077 @ 아아.(아아.)

107077 #2 뭐엔사. 우리 밑에 동네니까 그자 이 비등. 완 살아보니까 비등허여.(뭐라고야. 우리 밑에 동네니까 그저 이 비슷. 와서 살아보니까 비슷해.)

107077 @ 삼양은 어떵헙니까?(삼양은 어떡합니까?)

107077 #2 삼양도 같아.(삼양도 같아.)

107077 @ 삼양도 같으고예? 경허난 삼양 ᄀᆞ튼 행정구역 허는데, 신촌허고는 뜨난 거라.(삼양도 같고요? 그렇게 하니까 삼양 같은 행정구역 하는데, 신촌하고는 다른 거야.)

107077 #2 뜨나.(달라.)

소와 고물

107079 @ 그 다음에 아까 순메허는 거, 순메허는 거는 주로 폿 허잖아예?(그 다음에 아까 '순메'하는 거, '순메'하는 거는 주로 팥 하잖아요?)

107079 #2 으.(으.)

107079 @ 폿, 순메로 써 본 거 뭐 뭐 잇수가? 한번?(팥, '순메'로 써 본 거 뭐 뭐 있습니까? 한번?)

107079 #2 순메[278]로 써 본 건 팟허고 없는 집읜 콩도 시민 콩 놩 허고.('순메'로 써 본 건 팥하고 없는 집에는 콩도 있으면 콩 넣어서 하고.)

107079 #1 감자도 허고.(고구마도 하고.)

107079 #2 막 그냥 기자 감자 한 데는 이 가음이 족게 들ᄒᆞ름.(아주 그냥 그저 고구마 많은 데는 이 감이 적게 들게끔.)

278) '순메'는 떡이나 밭을 할 때 넣는 소나, 고물 따위를 도련1동에서 하는 말이다.

107079 #1 떡 가음도 허고.(떡 감도 하고.)

107079 #2 잠지리 썰어놓고 허여근에 찌면 것이 익어.(자잘하게 썰어넣고 해서 찌면 것이 익어.)

107079 @ 예, 예, 예.(예, 예, 예.)

107079 #2 감저순메허여.('고구마순메'해.)

107079 @ 감저 헐 때 풋도 서꺼 아니면 감저로만?(고구마 할 때 팥도 섞어 아니면 고구마로만?)

107079 #2 더 맛잇지. 것도 그렇게 서꺼.(더 맛있지. 것도 그렇게 섞어.)

107080 @ 삼촌, 게민 우리가 떡 헐 때 셍펜이나 쏘곱에 뭐 놓잖아예? ᄂᆞ물순메든 그것도 순메로 허고 떡 징 헐 때 이렇게 우에 쏠 놓고.(삼촌, 그러면 우리가 떡 할 때 송편이나 속에 뭐 넣잖아요? '나물순메'든 그것도 '순메'로 하고 떡 켜 할 때 이렇게 위에 쌀 넣고.)

107080 #1 것도 순메. 징징이 것도 순메.(것도 '순메'. 켜켜이 것도 '순메'.)

107080 @ 징징이 놓는 것도 순메. 이름은 다 순메렌 허는 거예? 떡 칠 때도 뭐 허지 말라 허는 이런 것도 잇어예?(켜켜이 넣는 것도 '순메'. 이름은 다 '순메'라고 하는 거요? 떡 찔 때도 뭐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107080 #2 무시거 허지.(무엇 하지.)

107081 @ 몸 궂인디 떡 허는 데 뎅기지 말라, 이런 거.(몸 궂은데 떡 하는 데 다니지 말라, 이런 거.)

107081 #2 그거이 어떵허영 부정이 타. 떡 칠 때에.(그거 어떡해서 부정이 타. 떡 찔 때에.)

107081 #1 으으.(으으.)

107081 #2 셍전 그 시릿마개 헌 것이 바바바바 허멍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엇이민 그거를 조훼가 잇어. 지게, 옛날 지게 있어이. 지겔 졍 와.(생전 그 시룻번 한 것이 바바바바 하면서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으면 그거를 조화가 있어. 지게, 옛날 지게 있어. 지겔 져서 와.)

107081 #1 (웃음).

107081 @ (웃음).

107081 #1 지게.(지게.)

107081 @ 아, 실제로.(아, 실제로.)

107081 #2 지게 졍 왕 절허면 없어져.(지게 져서 와서 절하면 없어져.)

107081 @ (웃음). 아, 옛날 그런 식으로 헌 거라예?((웃음). 아, 옛날 그런 식으로 한 거네요?)

107081 #2 그거 부정 타면 감당헐 수가 없어. 셍전 익지도 안 허고. 또 익엇더라 헤도.(그거 부정 타면 감당할 수가 없어. 생전 익지도 안 하고. 또 익었더라고 해도.)

107081 @ 예.(예.)

107081 #2 요런 데만 익지 가운데는 고대로 ᄀᆞ를로 잇어.(요런 데만 익지 가운데는 그대로 가루로 있어.)

107081 @ 무사 경 헴신고예?(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107081 #2 부정 탓다고 허난 건 몰라.(부정 탔다고 하니까 건 몰라.)

107081 @ (웃음). 지게 졍은에.((웃음). 지게 져서.)

107081 #1 이, 그 과정이 아마 시루에 담을 때에 어떻게 잘.(이, 그 과정이 아마 시루에 담을 때에 어떻게 잘.)

107081 #2 똑ᄀᆞ치 담앗주마는 경허난 것도.(똑같이 담았지만 그렇게 하니까 것도.)

107081 #1 똑ᄀᆞ치 잘 안 뒌 거지.(똑같이 잘 안 된 거지.)

107081 #2 떡 시루가 잘 뒈면 떡도 많고, 가운딜로 떠내불면 기냥 떡도 얼마 뒈도 아녀고 막.(떡 시루가 잘 되면 떡도 많고, 가운데로 떠내버리면 그냥 떡도 얼마 되지도 않고 아주.)

107081 @ 맛도 없고.(맛도 없고.)

107081 #2 가를 내나. 곤쏠ᄀᆞ를 내 나고.(가루를 내나. 흰쌀가루 내 나고.)

107081 @ 경 허면 이제 몸 궂어도 떡 안.(그렇게 하면 이제 몸 궂어도 떡 안.)

107081 #1 정성허는 집의서게.(정성하는 집에서.)

107081 #2 정성허젠 허민 헐 말이 없어. 게니까 거세기 허니까 허지. 요샛 사름덜 어디 정성?(정성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거시기 하니까 하지. 요새 사람들 어디 정성?)

107081 @ 부정 타는 거, 떡 안 뒈는 거는 시리 칠 때 헙니까?(부정 타는 거, 떡 안 되는 거는 시루 찔 때 합니까?)

107081 #2 으.(으.)

107081 @ 시리 칠 때예?(시루 찔 때요?)

107081 #2 게난 나도 모르겟어. 우리 흔 번은 아니 찌는 할머니를 데려왓지.(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우리 한 번은 아니 찌는 할머니를 데려왔지.)

107081 @ 떡 치는 할망들이 뚜로.(떡 찌는 할머니들이 따로.)

107081 #2 아니 영 방상이 삼춘 오랑 헤여 줍서. 할머니.(아니 이렇게 방상이 삼촌 와서 해 주십시오. 할머니.)

107081 #1 손 도웸 헤준다고 허는 할머니.(손 도움 해준다고 하는 할머니.)

107081 @ 예예.(예예.)

107081 #2 경 허영 이젠 그 할머니가 헤영 흔 시리 베렷어. 그 다음부턴 잘 뒈데. 그거를 또 놘 서껀 **어멍 그 허단허단 버천에.(그렇게 해서 이젠 그 할머니가 해서 한 시루 버렸어. 그 다음부턴 잘 되데. 그거를 또 놘 섞어서 **어머니 그 하다 하다 부쳐서.)

107081 #1 그때 절헷어? 건.(그때 절했어? 건.)

107081 @ 안 헷어?(안 했어?)

107081 #1 마게가 글로 그냥 바로 터졍.(번이 그리로 그냥 바로 터져서.)

107081 #2 마게 무사 안 헤엿수가?(번이 왜 안 했습니까?)

107081 #1 아니, 게메. 마게가 터질 때가 잇고 안 터져도 떡이 서는 데 잇고.(아니, 글쎄. 번이 터질 때가 있고 안 터져도 떡이 서는 데 있고.)

107081 #2 암만 시루에다가 시루가 요렇게 솟이 잇으면 시리를 영 앚지는 거야.(암만 시루에다가 시루가 요렇게 솥이 있으면 시루를 이렇게 앉히는 거야.)

107081 @ 예.(예.)

107081 #2 앚지면 마게를 허민 터짐 시작허민 아져다 데미고 데며도 기냥.(앉히면 번을 하면 터짐 시작하면 가져다 쌓고 쌓아도 그냥.)

107081 @ 시릇마게 헐 때는 무신거로.(시룻번 할 때는 무엇으로.)

107081 #2 떡 허당 헌 걸로.(떡 하다가 한 걸로.)

107081 @ 떡 허던 걸로.(떡 하던 걸로.)

107081 #2 그 가를로.(그 가루로.)

107081 @ 그 터지기, 지게 졍 강 절허고? (웃음).(그 터지기, 지게 져서 가서 절하고? (웃음).)

107081 #1 (웃음).

107081 #2 이젠 그런 거 없어.(이젠 그런 거 없어.)

107081 @ 으, 옛날 어른들이 재미진 그런 말 잇어. 그리고 삼춘, 맨 마지막에 헌 떡 이런 거는 누게 먹지 말라.(으, 옛날 어른들이 재미있는 그런 말 있어. 그리고 삼촌, 맨 마지막에 한 떡 이런 거는 누구 먹지 말라.)

107081 #1 막떡[279], 막떡.('막떡', '막떡'.)

107081 #2 아으, "젊은 아이덜랑 먹지 말라, 막뒌 할망이난 먹주."(아으, "젊은 아이들이랑 먹지 말라, 막된 할머니니까 먹지.")

107081 @ 건 무사 먹지?(건 왜 먹지?)

107081 #2 막된 사름이나 먹지. 늙은 사름 먹는 거여. 젊은 사름덜은 안 먹는 거여. 안 줘, 막떡.(막된 사람이나 먹지. 늙은 사람 먹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안 먹는 거야. 안 줘, '막떡'.)

107081 @ 절벤 어떵헌 말은 엇수가? 다른 데 강 보난 잇언게 그런 말도.(절편 어떡한 말은 없습니까?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있던데 그런 말도.)

107081 #2 엇어.(없어.)

107081 @ 어멍 아방 절변은예? 절변 모양이 서쪽하고 뚜나.(어머니 아버지 절편은요? 절편 모양이 서쪽하고 달라.)

107081 #2 아주 뚜나.(아주 달라.)

107081 #2 정의레 절변도 잘도 크고 반돌도 딱 반돌ᄀᆞ치 멘들아놓고.(정의로는 절편도 잘도 크고 반달도 딱 반달같이 만들어놓고.)

107081 @ 여기는 등절비 이런.(여기는 '등절비' 이런.)

279) '막떡'은 맨 마지막에 만든 떡을 말한다.

107081 #1 등절미[280] 나도 들어보긴 들어봣다. 그 이름.(‘등절미’ 나도 들어보긴 들어봤어. 그 이름.)

107081 @ 들어보긴.(들어보긴.)

107081 #1 여기도.(여기도.)

107081 @ 물떡을 여긴 하영 허는 거예?(‘물떡’을 여긴 많이 하는 거요?)

107081 #2 옛날에 물떡[281]도 엿날에 영장 나면 물떡을 헤갓주.(옛날에 ‘물떡’도 옛날에 장사 나면 ‘물떡’을 해갔지.)

107081 @ 음. 주루 물떡 헤갓주.(음. 주로 ‘물떡’ 해갔지.)

107081 @ 부주로.(부조로.)

107081 #2 ᄀᆞ는대구덕. ᄀᆞ는대구덕 막 살을 막 가늘게 가늘게 헤서 줄기 때문에 ᄀᆞ는대구덕.(가는대바구니. 가는대바구니 매우 살을 매우 가늘게 가늘게 해서 겯기 때문에 가는대바구니.)

107081 #1 이뻐.(이뻐.)

107081 #2 숭키구덕은 굵게 물 빠졍 허니까.(푸성귀바구니는 굵게 물 빠져서 하니까.)

107081 #1 채소 놩 뎅기는 거난.(채소 넣어서 다니는 거니까.)

107081 @ 숭키구덕. 이런 식으로 떡하고 관련뒈 잇는예?(푸성귀바구니. 이런 식으로 떡하고 관련되어 있는요?)

별식

107082 @ 혹시 그 수에도 담아 봅디가?(혹시 그 순대도 담아 봅디까?)

107082 #1 음.(음.)

107082 #2 수엔 나 담을 충 몰른다.(순대는 나 담을 줄 모른다.)

107082 @ 봐보긴 헤실 거.(봐보긴 했을 거.)

107082 #1 보기가.(보기가.)

107082 @ 큰일허젠 꼭 수에를.(큰일하려고 꼭 순대를.)

107082 #2 게난 옛날은 보리 ᄀᆞᆯ아근엥에.(그러니까 옛날은 보리 갈아서.)

107082 @ 예.(예.)

107082 #2 ᄌᆞᆷ질게 헤놓곡.(가늘게 해놓고.)

107082 #1 피, 우선 돗 잡을 때 피 받아놓고.(피, 우선 돼지 잡을 때 피 받아놓고.)

107082 #2 이 메밀, 메밀가르 서끄고.(이 메밀, 메밀가루 섞고.)

107082 @ 예.(예.)

107082 #2 허여근에 피 옛날은 이제난 잡채에 하영 썰어놧지. 피만 놩.(해서 피 옛날은 이제니까 잡채에 많이 썰어놨지. 피만 넣어서.)

---

280) ‘등절미’는 메밀가루나 쌀가루로 반달처럼 두툼하게 만든 떡을 말한다.

281)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처럼 만들어 안에 팥소나 무채 등을 넣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107082 @ 예.(예.)

107082 #1 그레 돗 북부기니 무신거니 내장 썰어놓을 것도 없엇어게. 흔 점썩 경허난 순 그자 피 놩.(그리로 돼지 허파니 무엇이 내장 썰어놓을 것도 없었어. 한 점씩 그렇게 하니까 순 그저 피 넣어서.)

107082 @ 음.(음.)

107082 #2 그거 뭐.(그거 뭐.)

107082 @ 보릿ᄀᆞ를에.(보릿가루에.)

107082 #1 보릿ᄀᆞ를에.(보릿가루에.)

107082 #2 중간에야 밀ᄀᆞ르 뭐 잡채도 베라벨 맛이 잇지마는 그전엔 벨로 맛도 굳어 가민 딱딱헤불고 보리난.(중간에야 밀가루 뭐 잡채도 별의별 맛이 있지만 그전엔 별로 맛도 굳어 가면 딱딱해버리고 보리니까.)

107082 @ 보리니까. 옛날 방식이 맛잇엇던 거 같은데.(보리니까. 옛날 방식이 맛있었던 거 같은데.)

107082 #1 패마농.(쪽파.)

107082 #2 패마늘은 어디 잇어서.(쪽파는 어디 있어서.)

107083 @ 옛날 헐 때는 그런 식으로만 한 거라예? 둠비는 이제?(옛날 할 때는 그런 식으로만 한 거라고요? 두부는 이제?)

107083 #2 둠비는 엿날부터 거 나온 거. 이 중간엔 안 허지.(두부는 옛날부터 거 나온 거. 이 중간엔 안 하지.)

107083 @ 건 어떤 식으로?(건 어떤 식으로?)

107083 #2 이제 잔치나 뭐 둠비 콩을 막 물 우떠. 물 우떳다가 맷돌 잇잖아. 그거를 둘이 앚앙 그걸 ᄀᆞ는 거야.(이제 잔치나 뭐 두부 콩을 막 물 담가. 물 담갔다가 맷돌 있잖아. 그거를 둘이 앉아서 그걸 가는 거야.)

107083 @ 음.(음.)

107083 #2 ᄀᆞᆯ아가지고 그거 둠빗주멩이[282]로 막 짜. 돗지름 서끄면서.(갈아가지고 그거 '두붓주머니'로 막 짜. 돼지기름 섞으면서.)

107083 @ 돗지름.(돼지기름.)

107083 #2 그거를 돗지름 안 서끄민 내리질 아녀.(그거를 돼지기름 안 섞으면 내리질 않아.)

107083 @ 아아.(아아.)

107083 #2 콩이 진이. 돗지름을 서끄면 그것이 사르르 허거든.(콩이 진이. 돼지기름을 섞으면 그것이 사르르 하거든.)

107083 @ 아아.(아아.)

107083 #2 경헤가지고 이제 걸 짜가지고 솟듸 큰 가마솟듸 놩 끓여가지고 이젠 끓일 때도 돗지름 ᄌᆞ끈 거 놓고 지금 간수.(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걸 짜가지고 솥에

282) '둠빗주머니'는 두부를 만들 재료를 넣고 물을 짤 때 쓰는 주머니를 말한다. '둠비+ㅅ+주머니' 구성의 어휘다.

큰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가지고 이젠 끓일 때도 돼지기름 졸인 거 넣고 지금 간수.)

107083 @ 예.(예.)

107083 #2 간수 해서 이렇게 빙빙 뜨박뜨박 이제 ᄀᆞ뜨멘 뭐 잇잖아. 저 순두부.(간수 해서 이렇게 빙빙 '뜨박뜨박' 이제 같으면 뭐 있잖아. 저 순두부.)

107083 @ 예, 예.(예, 예.)

107083 #2 순두부ᄀᆞ찌 나와. 베보자기에 베치마거치 큰 거 허여다가 이디 널판대기 ᄀᆞᆯ아놓고 아래 도고리. 도고리다가 놩 널판데기 놩 그레 놩 이젠 ᄀᆞ레착,(순두부같이 나와. 베보자기에 베치마같이 큰 거 해다가 여기 널빤지 깔아놓고 아래 함지박. 함지박에다가 넣어서 널빤지 놓아서 그리로 놓아서 이젠 맷돌짝.)

107083 @ 응.(응.)

107083 #2 ᄀᆞ레착 더펑 놔두민 두부가 뒘.(맷돌짝 덮어서 놔두면 두부가 되어.)

107083 @ 음, ᄀᆞ레착으로 딱 눌르면 두부고예, 게믄.(음, 맷돌짝으로 딱 누르면 두부고요, 그러면.)

107083 #2 게난 ᄒᆞ꼼 이제거치 비삭져. 비삭져.(그러니까 조금 이제같이 부석거려. 부석거려.)

107083 @ 그게 잔칫집의 가보면 고소허고.(그게 잔칫집에 가보면 고소하고.)

107083 #2 돗지름 들어가니까.(돼지기름 들어가니까.)

107083 #1 그때엔 틀이 엇엇어이.(그때엔 틀이 없었어.)

107083 @ 둠비틀.('두부틀'.)

107083 #2 중간에 나왓지.(중간에 나왔지.)

107083 #2 아주 옛날이야. 나 씨집올 때만 헤도 그걸 헷어.(아주 옛날이야. 나 시집올 때만 해도 그걸 했어.)

107083 @ 둠비예. 그렇게 이제 둠비 헤나면 찌꺼기들이 잇어실 거 아니우과?(두부요. 그렇게 이제 두부 해나면 찌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7083 #2 비제기라고 이제는 무신 거렌 허느니?(비지라고 이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107083 @ 비지.(비지.)

107083 #2 비지.(비지.)

107083 #2 돗 쏠아난, 비제깃국이나 흔 사발썩 주민 비제기 이제는 돗 솖아난 국 국물을 다 그것이 큰 거야.(돼지 삶았던, 비짓국이나 한 사발씩 주면 비지 이제는 돼지 삶았던 국 국물을 다 그것이 큰 거야.)

107083 @ 맞수다. 몸국도 끓이고.(맞습니다. 모자반국도 끓이고.)

107083 #1 으.(으.)

107083 #1 '잘 먹어졋저' 허곡. (웃음).('잘 먹어졌다' 하고. (웃음).)

107083 @ 아아, 잔칫집 가민 비제기국을 줫구나예? 막 동네 ᄂᆞ놔주기도 헌덴 헨게마는.(아아, 잔칫집에 가면 비짓국을 줬군요? 막 동네 나눠주기도 한다고 하더니만.)

107083 #2 그 다음에는 몸쿡이 나왓어.(그 다음에는 모자반국이 나왔어.)

107083 @ 아.(아.)

107083 #2 다음에.(다음에.)

107083 @ 비제깃국이 먼저 나온 거우과?(비짓국이 먼저 나온 겁니까?)

107083 #2 아주 그 다음에는 순대 솖아난 돗 솖아난 국물에 몸국 끓여뒁 먹지. 이제는 안 먹지.(아주 그 다음에는 순대 삶았던 돼지 삶았던 국물에 모자반국 끓여 두고 먹지. 이제는 안 먹지.)

107083 @ 음.(음.)

107083 #2 허긴 허는디 그렇게 돗 솖아난 국물로 안 먹지.(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돼지 삶았던 국물로 안 먹지.)

107083 #1 등겁덴 헤연.(기름지다고 해서.)

107086 @ 예, 삼촌. 여기 개역도 헹 먹지예? 개역은 언제 헙니까? 주로.(예, 삼촌. 여기 미숫가루도 해서 먹지요? 미숫가루는 언제 합니까? 주로.)

107086 #2 오월 장마에 주로 허주.(오월 장마에 주로 하지.)

107086 #1 보리 끗나민 개역허기.(보리 끝나면 미숫가루하기.)

107086 #2 여름 장마 지민 예펜 궁둥이덜 개역 술진덴 허곡. 앚앙 하도 골아나난에 궁둥이가 무겁게 술져서.(여름 장마 지면 여자 궁둥이들 미숫가루 살찐다고 하고. 앉아서 하도 갈아나니까 궁둥이가 무겁게 살쪄서.)

107086 @ 개역덜 먹으니까.(미숫가루들 먹으니까.)

107086 #2 입에 놓민 사랑사랑[283].(입에 놓으면 '사랑사랑'.)

107086 @ 옛날은 그냥 ᄀᆞ레에 곤 거난예?(옛날은 그냥 맷돌에 간 거니까요?)

107086 #2 보깐에 ᄀᆞ레, 맷돌에 물 소곱꺼지 이제는 영허여서 허민 안 들어.(볶아서 맷돌, 맷돌에 물 속까지 이제는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들어.)

107086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86 #1 가루가 줌질아놓니까.(가루가 자잘해놓으니까.)

107086 #2 맷돌에 암만 골아봣자.(맷돌에 암만 갈아봤자.)

107086 @ 옛날엔 또 보리나 끗나나면 개역 헹근에 친정에도 아졍가고 뭐 헷덴 이런 말도 헨게마는.(옛날엔 또 보리나 끝나나면 미숫가루 해서 친정에도 가져가고 뭐 했다고 이런 말도 하더니만.)

107086 #2 중간에. 거 방엣간에 강 ᄲᆞᆺ앙 오고 개역 헤근에 느량 어른덜신디도 가져가고.(중간에. 거 방앗간에 가서 빻아서 오고 미숫가루 해서 늘 어른들한테도 가져가고.)

107086 @ 음.(음.)

107086 #2 우리 헐 적에는 그렇게 힘들었어, 개역은. 혼 뒈 보까놓민 그거 막 골아야지.(우리 할 적에는 그렇게 힘들었어, 미숫가루는. 한 되 볶아놓으면 그거 막 갈아야지.)

283) '사랑사랑'은 까끌까끌의 의미로 쓰였다.

107086 @ 예, 예. 솟에서 직접 보깡예?(예, 예. 솥에서 직접 볶아서요?)

107086 #2 것보리라도 헤여놓민 체가 잇어. 그거 쳐. ᄀᆞ를이 얼마 없어. 것보리. 것보리개역. 아이고, 입에 놓민 까락까락 까락까락. 이 중간에는 뭐 기곗방에도 강 뻣아오고 문닥헌[284] 것덜.(겉보리라도 해놓으면 겨가 있어. 그거 쳐. 가루가 얼마 없어. 겉보리. 겉보리미숫가루. 아이고, 입에 놓으면 까끌까끌 까끌까끌. 이 중간에는 뭐 방앗간에도 가서 빻아오고 '문닥한' 것들.)

107086 @ 경허면 밥에 비병 먹고.(그렇게 하면 밥에 비벼서 먹고.)

107086 #2 나 씨집올 때만 헤도.(나 시집올 때만 해도.)

107086 #1 이제 육지도 어렵게 살앗주마는 제주 경우에는 웨정 때에 공출 바치느라고 먹지 못허엿지. 해방 뒈니까 이젠 살 건가 허니깐 그 다음 다음해엔 사삼사건 터져불엇지. 씨를 밧듸 가서 보리씨를 그걸 갈질 못혜연 젱기로 갈아야 헐 건디 오널 허영 늴 일찍 ᄉᆞ태가 터지니까 사삼사건이 터지니깐 일헐 시간이 없어.(이제 육지도 어렵게 살았지만 제주 경우에는 왜정 때에 공출 바치느라고 먹지 못했지. 해방 되니까 이젠 살 건가 하니깐 그 다음 다음해엔 사삼사건 터져버렸지. 씨를 밭에 가서 보리씨를 그걸 갈질 못해서 쟁기로 갈아야 할 건데 오늘 해서 낼 일찍 사태가 터지니까 사삼사건이 터지니깐 일할 시간이 없어.)

107086 @ 음.(음.)

107086 #1 허니까 씰 뿌려뒁도 그걸 갈 시간 없으니까 그대로 춤 꿩 주워 먹단 남은 거 올라오난 그거 먹어, 먹언 허니까 무시거 농사덜을 홀 수가 없지. 그대로 그냥 계속 베고파오다가 이제 저 아시안게임.(하니까 씰 뿌려둬서도 그걸 갈 시간 없으니까 그대로 참 꿩 주워 먹다가 남은 거 올라오니까 그거 먹어, 먹어서 하니까 무엇 농사들을 할 수가 없지. 그대로 그냥 계속 배고파오다가 이제 저 아시안게임.)

107086 @ 예.(예.)

107086 #2 아시안게임 허기 시작허니까 풀리기 시작헷주.(아시안게임 하기 시작하니까 풀리기 시작했지.)

107086 @ 음.(음.)

107086 #1 올림픽게임 끗나니까 거줌 쌀밥을 먹엇지.(올림픽게임 끝나니까 거의 쌀밥을 먹었지.)

107086 @ 올림픽예?(올림픽요?)

107086 # 아시안게임과 그 웨정 이루 말헐 수가 없어. 사름덜이 다 굶언. 봄 나민.(아시안게임과 그 왜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굶었어. 봄 되면.)

107086 #2 그때 나가니까 쌀도 아주 끝난 허니까 쌀도 안량미쏠.(그때 나가니까 쌀도 아주 끝난 하니까 쌀도 안남미.)

107086 @ 예, 예, 예.(예, 예, 예.)

107086 #2 곤밥. 그 전에야 안량미쏠이 잇엇나.(흰밥. 그 전에야 안남미가 있었나.)

284) '문닥헌'은 '미숫가루 따위가 곱게 잘 갈아져서 보드라운'이라는 뜻이다.

107087 @ 맞수다. 지짐이들은 뭘 지졍 먹어신고예?(맞습니다. 지짐이들은 뭘 지져서 먹었나요?)

107087 #2 지짐이. 그자 보리 ᄀᆞᆯ앙.(지짐이. 그저 보리 갈아서.)

107087 @ 보리로 지지미도 허고 떡도 허고 ᄌᆞ베기도 허고.(보리로 지짐이도 하고 떡도 하고 수제비도 하고.)

107087 #2 밀이나 갈민 지지미.(밀이나 갈면 지짐이.)

107087 @ 지짐이 헐 때는 뭐 놩 헤마씨? 여기서.(지짐이 할 때는 뭐 넣어서 해요? 여기서.)

107087 #2 무시거 놩 허여 먹을 중은 알앗어.(무엇 넣어서 해 먹을 줄은 알았어.)

107087 @ (웃음).

107087 #2 주로 그거 허영 돗지름 헤여 논 거 그거 영 허영 ᄀᆞᆺ사 빙떡 지지듯.(주로 그거 해서 돼지기름 해 놓은 거 그거 이렇게 해서 아까 빙떡 지지듯.)

107087 @ 그냥 ᄀᆞ르만 놩.(그냥 가루만 넣어서.)

107087 #2 이제난 파도 썰어 놩. 파 지짐이도 혜엿져, 배추지짐이도 허엿저, 하간 거 헷주. 그제야 무신 거.(이제니까 파도 썰어 넣어서. 파 지짐이도 했지, 배추지짐이도 했지, 온갖 거 했지. 그제야 무엇.)

107088 @ 그런 식으로 허영 지짐이 허고, 술도 직접 해봅디가? 해본 거 닮아.(그런 식으로 해서 지짐이 하고, 술도 직접 해봤습니까? 해본 거 같아.)

107088 #1 (웃음).

107088 @ 딱 보니까. 이젠.(딱 보니까. 이젠.)

107088 #1 폼이.(폼이.)

107088 @ 폼이. 술 하영 헨.(폼이. 술 많이 했어.)

107088 @ 안 드셔마씨?(안 드셔요?)

107088 #2 그때 하르버지.(그때 할아버지.)

107088 @ 음.(음.)

107088 #2 나 처년 때는 안 헤보고. 완에 시에 살 때에 이제 ᄒᆞᆫ 멧 년 전이고 그것이. 정인이 ᄒᆞᆫ 두 설 때난 이제 오십 멧 년.(나 처년 때는 안 해보고. 와서 시에 살 때에 이제 한 몇 년 전이고 그것이. 정인이 한 두 살 때니깐 이제 오십 몇 년.)

107088 #1 오십육 년.(오십육 년.)

107088 #2 오십육 년.(오십육 년.)

107088 #2 오십칠 년.(오십칠 년.)

107088 @ 오십칠 년 전이 그땐 무슨 술 헙디가?(오십칠 년 전에 그땐 무슨 술 합디까?)

107088 #2 그때는.(그때는.)

107088 @ 고소리 헤갖고.(소줏고리 해가지고.)

107088 #2 시[285]에 나가 애기 하나 돌고 시에 간 살앗거든. 돈이 어려와.(시에 내가 아기 하나 데리고 시에 가서 살았거든. 돈이 어려워.)

107088 #2 게니까 탕건은 헷주마는 술, 술장시를 헌다고 헤연 이젠 술을 허영 풀젠 허난 좀 허영 풀 수가 없어.(그러니까 탕건은 했지만 술, 술장사를 한다고 해서 이젠 술을 해서 팔려고 하니까 좀 해서 팔 수가 없어.)

107088 @ 으음. 예, 예. 밀주 단속 허영예?(으음. 예, 예. 밀주 단속 해서요?)

107088 #2 게연 그거를 어떻게 헤신고 허민 보리 틔운 원료가 나와.(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리 띄운 원료가 나와.)

107088 @ 예.(예.)

107088 #2 원료가 나오난 깡넹이ᄀᆞ를, ᄀᆞ를 허연 서꺼근에 그 놈으 집이 살멍 큰항아리에다 둠앙 이제. 술을 다끄는 거야. 솟을 빌어와야 허는 거야.(원료가 나오니까 강냉이가루, 가루 해서 섞어서 그 남의 집에 살면서 큰항아리에다 담가서 이제. 술을 고는 거야. 솥을 빌려와야 하는 거야.)

107088 @ 예.(예.)

107088 #2 빌어완에 ᄒᆞ꼼 막 할망이라도 선생네 집의니까, 이런 거 아녀겟다 허영 조사를 허 주인ᄀᆞ라 말허연 헌디. 그 다음에는 그디서 살단 이제 여길 온 거라.(빌려와서 조금 아주 할머니라도 선생네 집이니까, 이런 거 안 하겠다 해서 조사를 하 주인보고 말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서 살다가 이제 여길 온 거야.)

107088 @ 음.(음.)

107088 #2 아빠가 군인 살 때니까, 여길 오니까 아마도 술장ᄉᆞ 안 헤봣젱은 못 헐 거.(아빠가 군대 살 때니까, 여길 오니까 아마도 술장사 안 해봤다고는 못 할 거.)

107088 @ 으음.(으음.)

107088 #2 멧 항썩 둠으멍 멧 둘썩 다끄멍 풀앗으니까.(몇 항아리씩 담그면서 몇 달씩 고면서 팔았으니까.)

107088 @ 음.(음.)

107088 #2 나 저 ᄃᆞ리, ᄃᆞ리 잇어.(나 저 교래, 교래 있어.)

107088 @ 교랠 ᄃᆞ리 송당허는데.(교랠 교래 송당하는데.)

107088 #2 그거 술허벅 이젠 이런 구덕에 영 놓곡 술허벅 정 몰르게. 이젠 그거를 싸는 거라. 싼 것을 구덕에 놩 산으로 멧 허벅사 정 올려신디 결국은 돈도 다 못 받으멍. 나 술장ᄉᆞ도 많이 헤봣어.(그거 술동이 이젠 이런 바구니에 이렇게 넣고 술동이 져서 모르게. 이젠 그거를 싸는 거야. 싼 것을 바구니에 넣어서 산으로 몇 동이야 져서 올렸는지 결국은 돈도 다 못 받으면서. 나 술장사도 많이 해봤어.)

107088 @ 음.(음.)

107088 #2 술장ᄉᆞ도 허민 젤로 잘허곡 맛이 이시니까.(술장사도 하면 젤로 잘하고 맛이 있으니까.)

285) 여기에서 '시'는 제주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107088 @ 음.(음.)

107088 #2 이젠 시기가 부뜨는 거라이. 그 집의는 술이 맛좋다니 딴 무신거 양잿물 서껏느니 경 아녕은 맛엇넨 허멍 막 시기덜을 부떠. 헤도. 잘 풀려.(이젠 시기가 붙는 거야. 그 집에는 술이 맛 좋다느니 딴 무엇 양잿물 섞었느냐 그렇게 안해서는 맛없다고 하면서 매우 시기들을 붙어. 해도. 잘 팔려.)

107088 @ 맛이 좋으니까예?(맛이 좋으니까요?)

107088 #2 술장ᄉᆞ도 많이 헤봣지.(술장사도 많이 해봤지.)

107088 @ 게난 그 술 다끄젠 허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헹은에 따끄는 거라마씨?(그러니까 그 술 고려고 하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고는 거예요?)

107088 #2 고소리.(소줏고리.)

107088 @ 고소리?(소줏고리?)

107088 #1 듬는 거부떠.(담그는 거부터.)

107088 @ 밥헹은에 허는 거부터.(밥해서 하는 거부터.)

107088 #2 여기 와서 시에서는 밥으로 헤 보리쏠을 허엿지, 여기 오니까 깡넹이ᄀᆞ를이 막 나왓어.(여기 와서 시에서는 밥으로 많이 보리쌀을 했지, 여기 오니까 강냉이가루가 막 나왔어.)

107088 @ 음.(음.)

107088 #2 네니까 그 깡넹이ᄀᆞ르를 사다가 막 쪄.(나니까 그 강냉이가루를 사다가 막 반죽해.)

107088 @ 음.(음.)

107088 #2 원료가 또 풀아.(원료가 또 팔아.)

107088 #1 원룐 누룩 대신.(원룐 누룩 대신.)

107088 #2 원료를 서껑 이제 발효를 시켜. 이제 항아리레 담는 거라. 발효도 오래지 아녀.(원료를 섞어서 이제 발효를 시켜. 이제 항아리에 담는 거야. 발효도 오래지 않아.)

107088 @ 음.(음.)

107088 #2 원료를 놓기 따문에.(원료를 놓기 때문에.)

107088 @ 예.(예.)

107088 #2 경허민 이제 이제 아메도 시루떡을 흔 열 시린 쳐야지.(그렇게 하면 이제 이제 아마도 시루떡을 한 열 시룬 쪄야지.)

107088 @ 아, 겡 떡을 쳥은에 헌 거구나예? 밥이 아니고.(아, 그래서 떡을 쪄서 한 거군요? 밥이 아니고.)

107088 #2 떡을 쳐근에 허민 동네 사름덜 왕 먹곡 어려울 때난이. 맛이 좋게 술장사도 허여봣어. 나 아녀 본 장ᄉᆞ 엇어.(떡을 쪄서 하면 동네 사람들 와서 먹고 어려울 때니까. 맛이 좋게 술장사도 해봤어. 나 안 해 본 장사 없어.)

107088 @ 그렇게 떡 치면 그 다음에 또 따끄젠 허면 어떻게 허는 거?(그렇게 떡 찌면 그 다음에 또 고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

107088 #2 아, 기계가 나왔어. 기계가 나오면 뭐인가 삼양 동네 잇엇어. 그거를 이젠 술쩨기 이젠 그거를 그 지서가 알면 지서가 알면 안 뭴 거니까. 지서가 알면 은 알 뭴 거니까.(아, 기계가 나왔어. 기계가 나오면 뭐인가 삼양 동네 있었어. 그거를 이젠 살짝 이젠 그거를 그 지서가 알면 지서가 알면 안 될 거니까. 지서가 알면 알 될 거니까.)

107088 @ 예.(예.)

107088 #2 영 헌 어디 고팡 닮은 디 앚져근엥에 나무 다끄는 거라. 고소리거찌 나와. 그 나오는 디 저 대바지[286].(이렇게 한 어디 고방 같은 데 앉혀서 나무 고는 거야. 소줏고리같이 나와. 그 나오는 데 저 '대바지'.)

107088 @ 예.(예.)

107088 #2 대바지 이만치헌 나오는 소리가 쩌렁쩌렁쩌렁허주.('대바지' 이만큼한 나오는 소리가 쩌렁쩌렁쩌렁하지.)

107088 @ 으음.(으음.)

107088 #2 경 허영 따까. 이제 흔 대바지가 딱 석 뒈 들어이. 겨민 흔 석 뒈 들면 그걸로 하나 나오면 흔 솟에 잘 뒌 거. 경 아녀문 술 간이 잘 안 뒈영 안 나오면 술이 시금트릉허곡 안 나와.(그렇게 해서 고아. 이제 한 '대바지'가 딱 석 되 들어. 그러면 한 석 되 들면 그걸로 하나 나오면 한 솥에 잘 된 거. 그렇게 않으면 술 간이 잘 안 되어서 안 나오면 술이 시그무레하고 안 나와.)

107088 @ 으음, 발효가 안 뒈영예?(으음, 발효가 안 되어서요?)

107088 #2 발효가 잘 뒈야. 술 젓어보면 기냥 그 게꿈이 박삭박삭박삭박삭 매날 젓거든. 이제 일주일 간 뒈여 가민 그것이 이젠 쑥 내려 앚아가민 그제부떤 다끄는 거라.(발효가 잘 돼야. 술 저어보면 그냥 그 거품이 박삭박삭박삭박삭 맨날 젓거든. 이제 일주일 간 되어 가면 그것이 이젠 쑥 내려 앉아가면 그제부턴 고는 거야.)

107088 @ 막 발효뒌 끗데 허는 거구나예? 게믄 술 익는 냄새가 진동허컨게, 여기?(막 발효된 끝에 하는 거군요? 그러면 술 익는 냄새가 진동하겠네, 여기?)

107088 #2 쿠싱허여.(구수해.)

107088 @ 그거는 삼춘 오메기술[287]도 헤봔마씨?(그거는 삼촌 '오메기술'도 해봤어요?)

107088 #2 오메기술은 거 쉬운 거.('오메기술'은 거 쉬운 거.)

107088 @ 어떤 거?(어떤 거?)

107088 #2 막걸리 멘든 거. 거 쉬운 거.(막걸리 만든 거. 거 쉬운 거.)

107088 @ 거는 뭘로.(거는 무엇으로.)

107088 #2 난 헤보진 아녓는데 놈 허는 거 보기만 헷어. 히린좁쏠.(난 해보진 않았는데 남 하는 거 보기만 했어. 차좁쌀.)

107088 @ 예.(예.)

---

286) '대바지'는 크기가 작은 동이를 말한다. 큰 동이는 '허벅'이라고 한다.
287) '오메기술'은 좁쌀가루로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술을 말한다.

107088 #2 검은 히린좁쏠 잇잖아. 이젠 개발시리[288]라고 헌 거. 이제도 그런 거 나왐주마는. 그런 거를 물에 담갓다가 그런 시쳐두고 방엣간에 강 ᄲᆞᆺ아와. 이젠 영 허연 오메기떡거찌 허영 솟듸 놩 삶아.(검은 차좁쌀 있잖아. 이젠 '개발시리'라고 한 거. 이제도 그런 거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를 물에 담갔다가 그런 씻어두고 방앗간에 가서 빻아와. 이젠 이렇게 해서 '오메기떡'같이 해서 솥에 넣어서 삶아.)

107088 @ 음.(음.)

107088 #2 삶아가지고 이젠 이 도고리레 건져 놔.(삶아가지고 이젠 이 함지박에 건져 놔.)

107088 @ 음.(음.)

107088 #2 건져 놔가지고 누룩 놓고 막 이렇게 쭈물러.(건져 놔가지고 누룩 넣고 막 이렇게 주물러.)

107088 @ 음.(음.)

107088 #2 쭈물렁 물 놓고 허민 ᄒᆞ꼼 뒌죽 잇잖아.(주물러서 물 넣고 하면 조금 된죽 있잖아.)

107088 @ 예, 예, 예, 예.(예, 예, 예, 예.)

107088 #2 뒌죽거찌 허민 그거를 항아리레 부각부각부각 궤지. 것도 이젠 것도 잊어부런 몰르컨게. 흔 말이민 것도.(된죽같이 하면 그거를 항아리에 부각부각부각 괴지. 것도 이젠 것도 잊어버려서 모르겠어. 한 말이면 것도.)

107088 #1 막걸리.(막걸리.)

107088 #2 그렇게 맛잇을 수가 없어. 우의다가 짓누렁허영[289].(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위에다가 '짓누래서'.)

107088 @ 기름도 막 피고예? 삼춘 오합주렌 헹도 들어봅디가?(기름도 막 피고요? 삼촌 '오합주'라고 해서도 들어봅디까?)

107088 #1 (웃음).

107088 @ 오합주 하영 헤영 줫구나, 이제. 것도 오합주도 헤영 풀아?('오합주' 많이 해서 줬구나, 이제. 것도 '오합주'도 해서 팔아?)

107088 #2 아니.(아니.)

107088 #2 오합주[290]는 몸보신.('오합주'는 몸보신.)

107088 #2 그건, 그것만이.(그건, 그것만큼.)

107088 @ 오합주엔 뭐 뭐 들어가는 거우과?(오합주에는 뭐 뭐 들어가는 겁니까?)

107088 #2 인삼 들어가지.(인삼 들어가지.)

107088 #1 참깨.(참깨.)

107088 #2 참깨지름 들어가지, 참깨 들어가지, 또 거세기 누룩 들어가지.(참기름

288) '개발시리'는 차좁쌀의 일종이다.
289) '짓누렁허영'은 매우 누래서의 의미다.
290) '오합주'는 청주, 달걀, 참기름, 꿀, 생강 등 다섯 가지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제주의 전통 민속주를 말한다.

들어가지, 참깨 들어가지, 또 거시기 누룩 들어가지.)

107088 #1 누룩도 밀누룩.(누룩도 밀누룩.)

107088 @ 밀누룩으로.(밀누룩으로.)

107088 #2 또 무신거고?(또 무엇이니?)

107088 @ 계란?(계란?)

107088 #2 들어가지.(들어가지.)

107088 #1 꿀.(꿀.)

107088 @ 오합이 아니라 막 여라 가지.(오합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107088 #2 오합주는 말뿐이지.('오합주'는 말뿐이지.)

107088 @ 생강 같은 건 안 들어갑니까?(생강 같은 건 안 들어갑니까?)

107088 #2 생강 놔야지.(생강 놔야지.)

107088 #1 생강.(생강.)

107088 #2 꿀에도 늬큰허지 아너고 꿀 놓곡 허민. 계란 이제 쏠 한 뒈면 계란 흔 한 판.(꿀에도 느끼하지 않고 꿀 넣고 하면. 계란 이제 쌀 한 되면 계란 한 한 판.)

107088 @ 하영 진국이네.(많이 진국이네.)

107088 #2 또 인삼.(또 인삼.)

107088 @ 예.(예.)

107088 #2 인삼 가루.(인삼 가루.)

107088 @ 인삼은 가루로 허고.(인삼은 가루로 하고.)

107088 #2 요새 오합주엔 헤도.(요새 '오합주'라고 해도.)

107088 @ 음, 음.(음, 음.)

107088 #2 우린 경 허영 먹엇주마는.(우린 그렇게 해서 먹었지만.)

107088 #1 저 오합주ᄁᆞ장은 강술[291]옌 헌 게 잇어낫어이.(저 '오합주'까지는 '강술'이라고 한 게 있었어.)

107088 @ 강술.('강술'.)

107088 #2 난 안 담아보고.(난 안 담가보고.)

107088 #1 나도 외할머님한테 외할마님은 원 정의원 헤여난 그 어른 뚤이난에 그 모든 그 츰 아까 말헌 오합주 만드는 그걸 헤영 물을 일체 안 들이는 거라. 것만 딱 버무령 흔 일 년 놔두는 거라. 놔두민 그냥 누룩ᄀᆞ치 뒈는 거주. 강술.(나도 외할머님한테 외할머님은 원 정의원 했었던 그 어른 딸이니까 그 모든 그 참 아까 말한 '오합주' 만드는 그걸 해서 물을 일절 안 들이는 거야. 것만 딱 버무려서 한 일 년 놔두는 거야. 놔두면 그냥 누룩같이 되는 거지. '강술'.)

107088 @ 강술.('강술'.)

107088 #1 건 강술. 누룩가치 뒈면은 이제 그 누룩을 ᄌᆞ베기만이 헤영은에 허민 대접에 놓는 거라. 경 헤연 물 떠놩 그레 놓민 그게 술이라.(건 '강술'. 누룩같이 되

291) '강술'은 술의 일종이다.

면 이제 그 누룩을 수제비만큼 해서 하면 대접에 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물 떠놓아서 그리로 놓으면 그게 술이야.)

107088 @ 아아.(아아.)

107088 #2 강술.('강술'.)

107088 @ 그거를 이제 물 우뜨면 술맛이 나는 거. 차 마시듯이예?(그거를 이제 물 잠그면 술맛이 나는 거. 차 마시듯이요?)

107088 #1 술도 상당히 쎈덴 허여. 게난 지금 강술엔 허연 나 지금.(술도 상당히 센다고 해. 그러니까 지금 '강술'이라고 해서 나 지금.)

107088 @ 올 때마다 가졍가마씨?(올 때마다 가져가요?)

107088 #1 어디고 저.(어디고 저.)

107088 #1 저 서쪽에. 한림 넘어강. 수옥이 뚤 시집간 디가 어디?(저 서쪽에. 한림 지나가서. 수옥이 딸 시집간 데가 어디?)

107088 #2 저 어디. 독고동[292] 밑에.(저 어디. '독고동' 밑에.)

107088 @ 독고동.('독고동'.)

107088 @ 옹포.(옹포.)

107088 #1 옹포도.(옹포도.)

107088 @ 금성, 금릉, 판포.(금성, 금릉, 판포.)

107088 #2 어디여마는.(어디다만.)

107088 @ 서쪽에예?(서쪽에요?)

107088 #1 그 저 오름 잇고 저 도체비 비친 사름 절 허곡 절간.(그 저 오름 있고 저 도깨비 비친 사람 절 하고 절간.)

107088 @ 아아, 용당.(아아, 용당.)

107088 #1 용당 우의.(용당 위에.)

107088 @ 용수, 고산.(용수, 고산.)

107088 #1 용수 우의 곶더레 간 디.(용수 위의 숲으로 간 데.)

107088 #2 용수 우의란가. 아까 술을.(용수 우의던가. 아까 술을.)

107088 #1 거기서 이제 강술 말을 들엇는디. 강술이엔 헨에 헤도 제라한 강술 아니. 제주도 안네 어디서도 못 들엇는디 거기선 들엇어. 나가 우시 갓단.(거기서 이제 '강술' 말을 들었는데. '강술'이라고 해서 해도 제대로 된 '강술' 아니. 제주도 안에 어디서도 못 들었는데 거기선 들었어. 내가 위요 갔다가.)

107088 @ 예, 예, 예.(예, 예, 예.)

107088 #1 우시 갓단 그 말을 들엇는디 그 뜬 디선 일체 못 들언 헷는디 술 맛이 쪼꼼 그 뜬 거보단 그 저 향기가 잇고.(위요 갔다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딴 데선 일절 못 들어서 했는데 술 맛이 조금 그 딴 거보단 그 저 향기가 있고.)

107088 @ 음.(음.)

107088 #1 뭐가 잇더구만.(뭐가 있더군.)

---

292) '독고동'은 한림읍 지역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107088 #2 술이나 뭐이던지 정성도 헤야 뒈고.(술이나 뭐이든지 정성도 해야 되고.)

107088 @ 맞수다.(맞습니다.)

107088 #2 손맛도 잇어야고 그래. 뭐이던지.(손맛도 있어야 하고 그래. 뭐이든지.)

107088 #1 게난 즉 말허면 아이큐주, 아이큐가 어떨 것이다. 그런 요샛말로 아이큐. 저 손맛이엔 헌 게 바로 그거라.(그러니까 즉 말하면 아이큐지, 아이큐가 어떨 것이다. 그런 요샛말로 아이큐. 저 손맛이라고 한 게 바로 그거야.)

107089 @ 삼춘, 쉰다리? 순다리?(삼촌, '쉰다리'? '순다리'?)

107089 #2 순다리[293]주게.('순다리'지.)

107089 @ 순다리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순다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7089 #2 그거야 쉬운 거주.(그거야 쉬운 거지.)

107089 @ 저야 모릅주.(저야 모릅지요.)

107089 #1 젤 쉬운 거주.(젤 쉬운 거지.)

107089 @ 저야 쉬운지 안 쉬운지 모릅주게.(저야 쉬운지 안 쉬운지 모릅지요.)

107089 #2 밥이라도 쉬여가면 누룩만 궤여가민 먹으민 순다리 뒈불어.(밥이라도 쉬어가면 누룩만 괴어가면 먹으면 '순다리' 되어버려.)

107089 #1 요구르트.(요구르트.)

107089 @ 그냥 요구르트.(그냥 요구르트.)

107089 @ 누룩만 놩예?(누룩만 넣어서요?)

107089 #2 옛날엔 주루 쌂아만 먹어낫어. 쌂아.(옛날엔 주로 삶아서만 먹었었어. 삶아.)

107089 @ 순다리 쌂앙 먹언예?('순다리' 삶아서 먹었다고요?)

107089 #2 배아 이제는 그대로 먹어야 맛잇어. 삶으면 시금트름 맛이 없어.(배아 이제는 그대로 먹어야 맛있어. 삶으면 시크무레해서 맛이 없어.)

107089 @ 우리는 삶앙 먹어보진 아녀수다.(우리는 삶아서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107089 #1 쌩차?(생째?)

107089 @ 예.(예.)

107089 #2 여기 완 보난 쌂앙 먹엄데.(여기 와서보니까 삶아서 먹고 있데.)

107089 @ 예.(예.)

107089 #1 요즘은 짱근에 냉장고에 놔둠서 소님 차로 대접.(요즘은 짜서 냉장고에 놔두고서 손님 차로 대접.)

107090 @ 예, 예. 발효 식품.(예, 예. 발효 식품.)

107090 #2 요구르트 막 세는 거.(요구르트 막 세는 거.)

293) '순다리'는 쉬듯한 밥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음료다.

107090 @ 누룩 만들 땐 어떵 안 허여? 안 만들어.(누룩 만들 땐 어떻게 안 해? 안 만들어.)

107090 #2 사당 허주. 거 안 만들아. 할마니 어떻게 만들엇는지 아냐.(사다가 하지. 거 안 만들어. 할머니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냐.)

107090 #1 보리 골앙.(보리 갈아서.)

107090 @ 삼춘이 만들엄신게.(삼촌이 만들고 있는데.)

107090 #1 보리 골앙은에게 이젠 것에 물 버무령 이젠 그 물 버무리는 게 그 발효 과정이 상당히 중요헌 거라. 영허면 쉐여질 정돈 모양인 모냥이라. 부서진 중 그거.(보리 갈아서 이젠 것에 물 버무려서 이젠 그 물 버무리는 게 그 발효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 쥐어질 정도 모양인 모양이야. 부서진 중 그거.)

107090 @ 음.(음.)

107090 #1 경 혜영 쳇망에 놩 잘 밟앙 어디 잘 데며두민 그냥 트는 거주. 거고, 온도.(그렇게 해서 쳇바퀴에 넣어서 잘 밟아서 어디 잘 쌓아두면 그냥 뜨는 거지. 거고, 온도.)

107090 #2 산듸칩 시민 것이 췌고.(밭볏짚 있으면 것이 최고.)

107090 #2 산듸칩예?(밭볏짚요?)

107090 #2 이 요렇게 끌아가지고.(이 요렇게 깔아가지고.)

107090 #1 또.(또.)

107090 #2 이제 경허난 우에다 무시건.(이제 그렇게 하니까 위에다 무엇은.)

107090 #1 또 누룩 놓고.(또 누룩 넣고.)

107090 #2 누룩을 놓던가 우에다 무신거 옷감이라도 더퍼줘.(누룩을 놓든가 위에다 무엇 옷감이라도 덮어줘.)

107090 @ 으음, 발효.(으음, 발효.)

107090 #2 발효가 뒈여.(발효가 되어.)

107090 @ 누룩도 허면 그 곰팡이 같은 거 피잖아에?(누룩도 하면 그 곰팡이 같은 거 피잖아요?)

107090 #2 노랑곰팡이가 제일 좋은 거.(노랑곰팡이가 제일 좋은 거.)

107090 @ 노랑곰팡이? 아아.(노랑곰팡이? 아아.)

107090 #2 '짓누렁케 잘 텃져' 허고 "맛 좋켜." 경허고.('샛노랗게 잘 떴지' 하고 "맛 좋겠다." 그렇게 하고.)

107091 @ 음, 그런 식으로 헌 거고. 엿도 다까봅디가?(음, 그런 식으로 한 거고. 엿도 고아봤습니까?)

107091 #2 아니, 나 엿 안 따까봔.(아니, 나 엿 안 고와봤어.)

107091 @ 거짓말도. 엿도 하영 헌 거 닮아. 자 엿만 다까봅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거짓말도. 엿도 많이 한 거 같아. 자 엿만 고아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7091 #2 아니, 그건 집안에.(아니, 그건 집안에.)

107091 @ 집안에, 집에(집안에, 집에.)

107091 #2 아, 그건 단지 쉬운 거라.(아, 그건 단지 쉬운 거야.)

107091 @ 엿 만들젠 허면 뭐 헤얍니까?(엿 만들려고 하면 뭐 해야 합니까?)

107091 #2 밥 헤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밥을 익으면 이제 그 쌀이 익으면 딱 이젠 영 들러내는 거라. 솟을. 솟을 들러내던, 다라민 다라레 퍼놓고 이제 영 ᄒᆞ꼼 영 식어 가면 물을 놔.(밥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밥을 익으면 이제 그 쌀이 익으면 딱 이젠 이렇게 들어내는 거야. 솥을. 솥을 들어내든, 대야면 대야에 퍼놓고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식어 가면 물을 놔.)

107091 @ 예.(예.)

107091 #2 물을 놓면서 이젠 또 그 엿기름 잇잖아.(물을 놓으면서 이젠 또 그 엿기름 있잖아.)

107091 #1 예, 골.(예, 엿기름.)

107091 #2 엿 허젠 허민 기냥 쏠은 모인 걸로는 안 뒌다. 찹쏠로나 차좁썰로나 헤야주.(엿 하려고 하면 그냥 쌀은 메진 걸로는 안 된다. 찹쌀로나 차좁쌀로나 해야지.)

107091 @ 밥을예? 모인 건 안 뒈는 거구나.(밥을요? 메진 건 안 되는 거구나.)

107091 #2 경허민 이젠 이디 퍼 놓민 떡이 뒈여. 물 놓고.(그렇게 하면 이젠 여기 퍼 놓으면 떡이 되어. 물 넣고.)

107091 @ 음.(음.)

107091 #2 또 엿기름 영 영 헤가민 물 ᄐᆞ로 건지 ᄐᆞ로 뒈여. 그 순간에.(또 엿기름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물 따로 건더기 따로 되어. 그 순간에.)

107091 @ 아아.(아아.)

107091 #2 경 허영 이젠 딱 멧 시간 놔둬. 멧 시간 놔두면 이젠 그것이 영 보면 안 궨 때에, 안 궨 때는 우알이 없어. 우알이 없고. 궤면은 우의가 말끗허민. 것이 궤여올랑 발효가 뒈면 짜는 거야. 끓이면 뒈. 허젱허민 덜 뒈게 허젠 허민 막 끓이고.(그렇게 해서 이젠 딱 몇 시간 놔둬. 몇 시간 놔두면 이젠 그것이 이렇게 보면 안 괸 때에, 안 괸 때는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없고. 괴면 위가 말끔하면. 것이 괴어올라서 발효가 되면 짜는 거야. 끓이면 되어. 하려고 하면 덜 되게 하려고 하면 막 끓이고.)

107091 @ 그게 엿.(그게 엿.)

107091 @ 삼춘, 엿에도 이것저것 놩은에 허잖아예? 뒈야지고기도 놓곡.(삼촌, 엿에도 이것저것 넣어서 하잖아요? 돼지고기도 넣고.)

107091 #2 살찐 거 놔도 좋고. 살찐 거 놔야.(살찐 거 놔도 좋고. 살찐 거 놔야.)

107091 @ 예, 예.(예, 예.)

107091 #2 살진 거 꿩도 놩 허고.(살찐 거 꿩도 넣어서 하고.)

107091 @ 마농엿도.(마늘엿도.)

107091 #2 마농같이 영 기자는 둥갈둥갈[294] 마농엿[295]은 또 허민 문짝허게 익어. 익어도 둥갈둥갈헌냥 잇어. 경헤도.(마늘같이 이렇게 그저는 '둥갈둥갈' 마늘엿은 또 하면 푹하게 익어. 익어도 '둥갈둥갈한' 대로 있어. 그렇게 해도.)

107091 @ 게난 옛날덜은 엿을 헤야 몸보신 헌 거 아니라예?(그러니까 옛날들은 엿을 해야 몸보신 한 거 아닌가요?)

107091 #1 감주 더 딸린 게 엿이주게.(감주 더 딸린 게 엿이지.)

107091 #2 엿은 하도 헤나난 진저리나서 원.(엿은 하도 해나니까 진저리나서 참.)

107091 @ (웃음).

107091 #1 게난 그 골을 하영 놓느냐 적 맞춰 그냥 씀도 허곡.(그러니까 그 엿기름을 많이 놓느냐 적 맞춰서 그냥 씀도 하고.)

107091 #2 요새 장에 강 사온 골은이 많이 들어.(요새 장에 가서 사온 엿기름은 많이 들어.)

107091 @ 잘. 골을 잘 못 만든 거라예?(잘. 엿기름을 잘 못 만든 거네요?)

107091 #1 밀가루 서끈덴.(밀가루 섞는다고.)

107091 @ 골에다가 밀가를 서꺼?(엿기름에다가 밀가루 섞어?)

107091 #2 왕 놀려보믄 알아져. 짜보면 밀가루 서끈 거는 이디가 찐뜩찐뜩허여. 경 아년 건 사르르허여.(와서 놀려보면 알아져. 짜보면 밀가루 섞은 거는 여기가 찐득찐득해. 그렇게 않은 사르르해.)

107091 @ 아아.(아아.)

107091 @ 뭘로 놔?(무엇으로 놔?)

107091 #2 보리.(보리.)

107091 @ 보리도?(보리도?)

107091 #2 밀골[296]은 더 새는 거주. 옛날은 줄보리허고 밀만 헤낫는데, 살보리가, 술보리가 살이 많고 좋데.('밀골'은 더 새는 거지. 옛날은 맥주보리하고 밀만 했었는데, 쌀보리가, 쌀보리가 살이 많고 좋데.)

107091 @ 아아.(아아.)

107091 #2 살이 만헤.(살이 많아.)

107091 @ 게난 그게 골 놓는 것도 그 순서가 잇잖아예? 골 만드는 과정을?(그러니까 그게 엿기름 놓는 것도 그 순서가 있잖아요? 엿기름 만드는 과정을?)

107091 #2 골 만드는 과정은 보리나 밀이나.(엿기름 만드는 과정은 보리나 밀이나.)

107091 @ 예.(예.)

107091 #2 아무 거라도 다라 뭐이면.(아무 거라도 대야 뭐이면.)

107091 @ 보리면?(보리면?)

---

294) '둥갈둥갈'은 위로 둥둥 떠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295) '마농엿'은 마늘을 넣어서 고은 엿을 말한다.
296) '밀골'은 밀로 만든 엿기름을 말한다.

107091 #2 이 정도 놓는 거야. 놔가지고 물 우떵. 하를 헤쳔 그거를 이젠 건져. 음, 바구니덜 핫잖아.(이 정도 놓는 거야. 놔가지고 물 잠가서. 하루 해전 그거를 이젠 건져. 음, 바구니들 많잖아.)

107091 @ 예.(예.)

107091 @2 이제.(이제.)

107091 #2 더펑 놔두는 거야. 또 적지는 거야.(덮어서 놔두는 거야. 또 적시는 거야.)

107091 @ 아아.(아아.)

107091 #2 몰르민 또 적져. 잘 허면 오래곡. 잘 헤놓니까 삼일 만에 난에 몰르긴 허데. 경 허영 이건 것이 무 이젠 영 허영 뿔이 뽀족뽀족뽀족 나면 이젠 거 또 이제 말라. 또 물 적지는 거라. 또 물 적져놓고 물 적셔놓고 말르는 냥. 것이 뿔이 나는 거라. 쉬염[297]이. 말쩨민 것이 나온 거야. 요만치 뒈면 널어야 헤여.(마르면 또 적셔. 잘 하면 오래고. 잘 해놓으니까 삼일 만에 나서 마르긴 하데. 그렇게 해서 이건 것이 무 이젠 이렇게 해서 싹이 뾰족뾰족뾰족 나면 이젠 거 또 이제 말라. 또 물 적시는 거야. 또 물 적셔놓고 물 적셔놓고 마르는 대로. 것이 싹이 나는 거야. 뿌리가. 말째면 것이 나온 거야. 요만큼 되면 널어야 해.)

107091 @ 예.(예.)

107091 #2 벙뎅이가 펴. 널엇당 그거를 파싹 몰르면 부벼가지고 골을 저 거 쌀거찌 뒈게 만들아근데 뭐 푸는체로나.(덩어리가 펴. 널었다가 그거를 바짝 마르면 비벼가지고 엿기름을 저 거 쌀같이 되게 만들어서 뭐 키로나.)

107091 @ 쉬염덜 다 내보내부는 거.(뿌리들 다 내보내버리는 거.)

107091 #2 요샌 믹사기에 허난 좋데.(요샌 믹서기에 하니까 좋데.)

107091 @ 그냥 집에서 골아?(그냥 집에서 갈아?)

107091 #2 집의서 좋을 수가 엇어. 믹사기에.(집에서 좋을 수가 없어. 믹서기에.)

107091 #1 베 가마니 가져오민 글로 물 줙.(베 가마니 가져오면 그리로 물 줘서.)

107091 @ 예.(예.)

107091 #1 보리.(보리.)

107091 @ 보리 가마니체.(보리 가마니째.)

107091 #1 경 허영 뿔 나민 그냥 몰랑 그 엿 멘드는 디선 그 뿔리 순이고 뿌리고 다 들어가는 거라.(그렇게 해서 싹 나면 그냥 말려서 그 엿 만드는 데선 그 뿌리 순이고 뿌리고 다 들어가는 거야.)

107091 @ 음.(음.)

107091 #1 다. 우리.(다. 우리.)

107091 @ 집에서 허니까.(집에서 하니까.)

297) '쉬염'은 표준어 '수염'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여기에서는 '뿌리'의 의미로 쓰였다.

107091 #1 집에서.(집에서.)

107091 #1 뿔리는 전부 떨어뒁 허는디.(뿌리는 전부 떨어뒤서 하는데.)

107091 #2 내우니까 열 개 반도 안 나. 물량 그냥 허민.(내우니까 열 개 반도 안 나. 말려서 그냥 하면.)

107091 @ 그러니까마씨?(그러니까요?)

107091 #2 집의서.(집에서.)

107091 @ 밖에 허는 거는.(밖에 하는 거는.)

107091 #2 집의서 흔 뒈 허는 거민 석 뒌 사와사 허여. 쏠 흔 말에.(집에서 한 되 하는 거면 석 된 사와야 해. 쌀 한 말에.)

107091 @ 게난 삼춘은 안 헤본 게 엇인게예?(그러니까 삼촌은 안 해본 게 없는데요?)

107091 #2 말허난 줄줄 나왓다이.(말하니까 줄줄 나왔다.)

107091 @ 안 헤본 게 엇어. 메칠 전에도 골 봣덴 헨게 골은 잇수가? 이제 다 골아불언.(안 해본 게 없어. 며칠 전에도 엿기름 봤다고 하던데 엿기름은 있습니까? 이제 다 갈아버렸어.)

107091 #2 이제 찍엉 가라.(이제 찍어서 가라.)

107091 @ 예, 알앗수다. 게난 안 헤본 거 엇어. 삼춘 이, 이 마을에서 도련에서만 특별하게 헤 먹은 음식 이신가마씨?(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어. 삼촌 이, 이 마을에서 도련에서만 특별하게 해 먹은 음식 있는가요?)

107091 #1 글쎄, 도련에서만 엇일 거라. 요 주위덜은 거줌.(글쎄, 도련에서만 없을 거야. 요 주위들은 거의.)

107091 @ 비슷비슷.(비슷비슷.)

107092 #1 여기가 사통오달 뒌 곳이라놔서. 전부 이웃 마을이고 게난 놀 때도 옛날 우리 여기서 거로[298] 저 용강 봉개 명도암 이 회천 신촌까지덜.(여기가 사통오달 된 곳이어서. 전부 이웃 마을이고 그러니까 놀 때도 옛날 우리 여기서 거로 저 용강 봉개 명도암 이 회천 신촌까지들.)

107091 @ 다 ᄀᆞ치들.(다 같이들.)

107091 #1 다 ᄀᆞ치덜 놀아놓니까.(다 같이들 놀아놓으니까.)

107092 @ 특별한 것은 엇어.(특별한 것은 없어.)

107092 #2 줄보리. 이건 살보리라이.(맥주보리. 이건 쌀보리야.)

107092 @ 예, 알앗수다. 잠깐만예? 겐데 순 안 헷저. 무신거 안 헌 게 아니라 문딱 선수, 선수.(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순 안 했네. 무엇 안 한 게 아니라 몽땅 선수, 선수.)

107092 #1 문딱 거짓말만 허젠.(몽땅 거짓말만 하려고.)

107092 @1 예게.(예.)

298) '거로'는 제주시 화북동의 자연마을의 하나다.

8. 주생활

구조

108001 @ 그 집 지엇던 경험 핫지예? 그 집 지엇던 경험을 대략적으로 골아 줘 봅서.(그 집 지었던 경험 많지요? 그 집 지었던 경험을 대략적으로 말해 줘보십시오.)

108001 #1 묻는 거, 말을 허렌 허면은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건디 질문허면 답은 지금 아메도 연령 들어가니깐 그게.(묻는 거, 말을 하라고 하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질문하면 답은 지금 아마도 연령 들어가니깐 그게.)

108001 @ 예.(예.)

108001 #1 질문에 답은 쉬운데 내가 생각헌다면서 허는 건 상당히.(질문에 답은 쉬운데 내가 생각한다면서 하는 건 상당히.)

108001 @ 어려와예?(어려워요?)

108001 #1 으.(으.)

108002 @ 예, 알앗수다. 우리 집 종류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단보니까 집 종류는 어떤 종류덜이 잇어난 거 닮수과?(예, 알았습니다. 우리 집 종류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보니까 집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까?)

108002 #5 초가집부터 살앗으니까.(초가집부터 살았으니까.)

108002 @ 예.(예.)

108002 #4 그 초가집도 여러 가지가 잇고.(그 초가집도 여러 가지가 있고.)

108002 @ 예.(예)

108002 #1 초가집 쓰레트집 양철집. (웃음).(초가집 슬레이트집 양철집. (웃음).)

108002 @ 예.(예.)

108002 #1 기와집.(기와집.)

108002 #5 이 동네는 초가집 웨에 뭐 기와집이나 무슨 집은 없엇고.(이 동네는 초가집 외에 뭐 기와집이나 무슨 집은 없었고.)

108002 #1 아, 기와집도 잇어낫주.(아, 기와집도 있었었지.)

108002 #5 잇어낫주만.(있었었지만.)

108002 #1 잇어낫주. 간 멘들진 안 헷주마는.(있었었지. 가서 만들진 안 했지만.)

108003 @ 예, 알앗수다. 우리 제주도 말로 골아줍서예? 그 집 하면은 삼춘네 집 어렷을 때 생각헤봉예.(예, 알았습니다. 우리 제주도 말로 말해주십시오? 그 집 하면 삼촌네 집 어렸을 때 생각해봐서요.)

108003 #5 으.(으.)

108003 @ 집은 만약에 초집. 초집 잇지 아녀우과예? 초집 이시면 부모님 사는 집은 무신 집이우과?(집은 만약에 초집. 초집 있지 않습니까요? 초집 있으면 부모님

사는 집은 무슨 집입니까?)

108003 #5 여기서는 춤 우리 부모님 살아난 집이 저디 지금 잇는데 그대로.(여기서는 참 우리 부모님 살았던 집이 저기 지금 있는데 그대로.)

108003 @ 아아.(아아.)

108003 #1 안거리.(안채.)

108003 #5 뭐, 안거리라고 헤가지고 잇고.(뭐, 안채라고 해가지고 있고.)

108003 @ 예.(예.)

108003 #5 대문간 지금 말허민 대문간인데.(대문간 지금 말하면 대문간인데.)

108003 #1 먼문[299].('먼문'.)

108003 #5 먼문.('먼문'.)

108003 @ 먼문.('먼문'.)

108003 #5 또 부억간이 또 잇어. 정지. 정지라고 헤서.(또 부엌간이 또 있어. '정지'. '정지'라고 해서.)

108003 @ 예.(예.)

108003 #5 경헷어.(그렇게 했어.)

108003 #1 모커리 건.(곁채 건.)

108003 #5 춤 디귿 자 집으로 우리가 출생헌 집인데.(참 디귿 자 집으로 우리가 출생한 집인데.)

108003 @ 예.(예.)

108003 #5 거기서 살아서 컷으니깐 뭐 그것을 뽄 따서 나도 그런 집을 지으레 다녀봣고.(거기서 살아서 컸으니깐 뭐 그것을 본 따서 나도 그런 집을 지으러 다녀봤고.)

108003 @ 예, 게믄 안거리 잇고.(예, 그러면 안채 있고.)

108003 #1 밧거리 잇고.(바깥채 있고.)

108003 #5 모커리, 모커리가 잇고 밧거리가 잇는데, 나가 자란 곳은 모커리라.(곁채, 곁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는데, 내가 자란 곳은 곁채야.)

108003 @ 아, 모커리예? 게믄 제일 부잣집들은 어떤 집들이 이십니까?(아, 곁채요? 그러면 제일 부잣집들은 어떤 집들이 있습니까?)

108003 #5 여기는 대부분 그런 식인데.(여기는 대부분 그런 식인데.)

108003 @ 아아.(아아.)

108003 #5 디귿 자가 그러니까 디귿 자가 뒈지.(디귿 자가 그러니까 디귿 자가 되지.)

108003 @ 아, 디귿 자예. 대귿 자 헐 때는 안거리.(아, 디귿 자요. 대귿 자 할 때는 안채.)

108003 #5 으, 모커리.(으, 곁채.)

108003 @ 모커리.(곁채.)

---

299) '먼문'은 집에서 떨어진 곳에 단 문. 지역에 따라서 '이문간'이라고도 한다.

108003 #5 양쪽에 모커리가 뒈니까. 부억간까지 따로 허니까.(양쪽에 곁채가 되니까. 부엌간까지 따로 하니까.)

108003 @ 아, 부억간도 모커리엔 헙니까?(아, 부엌간도 곁채라고 합니까?)

108003 #5 부억간이라고 허는데 것도 집 형태는 모커리라.(부엌간이라고 하는데 것도 집 형태는 곁채야.)

108003 @ 모커리예. 밧거리 형식이 아니라 모커리예. 아까 먼문은 뭐우과?(곁채요. 바깥채 형식이 아니라 곁채요. 아까 '먼문'은 뭡니까?)

108003 #5 먼문은 그 대문.('먼문'은 그 대문.)

108003 @ 예.(예.)

108003 #5 사람이 저런 식으로 것이 이.(사람이 저런 식으로 것이 이.)

108003 #1 올레에서 곧 들어오는 문.(오래에서 곧 들어오는 문.)

108003 #5 올레에서 들어오면은 대부분 다 그 좀 살앗다 허는 집은 그런 그 대문간이 잇어.(오래에서 들어오면 대부분 다 그 좀 살았다 하는 집은 그런 그 대문간이 있어.)

108003 @ 으, 그거를 여기에서는 먼문이렌 헤서예?(으, 그거를 여기에서는 '먼문'이라고 했다고요?)

108003 #5 먼문.('먼문'.)

108004 @ 예, 알앗수다. 그 게믄 삼간집 짓어봣수가? 사간집 짓어봣수가?(예, 알았습니다. 그 그러면 삼간집 지어봤습니까? 사간집 지어봤습니까?)

108004 #5 아, 집은 여러 가지 잇엇으니까 보통은 여긴 사삼사건 후에 지은 집이니까.(아, 집은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보통은 여긴 사삼사건 후에 지은 집이니까.)

108004 @ 예.(예.)

108004 #5 보통 삼간.(보통 삼간.)

108004 @ 예.(예.)

108004 #5 오간짜리는 이 양반네 집 그렇지.(오간짜리는 이 양반네 집 그렇지.)

108004 @ 오간짜리도 거 아무나 사는 집 아닌디예.(오간짜리도 거 아무나 사는 집 아닌데요.)

108004 #5 어.(어.)

108004 @ 삼간집 짓는 과정예, 안거리부터 헤영 한번 짓어봅주.(삼간집 짓는 과정요, 안채부터 해서 한번 지어봅지요.)

108004 #5 안거리는 보통 이 집을 지을랴고 허면 대들포라 우선 헤서 그거부터 시작을 헤서 집을 짓는데.(안채는 보통 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대들보라 우선 해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짓는데.)

108004 @ 예.(예.)

108004 #5 거 삼간집인 경우는 대들포가 두 개.(거 삼간집인 경우는 대들보가 두 개.)

108004 @ 예.(예.)

108004 #5 그렇게 헤서 그걸 세우면서 이제 츰 날짜를 것도 세우니까.(그렇게 해서 그걸 세우면서 이제 참 날짜를 것도 세우니까.)

108004 @ 예, 택일도 허고예? 어떤 날 세와마씨?(예, 택일도 하고요? 어떤 날 세워요?)

108004 #5 어떤 날이 아니고. 그건 아무나 하는 택일이 아니니 때문에.(어떤 날이 아니고. 그건 아무나 하는 택일이 아니니 때문에.)

108004 @ 예.(예.)

108004 #5 어디 그, 츰 저 택일 허는 곳에 가서 택일을 헤와부니까 여기서 아무 세와지는 게 아니니까.(어디 그, 참 저 택일 하는 곳에 가서 택일을 해와버리니까 여기서 아무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108004 #1 쉽게 말허민 생기에 맞고.(쉽게 말하면 생기에 맞고.)

108004 @ 예.(예.)

108004 #1 에, 그 천화일 ᄀᆞ튼 날을 빼고.(에, 그 천화일 같은 날을 빼고.)

108004 @ 예.(예.)

108004 #1 이제 그 날이 이제 집짓기 옛날부터 내려온 날이 잇으니까.(이제 그 날이 이제 집짓기 옛날부터 내려온 날이 있으니까.)

108004 @ 예.(예.)

108004 #1 그 날을 찾아서.(그 날을 찾아서.)

108004 @ 으, 경 헤영은에 하는 거라예?(으,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요?)

108004 #1 으.(으.)

108004 @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젠 허면 대들포 하면 아까 삼간집 허믄 두 개 마씨? 어떻게 어떻게 뒈는 거우과? 만약에 집을 허면?(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대들보 하면 아까 삼간집 하면 두 개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집을 하면?)

108004 #5 이것이 앞에니까 이쪽 사면 이것이 앞이니까 요쪽이 대들포가 잇고 요쪽이 잇고 헤서 두 개.(이것이 앞이니까 이쪽 서면 이것이 앞이니까 요쪽이 대들보가 있고 요쪽이 있고 해서 두 개.)

108004 @ 예.(예.)

108004 @ 두 개?(두 개?)

108004 #5 칸이 세 개니까. 하나, 둘, 셋 헤서.(칸이 세 개니까. 하나, 둘, 셋 해서.)

108005 @ 아, 그러면 칸에 따라 대들포가 잇는 거구나예? 만약에 사간집이면 대들포가 세 개가 잇는 거라예? 그러면은 여기도 주칫돌 같은 것도 놉니까?(아, 그러면 칸에 따라 대들보가 있는 거군요? 만약에 사간집이면 대들보가 세 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주춧돌 같은 것도 놉니까?)

108005 #5 주칫돌이 그거야 물론이주.(주춧돌이 그거야 물론이지.)

108005 @ 아. 건 어떻게. 대들포 세운 다음에 어떻게.(아. 건 어떻게. 대들보 세

운 다음에 어떻게.)

108005 #5 셉기 전에. 기둥 살 자리에 주칫돌을 전부 으.(세우기 전에. 기둥 살 자리에 주춧돌을 전부 으.)

108005 #1 다져서.(다져서.)

108005 #5 땅을 다져 가지고.(땅을 다져 가지고.)

108005 @ 맨 처음 허는 게 땅 다지는 것부터 헤야 헐 거 아니라예? 그것부터 골아줍서. 그거부떠 순서대로 집을 짓어봅서.(맨 처음 하는 게 땅 다지는 것부터 해야 할 거 아닌가요? 그것부터 말해 주십시오. 그것부터 순서대로 집을 지어보십시오.)

108005 #5 그러니까 그건 츰 그림이나 설명해야 마땅허겟는데.(그러니까 그건 참 그림이나 설명해야 마땅하겠는데.)

108005 @ 여기 그리면 뒈마씨.(여기 그리면 돼요.)

108005 #5 아니.(아니.)

108005 @ 영 허영은에. 여기를 집 짓어보쿠다.(이렇게 해서. 여기를 집 지어보겠습니다.)

108005 @ 음. 예.(음. 예.)

108005 #5 삼간집인 경우.(삼간집인 경우.)

108005 @ 예.(예.)

108005 #5 삼간집인 경우 여기 그 말목을 씰 맬 말목을 박앗어.(삼간집인 경우 여기 그 말목을 쓸 맬 말뚝을 박았어.)

108005 @ 예.(예.)

108005 #5 씰을 먼저 쳐.(실 먼저 쳐.)

108005 @ 예, 말목이렌 헤예. 씰을 치고.(예, 말뚝이라고 한다고요. 실을 치고.)

108005 #5 사방에다 씰을 쳐.(사방에다 실을 쳐.)

108005 @ 사방에예, 예. 사방 귀를 전부 말목이렌 헙니까? 말목, 예?(사방에요, 예. 사방 귀를 전부 말뚝이라고 합니까? 말뚝, 예?)

108005 #5 그렇게 헤서 주치 앉을 자리를 정헤.(그렇게 해서 주추 앉을 자리를 정해.)

108005 @ 예. 예.(예. 예.)

108005 #5 요렇게 헤서.(요렇게 해서.)

108005 #1 이 가운디도 지둥 저 방드레 들어가는.(이 가운데도 기둥 저 방으로 들어가는.)

108005 #5 여기까지 이제 전부 말목을 쳐 놓면 이건 대들보가 아니니까.(여기까지 이제 전부 말뚝을 쳐 놓으면 이건 대들보가 아니니까.)

108005 @ 예.(예.)

108005 #5 이렇게 헤서 이제.(이렇게 해서 이제.)

108005 @ 주치가 게믄 여덟 군데 뒈는 거우다예?(주추가 그러면 여덟 군데 되

는 거네요?)
108005 #5 이것은 신식 집이고, 옛날 집이 따로 잇어.(이것은 신식 집이고, 옛날 집이 따로 있어.)
108005 @ 예.(예.)
108005 #5 옛날 집은 또 일로 나가는 거야.(옛날 집은 또 이리로 나가는 거야.)
108005 @ 아.(아.)
108005 #5 이렇게 나가는데.(이렇게 나가는데.)
108005 @ 예.(예.)
108005 #5 이건 대들보 지둥이고.(이건 대들보 기둥이고.)
108005 @ 요게 요게고예? 대들보가 여기하고 여기우과?(요게 요거고요? 대들보가 여기하고 여깁니까?)
108005 #4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05 @ 여기가 대들포예?(여기가 대들보요?)
108005 #1 요게 대들포고.(요게 대들보고.)
108005 #5 그 다음은 퉷지둥이라고 해서 퉷도리로 해서 밑으로 또 나가는 거라.(그 다음은 툇기둥이라고 해서 툇도리로 해서 밑으로 또 나가는 거야.)
108005 @ 예.(예.)
108005 #1 저 사이에 난간이고.(저 사이에 난간이고.)
108005 @ 음.(음.)
108005 #5 게믄 여긴 난간이라고 헤가지고 요것보다 층이 야트게.(그러면 여긴 난간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보다 층이 얕게.)
108005 @ 예.(예.)
108005 #5 층이 야트게 에 여기서 말허민 요런 식으로 기둥이 사는데 요런 식으로.(층이 얕게 에 여기서 말하면 요런 식으로 기둥이 서는데 요런 식으로.)
108005 @ 네.(네.)
108005 #5 요건이 대들포가 나가는 것이고. 요건 퉷지둥이라고 헤가지고.(요건 대들보가 나가는 것이고. 요건 툇기둥이라고 해가지고.)
108005 @ 예.(예.)
108005 #5 이거 기둥이 사는데.(이거 기둥이 서는데.)
108005 @ 퉷지둥예? 이게?(툇기둥요? 이게?)
108005 #5 이게 퉷기둥.(이게 툇기둥.)
108005 @ 아, 이렇게 헤서. 으, 퉷기둥예, 예?(아, 이렇게 해서. 으, 툇기둥요, 예?)
108005 #1 즉 말허자면 대들포 이은 거.(즉 말하자면 대들보 이은 거.)
108005 @ 아.(아.)
108005 #5 여기서 저기 난간 나가는 식으로 나간 거주.(여기서 저기 난간 나가는 식으로 나간 거지.)

108005 @ 예, 예, 예. 그래서 퉷기둥은 이 옆으로 대들포 옆으로 헤서 세운 거라예?(예, 예, 예. 그래서 툇기둥은 이 옆으로 대들보 옆으로 해서 세운 거라고요?)
108005 #5 대들포허고 막바로 나가. 막바로.(대들보하고 맞바로 나가. 맞바로.)
108005 @ 막바로, 바로 앞으로.(맞바로, 바로 앞으로.)
108005 #1 대들포 이은 거.(대들보 이은 거.)
108005 @ 요기 바로 이어서.(요기 바로 이어서.)
108005 #5 게믄 보통 이제 방들은 요런 식으로 가르는데.(그러면 보통 이제 방들은 요런 식으로 가르는데.)
108005 @ 옛날 집예, 예?(옛날 집요, 예?)
108005 #5 이건 마루.(이건 마루.)
108005 @ 예, 여기를 마루를 뭐렌 헙니까?(예, 여기를 마루를 뭐라고 합니까?)
108005 #1 상방.(대청.)
108005 @ 상방예. 아 가운디로 마루하고.(대청요. 아 가운데로 마루하고.)
108005 #5 여기에는?(여기에는?)
108005 #1 고팡.(고방.)
108005 #5 앞에 저 뭐 방.(앞에 저 뭐 방.)
108005 @ 예, 예, 방.(예, 예, 방.)
108005 #5 이 뒤에는 곳간이지. 여기서 말허면.(이 뒤에는 곳간이지. 여기서 말하면.)
108005 #1 고팡.(고방.)
108005 #5 고팡.(고방.)
108005 @ 이 동네선 고팡이렌 헙니까? 고팡.(이 동네선 '고팡'이라고 합니까? '고팡'.)
108005 #5 여기도 방.(여기도 방.)
108005 @ 예, 방.(예, 방.)
108005 #5 여긴 부억.(여긴 부엌.)
108005 @ 예, 부억을 여기서 정지?(예, 부엌을 여기서 '정지'?)
108005 #1 정지.('정지'.)
108005 @ 예.(예.)
108005 #5 삼간집은 대부분 이렇게 나가고.(삼간집은 대부분 이렇게 나가고.)
108005 @ 방 두 개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불을 때게 뒈면은 만약에 굴묵을 하거나 하면 어디로 하는 거우과?(방 두 개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을 때게 되면 만약에 '굴묵'을 하거나 하면 어디로 하는 겁니까?)
108005 #5 이것이. 욜로 요 사이.(이것이. 욜로 요 사이.)
108005 @ 아, 여기 아까 이제 중간에.(아, 여기 아까 이제 중간에.)
108005 #5 게난 요건 난간으로 나가고.(그러니까 요건 난간으로 나가고.)
108005 @ 예.(예.)

108005 #5 요기는 뒷난간[300]이라고 헤가지고 작게 나가는 디도 잇고 크게 나가는 디도 잇고.(요기는 '뒷난간'이라고 해가지고 작게 나가는 데도 있고 크게 나가는 데도 있고.)

108005 @ 예.(예.)

108005 #5 방 때는 것은 욜로 때는 디가 만허여.(방 때는 것은 욜로 때는 데가 많아.)

108005 @ 예.(예.)

108005 #5 밖으로 돌아서.(밖으로 돌아서.)

108005 @ 밖으로 돌아서예. 아까 이거 부억이니까 일로 허겟다예?(밖으로 돌아서요. 아까 이거 부엌이니까 이리로 하겠네요?)

108005 #5 아, 여기.(아, 여기.)

108005 @ 여기로 헤서, 이건 굴묵예?(여기로 해서, 이건 '굴묵'요?)

108005 #1 굴묵[301].('굴묵'.)

108005 #5 부억문이 일로 나는 디도 잇고 일로 나는 디도 잇고.(부엌문이 일로 나는 데도 있고 일로 나는 데도 있고.)

108005 @ 아, 굴묵 잇는 쪽으로 부억문이 나는 경우도 잇어예? 게믄 그거는 정짓문?(아, '굴묵' 있는 쪽으로 부엌문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부엌문?)

108005 #5 여기는 방문이고.(여기는 방문이고.)

108005 @ 예, 방문예?(예, 방문요?)

108005 #5 게믄 요딘 난간이 질게 나가는 디가 요즘 와서는 요기를 짤라서 방을 크게 만드는 디도 잇긴 잇는데.(그러면 요긴 난간이 길게 나가는 데가 요즘 와서는 요기를 잘라서 방을 크게 만드는 데도 있긴 있는데.)

108005 @ 예.(예.)

108005 #1 옛날 집이난에 지금 듣는 건.(옛날 집이니까 지금 듣는 건.)

108007 @ 옛날식으로 하면 이렇게 주로 방이 삼간집이면 방이 두 개가 이시구나예. 그러면은 방도 그 안방은 어느 게 돼는 거우과? 큰방.(옛날식으로 하면 이렇게 주로 방이 삼간집이면 방이 두 개가 있군요. 그러면 방도 그 안방은 어느 게 되는 겁니까? 큰방.)

108007 #5 안방은.(안방은.)

108007 @ 부모님들이 받는 방.(부모님들이 받는 방.)

108007 #5 고팡 부뜬 딜 안방을 쓰는데.(고방 붙은 델 안방을 쓰는데.)

108007 @ 고팡 부뜬 디. 게믄 안방이렌 헙니까? 여기선 뭐렌 불러마씨?(고방 붙은 데. 그러면 안방이라고 합니까? 여기선 뭐라고 불러요?)

108007 #5 큰방.(큰방.)

---

300) '뒷난간'은 마루 뒤쪽으로 이어 만든 난간을 말한다.

301)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108007 #1 족은구들 큰구들.(작은방 큰방.)

108007 @ 아, 큰구들 맞수다.(아, 큰방 맞습니다.)

108007 #1 으, 족은구들 큰구들.(으, 작은방 큰방.)

108007 @ 고팡.(고방.)

108007 #5 옛날에 곳간에 쌀 같은 거 놓면은 잊어버릴까 큰방에 부쳐서 헷다고 허는데. 요즘 와서는.(옛날에 곳간에 쌀 같은 거 놓으면 잊어버릴까 큰방에 붙여서 했다고 하는데. 요즘 와서는.)

108007 @ 큰구들 족은구들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정짓간도 따로 헌덴 헌 거는 무신 말이우과?(큰방 작은방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부엌간도 따로 한다고 한 거는 무슨 말입니까?)

108007 #5 요것이 이렇게 허면은.(요것이 이렇게 하면.)

108007 @ 예.(예.)

108007 #1 요까지 방이 뒈어버리면 부억 그 정짓간을 방을 만들아불면은 이젠 그 정지가 엇으니까.(요까지 방이 되어버리면 부엌 그 부엌간을 방을 만들아버리면 이젠 그 부엌이 없으니까.)

108007 @ 예.(예.)

108007 #1 거 옆으로, 밖으로 나강은에 그건 셍각허는 집.(거 옆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건 생각하는 집.)

108007 @ 예.(예.)

108007 #1 네가 방에 안 싸이고 그 네가 전부 밧게서만 음식을 만들어도 딴 디서 허니까.(연기가 방에 안 쌓이고 그 연기가 전부 밖에서만 음식을 만들어도 딴 데서 하니까.)

108007 #5 대문이 일로 들어오는 디가 잇고. 먼문간[302].(대문이 일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 '먼문간'.)

108007 @ 먼문간예?('먼문간'요?)

108007 #5 이것은 올레라고 헤서 이렇게 들어오는.(이것은 오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108007 @ 여긴 올레예? 여기는 먼문간예.(여긴 오래요? 여기는 '먼문간'요.)

108007 #5 여기는 부엌 허는 디가 잇고.(여기는 부엌 하는 데가 있고.)

108007 @ 아, 예. 이 따로 정지렌 헙니까? 아니면 정짓간 헙니까? 옛날에.(아, 예. 이 따로 부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부엌간 합니까? 옛날에.)

108007 #5 정짓간이주, 정짓간.(부엌간이지, 부엌간.)

108007 @ 정짓간으로, 예, 예. 정짓간예. 정짓간 하면 솟이라든가 이렇게 앚지는 거 어떤 식으로 앚지는 거 골아줍서?(부엌간으로, 예, 예. 부엌간요. 부엌간 하면 솥이라든가 이렇게 앉히는 거 어떤 식으로 앉히는 거 말해주십시오?)

108007 #5 건 방에 따라서 틀리는데. 요렇게 헤서 이렇게 앚지고 허는 디가 잇

302) '먼문간'은 집의 입구에 대문 곁에 있는 집채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이문간'이라고도 한다.

는데.(건 방에 따라서 다르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앉히고 하는 데가 있는데.)

108007 @ 고대로 잇지예? 아, 그럼 이 정짓간 허는 디도 방 멘들기도 헤마씨?(고대로 있지요? 아, 그럼 이 부엌간 하는 데도 방 만들기도 해요?)

108007 #5 그런 디는 별반 없는데, 춤 요 근래에 이젠 멧 년 뒈시니? 흔 ᄉᆞ십 년 뒈여신가. 그때 뒈여서는 아이덜 키우기 위헤서는 방 떨어내어가지고 방 멘드는 디가 잇어낫주.(그런 데는 별반 없는데, 참 요 근래에 이젠 몇 년 되었니? 한 사십 년 되었는가. 그때 되어서는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는 방 떨어내어가지고 방 만드는 데가 있었었지.)

108007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8007 #5 방이 모자라니까.(방이 모자라니까.)

108005 @ 예, 경 허믄 아까 우리 이거는 바닥을 헌 거잖아예?(예,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이거는 바닥을 한 거잖아요?)

108005 #5 으, 바닥.(으, 바닥.)

108005 @ 바닥 말고 이런 기둥이니 뭐 위에 이름들도 잇일 거 아니우과?(바닥 말고 이런 기둥이니 뭐 위에 이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108005 #5 으.(으.)

108005 @ 예. 그 이름들을 좀 아는 대로 ᄀᆞᆯ아줘 봅서?(예. 그 이름들을 좀 아는 대로 말해줘 보십시오?)

108005 #5 지금 그건 현장 보면서 이야기헤사 좋겟는데.(지금 그건 현장 보면서 이야기해야 좋겠는데.)

108005 @ 예, 삼춘 게믄 집의서예?(예, 삼촌 그러면 집에서요?)

108005 #1 여기서 ᄀᆞᆫ는 대로만 ᄀᆞᆯ아봐. 지둥.(여기서 말하는 대로만 말해봐. 기둥.)

108005 @ 일단은 ᄀᆞᆫ 다음에 강 ᄀᆞᆯ아주민 뒐 거.(일단은 말한 다음에 가서 말해 주면 될 거.)

108005 #1 아래 주칫돌 놩. 에, 여기서 이거 믄 주칫돌 삼칸집인 경우에 주칫돌 으덥 개.(아래 주춧돌 놓아서. 에, 여기서 이거 몽땅 주춧돌 삼간집인 경우에 주춧돌 여덟 개.)

108005 @ 으덥 개예?(여덟 개요?)

108005 #1 으덥 개. 또 이 중간에도 여기 주칫돌을 놔야 뒈.(여덟 개. 또 이 중간에도 여기 주춧돌을 놔야 돼.)

108005 #5 이거 이디 이 고비마다 이거 다 놓게 뒌 거.(이거 여기 이 굽이마다 이거 다 놓게 된 거.)

108005 @ 예.(예.)

108005 #1 경허면 열 개, 열하나 열두 개. 삼간집인 경우에.(그렇게 하면 열 개, 열하나 열두 개. 삼간집인 경우에.)

108005 @ 삼간집인 경우는 주칫돌이 열두 개.(삼간집인 경우는 주춧돌이 열두

개.)
108005 #1 열두 개.(열두 개.)
108005 @ 그 다음에 기둥은 멧 개가 세와지는 거우과?(그 다음에 기둥은 몇 개가 세워지는 겁니까?)
108005 #5 주칫돌 들어가는 딘 다 들어.(주춧돌 들어가는 덴 다 들어.)
108005 #1 여기 퉷지동.(여기 툇기둥.)
108005 #5 이것도 다 들어가게 뭰 거.(이것도 다 들어가게 된 거.)
108005 @ 예, 퉷지둥은 멧 개가 뒈는 거우과?(예, 툇기둥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08005 #1 아, 주치가 더 들어가겟구나. 퉷지동.(아, 주추가 더 들어가겠구나. 툇기둥.)
108005 @ 퉷지둥까지 잇으니까.(툇기둥까지 있으니까.)
108005 #5 주치도 똑 마찬가지 들어가는데.(주추도 똑 마찬가지 들어가는데.)
108005 @ 예.(예.)
108005 #1 이것이 일로 나와근에.(이것이 일로 나와서.)
108005 @ 예.(예.)
108005 #5 일로 담아불어 벽장이라고 헤가지고.(일로 담아버려 벽장이라고 해가지고.)
108005 #1 벡장.(벽장.)
108005 @ 예, 벡장 잇어예? 예.(예, 벽장 있지요? 예.)
108005 #1 벡장.(벽장.)
108005 #5 이렇게 헤여버리면은 요레는 퉤가 합쳐서 방에서 합쳐서 헤부니까 없고.(이렇게 해버리면 요리로는 퇴가 합쳐서 방에서 합쳐서 해버리니까 없고.)
108005 @ 예 예 예 예 예. 벡장 이렇게 잇는 거고.(예 예 예 예 예. 벽장 이렇게 있는 거고.)
108005 #5 경 허믄 이젠 그거 설명허젠 허민.(그렇게 하면 이젠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108005 @ 지붕 모양이나 이제.(지붕 모양이나 이제.)
108005 #1 지붕.(지붕.)
108005 #5 영 허민 이건 ᄃᆞ리라고 해.(이렇게 하면 이건 도리라고 해.)
108005 @ 예.(예.)
108005 #5 ᄃᆞ리, ᄃᆞ리.(도리, 도리.)
108005 @ 이 부분이 ᄃᆞ리라예? 예.(이 부분이 도리라고요? 예.)
108005 #5 이 중간에도 이것이 전부 들어가는 거.(이 중간에도 이것이 전부 들어가는 거.)
108005 @ 예, 그건 뭐렌 헙니까? 이렇게.(예, 그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108005 #5 이건 아랫ᄃᆞ리는 하, 알ᄃᆞ리, 알ᄃᆞ리엔도 허곡 하도리엔도 허는데.(이

건 아랫도리는 많아, 아랫도리, 아랫도리라고도 하고 '하도리[下-]'라고도 하는데.)

108005 @ 에.(에.)

108005 #5 이거는 중간ᄃᆞ리[303]주.(이거는 중도리지.)

108005 @ 중ᄃᆞ리 게믄 중ᄃᆞ리겟다예? 중간ᄃᆞ리예.(중도리 그러면 중도리겠네요? '중간도리'요.)

108005 #5 요것은 상ᄆᆞ르.(요것은 용마루.)

108005 @ 예, 상ᄆᆞ르. 지붕 우에 상ᄆᆞ르.(예, 용마루. 지붕 위에 용마루.)

108005 #5 요것은 추년.(요것은 추녀.)

108005 @ 예.(예.)

108005 #1 추년서리.(추녀.)

108005 @ 예, 추년.(예, 추녀.)

108005 #1 추년, 추년 허민 거기 서리가 들어가고.(추녀, 추녀 하면 거기 서까래가 들어가고.)

108005 @ 예.(예.)

108005 #1 낭.(나무.)

108005 @ 예, 예.(예, 예.)

108005 #5 이러게 헌 다음에는 이젠 또 이것이 서리. 서리는 이렇게 좀 나오게.(이러게 한 다음에는 이젠 또 이것이 서까래. 서까래는 이렇게 좀 나오게.)

108005 @ 서리는 이렇게 나가게예? 어.(서까래는 이렇게 나가게요? 어.)

108005 #5 이런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은 안네 들어가서. 여기 문.(이런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은 안에 들어가서. 여기 문.)

108005 #1 아래 장지벙[304].(아래 '장지방'.)

108005 @ 음.(음.)

108005 #5 요거 이 형태가 장지방 이거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거 이 형태가 '장지방' 이거 다 들어가는 것이고.)

108005 @ 장지방예? 아.('장지방'요? 아.)

108005 #1 우에 포.(위에 보.)

108005 @ 으.(으.)

108005 #5 포 아래는.(보 아래는.)

108005 @ 요런 게 장지방이렌 허는 거우과?(요런 게 '장지방'이라고 하는 겁니까?)

108005 #5 아니, 이건 말고 이거 밑에 들어가는 거 잇어.(아니, 이건 말고 이거 밑에 들어가는 거 있어.)

108005 @ 아, 장지방은 바로 지방 밑으로 헤서 쭉 논 것을 장지방이렌 허는구

303) 중간도리는 동자기둥에 얹어서 서까래나 지붕널을 받치는 가로재를 말한다.

304) '장지벙'은 기둥 하루를 돌아가며는 하인방의 일종이다. 한반도의 하방은 마루 높이로 들어가지만 제주도에서는 거의 지면에 맞닿을 정도로 아주 낮고 튼튼하게 돌려진다. 사람에 따라서는 '장지방'이라고도 한다.

나예?(아, ‘장지방’은 바로 지방 밑으로 해서 쭉 놓은 것을 ‘장지방’이라고 하는군요?)

108005 #1 기난에.(기니까.)

108005 @ 예, 예, 예. 게믄 그거는 다 바닥 안으로 들어가부는 거네예?(예,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다 바닥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거네요?)

108005 #5 어.(어.)

108005 @ 바닥 안으로 헤서 장지방이고.(바닥 안으로 해서 ‘장지방’이고.)

108005 #5 그 다음 이것이 잇주. 이거 문 다는 거.(그 다음 이것이 있지. 이거 문 다는 거.)

108005 @ 예.(예.)

108005 #5 이건 문입장[305]이라고 헤가지고.(이건 ‘문입장’이라고 해가지고.)

108005 @ 문입장예? 그러면은?(‘문입장’요? 그러면?)

108005 #5 그것이 방 들어가는 데마다 이것이 두 개씩 사게 뭰 거.(그것이 방 들어가는 데마다 이것이 두 개씩 서게 된 거.)

108005 @ 예, 문입장이잖아예. 그러면 문입장을 여기는 뭐렌 헙니까?(예, ‘문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문입장’을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8005 #5 벽.(벽.)

108005 #1 퉤기.(외(椳).)

108005 @ 퉤기 헤갖고 옛날 으.(외 해갖고 옛날 으.)

108005 #5 흙 발르기 전에는 이건 퉤기.(흙 바르기 전에는 이건 외.)

108005 @ 예.(예)

108005 #5 흑 바르민 벽.(흙 바르면 벽.)

108005 @ 아, 흑 바르민 벡이 뒈는 거고. 그 전에는 퉤기 흑 바르기 전에는 퉤기.(아, 흙 바르면 벽이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외 흙 바르기 전에는 외.)

108005 #5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얽어서 흑 바르는 거니까 퉤기.(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얽어서 흙 바르는 거니까 외.)

108005 @ 예, 예, 예. 그 퉤기는 무신 낭으로 헷수가?(예, 예, 예. 그 외는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108005 #5 대로 많이 허는데, 대, 대나무.(대로 많이 하는데, 대, 대나무.)

108005 @ 아아, 대나무로예? 아. 이렇게 헤서 이제.(아아, 대나무로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108005 #1 대나무 허영 우물 정 자로 딱 여까놩 흑 부찌면은.(대나무 해서 우물 정 자로 딱 엮어놓아서 흙 붙이면.)

108005 #5 요 이 우에도 서슬[306]이라고 헤가지고 것도 대나무로 얽어. 드리 우에.(요 이 위에도 발비라고 해가지고 것도 대나무로 얽어. 도리 위에.)

---

305) ‘문입장’은 문을 달기 위하여 간가름도리와 장지틀 사이에 세우는 세로 부재다.

306)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표준어 ‘발비’에 해당하는 말이다.

108005 @ 드리 우에예. 아, 서슬.(도리 위에요. 아, 발비.)
108005 #1 지붕. 지붕.(지붕. 지붕.)
108005 @ 지붕에 서슬.(지붕에 발비.)
108005 #1 일차는 서슬 헤서 대나무로 여끄고.(일차는 발비 해서 대나무로 엮고.)
108005 @ 예.(예.)
108005 #5 그 다음은.(그 다음은.)
108005 #1 흑 올리고 고디[307] 올려.(흙 올리고 새우 올려.)
108005 #5 고디라고 흑, 흑 뀌어가지고 멘짝[308] 바르는 거.(새우라고 흙, 흙 이겨가지고 '멘짝' 바르는 거.)
108005 @ 예, 그걸 고디렌 헤마씨?(예, 그걸 새우라고 해요?)
108005 #1 고디.(새우.)
108005 @ 고디렌 헤마씨?(새우라고 해요?)
108005 #1 그것은 방한 방서 어음도 방지하고 추운 것도 방지하고 이 흑을 거기 두텁게 깔아놓면 게서 이제 그 여라 가지가.(그것은 방한 방서 추위도 방지하고 추운 것도 방지하고 이 흙을 거기 두텁게 깔아놓으면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108005 @ 예.(예.)
108005 #1 거 허민 즉 말하자면 옛날에 토굴과 마찬가지로 만든 거 닮아.(거 하면 즉 말하자면 옛날에 토굴과 마찬가지로 만든 거 같아.)
108005 @ 아무래도.(아무래도.)
108005 #5 그 다음에는 새로 더프는 거.(그 다음에는 새로 덮는 거.)
108005 @ 예, 예.(예, 예.)
108005 #5 그것이믄 이제 집은 다 끗나는 거.(그것이면 이제 집은 다 끝나는 거.)
108005 @ 아, 다 끝나는 거우과?(아, 다 끝나는 겁니까?)
108005 #1 겐디 저 이 저 드리덜토 다 골아사여.(그런데 저 이 저 도리들도 다 말해야해.)
108005 #5 아까 드리덜은 이야기헷는데 이것이 잇구나.(아까 도리들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있구나.)
108005 #1 아, 연필, 으.(아, 연필, 으.)
108005 #4 이것이 대들포.(이것이 대들보.)
108005 @ 예.(예.)
108005 #1 집에 대들포. 우리 집 대들포. 저 놈은 우리 집 대들포 허영근엥에 말허는 게.(집에 대들보. 우리 집 대들보. 저 놈은 우리 집 대들보 해서 말하는 게.)
108005 @ 예, 예.(예, 예.)

307) '고디'는 산자 위에 바르는 흙을 말한다. 표준어 '새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308) '멘짝'은 평평하고 반드러운 모양을 말한다.

108005 #5 요것이 잇는데.(요것이 있는데.)
108005 @ 예, 그 옆에?(예, 그 옆에?)
108005 #5 요거. 요거. 이건 동자[309].(요거. 요거. 이건 '동자'.)
108005 @ 동자예, 세 개가 다 동자우과?('동자'요, 세 개가 다 '동자'입니까?)
108005 #1 예.(예.)
108005 @ 어, 이건 동자. 아까 이게 대들포?(어, 이건 '동자'. 아까 이게 대들보?)
108005 #5 어. 이건 서리.(어. 이건 서까래.)
108005 @ 요거는 아까 서리예? 이렇게 지붕 옆에 잇으면 이렇게 삼각형 잇으면 그거 아니라예? 서리.(요거는 아까 서까래요? 이렇게 지붕 옆에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 있으면 그거 아닌가요? 서까래.)

초가지붕 이기

108026 @ 그 다음에 집 밖으로 헤갖고 그렇게 헤서 지붕을 올릴 거 아니우과예? 맨 지붕 올리젠 허면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마씨? 지붕 올릴 때. 뭐 새를 먼저 끌앙 허든지 어욱을 끌든지 허는 거 잇지 아녀우과?(그 다음에 집 밖으로 해갖고 그렇게 헤서 지붕을 올릴 거 아닙니까요? 맨 지붕 올리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요? 지붕 올릴 때. 뭐 띠를 먼저 깔아서 하든지 억새를 깔든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8026 #5 흑 깔앗으니까.(흙 깔았으니까.)
108026 @ 예.(예.)
108026 #1 흑 우에 기냥 새를 올려서 더프는 거.(흙 위에 그냥 띠를 올려서 덮는 거.)
108026 @ 고디 헤나면 바로 헤마씨?(새우 해나면 바로 해요?)
108026 #1 축담도 답고.(지대도 쌓고.)
108026 @ 예, 축담도. 서리 헤영은에 이제 하면 보통 새 헐 때예, 새 올릴 때는 어느 정도로 올려마씨?(예, 지대도. 서까래 해서 이제 하면 보통 띠 할 때요, 띠 올릴 때는 어느 정도로 올려요?)
108026 #5 그것은 처음에는 뭐 얇은데 해가 갈수록 자꾸 우에 더프니까 높아지는 거주.(그것은 처음에는 뭐 얇은데 해가 갈수록 자꾸 위에 덮으니까 높아지는 거지.)
108026 @ 음.(음.)
108026 #5 어느 정도라고 이건 이야기헐 수가 없지. 비가 안 셀 정도로 더프는 거니까.(어느 정도라고 이건 이야기할 수가 없지. 비가 안 셀 정도로 덮는 거니까.)
108026 @ 아아. 그 새 더프는 거를 여기선 뭐렌 골읍니까?(아아. 그 새 덮는 거를 여기선 뭐라고 말합니까?)

309) 여기에서 '동자'에 대한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108026 #1 이는 거. 일언.(이는 거. 이었어.)

108026 #5 지붕 인다고 허는데.(지붕 인다고 하는데.)

108026 @ 아, 지붕 인다고예? 게믄 지붕 일젠 헤도 이제 그 단계가 이실 거 아니우과? 강 새도 헹 왕 헤야 뒈고.(아, 지붕 인다고요? 그러면 지붕 이려고 해도 이제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띠도 해서 와서 해야 되고.)

108026 #5 그렇주. 줄. 줄이엔 헌 것이 또 잇주.(그렇지. 줄. 줄이라고 한 것이 또 있지.)

108026 @ 예, 예.(예, 예.)

108026 #5 그것도 허젠 허믄 지붕 눌 누는 거. 그것도 허젠 허믄 옛날은 줄 노는 거는 옛날은 각단[310]이라고 헤서 새가 짧은 거.(그것도 하려고 하면 지붕 가리가리는 거. 그것도 하려고 하면 옛날은 줄 노는 거는 옛날은 '각단'이라고 해서 띠가 짧은 거.)

108026 @ 예.(예.)

108026 #5 그걸로 헤서 줄 놓고.(그걸로 해서 줄 놓고.)

108026 @ 예.(예.)

108026 #5 긴 것은 지붕 기냥 더프고.(긴 것은 지붕 그냥 덮고.)

108026 @ 예.(예.)

108026 #5 육지서는 나록찝 헤영 나라미엔 헌 거 여꺼가지고 허는데 여기는 그걸 아녀고 여기서는 기냥 뭇채 올려가지고 풀면서 더프니까. 것도 아무나 헐 수가 없어.(육지서는 볏짚 해서 이엉이라고 한 거 엮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그걸 않고 여기서는 그냥 뭇째 올려가지고 풀면서 덮으니까. 것도 아무나 할 수가 없어.)

108026 @ 그러니까예? 게영 그 지붕 일 때는 또 지붕 이는 전문가가 이실 거 아니라예? 아아, 경헤영 하고. 그 더픈 다음에는 줄로.(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지붕 일 때는 또 지붕 이는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닌가요? 아아,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덮은 다음에는 줄로.)

108026 #5 으, 건 집안 식구덜끼리 들어가지고. 줄은 뗑겨 메고 우의서 내려와 주니까 줄을.(으, 건 집안 식구들끼리 들어가지고. 줄은 당겨 매고 위에서 내려주니까 줄을.)

108026 #1 그 줄 매는 거 대ᄀᆞ라 거왕.(그 줄 매는 거 대보고 평고대.)

108026 #5 거왕이주. 거왕대라고 헷어.(평고대지. 평고대라고 했어,)

108026 #1 이 집가지에, 가지에.(이 처마에, 처마에.)

108026 #5 집가지에.(처마에.)

108026 @ 길게 하는 거예?(길게 하는 거요?)

108026 #1 쭉허게 이제 사각으로 거왕댈 메여 놓민.(쭉하게 이제 사각으로 평고댈 매어 놓으면.)

108026 @ 예.(예.)

310) '각단'은 짧은 띠를 말한다.

108026 #1 집줄[311]을 우에서 내리우민 그것에 무껑 양쪽으로 뗑경근에 단단허게.(‘집줄’을 위에서 내리면 그것에 묶어서 양쪽으로 당겨서 단단하게.)

108028 @ 건 식구덜이 그냥 허는 거고예? 그러면은 줄도 멧 개 정도 필요헤마씨?(건 식구들이 그냥 하는 거고요? 그러면 줄도 몇 개 정도 필요해요?)

108028 #5 건 집에 따라 틀리니까.(건 집에 따라 다르니까.)

108028 #1 집이 크면.(집이 크면.)

108028 #5 크민 많이 들어가고.(크면 많이 들어가고.)

108028 @ 게믄 그것도 긴 게 잇을 거고 쯔른 게 잇을 거고.(그러면 그것도 긴 게 있을 거고 짧은 게 있을 거고.)

108028 #5 긴줄이고.(‘긴줄’이고.)

108028 #1 진줄[312].(‘긴줄’.)

108028 @ 진줄.(‘긴줄’.)

108028 #1 쫄른줄[313].(‘짧은줄’.)

108028 @ 쫄른줄 맞수다. 진줄허고 쫄른줄이 필요헤마씨?(‘짧은줄’ 맞습니다. ‘긴줄’하고 ‘짧은줄’이 필요해요?)

108028 @2 삼칸집이면 멧 개씩 필요헙니까?(삼간집이면 몇 개씩 필요합니까?)

108028 @ 보통은?(보통은?)

108028 @2 삼칸집이면?(삼간집이면?)

108028 #5 삼칸집이면 많이 들어갈 거. 어디 알아지커라. 보통은.(삼간집이면 많이 들어갈 거. 어디 알겠어. 보통은.)

108028 #1 흔 이십 센치 간격.(한 이십 센티 간격.)

108028 #5 이십 센티는 좀 넘주.(이십 센티는 좀 넘지.)

108028 @ 줄 매는 게 이십 센치 간격 정도 이제 허는구나예?(줄 매는 게 이십 센티 간격 정도 이제 하는군요?)

108028 #1 촘촘허민 오래 가니까. 지붕도 아멩 ᄇᆞ름이 불어도 거 잘, 걸로 뗑겨 무끄니까.(촘촘하면 오래 가니까. 지붕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거 잘, 걸로 당겨 묶으니까.)

108026 @ 음. 게믄 집 헐 때는 멧 년에 흔 번씩 일어마씨? 여기 도련에서는.(음. 그러면 집 할 때는 몇 년에 한 번씩 이어요? 여기 도련에서는.)

108026 #5 평균은 이 년에 한 번 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허는데. 비가 세면은 중간에도 이는 수가 잇고.(평균은 이 년에 한 번 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비가 새면 중간에도 이는 수가 있고.)

108029 @ 음, 그 줄 놓젠 허면 이 도구들도 잇지 아녀우과예?(음, 그 줄 놓으려고 하면 이 도구들도 있지 않습니까요?)

---

311) ‘집줄’은 초가지붕을 인 다음에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말한다.

312) ‘진줄’은 초가지붕을 얽어맬 때 가로로 매는 줄을 말한다. 줄이 길어서 ‘진줄’이라고 한다.

313) ‘쫄른줄’은 초가지붕을 얽어맬 때 사용하는 짧은 줄을 말한다. 보통 지붕을 세로로 맬 때 사용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쯔른줄’이라고도 한다.

108029 #5 음.(음.)
108029 @ 뭣덜 잇수가?(무엇들 있습니까?)
108029 #5 호롱이[314]라고.('호롱이'라고.)
108029 @ 예.(예.)
108029 #1 훼롱이주. 훼, 훼롱이, 훼롱이.('훼롱이'지. 훼, '훼롱이', '훼롱이'.)
108029 @ 훼롱?('훼롱'?)
108029 #1 이제 돈다고 헤가지고.(이제 돈다고 해가지고.)
108029 @ 예, 호롱이엔도 허고 훼롱이.(예, '호롱이'라고도 하고 '훼롱이'.)
108029 #5 것이, 요로콤 뒈서 이거 헌 건디.(것이, 요렇게 되어서 이거 한 건데.)
108029 @ 예. 으음.(예. 으음.)
108029 #1 저 새엔 대 허영 손잡이.(저 띠라고 대 해서 손잡이.)
108029 @ 이건 손잡이예?(이건 손잡이요?)
108029 #5 이건 대.(이건 대.)
108029 #1 대 손잡이 그건.(대 손잡이 그건.)
108029 @ 아, 이게 대로.(아, 이게 대로.)
108029 #1 대 손잡이.(대 손잡이.)
108029 @ 대 손잡이고, 이거는?(대 손잡이고, 이거는?)
108029 #5 나무.(나무.)
108029 #1 나무 손잡이.(나무 손잡이.)
108029 @ 아아. 여기 영 헐 거니까? 예, 예.(아아. 여기 이렇게 할 거니까? 예, 예.)
108029 @ 이 자체가 손잡이구나예?(이 자체가 손잡이군요?)
108029 #1 으으.(으으.)
108029 @ 여기는 나무로 하고.(여기는 나무로 하고.)
108029 #5 다 나무. 이것도 나무 이것도 나무.(다 나무. 이것도 나무 이것도 나무.)
108029 @ 예, 이것도 다 나무로 뭰 거?(예, 이것도 다 나무로 된 거?)
108029 #1 그것만 대.(그것만 대.)
108029 @ 여기만 대로 이렇게 뒈는 거라예? 이건 무산고마씨?(여기만 대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건 왤까요?)
108029 #5 이거 손 감아지지 아녀게. 그냥 돌아가게.(이거 손 감아지지 않게. 그냥 돌아가게.)
108029 #1 이거 쫙 줴여놔. 이 저 통대 헤영 그디 꼽은 거니까.(이거 쫙 죄어놔. 이 저 통대 해서 거기 꽂은 거니까.)
108029 @ 예.(예.)

314) '호롱이'는 줄이나 참바 따위를 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호렝이, 훼롱, 훼롱이'라고 한다.

108029 #1 이것만 꽉 잡앙 돌릴 수 이시니까.(이것만 꽉 잡아서 돌릴 수 있으니까.)

108029 @ 아, 그러면 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속에 영 끼운 거구나예. 아아.(아, 그러면 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속에 이렇게 끼운 거군요. 아아.)

108029 #1 으, 속에 끼운 거.(으, 속에 끼운 거.)

108029 @ 대 손잡이 나무로 뒈고. 이 부분을 뭐렌 헙니까?(대 손잡이 나무로 되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108029 #1 공젱이[315].('공젱이'.)

108029 @ 이걸 공젱이에 걸어갖고 허는 거라예. 게문 이 자체를 훼롱. 또 호롱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예. 게믄 이거는 줄 저기에서 멕인덴 헙니까? 어떵?(이걸 '공젱이'에 걸어갖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를 '훼롱'. 또 '호롱'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줄 저기에서 먹인다고 합니까? 어떻게?)

108029 #1 줄 내면 줄 내면 여기서 막 꼬아강.(줄 내면 줄 내면 여기서 막 꼬아가서.)

108029 @ 예.(예.)

108029 #5 줄 낸다고 허는디 뭐.(줄 낸다고 하는데 뭐.)

108028 @ 줄 낸다. 영 영 허는 사름 줄 빈덴은 안 굽니까?(줄 낸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줄 꼰다고는 안 말합니까?)

108028 #1 줄 비는 사름.(줄 꼬는 사람.)

108028 #5 여기서 만들아주는 사름이 잇주.(여기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지.)

108028 @ 예.(예.)

108028 #1 뒤에서.(뒤에서.)

108028 @ 그 하나씩 흔 줄씩 웨가닥으로 헐 때는 줄 낸덴 헤마씨?(그 하나씩 한 줄씩 외가닥으로 할 때는 줄 낸다고 해요?)

108028 #1 으.(으.)

108028 @ 줄 내는 거는 누게가 내는 거우과?(줄 내는 거는 누구가 내는 겁니까?)

108028 #5 것도 아무나 헐 수가 없어. 것도 허는 사람이 헤야지.(것도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것도 하는 사람이 해야지.)

108028 @ 예. 아아.(예. 아아.)

108028 #5 이건 아무나 허는데.(이건 아무나 하는데.)

108028 @ 예, 돌리는 건 아무나 허고 이렇게.(예, 돌리는 건 아무나 하고 이렇게.)

108028 #1 줄 비는 건 아무나 허는데.(줄 꼬는 건 아무나 하는데.)

---

315) '공젱이'는 끝을 구부려서 무언가를 걸게 만든 물건 또는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표준어 '걸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108028 @ 예.(예.)
108028 #1 줄 놓는 사름은.(줄 놓는 사람은.)
108028 @ 예.(예.)
108028 #1 줄 놓는 사름은 익숙헌 사름이라야.(줄 놓는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어야.)
108028 @ 아아.(아아.)
108028 #1 익숙헌 사름이 줄을 놓면 여기허고 저기꼬장 가는데 그 집허고 맞추와, 걸.(익숙한 사람이 줄을 놓으면 여기하고 저기까지 가는데 그 집하고 맞춰, 걸.)
108028 @ 예.(예.)
108028 #1 쉐앗베[316] 헤영근엥에 그 얼마 길이 맞추와 놩 이젠 쉐앗벨 놓면.('쉐앗베' 해서 그 얼마 길이 맞춰 놓아서 이젠 '쉐앗베'를 놓으면,)
108028 @ 예.(예.)
108028 #1 그 쉐앗벨 기럭실 비어 가.(그 '쉐앗베'를 길이 꼬아 가.)
108028 @ 음.(음.)
108028 #1 비어 가민 거기 막댕이 꼽앙 그레 꼽아둬.(꼬아 가면 거기 막대 꽂아서 그리로 꽂아두고.)
108028 #5 두 개를 만들어야 하나가 뒈니까.(두 개를 만들어야 하나가 되니까.)
108028 @ 예, 예, 예.(예, 예, 예.)
108028 #1 두 개 놔놩 이젠 ᄒᆞ나 줄 하나가 이젠 뒈는 거.(두 개 놔놓아서 이젠 하나 줄 하나가 이젠 되는 거.)
108028 @ 예, 그러면 두 개 꼬운 거를 이제 어울려야걸 아니우과?(예, 그러면 두 개 꼰 거를 이제 어울러야 할 것 아닙니까?)
108028 #5 어울린다 그건 그 말이 그 말이고.(어울린다 그건 그 말이 그 말이고.)
108028 #1 어울리는 거.(어울리는 거.)
108028 @ 줄 어울리는 거라예? 게믄 이렇게 이제 새로 헤갖고 영 주는 사름은 줄 놓는 거고?(줄 어울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새로 해갖고 이렇게 주는 사람은 줄 놓는 거고?)
108028 #1 줄 놓는 사름.(줄 놓는 사람.)
108028 @ 그 다음 돌리는 사람은 비는 사름이고.(그 다음 돌리는 사람은 꼬는 사람이고.)
108028 #1 으.(으.)
108028 #5 맞아게.(맞아.)
108028 @ 양쪽 두 개를 ᄒᆞᆫ 가닥으로 영.(양쪽 두 개를 한 가닥으로 이렇게.)
108028 #5 어울리는 거고. 또 그 다음에.(어울리는 거고. 또 그 다음에.)
108028 #1 저 뒤판이 잇어. 뒤판. 이, 저 줄 양쪽에서 비면은 이디서.(저 뒤판이

316) '쉐앗베'는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동여매는 조금 굵직하고 기다란 밧줄을 말한다.

있어. 뒤판. 이, 저 줄 양쪽에서 꼬면 여기서.)

108028 @ 또 돌려주는?(또 돌려주는?)

108028 #1 구멍에 헤영 두 줄을 꼽앙 여기서 돌리곡 저기서 비여주고.(구멍에 해서 두 줄을 꽂아서 여기서 돌리고 저기서 꼬아주고.)

108028 #5 이건 뒤치는 거라고 허는데.(이건 뒤치는 거라고 하는데.)

108028 @ 예, 예.(예, 예.)

108028 #1 뒤판이엔도 허고.('뒤판'이라고도 하고.)

108028 @ 뒤치기?('뒤치기'?)

108028 #5 또 요것이 잇어.(또 요것이 있어.)

108028 @ 예.(예.)

108028 #5 고망에 걸엉, 이거 두 개 걸엉 돌리는 거.(구멍에 걸어서, 이거 두 개 걸어서 돌리는 거.)

108028 @ 예, 이게 뒤치기 아니구나예? 뒤치기 헤서 뒤치기 허는 요게 돌리는 하르방.(예, 이게 '뒤치기' 아니군요? '뒤치기' 해서 '뒤치기' 하는 요게 돌리는 할아버지.)

108028 #1 뒤판엔도 허곡 뒤치기[317]엔.('뒤판'이라고도 하고 '뒤치기'라고.)

108028 @ 뒤판이엔도 허곡 게믄 그 줄을 어울리젠 허면 뒤판에서 앚앙 돌려줘야.('뒤판'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그 줄을 어울리려고 하면 '뒤판'에서 앉아서 돌려줘야.)

108028 #1 으.(으.)

108028 @ 그 두 사름은 계속 이렇게 비고, 영 어울려 가는 사람, 어울리는 사름은 뭐렌 헙니까?(그 두 사람은 계속 이렇게 꼬고, 이렇게 어울려 가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108028 #1 그건 어울린덴 허니까 그건 명칭이 없는 거 같아 건.(그건 어울린다고 하니까 그건 명칭이 없는 거 같아 건.)

108028 @ 줄 어울리는. 어, 그것도 잘 어울려야 이제.(줄 어울리는. 어, 그것도 잘 어울려야 이제.)

108028 #5 아, 그렇주.(아, 그렇지.)

108028 @ 예.(예.)

108028 #5 너무 빨리 가불면은 이것이 사이가 느려가지고 안 뒈고.(너무 빨리 가버리면 이것이 사이가 느려가지고 안 되고.)

108028 @ 음.(음.)

108028 #5 좀 촘촘허게시리 허젠 허민 천천히 돌아가게꾸리고.(좀 촘촘하게끔 하려고 하면 천천히 돌아가게끔.)

108028 #1 서답마께로 헤영 허는 게 젤 좋고.(다듬잇방망이로 해서 하는 게 젤

317) '뒤치기'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 표준어 '돌물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사람에 따라 '뒤판'이라고도 한다.

좋고.)

108028 @ 예.(예.)

108028 #1 서답마께.(다듬잇방망이.)

108028 @ 아, 줄 어울릴 때도 뭔가 도구가 필요허구나예?(아, 줄 어울릴 때도 뭔가 도구가 필요하군요?)

108028 #1 그 사이에 영 범벅 뒈지 말앙 허게 곱게 꼽젠 허민 거기 몽둥일 허던가 서답마껠 허던가.(그 사이에 이렇게 범벅 되지 말고 하게 곱게 꼬려고 하면 거기 몽둥일 하든가 다듬잇방망이를 하든가.)

108028 #5 옛날은 것이 잇어낫는데.(옛날은 것이 있었었는데.)

108028 @ 예.(예.)

108028 #5 그 아가리 두 개 벌령 줄 두 개를 물려가지고 나가는 것이 잇어낫는데.(그 아가리 두 개 벌려서 줄 두 개를 물려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었었는데.)

108008 @ 예.(예.)

108008 #5 그것이 잇어낫는데. 그것이 복잡허다고 그자 막댕일 나가는 거.(그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복잡하다고 그저 막대를 나가는 거.)

108028 @ 그 일름은 기억 안 남수가?(그 이름은 기억 안 납니까?)

108028 #5 이름은 뭐라고 허던지.(이름은 뭐라고 했던지.)

108028 @2 고망 두 개 이신 거예?(구멍 두 개 있는 거요?)

108028 #5 다, 두 개 합치면 고망이 뒈게.(다, 두 개 합치면 구멍이 되게.)

108008 @ 예. 그런 식으로 헤갖고 헌 거라예? 예전에 상방에 뭐 그 불도 춥고 허는 것도 놧지예?(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거라고요? 예전에 대청에 뭐 그 불도 쬐고 하는 것도 놨지요?)

108008 #1 그건 봉덕불[318] 그건.(그건 '봉덕불' 그건.)

108008 #5 화덕이엔 헌 거 아주 옛날이난 우리는 모르고.(화덕이라고 한 거 아주 옛날이니까 우리는 모르고.)

108008 #1 봉덕. 나도 막 어린 때 혼번 봐낫주. 경 쉽질 아녀서.(봉덕. 나도 아주 어릴 때 한번 봤었지. 그렇게 쉽질 않았어.)

108008 @ 거기 식게 때 같은 경우에 허기도 허고.(거기 제사 때 같은 경우에 하기도 하고.)

108008 #1 앚앙덜 놀곡. 경허난 춤 그, 그 집은.(앉아서들 놀고. 그렇게 하니까 참 그, 그 집은.)

108008 @ 예.(예.)

108008 #1 그 큰 집에 허들 아녕. 저쪽에 모커리에나 뭐허영 허는 집덜이 많고.(그 큰 집에 하지를 않아서. 저쪽에 곁채에나 뭐해서 하는 집들이 많고.)

108008 @ 예.(예.)

108008 #1 큰 집엔 마루 놓고. 마리주. 마루가 아니고 마리. 옛말론.(큰 집에는

318) '봉덕불'은 마룻바닥에 설치된 돌화로의 불을 말한다.

마루 놓고. ‘마리’지. 마루가 아니고 ‘마리’. 옛말론.)

108008 @ 예.(예.)

108008 #5 마리 논 다음에는 화로라고, 화로.(마루 놓은 다음에는 화로라고, 화로.)

108008 #1 그 다음은 화로.(그 다음은 화로.)

108008 @ 돌화리?(돌화로?)

108008 #5 옛날은 돌화리.(옛날은 돌화로.)

108008 @ 예.(예.)

108008 #1 네모난 거.(네모난 거.)

108008 @2 예를 들민 그 돌화리를 마리에 심엇수강?(예를 들면 그 돌화로를 마루에 심었습니까?)

108008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08 #1 아니 그냥 거.(아니 그냥 거.)

108008 #5 이동할 수 잇게끔.(이동할 수 있게끔.)

108008 @2 으음.(으음.)

108008 @ 봉덕 허는 거는 이제 큰 마리에 놓은 건 아니고 모커리쯤에.(‘봉덕’ 하는 거는 이제 큰 마루에 놓은 건 아니고 모서리쯤에.)

108008 #1 아래 흑방에.(아래 흙방에.)

108008 @ 흑방에예? 예, 거고 삼춘, 마리도 요즘이야 다 이 마리는 또 다르네. 그 종류가 옛날 거는 이렇게 네모나갖고 한 마리?(흙방에요? 예, 그러고 삼촌, 마루도 요즘이야 다 이 마루는 또 다르네. 그 종류가 옛날 거는 이렇게 네모나갖고 한 마루?)

108008 #5 쪽마루 것도 춤, 지금도 건 쪽마루라고 허는데, 요런 식이주, 요런 식.(쪽마루 것도 참, 지금도 건 쪽마루라고 하는데, 요런 식이지, 요런 식.)

108008 @ 그걸 쪽마루렌 헙니까?(그걸 쪽마루라고 합니까?)

108008 #1 요게 쪽마루.(요게 쪽마루.)

108008 @ 아, 요렇게 하면 쪽마리면 그 다음 긴 거는?(아, 요렇게 하면 쪽마루면 그 다음 긴 거는?)

108008 #5 이건 마리틀이고.(이건 마룻귀틀이고.)

108028 @ 널마리는 뭐우과?(널마루는 뭡니까?)

108008 #1 귀클, 이거. 귀클.(귀틀, 이거. 귀틀.)

108008 @ 예.(예.)

108008 #5 이런 마루 놓젠 허민 일로 구멍 쳐서 놓는 거니까 이건 춤 귀클이주.(이런 마루 놓으려고 하면 일로 구멍 쳐서 놓는 거니까 이건 참 귀틀이지.)

108008 @ 귀클예, 귀클에다 쪽마루들을 허는데 널마리는 뭐우과?(귀틀요, 귀틀에다 쪽마루들을 하는데 널마루는 뭡니까?)

108008 #5 널은 보통은 사옥인데.(널은 보통은 사옥인데.)

108008 @ 예.(예.)

108008 #5 뭐 옛날은 그것이 젤 많고 사옥이허고 그 소리낭이라고 헤서 소리낭 마리도 많앗고.(뭐 옛날은 그것이 젤 많고 사옥하고 그 소리나무라고 해서 소리나무 마루도 많았고.)

108008 #1 사옥이로 허는 거는 아주 잇는 집이.(사옥으로 하는 거는 아주 있는 집에.)

108008 @ 예.(예.)

108008 #1 잇는 집이 거 지금으로 허민 그 벚꼿이난. 벚꽃나무난에.(있는 집에 거 지금으로 하면 그 벚꽃이니까. 벚나무니까.)

108008 @ 예.(예.)

108008 #1 아름드리 그 낭을 깨영. 옛날은 거 일일이 싸질 못허니까 그거 깨영 그거 자귀로 문 까깡 그 널판을 만들어놓니깐 또 옛날 마룬 게난 두텁고.(아름드리 그 나무를 깨어서. 옛날은 거 일일이 켜질 못하니까 그거 깨어서 그거 자귀로 몽땅 깎아서 그 널판을 만들어놓으니깐 또 옛날 마룬 그러니까 두껍고.)

108008 @ 예, 예, 예.(예, 예, 예.)

108008 #1 으, 이제 지금은 뭐 춤 저 뭐 손가락 두끼 허민 아주 좋은 낭이주마는 게영 그걸 그 사옥이로 허민 좀도 잘 안 먹을걸.(으, 이제 지금은 뭐 참 저 뭐 손가락 두께 하면 아주 좋은 나무이지만 그래서 그걸 그 사옥으로 하면 좀도 잘 안 먹을걸.)

108008 #5 잘 안 먹주.(잘 안 먹지.)

108008 @ 음.(음.)

108008 #1 좀도 잘 안 먹고.(좀도 잘 안 먹고.)

108008 #5 사옥이 보통 속술을 쓰니까. 것술은 좀 먹는데 속술은 잘 안 먹주.(사옥 보통 속살을 쓰니까. 겉살은 좀 먹는데 속살은 잘 안 먹지.)

108008 @ 삼춘, 속술은 뭐우과?(삼촌, 속살은 뭡니까?)

108008 #5 나무속에 걸로.(나무속에 걸로.)

108008 @ 아아, 밖에 걸 말앙 안에 걸로만 쓰는구나예? 딴딴헌 나무를 쓰는 거네.(아아, 밖에 걸 말고 안에 걸로만 쓰는군요? 딴딴한 나무를 쓰는 거네.)

108008 #5 색깔도 빨갛고.(색깔도 빨갛고.)

108008 @ 아아.(아아.)

108008 #1 아주 춤 췌고주. 그런 낭 흔 쪼가리만 이시민 골동품 잇는 디서.(아주 참 최고지. 그런 나무 한 쪼가리만 있으면 골동품 있는 데서.)

108008 @ 음, 요즘은 사옥이가 엇입니까?(음, 요즘은 사옥이 없습니까?)

108008 #1 이즈음은 헷당 큰일 나게. 낭 하나.(이즈음은 했다가 큰일 나게. 나무 하나.)

108008 #5 아 저, 왕벚꽃나무니까.(아 저, 왕벚나무니까.)

108008 @ 아, 왕벚나무가 예전에 사옥이렌 헤낫수가? 옛날에 아아.(아, 왕벚나

무가 예전에 사옥이라고 했었습니까? 옛날에 아아.)

108008 #1 사옥이허고 저 뭣고?(사옥하고 저 무엇이니?)

108008 #5 뭐.(뭐.)

108008 #1 그 비슷헌 거게.(그 비슷한 거.)

108008 @2 굴무기.(느티나무.)

108008 #5 굴무기사 나무가 뜨나주.(느티나무야 나무가 다르지.)

108008 @ 그건 느티나무.(그건 느티나무.)

108008 #1 굴무기도 좋은 거.(느티나무도 좋은 거.)

108009 @ 예, 그리고 삼춘, 옛날에. 이제 고팡예, 아까 ᄀᆞ튼 디는 문을 어떵 내엇수가? 거는 일반하고는 다르잖아예?(예, 그리고 삼촌, 옛날에. 이제 고방요, 아까 같은 데는 문을 어떻게 내었습니까? 거는 일반하고는 다르잖아요?)

108009 #5 건 완전히 판자문이주. 나무 판자문.(건 완전히 판자문이지. 나무 판자문.)

108009 @ 예. 고팡에.(예. 고방에.)

108009 #1 널문, 널문.(널문, 널문.)

108009 @ 널문 ᄃᆞᆯ앙예?(널문 달아서요?)

108009 #1 지금은 판자주마는 옛날은 널문. (웃음).(지금은 판자지만 옛날은 널문. (웃음).)

108009 @ 널문 헹은에 이제 허고. 그 창곰 같은 것도 이렇게 ᄇᆞ름 통허게 헷지예?(널문 해서 이제 하고. 그 창구멍 같은 것도 이렇게 바람 통하게 했지요?)

108009 #5 창곰은 크게 안 내어서 작게 내어서 문은 안 ᄃᆞᆯ앗어, 옛날은.(창구멍은 크게 안 내어서 작게 내어서 문은 안 달았어, 옛날은.)

108009 @ 아, 문은 안 ᄃᆞᆯ고 그냥.(아, 문은 안 달고 그냥.)

108009 #1 마리로 들어가는 문은 ᄃᆞᆯ고.(마루로 들어가는 문은 달고.)

108009 #5 문은 하나뿐. 마루에서 들어가는 거.(문은 하나뿐. 마루에서 들어가는 거.)

108009 #1 창곰은 족게 낸 게 도적, 도난 방지도 허고. 도둑놈덜 글로 머리 질르지 못헐 거난에. 경 허영 허고 창곰을 내여도 거기 또 낭 박아근엥에 더 촘촘허게 헤불엇어. 거 저 요샛말로 허민 ᄒᆞ쏠 비지근헐 정도벳긔 그자 거기 그 집의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 고팡에 다니는 분 아니면 어디 무신거 놓은 거 몰르. 곡식을 못 베리난.(창구멍은 적게 낸 게 도적, 도난 방지도 하고. 도둑놈들 글로 머리 찌르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창구멍을 내어도 거기 또 나무 박아서 더 촘촘하게 해버렸어. 거 저 요샛말로 하면 조금 희미할 정도밖에 그저 거기 그 집의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 고방에 다니는 분 아니면 어디 무엇 놓은 거 몰르. 곡식을 못 보니까.)

108009 @ 아아, 사방에 이제 다 이제 문 하나만 잇고 다, 아. 경허고 예전에 혹시 이 도련 같은 경우도 안칠성이여 밧칠성이여 이런 말도 헤신가마씨?(아아, 사방

에 이제 다 이제 문 하나만 있고 다, 아. 그렇게 하고 예전에 혹시 이 도련 같은 경우도 '안칠성'이다 '밧칠성'이다 이런 말도 했는가요?)

108009 #1 칠성?(칠성?)

108009 @ 예, 안에, 안에 뭐 놤쩌 이런 말도 헤나신가마씨?(예, 안에, 안에 뭐 놓고 있다 이런 말도 했었나요?)

108009 #5 글쎄. 거 들어본 거. 들어본 적이 엇인 거 닮은데.(글쎄. 거 들어본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108009 #1 도련선 그런 거세긴 조끔 아메도 이 저 양촌에선 그런 게 좀 덜어.(도련선 그런 거시긴 조금 아마도 이 저 양촌에선 그런 게 좀 덜해.)

108009 @ 음.(음.)

108009 #1 그런 게 덜어.(그런 게 덜해.)

108009 @ 예. 알앗수다.(예. 알았습니다.)

108010 @ 정짓간 만들엇잖아예? 예, 정지에 놧던 것들은 뭐 잇수가? 솟도 걸어실 거고?(부엌간 만들었잖아요? 예, 부엌에 놨던 것들은 뭐 있습니까? 솥도 걸었을 거고?)

108010 #5 살레.(살강.)

108010 @ 예, 살레.(예, 살강.)

108010 #5 물항.(물독.)

108010 @ 예.(예.)

108010 #5 물항아리. 대부분 그것 뿐이주.(물독. 대부분 그것 뿐이지.)

108010 @ 살레하고. 솟은 솟 건덴 헙니까?(살강하고. 솥은 솥 건다고 합니까?)

108010 #5 솟은 앚진다고 허주,(솥은 앉힌다고 하지,)

108010 @ 솟 앚진다. 솟 앚지젠 허민 뭐가 필요헤마씨?(솥 앉힌다. 솥 앉히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108010 #5 솟덕이라고 그 돌이.(봇돌이라고 그 돌이.)

108010 @ 예.(예.)

108010 #5 옛날은 요즘 요 중간에 들어서 세멘을 헷는데 옛날은 돌 세 개.(옛날은 요즘 요 중간에 들어서 시멘트를 했는데 옛날은 돌 세 개.)

108010 @ 예.(예.)

108010 #5 세 개 헤근에 그걸로 앚졋어.(세 개 해서 그걸로 앉혔어.)

108010 @ 아아.(아아.)

108010 #5 여기는.(여기는.)

108010 #1 세모나게 네모나게 까깡근엥에.(세모나게 네모나게 깎아서.)

108010 @ 딱 가고 두에 하나고.(딱 가고 뒤에 하나고.)

108010 #1 삼발.(삼발.)

108010 @ 삼발이식으로 그 불 솜아나면 불체들은 어떵?(삼발이식으로 그 불 때어나면 재들은 어떻게?)

108010 #5 불치는 두이로 나가게 만들주. 두이로.(재는 뒤로 나가게 만들지. 뒤로.)

108010 @ 두이로 나가게.(뒤로 나가게.)

108010 #1 두에 저장허는 거주.(뒤에 저장하는 거지.)

108010 @ 거기 공간을 뭐렌 부르기도 헙니까?(거기 공간을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108010 #1 솟 뒤.(솥 뒤.)

108010 @ 솟 뒤에 불체들 저기를 하고예?(솥 뒤에 재들 저기를 하고요?)

108010 #1 불치 소금 망데기[319]도 거기 놔두면 좋고.(재 소금 '망데기'도 거기 놔두면 좋고.)

108010 @ 예.(예.)

108010 #1 다시 뭣고? 옛 어른덜 옛날 우리 어린 땐 보면 그 바닷고기도 헤당 그, 그쪽에 영행근에 놔두면 뭐 뜬 게 범접을 못해.(다시 무엇이니? 옛 어른들 옛날 우리 어릴 땐 보면 그 바닷고기도 해다가 그, 그쪽에 이렇게 해서 놔두면 뭐 다른 게 범접을 못해.)

108010 @ 음.(음.)

108010 #1 (웃음). 게엿당은에 그거 흔 점 헹 먹곡.((웃음). 그렇게 했다가 그거 한 점 해서 먹고.)

108011 @ 예, 그 다음엔예, 아까 이, 이런 문들을 영 둘 거 아니우과예? 아까 이제 뭐?(예, 그 다음엔요, 아까 이, 이런 문들을 이렇게 달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뭐?)

108011 @2 입젱이.(문설주.)

108011 @ 입젱이 문얼굴 뭐 돌쩌귀 문지방 허는 거예, 그거 설명해 줍서. 어디가 그거고. 그 다음에 문을 둘젠 허면.(문설주 문얼굴 뭐 돌쩌귀 문지방 하는 거요,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가 그거고. 그 다음에 문을 달려고 하면.)

108011 #5 문을 둘면 입장이라고 허는데.(문을 달면 '입장이'라고 하는데.)

108011 @ 예.(예.)

108011 #5 입젱이라고 허는데, 입젱이 웃지방[320] 알지방[321].(문설주라고 하는데, 문설주 '웃지방' '알지방'.)

108011 @ 이게 입젱이우과? 이거 세우는 거는 입젱이렌 허는 거예? 그 다음에 문 둘젠 허면 옛날에는 이 대문도 이런 식 저런 게 대문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올 때가 대문이라낫잖아예?(이게 문설주입니까? 이거 세우는 거는 문설주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문 달려고 하면 옛날에는 이 대문도 이런 식 저런 게 대문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올 때가 대문이었잖아요?)

---

319)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의 배가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320) '웃지방'은 문 위에 가로로 대는 인방을 말한다. 문 위에 있는 문지방이어서 '웃지방'이라고 하였다.

321) '알지방'은 아래쪽의 문지방을 가리킨다.

108011 #1 안네 대문.(안에 대문.)

108011 @ 마루 헐 때.(마루 할 때.)

108011 #1 저딘 먼문[322]이고 이 앞에 건 대문이고.(저긴 '먼문'이고 이 앞에 건 대문이고.)

108011 @ 저기는 먼문. 여기는 대문.(저기는 '먼문'. 여기는 대문.)

108011 #1 대문.(대문.)

108011 @ 대문도 옛날에는 뭐 미는 게 아니라 양쪽에 헤야 뭴 거 아니우과? 게믄 뭐를 만들어야 뭽니까? 그 문고리 허젠 허면.(대문도 옛날에는 뭐 미는 게 아니라 양쪽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 문고리 하려고 하면.)

108011 #1 그 저.(그 저.)

108011 #5 대문은.(대문은.)

108011 #1 그 잇지. 고망 뚤른 거. 문 우에 그. 그 문조젱이 들어가젠 허민게.(그 있지. 구멍 뚫은 거. 문 위에 그. 그 문지도리 들어가려고 하면.)

108011 @ 돌쩔귀.(돌쩌귀.)

108011 #5 아니 돌철귀? 뭐엔 허느니? 뭐.(아니 돌쩌귀? 뭐라고 하느냐? 뭐.)

108011 #1 아니.(아니.)

108011 @2 문부출?(문얼굴?)

108011 #1 아니, 부출이 아니고.(아니, 부출이 아니고.)

108011 @ 이렇게 고망 헤영 끼와야 뒈잖아예?(이렇게 구멍 해서 끼워야 되잖아요?)

108011 #5 거 이름 이신디.(거 이름 있는데.)

108011 @2 아래는 구멍 들어가게 구멍 파고.(아래는 구멍 들어가게 구멍 파고.)

108011 #1 그게 이름이 잇는디.(그게 이름이 있는데.)

108011 @ 문에 걸엉 허는 거니까. 돌처귀, 돌처귀는 어디에 하는 거우과?(문에 걸어서 하는 거니까. 돌쩌귀, 돌쩌귀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108011 #1 돌처귀는.(돌쩌귀는.)

108011 #5 돌처귀는 방 창문에, 창문 둘 때 그 돌처귀를 쓰는데.(돌쩌귀는 방 창문에, 창문 달 때 그 돌쩌귀를 쓰는데.)

108011 @ 이렇게 뭐 할 때예? 그 쒯대?(이렇게 뭐 할 때요? 그 열쇠?)

108011 #5 지게문이라고 하는데, 이 저 마루에서 방.(지게문이라고 하는데, 이 저 마루에서 방.)

108011 @ 아, 이렇게.(아, 이렇게.)

108011 @ 아, 마루에서.(아, 마루에서.)

108011 #5 그것에도 돌쩌귀 쓰고.(그것에도 돌쩌귀 쓰고.)

108012 @ 여기는 대문. 부억문은 그냥 정짓문하고.(여기는 대문. 부엌문은 그냥

322) '먼문'은 문간채에 달린 문을 말한다. 이 문을 도련1동에서는 '먼문'이라고 하였다.

‘정짓문’하고.)

108012 #5 정짓문.(부엌문.)

108012 @ 아, 예.(아, 예.)

108012 #1 정짓문 낭 지방에 그냥 고지, 고지엔도 허곡 쉽게 말허민 조젱이엔 ᄀᆞᆫ주마는. 아이고, 것ᄀᆞ라도 또 뭐엔 ᄀᆞᆯ아난디.(부엌문 나무 지방에 그냥 꼬챙이, 꼬챙이라고도 하고 쉽게 말하면 지도리라고 말하지만. 아이고, 것보고도 또 뭐라고 말했었는데.)

108012 #5 게메, 뭣사 알아지커라.(글세, 뭐야 알겠어.)

108012 #1 생각헤 둬.(생각해 둬.)

108012 #5 ᄒᆞ꼼 젊어시믄 헌디.(조금 젊었으면 하는데.)

108012 @ 예, ᄒᆞ꼼 셍각헴시믄 튿내질 거우다.(예,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날 겁니다.)

108012 #5 오늘 저녁이 좀자멍 셍각헤 둬.(오늘 저녁에 잠자면서 생각해 둬.)

108012 @ 그 다음에 그 옛날 어른들 방에 앉앙은에 영 헤영 베꼇듸레 베려보는 문도 잇어예?(그 다음에 그 옛날 어른들 방에 앉앙서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보는 문도 있지요?)

108012 #1 호령창[323]인디.(‘호령창’인데.)

108012 @ 예.(예.)

108012 #1 우리 동넨 그건 엇엇어.(우리 동넨 그건 없었어.)

108012 @ 아아, 여긴 엇수가?(아아, 여긴 없습니까?)

108012 #1 호령창 엇엇어.(‘호령창’ 없었어.)

108012 @ 게믄 여긴 창문만 ᄃᆞᆯ아.(그러면 여긴 창문만 달아.)

108012 #5 어, 창문만.(어, 창문만.)

108012 @ 아, 창문허고 영 지게문. 바로 밖에 거를 창문이렌 그냥 헤마씨?(아, 창문하고 이렇게 지게문. 바로 밖에 거를 창문이라고 그냥 해요?)

108012 #5 그렇주.(그렇지.)

108012 @ 으.(으.)

108012 #1 창문은 구들에서 베꼇듸레 나가는 디고. 이 마당디레 나가는 게 창문이고.(창문은 방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데고. 이 마당으로 나가는 게 창문이고.)

108012 @ 예.(예.)

108012 #1 이 구들에서 마루레 들, 이 마리레 나오는 건 지게문이고.(이 방에서 마루로 들, 이 마루로 나오는 건 지게문이고.)

108012 @ 예. 게믄 이게 다 지게문이겟다예?(예. 그러면 이게 다 지게문이겠네요?)

108012 #1 예, 예.(예, 예.)

108012 #5 지게문.(지게문.)

108012 #1 이건 지게문.(이건 지게문.)

323) ‘호령창’은 마루의 대문 옆에 시설한 작은 문이다. 보통 이 문 옆에는 주인이 앉는다.

108012 @ 아, 지게문이고. 그럼 무사 옛날은 창문, 요즘은 창문들이 이렇게 높이 벽 우의로 헷지만 다 여닫이문도 창문.(아, 지게문이고. 그럼 왜 옛날은 창문, 요즘은 창문들이 이렇게 높이 벽 위로 했지만 다 여닫이문도 창문.)

108012 #5 쌀문이주, 쌀문.(살문이지, 살문.)

108012 @ 쌀문예? 그것도 다 창문?(살문요? 그것도 다 창문?)

108012 #1 마루레 나가는 건 창문.(마루로 나가는 건 창문.)

108012 @ 예, 마루로 헤서.(예, 마루로 해서.)

108012 #1 어쨋든 집 밖으로 나가는 문.(어쨌든 집 밖으로 나가는 문.)

108012 #5 창문은.(창문은.)

108012 @ 예.(예.)

108012 #5 아레 이런 판자를 안 전부 쌀 박은 거.(아래 이런 판자를 안 전부 살 박은 거.)

108012 @ 예, 예, 예.(예, 예, 예.)

108012 #5 우에서 아래까지. 지게문은 요 밑으로 판자 붙인 거.(위에서 아래까지. 지게문은 요 밑으로 판자 붙인 거.)

108012 @ 판자 붙이고 우에는 쌀. 알아지쿠다. 알아지쿠다.(판자 붙이고 위에는 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8012 #1 널 부찐 거.(널 붙인 거.)

108012 @ 예, 예, 예.(예, 예, 예.)

108012 #1 아래 쪼금.(아래 조금.)

108012 @2 그럼, 저쪽에서는 호령창이 잇는데 여기선 창문이 막혀지면 누가 오는지 모를 거 아니우과? 게믄 창문에 유리를 이렇게.(그럼, 저쪽에서는 '호령창'이 있는데 여기선 창문이 막혀지면 누가 오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문에 유리를 이렇게.)

108012 #5 옛날은 안 부치고.(옛날은 안 붙이고.)

108012 #1 최근이랏주. 게고 이 옛날은 소님이 왕 말허면은 우선 문을 열앗는데.(최근이었지. 그러고 이 옛날은 손님이 와서 말하면 우선 문을 열었는데.)

108012 @ 예.(예.)

108012 #1 그 시련이 흔번 지나가면 그 사람 성질덜토 변헤부리는 것이 문. 이 사삼사건 때에 문을 열민 나왓거든.(그 시련이 한번 지나가면 그 사람 성질들도 변해버리는 것이 문. 이 사삼사건 때에 문을 열면 나왔거든.)

108012 @ 예.(예.)

108012 #1 게난 우선 사람이 잇어도 대답을 저 대답헤여도 문은 안 올아.(그러니까 우선 사람이 있어도 대답을 저 대답해도 문은 안 열어.)

108012 @ 음.(음.)

108012 #1 어떵 허영 옵디강? 누게우광? 영 뭐헤영 말은 헤놔도 이제 그 저 뭐인가 그, 것이 문은 안 여는 버릇이 사삼사건 후엔 셍겻어.(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뭐해서 말은 해놔도 이제 그 저 뭐인가 그, 것이 문은 안 여는 버릇이 사삼사건 후에는 생겼어.)

108012 @ 으음, 맞아예.(으음, 맞아요.)

108012 #1 에, 문 을앙 허민 사름이 잇이민 그냥 그냥 잡혀가부니까.(에, 문 열어서 하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냥 잡혀가버리니까.)

108012 @ 예, 예, 예.(예, 예, 예.)

108012 #1 그게 상당히 츰 그 흔번 난이던가 그런 시련이 지나가불면은 그 안허던 버릇이 흑나썩 셍기는 게.(그게 상당히 참 그 한번 난이든가 그런 시련이 지나가버리면 그 안하던 버릇이 하나씩 생기는 게.)

108012 @ 음, 맞수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도 이제 창 불르젠 허면 이제 창문은 불라야 뒐 거 아니우과예? 그거는 뭘로 헤영 불라마씨?(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도 이제 창 바르려고 하면 이제 창문은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거는 무엇으로 해서 발라요?)

108012 #5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창오지가 잇엇으니까.(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창호지가 있었으니까.)

108012 #1 창오지게.(창호지.)

108012 @ 창오지로만 허고예? 창오지 브를 때도 무신거로 불릅니까? 그.(창호지로만 하고요? 창호지 바를 때도 무엇으로 바릅니까? 그.)

108012 #5 건 풀은 어짜피 종이 불르젠 허민 풀이 들어가는 거고.(건 풀은 어차피 종이 바르려고 하면 풀이 들어가는 거고.)

108012 @ 무신 풀로?(무슨 풀로?)

108012 #5 게메, 우리 역은 후젠 그 밀가루 풀인데.(글쎄, 우리 큰 후에는 그 밀가루 풀인데.)

108012 @ 예.(예.)

108012 #5 뭐 옛날은 무신 풀로사 발랏는지사 몰라도.(웃음).(뭐 옛날은 무슨 풀로야 발랐는지야 몰라도.(웃음).)

108012 #1 쏠, 쏠 헤영 그 저.(쌀, 쌀 해서 그 저.)

108012 @ 우리 다른 때 같으면?(우리 다른 때 같으면?)

108012 #1 죽 쑤듯 쒕근엥에.(죽 쑤듯 쒀서.)

108012 @ 예.(예.)

108012 #1 경헤근에 그게 워낙 미음거치 쒀놓면 그게 풀이니까.(그렇게 해서 그게 워낙 미음같이 쒀놓으면 그게 풀이니까.)

108012 @ 예.(예.)

108012 @2 바당풀은 안 놧수가?(바다풀은 안 놨습니까?)

108012 #1 예.(예.)

108012 @ 바당에 뭐 가시리풀이여 이런 것들.(바다에 뭐 풀가사리풀이다 이런 것들.)

108012 #1 가시리ᄀᆞ라 무신거엔 헌다마는.(풀가사리보고 무엇이라고 한다만.)

108012 @2 독고달?(갈래곰보?)

108012 #5 게메, 그런 걸로 창은 안 불랏주.(글쎄, 그런 걸로 창은 안 발랐지.)

108012 @ 아, 그런 거는 안 하고예? 알앗수다. 그 다음에 이제 삼춘, 만약에 구들은 어떤 식으로 놧수가?(아, 그런 거는 안 하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촌, 만약에 방은 어떤 식으로 놨습니까?)

108012 #5 아, 구들은 건 돌로 놓는 거. 방돌, 뭐 지금도 허주마는 옛날도 방돌.(아, 방은 건 돌로 놓는 거. 구들돌, 뭐 지금도 하지만 옛날도 구들돌.)

108012 @ 방돌?(구들돌?)

108012 #5 예, 옛날은 방돌이 춤 요즘ᄀᆞ치록 얄룬 게 아니고 두꺼운 걸로 헷단 말이여. 방돌로 헤서 ᄀᆞ시락엔 헌 걸로 보리 태작헤난 걸로 때엿으니까 옛날은.(예, 옛날은 구들돌이 참 요즘같이 얇은 게 아니고 두꺼운 걸로 했단 말이야. 구들돌로 해서 까끄라기라고 한 걸로 보리 타작했던 걸로 때었으니까 옛날은.)

108012 @ 예.(예.)

108012 #5 경 아녀면 산에 가서 말똥.(그렇게 않으면 산에 가서 말똥.)

108012 @ 예.(예.)

108012 #5 그런 거.(그런 거.)

108012 @1 그거 때니까 이제 구둘 방돌을 뚜껍게 헌 거구나예?(그거 때니까 이제 구들 구들돌을 두껍게 한 거군요?)

108012 #5 얄룬 게 없으니까 뚜꺼운 걸로 헌 거지, 뭐.(얇은 게 없으니까 두꺼운 걸로 한 거지, 뭐.)

108012 @ 방돌을 놓은 다음에 방돌만 놓면 구둘이 뒈는 건 아니잖우과예?(구들돌을 놓은 다음에 구들돌만 놓으면 방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108012 #5 흑 발르는 거주.(흙 바르는 거지.)

108012 @ 그 다음에는 흑을 불랑에. 흑을 불르고. 흑 불른 다음에는 어떵 허엿수가?(그 다음에는 흙을 발라서. 흙을 바르고. 흙 바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8012 #5 흑 불른 걸로 끗난 거, 옛날은.(흙 바른 걸로 끝난 거, 옛날은.)

108012 #1 흑 불르면 그 다음에.(흙 바르면 그 다음에.)

108012 @ 도비 안 헨마씨?(도배 안했어요?)

108012 #1 종이.(종이.)

108012 #5 저 우의 지금ᄀᆞ치룩 세멘을 허거나 이러질 못헷주.(저 위에 지금같이 시멘트를 하거나 이러질 못했지.)

108012 @ 예, 흑 헤영. 그러면 보통 밑에 방바닥은 뭘로 헤영은에 발랏수가?(예, 흙 해서. 그러면 보통 밑에 방바닥은 무엇으로 해서 발랐습니까?)

108012 #5 콩지름이라는 게 옛날부터 잇엇던 모양이라.(콩기름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모양이야.)

108012 #1 유지름허고.(들기름하고.)

108012 #5 유지름하고.(들기름하고.)

108012 @ 유지름하고. 그 방 종이 불른 다음에 그 우에 유지름하고.(들기름하고. 그 방 종이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들기름하고.)

108012 #1 게난.(그러니까.)

108012 #5 콩지름하고 이건 서터서 발르는 거.(콩기름하고 이건 섞어서 바르는 거.)

108012 #1 유지름허고 콩지름은 강 빠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즘진 ᄀᆞ를 혜영근에 쒕, 쒓지, 그냥.(들기름하고 콩기름은 가서 짜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잘한 가루해서 쒀서, 쒔지, 그냥.)

108012 #5 쑵지 안헷지. 쑤민 안 뒈지. 그냥 쎙 걸로 ᄲᆞ앙 허는 거.(쑤지 안했지. 쑤면 안 되지. 그냥 생 걸로 빻아서 하는 거.)

108012 #1 그 과정은 아녀 보니까. 집의 사름[324]은 잘 아는디.(그 과정은 안 해보니까. 집에 사람은 잘 아는데.)

108012 @ 맞수다.(맞습니다.)

108012 #1 그냥 막 자루에 쌍. 게영 그걸 혼 번만 멕이는 게 아니고 멧 번 영헤영근에 멕여 두민 거기가 이젠 굳엉근엥에.(그냥 막 자루에 싸서. 그렇게 해서 그걸 한 번만 먹이는 게 아니고 몇 번 이렇게 해서 먹여 두면 거기가 이젠 굳어서.)

108012 #5 아, 지금도 그러는 사름 잇긴 잇주.(아, 지금도 그러는 사람 있긴 있지.)

108012 #1 아, 거 좋은 거주. 좋은 거.(아, 거 좋은 거지. 좋은 거.)

108012 @ 예, 게영 그렇게 허는 거를 방바닥 어떵 허염덴 헙니까?(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방바닥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108012 #5 장판 들인다고 허주.(장판 들인다고 하지.)

108012 @ 장판 들이는 거예? 아, 장판.(장판 들이는 거요? 아, 장판.)

108012 #1 유지름 멕엿저.(들기름 먹였다.)

108012 @ 어, 유지름 멕엿저.(어, 들기름 먹였어.)

108012 #1 콩지름 멕엿저.(콩기름 먹였어.)

108012 @ 예, 뭐 절룬다 이런 말은 안 헙니까?(예, 뭐 겯는다 이런 말은 안 합니까?)

108012 #1 그 말도 ᄀᆞᆯ아.(그 말도 말해.)

108012 #5 그런 말도 잇주. 유지름 절룬덴 헌 건.(그런 말도 있지. 들기름 겯는다고 한 건.)

108012 @ 그런 말 ᄀᆞᆯ아줍서게. (웃음).(그런 말 말해 주십시오. (웃음).)

108012 #5 다 알앙 들엄신게.(다 알아서 듣고 있는데.)

108012 #1 아니, 알멍 들은 게 아니고 거긴 자료가 잇으니까 ᄀᆞᆫ는 건디. 이 사람이 표현을 예를 들엉 허민 상수 헌 거나, 또 영기 아방 헌 거나 혼 가지 놩근엥

324) 여기에서 '집의 사람'은 제보자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에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헤 놓니까.(아니, 알면서 들은 게 아니고 거긴 자료가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표현을 예를 들어서 하면 상수 한 거나, 또 영기 아버지 한 거나 한 가지 놔서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 놓으니까.)

108012 @ 맞습니다.(맞습니다.)

108012 #1 사람 사람이 틀리게.(사람 사람이 다르게.)

108012 @ 예.(예.)

108012 #1 경헤도 서로 끗덴 하나니까 건 다 통해 그 말이.(그렇게 해도 서로 끝에는 하나니까 건 다 통해 그 말이.)

108014 @ 예, 맞아마씨. (웃음).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묵예, 옛날 굴묵 짓젠 허면은 필요헌 게 아까 ᄀᆞ시락으로 헷덴 허는데. 보통 뭘로 하영 헷수가? 어릴 때.(예, 맞아요. (웃음).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묵'요, 옛날 '굴묵' 때려고 하면 필요한 게 아까 까끄라기로 했다고 하는데. 보통 무엇으로 많이 했습니까? 어릴 때.)

108014 #5 우리 어린 땐 ᄀᆞ시락이주.(우리 어릴 땐 까끄라기지.)

108014 @ 아, ᄀᆞ시락예?(아, 까끄라기요?)

108014 #5 보리 타작헷다가 나머지 것. 끗겡이라고 ᄀᆞ시락엔 헌 걸로 그걸로 허는데, 이 그것을 밀어 넣는 구그네라고 헌 게 또 잇주.(보리 타작했다가 나머지 것. 끄트머리라고 까끄라기라고 한 걸로 그걸로 하는데, 이 그것을 밀어 넣는 고무래라고 한 게 또 있지.)

108014 @ 예, 구그네. 아아.(예, 고무래. 아아.)

108014 #5 요렇게 해서 나무 박은 거.(요렇게 해서 나무 박은 거.)

108014 @ 예.(예.)

108014 #5 이걸로 밀리는 거.(이걸로 미는 거.)

108014 @ 예, 구그네로 이제 밀리고. 구그네 허고 이제 보리 아 저기 영 날레 허는 거 허곤 ᄐᆞ나지예?(예, 고무래로 이제 밀고. 고무래하고 이제 보리 아 저기 이렇게 '날레' 하는 거 하고는 다르지요?)

108014 #1 건 설레[325]. 날레[326] 허는 건 설레.(건 '설레'. '날레' 하는 건 '설레'.)

108014 @ 설레. 여기에선 설레라고 허더라고.('설레'. 여기에선 '설레'라고 하더라고.)

108014 #1 날레 너는 건 설레고. 굴묵 짇는 디 쓰는 건 구그내.('날레' 너는 건 '설레'고. 굴묵 때는 데 쓰는 건 고무래.)

108014 #5 게난 설레는 밑에 톱날이 돋쳐 잇어.(그러니까 '설레'는 밑에 톱날이 돋쳐 있어.)

108014 @ 예, 예.(예, 예.)

108014 #4 구그네는 그것이 없고.(고무래는 그것이 없고.)

---

325) '설레'는 제주시 도련1동에서 곡식을 저을 때 쓰는 '고무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326) '날레'는 볕을 쐬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을 말한다.

108015 @ 그리고, 삼춘, 아까 우리 집을 짓엇잖아예. 마당에 나가면 지붕 앞에 이렇게 딱 세우는 게 잇어예? 비 들이지 말렌. 건 뭐우과?(그리고, 삼촌, 아까 우리 집을 지었잖아요. 마당에 나가면 지붕 앞에 이렇게 딱 세우는 게 있어요? 비 들지 말라고. 건 뭡니까?)

108015 #5 무시거 허지 말렌?(무엇 하지 말라고?)

108015 #1 풍체.(차양.)

108015 @ 예.(예.)

108015 #5 아, 저 우에.(아, 저 위에.)

108015 @ 예.(예.)

108015 #1 집 앞의 풍체.(집 앞에 차양.)

108015 #5 풍체 건.(차양 건.)

108015 @ 풍체도 늘 이렇게 세와두는 건 아니잖아예?(차양도 늘 이렇게 세워두는 건 아니잖아요?)

108015 #5 언제나 세와둬.(언제나 세워둬.)

108015 @ 언제나 세와둬마씨? 어어. 그 다음 풍체 헤근에 옆에 풍체허면은 옆에 영 세우는 거는?(언제나 세워둬요? 어어. 그 다음 차양 해서 옆에 차양하면 옆에 이렇게 세우는 거는?)

108015 #5 풍체작쉬[327]라고 헤서 세와두는 거 기둥이주.('풍체작쉬'라고 해서 세워두는 거 기둥이지.)

108015 #1 작데기엔도 허고 작쉬엔도 허고.(작대기라고도 하고 '작쉬'라고도 하고.)

108015 @ 예, 풍체작쉬 헹은에 그 풍체는 무신 걸로 멘들앗수가?(예, '풍체작쉬' 해서 그 차양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8015 #5 나무로.(나무로.)

108015 @ 나무로만 멘들엇수가? 거기에 따른 거 이렇게 더퍼 놓거나 이렇게.(나무로만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따른 거 이렇게 덮어 놓거나 이렇게.)

108015 #5 나무로 멘들어서 새 덮는 거주.(나무로 만들어서 띠 덮는 거지.)

108015 @ 새 더플 때는 그냥 더펏수가 아니면?(띠 덮을 때는 그냥 덮었습니까 아니면?)

108015 #5 아니주, 풍체는 이건 넙게 안 허는 거난.(아니지, 차양은 이건 넓게 안 하는 거니까.)

108015 @ 예.(예.)

108015 #5 이 풍체를.(이 차양을.)

108015 @ 예. 다른 종이에 헤봅서.(예. 다른 종이에 해보십시오.)

108015 #5 요런 식으로 만들앙.(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108015 @ 예, 예.(예, 예.)

327) '풍체작쉬'는 차양을 벌리는 기다란 작대기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풍체작데기'라고 한다.

108015 #5 여기 이거 대를 까는 거라. 대. 뜨문뜨문. 대를.(여기 이거 대를 까는 거야. 대. 뜨문뜨문. 대를.)

108015 @ 예.(예.)

108015 #5 대를 뜨문뜨문 깔아서.(대를 뜨문뜨문 깔아서.)

108015 @ 으, 이 바닥은 그냥 판데기로 허는 거라마씨?(으, 이 바닥은 그냥 판때기로 하는 거예요?)

108015 #5 아니, 아니. 이것이 나무.(아니, 아니. 이것이 나무.)

108015 #1 ᄉᆞ각은 나무.(사각은 나무.)

108015 #5 나무 이렇게 가로 박아놩.(나무 이렇게 가로 박아놓아서.)

108015 #1 이 요건 새.(이 요건 띠.)

108015 @ 예.(예.)

108015 #1 새 박아놩.(띠 박아놓아서.)

108015 @ 으, 으, 으.(으, 으, 으.)

108015 #1 대로 여깡. 이제 그 저 새가 떨어지지 말렌.(대로 엮어서. 이제 그 저 띠가 떨어지지 말라고.)

108015 @ 음. 또 대로 여껑예?(음. 또 대로 엮어서요?)

108015 #1 경 허영 이젠 새 쫙 끌아놩근엥에 그 저 노끈으로 요렇게 허던가.(그렇게 해서 이젠 띠 쫙 깔아놓아서 그 저 노끈으로 요렇게 하든가.)

108015 #5 다시 이 대를 우에 놔서 무끄주.(다시 이 대를 위에 놔서 묶지.)

108015 @ 예, 아, 새 헌 다음에 또 새를 대로 고정시켜근에 또 무끄는 거구나예? 아 경혜영 풍체작쉬[328] 양쪽으로 딱 세우는 거.(예, 아, 띠 한 다음에 또 띠를 대로 고정시켜서 또 묶는 거군요? 아, 그렇게 해서 '풍체작쉬' 양쪽으로 딱 세우는 거.)

108015 #1 게믄 저것이 큰 비바람이나 헐 때엔 내려왕근엥 탁 허면 방 지금은 유릿문이주만은 그 종이 문이니까.(그러면 저것이 큰 비바람이나 할 때엔 내려와서 탁 하면 방 지금은 유리문이지만 그 종이 문이니까.)

108015 @ 예.(예.)

108015 #1 창 ᄇᆞ른 게, 거 그대로 내려와서 딱 고정시기면은 지둥, 이 지둥에.(창 바른 게, 거 그대로 내려서 딱 고정시키면 기둥, 이 기둥에.)

108015 @ 예.(예.)

108015 #1 지둥에 걸 무꺼버리면은 이레 비 안 들이삐니까 집데레.(기둥에 걸 묶어버리면 이리로 비 안 들이치니까 집으로.)

108015 @ 으음. 평소에는 세왕 놔두고?(으음. 평소에는 세워서 놔두고?)

108015 #1 그늘이 뒈고.(그늘이 되고.)

108015 @ 예. 그 다음에 비오거나 허면 거는 내려와마씨?(예. 그 다음에 비오거

328) '풍체작쉬'는 차양을 받치는 나무 작대기를 말한다. '작쉬'는 표준어 '작대기'에 대응하는 도련 지역 말이다.

나 하면 거는 내려요?)

108015 #1 비바람 헐 때는 내려와서 지둥, 툇지둥에 딱 무꺼버리면은 비바람 아무렇게 쳐도 저 까딱없으니까.(비바람 할 때는 내려서 기둥, 툇기둥에 딱 묶어버리면 비바람 아무렇게 쳐도 저 까딱없으니까.)

108015 @ 아아, 그러면 그 크기가 보통 이 마당 앞에 무뚱예, 거기 허잖아예?(아아, 그러면 그 크기가 보통 이 마당 앞에 문 앞에요, 거기 하잖아요?)

108015 #5 그렇주.(그렇지.)

108015 @ 그러면 주로 어느, 대문까지도 다 가려집니까? 그거 허면.(그러면 주로 어느, 대문까지도 다 가려집니까? 그거 하면.)

108015 #1 아, 게난.(아, 게난.)

108015 #5 마루문허고 방문 사이.(마루문하고 방문 사이.)

108015 #1 삼칸집은 저 세, 세 칸 다 막아지지.(삼간집은 저 세, 세 칸 다 막아지지.)

108015 @ 아.(아.)

108015 #1 게난 그걸 두 개로 해야.(그러니까 그걸 두 개로 해야.)

108015 @ 아, 하나가 아니고예?(아, 하나가 아니고요?)

108015 #1 하난 너무 기니까.(하난 너무 기니까.)

108015 #5 기니까 거 불편허주. 나무도 그렇게 긴 거 없고 허니까.(기니까 거 불편하지. 나무도 그렇게 긴 거 없고 하니까.)

108015 @ 예.(예.)

108015 #5 두 개로 만들어서 사용허는 데가 많고.(두 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많고.)

108015 @ 그러면 주로 풍체를 두 개 세우는 거구나예? 아아. 하나짜리 세왓던 거 같애.(그러면 주로 차양을 두 개 세우는 거군요? 아아. 하나짜리 세웠던 거 같아.)

108015 #1 아, 맞아. 하나 앞에.(아, 맞아. 하나 앞에.)

108015 #5 짧으면은.(짧으면.)

108015 #1 그 저 어느 저 방 ᄒᆞ난 반창 헷을 경우에.(그 저 어느 저 방 하나는 반창 했을 경우에.)

108015 #5 게난 옛날은 반창이엔 헌 건 엇엇주게.(그러니까 옛날은 반창이라고 한 건 없었지.)

108015 @ 음.(음.)

108015 @2 게난 하나인 경우는예, 요쪽 안으로 담을 쌓아버리니까예. 요디가 좁아마씨?(그러니까 하나인 경우는요, 요쪽 안으로 담을 쌓아버리니까요. 여기가 좁아요?)

108015 #1 쳇방, 쳇방이 거기 잇으니까.(찻방, 찻방이 거기 있으니까.)

108016 @ 예, 그 다음 삼춘, 집 앞에 이제 풍체도 세우주마는 정지 앞에 뭐 대

세와갖고 거기 허벅도 올려놓고 허는?(예, 그 다음 삼촌, 집 앞에 이제 차양도 세우지만 부엌 앞에 뭐 대 세워가지고 거기 동이도 올려놓고 하는?)

108016 #5 거 물팡[329]이라고.(거 '물팡'이라고.)

108016 @ 예.(예.)

108016 #5 대 셉는 게 아니고 그냥 팡돌[330] 놓는 거.(대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팡돌' 놓는 거.)

108015 #1 팡돌, 팡돌.('팡돌', '팡돌'.)

108015 #5 그냥 팡돌 놓는 거.(그냥 '팡돌' 놓는 거.)

108016 #1 돌로, 돌로.(돌로, 돌로.)

108016 #5 물.(물.)

108016 @ 물팡 아래 틈 벌어지게.('물팡' 아래 틈 벌어지게.)

108016 #1 그자 임시.(그저 임시.)

108016 #5 저디 가면 볼 수 잇어.(저기 가면 볼 수 있어.)

108017 @ 예, 이땅 강 사진 다 찍엉 가쿠다. 물팡 놓고 이제 집에서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가는 골목 건 뭐렌 헤마씨? 이 동네서는.(예, 이따가 가서 사진 다 찍어서 가겠습니다. '물팡' 놓고 이제 집에서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가는 골목 건 뭐라고 해요? 이 동네서는.)

108017 #5 먼올레[331].('먼올레'.)

108017 @ 먼올레.('먼올레'.)

108017 #1 올레.(오래.)

108017 @ 올레하고 삼춘 먼올레하고 차이점 골아줍서?(오래하고 삼촌 '먼올레' 하고 차이점 말해주십시오?)

108017 #5 길이가 길고 짧은 거. 그냥 올레는 짧은 것이고, 먼올레 허민 긴 거. 이 춤 여기 가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변헤부렀주마는.(길이가 길고 짧은 거. 그냥 오래는 짧은 것이고, '먼올레' 하면 긴 거. 이 참 여기 가면 이제 지금은 이제 변해버렸지만.)

108017 @ 멧 년 뒛수가? 그 집이.(몇 년 됐습니까? 그 집이.)

108017 #1 아이고, 오래엇주.(아이고, 오래었지.)

108017 #5 오래엇주.(오래었지.)

108017 #1 사삼사건 후에 그대로 지은 집이니깐 에 저것이 오십 년대에 지엇지.(사삼사건 후에 그대로 지은 집이니깐 에 저것이 오십 년대에 지었지.)

108017 @ 이 동네서 가장 오래뒌 집이우과? 게믄.(이 동네서 가장 오래된 집입니까? 그러면.)

---

329)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 즉, '허벅'을 담은 바구니를 올려놓는 대를 말한다. '허벅'을 담은 바구니를 '물구덕'이라고 한다.

330) '팡돌'은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게 돌로 만든 대를 말한다.

331) '먼올레'는 집에서 큰길로 연결된 골목을 이르는 말이다. 오래가 길 때 '먼올레'라고 하고, 짧은 오래는 '올레'라고 한다.

108017 #5 아, 대부분 그때 지은 집은.(아, 대부분 그때 지은 집은.)

108017 #1 더 오랜 건 우리 집인디.(더 오랜 건 우리 집인데.)

108017 @ 예.(예.)

108017 #5 그딘 많이 개조해부난.(거긴 많이 개조해버리니까.)

108017 #1 우린 개조헤부난이고 이, 이 선생네 집은 개졸 헤여도.(우린 개조해버리니까고 이, 이 선생네 집은 개졸 해도.)

108017 @ 그 모양은 고대로 잇고.(그 모양은 그대로 있고.)

108017 #1 모양은 그대로 잇으니까.(모양은 그대로 있으니까.)

108018 @ 아, 알겟습니다. 게믄 이제 문간채? 문간체가 먼문이켜예?(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간채? 문간채가 '먼문'이겠네요?)

108018 #1 먼문[332] 붙은 디가 문간채.('먼문' 붙은 디가 문간채.)

108019 @ 예, 그 다음에 이 집집마다 옛날에 눌들도 하영 눌엇잖우과예? 그 눌 누는 디는 뭐렌 헙니까?(예, 그 다음에 이 집집마다 옛날에 가리들도 많이 가렸잖습니까? 그 가리 가리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108019 #5 그냥 눌굽[333]이라고 허주, 거주. 딴 건 없고.(그냥 '눌굽'이라고 하지, 거지. 딴 건 없고.)

108019 @ 눌굽.('눌굽'.)

108019 #5 아니고.(아니고.)

108019 @ 눌왓 이런 말은 안 헙니까? 아아.('눌왓' 이런 말은 안 합니까? 아아.)

108019 #1 왓말은 그자 저 눌굽. 눌왓듸엔 곧는 사름도 잇고.('왓말'은 그저 저 '눌굽'. '눌왓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8019 @ 음.(음.)

108019 #1 안 골진 안 허여.(안 말하진 안 해.)

108019 #5 옛날 소 길룰 때 밭에 촐이라고.(옛날 소 기를 때 밭에 꼴이라고.)

108019 @ 예.(예.)

108019 #5 쉐 먹이. 그걸 그건 지정뒈 잇엇어. 어느 집이든지. 촐눌굽[334]이라고 헤가지고.(소 먹이. 그걸 그건 지정되어 있었어. 어느 집이든지. '촐눌굽'이라고 해가지고.)

108019 @ 음.(음.)

108019 #5 딴 건 안 허고 그것만.(딴 건 안 하고 그것만.)

108019 @ 딱 촐눌굽. 그럼 한 집에 눌굽덜은 멧 개썩 잇어난 거우과?(딱 '촐눌굽'. 그럼 한 집에 '눌굽'들은 몇 개씩 있었던 겁니까?)

108019 #5 뭐 잘 사는 집은 여러 개 잇주. 보리도 헤당 눌고 뭐든지 헤당 눌엇으니까.(뭐 잘 사는 집은 여러 개 있지. 보리도 해다가 가리고 뭐든지 해다가 가렸

332) '먼문'은 문간채에 붙어 있는 대문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먼문'을 '이문'이라고 한다.

333) '눌굽'은 짚이나 꼴 따위를 가리를 가릴 수 있게 바닥에 둥그렇게 돌 따위로 깔아놓은 바닥을 말한다.

334) '촐눌굽'은 꼴을 가릴 수 있게 바닥에 둥그렇게 돌 따위로 깔아놓은 바닥을 말한다.

으니까.)

108019 @ 음.(음.)

108019 #5 더프는 거는 나람지라고 우리 말로. 춤 제주말로 ᄂᆞ래미.(덮는 거는 이엉이라고 우리 말로. 참 제주말로 'ᄂᆞ래미'.)

108019 #1 ᄂᆞ래미.(이엉.)

108019 @ ᄂᆞ래미예. 으.(이엉요. 으.)

108019 #1 우에 주젱이.(위에 주저리.)

108019 @ 예, 우에 주젱이. 여기는 ᄂᆞ래미 헴구나예? 게믄 그.(예, 위에 주저리. 여기는 'ᄂᆞ래미' 하고 있군요? 그러면 그.)

108019 #1 그디선 뭐렌 골아?(거기선 뭐라고 말해?)

108019 @ 우린 ᄂᆞ람지.(우린 'ᄂᆞ람지'.)

108019 #5 ᄂᆞ람지도 ᄒᆞ꼼 신식 말 부튼 거.('ᄂᆞ람지'도 조금 신식 말 붙은 거.)

108019 @ (웃음).

108019 #1 그전엔 ᄂᆞ래미.(그전엔 'ᄂᆞ래미'.)

108019 @ ᄂᆞ래미. 동쪽에는 ᄂᆞ래미 우리 서쪽에는 ᄂᆞ람지. (웃음).(이엉. 동쪽에는 'ᄂᆞ래미' 우리 서쪽에는 'ᄂᆞ람지'. (웃음).)

108019 #1 게난 여긴 그거 두 갤 다 써.(그러니까 여긴 그거 두 갤 다 써.)

108019 @ 아, 써.(아, 써.)

108019 #1 중간이니까 그건가?(중간이니까 그건가?)

108019 @ 게믄 그 그 눌굽에서도 하영 놀앗지예? 눌 눈 디서 어렷을 때.(그러면 그 그 '눌굽'에서도 많이 놀았지요? 가리 가린 데서 어렸을 때.)

108019 #5 눌 눈 어렷을 때 놀 장소가 못 뒈여.(가리 가린 어렸을 때 놀 장소가 못 되어.)

108019 #1 곱은제기 허멍 그디 강 무사 안 놀 말이라게.(숨바꼭질 하면서 거기 가서 왜 안 놀 말인가.)

108019 #5 숨는 건 헌디 여기서 보통 눌굽은 돌로 만들엇으니까.(숨는 건 하는데 여기서 보통 '눌굽'은 돌로 만들었으니까.)

108019 @ 예, 게영 그 다음엔 눌 이렇게 누는 거잖아예. 무사게 촐도 영 빠면 그 속에서도 강 놀고.(예, 그래서 그 다음엔 가리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왜 꼴도 이렇게 뽑으면 그 속에서도 가서 놀고.)

108019 #5 옛날도 그런 디 간 놀긴 헷주.(옛날도 그런 데 가서 놀긴 했지.)

108019 @ 예, 삼춘, 거기 강 곱은제기 하영 헌 모양이라예?(예, 삼촌, 거기 가서 숨바꼭질 많이 한 모양이네요?)

108019 #1 건 뭐 당연헌 거주. 어린 때엔.(건 뭐 당연한 거지. 어린 때엔.)

108020 @ 예, 그 다음에 집 보면은 이제 눌굽도 잇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도새기도 질롸야 뒈고.(예, 그 다음에 집 보면 이제 '눌굽'도 있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돼지도 길러야 되고.)

108020 #1 으.(으.)

108020 @ 쉐도 질롸야 뒈고. 도새기 질루는 데는 뭐렌 헙니까? 여기서?(소도 길러야 되고. 돼지 기르는 데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108020 #5 통시라고. 건 뭐 통일뒛을 걸.(돼지우리라고. 건 뭐 통일됐을 걸.)

108020 #1 뒷간, 통시.(뒷간, 돼지우리.)

108020 @ 통시하면은 보통 통시는 어느 방향에 헨에 지엇수가?(돼지우리하면은 보통 돼지우리는 어느 방향에 해서 지었습니까?)

108020 #5 그건 그 집에 따라서 옛날은 그 방향이 네 곤데가 잇는데.(그건 그 집에 따라서 옛날은 그 방향이 네 군데가 있는데.)

108020 @ 예, 아, 삼춘네 집 생각하면은?(예, 아, 삼촌네 집 생각하면?)

108020 #5 지금 저 우리 저 집은 서북쪽.(지금 저 우리 저 집은 서북쪽.)

108020 @ 음.(음.)

108020 #5 진술축미니까 저 술방이주.(진술축미니까 저 술방(戌方)이지.)

108020 @ 으음. 게난 진술축미헤갖고 네 보통 그.(으음. 그러니까 진술축미해갖고 네 보통 그.)

108020 #5 변소 방위가.(변소 방위가.)

108020 @ 아아, 그럼 변소 방위는 그 네 군데를 허는 거구나예?(아아, 그럼 변소 방위는 그 네 군데를 하는 거군요?)

108020 #5 것이 제일 나쁜 방인 모양이라.(것이 제일 나쁜 방인 모양이야.)

108020 #1 나쁜 방인지 좋은 방인지 집, 집에서 헤영 셍기 방 뭐 또 잇고 허난 그게 옛날 그 천헌 방이라고 헤서. 헷는데 저게 축미방은 천, 천헌 걸고 방윌로 셍각헤.(나쁜 방인지 좋은 방인지 집, 집에서 해서 생기 방 뭐 또 있고 하니까 그게 옛날 그 천한 방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게 축미방은 천, 천한 걸고 방위로 생각해.)

108020 @2 변소, 부억하고 젤 먼 딜 거우다.(변소, 부엌하고 젤 먼 딜 겁니다.)

108020 @ (웃음). 눌굽은 보통 어느 쪽에 헤마씨? 것도 정헤졋일 거라예?((웃음). '눌굽'은 보통 어느 쪽에 해요? 것도 정해졌을 거지요?)

108020 #5 없어.(없어.)

108020 @ 그것 없어마씨?(그것 없어요?)

108020 #5 장소가 나는 데마다.(장소가 나는 데마다.)

108020 @ 그 다음에 이 그 통시, 옛날 그 통시에 도새기예 길루잖아예. 그러면 그 통시도 우리 집처럼 다 잇일 거 아니우과? 돼지 즘 자는 디, 뭐 것 놓는 디 이런 것도 골아 줘봅서.(그 다음에 이 그 돼지우리, 옛날 그 돼지우리에 돼지요 기르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우리도 우리 집처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돼지 잠 자는 데, 뭐 먹이 놓는 데 이런 것도 말해 줘보십시오.)

108020 #5 것도 잇주.(것도 있지.)

108020 @ 통시 만들면 뭐 뭐 잇는 지 골아줍서?(돼지우리 만들면 뭐 뭐 잇는지 말해 주십시오?)

108020 #5 뒤 보는 디딜팡.(뒤 보는 부춘돌.)

108020 #1 디들팡.(부춘돌.)

108020 @ 디들팡 잇는 디 잇고.(부춘돌 있는 데 있고.)

108020 #5 돗도고리[335] 앚지고. 세 군데.('돗도고리' 앉히고. 세 군데.)

108020 #1 베꼇뒨 궂인물항[336] 놓곡.(바깥에는 '구정물독' 놓고.)

108020 @ 예, 궂인물항도 놓곡. 맞수다. 그러면은 아까 디딜팡? 디딜팡 헹은에 이제.(예, 구정물독도 놓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춘돌? 부춘돌 해서 이제.)

108020 #1 디딜팡.(부춘돌.)

108020 @ 디딜팡예, 그 다음에 우리 그 돼지 키우젠 허면 계속 뭐 줘야 뒈잖아예? 땅 젖고 허니까?(부춘돌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돼지 키우려고 하면 계속 뭐 줘야 되잖아요? 땅 젖고 하니까?)

108020 #1 짓 줘사.(깃 줘야.)

108020 @ 짓.(깃.)

108020 #5 여긴 그땐 옛날 보리낭이니까 주로 그거.(여긴 그땐 옛날 보릿대니까 주로 그거.)

108020 @ 아, 짓 주는 거는 보통 메칠에 한 번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아, 깃 주는 거는 보통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108020 #5 아니, 형편에 따라서 여기가 질민은 담아 놓고 담아 놓고 허는 거니까 메칠에 흔 번이라고 허진 골진 못허주.(아니, 형편에 따라서 여기가 질면 담아 넣고 담아 넣고 하는 거니까 며칠에 한 번이라고 하진 말하진 못하지.)

108020 #1 걸름을 하영 멘들젠 허민 자꾸 주고.(거름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 자꾸 주고.)

108020 @ 예.(예.)

108020 #1 또 재료, 그 재료가 잇어야 허는디 재료 엇으면 그걸 못 주고.(또 재료, 그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재료 없으면 그걸 못 주고.)

108020 @ 음, 어렷을 때 돼지 질루멍예, 이 놈이 돗통담 넘엉은에 가불면 촞으레 뎅기고 헤봣지예?(음, 어렸을 때 돼지 기르면서요, 이 남의 돼지우리담 넘어서 가버리면 찾으러 다니고 해봤지요?)

108020 #5 아, 그것사 물론이주.(아, 그것이야 물론이지.)

108020 @ 건 어떤 식으로 헐 때 가부는 거우과?(건 어떤 식으로 할 때 가버리니는 겁니까?)

108020 #1 서방 촞앙 잘 돌아뎅겨.(서방 찾아서 잘 돌아다녀.)

108020 @ 음. (웃음).(음. (웃음).)

108020 #5 그건데.(그건데.)

---

335) '돗도고리'는 돼지 먹이를 넣어서 주기 위하여 돌로 둥그스름하거나 네모나게 만든 그릇을 말한다.

336) '궂인물항'은 설거지를 했던 물 등 구정물은 넣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독을 말한다. 보통 돼지우리 바깥에 놓아서 구정물을 모아두는 역할을 한다.

108020 @ 예, 그 경험 한 번 골아줍서. 어떤 식으로 헹은에.(예, 그 경험 한 번 말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108020 #5 아니, 게난 옛날은 그 춤 그 뒈짓간 통시 담이 작은 걸로 다우니까.(아니, 그러니까 옛날은 그 참 그 돼지우리 돼지우리 담이 작은 걸로 쌓으니까.)

108020 @ 예.(예.)

108020 #5 성질 사나운 건 거 다 머려부러.(성질 사나운 건 거 다 허물어버려.)

108020 @ 으음. 허.(으음. 허.)

108020 #5 경 헤서 밖으로 나오는데 요 중간엔 헐 때는 다 큰 돌로 헤가지고 웬만헤서는 나오지 못헤낫주.(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요 중간엔 할 때는 다 큰 돌로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나오지 못했었지.)

108020 @ 옛날에는 ᄒᆞ꼼 낮게 이렇게 헷구나예?(옛날에는 조금 낮게 이렇게 했군요?)

108020 #1 겐디 수톳 츳을 때 상당히 사나와.(그런데 수퇘지 찾을 때 상당히 사나워.)

108020 @ 음.(음.)

108020 #1 게믄 높은 담도 뭐 필요가 없어. 성질 좀 뭐 헌 건. 성질이 좋은 건 그 안네서 그대로 뭐허는데 것도 그 사름 성질ᄀᆞ치 좀 갈갈헌 건 거 담 튀영 도망가는 모양이라.(그러면 높은 담도 뭐 필요가 없어. 성질 좀 뭐 한 건. 성질이 좋은 건 그 안에서 그대로 뭐하는데 것도 그 사람 성질같이 좀 갈갈한 건 거 담 뛰어서 도망가는 모양이야.)

108020 @ 음. 우리 그 새끼도 내우곡 허잖아예? 새끼 내왕은에 허면 그 세지 안 헙니까? 멧 개 하나씩 두 개씩 헐 때는 ᄒᆞᆫ 머리 두 머리 헤마씨?(음. 우리 그 새끼도 내우고 하잖아요? 새끼 내워서 하면 그 세지 안 합니까? 몇 개 하나씩 두 개씩 할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해요?)

108020 #1 ᄒᆞᆫ 머리 두 머리. ᄒᆞᆫ 자리[337] 두 자리도 허곡.(한 마리 두 마리. 한 '자리' 두 '자리'도 하고.)

108020 @ ᄒᆞᆫ 자리 두 자리 허는 건 그건 뭐우과?(한 '자리' 두 '자리' 하는 건 그건 뭡니까?)

108020 #5 ᄒᆞᆫ 자리는 그거 쌍이라.(한 '자리'는 그거 쌍이야.)

108020 #1 으.(으.)

108020 @ 쌍, 두 개예?(쌍, 두 개요?)

108020 @ 뭐 풀젠 허면은 ᄒᆞᆫ 자리씩 헹은에 ᄑᆞ는 거라예? 짝 체왕은에. 으, 알앗수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아까 이제 디딜팡만 허면 끗나는 거 아니라예? 옛날 돗통. 그럼 저디 사름 오젠 허면은 고망 내왕 허기도 허고. 거기를 따로 부르기도 헙니까? 사람 가서 이제 볼일 보고 허는 디를?(뭐 팔려고 하면 한 자리씩 해서 파는 거네요? 짝 채워서. 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아까 이제 부춘돌만 하

337) '자리'는 돼지 두 마리를 일컬을 때 쓰는 단위 명사다.

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옛날 돼지우리. 그럼 저기 사람 오려고 하면 구멍 내서 하기도 하고. 거기를 따로 부르기도 합니까? 사람 가서 이제 볼일 보고 하는 데를?)

108020 #5 겐디 이 저 사건 후에는 가리는 게 잇엇는데 옛날은 가리는 게 없엇어.(그런데 이 저 사건 후에는 가리는 게 있었는데 옛날은 가리는 게 없었어.)

108020 @ 아아, 그냥 디딜팡만 놩 끗.(아아, 그냥 부춘돌만 놓아서 끝.)

108020 #1 으, 디딜팡게 비오민 비 맞곡.(으, 부춘돌만 비오면 비 맞고.)

108020 @ (웃음). 게믄 그 돗집 같은 경우는 짓엉 잇어난 거우과? 건 돗집?((웃음). 그러면 그 '돼지집' 같은 경우는 지어서 있었던 겁니까? 건 '돼지집'?)

108020 #1 돗집[338].('돼지집'.)

108022 @ 돗집 헤고예? 그 다음 허드레헌 거 놓는데. 뭐 헛간이렌 헙니까? 뭐렌 헙니까?('돼지집' 하고요? 그 다음 허드레한 거 놓는데. 뭐 헛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08022 #1 헛간.(헛간.)

108022 #5 헛간은 맞고.(헛간은 맞고.)

108022 @ 예.(예.)

108022 #5 또 춤 ᄀᆞ시락막[339]이라고 헤서 불때는 거 놓는 딘 ᄀᆞ시락막.(또 참 '까끄라기막'이라고 해서 불 때는 거 놓는 덴 '까끄라기막'.)

108022 #1 ᄀᆞ시락 데미는 딘 ᄀᆞ시락막.(까끄라기 쌓는 덴 '까끄라기막'.)

108022 @ 예, 헛간에는 주로 뭐 놔마씨?(예, 헛간에는 주로 뭐 놔요?)

108022 #5 헛간에는 진짜 허드레 물건 놓는 거주. 농기구 같은 거.(헛간에는 진짜 허드레 물건 놓는 거지. 농기구 같은 거.)

108022 @ 예.(예.)

108022 #5 그렇게 놓는 거.(그렇게 놓는 거.)

108022 #1 멍석, 멕. 멍석이나 멕이나 그 농기구덜.(멍석, 멱. 멍석이나 멱이나 그 농기구들.)

108022 @ 예.(예.)

108022 #1 다 젱기 ᄀᆞ튼 거. 주로 이 헛간이.(다 쟁기 같은 거. 주로 이 헛간이.)

108022 @ 음.(음.)

108022 #1 쉐, 쉐막에 ᄀᆞ치 부떵 잇주게.(소, 외양간에 같이 붙어 있지.)

108022 @ 아, 아.(아, 아.)

108022 #1 쉐막 혼쪽 칸, 혼쪽 칸엔 쉐 메고.(외양간 한쪽 칸, 한쪽 칸엔 소 매고.)

108022 @ 예.(예.)

108022 #1 혼쪽 칸엔 헛간 헹은에 거기덜 다 놩근에 이쪽 칸에 못 놓은 거 저쪽 칸에 놓멍 경헹 다.(한쪽 칸엔 헛간 해서 거기들 다 놓아서 이쪽 칸에 못 놓은

338) '돗집'은 돼지가 잠을 자는 집을 말한다. 돼지우리 한쪽에 지붕을 간소하게 해서 만든다.
339) 'ᄀᆞ시락막'은 보리 까끄라기를 모아서 쌓아두는 막을 말한다. 까끄라기로는 방의 아궁이를 때는 땔감으로 활용하였다.

거 저쪽 칸에 놓으면서 그렇게 해서 다.)

108023 @ 게믄 아까, 삼춘 모커리 헹은에 디귿 자 집 지엇잖아예? 쉐막을 뜨로 멘드는 거우과?(그러면 아까, 삼촌 곁채 해서 디귿 자 집 지었잖아요? 외양간을 따로 만드는 겁니까?)

108023 #5 먼문간에 부트는 예가 많주.('먼문간'에 붙는 예가 많지.)

108023 @ 아아, 먼문간에 한쪽에 헹은에 거기 쉐 메는 디 그 다음에 헛간 이렇게 쓰는 거구나예?(아아, '먼문간'에 한쪽에 해서 거기 소 매는 데 그 다음에 헛간 이렇게 쓰는 거군요?)

108023 #1 게난 먼문간이 대개 삼 칸, 삼 칸 뒈는 집이 많주.(그러니까 '먼문간'이 대개 삼 간, 삼 간 되는 집이 많지.)

108023 @ 음.(음.)

108023 #1 게난 흔 칸은 쉐 메곡 가운딘 사름 드나들곡 또 이 칸은 아이덜 줌이나 자곡, 또 이쪽에.(그러니까 한 칸은 소 매고 가운덴 사람 드나들고 또 이 칸은 아이들 잠이나 자고, 또 이쪽에.)

108023 @ 아, 먼문간에도 방을 ᄒᆞ나 멘들기도 허여?(아, '먼문간'에도 방을 하나 만들기도 해?)

108023 #5 이딘 방 멘들안 잇언. 다 뜯어지긴 헷는데.(여긴 방 만들어서 있었어. 다 뜯어지긴 했는데.)

108023 @ 으음. 보통 거기도 이젠 방을 멘들앙 헌 거라예? 우리 쉐막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떤 식으로 멘들아마씨? 이제, 뭐 쉐막. 이 촐 주는 디영 이런 거 것도 따로 이름도 잇입니까?(으음. 보통 거기도 이젠 방을 만들어서 한 거네요? 우리 외양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이제, 뭐 외양간. 이 꼴 주는 데랑 이런 거 것도 따로 이름도 있습니까?)

108023 #5 뭐 그건 칸만 갈라가지고 이 저 출입구 냉겨둬근에.(뭐 그건 칸만 갈라가지고 이 저 출입구 남겨둬서.)

108023 @ 예.(예.)

108023 #5 거긴 다 먼문 집지어 진 디니까 쌀만 박아서 나오지 못허게.(거긴 다 '먼문' 집지어 진 데니까 살만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108023 #1 중방[340]이엔 허여이. 쌀 박은 거이.('중방'이라고 해. 살 박은 거.)

108023 #5 소 출입허는 디가 저 중방. 소 나오지 못허게 허는 디가 중방.(소 출입하는 데가 저 '중방'. 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데가 '중방'.)

108023 @ 건 중방이렌 허여예? 사름 사는 구들 멘든 디는?(건 '중방'이라고 한다고요? 사람 사는 방 만든 데는?)

108023 #5 아, 그건 딴 칸이니까.(아, 그건 딴 칸이니까.)

108023 @ 딴 칸이라도 거기 불르는 방은 엇어마씨?(딴 칸이어도 거기 부르는

340) '중방'은 외양간에 소를 매는 곳과 사람이 다니는 곳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유 앞쪽으로 나무로 칸살을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중방'을 '메낭'이라고 하기도 한다.

방은 없어요?)

108023 #5 잇주게. 모커리방 이렇게 허는 건디 모커리구둘[341]엔 허는 건디.(있지. '모커리방' 이렇게 하는 건데 '모커리방'이라고 하는 건데.)

108023 @ 그냥 모커리구둘. 근데 쉐 출입허는 디는 중방. 그 중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예?(그냥 '모커리'방. 근데 소 출입하는 데는 '중방'. 그 '중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108023 #5 중방이라고 허는 나무를 걸치는 거.('중방'이라고 하는 나무를 걸치는 거.)

108023 #1 아, 게난 이쪽 지둥허고 이쪽 지둥 사이에 낭으로 가로 이렇게 건 빼엿다 놧다 허게 뭰 건디.(아, 그러니까 이쪽 기둥하고 이쪽 기둥 사이에 나무로 가로 이렇게 건 빼었다가 놨다 하게 된 건데.)

108023 @ 예.(예.)

108023 #5 소 출입허젠 허면은.(소 출입하려고 하면.)

108023 #1 소 나오젠 허면 쉐가 나오젠 중방 빼여뒁 쉐 네밀고 또 물이나 멕영 근엥게 또 들어오면 또 중방 놔버리면 그냥 가둬지고.(소 나오려고 하면 소가 나오려고 '중방' 빼여두고 소 내몰고 또 물이나 먹여서 또 들어오면 또 '중방' 놔버리면 그냥 가둬지고.)

108023 @1 으음. 그럼 일종에 그 정낭 구실을 허는 거구나예?(으음. 그럼 일종의 그 정낭 구실을 하는 거군요?)

108023 #1 정낭[342], 그렇지.('정낭', 그렇지.)

108023 #5 정낭은 그건 사람이 출입허는 거고.('정낭'은 그건 사람이 출입하는 거고.)

108023 #1 건 올레에 허는 거고.(건 오래에 하는 거고.)

108023 @ 올레에 허는 거고. 이제 중방은 이제 그 쉐막에 이제.(오래에 하는 거고. 이제 '중방'은 이제 그 외양간에 이제.)

108023 #1 쉐 드나드는.(소 드나드는.)

108024 @ 그 다음에 이제 집 뒤에 놓든 옆에 놓든 뭰장이영 이렇게 놓는 디예?(그 다음에 이제 집 뒤에 놓든 옆에 놓든 된장이랑 이렇게 놓는 데요?)

108024 #5 장독?(장독?)

108024 @ 예, 여기는 뭐렌 불럿수가?(예, 여기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108024 #5 게메.(글쎄.)

108024 @ 뭐 두에. 장독두에, 뭐 장팡뒤?(뭐 '두에'. '장독두에', 뭐 '장팡뒤'?)

108024 #1 아니, 그딜 꼭 저 서쪽에선 뭐옌 골읍니까?(아니, 그딜 꼭 저 서쪽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108024 @2 장팡뒤?('장팡뒤'?)

---

341) '모커리구둘'은 곁채에 딸린 방을 일컫는 말이다.

342) '정낭'은 대문 대신으로 길 양쪽으로 걸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긴 나무 막대기다.

108024 #1 장팡뒤?(‘장팡뒤’?)

108024 @ 우린 장황두에렌.(우린 ‘장황두에’라고.)

108024 #1 장황두인[343] 여기도 장황두인 장황이 잇언 둔 디. 나 지금 곧는, 들어보는 건 여길 딱 눌굽ᄀᆞ치 이제 그 이름이 잇는가 허연에 뚠 집 구역에서. 경허난 여기선 뭐.(장독댄 여기도 장독대는 장항이 있어서 둔 데. 나 지금 말하는, 들어보는 건 여길 딱 ‘눌굽’같이 이제 그 이름이 있는가 해서 다른 집 구역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선 뭐.)

108024 @ 안뒤옌도 허고, 두에엔도 허고 여기는 그냥?(‘안뒤’라고도 하고, ‘두에’라고도 하고 여기는 그냥?)

108024 #1 보통 그자 두엔도 곧곡.(보통 그저 ‘두에’라고도 말하고.)

108024 #5 장황뒤[344].(‘장황뒤’.)

108024 #1 장황뒤에도 곧고.(‘장황뒤’라고도 말하고.)

108024 @ 장황뒤예. 그 장황뒤는 보통 별도로 만든 거우과?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장독대요. 그 장독대는 보통 별도로 만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8024 #5 별반 만든 데는 없고 기냥 이 항굽[345]만 놔가지고.(별반 만든 데는 없고 그냥 이 ‘항굽’만 놔가지고.)

108024 @ 아, 항굽을 만드는 거라, 게문예, 항굽은 뭘로?(아, ‘항굽’을 만드는 거라, 그러면요, ‘항굽’은 뭘로?)

108024 #5 돌로. 돌로. 요 중간에는 것이 딱 모양 만들엇는데, 옛날은 기냥 항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돌로. 돌로. 요 중간에는 것이 딱 모양 만들었는데, 옛날은 그냥 항아리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108024 @ 그거를 항굽헷어예? 어, 경헨.(그거를 ‘항굽’ 했어요? 어, 그렇게 했어.)

108024 #1 쉽게 말허민 요샛말로 허민 깔판.(쉽게 말하면 요샛말로 하면 깔판.)

108024 @ 예, 예.(예, 예.)

108024 @ 돌로 깔판을 만들언 거기.(돌로 깔판을 만들어서 거기.)

108025 @ 항 놓은 거라예? 그 다음에 여기도 춤항 같은 것도 헤낫수가? 물 받젠 허면?(항아리 놓은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춤항’ 같은 것도 했었습니까? 물 받으려고 하면?)

108025 #1 춤[346].(‘춤’.)

108025 @ 춤 헤낫수가?(‘춤’ 했었습니까?)

108025 #1 춤은 동장네 집의나 헷주.(‘춤’은 동장네 집에나 했지.)

---

343) ‘장황두이’은 장독을 넣는 공간을 말한다. 보통 집 뒤에 마련해서 ‘장황두이’라고 한다. 표준어 ‘장독대’에 해당하는 말이다.

344) ‘장황뒤’는 장독을 넣어두는 공간을 말한다. 표준어 ‘장독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345) ‘항굽’은 항아리를 놓을 자리라는 의미다. 돌 따위를 놓아서 만든다.

346) ‘춤’은 띠를 머리 땋듯이 땋아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이나 빗물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이다.

108025 #5 우리도.(우리도.)
108025 #1 집의도 잇겟다.(집에도 있겠다.)
108025 @ 그 춤에.(그 '춤'에.)
108025 #1 유지낭이 시니까.(유자나무가 있으니까.)
108025 #5 그건 별 다른 건 엇어. 이 새로 헤서 ᄂᆞ래미 짱.(그건 별 다른 건 없어. 이 띠로 해서 이엉 짜서.)
108025 @ 예.(예.)
108025 #5 나무 둘레를 딱 무꺼서 머리 다완 알레로 내려와근에 받는 거.(나무 둘레를 딱 묶어서 머리 땋아서 아래로 내려서 받는 거.)
108025 #1 아래 그릇 받으민 그것이 춤.(아래 그릇 받으면 그것이 '춤'.)
108025 @ 아래 이렇게.(아래 이렇게.)
108025 #1 춤.('춤'.)
108025 @ 항으로 헙니까?(항아리로 합니까?)
108025 #5 항아리.(항아리.)
108025 @ 춤이 뭘 춤이렌, 춤이렌 허는 거우과?('춤'이 뭘 '춤'이라고, '춤'이라고 하는 겁니까?)
108025 #5 글쎄, 그게 명칭이 춤인 모양이지. 이건 새로 여꺼서 ᄂᆞ래미 여꺼서 나무 둘레를 딱 무꺼 놔서 이제 물 내리는 거 받은 거니까.(글쎄, 그게 명칭이 '춤'인 모양이지. 이건 새로 엮어서 이엉 엮어서 나무 둘레를 딱 묶어 놔서 이제 물 내리는 거 받은 거니까.)
108025 @ 아.(아.)
108025 #1 건 쉽게 암호지. 김순자 허면.(건 쉽게 암호지. 김순자 하면.)
108025 @ 예.(예.)
108025 #1 그런 거와 이름을 이건 춤이다 헨 허니까 이제 그 춤으로 우린.(그런 거와 이름을 이건 '춤'이다 해서 하니까 이제 그 '춤'으로 우린.)
108025 @ 예, 불른 거라예? 보통 보면 그 춤은 어떤 낭을 쓴 거라마씨?(예, 부른 거라고요? 보통 보면 그 '춤'은 어떤 나무를 쓴 거예요?)
108025 #5 유자나무 여기서는 많이 썻는데.(유자나무 여기서는 많이 썼는데.)
108025 @ 여기는 유자나무.(여기는 유자나무.)
108025 #1 귤나무.(귤나무.)
108025 @ 귤나무에. 거기 메엉 물 받으면 물 용도는?(귤나무에. 거기 매서 물 받으면 물 용도는?)
108025 #5 그건 먹는 건데. 깨끗하다고 헤서.(그건 먹는 건데. 깨끗하다고 해서.)
108025 #1 깨끗허고 그 향 그 물엔 향이 잇어.(깨끗하고 그 향 그 물엔 향이 있어.)
108025 @ 아아.(아아.)
108025 #1 밀감 향이 거기서 나와.(밀감 향이 거기서 나와.)

108025 #5 여기는 이 동네는 옛날부터 생수가 없어가지고.(여기는 이 동네는 옛날부터 생수가 없어가지고.)

108025 @ 으음.(으음.)

108025 #5 지금 전부 츰. 물구릉[347]이라고 그런 물을 질어다 먹은 거주.(지금 전부 '츰'. '물구릉'이라고 그런 물을 길어다 먹은 거지.)

108025 #1 봉천수.(봉천수.)

108025 @ 물구릉이라고 헙니까? 여기서.('물구릉'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108025 #1 구릉.('구릉'.)

108025 @ 구릉.('구릉'.)

108025 #1 먹는 물, 먹는 물통. 그딘 가민 먹는 물통.(먹는 물, 먹는 못. 거긴 가면 먹는 못.)

108025 @ 예.(예.)

108025 #1 어느 구릉. 구룽이엔 이제.(어느 '구릉'. '구릉'이라고 이제.)

108025 @ 물 고른 데를 물구릉예?(물 고인 데를 '물구릉'요?)

108025 #1 물통 잇는 디를.(못 있는 데를.)

108025 @ 물통 잇는 데를. 그것도 통 잇는 데를. 판 거우과? 아니면 자연적으로 잇는 거우과?(못 있는 데를. 그것도 못 있는 데를. 판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있는 겁니까?)

108025 #1 판 거.(판 거.)

108025 @ 다 판 거예?(다 판 거요?)

108025 #1 항아리ᄀᆞ치 다 만들어 논 거예.(항아리같이 다 만들어 논 거요.)

108025 @ 음, 걸 물구릉예? 아, 이 동네만 헤도 이 도련만 헤도 웃드르라예?(음, 걸 '물구릉'요? 아, 이 동네만 해도 이 도련만 해도 윗마을이지요?)

108025 #5 웃드르주.(윗마을이지.)

108025 @ (웃음). 삼양은 그렇게 물이 하영 나는데 여기는 물 나는 디가 엇어.((웃음). 삼양은 그렇게 물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물 나는 데가 없어.)

108025 #1 씨집도 안 오켄 허여. 생수 엇어부난. 겐디 지금은 도련 물이민 약수. 도련 물은 약수.(시집도 안 오겠다고 해. 생수 없어버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련 물이면 약수. 도련 물은 약수.)

108025 @ 약수예?(약수요?)

108025 #1 하나 이 저 보건소장이 여기 살아낫는데.(하나 이 저 보건소장이 여기 살았었는데.)

108025 @ 예.(예.)

108025 #1 이제 수도꼭지에서 빼여당은에 멧 번 검사를 헤도 여긴 약수.(이제 수도꼭지에서 뽑아다가 몇 번 검사를 해도 여긴 약수.)

108025 @ 음.(음.)

---

347) '물구릉'은 물이 고여 있는 못을 도련1동에서 하는 말이다.

초가지붕 이기

108026 @ 아까 말헌 거 중에 반복허지만 간단허게 얘기혜 줍서예? 집 일젠 허민 면 멧 년에 흔번이라마씨? 여기서는 보통.(아까 말한 거 중에 반복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집 이려고 하면 몇 년에 한 번이라고요? 여기서는 보통.)

108026 #5 두 해에 한 번.(두 해에 한 번.)

108027 @ 두 해에 한 번이라예? 집 일젠 허면 새도 비왕 와야 뒈고 각단도 헤영 와야 뒈는 거 아니우과예? 그건 어느 철에 어떵 헹은에 어떵 헤영 오는 건지 골아줍서?(두 해에 한 번이라고요? 집 이려고 하면 띠도 베어서 와야 되고 '각단'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느 철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말해 주십시오?)

108027 #5 것이.(것이.)

108027 #1 동짓둘.(동짓달.)

108027 #5 동짓둘 섣둘에 집을 일지.(동짓달 섣달에 집을 이지.)

108027 #1 비여당 임도 허곡 이제 허난 저 새 비는 걸 시월 말부터 이제 동짓둘에 새 비곡.(베어다가 이기도 하고 이제 하니까 저 띠 베는 걸 시월 말부터 이제 동짓달에 띠 베고.)

108027 @ 예.(예.)

108027 #1 이제 동지섣둘에는 집을 저 일곡.(이제 동지섣달에는 집을 저 이고.)

108027 @ 으음. 섣둘에 이는 거구나예?(으음. 섣달에 이는 거군요?)

108027 #1 어.(어.)

108028 @ 그 집 일젠 허민 동네잔치 아니우과?(그 집 이려고 하면 동네잔치 아닙니까?)

108028 #5 아니.(아니.)

108028 #1 경 안 허여.(그렇게 안 해.)

108028 @ 집집마다 다 혼자는 못헐 거 아니우과?(집집마다 다 혼자는 못할 거 아닙니까?)

108028 #2 골목잔치[348].('골목잔치'.)

108028 #1 골목잔치주.(웃음).('골목잔치'지.(웃음).)

108028 #5 수눌어가면서 허는 데도 많고.(품앗이해가면서 하는 데도 많고.)

108028 @ 예.(예.)

108028 #1 줄 메젠 허민 어떵게, 내외간만 사는 집의사 그 여즈 식사도 허곡 허젠 허민 줄 맬 사름도 엇고 허니까 이웃집의서 수눌멍.(줄 매려고 하면 어떡해, 내외간만 사는 집에야 그 여자 식사도 하고 하려고 하면 줄 맬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웃집에서 품앗이하면서.)

348) '골목잔치'는 제주시 도련1동에서 '한 골목에 사는 사람끼리 음식 따위를 나눠 먹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108028 @ 음, 수눌멍예? 게난 그때 집 일 때는 막 음식도 준비헷당은에 하고 헷덴 헙디다. 다른 동네는?(음, 품앗이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집 일 때는 막 음식도 준비했다가 하고 했다고 합디다. 다른 동네는?)

108028 #5 그렇주. 놉 빌어서 하는 거니까. 잘 준비를 허는 거주.(그렇지. 놉 빌려서 하는 거니까. 잘 준비를 하는 거지.)

108028 @ 집 짓고 집 일고 헐 때 가면 주로 뭐 헤줍디가?(집 짓고 집 일고 할 때 가면 주로 뭐 해줍디까?)

108028 #5 (웃음).

108028 #1 어쨋든 먹는 거야 고급 대우 받앗주, 뭐.(어쨌든 먹는 거야 고급 대우 받았지, 뭐.)

108028 #5 그때 시절로선 고급 대접 받는 거주.(그때 시절로선 고급 대접 받는 거지.)

108028 @ 아까 집줄 만들기 허는 거예? 혹시 집줄 만들 때도 새에 물을 뿌리거나 안 헤마씨? 어떤 식으로?(아까 집줄 만들기 허는 거요? 혹시 집줄 만들 때도 띠에 물을 뿌리거나 안 해요? 어떤 식으로?)

108028 #5 물은 물 뿌리민 일허기가 더 궂으니까.(물은 물 뿌리면 일하기가 더 궂으니까.)

108028 @ 그대로 말린 거 고대로 헤서 허는 거우과?(그대로 말린 거 그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108028 #1 겨난 그 저 가루 뒈게 너무 물라가면 가루 뒈부니까 문처 가면 꺼꺼져부렁. 그 전의 허는 거.(그러니까 그 저 가루 되게 너무 말라가면 가루 되어버리니까 만져 가면 꺾어져버려서. 그 전에 하는 거.)

108032 @ 그 전의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는 뭐? 멘예, 집줄 일당은에 보면 남은 토막덜 잇일 거 아니우꽝예? 그거 가졍은 뭘로 썻수가?(그 전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는 뭐? 맨요, 집줄 이다가 보면 남은 토막들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거 가져서는 뭐로 썼습니까?)

108032 #5 남은 토막은 줄 지둘르는 거 허고. 아주 작은 건 불 때영.(남은 토막은 줄 지지르는 거 하고. 아주 작은 건 불 때어서.)

108032 #1 정짓방석.(부엌방석.)

108032 #5 정짓방석.(부엌방석.)

108032 #1 (웃음).

108032 #5 정짓방석도 허긴 헤. 그것이 오래 가지. 정짓방석.(부엌방석도 하긴 해. 그것이 오래 가지. 부엌방석.)

108032 @2 그 줄방석[349]예?(그 '줄방석'요?)

108032 @ 여기선 정짓방석. 집집마다 정짓방석. 저도 어렷을 때 봤엇거든예. 쓰다 남은 집줄은 눌 지둘르고?(여기선 부엌방석. 집집마다 부엌방석. 저도 어렸을 때

349) '줄방석'은 집을 동여매다 남은 줄로 만든 방석이다.

봤었거든요. 쓰다 남은 '집줄'은 눌 지지르고?)

108032 #1 눌 지둘르곡 나머진 또 정짓방석허고.(눌 지지르고 나머진 또 부엌방석하고.)

108032 @ 정짓방석허고예, 예, 그 다음엔 불도 때고.(부엌방석하고요, 예, 그 다음엔 불도 때고.)

연장

108033 @ 집 짓젠 허면 보통 연장덜 필요헌 게 뭐 뭐 잇어낫수가? 집 짓을 때 가졍다니는 연장덜이 하낫어예?(집 지으려고 하면 보통 연장들 필요한 게 뭐 뭐 있었었습니까? 집 지을 때 가져다니는 연장들이 많았었지요?)

108033 #5 그거야 만허주.(그거야 많지.)

108034 @ 그걸 골아줘봅서?(그걸 말해 줘보십시오?)

108034 #5 게메, 그거 일름을 다 몰르컨게.(글쎄, 그거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108034 @ 알아지는 대로.(알아지는 대로.)

108033 #1 춤, 우선 곧는 건.(참, 우선 말하는 건.)

108033 @ 집 영 허영은에.(집 이렇게해서.)

108033 #1 톱이 들어사 헐 거고 자귀가 들어사 헐 거고.(톱이 들어야 할 거고 자귀가 들어야 할 거고.)

108033 #5 우선은 젤 첫째가 곱은자고.(우선은 젤 첫째가 곱자고.)

108038 @ 곱은자예? 이렇게 곱은 거예?(곱자요? 이렇게 곱은 거요?)

108038 #5 으, 그 다음은 먹통이고.(으, 그 다음은 먹통이고.)

108038 @ 먹통예? 먹통에 잇으면 또 ᄀᆞ치 ᄯᅡ라가는 게 잇어얄 게 아니라예?(먹통요? 먹통에 있으면 또 같이 따라가는 게 있어야할 게 아닌가요?)

108038 #5 먹물. ᄯᅡ라가는 게 없고.(먹물. 따라가는 게 없고.)

108038 @ 그 다음에 영?(그 다음에 이렇게?)

108038 #5 건.(건.)

108038 #2 먹술.(먹줄.)

108038 #5 먹술이라고 허는 거고.(먹줄이라고 하는 거고.)

108034 @ 같이 들어가는 거우과? 예. 그 다음에.(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108034 #5 그 다음에 톱이 들어가야 뒈고.(그 다음에 톱이 들어가야 되고.)

108034 @ 예, 톱이 들어가야 뒈고. 톱도 종류가 막 ᄋᆞ라 가지 아니우과?(예, 톱이 들어가야 되고. 톱도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 아닙니까?)

108034 #5 톱은 그거 다 뭐. 춤 종류가 여러 개지만은 큰톱 작은톱으로만 구별허주. 그거 뭐 이야기허지 못허고.(톱은 그거 다 뭐. 참 종류가 여러 개지만 큰톱 작은톱으로만 구별하지. 그거 뭐 이야기하지 못하고.)

108034 @ 대톱이여 거톱이여 안 써보고예? 예.(대톱이다 거도다 안 써보고요?

예.)

108034 #5 거두엔 헌 거 집 지을 때 벨반 안 쓰는 거고. 목재 헤올 때나 쓰는 것이고.(거도라고 한 거 집 지을 때 별반 안 쓰는 거고. 목재 해올 때나 쓰는 것이고.)

108034 #1 큰 낭 끊을 때.(큰 나무 끊을 때.)

108034 @ 양쪽에 상은에 허는 거우꽈? 거두는.(양쪽에 서서 하는 겁니까? 거도는.)

108034 #1 거둔 혼자 썰어도 톱이 크니까 거두주.(거도는 혼자 켜도 톱이 크니까 거도지.)

108034 @ 옛날에 양쪽에 헤갖고 둘이 허는 거는 엇어?(옛날에 양쪽에 해갖고 둘이 하는 거는 없어?)

108034 #1 건 대톱.(건 대톱.)

108034 @ 건 대톱. 거두허고 대톱이 ᄐᆞ난 거우꽈?(건 대톱. 거도하고 대톱이 다른 겁니까?)

108034 #5 틀리주.(다르지.)

108034 #1 예, 아주.(예, 아주.)

108034 #5 거두엔 헌 거 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허는 거고. 그건 주로 나무를 쪼갤 때 쓰는 거.(거도라고 한 거 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건 주로 나무를 쪼갤 때 쓰는 거.)

108034 @ 예? 거두는, 아, 대톱은?(예? 거도는, 아, 대톱은?)

108034 #5 으.(으.)

108034 @ 대톱은예, 낭 쪼갤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못들 박젠 허면 뭐가 필요헤마씨?(대톱은요, 나무 쪼갤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못들 박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108034 #5 건 뭐 마께라고 헤야 좋을지.(건 뭐 방망이라고 해야 좋을지.)

108034 #1 마께.(방망이.)

108034 #5 망치라고 헤야 좋을지.(망치라고 해야 좋을지.)

108034 @ 마께가 더 좋수다.(방망이가 더 좋습니다.)

108034 #5 또 자구가 잇어, 자구.(또 자귀가 있어, 자귀.)

108034 @ 자구.(자귀.)

108034 #5 자귀라고 허는데.(자귀라고 하는데.)

108034 #1 자귀, 옛말. 자귀.(자귀, 옛말. 자귀.)

108034 #5 자귀라고 허는디.(자귀라고 하는데.)

108034 @ 자귀 용도는 뭐우꽈?(자귀 용도는 뭡니까?)

108034 #5 까끄는 거.(깎는 거.)

108035 @ 낭 까끄는 거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못을 박젠 아까 마께 헷잖아예? 마께도 종류가 ᄋᆞ라 가지우꽈?(나무 깎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못을 박으려고

아까 방망이 했잖아요? 방망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108035 #5 큰 거 작은 거. 못빼기도 잇어야 뒈고.(큰 거 작은 거. 못뽑이도 있어야 되고.)

108036 @ 아, 못빼기도 잇어야 뒈고. 그 다음엔?(아, 못뽑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108036 #5 끌.(끌.)

108036 @ 예, 끌. 끌 용돈 뭐우꽈?(예, 끌. 끌 용돈 뭡니까?)

108036 #5 파는 거. 구멍 파는 거.(파는 거. 구멍 파는 거.)

108037 @ 구멍 파는 거고예?(구멍 파는 거고요?)

108037 #5 대패.(대패.)

108037 @ 대패도 으라 질이지예?(대패도 여러 질이지요?)

108037 #5 여라 질이주. 그것이 숫자가 많주.(여러 질이지. 그것이 숫자가 많지.)

108037 @ 이름도 트납니까?(이름도 다릅니까?)

108037 #5 아니, 트나진 아녀.(아니, 다르진 않아.)

108037 @ 뚜나지는 안 하고. 아까 만약에 이 자도 곱은자 말고 다른 자도 잇수가?(다르지는 안 하고. 아까 만약에 이 자도 곱자 말고 다른 자도 있습니까?)

108037 #5 줄자도 잇주. 줄자.(줄자도 있지. 줄자.)

108037 @ 줄자.(줄자.)

108037 #5 줄자. 옛날은 그런 줄자는 없었는데, 옛날은 끄넷기 헤당 맞추와근에 써근에 저 그런 줄자는 이제사 나온 거고.(줄자. 옛날은 그런 줄자는 없었는데, 옛날은 끈 해다가 맞춰서 써서 저 그런 줄자는 이제야 나온 거고.)

108037 #5 자구 중에도 큰자귀도 작은자귀 그런 것도 잇는데, 에 큰자귀엔 헌 건 춤 이 양반네 집의 지금 싯젠 헤신가.(자귀 중에도 큰자귀도 작은자귀 그런 것도 있는데, 에 큰자귀라고 한 건 참 이 양반네 집에 지금 있다고 했는가.)

108037 @ 예.(예.)

108037 #5 그런 것이 잇고. 요 중간에 곱은자귀[350]라고 헤서 요렇게 헌 것이 또 큰 것이 나오고.(그런 것이 있고. 요 중간에 '곱은자귀'라고 해서 요렇게 한 것이 또 큰 것이 나오고.)

108037 @ 곱은자귀 안으로 곱아진 거예?('곱은자귀' 안으로 곱아진 거요?)

108037 #5 손자귀는 작은 거고 요만인 헤서.(손자귀는 작은 거고 요만큼 해서.)

108037 @ 음, 손자귀 톡톡. 손자귀렌 허고. 벌써 봅서. 자귀도 세 개가 나와신게예?(음, 손자귀 톡톡. 손자귀라고 하고. 벌써 보십시오. 자귀도 세 개가 나왔는데요?)

108039 @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아까 이제 벽들 발랏지, 고데흑 허영 올리기도 하고. 고대헐 때는 손으로 그냥 헷지예.(예,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아까 이제 벽들 발랐지, 새우 해서 올리기도 하고. 새우 할 때는 손으로 그냥 했지요?)

350) '곱은자귀'는 자귀의 일종이다.

108039 #5 옛날은 손으로.(옛날은 손으로.)

108039 @ 손으로 하고, 이런 벽 발를 때는 어떵 헷수가?(손으로 하고, 이런 벽 바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8039 #5 벽 바르는 것도 다 손으로.(벽 바르는 것도 다 손으로.)

108039 @ 손으로.(손으로.)

108039 #5 중간 쒜손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와서 발른 건디. 옛날은 바닥도 손으로만 헷어.(중간 쇠손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와서 바른 건데. 옛날은 바닥도 손으로만 했어.)

108039 @ 손으로만.(손으로만.)

108039 #5 손으로만 헤가지고 굳으면은 솟두껑, 솟뚜껑 가져서 밀엇거든.(손으로만 해가지고 굳으면 솥뚜껑, 솥뚜껑 가져서 밀었거든.)

108039 @ 솟뚜겅으로예? 요즘 쒜손도 종류가 읏라 개 아니우과?(솥뚜껑으로요? 요즘 쇠손도 종류가 여러 개 아닙니까?)

108039 #5 으, 읏라 개.(으, 여러 개.)

108039 @ 건 어떤 거 잇수가?(건 어떤 거 있습니까?)

108039 #1 것도 큰 거 잇고 작은 거 잇고 또 저.(것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또 저.)

108039 #1 각 보는 것도 잇고 무신거 게난.(각 보는 것도 있고 무엇 그러니까.)

108039 @ 옛날 낭으로 뭰 거도 이십디다.(옛날 나무로 된 거도 있습디다.)

108039 #5 건 나무손이라고 헌 건데.(건 나무손이라고 한 것인데.)

108039 @ 예.(예.)

108039 #5 이 귀야지 또 밀어가는 것이 잇고. 것도 여러 가진 여러 가진데. 미장이나 해야 이름 알까.(이 귀 또 밀어가는 것이 있고. 것도 여러 가진 여러 가진데. 미장이나 해야 이름 알까.)

108039 @ 목수허고 미장이는 또 틋난 거우꽈? (웃음). 게믄 그 나무손은 낭손헙니까? 여기서 낭손 용도허고 쒜손 용도하곤 어떵 틋나마씨?(목수하고 미장이는 또 다른 겁니까? (웃음). 그러면 그 나무손은 '낭손'합니까? 여기서. 나무손 용도하고 쇠손 용도하곤 어떻게 달라요?)

108039 #5 낭손은 거칠게 밀어가는 것은 그것이 쉬와. 쒜손보다. 여기 세멘이라도 많이 잇는 거 미는 것은 쒜손보다 나무손으로 미는 것이 쉬어. 또 평평허게 밀어지고. 경 헤서 나무손으로 먼저 밀어놩 나중에 저 매끈허게는 쒜손으로 미는 거고.(나무손은 거칠게 밀어가는 것은 그것이 쉬워. 쇠손보다. 여기 시멘트라도 많이 있는 거 미는 것은 쇠손보다 나무손으로 미는 것이 쉬워. 또 평평하게 밀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무손으로 먼저 밀어놓아서 나중에 저 매끈하게는 쇠손으로 미는 거고.)

108039 @ 예, 그러면 우리가 흑을 이렇게 받젠 허면 이 받는 건 뭐렌 헙니까?(예, 그러면 우리가 흙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이 받는 건 뭐라고 합니까?)

108039 #5 건 춤, 여기선 말론 흑판이라고 헤야 뒈는데.(건 참, 여기선 말론 흙

받기라고 해야 되는데.)

108039 @ 예.(예.)

108039 #1 흑판. 뭐 고데판이엔 허주.(흙받기. 뭐 '고데판'이라고 하지.)

108039 #5 고데판[351]이엔 헌 건 우리말이 아니잖여.('고데판'이라고 한 건 우리말이 아니잖아.)

108039 #1 우리말이 아니주.(우리말이 아니지.)

108039 @ 고데판 우리 우리말이우다. 그거.('고데판' 우리 우리말입니다. 그거.)

108039 #5 우리말이라.(우리말이야.)

108039 @ 예.(예.)

108039 #1 아닐 걸.(아닐 걸.)

108039 #5 게믄 고데[352]도 우리말이겟네.(그러면 '고데'도 우리말이겠네.)

108039 @ 고뎃흑 허잖우꽈? 고디 허는 거?(산자 하잖습니까? 산자 하는 거?)

108039 #1 아니, 아니, 흑고디허곤 틀려.(아니, 아니, 산자하곤 달라.)

108039 #5 고데가 저 쒜손이주게.('고데'가 저 쇠손이지.)

108039 @ 아, 기우꽈?(아, 그렇습니까?)

108039 #1 다니단에 그 말 들어봐실 거라. 낭, 낭손을 기고데[353]엔 헨 들어봐실 걸.(다니다가 그 말 들어봤을 거야. 나무, 나무손을 '기고데'라고 해서 들어봤을걸.)

108039 @ 아, 기고데렌 말은 안 들어봣수다.(아, '기고데'라는 말은 안 들어봤습니다.)

108039 #1 안 들어봔. 기렌 허는 건 낭.(안 들어봤어. '기'라고 하는 건 나무.)

108039 @ 기 낭. 고대가 이제 일본 말이구나. 그래서 고데판이구나. 아하, 고데흑허고 고데판허고 다른 거다예? 예, 알앗수다. 이제 그렇게 헤서 아까 삼춘 그리고 예, 아까 흑판이 맞이커라예? 삼춘, 그리고예, 예전에 이제 아까 축담은 얘기를 안 헷어예. 이제 하면 담을 다아얄 거 아니우꽈? 축담 그거 어떤 식으로 헷수가?('기' 나무. '고데'가 이제 일본말이구나. 그래서 '고데판'이구나. 아하, '고데흑'하고 '고데판'하고 다른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삼촌 그리고요, 아까 흙받기가 맞겠네요? 삼촌, 그리고요, 예전에 이제 아까 지대(址臺)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하면 담을 쌓아야할 거 아닙니까? 지대 그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8039 #5 옛날은 돌이 작은 걸로 헷어.(옛날은 돌이 작은 걸로 했어.)

108039 @ 음.(음.)

108039 #5 밑엔 큰 거 놓고 우에는 흑을 놓고 돌 싸고. 이렇게 헤서 쌓아올렷는데, 요 중간에 쪼갠 돌이 나오기 시작헌 다음에는 큰 돌 하나씩 놓멍 막 돌부터 먼저 쌓는데, 옛날은 전부 축 싸는 거는 돌.(밑엔 큰 거 놓고 위에는 흙을 놓고 돌 쌓고. 이렇게 해서 쌓아올렸는데, 요 중간에 쪼갠 돌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는 큰 돌

351) '고데판'은 '고데+판' 구성으로, '고데(こて)'는 '흙손'의 일본어이고, 판은 흙받기를 말한다.
352) 여기에서 '고데'는 '흙손'의 일본어다.
353) '기고데(きこで)'는 일본어 '기(き)'+'고데(こて)' 구성으로, '기'는 나무, '고데'는 쇠손을 말한다. 즉 나무손을 가리키는 일본어다.

하나씩 놓으면서 마지막 돌부터 먼저 쌓는데, 옛날은 전부 축 싸는 거는 돌.)

108039 @ 예.(예.)

108039 #5 흑 이렇게 헤서 쌓아 올린 거.(흙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린 거.)

108039 #1 이 흑을 놔도 흑을 뀌여야 놓니까.(이 흙을 놔도 흙을 이겨야 놓으니까.)

108039 @ 예.(예.)

108039 #1 뀔 때에 수셀[354] 잘 놔야 되.(이길 때에 '수세'를 잘 놔야 되어.)

108039 @ 예.(예.)

108039 #1 수셀 잘 놓면은 비가 저런 그 축담 밖으로 나강근에 허민 비가 맞아도 그 즉 말허민 저걸로 흘러내리질 아녀.('수세'를 잘 놓으면 비가 저런 그 지대 밖으로 나가서 하면 비가 맞아도 그 즉 말하면 저걸로 흘러내리질 않아.)

108039 @ 예.(예.)

108039 #1 수세가 잇어놓니까.('수세'가 있어놓으니까.)

108039 @ 예.(예.)

108039 #1 게난 산에 잇는 거나 나무 심어져서 산사태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그러니까 산에 있는 거나 나무 심어져서 산사태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

108039 @ 예.(예.)

108039 #1 그 역할을 수셀 잘 놓면.(그 역할을 '수세'를 잘 놓으면.)

108039 @ 음, 그러면 그 흑 뀔 때에 흑도 뀔 때 장관 아니우꽈예? 흑도 강은에 팡 와야 되고, 마당에서 이렇게 헤서 흑 뀌잖읍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헤영은에 뀌여낫수가?(음, 그러면 그 흙 이길 때에 흙도 이길 때 장관 아닙니까요? 흙도 가서 파서 와야 되고, 마당에서 이렇게 해서 흙 이기잖습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겼었습니까?)

108039 #5 옛날은 다 그 집안에서 허고.(옛날은 다 그 집안에서 하고.)

108039 @ 예.(예.)

108039 #5 마당에서.(마당에서.)

108039 @ 예, 마당에서?(예, 마당에서?)

108039 #5 그루후제는 또 좀 살아져가니까. 딴 디 흑 갖다 놩 이렇게도 헷는데.(그 이후에는 또 좀 살아져가니까. 딴 데 흙 갖다 놓아서 이렇게도 했는데.)

108039 @ 마당에서 헐 때는 어떵헙니까? 흑 뀔 때.(마당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흙 이길 때.)

108039 #5 흑 뀔 때.(흙 이길 때.)

108039 #5 소로 발려.(소로 밟아.)

108039 @ 소로 불렁예?(소로 밟는다고요?)

108039 #1 소로 불리는 것보단도 소로 갈아놩 일차. 흑을 영 만들어놩.(소로 밟

354) '수셀'은 '수세를'의 준말이다. 여기에서 '수세'는 벽에 바를 흙을 반죽할 때 흙이 잘 붙으라고 넣는 풀 따위를 말한다.

는 것보다도 소로 갈아놓아서 일차. 흙을 이렇게 만들어놓아서.)

108039 @ 아아, 잇는 자체를 다 쓴 거예?(아아, 있는 자체를 다 쓴 거요?)

108039 #5 여기 땅을 그대로 헐 때는 가는 것이고.(여기 땅을 그대로 할 때는 가는 것이고.)

108039 @ 갈앙 허고예?(갈아서 하고요?)

108039 #5 딴 딧 흑을 갖다 놓을 때는 그냥 골라만 놔서 허는 것이고.(딴 데 흙을 갖다 놓을 때는 그냥 골라만 놔서 하는 것이고.)

108039 @ 예, 그 다음 쉐 허여가지고 이렇게 이끄멍은에.(예, 그 다음 소 해가지고 이렇게 이끌면서.)

108039 #1 으.(으.)

108039 @1 사람 드는 거보단 쉐가 헤야 잘 볼라지난 쉐로 허는 거구나.(사람 드는 거보단 소가 해야 잘 밟아지니까 소로 하는 거구나.)

108039 #5 깊이 들어가니까.(깊이 들어가니까.)

108039 #1 무게가 잇으니까.(무게가 있으니까.)

108039 @ 음, 경 헤영은에 헷잖아예? 수세는 보통 뭘로 놧수가?(음,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수세'는 보통 뭐로 놨습니까?)

108039 #5 여기선 보리찝이 젤 만허니까 보리찍 논 거주.(여기선 보릿짚이 젤 많으니까 보릿짚 놓은 거지.)

108039 @ ᄀᆞ시락도 놓고.(까끄라기도 놓고.)

108039 #5 방 ᄀᆞ튼 거.(방 같은 거.)

108039 #1 ᄀᆞ시락은 퉤기 헐 때.(까끄라기는 외 할 때.)

108039 @ 축담헐 때는 그냥?(지대할 때는 그냥?)

108039 #1 보리낭.(보릿대.)

108039 @ 방 불릴 때는 ᄀᆞ시락허고.(방 밟을 때는 까끄라기하고.)

108039 #1 으.(으.)

108039 @ 그 저 그신새 같은 경우는 안 놔놧수가?(그 저 '그신새' 같은 경우는 안 놨었습니까?)

108039 #5 그신새[355]는 안 좋주, 안 좋아.('그신새'는 안 좋지, 안 좋아.)

108039 @ 아, 안 좋아마씨? 으.(아, 안 좋아요? 으.)

108039 #5 그신새는 흑이 잘 달라붙지 않거든.('그신새'는 흙이 잘 달라붙지 않거든.)

108039 @ 보릿낭이 젤 좋아.(보릿대가 젤 좋아.)

108039 #5 육지서는 나록찝을 놓는다고 허는데, 여기선 그런 거는 엇이니까.(육지서는 볏짚을 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선 그런 거는 없으니까.)

355) '그신새'는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그슨새', '기신새'라고 한다.

9. 신앙

109001 @ 집 짓젠 허면 제 지내거나 이렇게도 헙니까?(집 지으려고 하면 제 지내거나 이렇게도 합니까?)

109001 #1 토신제.(토신제.)

109001 @ 토신제를 헙니까? 토신제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토신제를 합니까? 토신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9001 #5 토신제는 거 사름 빌어야 허는 거. 허는 사름을.(토신제는 거 사람 빌려야 하는 거. 하는 사람을.)

109001 @ 음.(음.)

109001 #5 허는 사름을예?(하는 사람을요?)

109001 @ 집 짓젠 허면예?(집 지으려고 하면요?)

109001 #5 집 주인은 헐 수가 없고. 남을 빌어야 허는 거니까.(집 주인은 할 수가 없고. 남을 빌려야 하는 거니까.)

109001 #1 집주인도 허주만은 건 이 터에 이제 아무개가 집을 지을, 지어서 살라고 하니까, 토지지신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허영 거기 올령 절허는 거주.(집주인도 하지만 건 이 터에 이제 아무개가 집을 지을, 지어서 살라고 하니까, 토지지신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해서 거기 올려서 절하는 거지.)

109001 @ 토지신안테예? 그 부분에서 가신이옌 허는 거우과?(토지신한테요? 그 부분에서 가신이라고 하는 겁니까?)

109001 #1 가신이엔도 허는 거주.(가신이라고도 하는 거지.)

109002 @ 예, 예. 혹시 여기 집 짓어나면 성주도 허잖아예?(예, 예. 혹시 여기 집 지어나면 성주도 하잖아요?)

109002 #5 성주도 허지.(성주도 하지.)

109002 @ 예, 성주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예, 성주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109002 #5 게메, 그것도 다.(글세, 그것도 다.)

109002 #1 심방이나.(심방이나.)

109002 #5 심방 빌어당 허주.(심방 빌려다가 하지.)

109002 #1 심방이 알앙 허는 거라놓난 그건 무신.(심방이 알아서 하는 거여 놓으니까 그건 무슨.)

109002 #5 어떤 디선 시님 중도 데려단 허는 디도.(어떤 데선 스님 중도 데려다가 하는 데도.)

109002 #1 거기서 거기주게, 건.(거기서 거기지, 건.)

109002 @ 예, 그 다음에 성주는 성주 낸덴 헙니까? 어떤 식으로 뭐렌 헤낫수가? 혹시.(예, 그 다음에 성주는 성주 낸다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뭐라고 했었습니까? 혹시.)

109002 #1 성주풀이 혜사.(성주풀이 해야.)

109002 #5 성주풀이라고 그것이 맞은 말은 맞는 말인데.(성주풀이라고 그것이 맞은 말은 맞는 말인데.)

109002 @ 예.(예.)

109002 #5 성주 내려와. 성주 내려와 허거든.(성주 내려와. 성주 내려와 하거든.)

109002 @ 성주 내려왓젠 허지예?(성주 내려왔다고 하지요?)

109002 #1 성주 내려완. 그 집의 성주 내려완.(성주 내려왔어. 그 집에 성주 내려왔다.)

109003 @ 음, 그 다음에 혹시 제사헐 때라든가 문전에도 제사를 헙니까? 건 무신 제 헙니까?(음, 그 다음에 혹시 제사할 때라든가 문전에도 제사를 합니까? 건 무슨 제 합니까?)

109003 #1 문전제.(문전제.)

109003 #5 문전제라고 건 뭐 문전에 허는 거.(문전제라고 건 뭐 문전에 하는 거.)

109003 @ 제사할 때만 허는 거지예? 문전제 허는 거고.(제사할 때만 하는 거지요? 문전제 하는 거고.)

109003 #1 지금은 없어졋주마는 고팡에도 그대로 강 영 허영 제사 때나 뭐 명절 땐 헤여나고.(지금은 없어졌지만 고방에도 그대로 가서 이렇게 해서 제사 때나 뭐 명절 땐 했었고.)

109003 @ 아, 그 고팡에 허는 제는 무신 제 헙니까?(아, 그 고방에 하는 제는 무슨 제 합니까?)

109003 #1 아니 건 뭐 그게 제석이옌 헤여. 제석.(아니 건 뭐 그게 '제석'이라고 해. '제석'.)

109003 @ 제석, 아아. 안네.('제석', 아아. 안에.)

109003 #1 으, 안네.(으, 안에.)

109003 @ 그 안네 헌덴 헌 게 그게 아니라예? 고팡에. 꼭 제사하젠 허면 조상에 허고.(그 안에 한다고 한 게 그게 아닌가요? 고방에. 꼭 제사하려고 하면 조상에 하고.)

109003 #1 문제에 허고.(문제에 하고.)

109003 @ 그 다음에 고팡에 허곡.(그 다음에 고방에 하고.)

109003 # 으.(으.)

109004 @ 조왕에도 허지 아넘니까?(조왕에도 하지 않습니까?)

109004 #5 조왕에도 허여.(조왕에도 해.)

109004 #1 조왕엔 여기선 뚠 디선 어떻게 허는 줄 모르주만 별도로 조왕엔 허들 안허고 문전제 봐난 걸 가졍강근에게 거기서 떠놩.(조왕엔 여기선 다른 데선 어떻게 하는 줄 모르지만 별도로 조왕엔 하질 안하고 문전제 봤던 걸 가져가서 거기서 떠놓아서.)

109005 @ 아, 문전 헨 거를 또 조왕에 올리는 거라예? 떠놩예. 아, 그러면은 그 아까 고팡에 허는 그 안네 허는 게 칠성인가마씨?(아, 문전 한 거를 또 조왕에 올리는 거라고요? 떠놓아서요. 아, 그러면 그 아까 고방에 하는 그 안에 하는 게 칠성인가요?)

109005 #1 아니, 칠성 아니.(아니, 칠성 아니.)

109005 #5 칠성젠 따로 헷어.(칠성젠 따로 했어.)

109005 #1 따로덜 허주, 건.(따로들 하지, 건.)

109005 @ 아, 칠성젠 어떵 허여?(아, 칠성젠 어떻게 해?)

109005 #5 허는 집에 잇고 안 허는 집 잇으니까.(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 있으니까.)

109005 #1 매집읠 허들 안 허여.(매집에 하지를 않아.)

109005 @ 아아, 삼춘네는 안 헤보고. 어, 어.(아아, 삼촌네는 안 해보고. 어, 어.)

109005 #1 도련도 무신 혼두 집에 불과헷주.(도련도 무슨 한두 집에 불과했지.)

109005 @ 아, 칠성허는 거는예? 그 칠성은 안에서 헙니까? 밖에서 헙니까?(아, 칠성하는 거는요? 그 칠성은 안에서 합니까? 밖에서 합니까?)

109005 #1 마당에서.(마당에서.)

109005 #5 마당에서 주로 허주.(마당에서 주로 하지.)

109005 #1 크게. 굿 심방허영 크게.(크게. 굿 심방해서 크게.)

109005 @ ᄂᆞ래미 허영 이렇게 주지 세우는 딘 엇어마씨? 모시는 거?(이엉 해서 이렇게 주저리 세우는 덴 없어요? 모시는 거?)

109005 #5 그 옛날에는 잇어낫는디.(그 옛날에는 있었었는데.)

109005 #1 뒤칫할망[356], 뒷칫할망.('뒤칫할망', '뒷칫할망'.)

109005 @ 으.(으.)

109005 #1 뒷칫할망 그 옛날덜은 그런 집덜 것도 많이 헤낫어. 견디 지금은 별로.('뒷칫할망' 그 옛날들은 그런 집들 것도 많이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별로.)

109005 @ 삼춘네는 허긴 헤낫잖우과?(삼촌네는 하긴 했잖습니까?)

109005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9005 @ 아니 헤봔? 그게 뒷칫할망.(아니 해봤어? 그게 '뒷칫할망'.)

109005 #1 뒤칫할망.('뒤칫할망'.)

109005 @ 칠성이 뒷칫할망 같애.(칠성[357]이 '뒷칫할망' 같아.)

109005 #5 상*이네 집의 헤낫어게.(상*이네 집에 했었어.)

109005 @ 삼양에서 어떤 데 보면 ᄂᆞ래미 헤갖고.(삼양에서 어떤 데 보면 이엉 해갖고.)

109005 #1 주젱이 건.(주저리 건.)

109005 @ 주젱이예, 주젱이 헹 더펑은에 그 안에 뭣사 잇는지 모르주마는.(주저

356) '뒤칫할망'은 민간에서 가족의 안녕과 가내 평안을 위해 집 뒤에 모시는 신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칠성신'이라고도 한다.

357) '칠성'은 민간에서 '뱀신'을 일컫는 말이다.

리요, 주저리 해서 덮어서 그 안에 뭐야 있는지 모르지만.)

109005 #1 그, 저. 기왈. 암키와 흔 장 수키와 흔 장 헌덴 허는디 건 무슨 말인고 허민 기와가 옛날 집에 기완 저런 기와가 아니라.(그, 저. 기왈. 암키와 한 장 수키와 한 장 한다고 하는데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기와가 옛날 집에 기완 저런 기와가 아니야.)

109005 @ 예.(예.)

109005 #1 이렇게 요렇게 휜 거거든.(이렇게 요렇게 휜 거거든.)

109005 @ 예.(예.)

109005 #1 이런 거 다시 또 요영 허민 또 더펑 이 우에 건 수키와.(이런 거 다시 또 요렇게 하면 또 덮어서 이 위에 건 수키와.)

109005 @ 예.(예.)

109005 #1 아래 건 암키와.(아래 건 암키와.)

109005 @ 예.(예.)

109005 #1 그거 갖당 어퍼놩근에 그디 저 뭐 모셔낫젠 허주.(그거 갖다가 엎어놔서 거기 저 뭐 모셨었다고 하지.)

109005 @ 음.(음.)

109005 #1 그 경 헤영 우의 주젱이 씌왕근에.(그 그렇게 해서 위에 주저리 씌워서.)

109005 @ 주젱이 씌왕예? 그 기와에 뭐 놓는 거는 모르고?(주저리 씌워서요? 그 기와에 뭐 놓는 거는 모르고?)

109005 #1 모르고 건.(모르고 건.)

109005 @ 예. ** 제 지낼 때는 가졍 놤실 테주예?(예. ** 제 지낼 때는 가져서 놓고 있을 테지요?)

109005 #1 그건 꼭 저 고팡 헤, 그걸 헤당은에 꼭 그디 거 떠다놩 거기 가져간.(그건 꼭 저 고방 해, 그걸 해다가 꼭 거기 거 떠다놓아서 거기 가져갔어.)

109005 @ 아아, 고팡에 거를 가져가고. 문전 헤난 거는 조왕에 이제 올리고. 예, 알앗수다. 잠깐만 쉬영 다른 걸 물어보쿠다예.(아아, 고방에 거를 가져가고. 문전 했던 거는 조왕에 이제 올리고.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쉬어서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

발행인 박찬식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